

2020 근현대 구술채록사업

충남,  
잊혀진  
시간을  
말하다

2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 인터뷰 및 채록에 참여하신 분들

천안동남구문화원	김현정, 이형우, 김하영
천안서북구문화원	이정우, 김세관, 김용순, 이종배
공주문화원	이결재, 임장묵, 이해정, 최병숙
보령문화원	황의호, 임명검
온양문화원	오원근, 정종미
서산문화원	홍태한, 서유석
논산문화원	박용신, 이선경
당진문화원	윤성의, 장수덕, 박찬렬, 남기은, 김남석, 노용민
금산문화원	박광수, 장정변, 최우진
부여문화원	오문선, 라연재
서천문화원	유승광, 노영미, 전형진
청양문화원	이결재, 김민수
홍성문화원	유환동, 김정현
예산문화원	박광수, 강재현, 강희진, 민수희, 손정희, 김형애, 김영숙
태안문화원	정낙추, 김명식, 오희수, 손민선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김조연, 강주진

2020 근현대 구술채록사업

충남, 잊혀진 시간을 말하다

2

## 일러두기

이 책은 '2020 충청남도 근현대 구술채록사업'을 통해 만난 194인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다. 각 시군에서 고연령층 10인 이상의 구술자를 선정해 인터뷰를 진행하고 모든 대화를 채록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짧은 글을 구성하였다.

구술자는 모두 광복 이후 전쟁과 폐허 속의 국가 재건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숨 가쁜 삶을 일구어 온 토박이들이다. 평생 고향을 지킨 이들은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며 가정을 일구었고, 어려운 형편에 좌절하지 않고 재능을 살려 삶을 개척하였다. 이들은 동시대를 살아왔지만 모두 다른 경험을 가지고 지나온 시간을 증언한다.

- ※ 책의 수록 순서는 행정구역의 순서에 따라 천안시부터 태안군까지 15개 시군별로 나누고, 구술자는 채록 순임
- ※ 각 시군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제를 기획하고, 그에 적합한 구술자를 모집하여 인터뷰 하였음
- ※ 역사, 민속, 향토 등 각 분야 전문가가 구술자 면담 후 본 책자의 원고를 작성함
- ※ 구술자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사실과 다를 수 있음

2020 근현대 구술채록사업

# 충남, 잊혀진 시간을 말하다

2

## 발간사

우리는 잊혀지고 사라져가는 지역향토문화의 자료, 사료를 발굴·보존하고, 후세에 계승발전 시켜나가기 위해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남문화원연합회와 충남도내 15개 지방문화원에서는 이 같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선조들의 열이 담긴 지역의 향토사료를 발굴,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근·현대 구술채록사업을 올해까지 2년째 진행하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대(近代)는 일반적으로 대한제국부터 일제강점기까지를, 현대(現代)는 광복이후 지금까지의 시기를 뜻합니다. 따라서 근·현대사라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대략 130여년 전후에 일어났던 우리나라의 역사를 칭하는 말이 됩니다.

30년을 1세대로 본다면 4대(부모-조-증조-고조)에 해당하는 세월입니다. 즉, 부모(父母)에서 고조(古祖)때까지 제사를 모시고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며 지난 그시절 이야기를 듣는다고 가정하였을 때, 서로 이해가 되는 가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근현대사는 지금 아니면 곧 잊혀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근·현대 구술채록사업>은 충남지역에 있는 아련하고도 다양한 이야기,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는 이야기들을 세세하게 미주알 고주알 채록하여 후세에 기록으로 남기는 매우 뜻깊은 작업입니다.

이 사업은 충남도내 15개 지방문화원이 자율적으로 주제를 설정하여, 지역에서 채록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세월에 의해 사라져가는 역사문화적 사건들을 녹취하여 글로 옮겨적는 아주 고된 작업의 연속입니다.

다행히, 우리 충남의 문화원장님들께서는 영상으로 촬영, 편집해 보존하는 향토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화원의 발굴이라는 엄중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올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근현대 구술채록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거의 모든 문화사업이 초토화되는 상황에서 이 사업만큼은 지켜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끝까지 고수해주신 각 문화원 사무직원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충남, 잊혀진 시간을 말하다-②편’은 작년에 이어 각 문화원들의 방대한 녹취록 중 각 이야기의 줄거리 격인 ‘스토리텔링’만을 편집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만 읽어보아도 전체 맥락과 흐름이 잡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읽으시다가 혹시 세부 내용이 궁금하신 독자가 있으시면, 각 문화원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밝혔듯이, 근현대 구술채록사업은 우리 충남문화원연합회와 충남의 모든 문화원이 역량을 모아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뜻깊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원만한 성공을 위해 우리 문화원 가족들께서 끝까지 힘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충청도와 도내 시군의 지속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2020년 ‘근·현대 구술채록사업’에 참여하신 구술자, 면담자, 촬영·편집·녹취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알찬내용으로 만나뵙길 희망합니다.

충남문화원연합회는 문화를 통해 충청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문화로 행복한 충남, 살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충남문화원연합회장 **유 환 동**

## 축 사

구술채록(口述採錄)은 우리 고장의 풍토와 선인들의 구체적 삶이 스며든 영상과 음성입니다. 문헌은 정태적이고 전문적이어서 우리 향토의 문화와 지역민이 살아온 삶의 서사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의 삶 속에 켜켜이 쌓인 인문과 역사, 문화를 구술로 채록하여 그 현장성과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은 단순한 기록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2020년 충남은 16건의 무형의 기억과 경험, 지식을 스토리텔링의 형식으로 담아냈습니다. 수차례의 사전연구와 사전면담, 구술면담, 녹음, 영상기록, 사진기록 등의 과정을 거쳐 마을사, 소금문화, 장터문화, 특산물이야기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온 몸으로 마주한 평범한 사람들의 표정과 목소리를 통해 우리는 당시의 풍습과 사회상을 본바탕 그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근현대를 살아온 지역 원로들의 생생한 증언은 우리 문화의 자부심을 키우고 충남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든든한 뿌리가 될 것입니다.



충청남도는 백제의 역사와 기호유교의 전통, 그리고 내포 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더 많은 도민의 목소리가 충남의 역사와 문화를 당당히 웅변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여 도민의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도민의 삶 곁에 있는 향토문화를 소중히 기억하고 간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는 15개 시군 문화원의 힘이 컸습니다.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향토 민속자원의 발굴과 보존을 위해 애쓰고 계신 시군 문화원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살아있는 충남의 역사와 문화를 위해 흔쾌히 채록에 응해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충청남도지사 **양승조**

## 축 사

「충남 근현대 구술채록집 발간」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220만 도민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지역 문화발전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해주신 양승조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현장 채록에 정성을 다해주신 문화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생업에 종사하시며 우리 지역의 생생한 역사를 담아내는 구술 채록에 흔쾌히 응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근현대사는 국권피탈·독립운동·전쟁·경제개발·민주화로 이어지는 역동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충남에서 살아왔고 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그 자체가 역사이며 살아 움직이는 증거입니다.

지금 충남의 문화·산업·생활은 이런 노력 속에서 일궈낸 결과이며, 우리는 눈부신 변화의 현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구술채록은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강물을 건너간 충남도민의 생생한 역사입니다. 더 늦으면 사라질 수도 있는 소중한 유산을 기록화 함으로써 겪어왔고 만들어온 역사를 후손들

도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E.H.Carr)’라는 말처럼,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미래를 만드는 힘입니다. 더 늦기 전에 지역 원로들의 생생한 역사를 문화자원으로 정립하고 바로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현대를 살아온 충남도민들의 생생한 증언은 충남의 역사를 만들고, 나아가 충남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충남의 각 문화원은 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특히 전통문화계승·발전과 향토민속자원의 발굴 및 보존을 위해 부단히 애써왔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충남의 역사를 만드는 사업에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충남문화원연합회와 충남문화가족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0년 12월

충청남도의회 의장 **김명선**

발간사 · 4

축사 · 6

축사 · 8

### 천안동남구 우리지역 오래된 다방을 찾아 옛 생활상을 담다

병천면의 지킴이! · 16 딸 부잣집의 막내 딸 · 20 음악을 사랑했던 소년, 아직도 그 마음 현재 진행 중 · 24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는 캔디, 그 이름 강규임 · 29 내게는 아버지였던 어머니와 한국 농구의 아버지였던 우리 아버지 · 35 화려한 스펙의 소유자 · 41 축산업의 꿈을 키웠던 철부지 소년 · 46 책 보다는 하루하루 즐기며 살았던 유년기 · 51 혼란 속에서도 곳곳했던 배움의 길 · 56 격세지감 속 다방 · 61

### 천안서북구 천안 금광이야기

성환 울금리 금광 이야기 · 68 화성관 이야기 · 73 천흥리 광산에 대한 단상 · 78 성환 금배 이야기 · 84 입장 양대리 광부 만세운동 · 90 입장지역 금광 이야기 · 96 일제의 천안지역 금광 침탈사 · 101 직산 사금 이야기 · 109 금 노다지 이야기 · 115 황금을 쫓는 사람들 · 121

### 공주시 공주 금강이야기

공주 금강의 마지막 어부 이제철 · 128 공주 금강의 마지막 사공 박태규 · 132 물고기의 천국 어천리 · 136 공주 금강의 조선소 마을 죽당리 · 140 사마산에 의지해 산 오동리 · 144 민속 예술의 마을 대학리 · 148 토정 이지함이 칭찬한 길지 견동리 · 152 구석기의 마을 석장리 · 156 금강 무역선(사업배)의 마을 운암리 · 160 선산 김씨의 씨족 마을 만수리 · 164 공주 최고의 민속예술 마을 검상동 · 168

## 보령시 보령의 바다

소금생산(소항리의 소금생산) • 174 김생산(보령 김 가공업의 역사) • 178 어업(웅천 완장포의 중선 어업) • 183 보령의 6.25(보령 경찰이 겪은 6.25) • 188 소금 생산(양항리의 육염(陸鹽) 생산) • 192 섬(송도의 생활) • 198 원홍주등육군상무사(元洪州等六郡商務社) • 203 셋개포구의 변화 • 209 녹도리 관내의 무인도서 이야기 • 214 웅천천변의 옛 생활 모습 • 220 호도의 생활 • 224 외연도의 생활 • 228

## 아산시 온천과 문화의 발자취

약수터(유황온천)가 없어진 건 도고온천의 역사가 없어진 것 • 234 활기 넘치던 도고온천(물탕) 체육시설 인프라로 되살리자 • 237 아산온천 탄생과 마을 이야기 • 241 온양 청주 온천탕과 더불어 함께 탄생한 은행나무길과 충무폴장 이야기 • 245 온양온천 목욕탕 최초로 남녀 1층 2층으로 나누어 운영한 삼보천 • 248 아산온천 설립 및 발전과정 • 251 신천탕의 설립과정 및 신천탕의 숨은 이야기 • 255 온양 최초의 민간온천탕인 신천탕 이야기 • 259 도고온천 발전과정과 현재의 모습 비교 • 262 온양온천과 함께 발전한 용문탕 이야기 • 265 도고온천 유황온천의 미래는 한방 보양온천 • 268

## 서산시 서산의 포구와 파시

오문강 포구 이야기 • 272 서산 해미면의 포구들 • 276 명천 포구 이야기 • 280 산수강 포구 이야기 • 285 사기리 포구 이야기 • 289 창리 포구 이야기 • 294 봉생 포구 이야기 • 299 덕지천 포구 이야기 • 303 무장리 포구 이야기 • 307 노라포 이야기 • 311 굴양식 이야기 • 315

## 논산시 논산지역의 문화예술인

논산전통 예술 발전의 길라잡이 • 322 경서를 연구하며 이룩한 서예의 대가 • 327 그림으로 빛나는 인생 • 332 논산 문학 발전의 견인차 • 337 논산 미술 발전의 선구자 • 342 종이로 꽃 피운 인생 • 347 서예에 인생을 걸다 • 351 삶의 소리를 품다 • 355 논산 문화 발전의 산증인 • 359 논산에 연극의 뿌리를 내리다 • 364 사진은 인내와 열정의 예술 • 368

## 계룡시 계룡의 옛 길과 옛 지명 이야기

두계리 아랫장터 소문난 두부집 • 374 장고개 연대기 • 379 광김 종손의 애환 ‘고생도 역사’ • 384 안산 밀 독심 좋은 동네해결사 • 389 왕대리 은동마을 박선생 • 394 신도안 옛 동산에 올라 • 399 대궐터 말강구네 막내딸 • 404 엄사리 산태미터 젊은 이장 • 409 나분들 착한 농부이야기 • 414 합한이 도련님들 • 419

## 당진시 당진 포구에서의 삶

삼교천 주변의 열민장과 화염(자염, 전오염, 육염)에 대한 기억을 말하다 • 426 삼교천의 변화와 함께한 범근내포 어업인의 삶 • 430 장고항에서 한 평생 배를 만든다 • 434 장고항의 실치잡이와 실치축제의 운영 • 438 바다가 육지가 된 당산리에서의 삶 • 442 오도의 과거와 현재 • 445 당진 채운포구에서의 삶 • 448 포구에서 농토로 간척된 해창포구 • 452 20세기 후반 한진포구의 변천 • 455 한진포구에서 염전사업과 나와 선대의 삶 • 458

## 금산군 금산 인삼이야기

19살에 삼농사를 시작하다 • 462 군 제대 후 인삼농사를 시작하다 • 466 형님들을 대신해서 가사를 도우며 인삼을 재배하다 • 471 장남의 이름으로! - 20살 무렵에 삼농사 시작하다 • 477 토마토를 금산에 알리라 • 482 내 적성에 안 맞아서 못하겠어 • 486 떠돌이 장사 • 490 여기 나올 때 보리쌀 두 말 갖고 나왔나, 서 말 갖고 나왔나 • 494 어렸을 때부터 가장이었다 • 498 맨 처음 시작한 것이 우리 회사였어요 • 503

## 부여군 부여 특산물 탄생과 변화 과정

새로운 기술로 최고의 수박을 가꾸다 • 510 토마토 농사로 일군 삶 • 515 전국에서 알아주는 딸기를 가꾸다 • 519 굿뜨래 멜론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뿌듯하다 • 524 효자 품종 애호박을 재배하다 • 529 관행에서 벗어난 새 영농법으로 취나물을 재배하다 • 533 양송이는 내가 살아 온 인생 • 538 표고 버섯을 키우는 만년 이장님 • 543 50년 간 우직하게 이어오는 밤 농사 • 549 고향으로 돌아와 구기자 농사에 새로운 농법을 적용하다 • 553 인생을 풍요롭게 해 준 밤 • 557 맥문동 농사가 제일 쉽다 • 561

## 서천군 서천 한산모시

울리에서 3대째 전통모시를 생산한 농민, 신춘섭 • 566 모시떡 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모시재배 농민, 이정규 • 569 국가무형문화재 한산모시짜기 기능보유자 제14호, 방연옥 • 572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한산모시짜기 기능보유자 제1호, 박미옥 • 575 모시 유통을 담당한 보부상의 후손, 나한백 • 578 서천 모시떡 산업의 선두 주자, 양만규 박진순 부부 • 581 한산모시짜기 유네스코 등재의 공로자, 오천환 • 585 한산모시문화제 정착 과정의 산증인, 박수환 • 588 충남 무형문화재 제13호 저산팔음길쌈놀이 기능보유자, 홍경자 • 592 충남무형문화재 제52호 한산모시 베풀장 기능보유자, 윤주열 • 596 생산자 중심의 모시 유통을 이끈 한산모시조합장, 임은순 • 599

##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의 '갈대(달대) 후리는 소리'

금강 변 농사짓기 • 604 12개의 마을 고사를 함께 지내며 • 608 풍장은 울리고 민요는 부르고 • 613 인양리의 갈대(달대) 후리기 이야기 • 618 왕진 용신제를 지켜온 사람들 • 622 앓은 경(국)으로 동네 고사를 올리고 • 626 설화와 배종사의 마을 중산리 • 630 일사정이 아름다운 천내리 • 635 명덕산의 품에서 사는 사람들 • 639 인양리의 갈대(달대) 후리기 재현 • 643

## 홍성군 홍성의 옛 장터

우리고장의 사라진 옛 장시 화양장터를 찾아서 • **648** 우리고장의 사라진 옛 장시 송풍장터를 찾아서 • **652** 우리고장의 사라진 옛 장시 반계장터를 찾아서 • **656** 우리고장의 사라진 옛 장시 금당장터를 찾아서 • **660** 우리고장의 사라진 옛 장시 광천 구장터를 찾아서 • **663** 우리고장의 사라진 옛 장시 구항장터를 찾아서 • **667** 우리고장의 사라진 옛 장시 백야장터를 찾아서 • **671** 우리고장의 사라진 옛 장시 용호장터를 찾아서 • **675** 우리고장의 사라진 옛 장시 결성장터를 찾아서 • **679** 우리고장의 사라진 옛 장시 홍주장터를 찾아서 • **683**

## 예산군 전통민속신앙

예산지역 민속신앙과 무속인(巫俗人) 한창흠(1948년생) • **688** 예산지역 민속신앙과 무속인(巫俗人) 장수일(1950년도) • **693** 예산지역 민속신앙과 무속인(巫俗人) 박원옥(1954년생) • **697** 예산지역 민속신앙과 무속인(巫俗人) 곽순자(1965년생) • **701** 예산지역 민속신앙과 무속인(巫俗人) 유화용(1957년생) • **706** 예산지역 민속신앙과 무속인(巫俗人) 한미순(1962년생) • **710** 예산지역 민속신앙과 무속인(巫俗人) 김경옥(1952년생) • **715** 예산지역 민속신앙과 무속인(巫俗人) 김명수(1951년생) • **720** 예산지역 민속신앙과 무속인(巫俗人) 문한숙(1970년생) • **725** 예산지역 민속신앙과 무속인(巫俗人) 김태정(1967년생) • **730**

## 태안군 지역의 전통 소금문화와 음식문화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염전 • **736** 태안군 안면읍 정당리 화성사 염전 • **740** 태안군 남면 신온리 염전 • **745**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염전 • **749** 태안군 남면 진산리 염전 • **752** 태안군 남면 신온리 의성염전 • **756** 태안군 남면 당암리 염전 • **760** 태안군 근흥면 마금리 염전 • **763** 태안군 이원면 솔향기 염전 • **767** 태안군 이원면 포지리 염전 • **771** 태안군 안면읍 승연리 염전 • **775**



# 천안동남구

## 우리지역 오래된 다방을 찾아 옛 생활상을 담다

병천면의 지킴이!	16
딸 부잣집의 막내 딸	20
음악을 사랑했던 소년, 아직도 그 마음 현재 진행 중	24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는 캔디, 그 이름 강규임	29
내게는 아버지였던 어머니와 한국 농구의 아버지였던 우리 아버지	35
화려한 스펙의 소유자	41
축산업의 꿈을 키웠던 철부지 소년	46
책보다는 하루하루 즐기며 살았던 유년기	51
혼란 속에서도 꺾끗했던 배움의 길	56
격세지감 속 다방	61

●  
**병천면의  
지킴이!**



**황규민** (1946년생)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엄격한 장난꾸러기**

적극적이며 협조적이다. 우리 문화원 회원이다.

작년 구술 주제 관련 인터뷰에 이어서, 올해 2020년도 구술 주제에 관심을 보이시며 구술자 인터뷰에 신청해 주셨다. 두 해 연속 옛 이야기를 들려주신 유일무이한 구술자 황규민 선생이다.

키가 크고 건장한 풍채를 아직도 갖추고 있는 황규민 선생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 과거로 돌아가 보았다.

먼저, 이 말이 와 닿는다. 항상 가슴 깊이 남아있다. 그리고 머릿속에 또렷이 박혀있다.

그 말은 어머니 말씀, “아부지 없는 후례자식 소리는 듣지 말면서 살거라.”

그렇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다. 황규민 선생이 8세 시절 아버지께서는 목천면 응원리에

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면의원이셨던 아버지, 그리고 남편 없이 ‘혈혈단신’이셨지만 강인하신 어머니 밑에서 황규민 선생은 5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다.

누님이 둘, 여동생 하나, 남동생 하나, 그리고 8세밖에 안 된 본인을 남겨두고, 아버지는 떠나셨다.

하지만 어머니는 강인하신 분이였다. 모친은 조상님 얼굴에 먹칠하면 안 된다고 5남매에게 인성교육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셨다.

5남매는 그 혼한 말썽 한 번 피우지 않았다. 그 중 황규민 선생은 제일 개구지고 성격도 사나웠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8세에서 멈추었지만, 본인은 부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자신이 유년기 시절인 5-6세 때, 아버지는 청년운동을 하시면서 병천면 출신의 독립운동가 조병옥 박사와도 친분을 가졌다고 한다. 그 분 집 마당에서 뛰어놀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고. 추후에는 황규민 선생도 부친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로서 매우 유사한 길을 걸어가게 된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천안시의회 의원이 되어 병천면 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 병천면의 지킴이!

황규민 선생은 자신의 규민이라는 이름과 비슷한 직업이 장래희망이었고 꿈이었다고 한다.

무얼까 고민해보자. 정답은 군인. 국방의 의무를 다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특히나 우리나라와 같이 아직까지 분단되어 북한과 정전 상태인 국가에서, 자신을 희생하는 군인이라는 신분은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군인이 되지 못했다. 아니, 꿈을 꾸다가 가족들의 반대에 꿈을 접어버렸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셋째로 태어났지만, 집안의 장남 노릇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었고, 그 당시만 해도 군인은 위험한 직업군이었기 때문에 홀어머니와 형제들이 완강히 반대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황선생은 우리 5남매를 키우며 고생하신 어머니를 위해 살아야지라고 마음먹었다. 그리고 황선생의 형제들도 책임져야 하는 책임감도 막중하였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다양한 일을 했다. 중장비(불도져, 포크레인)사업, 금광사업, 골재사업,

건축자재 사업 등 돈도 많이 벌고, 많이 까먹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좀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나중은 부친과 같은 길을 갔다.

황선생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이 되지는 못했지만, 내가 사는 이곳 병천면을 지키는 ‘지역사회의 군인’, ‘내 고향 병천면의 지킴이’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지역발전을 위해 발로 뛰고 더 좋은 마을로 만들려고 애썼다. 좋은 것이 있으면 만들고, 좋지 않은 것은 밀어내려 했다. 한 나라의 군인처럼 병천면을 좋은 지역으로, 좋은 동네로 만들려고 부단히도 노력했고 앞장섰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쉬움도 없다. 보람된 인생이었다.

### 사람과 사람과의 장소, 그곳, 다방

황선생의 병천고등학교 재학시절, 호기심 많은 학생시절에 다방을 처음 들어가 봤다. 그곳은 ‘삼양다방’이었다. 이곳은 병천면 지역 내 두번째로 생겨난 다방이었다. 고등학교 친구의 친형이 운영하던 학생 출입금지 다방을 고등학교 재학시절에 처음 접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병천면에 처음 생긴 다방은 ‘길다방’이라는 곳이다. 지금부터 65년 전에 생겼었다. 원래는 술집이었는데 (일명 기생집) 업종 변경을 하면서, 커피와 차를 파는 다방으로 변모한 것이다.

그 시절 다방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많이 다르다. 그래서 다방과 관련된 생활상을 담아내려 주제로 정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황선생은 이야기를 계속 이어 나갔다. 그 시절 다방은 지역에 지식이 있고 잘사는 사람들만 다니던 곳이었다고. 공무원들이 지역민과 지역사회의 현안을 다루는 미팅을 하고, 타지에서 온 사람이 항상 사람을 기다리는 곳이라고 하였다.

게다가 다방을 운영하는 주인과 종업원들도 깔끔한 옷차림으로 다양한 사람을 응대하는 사교력과 언변을 갖추었고, 대부분 고등학교 학력 이상을 갖춘 사람들이 운영했었다고 한다.

그 당시에는 고졸이면 굉장히 높은 학력에 속했었으니 말이다. 그리고 남녀 간 이성의 만남은 무조건 이곳에서 이루어졌었다고 한다. 그만큼 우리의 다양한 생활상을 담아낸 장소라고 볼 수 있다.

그 안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수 만가지의 대화가 오고 간 역사의 공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방의 풍경 또한 지금 시대의 카페와 사뭇 다르다. 벽에는 그림 액자 몇 점이 걸려 있고, 탁자와 의자, 겨울에는 난로가 전체 공간 가운데 위치해 있었다. 내부 분위기를 살려주는 화분 몇 개와 그곳에서는 절대 빠질 수 없는 축음기, 그 안에서는 유행하는 가요음악과 팝송이 흘러나오는 모습, 그 시절 지금의 어르신들이 상기시키는 다방의 모습이다.

하지만 시대가 급변하고 산업화되면서 다방이라는 공간은 살아남기 위해 배달서비스를 도입하였고, 티켓다방이라는 오명까지 쓰게 된다. 자본주의 시대에 퇴폐적인 이미지가 지금 현대사회의 다방 모습으로 낙인찍힌 거 같아 많이 안타깝다고 한다.

수많은 현대식 카페(커피숍) 때문에 다방은 다시 예전과 같은 중흥을 이룰 수는 없겠지만, 아직까지 황규민 선생의 가슴 한 켠에는 자신이 살아온 일생 중 조그마한 일부라고 생각한다. 그곳에서의 추억과 기억은 쉽사리 잊혀 지지 않는 아련한 인생의 조각과 같지 않을까.

● 딸 부잣집의  
막내 딸

**김영심** (1951년생)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딸 부잣집의 막내 딸**

전남 목포가 고향인 김영심은 1남 6녀의 딸 부잣집의 막내딸로 태어났다.

아들을 낳지 못하면 쫓겨나던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어머니가 힘들어 하셨지만, 그런 어머님에게 많이 의지가 되셨던 분은 의외로 할머니셨다. 할머니께서 어머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고 묵묵한 기다림 끝에 바로 밑으로 남동생을 둘 수 있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아들을 보았지만, 바로 위에 오빠가 일찍 세상과 이별을 하는 탓에 밑에 남동생보다는 본인이 더욱 예쁨을 받고 자랐다고 한다.

목포에서의 어린 시절은 집에 머슴을 둘 정도로 부유하고 귀하게 자랐다. 하지만 엄격하신 아버지 탓에 밖에 잠깐만 나가도 소 깔 베는 애들을 시켜 찾아오라 했다. 그녀를 찾아 나온 아이들은 ‘누나, 아버지가 얼른 오래요.’라고 했을 정도로 무서워서 제대로 나다니지

도 못했다고 한다. 지금은 형제들끼리 모이면 그것도 다 교육이었을 텐데, 아버지께서는 왜 그렇게 무섭게 하셨나 하며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곤 한다.

그렇게 자식들에게 엄격하셨지만 자식을 아끼는 마음이 크셨던 아버지께서 중학교 무렵에 혈압으로 쓰러지시게 되었다. 그 바람에 다니던 중학교를 중퇴하고, 아버지의 똥·오줌을 받아내며 무려 6년간 병상생활을 했다.

아버지께서는 끝내 작고하셨고 학교를 그만 둘 수밖에 없었다. 배움에 목말라 하던 차에 언니들이 뭐라도 배워보란 권유에 미용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 때만 해도 집에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미용실을 차려 처음에는 미용사를 두고 하다가, 나중에는 직접 배워서 종업원을 두고 할 정도로 실력을 쌓아 나갔다.

그렇게 스무 살이 넘어서 시작된 미용 일을 오래 하다 남편을 중매로 만나 천안으로 오게 되었다. 학교 서무과에서 일했던 남편은 간경화로 지금은 세상에 없지만 남편은 항상 주관 있고 소신 있던 사람이었다. 종종 딸들은 “엄마, 그거 미용실 오래, 지금까지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라며 아쉬움을 내비친다.

### 우연이 아닌 운명, 명보다방

우연찮게 중매로 천안에 거주하는 남편을 만나 이곳으로 시집을 오게 되어 살다 보니, 자연스레 사람들도 만나고 여기 다방 와서 차 한 잔 씩 마시고, 그러다보니 비슷한 나이 대의 다방 주인과도 친분을 쌓을 수 있었다. 그 다방 주인이 여기 인수하면 어떠냐고 제안을 하길래 “내가 해본다.”고 선뜻 다방 인수를 결정했다. 천안으로 이주하여 아무 경험도 없이 처음으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 지금 이 다방, 명보다방이다. 우연이 아닌 운명이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1985년부터 시작한 다방이었다.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미 상기 되어 있는 얼굴이다. 개업할 때만 해도 지금과는 다른 성황을 누리며 시작한 다방이었다. 그 시절 다방은 만남의 장소였고,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사랑방 같은 공간, 설레며 각기 다른 인생으로 꽉 찬 공간으로 회자되는 모양이다.

1985년 그 시절로 돌아가 보았다. 그 당시에는 옛 천안시청 주변이었고, 역 주변 그리고 그 당시 핫 플레이스였던 천안의 명동거리가 다방 근처에 있었다.

영업을 6시에 시작해서 마감을 11시에 했다. 그 당시 다방 바로 앞에 천안 양조장이 있었

다. 술 받으러 온 사람들, 술 주러 온 사람들이 와서, 새벽 4시에 문을 두드리기 일쑤였다. 그러면 집에 가서 잠을 잘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게 식전에 한 30~40잔을 팔았다. 그리고 개인택시 기사님들이 바로 앞집에 메밀집에서 아침 식사를 하시고 들르시고 시청 직원들은 11시 반쯤, 그리고 다시 개인택시 기사님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들렀다. 오후에는 시청에 볼 일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붐비는 시간이었다.

늘 배달을 다니느라 바빠졌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선불을 받기도 했다. 그 당시 근처에 한 마음 예식장, 아카데미 예식장, 한일 예식장, 신희에서도 예식을 봤었다. 그 예식을 보고 기다리는 손님들을 비롯하여 사람들로 다방 안이 가득 찼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11시만 되면 꺼줘야 했다. 텔레비전을 보느라고 다들 앉아 계시는 일이 많다 보니 일부러 텔레비전이 고장났다고 하기 일쑤였다.

기억에 남는 광경으로는 신부가 들어 된 사람이 있었다. 옛 애인의 결혼식인줄 알고 옷 입고 와서 여기서 함도 팔고 예식장으로 올라갔는데, 신부가 들어 되어 자기들끼리 난리가 난 적이 있었다. 어느 날은 식당에서 딸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바쁘게 일하고 있었는데, 단골 분이 우리 딸을 안고 와서 딸 잃어버렸던 것도 그제야 알았던 적도 있었다.

평일에는 시청에 볼 일 보러 온 사람들도 많았다. 그 때만 해도 타자를 치고 서류를 수기로 작성했으나 손님들이 필요한 서류를 떼려면 시청에 접수를 해놓고 와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주말에는 예식장이 근처에 있어 예식이 있거나 피로연을 하면 그렇게 붐볐다. 다방에서 함을 팔기도 했다.

개업 할 당시 메뉴는 커피나 차 종류를 팔았고 지금도 그렇게 팔고 있다. 그 당시 식전 모닝커피라는 메뉴가 있었는데 모닝커피에 참기름을 조금 뿌려주는 것이 비법이라고 한다. 블랙커피나 프림커피, 커피에 계란 노른자도 하나씩 드리고 나중에는 스프도 끓여주었다. 스프를 식전에 작은 밥그릇에 무상으로 제공을 했다.

그 당시 커피는 150원 정도인데 쌍화차는 300원을 했을 정도로 비쌌다. 비싼 만큼 재료가 많이 들어가니 실속은 있는 편이었다. 프림 줌 넣고 계란 노른자, 후추, 생강, 땅콩, 대추, 깨 등 많은 재료가 들어가는 쌍화차는 선을 보러온 남·여 사이에서 커피보다도 단연 인기 메뉴로 꼽혔다고 한다. 특히나 여름철에는 냉커피를 선보였으며 냉장고 두 대에 얼음을 일일이 얼려가며 냉커피를 만들었을 만큼 성황을 누렸던 시기였다.



또 그 즈음 직원은 보통 아가씨 셋, 마담 하나를 두었고 마담은 한복을 입고 찻값, 외상값 같은 것을 책임지고 관리를 했다. 마담은 한복을 갖춰 입고 직원은 치마 아니면 정장 바지를 입고 선불을 받아 일을 많이 했다. 그 때는 일하는 것이 즐거움이자 생활이었다. 하지만 옛 시청 이전과 주변의 환경적인 문제로 성황 속에 발 디딜 곳 없었던 이 곳은, 지금은 홀로 운영을 하며 소소한 일상이 되었다.

### 레트로, 그 감성 그대로

그렇게 부흥했던 시간들은 흘러가고 지금은 홀로 명보다방을 지켜내고 있다. 옛 시청 건물 이 전하면서 조금씩 한가해지기 시작했다. 직원들을 둘 쓰다가, 하나 쓰다가, 밥 해주는 것도 힘들어서 홀로 시작한지 지금 10년이 넘어간다.

또한 일각에서 보는 다방에 대한 퇴폐적인 이미지를 지울 수 없고, 요즘 프렌차이즈 커피숍들 뿐 아니라 커피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자 보니, 자연스레 다방에 대한 관심이 하락한 이유가 아닐까 싶다. 예로 예전에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난 후 커피 배달을 시키는 일이 많았으나, 요즘은 커피 자판기 보급의 보편화로 사용의 빈도가 없으니 자연스레 멀어지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그리고 업무태만의 이유로 시청에서 다방의 출입을 금한 시기도 있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맞물리면서 하향의 길로 접어들지 않았나 생각된다.

하지만 몇 십 년 단골들이 있고 35년이 넘게 해온 일을 그만 둔다는 것이 쉽지 만은 않다. 딸들은 현대식 카페, 커피숍을 하라고 한다. 명보다방을 명보카페, 명보카페숍으로 바꾸라고 하는데 혼자 하는 일에 그렇게 큰 욕심은 없다.

내년 3월 뉴딜 사업을 통한 입주자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다방의 사랑방으로 재기를 노려본다. 그리고 요즘 불고 있는 레트로 열풍으로 복고 인테리어를 좋아해주는 요즘 세대에, 이런 올드한 다방이 희소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예전 것은 최대한 살리되 젊은 세대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는 다방을 이어간다면, 충분히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다방으로서의 맥을 이어가면 좋겠다.

큰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기 가득한 사랑방으로서, 만남의 장으로서 그렇게 이 공간이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다. 지금까지 다방을 해오면서 단 한 번도 하기 싫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만큼, 이 일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으로 다시 한 번 사람들의 정으로 꼭 참을 느낄 수 있길 기대해 본다.

●  
음악을  
사랑했던 소년,  
아직도 그 마음  
현재 진행 중



**채 희 철** (1955년생)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음악을 사랑했던 소년, 아직도 그 마음 현재진행 중**

청양에서 사시던 어머니와 공주에 사시던 아버님이 만나 결혼을 하여, 아산 신창면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3남 1녀의 집안에 채희철씨가 태어났다.

지금은 아흔이 넘어 요양원에 계시는 어머니이지만, 기억 한 켠 젊은 시절의 어머니는 항상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날 밝을 때 귀가하는 일이 없으실 정도로 밤늦게까지 밭일에 몰두 하셨다. 그러면서 “내가 저 밭고랑 하나를 더 매면 너희들 공책을 더 사줄 수 있는데” 하시던 어머니의 말씀이 아련하게 귓가에 맴돈다.

어머니의 저 입버릇 같았던 말씀이 오히려 채희철씨 3형제에게는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정말 이런 어머니 덕분이었을까. 신기하게도 아들들 모두 공부를 잘했다. 특히 형과 동생은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를 졸업한 수재였

다. 어린 시절 나름 시험을 잘 봐 반에서 3, 4등 정도를 해도, 형·동생이 워낙 잘하니 본인 등수는 티가 안날 정도였다고 한다. 신창, 오목리 그 작은 마을에서 천안으로 대전으로 중·고등학교를 보내고, 한 집에서 대학교 한 명 보내기도 힘든 일이었는데 3형제 모두 대학교 까지 졸업을 시켰다. 형제들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면사무소에 재직하시면서 농사도 지으셨던 아버님 덕에 경제적 여유와 자식을 위해 억척같은 삶을 살아오신 어머니의 희생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형과 동생에 비해 티도 안날만큼의 성적으로 본인은 공부에 흥미가 있다기보다 예술 쪽으로 눈을 돌렸던 것 같다. 어린 시절부터 고향집 바로 앞집에, 디스크자키 이종환씨를 보며 서울에서 그분을 따라온 가수와 배우들을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술계 쪽으로 꿈을 키워나갔지만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포기를 하게 된다.

그렇다고 공부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데 본의 아니게 경기도 대학교에 응시하였으나 떨어져 재수를 하게 된다. 재수를 하고 충남대학교 공과 대학을 입학하게 되었다. 전기과로 입학은 하였으나 군대 입대하고 제대하고 보니, 학교가 공과대학에서 공업교육대학으로 바뀌는 바람에 뜻하지 않게 교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음악인을 꿈꿨던 소년이 뜻하지 않게 교사가 되었다. 교편에 선 지 34년 이라는 긴 시간을 되돌아보니, 교직생활이야말로 후회스럽지 않은 삶을 걸어온 본인에게 천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다.

교직생활을 하면서 음악이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즐기고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답을 주듯, 담당과목은 기술과목이었으나 상황이 어찌어찌 흘러가면서 음악 교사를 한 2년 맡게 되었다. 음악인으로 가는 길은 포기했지만 결국은 돌고 돌아 음악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니, 인생 알 수 없는 것 같다. 그렇게 학교에서 음악 교사를 맡게 된 이후로 주로 풍물지도나 밴드부 지도를 맡게 되었다. 퇴직을 하고 나서도 음악의 끈을 이어와 실버악단에서 악장 겸 악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낭만시절, 20대의 그 청춘을 다방과 함께

누구나 인생의 황금기라 하면 단연 청춘, 젊은 시절이라고 말할 것이다. 채희철씨도 마찬가지다. 20대 때의 이야기를 하면서 눈빛이 달라지고 표정에서부터 느껴지는 설렘과 낭만이 있다. 그 시절 낭만은 또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

그의 낭만시절은 대학교 재수를 하면서부터 시작된다.

학생 신분으로는 빵집만 가도 정학을 맞았던 시절이었기에 중·고등학교를 다닐 땐 한 번의 일탈도 없는 모범적인 생활을 하던 모범생이었다. 그 시절에는 재수입시학원이 주로 서울에만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재수생활을 하고 있을 때 친구가 다방을 데리고 간 기억이 다방의 첫 기억이다. 처음은 언제나 그렇듯 설레고 떨리고 신선하기에 다방으로의 입문은 마치 다른 세상에 와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당시 다방도 부류가 나뉘었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가는 다방, 젊은 층들이 많이 가는 다방, 크게 두 부류로 나뉘었다. 어르신들이 많이 가는 다방은 주로 지하에, 젊은 층들이 가는 다방은 1층엔 거의 없고 2층에 주를 이뤘고 대부분 미팅 장소로 많이 애용됐다.

다방메뉴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커피를 먹으면서 커피에 달걀을 톡하고 넣어 먹었던 기억이 있다. 흔히들 쌍화탕에 많이 넣어먹었다고는 하나 커피에 달걀을 넣어먹었던 기억이 또렷하게 생각난다. 그리고 젊은 대학생들 중에 소위 잘나가는 학생들은 알코올이 있는, 소주는 아니고 칵테일 비슷한 것을 먹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시고 나가면서 50원짜리 동전 하나 딱 주고 나갔던 기억이 있다. 그 당시 썸, 거북이라는 담배가 500원 정도, 한산도라는 담배가 220원 정도 할 때였으니 그리 비싼 값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 시절 50원의 행복이었다. 어르신들이 주로 가는 다방에는 일하시는 분들이 한복을 입고 계셨고 밤이 되면 맥주나 술을 팔기도 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재수시절 자주 가던 다방은 친근한 정을 품고 있는 곳이었다. 도시락도 까먹고 커피도 먹고 담배도 필 수 있고 마땅하게 갈 곳 없던 청년들이 마음껏 놀 수 있던 놀이터 같은 공간이었다. 재수시절에는 마땅히 갈 곳 없어 갔던 곳이 다방이라면 대학교 입학 이후 다방의 출입은 물 만난 고기 같았다. 지금이야 커피숍이나 빵집이나 사람 만날 공간과 기회도 많고 남녀노소 출입이 가능한 곳들이 많아졌지만, 그 시절에는 다방 하면 대학가에서는 주로 미팅장소로 애용했고 미팅도 많이 해봤다.

어린 시절부터 동경해오던 음악인으로서의 삶을 다방에서 디스크자키를 하면서 마음껏 끼를 발산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내가 서있는 이곳이 무대라고 생각하고 LP판 퍼포먼스도 가미해가며 흥미로운 연예계의 뒷이야기로 입담을 과시하며 음악적 소통을 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다. 특히 하루 종일 와서 음악을 듣고 가시던 여자 두 분이 기억이 나

는데, 한분은 키도 크고 흰 옷에 백바지를 입고 오시고, 한분은 평범하게 오셔서 하루 종일 음악을 듣고 가고 그랬다. 그 때 디스크자키를 하면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이 담배, 쪽지, 연락처, 펜레터 등을 주고 갔던 기억이 있다.

그렇게 활기찬 신입생 시절과 파트타임으로 음악적 소통을 계속 이어나가던 중 군 입대와 제대를 거치면서 80년대 초 쯤 복학을 했다. 그 즈음부터 다방에 가는 빈도가 차츰 줄어들었던 것 같다. 약속장소로만 가는 정도였던 것 같다.

그리고 학교 졸업 후 처음 발령지가 제주도였는데 그 때는 다방에서 학부모님들을 주로 만났다. 학생들 일로 학부모 상담을 하면 으레 다방에서 만나 학생 상담을 하고 식사를 하러 갔으며 제주도 다방도 육지에 있는 다방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제주도에서 10년 정도 교직생활을 이어오다가 예산공고로 오면서부터는 다방으로 가는 발길이 더 뜸해지게 된 것 같다.

쉽이었던 공간이 잊힌다는 것은 서예, 악단장, 악기연주 등 오롯이 본인에게 집중할 수 있는 취미생활 덕분이자, 서서히 소통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럿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시절에는 다방이 소통의 공간이자 놀이의 공간으로 유일한 곳이지 않았을까 싶다.

### 소통과 공유의 장으로 이어지길

그에게 음악이란 분명 쉽 같은 존재다. 가끔 그는 본인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본다. ‘나에게 음악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그에 대한 답은 굉장히 무료한 삶을 살아왔을 것이라는 것이다. 음악으로 인해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삶 속에서 음악이 주는 재미를 온전히 느끼며 인생의 영감과 스스로 행복해 할 줄 알며 삶의 만족감을 높여가는 것 같다.

돌이켜보면 음악과 인생을 함께한 순간순간이 늘 즐거웠고 북적였고 소통이었다. 지금이야 커피숍이라 함은 거부감부터 들지만, 다방을 가면 공간이 주는 아늑함과 편안해지는 분위기에 농담 한마디 툭툭 내던질 수 있는 공간, 침을 선물 받았던 공간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그걸 살리고자 지역의 한두 군데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는 있지만 분위기 자체는 예전과 많이 다름이 느껴져 괴리감마저 든다.

그에게 다방이란 70년대 초반만 해도 텔레비전 보급이 많지 않았고 보는 문화가 적었던 시절이어서 지역민들의 대화의 장, 듣고 즐기는 소통의 장이었다. 80년대에는 젊은 세대들

의 만남의 장소와 포크송과 팝 음악이 어우러지면서 공유할 수 있었던 젊은 세대만의 독특한 세대문화를 창출해내는 공간이었다. 요즘은 개인적으로 듣는 음악으로 전체적으로 음악을 즐기질 않고 남에게 간섭받기 싫고 나만의 공간으로서 활용하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점들을 수용하면서 예전 세대에게는 향수를 자극하며, 경험해 보지 못한 지금 세대들에게는 신선함으로 다가오는 복고열풍, 뉴트로와 맞물리며 다방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 같다. 예전다방이라 함은 밝은 분위기보다는 지하의 어두운 분위기로 각인이 되어있어 인식 변화에 대한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 조명도 좀 밝고 따뜻한 느낌으로 시설물이나 인테리어도 고풍스러운 분위기로, 예전 70·80년대의 향수를 연출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하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날로그 감성들의 문화들이 사라지고 있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나 유에스비나 CD로 깨끗한 음질과 빠른 음악을 지향하는 전자적 음악이 많은데, 이런 음악도 좋지만 LP나 아날로그적인 음악을 공유할 수 있는 따뜻한 문화와 고전적인 분위기의 명맥을 이어가기가 힘들다는 부분은 커다란 숙제로 다가온다. LP뿐 아니라 그 단어 자체에서 주는 향수와 추억이 나를 그 시절, 그 공간으로 이동시켜주는 마법의 힘은 기억에서 오는 것이다. 기억은 오래 남는다. LP판으로 음악을 들으면 오랜 기억으로 남고 지루함도 없다. 매끄러운 전자음악은 조금만 들어도 금방 싫증이 나는데 LP는 매번 들어도 미세하게 굽히는 차이에서 들려오는 맛이 있다.

LP판의 추억이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존재하기에, 대화와 공유의 장으로 획일적이지 않고 개인적인 공간으로 다방과 커피숍이라는 공간이 모두의 공유와 대화의 장으로 남아주길 바라본다.

●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는 캔디,  
그 이름 강규임



**강규임** (1946년생)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

###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는 캔디, 그 이름 강규임

강규임씨의 아버지는 태생이 시골분이셨고 어머니는 금산에 사시다 아버지를 만나 결혼을 하셨다. 결혼 직후 아버지께서는 일본으로 건너가 7~8년 동안 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시댁에서 시부모님들과 함께 생활을 하시다가 일본으로 건너가 아버지와 한 3년 만에 돌아왔다. 그 해가 1945년 해방 직후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고국 땅으로 돌아왔고 대전에 터를 잡고 1946년 강규임씨가 태어나게 된 것이다.

2남 3녀의 5남매 중 맏딸로 태어난 그녀는 해방 직후와 6.25 전쟁 이후 불우한 시대를 살아야 했던 가난한 환경 속에서 부모님께서도 크게 배움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았다. 초등학교야 당연하게 보낸다고는 생각되었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가난한 살림에 생각지도 못했었다. 하지만 배움에 뜻이 컸던 그녀는 아버지를 설득하여 어렵사리 중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고등학교는 보내시지 않으려 했지만 죽어도 배우고 죽겠다는 말을 말릴 수 없었던 아버지는 고등학교 진학을 허락하였다.

그 시절에는 친척들 중 유일하게 도시와 근접하게 살고 있는 집이 강규임씨 집밖에 없었다. 살림이나 방이 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에도 논산과 강경 쪽에 사는 사촌들이 와서 학교를 다니곤 했었다. 그 당시 사촌들이 거의 사범학교를 다녔었다. 사범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초등학교 선생님이로 발령을 받을 수 있어서 사범학교는 인기가 좋았다. 그걸 보신 아버지께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싶다는 그녀의 말에, 사범고등학교를 가서 졸업하고 선생님이로 취직을 하라 하시는 바람에 사범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형편이 어려웠던 탓에 고등학교 3년 내내 점심 도시락이라는 것을 한 번도 싸가지 못할 정도였다. 그 배고픔을 물을 먹어 달래고 우두커니 나무 그늘에 앉아 시간을 보내기 다반사였다. 점심을 못 먹어 배는 고플지 몰라도 배움이라는 뜻이 있어 학문을 익히니 마음만은 부유해지는 것 같았다. 혼자 그 외로운 시간을 삭히며 지내온 것이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막걸리 한 잔’이라는 노래가 너무 가슴에 와 닿는다.

그 때 아버지의 그 팍팍했던 삶을, 가족들 부양하기 벅찼던 가장이라는 삶의 무게에 얼마나 억눌렸는지, 이제는 조금이나마 느끼기에 맨 정신으로는 하루하루를 견뎌내시기 힘들었을 것 같았다. 누구에게 속 시원히 가슴에 있는 말 털어내지 못하고 막걸리 한 잔 비워진 그 빈 그릇을 가지고 뒤돌아서시던 그늘진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하필이면 촬영 당일이 강규임씨 부모님의 기일이셨다. 돌아가시기는 몇 년 차이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제삿날에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다. 몇 년 동안은 따로 제사를 모시다가 하루 차이여서 근래 들어 같이 모시게 되었다. 부모님들께서 동생들이 장성하여 사회생활 하기 전에 모두 돌아가셔서 나이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막내와 가장 애절한 관계이다. 환갑이 넘은 나이의 막내이지만 여전히 아이같고 음악을 사랑하며 드론 학원 원장을 하면서 바쁘게 지낸다. 막내를 보면 부모님을 대신하여 괜스레 뿌듯해지고 가슴이 따뜻해진다. 곁에 없지만 아직도 부모님은 혈육을 통해 따뜻함을 건네 주신다.

## 내 기억 속 낯은 다방

그렇게 어렵사리 들어간 사범학교가 2학년 재학 당시 대전사범고등학교에서 대전사범병



설고등학교로 변경이 되었다. 그러면서 문교부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교사가 된다는 것이 빠르다고 생각이 들어서였는지 2년제 초급대학이 생겨나게 되었다. 대학이 생겨나면서 대학을 졸업해야 선생님이로 발령을 받아 부임할 수 있었다. 그 바람에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교사로 바로 발령을 받을 수 없었다. 집에서 더 이상 대학교 갈 형편이 되지 않았기에 배움에 대한 희망을 더는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선생님이로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 때마침 있던 공무원 시험에 응시를 했는데 운이 좋게도 합격하여 한 5년 정도 공무원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게 바로 체신부 공무원이었다. 홍성우체국에서 5년 정도 일하며 막내생활을 했었다. 우체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잠깐 스쳐지나간 우연이라 생각이 들었는데, 인연이 되어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그 남편을 만나면서 다방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녀가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한 60년대에는 여자가 다방에 간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고등학교까지 학교생활을 하면서도 빵집에만 가도 훈육을 담당하시던 선생님께 혼이 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다방을 쉽게 출입 할 수 있는 사회적 배경이 아니었다.

남편은 서울에서 체신대학교를 졸업하고 무선통신사로 발령을 받아 1964년도 7월에 그녀가 일하던 홍성우체국으로 오게 되었다. 두 달 남짓 같은 홍성우체국에서 일을 했었는데 소위 부잣집 아들이었던 남편은 굉장한 멋쟁이였다. 그래서 우체국에서 같이 일하던 여자 직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그때만 해도 그녀는 남편에게 관심도 없고 오로지 대학을 못간 것이 자꾸 가슴에 남아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그 허한 마음을 독서로 달래곤 했었다. 남편은 그러한 그녀의 모습이 좋아 오로지 그녀에게만 관심을 두었다. 하지만 관계가 발전하기도 전에 남편은 서천으로 발령을 받아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관계가 멀어지는가 싶었는데 통신사로 일을 하니 매일 같이 그녀에게 전보를 보내왔다.

그 때 당시는 전화나 전보를 치려면 일부러 우체국까지 찾아와서 보냈어야 했는데 둘 다 우체국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조금은 자유로운 통화가 가능했다. 매일 같이 오는 전보에 답장을 주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구애작전은 계속 되었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듯이 조금은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졌다. 일을 마치

고 돌아온 외로운 어느 가을 날 이었는데 괜스레 훌쩍 떠나고 싶어 떠났던 길이 바로 남편이 일하고 있던 서천이었다. 어쩌면 그 날이 운명을 가른 그 날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때만 해도 다방이라 하면 전화통신이라는 노래도 있을 정도로 공중전화도 없고 대개 급한 일이 있으면 우체국에 가서 전화를 했었다. 근처에 우체국이 없거나 급한 일이 생기면 근처 다방에 가서 전화를 할 정도였다. 당시 다방 찾값이 20, 30원 했었는데 그 찾값 이상으로 전화요금을 내고 전화를 빌려 쓰는 일이 많았다.

그렇게 서천으로 가서 남편을 만나 이야기 할 곳을 찾다보니 생애 처음으로 다방이라는 곳을 가게 되었다.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 바로 '세이롱 다방'이었다. 다방도 굉장히 비좁았고 금붕어 어항이 있었고 커피를 시켰었다. 그 쓰디 쓴 커피를 왜 돈을 주고 먹는지 그 땀 이해가 안됐는데 아마도 부의 상징이었던 것 같다. 남자들은 '위티'라고 커피에다가 위스키를 살짝 넣어주는 위스키 티를 마셨다. 남편도 그 위티를 즐겨마셨고 커피를 시키면 연유나 설탕을 따로 주기도 했다.

첫 만남 이후 연애를 시작하였고 남편이 군대를 가면서 인연이 끝날 줄 알았다. 그런데 군대 생활 좀 편히 해보겠다고 남편이 여자 친구인 그녀를 여동생인 척하여 군대 상사와 소개팅 아닌 소개팅을 하기도 했었다. 그 때 만남을 다방에서 했었다. 기억 속 다방이 나쁘게 기억 된 것이 이 때부터였을까.

홍성우체국 재직 당시 같이 자취했던 언니가 집안에서 원치 않는 연애를 하는 바람에 종적을 감췄던 일이 있었다. 나중에 수소문 해보니 대전 어느 다방에 있다고 해서 언니 부모님과 함께 그 다방에 찾으러 갔던 일이 있었다. 가서 보니 껌 질경질경 씹으며 짧은 치마 입고 차 나르고 말 하는 것을 보니 같은 여자로서 너무 부끄러움이 느껴졌다.

남편과의 추억이 있는 첫 만남의 장소이기도 한 동시에, 남편이 여자 친구인 그녀를 여동생으로 둔갑시켜 군대선임과 소개팅을 주선했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소, 또한 같이 자취를 했던 언니를 찾으러 가면서 보았던 다방의 풍경이 다방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각인 된 결정적 이유이지 않을까 싶다. 지금은 흘러간 시간인 그 때의 이야기도 남편과 가끔씩 나누곤 한다.

##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학구열에 불타던 그녀의 본래 꿈은 의상 디자이너였다.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일하시던 제재소 사장님을 통해 천주교에서 배급해주던 옷을 내 몸에 맞게, 동생들 몸에 맞게 손수 바느질 해가면서 옷을 수선해 입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레 디자이너의 꿈을 키우게 되었다. 친했던 친구는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하면서 그렇지 못한 자신의 형편에 스스로 친구들과 단절하고 자괴감에 빠져 살았었다.

우체국에 재직하고 결혼하면서 아이를 낳고 그 꿈이 잊혀져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피아노 전공을 하던 딸들의 연주회 드레스를 직접 만들어 입히고 30대 후반부터는 천안시 합창단 모임을 시작했다. 현재는 예술단 구단장으로 무대 의상을 손수 제작하여 무대에 올린 것을 보면 아직도 그녀의 꿈은 무한히 진행 중 이라는 것이 느껴진다.

뒤늦게 모델이 자신의 꿈이라며 열심히 꿈을 위해 뛰어든 그녀와 똑 닮은 끼 많은 딸이 신청해준 시니어모델 발탁 기회에서, 아쉽게 최종 선발에는 불발되었지만 그녀에게 새롭고 큰 경험이 되었다고 한다. 젊은 나이가 아니기에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고 무엇이든 할 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감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졌다. 나이가 드니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같은 또래끼리는 괜찮은데 젊은 사람들과 같이 하는 단체생활에서는 왜인지 모르겠으나 조심스럽고 소심해진다.

남들은 젊게 산다고 하는데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봉사도 하며 어릴 적부터 가난하게 살아도 ‘우리, 함께’라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서 그런지 나쁜 상황이라도 이해하고 배려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덕분에 좋아하는 노래도 늘 부르고 노래 강사를 하고 있다 보니 불러주고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분들에게 비단 노래만 불러주고 가르쳐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이나 마을 회관 같은 곳은 또래의 비슷한 감성으로 살아온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소통하는 곳이라, 그런 기운이 활력소가 되고 설렌다.

또한 장애인 복지관이나 어린 친구들에게 노래를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노래 강사여서 노래만 가르치면 그뿐이지만 그녀는 인생의 선배로 앞으로 나아갈 길이 많은 젊은 세대들에게 인생의 길잡이가 되고 싶은 마음에, 일부러 올림이 되는 노래 선곡을 많이 해갔다. 그러다 보니 강사와 수강생이 아니라 정말 편한 할머니 또는 손자와 손녀로 눈높이를 맞추어

가면서 소통을 하고 공감하는 것이 느껴져 뿌듯하다.

보다 좋은 인생의 선배로 길을 터주고 방향을 잡아주고 싶어 독서를 통해 꾸준히 견문을 넓히고 소통하려 애쓰고 있다. 이렇게 누구보다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나이를 잊고 사는 것 같다.

늘 상대를 걱정시키지 않게 자기 위치에서 항상 자기 자신한테 충실하고 성실하게 자기를 잘 지켜나가는 일이야말로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라는 그녀의 말처럼, 자기 위치에서 항상 묵묵히 밝은 에너지로 주변을 이끄는 그녀를 응원한다.



●  
**내게는 아버지였던  
 어머니와 한국 농구의  
 아버지였던 우리  
 아버지**

**이영복** (1944년생)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내게는 아버지였던 어머니와 한국 농구의 아버지였던 우리 아버지**

이영복씨는 한국 농구의 선구자이신 故 이성구 선생의 3남 3녀 중 다섯째이자 막내아들로 1944년 수신면 발산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이자 한국 농구를 이끌어 오신 故 이성구 선생은 이 곳에서 태어나셨지만, 그 당시에는 보기 드물게 서울로 유학생생활을 하시면서 일찌감치 체육활동에 매진하셨다. 아버지는 연희 전문 농구부 창단 멤버로 농구경기가 치러진 최초의 올림픽인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하였다. 비록 대한민국의 국호를 달고 출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올림픽에 출전한 농구선수로 기억되고 있다.

그 당시에 아버지가 보기 힘들게 서울로 유학생생활을 하신 것은, 일제 치하에서도 수신면 면장을 하시고 천안시 농협장을 하셨던 할아버님의 잘 갖춰진 경제적 능력 때문이 아니었

나 싶다.

온양에서 시집을 오셨던 어머니는 82살에 작고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식들 뒷바라지에 엄청난 헌신을 하신 분이셨다. 어머니는 내게 어머니이시자 아버지셨다. 아버지는 체육활동을 하시면서 전국적으로, 더 나아가 해외로 나가는 일이 잦다 보니 어머니 홀로 노시부모님 봉양과 6남매 뒷바라지로 어려운 생활을 이어나가셨다. 경제적으로도 할아버님이 갖고 계시던 전답 외에는 별 다른 수입이 없었다. 아버지마저 어머니께 생활비를 넉넉하게 주시길 않아 어머니 홀로 8식구를 먹여 살리는, 가장 아닌 가장의 모습으로 가정과 자식들에게 끝까지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다.

농구부 주장을 할 정도로 체육에 소질이 많으셨던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자식들에게는 조금은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본다면 체육지도자로서 후배 양성에 힘쓰고 한국 체육계의 발전에 이바지 한 공로가 많다고 생각되어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운 아버지시다.

아버지의 비문에도 항상 해오시던 말씀으로 채워드렸는데, 체육지도자의 역할이 부정·비리로 얻은 승부보다는 모든 행동을 정의롭게 하라는 뜻을 가지고 계셨다. 아버지 본인의 이익보다는 남을 위한 봉사심이 남보다 더 투철하셨다. 그런 뜻을 가까이에서 보고 자라서 인지 몰라도 남들이 보면 오지랖이 넓다고 할 정도로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관심을 가지고 봉사하는 마음이 아버님을 닮아 있다.

수신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형·누나들이 서울 유학 생활을 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서울로 유학을 갔다. 57년도에 휘문중에 입학하여 63년도에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1년 재수하여 64년에 연세대 행정학과를 입학하게 되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전차나 버스 노선이 있어도 버스정류장에 내려 15분 정도 도보로 이동을 하여야 했기 때문에, 차라리 걸어다니자 해서 40~50분을 걸어서 등학교를 했던 기억이 있다.

대학교 입학을 하여 보니 중·고등학교 생활과 대학 생활과는 큰 차이가 있다 생각되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 해병대에 자원입대 하여 군대를 가게 되었다. 해병대 30개월의 군 생활을 마치고 제대하여 학교생활을 하면서 공부보다는 사회적 활동에 관심을 쏟았다. 축제에서도 대한민국 군인전이라는 사진전도 열며 다방면에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쌓으려 노력했다. 학업에 소홀했던 부분이 있지만 그 때의 열정적인 학교생활에 후회를 한 적

은 없다.

## 만남의 장소, 다방

서울 남산 밑 충무로 쪽에 아스토리아 호텔이라고 1층에 자그마한 커피숍이 하나 있었다. 대학교 입학하고 1학년 때 처음으로 남산에 올라가자고 해서 그 커피숍에서 만나서 올라갔었다. 일반 다방은 들어가 봐어도 커피숍하고는 다방의 분위기 자체가 달라서, 그렇게 쓴 커피는 처음 먹어봤다. 지금 말로는 블랙커피 정도 되는 커피를 시켜먹고 그 옆에는 스틱으로 된 설탕과 생크림 같은 것도 같이 나왔던 기억이 있다. 생전 처음 갔던 곳이라 옆 친구 따라 눈치를 보가며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커피숍에 처음 갔을 때 기억이다. 커피숍이라는 것은 그 당시 외래어라고 해서 우리말로 정리해서 사업자등록을 하려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여서 특급호텔에 있는 부대시설로 생각되어진다.

요즘은 사회활동하면서 만남의 공간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데 그 전에는 그런 공간들이 별로 없었다. 그러다 보니 유일하게 여러 사람이 출입이 가능하여 마련되었던 공간이 다방이었다.

다방도 크게 두 종류로 나뉘었던 것 같다. 캠퍼스 주변에 있는 다방은 주로 만남의 장소이자 토론의 장소로 이용을 했고, 음악다방이라고 해서 음악 감상을 주로 하기 위해 다방을 애용하는 크게 그 두 종류로 나뉘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딱 구분 지은 것은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음악 감상을 위한 다방, 만남의 장소로 이용하는 다방으로 나뉘었다.

음악다방은 디제이가 있어서 음악 신청을 받고 음악을 틀어주고, 테이블 몇 개 안되는 작은 다방이더라도 음악을 감상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LP판으로 음악을 틀어주는 음악실이 따로 있었다. 신청곡도 받고 디제이가 멘트도 해가면서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는 다방이라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음악다방을 애용하였다. 음악에 심취해서 안에 들어가면 숨소리도 크게 내지 못할 정도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음악을 들었던 걸로 기억된다.

만남이 주를 이뤘던 다방은 친구들을 만나다거나 그룹미팅을 한다거나 할 경우 이용했다. 약속장소로 사람들을 만나거나 공강 시간에 시간을 때우기 위해, 또는 책을 읽기도 하고 담소를 나누는 장소로 많이 활용했다.

학교 주변이 아닌 시내 중심부나 외곽지역 다방을 보면 조금은 다른 분위기를 하고 있었

다. 변두리 외곽지역 다방은 몇 명 유지들이 주로 가거나 보통 사람들은 출입하는 것 자체가 사치라고 느끼는 분위기 였다. 시내 중심부에는 오피스 빌딩 주변에서 출입하는 화이트 칼라들이 많아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였고 음악도 아예 없거나 잔잔한 음악을 틀었다. 그런 분위기 자체와 출입하는 고객층은 서로 조금씩 달랐다. 다른 점들은 조금씩 있었지만 특별한 복장 규제는 없었고 자리를 오래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눈치를 받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다.

서울에서 생활했을 당시 서울 캠퍼스 주변, 도심 주변에는 배달문화가 많지는 않았지만 외곽지역에는 배달문화가 성황을 이뤘다.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그 당시에는 커피머신, 자판기 커피, 인스턴트 커피가 있던 시기가 아니라, 손님 접대를 하려면 직장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배달을 많이 시켰다. 하지만 대부분 배달은 여직원들이 오다보니 거기에 따른 부작용들이 초래 되었다. 그게 일부의 사람들이었지 전체적인 것은 아니었는데도 그 파장은 생각보다 컸다. 그러면서 다방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초래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

커피믹스인 봉지커피는 60년대 중반 동서식품에서 만들었던 맥스웰 커피가 처음 나온 것으로 기억된다. 형님께서 그 시절 동서식품에 입사해서 기억이 나는데, 60년대 후반이 아닐까 싶은데 오래 전 기억이라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믹스커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후에 자판기 커피가 건물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때까지 있었던 추억 속 다방들의 하향세가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배달이 줄고 커피믹스로 간편하게 즉석에서 타먹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커피믹스가 서민의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가격은 오래전이라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요즘에 커피믹스가 한 100원 꼴이라면 20년 전에는 믹스커피가 20, 30원 정도였고 스틱형은 60원, 70원 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다방하면 떠오르는 추억 하나가 있다. 대학교 재학시절 캠퍼스 주변에 캠퍼스 다방이라는 곳이 있었다. 거기에 친구가 나를 만나러 왔다가 음악실에서 디제이를 보고 있는 아가씨에게 음악을 신청하고 담소도 나누고 있는 모습을 봤었다. 그러다 한참 있다 그 친구가 결혼한다고 해서 신부가 누군가 했더니 그 음악실 디제이 아가씨였다.

그 아가씨는 당시 KBS 유명 텔런트는 아니었지만 텔런트였다. 언니네 집에 놀러왔다가 음악실에서 디제이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음악을 신청하면서 인연이 닿아 결혼까지 해 지



금 LA에서 살고 있다. 당시에 여자가 디제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연예계 쪽에서 일을 하여 유연하고 개방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그 아가씨 언니가 다방 주인 분이어서 디제를 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캠퍼스 다방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그 당시에는 아주 즐겁게 다방을 출입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다방에 대한 좋은 기억이 많이 남아 있어 추억이라 이야기 할 수 있는 정도이다.

###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

당시만 해도 국산커피가 없었을 때라 전부 외제였다. 남대문 시장이나 소위 도깨비 시장 같은 곳에서 커피를 사다 먹었고 호텔이나 다방에서 먹는 커피 말고는 커피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커피 하면 떠오르는 일화가 있다. 군대 제대 후 대학교 재학 중에 방학이 되어 고향에 내려왔는데 누가 봉지커피를 가져왔었다. 월남전에 갔던 시동생이 가져 온 것이라며 동네에서 누가 갖다 줬는데 그게 알 커피라고 했었다. 월남전에서 가져온 군용 커피를 뜯어서 가마솥에다 넣고 끓여서 대접에다 퍼 먹는 것을 봤었는데, 그렇게 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승능이 사라지고 그 시골까지 커피가 자리를 잡아갔었다. 그 전까지는 커피를 어떻게 먹는지 모를 때였다. 그게 60년대 중반의 일이다. 옛그제 같은 일이었는데 벌써 세월의 변화와 흐름이 느껴진다.

다방은 그 나름대로 위치와 지역에 따라 시설물들도 상이하고 분위기 자체도 조금씩은 달랐다. 우리가 쉴 수 있고 미팅을 하는 공간 중에서 시설이 제일 아늑한 곳은 역시 다방이 아니었었나 싶다. 그 당시 다방에는 폭신한 소파가 있었고 일반 의자하고는 감촉 자체가 달라서 안락하게 앉아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곳이 다방이었다. 그 땐 특별한 인테리어가 없어서 그런 안락한 의자를 인테리어 겸 두었다. 처음에는 다방이라는 곳이 쉼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는데, 세대가 변하고 문물의 수용으로 변화가 굉장히 빨리 오다보니 나중에는 비슷한 공간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다방이라는 곳은 간단하게 다녀갈 수 있는 공간으로 점차 바뀌어 아쉽기는 하다.

서로가 서로에게 소통, 교류 이런 것들이 다양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요즘과는 다르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다방이라는 공간이 기회들을 제공해 주었다. 그로 인한 모든 사

회적 활동이 다방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람들이 여가생활이나 취미생활이 제한이 되어 있고 다양하지 못할 시기여서 그런 것들을 풀기 위해 다방에 가서 일탈을 하며 부정적인 시각을 만들어낸 점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일부 소수의 이야기이고 다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만으로는 볼 수 없을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되어 진다. 이렇듯 양면적인 면을 갖고 있지만 모든 소통과 교류의 시작이 다방이라는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싶다.

예전 그대로의 모습이 아닌 변화가 아쉽기는 하지만 시대적 흐름은 언제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그것을 거스르는 것도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것 같다. 커피숍으로 바뀌고 카페 문화로 바뀌고 요즘 옛날 향수를 찾기 위해서 그러는지, 실상 예전 다방과 닮은 모습은 아닐지라도 다방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공간이 가끔 눈에 보인다.

●  
**화려한 스펙의  
소유자**



**이 무 영** (1946년생)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화려한 스펙의 소유자**

해방 이듬해인 1946년 2월 병천면 송정리에서 이무영씨가 태어났다.

아버님은 4형제로 동면에 살고 계셨고 어머니는 무남독녀 외동딸로 병천에 살고 계셨다. 아버님 댁은 형편이 어려웠었고 어머니 댁은 논이 조금 있어, 처가살이를 하러 아버님이 병천으로 들어오셨다. 어릴 적 큰아버지들이 동면에서 쌀을 여기까지 지고 와서 주고 가곤 하셨는데 그 당시 우애가 굉장히 깊으셨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러한 것을 보고 자란 탓인지 이무영씨 5남매는 서로 간의 돈, 재물에 대한 욕심은 크게 없다.

해방 직후 초등학교도 의무교육이 아니었을 정도로 교육 환경이 좋지 않아 그야말로 돈이 없으면 학문의 길이 있어도 배울 수 없는 환경이었다. 아버님, 어머니 두 분은 한글은 알고 계셨지만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 무학이셨고 학교에서 배우는 신학문보다

는 한학을 배우길 바라셨다. 그래서 학교에 진학하지 않았는데 옆집에 살고 계셨던 선생님께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혼자 놀고 있던 그를 보고 학교에 입학を 시켜주셨다. 남들보다는 보름정도 늦게 학교를 입학하게 되어 초등학교는 그렇게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중학교도 굳이 갈 필요가 있겠느냐고 하시는 부모님과과는 다르게 담임선생님께서 사비로 입학원서를 내주셔서 병천중학교 입학시험을 보게 되었다.

그 당시는 입학시험에서 1, 2, 3 등을 하면 학비를 면제해 주었는데, 시험문제 하나가 오답 처리 되어서 2등으로 들어갈 수 있던 자리가 5등으로 밀려나면서 1년 동안은 할 수 없이 집에서 농사를 지어야만 했다. 그렇게 1년 농사를 짓고 다음 해에 다시 치른 중학교 입학시험에서는 3등을 하게 되어 어렵사리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중학교 3년 내내 학비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시험에서 늘 3등 밖으로 밀려나지 않게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다.

중학교 졸업 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다들 서울·대전으로 빠져나가니 병천고등학교에 오면 장학금을 준다고 하여 병천고등학교에 입학하였다. 덕분에 중·고등학교를 학비 걱정 없이 학비 면제를 받으며 다닐 수 있었다.

집안에서 중·고등학교 성적도 좋았고 상대적으로 학비도 저렴했던 서울 법대 가기를 희망하셨다. 서울에서 1년 동안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며 밤에는 공부를 했지만 기본실력이 탄탄하지 못한 한계를 느끼며 대학 진학을 포기하게 되었다.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바로 그 길로 군 입대를 하였다. 어릴 적 서예가로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던 붓글씨로 단련한 완벽한 글씨체를 뽐내며 군단 내에서는 차트글씨를 잘 쓰는 유명한 차트사로 군대생활을 했다.

군 제대 후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우수한 성적으로 제일약품이라는 무역회사에 입사하여 2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금강제화로 이직하였다. 또한 한화그룹에서 15년 정도 근무하였고 문구점도 운영하였다. 진로그룹에서 5년 정도 근무하고 작은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다 64살에 일을 그만 두고 그 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중국어통역사 시험이었는데 필기시험에서는 합격하였으나 면접시험에서는 탈락하게 되어 예순 여섯 이라는 늦은 나이에 중국 길림성 유학길에 올랐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다음 해에 면접시험을 볼 기회가 주어져 재응시하여 합격하였다. 하지만 늦은 나이

에 시작한 관광통역사 일이 힘에 부쳐 화려했던 젊은 시절의 경력은 뒤로하고 어머니를 모시러 8년 전에 고향인 병천으로 들어왔다.

### 만남의 장, 그 시절 다방

다방은 솔직히 아버지 세대까지도 못 거슬러 올라간다. 대도시 서울 같은 곳은 그 전에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특히 시골의 다방, 병천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생긴 것으로 기억된다. 아마 중학교 들어갔을 때까지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중국집 같은 것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다방이 들어선 것 같다.

지금이야 지역사회에서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서로 만남의 교류가 잦은 시대지만 그 때만 해도 지역 사회에서의 만남은 주로 5일 장날에 있었다. 약속이라도 한 듯 장날에 만났지 따로 약속을 정해 만날 만한 장소는 없었다. 병천처럼 작은 지역 사회에서는 영화관도 없었고 다른 특별한 문화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다방이 바로 그 만남의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해 간 것 같다.

병천 뿐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약속 장소로 만날 문화적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방 하면 약속 장소의 형태로 많이 애용했다. 약속 장소로 이용하는 것 외에 보통은 맞선 볼 때였다. 그게 거의 대부분 다방에 처음 오는 일이었을 것이다.

기억 속 병천에서 다방의 모습은 대부분 연세 드시고, 대부분 지역 유지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나이가 어렸을 때는 지역 다방에 출입을 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었다. 시내로 나가면서 다방은 조금 달랐다. 시내 쪽의 다방들은 많은 연령층들이 다양하게 섞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은 없었다.

그리고 예전 다방들의 풍경은 거의 비슷비슷했다. 대부분 그림도 동양화가 몇 점씩 걸려 있었고 수족관 정도 꾸며놓은 것도 있고 사람들이 오래 앉아서 대화하기 편하게 편안한 소파를 두었다.

처음으로 다방에 가게 된 것도 병천에서 약속 장소로 갔었다. 커피는 아마 그 처음으로 간 다방에서 처음 맛 본 것으로 기억된다. 시골에서는 그 때만 해도 송늬이나 식혜를 먹었지만 커피는 다방에서 처음 접했었다.

또한 커피 맛도 거의 천편일률적이었다. 지금이야 종류도 다양하고 커피 맛도 많이 다르

지만, 그 때는 어느 다방이나 수입된 커피를 사용하여 배합비율은 다방마다 조금씩은 달랐다. 거의 전국의 다방들이 비슷한 형태로 같은 수입된 커피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맛은 비슷했을 것이다. 그리고 고급 커피보다는 믹스커피 종류의 비슷한 것들이었고 쌍화차 같은 차 종류를 많이 팔았었다. 그렇게 새벽부터는 아니어도 아침에는 아침식사 비슷하게 쌍화차에 달걀 하나 띄워서 먹었다. 다방이라는 곳이 원래는 차 문화가 있던 곳이었고, 커피는 그 뒤에 들어왔다.

그 시절 다방은 마담이라고 해서 총지배인격인 사람들이 있었고 종업원들은 레이디에서 변질된 언어인 레지라는 말로 쓰였다. 다방에 예쁜 마담이 오면 장사가 좀 더 잘 되고, 마담하고 앉아서 얘기하고 그러는 것이 일종의 다방의 문화였다. 레지는 젊은 아가씨들이 주로 했었고 마담은 연령대 분포가 다양했다. 얼굴도 조금 반반하고 말도 재치 있게 하면서 유머러스하여 대화를 잘 이끌어가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 억지로 차를 먹게끔 하는 마담들도 있었다.

### 방향을 잃지 말고

다방이라는 말의 한자를 보면 차(茶)에 방(房), 즉 차 마시는 곳이라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아 생활의 전부가 전투로 이어지지만 중국의 역사를 쭉 보면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을 여유 있을 시간에는 차를 엄청 즐기는 민족이었다. 다방이라는 것이 거기에서부터 유래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

헌데 이러한 다방이 현대화 되지 못하고 커피숍한테 밀려난 것이 세대가 바뀌면서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커피숍이라는 문화는 한참 뒤에 나이가 들어 생겨나기 시작하여 시장형성이 된지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 그 전까지는 다방이었는데 세대가 바뀌며 이용하는 층이 바뀌고 나이 든 사람들은 얼마 안 되고 젊은 세대들이 이용하도록 적합한 문화시설로 바뀌면서 지금의 커피숍이 된 것 같다.

나이가 든 사람들은 그런 공간이 더 필요하다. 젊은 사람들이랑 느긋하게 앉아서 대화할 공간, 그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만남의 장소와 교류, 소통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다방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수익이 창출되어야 하는 생계수단인 공간이었다. 그렇지 못함에 자연스럽게 도태되어 갔지만 지금은 회귀라 할까 옛날 다방이라는 칭호를 쓰며 현대화 시설을

갖춘 곳들이 몇몇 눈에 보인다.

하지만 거의 시골이 아니면 다방은 찾아보기 힘든 문화 공간이 되었다. 아직 시골에 다방이라는 상호가 남아 있는 것은, 아직도 여기에는 그 다방에 대한 향수를 가진 연령층들이 남아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란 생각이 든다. 젊은 세대들은 다방이란 상호를 보면 잘 오지 않을 것이다.

다방이 차 배달을 가면서 불건전한 행동으로 문제가 되어 젊은 세대들이 보기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다방하면 거부감을 먼저 갖게 되는 것 같다.

다방, 커피숍이란 문화들은 결국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 다방이라는 것이 결국은 차 파는 집이라는 뜻으로 우리에게도 찻집이라는 좋은 단어가 있는데 다방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아쉽다. 조용하게 음악도 듣고 담소도 나눌 수 있는 만남의 공간으로 남녀노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였으면 좋겠다. 나이 든 분들은 젊은 날을 회상하는 공간으로, 젊은 세대들은 독서도 하며 업무도 보면서 만남의 공간으로, 또는 사색을 위한 공간으로 새로운 찻집 문화 공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예전에는 커피를 잘 몰랐던 시대여서 커피보다는 차를 많이 마셨다. 세대 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됐으면 좋겠지만, 다방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다 보니 다방이라 하면 이용할 수 있는 연령층이 얼마 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다방에 대한 이미지 쇄신이 필요하며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소통과 교감의 장소로 찻집이 활용되었으면 좋겠다.

●  
축산업의  
꿈을 키웠던  
철부지 소년

**이충용** (1944년생)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축산업의 꿈을 키웠던 철부지 소년**

5형제 중 넷째로 1944년 10월 천안 북면 매송리에서 이충용씨가 태어났다. 지금 현재는 태어난 북면을 떠나 천안 시내 쪽에 살고 계신다.

어릴 적 부모님들은 농사를 지으셨는데 아버님은 자식들이 잠에서 깨기도 전에 들에 나가셔서 아침 식사 하실 적에나 들어오셨고, 어머님 또한 새벽에 일어나셔서 일곱 식구 끼니를 준비하셨다. 예전에는 눈 만 뜨면 일하기 바빴다. 일을 일찍 할수록 그만큼 생산력의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집안에서 여자는 어머님 혼자 뿐이셔서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님께 큰 불효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딸이라도 있으면 어머님을 도와주고 옆에서 어머님 마음이라도 헤아려 주며 말벗이라도 해줬을텐데, 아들만 5형제인 집에서 한창 성장할 때는 사춘기였고 철부지인 어렸을 때라 그런 마음을 깊이 생각지 못해, 그 점이 항상 아쉽고 불효



아닌 불효를 한 것 같다.

천국초등학교, 병천중학교를 거쳐 병천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그 당시 생활로는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하기가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어려운 시기였다. 형들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서 형들의 도움을 받아 공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무사히 고등학교까지는 진학 할 수 있었다. 중앙대학교에 진학하려 시험을 보았으나 낙방하여 1년 동안은 천안에서 같이 낙방한 친구와 지내며 재수생활을 했었다. 그렇게 재수생활을 하고 이번에는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었던 축산업의 길을 걷고 싶어 건국대학교 축산과에 진학하려 시험을 봤지만 또 낙방을 하고 말았다.

그렇게 두 번의 대학 입시에 실패를 하고 더 이상 학문의 길에 도전하지 않고 군대에 갔다. 대학입시의 길은 어려웠지만 군에서의 생활을 조금 달랐다. 그 당시 국방부 정훈부라고 있었는데 거기 사진 기사로 활동을 했었다.

그 때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을 때였는데 그 당시에는 파월이라고 파월병들이 있었다. 그 파월병들 귀국 장소가 강원도 오음리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교육을 했었다. 그래서 그 파월병들 교육할 때 사진과 박 대통령 사진 촬영도 하고 그랬었다.

그렇게 조금은 편안하게 지냈던 군에서 제대를 하고 군에서 사진 기사로 활동했던 이력으로 한국일보에 입사하여 4~5년 정도 사진 기사로 활동을 했다. 그래서일까 사진을 찍는 일은 여전히 그의 취미로 남아있다.

### 롤러코스터 같았던 인생의 황금기

형제 중 제일 맏형님께서 금년 3월에 돌아가셨다. 항상 큰 버팀목 같은 존재셨다.

한국일보 재직 당시 큰형님께서는 상도동에서 건축업을 하셨다. 형님께서는 그 당시 결혼하셔서 여유롭지 않은 살림에 방 두 칸을 얻어, 한 칸은 형님 내외분 신혼방으로 쓰시고 다른 한 칸은 그를 위해 얻어주셨다.

낮에는 신문사 일을 하며 밤에는 청계천의 극동학원이라는 전자학원에 6개월 정도 다니며 기술을 익혔다. 신문사에 다니고 있어 기술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했는데, 때마침 천안에 계신 둘째 형님께서 가전제품 사업을 하고 계셔서 신문사를 그만두고 내려와서 일을 도와달라고 하셨다.

하지만 신문사에서는 퇴사는 안 된다고 만류하고 둘째 형님은 자꾸 내려오라고 하여 처지가 참 곤란했었다. 서울에 계신 작은 아버지까지 포섭한 형님의 설득 때문에 한국일보 생활은 오래 이어지지 않았고 사표를 쓰고 천안으로 내려와 형님의 일을 도왔다. 그 때 나이 스물아홉 살이었다.

그렇게 무보수로 형님을 도와 일한 지 4년이 흘렀고 때마침 결혼도 하게 되어 독립을 하여 전파사를 하나 차리게 되었다. 전파사를 4~5년 정도 하다가 원성동에 집을 마련하게 되었다. 기억에 잊혀 지지도 않는 내 생애 첫 집이었다. 옛날 기와집이었다. 땅이 79평, 건물 기와집이 23평 정도 됐었다.

전파사를 하면서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어서 큰 아들을 낳고 집도 사고 땅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 때만 해도 천안시 땅 값이 좀 싼었다. 천안여중 앞 쪽 지금의 원성동은 전부 논이었다. 논이 구천 원 정도 할 때 천오백 평 정도를 샀었다. 그래서 동창 중에서는 소위 제일 잘나갔다.

전파사 운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아산, 그 때는 온양이었는데, 온양과 천안에 가전제품 대리점을 두 군데 했었다. 종업원도 20명을 둘 만큼 제법 큰 규모의 대리점이었다. 친구들은 대학교에 재수, 삼수 해서 들어간 친구들이 많아 30살에 대학교를 졸업한 친구들도 많았는데 명절이면 고향에 내려와 꼭 그의 사무실에 들렀다. 그 시절 보통은 막걸리를 먹던 시절에 맥주도 먹여 보내고, 어떤 친구들은 서울 산다고 해서 부모님 뵈러 시골 왔는데 부모님 선물 살 돈이 없다고 얼마 좀 빌려 달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그 때는 경제적으로 정점을 찍었던 시기였다.

가전제품 대리점을 10년 정도 운영을 하고 그만 두면서 증권 열풍에 휩쓸려 1년 정도 수익이 나지 않는 증권에 매달리면서 점점 경제적 상황도 열악해지고 있었다. 그 때 마침 종자 오리를 하면 괜찮다고 하는 바람에 직산에 땅을 얻어서 축사를 지었다. 오리 종자는 영국에서 수입하는 알이었는데 알이 부화기에서 하나 부화시키면 오리 한 마리가 만원을 했었다. 5천 마리 되는 오리를 혼자서는 감당 할 수 없어 태국부부를 고용했고 매일 밤낮을 오리농장에 매달렸다.

하지만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법이 아니어서 이번에는 조류독감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이맘때쯤 천안에서 조류독감이 최초 발생하여 고건 국무총리가 우리 농장에 딱 왔었다.

그것만은 잊지 않고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 당시 살처분 했던 오리가 한 마리에 7만 원 정도였다. 공무원들이 와서 그 농장 뒤 논을 포크레인으로 파서 살처분한 오리 위에 소독을 하고 석회를 쌓아서 매립을 했었다. 그래도 보상은 괜찮게 받았던 기억이 있다.

그 후로는 독립기념관 관리직으로 7년 정도 재직했고 청소년수련원 일도 한 4, 5년 정도 했었다. 그게 60대 초반까지의 일이다. 그 이후로는 주택관리사에 도전했는데 세 번인가 떨어지고 네 번째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땀다. 지금까지도 그 자격증을 조금 활용하고 있다.

낙시가 취미인 그는 낙시 도구만 해도 천만 원 어치가 넘는다고 했다. 아산의 송악저수지에서는 연예인 이덕화씨를 몇 번 만났던 기억이 있다. 같이 낙시도 하고 라면도 끓여먹으며 같은 낙시인으로 낙시를 즐겼었다는 후문이다.

### 음과 양이 공존 했던 다방

서울에서 신문사 다닐 적에는 많이 갔었지만 천안에 와서 처음 다방에 간 것은 1969년이나 1970년 정도로 기억한다. 다방은 그 당시 거의 비슷비슷했었다.

천안에 와서 자리 잡고 살았던 곳이 원성동 쪽이었는데 그 당시 중앙시장이 변화가이자 중심가였다. 시장 때문에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발달을 했었고 많은 사람들과 교류가 있었다. 지금은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낙후된 동네로 인식되어지지만 예전에는 땅값이 제일 비쌌던 곳이 중앙시장 근처였다. 중앙시장에 중앙다방이라는 곳을 자주 갔었다. 물론 그 중앙다방은 지금말로 하면 핫플레이스 정도였다. 장사도 잘 되고 단골로 많이 가기도 했었다.

사무실이나 어디에서 손님들이 오면 배달을 많이 부르곤 했다. 그 당시에는 배달이 성업을 이루던 시기였다. 보온병에 커피를 넣고 쟁반에다가 보자기에 싸서 배달을 많이 다녔었다.

아침에 모닝커피라고 해서 쌍화차에 달걀노른자를 줬는데 그것을 돈도 안 받고 서비스로 해줬었다. 그만큼 자주 가는 단골이라 그랬던 것 같았다. 가격은 쌍화차가 가장 비쌌던 것으로 기억되고 그 당시 커피 한 잔은 몇 백원 정도 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렇다고 커피를 다방에서 처음 맛 본 것은 아니다. 커피는 군대 생활 할 때 부대에 커피를 맛 볼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었는데 거기에서 처음 먹었었다. 1964년도에 입대를 해서 68년도에 제대를 했는데 그 때만 해도 군 생활은 36개월이었다. 그 당시만 해도 커피라는 것은 자주 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다방은 지하에 많이 위치해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2층에 대부분 있었다. 안에는 거의 비슷하게 대개 마담 한명이 있고 거의 배달이 많았기 때문에 종업원들이 배달 나가면 마담 혼자 있는 모습이었다. 예전에는 다방에서 담배도 필 수 있어서 담배도 피우고, 장사가 좀 안된다 싶으면 조그맣게 방 만들어 놓은 곳에서 고스톱도 치고 커피도 먹고 했던 암묵적인 일들이 있었다. 그 당시에는 대형 냉장고가 흔치 않던 시절이어서 보관이 어려워 술은 직접 다방에서 판매는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사다 먹었다.

배달을 하면 커피 값은 같았지만 텃처럼 더 주고 했던 것은 있었다. 친구들끼리 여관에서 목을 때에도 배달 커피를 시켰다. 그게 필수 코스로 자리 잡을 만큼 그 시대에는 성업을 이뤘다. 고스톱 치면서 놓고 커피 배달 올 적에 담배, 술을 대신 사다 달라고 심부름을 시켰기 때문에 커피 값 말고도 심부름 값으로 얼마를 더 주기도 했었다. 그래서 배달을 나오면 그것 때문인지 죽치고 가지 않던 종업원들도 있었고 심지어 나중에는 다방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다.

다방을 하면서 몸까지 파는 여자들도 당시에는 많았던 기억이 있다. 지금이야 직업여성으로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어 거의 다 다방여자들이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텃으로만 수입원을 삼으며 순수하게 차만 팔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부정적인 이미지와 퇴폐적인 공간으로 바뀌게 된 것 같다.

친구 하나도 다방 종업원과 바람까지 났었던 일도 있었다. 이런 일들이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한 것을 보면서 다방이라는 곳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주변의 시각이 있었다.

그 시절에는 다방 말고는 누굴 만날 장소가 없었다. 다방이 아니면 약국에서 만나자, 아니면 시장에서 만나자 하는 정도였다. 주로 남자들은 다방에서 만났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맞선 보는 장소로 많이 이용을 했었다. 맞선의 필수 코스가 다방이었을 정도다. 모임의 장소가 다방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하지만 이런 건전한 만남과는 다르게 부적절한 만남의 장소로도 다방은 이용되었다. 그래서 기억 속 다방은 즐겁게 친구들과 어울렸던 문화적 공간인 동시에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성업을 이루던 곳으로 기억이 남는다.

지금은 예전과는 다르게 배달을 가서 같이 어울려 즐기는 문화가 없고 커피의 종류도 다양하고 맛도 본인 취향에 맞는 다양한 커피를 즐길 수 있지만 그 때의 다방을 기억하는 세대의 취향에는 잘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

●  
책보다는  
하루하루 즐기며  
살았던 유년기



**차용제** (1945년생)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책보다는 하루하루 즐기며 살았던 유년기**

1945년 4월 광복이 되던 해에 2남 3녀 5남매의 넷째로 충북 진천에서 차용제씨는 태어났다.

형제분 중 형님 한분은 작년에 타계하셨고 누님 두 분, 여동생이 있다.

군대에 갈 때까지 진천에서 생활했고, 군 생활을 하면서 연이 닿은 춘천에서 조금 생활을 하다가 천안에 내려 온 지는 이제 한 30년 정도 되었다.

그 당시 진천에 사는 것에 대한 싫증을 느낄 무렵, 천안에 누님이 살고 계셔서 천안 쪽으로 이사를 왔다. 오히려 누님은 지금 수원에 살고 계시고 그는 여전히 천안에 머물러 있다.

어릴 적 참외서리, 복숭아 서리를 하며 컸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지금이야 서리라고 하면 큰 범죄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장난으로 넘어가던 시절이어서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된다.

부모님께서서는 농사를 지으셨다. 논농사, 밭농사를 지었고 아버님은 동네 이장일도 보셨다. 그래서 어머니는 살림과 일, 두 가지를 혼자 하셨다. 아버님은 약주도 좋아하시고 동네 이장 일을 보느라 집안일은 늘 뒷전이셨다. 그 바람에 혼자 모든 것을 감내하며 사셨을 펍팍했던 어머니의 삶에서 고됨이 느껴졌다.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 재산이 조금 있어서 집안에 여유는 있는 편이었는데 아버님 5형제 앞으로 나눠준 재산들은 관리를 잘 하지 못했다. 부잣집은 아니었지만 밥을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었고 보리밥도 아닌 쌀을 좀 섞어 먹는 정도였다.

상상초등학교, 진천중학교, 진천농업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군대에 갔다. 군대 영장이 고등학교 3학년 재학 당시에 나왔는데 군대 연기가 안 되는 줄 알아 군대 영장 나오자마자 군 입대를 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채마치지 못하고 3학년 5월에 중퇴를 하고 군대에 갔다. 그 바람에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지 못했다.

공부를 썩 잘하는 편도 아니었고 기억으로는 6학년까지 한글을 못 뗐던 것 같고 책 읽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다. 중학교 때는 시험을 봐서 갔는데 아련한 기억에 당시 국어, 산수, 국사, 도덕 그 정도는 시험을 봤던 것 같다. 고등학교 때는 운이 좋아서였는지 시험을 보지 않고 입학했다.

크게 되고 싶었던 장래희망은 없었지만 그저 하루를 즐기며 사는 것이 좋았던 어린 시절이었다. 여럿이 모여서 놀기도 하고 패싸움도 하고 깡패 짓도 하며 다니기도 했었다. 어릴 때부터 앉아서 책을 읽고 하는 것을 싫어했다.

### 아깝게 날려버린 두 번의 기회

강원도 춘천에서 군 생활을 했다. 시내와 가까워 외출도 많이 했는데 소양강이 근처에 있어 스케이트 타기 좋았다. 원래는 스케이트를 탈 줄 몰랐는데 군대 생활 하면서 스케이트를 하나 사서 많이 배웠다. 공지천이라는 곳에서 밤낮없이 스케이트를 탔었다. 그 근처에는 포장마차처럼 어묵이나 막걸리도 파는 곳이 있었고 스케이트 타러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 재미로 더 많이 갔던 것 같다. 덕분에 스케이트를 자연스레 익히게 되어 곧잘 탔다.

부대장으로 계시는 분이 외사촌 매형 분이셔서, 아무래도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조금은 더 자유로운 시간을 보냈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부족하지는 않아서 군 생활은 편히 할 수 있

었다.

군대 생활 할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진천으로 휴가를 갔는데 그 아랫집 아저씨가 오셔서 평당 10원 짜리 3백만 평짜리 산을 좀 사라고 했다. 그 때 돈 삼백만원이었다. 삼백만원 정도면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었는데 아버님이나 형들도 누구하나 사자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5년 후 진천부터 청주까지 4차선 도로가 그 산위로 지나갔다. 그 보상금이 자그마치 27억이라는 돈이 나왔다.

진천에 가거나 집에서 마음이 답답하거나 할 때 가끔 그 생각이 난다. 생각해 보니 재물 운을 타고 나지 않은 사람인 것 같다. 그런 일이 한 번 더 있었다.

천안으로 막 내려왔을 때의 일이다. 지금 하이마트 원성동 근처 주변 논이 한 평에 만원씩 갔었고 전세가 그 당시 200만원, 300만원 할 때 였는데 그 때 당시 그 땅을 한 500평 사 났으면 하고 두고두고 후회스러운 생각이 든다. 도로에 붙은 땅이나 논은 만원씩이었고 도로에서 조금 떨어진 땅들은 오천 원, 삼천 원씩 했었다. 그런데 그제 2, 3년 만에 몇 십만 원이 올라갔다. 한 50만원, 60만원 정도 올랐다. 그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사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 불과 한 30년 전의 이야기이다. 그 때부터 갑작스러운 개발로 인해 일하기 싫어서 안할 정도였지 일거리를 따로 찾으려 다니지 않았었다.

건축업 중에서도 목공일을 했었는데 초반에는 결혼하여 살림을 할 때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 고생을 많이 하였다. 사글세부터 전세, 집 마련하기까지 너무 힘이 들었었다.

하지만 차차 천안에서 개발이 한창 이루어지던 시기여서 열심히 하면 밥은 먹고 살았다. 집을 짓는데 그 형틀을 만드는 목공일을 했었다. 요즘으로는 기술직이라 하겠다. 예전에는 기술직은 쇼쿠닝이라고 하고 못하는 사람은 함빠라고 했다. 목공일을 하는 사람들은 쇼쿠닝에 속했다. 그 당시는 일당이 천오백 원, 이천 원부터 시작했다. 5년 전에는 최고 일당 20만원까지 받았었다.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

### 또 다른 작은 사회의 모습이었던 다방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춘천은 관광도시이다. 그래서 특히나 다방이나 술집 이런 유흥시설이 많이 발달되어 있었다.

다방은 필요할 때 약속이 있어 만날 때에도 갔고 그냥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갔었다.

커피보다는 계란 노른자를 넣어주는 것이 좋아 쌍화차를 좋아했고 그 때는 커피를 즐겨 마시지 않았다. 지금은 커피가 대중화되어 커피를 하루라도 안 마시면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한 40년, 50년 전만 해도 커피는 대중적으로 쉽게 마실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다.

그 시절 카페는 요즘 카페랑은 많이 다르지만 손님들이 와서 앉으면 같이 말동무도 해주는 레지들이 있던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한두 명이 아니라 일곱, 여덟명 정도 있었다. 춘천에도 그랬고 천안에도 그랬었다. 차도 나르고 말장난도 해주고 레지 하는 사람들은 타임을 끊었다. 일명 티켓이라고 불렀다. 티켓을 끊고 그 티켓을 산 사람이 돈을 지불하면 그 사람이 지불한 시간만큼 레지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대부분 마담이 사장이고 레지는 주로 종업원이었다. 다방의 규모가 작아도 레지는 일곱, 여덟명 정도 됐다. 예를 들어 한 시간에 지금 돈으로 십만 원이라 하면 그 레지가 70프로를 가져가고 마담이 30프로를 가져갔다. 그러니 마담, 레지 둘 다 어느 정도 돈을 가져갈 수 있는 형태여서 레지가 많아도 운영을 이어갈 수 있었다. 지역에 상관없이 레지들이 티켓을 끊는 것이 다방의 운영 형태였다. 그래야 수입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다방을 간 것은 군대 생활하면서 한 스물두 살 때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당시 음악다방도 있었긴 했지만 음악다방은 잘 가질 않았다. 다방에 대한 기억은 거의 티켓다방이었다.

주로 티켓을 끊어 나가서 노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는데 일하는 레지들도 그래야 수입이 좋았다. 일괄적으로 유니폼처럼 입지는 않았고 일반 생활복을 입었다. 티켓을 많이 끊고 싶은 사람은 아무래도 눈에 띄게 신경을 썼던 것이다.

그 당시 천안 중앙시장 근처의 상권이 발달되어 있어서 다방도 많았고 하수도 골목이라고 해서 방석집도 많이 있었다. 술집이었는데 아가씨들도 많이 있었다. 중앙시장이 그걸로도 유명했었다.

다방에서 위티라고 위스키를 주었다. 도라지 위스키, 세븐 위스키, 흐려진 기억 탓에 선명하게 기억 해내진 못했지만 작은 잔 한 잔에 얼마해서 팔았던 위티라는 것이 있었다. 그래서 다방에서 술 취한 사람도 더러 볼 수 있었다. 위티가 한 잔에 얼마인지는 기억나지는 않지만 쌍화차보다 더 비쌌던 것은 확실하다. 양은 작았지만 나름 술이어서 더 비쌌다. 쌍화차가 천원, 이천 원 했을 당시 커피는 쌍화차의 반 값 정도 삼백원에서 오백원 정도 했던 것



으로 기억된다.

위티와 쌍화차, 커피는 다방에서만 주로 먹을 수 있는 대표 메뉴였다. 쌍화차는 특이하게 인스턴트 식으로 가루로 된 것이 나왔었다. 대추, 잣도 들어있고 끓는 물에 넣어서 달걀 노른자를 넣어 주었다.

커피는 원두커피였다.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톱밥 커피라고 했다. 깡통으로 나오는 건데 여과지에 가루를 넣고 끓는 물을 부어 내려서 먹는 커피였다. 그걸 끓이면 향이 대단히 좋았던 기억이 있다. 예전 커피가 지금의 커피보다 훨씬 좋은 이유가 그 향에 있는 것 같다.

다방 메뉴 중 가장 좋아했던 메뉴로 모닝커피라는 것이 있었다. 아침에 일찍 가면 커피에 달걀노른자를 풀어줬다. 흰자는 빼고 노른자만 넣어줬는데 비린 맛도 있었지만 맛은 썩 괜찮았다. 모닝커피라는 메뉴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침에 커피를 시키면 으레 달걀노른자를 띄워주었다. 아침에 정해진 시간만 줬었는데 보통 9시에서 10시 사이에 가면 먹을 수 있었다. 원성동이나 역전에 있던 다방이 단골이었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 다방으로 모였고 좋고 편한 자리가 있어 단골이 되었다.

60대가 되면서는 다방에 잘 가지 않게 되었다. 그래도 예전 느낌의 다방이 드물게 있었는데 60대가 넘으니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예전과 같은 다방이 없어지게 된 것은 여성의 지위가 많이 올라 간 것에 있는 것 같다. 예전과 같은 다방의 행태로 영업을 한다면 그 때 다방 수준을 지금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할 부분이 많다. 그 생활을 젊은 세대들에게 반영한다면 젊은 세대들은 거부감이 클 것이다.

다방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현대식 카페가 있긴 하지만, 카페를 들어가기도 멋쩍고 예전 다방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 망설여진다. 세대가 바뀌고 전통적인 것들이 사라진 것에 대해 크게 아쉬움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세대가 바뀌면 점차 바뀌어 가는 것이 자연적인 시대 흐름이고 아쉬워한다고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으니 발 맞춰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

●  
**혼란 속에서도  
 꾀꾀했던  
 배움의 길**



**이 정 길** (1944년생)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혼란 속에서도 꾀꾀했던 배움의 길**

1944년 함흥에서 2남 2녀 중 셋째로 이정길씨는 태어났다. 철도 공무원이셨던 아버지를 따라서 서울 노량진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아버지께서 실직하시는 바람에 할아버지 댁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서울 노량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영등포 중학교, 청주농업고등학교를 거쳐 충북대학교를 졸업하였다. 하지만 우여곡절 많은 배움의 길이었다.

어렸을 적 6.25 전쟁이 발발하였을 당시 만 6세 초등학교 1학년으로 기억되는데 그 때는 노량진에 거주하고 있을 때였다. 한강 다리가 폭격을 받았는데 살고 있던 집 부엌 유리창이 금이 갔던 것이 생각나는데 생각만으로도 섬뜩하다. 그렇게 피난길에 올랐는데 우연히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어 그 당시 구르마를 타고 하염없이 며칠 몇날을 걸어서 피난을 갔던 기

억이 있다.

그렇게 초등학교 1학년 때 부산으로 피난을 가서 부산 당감동에 있는 당감초등학교를 한 2년 정도 다녔었다. 지금은 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높은 빌딩들이 들어섰지만 그 당시에는 학교에 붙어 있는 것은 다 논이었고 근처에 15분 정도 걸어가면 화장터가 있었던 것이 기억난다. 부산에서 2년 정도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전쟁이 끝나면서 할아버지 댁에 가서 청주 북일초등학교를 잠깐 다녔었다. 그리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 노량진 초등학교에 다니며 졸업을 할 수 있었다.

평탄하게 중학교까지는 흘러갔는데 고등학교 입학 무렵 아버지께서 실직을 하시면서 할아버지가 계신 청주로 오게 됐다. 그래도 중학교 때의 실력이 어느 정도는 남아 있어서 그런지 시골 학교였지만 고등학교 때는 전교 1등도 하고 그랬었다. 서울에서 공부를 했을 때는 그냥 좀 잘하는 편에 속했는데 시골에서 농고를 다니며 공부를 안 해도 1등을 하니 내 스스로가 좀 자만했던 것 같다.

청주에서 당시 할아버지께서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는데 그 일대에서 제일 큰 대농이셨다. 그렇게 할아버지께서 일궈놓은 많은 부를 아버지께서는 다 무너뜨리셨다. 가장 기억에 남는 할아버지 모습으로 예전에는 땀이 나면 옷 속에 입는 등걸이라는 것이 있었다. 뉘렁쿨 비슷한 넝쿨로 그것을 짜서 한 30개씩 메고 청주에서 증평까지 두 시간을 꼬박 걸어서 팔고 오셨던 기억이 있다. 그 시절 꽤 부자여서 굳이 일을 하지 않으셔도 생활이 유지가 됐었는데 고집스러운 생활력이 강하셨다.

그리고 부산으로 피난 갔었을 당시 배고픔에 허덕이다 군인한테서 주먹밥 같은 것을 얻어먹으면, 자존심 강하셨던 할아버지께서는 절대 구걸하는 일이 없으실 정도였다. 그렇게 울퉁은 길을 걸어오신 할아버지께서 일구신 그 부를 아버지께서 탕진하는 것을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았다.

### 신화를 창조한 사나이

대학입시의 첫 국가고시 기수로 충북대학교에 입학하였다. 청주농고에서는 두 명 정도 합격했고 청주고등학교에서는 반 정도 떨어질 때였는데 그렇게 대학에 입학하고 보니 점차 실력이 쳐지기 시작했다.

대학시절에는 ROTC 학군단 생활을 했다. 기억하기로는 군번이 66-0291 이었는데 66년도에 임관한 ROTC 성적이 291등이라는 뜻이었다. 당시 ROTC는 24개월 근무였는데 1968년 김신조가 내려오는 바람에 3개월 군대 생활이 연장되었다. 그 3개월 더 근무를 한 덕에 중위로 제대를 할 수 있었다.

당시 ROTC 4기였는데 친구들은 대개가 평균 한 살 많았었다. 전쟁까지 발발하면서 학업을 이어갈 수 없는 힘든 상황에서도 쉽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덕에 24살에 군대까지 제대를 했다.

그렇게 막힘없이 평탄하게 삶은 흘러가는 듯 했다. 학교 교수 과장님이 아껴주신 덕에 남양유업에 추천을 받아 1968년 12월에 입사를 하였다. 나중에 알게 된 후일담이지만 사장님은 지방대 출신에 영어도 잘 할 줄 몰랐던 그를 반대 했지만 전무님께서 인상이 좋다고 하면서 채용에 힘을 써주셨다고 하셨다.

자식들은 커가고 지방대학 출신으로 한계를 느꼈던 그는 가스 사업으로 또 한 번 탄탄대로의 길을 걷게 된다. 아는 선배의 권유로 시작하게 된 가스 사업으로 시작한 지 5년 만에 신화를 창조한 사나이라는 말을 듣게 될 정도로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게 된다.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 한 몫 한 것 같다. 성실하고 영업에 능력을 발휘하며 가스 업계에서는 누구도 넘보지 못할 판매량을 확보하면서 가스로 성공 대로를 달렸다.

참 아이러니 하게도 20년 넘게 재직했던 남양유업도 거래처였는데 거기에서만 벌어들이는 이익이 남양유업 재직 당시 한 달 월급보다도 많았다. 뛰어난 영업실력으로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게 가스 사업을 확장시켜 나갔고 충남에서 한국가스공사 일을 가장 많이 한 업체로 성장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용접사는 도시가스 쪽 일당이 25만원이면 가스공사 일을 할 때 부르는 용접사는 그 시절에도 30~35만원은 줘야 됐다. 두께와 깊이도 다르고 압이 세기 때문에 용접 수준도 많이 달랐다. 저 밑에까지 땅을 파 놓았는데 비가 와서 무너지기라고 하면 다시 파도 또 무너지기 때문에 눈에서는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들었다.

그렇게 60대 초반까지 탄탄대로를 이어오던 생활은 건설업을 하면서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건설업을 하면서 생활이 점차 힘들어지자 건설업 생활을 종료하고 골프샵을 잠깐 운영했다. 그 당시 큰 아들이 PGA 골프선수였는데 기량이 뛰어나지 않으면 선수 생활을 이

어가기 힘들었고 지금은 큰 아들이 가스 설비 일을 하고 있다. 가스 사업을 잘 유지하고 있었다면 그대로 큰 아들에게 물려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들에게는 미안하고 안타까움으로 남아 있다.

골프샵을 하면서 취미로 골프를 자주 쳤지만 지금은 끊은 지 2, 3년 됐다. 돈 생각하니 그저 아까움으로 남아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탁구와 낚시에 재미를 붙였다. 탁구는 중학교 시절부터 치기 시작했으니 꽤 치는 편이다. 대학 재학 시절 청주여고 선수 출신 학생과 탁구를 쳐서 이길 정도였다.

### 일터의 연장선이었던 다방

그 시절 다방에는 자주 출입했던 터라 첫 다방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지만 확실히 기억나는 다방으로는 육교 다방이 있다.

지금은 그 육교가 없어졌는데 천안역에서 온양 나드리 방향으로 공구상가들이 쪽 있는 쪽에 육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을 딴 육교다방이라는 곳이 있었다. 그 다방 앞으로 제일가축병원이라고 있었는데 천안농고 출신의 목장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다. 거기에서 모임을 갖다가 커피 한 잔 하자면서 육교 넘어서 육교다방으로 많이 갔던 기억이 있다. 그게 지도과장 되고 바로였으니 한 1975년 정도 됐을 때의 일이다. 낙농모임에서 가는 것이라 한 번에 10~12명 정도, 최대 20명 정도까지 갔으니 그 당시 대단한 고객이었다. 다방은 아주 정성이 담긴 은은하고 아늑한 분위기에 아담한 마담과 레지가 있었다.

천안역 앞에 위치한 교차로 다방이 기억이 난다. 역에서 나와 오른쪽에 위치해 있던 다방이었다. 남양유업 재직 당시 부장님을 모시고 갔었는데 마담이 아주 미인이었고 청주여고 출신의 종업원도 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다방에 가면 술은 잘 못하지만 꼭 위티를 한 잔씩 먹곤 했던 기억이 남아있다. 커피는 군대에 있을 때도 먹어보곤 했었다. 처음에 먹었을 때는 이렇게 쓴 것을 왜 먹나 싶었는데 지금은 계속 먹다보니 생활이고 일상이 되어 버렸다.

커피 하니까 예전에 미국으로 쫓소를 가지러 갔었을 때의 생각이 난다. 종업원이 커피포트를 들고 가다가 잔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리필을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계속 커피를 따라 주었다. 억지로 먹었는데 나중에야 괜찮다고 의사표현을 해야 더 이상 주지 않는

다는 것을 알았다.

남양유업 재직 당시에는 디제이를 해 본 경험도 있다. 많이는 아니고 두 차례 정도 마이크를 잡고 디제이를 봤었다. 당시 성환에 있던 거래처 다방이었는데 사장님이 잠깐 해보라고 해서 했던 기억이 있다. 그 때는 우유 검사원이었는데, 검사원이 판단하기에 따라서 우유 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방이 높을수록 우유 값이 비쌌다. 그래서 업주들이 다정하게 잘 해주었다.

검사원 복장은 하얀 바지 위에 가운을 입었는데 가운만 벗어놓고 나오면 순식간에 백바지를 입은 멧쟁이가 되었다. 그래서 별명이 백바지였다. 하지만 화려한 외모만큼 실력은 따라주지 않아 스스로 디제이 하는 것을 포기했다. 가수만 몇 명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음악에 대한 조예가 깊어야 했었다. 보통 30대 분들이 많이 계셨고 천안에는 지금 우체국 옆에 있던 다방도 디제이가 있던 음악다방이었다.

다방은 맞선이나 소개팅을 하는 장소이기도 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방의 퇴폐적인 운영 방식과 부정적인 시각이 맞물리면서 다방이 예전의 명맥을 이어가지 못하는 것 같다. 시대가 흐르면서 의식이 변화되고 그 의식의 변화와 맞게 사회적 분위기도 변화되어 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닐까 싶다.

•  
격세지감 속  
다방



**김정집** (1955년생)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인생의 멘토이자 스승이신 나의 조부, 그리고 아버지**

올 해 예순여섯의 병천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김정집씨는 어린 시절 한의원을 운영하셨던 조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랐다.

할아버지는 그가 중학교 1학년 무렵에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너그러우신 인품을 지니셨다. 한문에 대한 조예가 깊으셔서, 병천 장날이 되면 이 근방에서 한문 꽤나 하신다는 분들은 할아버지 한의원에 모여 서로 시조를 겨루시고 약주도 한 잔씩 하셨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선하다.

그리고 2년 전에 작고하신 아버님은 면사무소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시다가 군청으로 발령이 났는데, 그 시기가 하필이면 할아버님이 돌아가신 바로 직후였다. 그래서 장남이신 아버님은 홀로 남으신 할머니와 아직 돌봐야 할 동생들 때문에 사표를 내고, 그 때 마침 설립

된 아우내중학교 교감으로 재직을 하시게 되었다. 학교 정년퇴직을 하시고 나서는 천안시 동남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소장과 문화원 부원장, 원장까지 역임하신 이력이 있다.

이런 인생의 멘토이자 스승이신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가장 영향을 받은 부분은 바로 한문이다. 5살 때 이미 한글을 다 외우고 할아버지께서 천자문을 가르쳐 주셔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천자문을 다 떼었다. 예전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국어책에 한문이 병기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가 4학년이 되던 해에는 아주 없어져 버려 학교에서는 한문을 배울 기회가 없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공부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아버지께서는 다른 공부는 안 해도 아무 말씀 없으셨지만 한문 공부는 계속 매진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다.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한문 교과가 생겨 그 때 처음으로 학교에서 한문을 공부하였다. 학교에서 처음 접하는 한문이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익혀왔기 때문에 한문은 늘 자연스럽게 익숙했다. 오죽하면 고등학교 한문 선생님께서는 다른 과목들은 공부를 못하는데 한문은 어쩔 그리 잘 하나면서 놀라워했던 일화도 있다.

한의원을 운영하시는 할아버지 덕에 자연스럽게 한의사를 꿈꾸는 소년이었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어 학업에 소홀히 했던 탓이었다. 당시 전국에 한의대가 경희대 한의대와 전북 익산에 있는 원광대 두 곳 뿐이었는데, 경희대는 떨어지고 원광대에는 합격을 했었다. 하지만 원광대에는 진학하지 않았고 한의사의 꿈은 접어야만 했었다. 지금 생각하면 원광대에 가지 않은 것을 후회는 하지만 요즘 공부하고 있는 사주명리학을 보면 그 때 왜 가지 않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었다. 아마 그 때 원광대에 가서 한의사가 되었어도 아마 대성하지는 못했으리라 판단한다.

그 후로 집에서 농사를 좀 짓다 천안시청에서 10여년 정도 근무를 했다. 늦게 시작한 공무원 생활이었기에 상사들이 거의 후배들이었다. 그러한 이유로 어려움과 불편함을 느껴 농사를 짓는 편이 낫겠다 싶어 그만두고 다시 농사를 짓게 되었다. 논농사부터 고추농사까지 해봤고 7, 8년 전부터는 대추 농사를 하고 있다. 농사를 지으며 당구장도 운영을 했는데 풍수지리에 묘한 매력을 느껴 지금까지도 공부를 하고 있고 동남구문화원에서 강의도 하고 있다.



## 그 시절 음악다방, 종로 2가의 종로다방

어렸을 때는 전혀 다방이라는 곳을 다니지 못했다. 할아버님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으니 할아버지 따라서 간다거나 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고, 아버지는 술을 즐기는 분이셨지 차를 마시는 분은 아니셨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다방이라는 곳은 한 번도 출입을 한 적이 없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름 재수한다고 서울로 올라갔었다. 공부는 안하고 다방, 당구장, 극장 등을 다니며 시간을 보냈었다. 재수시절엔 주로 음악다방을 갔었다.

그 때 당시 제일 대표적인 음악다방은 종로 2가에 있던 종로다방이었다. 다방으로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했고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200평 정도 될 것 같다. 테이블 수도 셀 수 없을 정도였고, 손님이 워낙 많다보니 셀 수 없을 정도였고 테이블도 부족해 돌이 와서 앉아 있으면 합석을 시키기도 했다. 직원들에게 잘 보이면 부킹처럼 남자, 여자 합석을 시켜 주는 일들도 있었다. 직원도 엄청 많았고 디스크자키가 있었는데 손님들이 신청곡을 써서 보내면 그 중에서 선별을 해서 틀어주곤 했었다.

기억엔 오후에 학생들 학교 마치고 나올 무렵이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였다. 그 때는 금연이라는 것에 대한 제재가 없을 때라 담배 연기도 자욱하고 음악 들으면서 커피 마셨었다. 그리고 대학생들, 직장인들, 고등학생들도 교복만 사복으로 갈아입고 많이 왔던 걸로 기억된다. 한 서른 살 정도, 그 이상이 되면 그 다방에 잘 오지 않았던 것 같다. 나름대로 암묵적인 행태였던 것 같다.

종로다방에 그 때 당시 많이 왔던 사람 중에 유명인은 지금의 송창식, 윤형주, 김세환, 김정호, 양희은 등 포크계열 가수들이 종종 와서 노래도 부르고 가곤 했었다. 특히 양희은씨는 종로다방에서 최초로 노래를 불렀다고 했다. 가수들이 종종 와서 노래를 부르고 가는 탓에 오늘 누구 올지도 몰라 하는 기대감에 다방에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주로 학원가에 있는 다방에는 거의 디스크자키들이 있었다. 학원이 주변에 있는 다방의 디스크자키를 하던 사람들은 지명도가 낮은 사람들이었고, 종로다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던 사람들이었다. 보통 당시 연예계에서 가수하는 사람들이 디스크자키를 많이 했었다. 입담도 좋아야 했고 농담도 잘해야 하고 개그감도 겸비해야 했다. 그래서 인기 있는 디스크자키들은 서로 스카우트 해가려고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종로다방 같은 경

우는 무명가수가 이름을 알려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기도 한 경우가 많았다. 유명 디스크 자키들은 사람 제일 많은 시간에 오고, 점심시간이라든가 한가한 시간대에는 신인급 디스크 자키들이 와서 했었다. 그 때 당시는 통금이 있을 때니까 마지막 타임이 오후 11시였다.

총무로 2가 쪽에 있다가 지금은 없어진 작은 호텔인 프린스호텔 내에 있던 다방은 낮에는 차를 팔고 디스크자키도 있었고 오후 늦게부터는 술을 팔았다. 거기도 유명 연예인들이 많이 왔었다. 대표적인 예로 김정호, 은희 등 그 때 당시 지명도가 높은 가수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고 갔었다.

종로다방은 찾값이 싼었다. 그 때 당시 서울 시내버스가 30원인가 할 때 종로다방에서 커피 한 잔이 80원인가 했었다. 프린스호텔 내의 다방은 좀 더 비쌌다. 거기는 커피 한 잔이 보통 200원, 저녁 때 생맥주를 팔았는데 생맥주는 한 잔에 250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된다.

자유로웠던 서울에서의 재수생활은 22살 때 군대 영장인 소집통지가 와서 시골인 병천으로 다시 내려오며 막을 내리게 되었다. 서울에 있을 때는 다방에 가도 누구 하나 이상하게 생각지 않았는데, 시골에서는 다방이 일종의 퇴폐업소로 인식이 되어 있어 몰래 다방을 다녔다. 시골에서는 부정적인 이미지의 다방이었지만 여전히 맞선을 보는 공간, 이 근방 유지들이 좌담을 나누는 공간, 약속 장소 등 여러 의미의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 격세지감 속 양날의 다방

다방이라는 곳이 한자로 풀이를 하면 차를 마시는 방이라는 뜻으로, 일제시대에 건너온 다도문화를 이어오다 지금의 보편적인 다방이 된 것은, 얘기 듣기로는 6.25 전쟁 때 미군들이 들어와 커피를 찾았으니까 팔기 위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커피 수입도 못해서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온 커피로 미군을 상대로 장사를 시작한 것이 보편화된 다방의 시초라고 알고 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다방이 생긴 곳이 기지촌, 부산이고 그 후에는 서울에서 용산 미군 기지였다. 경기도 권역에서는 의정부, 평택 근방에 제일 먼저 다방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서구문화가 들어오면서 다도가 변질이 되고, 정통으로 차를 파는 곳이 없어지면서 다방하면 커피가 생각나는 시대가 온 것만 같다.

다방도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 것 같다. 젊은 세대들이 가는 곳과 노년 세대들이 가는 곳. 놀이 문화와 소비하는 문화가 서로 다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뉘었던 것 같다. 젊은 대학생

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의 다방은 젊은 문화의 다방으로서 소비를 하게 되었던 것 같다. 청계천 쪽의 세운상가 근방에는 퇴폐적인 다방이 있었는데, 재수생이며 대학생들이 밀집했던 종로 변화가에 그런 다방이 들어와 봐야 잘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상가나 시장골목에 음악다방이 들어와도 잘 되지 않을 테니 소비층이 나뉘며 자연스럽게 상권 분리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방이라는 공간이 주는 이중적인 시각도 생겨나게 되었다. 음악다방은 조명이 환한데 청계천 상가 쪽 다방은 조명이 어둡고 나중에는 불법이라서 다 뜯어냈던 칸막이도 있었다. 다방에 밝은 문화와 퇴폐적인 문화가 공존 했던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퇴폐적인 공간으로 또는 음악을 감상하는 소통의 공간으로서 다방이라는 같은 이름을 사용하지만 양면이 공존했고, 소비층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말고 하나의 공간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요즘에 기계적으로 주문을 받고 차를 내어주는 모습을 보니 사람 대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로봇이 차를 내어주는 곳이 생겼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인간의 정을 느낄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 하지만 젊은 요즘 세대들은 오히려 그런 곳에서조차 인간관계의 생김에 대해 불편을 표할 수 있겠지만 다방에 대한 향수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점들이 아쉽다.

지금의 다방은 예전의 다방으로의 역할만 본다면 그 공간에 대한 활용도는 낮다. 지금은 놀이 문화 자체가 많고 다양하며 소통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수단과 공간도 훨씬 보편화됐고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인터넷, 게임, 핸드폰 등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만남도 있다. 빠르게 변모해가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여전히 그 시절 향수를 기억하는 기성세대들에게는 다방이라는 공간이 여전히 필요한 공간이다.

마시는 차에도 트렌드가 있는지 1990년대 후반 어느 순간 우후죽순 생겨났던 한방 찻집들은 지금은 자취를 감춰버리고 그 자리에 카페들이 생겨났다. 그러한 카페들은 다양한 형태의 북카페나 스터디카페 등 단순히 차를 마시는 공간이 아닌 다른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자리를 잡은 것 같다.

천안 터미널 옆에 운보찻집이라는 곳은 김기찬 화백이 운영을 했던 찻집이다. 화백이 운영하는 찻집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림과 같은 시각적 요소들이 많아, 차를 마시면서 작품 감상도 할 수 있는 볼거리가 가득했다. 또 어떤 곳은 도자기 공방을 하시는 분이 운영하는 찻집이었는데 도자기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며 차를 즐기고 눈 또한 즐거운 공간이 되었다.

누군가가 찻집을 운영한다면 이러한 방향으로 접근해야 경쟁력을 지닐 수 있을 것 같다.

일반 기성세대들에게는 여전히 사람 대 사람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 같다. 전문성을 갖춘 정통 다방, 차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겨나서 다방이라는 곳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 천안서복구

## 천안 금광이야기

성환 울금리 금광 이야기	68
화성관 이야기	73
천흥리 광산에 대한 단상	78
성환 금배 이야기	84
입장 양대리 광부 만세운동	90
입장지역 금광 이야기	96
일제의 천안지역 금광 침탈사	101
직산 사금 이야기	109
금 노다지 이야기	115
황금을 쫓는 사람들	121

●  
**성한 울금리  
 금광 이야기**



**조재욱** (1934년생)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구술자 조재욱은 울금리 광산에서 실제로 채굴 작업에 참여한 유일한 생존자이다. 간헐적으로 참여하다가 비록 한 달 남짓한 짧은 기간이지만, 마을에서 계속 생활하며 많은 것을 목격했다. 60년 가까운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채굴작업이나 금의 선별작업에 대한 소상한 기억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우리 선대의 삶을 조명하는 귀중한 사료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오늘날 금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기에, 금광에 대한 스토리텔링은 관심의 대상으로서 가치가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북한 땅에서 살던 조재욱의 증조부가 서울 인근의 청계산 밑으로 이주하였고, 부친이 여주를 거쳐 성환에 정착하였다. 조부는 조현, 부친은 조치현, 모친은 서병순인데 호적에는 ‘서씨’로 올라 있다. 그가 여주에서 출생했으나 어린 시절부터 성장한 성환이 고향인 셈이다. 지금은 6가구로 줄었지만, 한때는 울금리에 집안이 18가구까지 번성했었다. 오랜 기간

불편한 일이 없었을 뿐더러 우애 깊게 잘 살아왔기에 고향에 대한 애정을 느끼며 노후를 보내고 있다.

어린 시절에는 방죽이 중요한 놀이터였다, 여름에는 먹을 감고 겨울에는 썰매나 스케이트를 타며 놀았다. 추운 겨울에도 내복을 구경하기 힘들었고, 광목으로 만든 바지 저고리였는데, 썰매를 타며 힘껏 달리면 맨살의 등이 다 드러나곤 하였다. 그래도 그 시절이 좋았다. 지금은 이제 나이가 내일모레면 90이니, 허망하게 살아온 세월이 한심하기만 하다며 지나온 날을 회상한다.

성환초등학교를 다녔는데, ‘화성관이야기’의 구술자인 심재호와 같은 학년이였다. 공부 는 숙제만 하면 다한 것으로 알았고, 지금은 서너 군데씩 다니는 학원은 구경조차 할 수 없었다. 당시는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사람이 거의 없던 때여서 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짓는 것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다. 형제라곤 누나 하나뿐이어서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다시피 자랐다. 누나는 일찍 결혼하고 17세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버지와 둘이 살아야 하는 아픔이 있었다.

결혼을 늦게 하고 싶었는데, 누나가 그의 결혼을 매우 재촉하였다. 대흥리에 살던 누나가 시댁과 친정을 오가며 집안 살림을 돕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이었다. 누나의 힘든 사정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그의 인물에 대한 평판이 좋았고 성실하다는 소문이 나서 선이 많이 들어왔다. 당시는 자전거도 귀한 시절이었다. 자전거를 타고 누나와 같이 선을 보러 다니다가 쉽게 성혼이 되었는데, 부인은 성환의 유지였고 부면장을 지낸 흥창기의 진외가 쪽 질녀였다.

자녀는 3남 2녀를 두었는데, 아들이 보수가 좋은 삼성전자에서 부장까지 승진하여 큰 기쁨을 선사해 주었다. 그러나 간부가 되어서 술자리가 잦아 보니, 술병이 나서 요절하는 큰 아픔도 있었다. 그 어떤 슬픔과도 비유될 수 없는 참척이었다. 대부분 가족 이야기는 자랑으로 이어지곤 했는데, 울컥해서 말을 잊지 못하는 모습에 보는 사람도 아픔이 컸다. 더구나 같은 회사 차장으로 근무하던 작은 아들은 형의 죽음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한동안 술에 의지하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하는 고통마저 겪어야 했다. 즐거운 마음으로 과거를 회상하면 좋는데,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딸 자랑을 주문했다. 사위가 대우그룹의 상무까지 진급해서 잘 살고 있지만, 딸이 임신 중에 입덧이 심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사위가 단산

수술을 해서 아쉬움이 크다.

25세 때, 가까운 평택의 미공군부대에 취업이 되어 2년을 근무하다가 성환의 미공군부대로 옮겨 2년 3개월을 더 근무했다. 그 후 잠시 금광 채굴작업에 참여한 것을 제외하곤 농사를 지었다. 논밭이 3,200평이 있어서 생활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손을 놓은 지가 꽤 되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성환에 28명이나 되는 동창들이 있어서 즐겁게 어울렸는데, 이제 3명만 남아있어 크게 안타깝기만 하다. 이제 서로 볼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며, 한 달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모이고 있다.

먼저 금광에 대한 일반적인 구술이 있었다. 어느 책에는 울금리의 옛 지명이 금곡리라고 나와 있는데, 그의 설명에 의하면 울금리 안의 금곡동으로 현재는 울금리 3구로 불리고 있다고 한다. 질문자가 “하여간 울금리나 금곡동이나 모두 ‘금(鎊)’이 들어 있으니, 지명을 붙인 사람은 금광이 개발될 곳인 줄 알았나 봐요.”라는 말을 해서, 전해 내려오는 재미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본래 일정 때의 행정단위인 직산현에는 직산을 비롯하여 성환, 입장, 성거가 포함되어 있었다. 근처를 지나던 소나기 구름들이 금이 많이 나는 청직산은 피해야 한다며 모두 피해갔다는 것이다. 궁금하던 수수께끼가 풀린 셈이었다. 성환과 입장은 배와 거봉 포도가 유명한 특산물이다. 다른 과일도 비슷하지만, 특히 거봉포도와 배는 비가 적게 내려야 좋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때문에 비가 적게 내리는 이 지역이 거봉포도와 배의 재배에 적지(適地)가 된 것이다. 왜 이 지역은 비가 적게 내리는지 궁금했는데,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를 믿는다면 궁금증이 풀린 셈이다.

오늘날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금값이 당시는 어땠는지 짐작이라도 해 달라고 했더니, 고개를 갸웃거리기만 한다. 쌀값과 비교해 보자고 했더니, 당시는 먹고 살기 힘든 때여서 쌀값이 매우 높았다고 기억하고 있다. 한참 어려울 때는 부잣집에서 쌀 한 말을 빌리면, 1주일이나 5일씩 일을 해주어야 했고 좀 나아진 후에도 3일 일을 해 주어야 했다고 기억한다. 지금은 노동자의 하루 일당으로 40kg 정도의 쌀을 살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를 일이다.

지금은 야산이 배 과수원으로 변해 있고, 평야 지대에 가까운 지형이어서 금광으로 개발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는다. 질문자는 문단 선배인 정창순 시인의 석일농원을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다. 그 농장은 울금리의 인접 마을인 송덕리에 있어서 수없이 지나



다닌 곳이고, 배꽃축제가 열리는 왕지봉의 전망대에서 동서남북으로 지형을 조망해 보곤 했었기에 익숙한 곳이기 때문이다. 또한 평야지대에선 갠도 채굴이 아닌 노천 채굴 방식일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전국적으로 불리웠다는 ‘금노다지 타령’이나 큰 금맥의 발견 등에 대해 질문했으나, 없었다거나 모른다는 답변이어서 조금은 아쉬움을 안고, 본 주제인 울금리 금광이야기로 넘어가기로 했다.

언제부터 금광개발이 시작되었는지 대략이라도, 아니면 짐작이라도 말씀해 달라고 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예상보다 폐광 시기는 늦었는데 1970년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탄광은 매우 깊이 파 내려간다고 알고 있는데, 울금리 금광의 경우는 보통 100m 정도이고 가장 깊은 곳이 200m 정도였다. 수평거리는 금이 나오는 정도에 좌우되는데 400m 정도였고 본양산은 거의 다 뒤진 셈이라고 한다. 다른 쪽에서 굴착해 들어오는 갠도와 연결될 때는 시원함의 극치를 맛보기도 했다. 갠도의 입구를 동마구리 서마구리로 불렀다. 샘을 파듯이 수직으로 파 내려가기도 하는데 이를 샘이라고 불렀다.

광산 개발의 전체를 관리하는 경영주를 광주라 불렀고, 사업 자금을 제공하는 사람은 돈주(연상이라고도 함)라고 했다. 조재욱은 자모작으로 참여했는데, 이는 스스로 다섯 명씩 작업조를 짜서 들어가 일을 하고, 수확한 금을 분배받는 방식이었다.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서 이제 어떤 비율로 배분했는지는 기억이 없는데, 별로 큰돈은 아니었다.

당시에 착암기는 없었고 다이너마이트로 터트리면 팽이로 긁어내는 방식이었다. 규모는 크지 않았어도 그걸 싣고 나오는 레일은 만들어져 있었고 금방앗간은 갠도에서 가까운 곳에 있어서 어렵지 않았다. 금방앗간은 다섯 팽이가 한 조로 두 개 조의 열 팽이가 있었는데, 앞에는 좁고 뒤에는 넓은 구조였다. 금이 박힌 돌을 빵을 때는 파이프를 연결하여 물을 넣으며 작업이 진행되었다.

방아를 찧고 난 후의 선별작업은 구리로 된 동판과 수은이 이용되었다. 금이 섞인 돌가루를 체에 넣고 좌우로 출렁거리면, 밀가루처럼 잘게 부서진 금이 체를 통과한 후 동판에 뿌려놓은 수은에 잡히는 방식이다. 금을 먹은 수은은 무겁기 때문에 동판에 가라앉으면, 동판을 밀어서 금을 모을 수 있었다. 그것을 광목에 싸서 빨래를 짜듯이 비틀면 밤톨만한 금덩어리가 되었고, 그것을 다시 숯불로 가열하며 풍구질을 하면 수은은 날아가고 금만 남게 된다.

분배받은 금을 돈으로 바꾸는 곳은 당시에 금방이라 했는데, 성환 읍내에는 세 군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금을 선별하고 남은 돌을 버럭이라고 했다. 한 때는 산처럼 쌓여있는 버럭 더미를 치울 일이 걱정이었다. 그 버럭 더미는 평택의 미공군부대가 비행장을 건설하는데 긴요하게 이용되었다. 큰 트럭 8대가 실어 나르니 금방 깨끗하게 치워졌다.

금광의 규모는 크지 않아서 사무실에 4~5명이 근무했고, 채굴작업은 20명 썩 2개 조로 나뉘어 40명이 주야로 교대 근무하였다. 갱도의 흔적은 입구가 다 메워져서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 6.25전쟁 때는 갱도가 피난처로 이용되기도 했는데, 구술자도 그 안에서 하룻밤을 자기도 했다.

사무실 한 쪽에 보관 중이던 다이어마이트의 관리 소홀로 인해 일어난 큰 폭발 사고의 숨은 비화도 들을 수 있었다. 사고 당시 구술자는 인근의 마을에 있었는데,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하늘 높이 먼지 구름이 치솟았다. 모두들 궁금해서 달려가 보았는데, 4명이 사망한 대형 사고였다. 불행 중에도 한 사람은 극적으로 목숨을 구했다고 전해진다. 근처에 사는 직원은 집으로 점심을 먹으러 다녔는데, 여섯 살 난 아들이 데리러 와서 빨리 가자고 조르는 바람에 점심시간이 시작되기 조금 전에 서둘러 나왔다고 한다. 극적인 것은 아들은 쪼르르 달려서 많이 앞서가자, 아들을 돌려주려고 버럭 더미의 옆에 숨은 순간 폭발 사고가 난 것이었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곳까지 날아온 파편에 많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을 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니, 점심을 먹으러 빨리 가자고 아들이 조르지 않았으면 사고를 면할 수 없었을 터이니, 아들이 아버지의 목숨을 구한 셈이었다. 특히 가슴이 아팠던 것은 취직한 지 1주일 된 어린 소사가 희생된 일이었다. 당시는 119는커녕 시골이어서 택시도 없던 시절이라 중상을 입은 그를 리어카에 싣고 최대한 서둘렀으나, 다음날 숨을 거둔 일이었다.

구술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가벼운 질문을 드렸다. 현재의 소일거리를 묻자, 3년 전까지만 해도 경로당에서 바둑, 장기를 두며 심심풀이 고스톱도 즐겼다고 한다. 올해엔 코로나 19 때문에 밖에도 못나가고 오직 TV에만 의존해서 시간을 보내려니 너무 힘들다고 한다.

외모로 보아서 아주 건강해 보이신다며 건강 비결을 묻자, 그렇지도 못하다는 답변이다. 연세가 있으신데, 오토바이로 이렇게 나들이를 하시는 것이나 밝은 귀, 그리고 힘찬 목소리로 보면 건강한 편이 아니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다. 같이 진행을 맡은 이정우가 “귀를 보니 앞으로 최소한 20년은 더 사신다.”고 덕담을 드리자 환하게 웃으며, 구술을 마무리하였다.

●  
화성관  
이야기



**심재호** (1935년생)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구술자 심재호는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로 지역에서 존경받는 원로이다. 넉넉한 가정에서 자랐고, 후손들이 크게 성공하여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다. 청송 심씨 안효공파 25대손으로, 성환역 앞에 있었던 한의원에 딸린 살림집이 그의 생가이다. 한의원을 경영한 조부의 많은 덕행은 마치 이 고장의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다.

애항심이 남다른 그의 고향 자랑이다. 성환은 낙농업과 과수원의 발상지이자 일찍이 금광이 발달한 고장으로, 모두가 가난하고 어렵던 시절에도 비교적 넉넉한 삶을 꾸려올 수 있는 고장이었다. 그의 영재 아들은 성환 지역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3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다. 대전고등학교를 만 12세에 입학하였고, 서울대학교에서 유기화학을 전공한 학자가 되어 대학교수로 봉직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 다녔던 초등학교 시절의 회고담이다.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잊을 수 없는 일들이 옛그제의 일처럼 생생하다. 3학년의 어린 나이에 4km를 걸어 모내기 지원을 나가곤 했는데, 선생님의 인솔에 따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다. 또 송탄유를 만들기 위해 소나무 뿌리 굵은 것을 캐내느라 고생이 심하기도 했다. 질문자는 천안문협 회원이었던 남옥현이 그의 친구인 것을 알게 되었다. 재담가인 그의 어린 시절이 궁금했는데, 당시에도 잘 웃기고 노래를 잘 불러서 친구들에게 매우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16세인 중학교 3학년 때 6.25전쟁을 맞았다. 진외가가 있던 아산시 음봉면 월랑리로 피난을 갔다. 다행히 매우 외진 마을이어서 처참한 모습을 목격하는 화는 면했으나, 의용군으로 끌려가는 것을 피하고자 계속 산속에서 숨어 지내야 하는 고초를 겪었다.

서울 양정중학교를 졸업한 그는 전란기여서 천안농업고등학교(현 천안제일고등학교)에 입학하여 2학년 1학기까지 다녔다. 그 후에 양정고등학교로 복교해서 졸업하였다. 학창 시절을 회고하며 잊을 수 없는 스승님이 계신다고 한다. 고등학교 때의 김중식 선생님이다. 무엇보다 철학적인 말씀으로 진로를 설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특히, “만(萬) 고량의 땅도 작은 기술만 못 하다.”라는 말씀을 7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한다.

대학교는 중앙대학교로 진학하였다. 질문자의 고향 어른이자 독립운동가인 임영신 총장에 대해 물었다. 이신애 독립운동가에 대해 공부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천안의 자랑인 유관순 열사와 함께 옥중만세운동을 주도한 그녀가 오랜 투병 생활을 할 때, 임 총장이 자주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기억하고 있었다. 임영신은 이 지역과도 인연이 있다는 말씀이다. 입장 양대리에 중앙유치원을 만든 것이 교육사업의 시작이었는데, 이후에 중앙대학교를 설립했다고 한다. 나라 사랑의 마음이 줄어들까 걱정되어 결혼하지 않았다는 임 총장이 훈화를 통해 가장 강조한 것은, 국가의 완전 독립을 위해서는 열심히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는 시골에서 대학교를 졸업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대졸자라면 대부분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마련이었으나, 그는 가업인 과수원 경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60년 전이니, 지금과는 매우 달랐다. 공무원이나 회사원의 보수가 낮은 반면에 배는 고급 과일로 높은 가격이 형성되었기에 아버지의 권유가 있었다. 보통 사람의 생각대로 편한 직업을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의 한눈 팔지 않은 성실한 과수원 경영은 농협 조합장을 맡기까지 18년이나 지속되었다.

조합장의 자리는 전혀 관심 밖의 일이었다. 왜냐하면 여러 차례 권유를 받았지만, 3명이나 연이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날 정도로 문제가 산적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사심이 없고 합리적이어서 농협의 운영을 정상화시킬 책임자로 중의가 모여서 여러 사람이 찾아와 설득하였다. 그럼에도 조합장의 자리는 불구덩이처럼 여겨져서 추호도 맡을 의사가 없었는데, 삼고초려를 넘어서 칠고초려가 이어졌다. 그는 피해 다니다 지쳤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시달리다 설득당하고 말았다. 다행히 그가 조합장을 맡으면서 농협의 운영은 정상화되었다. 산적한 문제는 영킨 실타래가 풀리듯이 해결되었고, 큰 어려움은 발생하지 않았다. 농협 운영의 체계화가 이루어져서 정상 궤도로 들어서게 되었고, 그가 물러난 뒤에도 농협은 잘 운영되었다. 결국 그의 어려운 결단은 지역사회를 위해 크게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시의회 의장도 마찬가지였다. 시군 통합의 주역으로 활동했지만, 의장 자리에 욕심이 없었는데, 추대 형식으로 의장직에 취임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돈이 사람을 따라주어야지, 사람이 돈을 따라가면 도망간다.”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결국 그는 큰 명예의 자리도 욕심을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 셈이다.

현재의 북천안새마을금고는 본래 성환새마을금고였다. 농협 조합장과 시의장을 역임하며 능력을 인정받은 그를 새마을금고에서는 계속해서 이사장으로 옹립하였다. 처음 이사장에 취임한 것은 1987년의 일로 그의 나이 53세였다. 오래전의 일이라고 하지만 이사장직을 맡기에는 젊은 나이였다. 경영 능력이나 직원의 무한 신뢰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결국 벌여놓은 큰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큰 짐을 벗고 지난봄에야 물러날 수 있었다.

33년 전에 금융사고로 존폐 위기에 있을 때 이사장으로 취임했는데, 회사를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힘이 들었다고 한다. “헌 집 고치기는 새로 집을 짓기보다 어렵다.”는 말이 떠오르는 대목이었다. 그런 상황을 잘 극복했지만, 직원 수가 많고 돈을 다루는 금융업은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화려한 이력과 구수한 구술에 본 주제에 대한 이야기가 늦어졌다. 먼저 울금리 지명에 대한 질문부터 드렸다. 마치 총주와 청주의 앞글자를 따서 총청도가 되었듯이 울가리와 금곡리가 합쳐진 이름이라는 설명이다. 울(粟)은 밤을 뜻하기에 밤톨만 한 금이 나오는 곳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사실 철도 교통의 발달과 더불어 오늘날과 같은 시가지가 형성되었지만, 애당초는 울금리가 중심이어서 가장 큰 교회인 성환감리교회도 그곳에서 시작했다고 한다.

성환은 지금도 소도시에 불과하다. 무려 60년 전에 금방이 세 개나 있었다고 하니, 금광이 성환 경제에 미친 영향도 꽤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노름판 금점판’이다.

성환의 상류(上流)인 성거와 입장도 금광이 발달했기에, 물에 흘러 내려온 사금 채취가 번창했다. 어려서부터 사금을 채취하는 준설선인 금배를 구경하러 다니기도 했다. 재미있는 일화는 금광업자인 입장의 박영민이 국회의원에 낙선할 때마다 금이 쏟아져 나와 선거비용을 보충하곤 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다. 금값에 대한 질문에,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기에 금값보다 쌀값에 더 예민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금광 개발에 따라 시골 마을에 기생이 여러 명인 고급 술집이 생겨났으니, 관심과 화제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그 이름은 화성관(華成館)이다. 어른들은 그곳에 다녀온 것이 큰 자랑이었고, 청소년들은 성공해서 큰돈을 벌어서 그곳을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꿈을 꾸었을 것이다. 구술자는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의 한의원에 드나들곤 했는데, 당시 그곳은 지역 유지들의 사랑방이었기에 그런 대화를 많이 들었다고 한다.

위치는 성환5리 성환성당에서 서쪽으로 내려오는 길목으로 신선동 서북쪽이다. 건물 모습은 한옥으로 방이 4개 정도로 짐작되고, 한자로 된 간판도 걸려있었다. 건물 옆에 큰 우물이 있었다. 성환 지리에 어두운 질문자는 울금리 금광에 대한 면담에서 화성관이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고 들었다. 따라서 문화원에서는 꽤 떨어진 곳으로 짐작했었다. 구술이 끝나고 화성관 터를 안내하여 찾아갔더니, 문화원에서 직선거리로 100m 남짓한 그야말로 지척의 거리였다. 위에 적은 대로 성환성당에서 서쪽으로 내려오는 길 바로 밑에 있는 ‘뜰안채’ 맞은편이다. 현재 모습은 3층 건물의 상가주택으로 1층은 ‘한국유리’라는 간판이 걸려 있다.

금광과 관련하여 이 고장에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 화성관이 한창 성업 중일 때는 신사복을 입은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고, 돌가루를 뒤집어 쓴 광부들만 환영을 받았다고 한다. 녹두알 크기의 금 조각을 술값으로 내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일본인이 금광을 관리할 때는, 일본인의 착취에 대한 반감으로 작은 금 조각을 호박잎에 싸서 목으로 넘겨 변(便)으로 나오게 했다는 말도 많이 들었다.

많은 화제 거리를 만들어내며 성업 중이던 화성관은 해방과 함께 일본인이 쫓기면서 문을 닫았고, 건물이 헐린 것은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던 때로 기억된다. 그 후 화성관의 역할을 대신하는 고급 술집으로 인천집, 이화장 등 서너 군데가 생겨났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질

문을 드렸으나, 없다거나 잘 모른다는 내용이 몇 가지 있었다.

면담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드렸다. 먼저 퇴임 후 몇 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여쭙었다. 오래 봉직해서 익숙한 일이었지만, 금융업은 돈을 만지는 일이어서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다가 해방감과 편안함을 즐기고 있다는 답변이다. 참으로 편안함을 만끽하고 있는 환한 표정이 보기 좋았다. 회사를 운영하며 특별히 노력한 점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에게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 그런 면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했다.”는 소박한 답변과 함께, 새마을금고가 IMF 금모으기 행사에 앞장서서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금을 모았던 일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회고하였다.

앞으로 코로나19가 풀리면 부인과 함께 여행을 마음껏 즐기고 싶다면, 외국 여행보다 국내 여행을 주로 하고 싶다고 한다. 사실은 서울에 볼 것이 많다면서 명소도 둘러보고 10년 가까이 학창시절을 보냈던 지역의 골목골목을 찾아보고 싶다는 소회도 밝혔다.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은 신앙인으로서 절제력을 견지하는 것이라고 한다. 현재 장로로 시무하고 있기도 하다.

자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냐는 질문에는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즉 아내와 자식들에게 신임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살아왔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하였다. 지역 사회의 원로로서의 말씀이다. 성환은 본래 단결이 잘 되었는데 요즘은 개인주의가 팽배해 아쉽다면서,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정신운동을 종교계와 함께 문화원이 앞장서 주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남겼다. 겸손하게도 나이만 먹고 해 놓은 일이 없다면, 이제 여생(餘生)을 나름대로 잘 마무리 하고 싶다는 소망을 피력하며 구술을 마쳤다.

●  
천흥리 광산에  
대한 단상



**황영선** (1933년생)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 고단한 유년의 삶

창원 황씨 4대째 이어오는 이곳, 천흥리 토박이임을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구술자 황영선 옹의 넉넉한 표정에서부터 구술이 시작되었다.

구술자의 조부께서 일찍 돌아가시자 청상과부 신세였던 할머니는 두 살 어린 아들(부친)과 함께 보쌈이 되어 이곳 천흥리로 옮겨오셨다고 한다. 새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버지, 배움도 없이 고단한 세상 속에서 60대에 이르도록 평생 광부생활을 하시다 돌아가셨고, 보쌈이 되어 오신 할머니는 조금이라도 나아진 생활이 아닌 또 다른 고난의 세월을 사셨다고 구술자는 회고한다.

어린 시절, 기억에 남는 것은 할머니의 오빠, 그러니까 진외종조부가 동생을 찾는다고 광산을 수소문하다 이곳에서 동생인 구술자의 할머니를 만났고, 그 역시 이곳에 눌러앉아 광



산 덕대로 활동했었다.

1933년 일제강점기 하, 부친 황관옥과 모친 권명숙 사이 5남 3녀 중 둘째, 아들로써 맏이로 태어난 황영선. 당시 시대상이기도 했지만 제 나이에 학교를 들어가는 일은 그리 쉽지 않았기에 다소 늦게 천흥리 입구 신식학교로 모습을 드러낸 성거국민학교(지금의 성거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어려운 살림살이 속에서 국민학교를 다닌 게 결국 학력의 전부가 되었다. 3학년 때 해방이 되고 가난에 찌든 집안일에 매달리다보니 학교를 가는 등 마는 등, 한 달이면 열흘 남짓 학교를 갔던 것 같다고 회상한다. 썩을 뜯어먹던 기억 속에서 늘상 허기졌던 세월을 건너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은 게 일생일대 가장 큰 기쁨으로 남는다는 구술자.

먹고 사는 게 우선이었기에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광산을 기웃거렸다. 버럭더미를 뒤졌고, 아버지를 따라 광산에서 노는 게 하루의 일과였다. 산으로 들로 먹을 것 찾으러 다니는 게 일이었다. 모든 게 결핍이었던 고단한 삶 속에서도 형제자매들을 건사해야 한다는 중압감에 몸부림친 세월이었다.

스무 살이 되자 군대에 입대했다. 휴전이 되면서 곧바로 입대를 했는데 무려 5년을 복무했다고 한다. 그 세월 또한 엄청난 인고의 세월이었다. 제대와 함께 어릴 적 세상의 전부로 바라보았던 마을 광산, 중앙광산에서 일을 했다. 딱히 할 것도 없었고, 배움도 짧았기에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제대 2년 후 결혼을 했다.

27살 가난한 청년이었지만 삶에 대한 의지와 근면한 모습 하나에 마음을 주었다는 천안 수신에 사는 홍명숙과 결혼했다. 식구가 늘면서 중압감에 시달렸다. 마침 광산도 산금의 양이 줄고, 인건비가 상승하자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고 문을 닫았다. 정식 광부로서 5년의 삶도 끝이 났다. 막막한 시기였다. 지인의 말만 믿고 무작정 인천으로 올라갔다. 거기서 미장일도 했고 닥치는 대로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다. 마침 지인의 소개로 배관 일을 하는 월급쟁이 일자리가 생겼다. 월급을 받으면 홀로 자신을 기다리는 아내를 찾아 고향 천흥리로 내려왔다. 그렇게 5년을 지내다 영등포에 있는 중견기업체 철거공사에 들어가 4년을 일했다.

떠돌이 생활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땅도 조금 샀다. 희망의 끈을 붙잡고 열심히 살았다. 먼저 집을 지었다. 할아버지 때부터 터전을 이루었던 천흥리

240번지에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오던 초가를 헐고 기와를 엮었다. 논농사도 밭농사도 지었고, 포도농사와 배 과수원도 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는 즐거움으로 살았다.

### 금을 찾는 사람들 속에서

군 제대 후 5년여 세월, 광부로서의 삶을 되돌아본다.

이번 구술채록의 주제인 천흥리 금광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자 득달같이 지난 시간들을 쏟아내는데, 바로 엇그제 같은 일인 양 생동감이 넘쳐났다.

성거 천흥리에는 금광이 3개 있었다고 한다. 본래는 미국인들이 운영했던 금광인데, 한일 합방이 되면서 일본인이 들어왔고, 해방이 되면서는 한국인이 운영했다고 한다.

“맨 위쪽 그러니까 발안골 너머 시장저수지 쪽에 ‘성거광산’이 있었지. 그리고 성거산 아래 사리목 가는 길에 ‘대한광산’이 있었고, 이곳 천흥리 한복판 문수동에 ‘중앙광산’이 있었어. 중앙광산은 자유당 때 국회의원 출마도 했던 박영민씨가 주인이었는데, 나도 한때 그곳에서 일했지.”

귀한 말씀을 듣는다. 지역사 연구를 한다면서도 막연히 천흥리 금광 정도로만 알았었는데, 이렇듯 상세하게 여러 곳 광산들을 살필 수 있다니, 여간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3개 금광이 있었기 때문에 천흥리 본동 천흥리는 늘 흥청거렸지. 술집도 십여 군데가 넘었어. 색시들이 있는 술집, 그러다보니 광부들은 늘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돈이 흔했고 놀 거리가 많으니 결국 금광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없었어. 쉽게 번만큼 쉽게 내다 버리는 삶이야.”

아침 일찍 광부들이 깊은 지하로 향하는 게 일의 시작이었던단다. 땅 밑 200m정도 내려갔었다고 한다. 이곳 금광들은 수직과 수평의 갱도를 번갈아 뚫은 것으로 짧게는 20m부터 길게는 200m까지 들어가는데, 이때 갱도는 개미굴처럼 얽히고설켜 서로 만난다고 한다. 특별한 안전 장비 없이 벼툼목으로 이어지는 갱도를 파고 들어가 광석을 퍼 올리는데, 구술자는 당시 펌프맨이었다고 한다. 갱도에 길을 낼 때 물길과 함께 이어가는데 자신은 그 일을 담당했었다고 한다.

“광부들의 역할은 제각각이지. 갱도에서 금맥을 쫓아 길을 내는, 그러니까 굴을 뚫는 일과, 폭약, 다이너마이트를 다루는 사람들, 곡괭이로 금이 묻은 광석을 쪼아내는 막장일과

부서뜨린 광석을 갱도 밖으로 운반해 내는 일. 그런데 원석을 아무리 끌어 내 방앗간에서 걸러내도 금이 그리 많이 나오는 건 아니야. 굴의 내부는 남자 한 명이 겨우 있기도 힘들 만큼 좁지. 그곳에서 광부들은 망치와 정을 이용해 단단한 돌을 깨부수는 일을 해.”

목소리에 점점 힘이 들어가면서 신명으로 말씀을 이어가신다.

“광부들은 금이 나오는 광맥을 찾는데 주변 암석과 달리 짙은 색을 띠고 있는 부분이 물 길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보여. 그게 바로 금맥이야. 단단한 암석을 부숴야 금광석을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광산에서의 일은 중노동이지. 게다가 망치를 들고 오랫동안 일하는 건 웬만한 체력으로 감당키 어렵지. 그 뿐 아니야. 진흙 범벅인 손은 마디마다 굳은살이 박히는데, 돌처럼 굳은 광부들 손바닥은 차마 볼 수가 없어. 날카로운 돌에 찢리고 쓸려 피를 보는 일도 부지기수지.”

### 금광에 대한 기억 속 풍경

참으로 고단했던 기억을 먼 산을 바라보면서 회상에 잠기더니 다시 말씀을 이어가신다.

“원석 1톤을 채취해도 금 2~3돈 얻을 정도지. 그 정도면 노다지라고 했어. 그러니 금 1냥, 10냥을 얻으려면 얼마나 많은 광석을 캐내야 했겠나.”

이곳 천흥리 주민은 금광에 달라붙어 먹고 사는 집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남자들이 정식 광부로 취업해 일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야. 기술이 있어야 했고, 믿음이 가도록 인정을 받아야 했지. 그러다 보니 자연히 ‘자모작’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했지.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게 아니라 4~5명이 조를 짜서 벤또(도시락)를 들고 막장에 들어가 일을 하고, 금을 얻어내면 광주와 분배하는 제도지. 자모작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본 말로 모찌꾸미라고 하는데 이들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 먼저 쌀 몇 말을 주고 인부들을 모집해 자모작이라는 모양으로 일하게 하고 그들이 나중에 금을 얻어내면 받는데, 그리 만만한 게 아니야. 대부분 손해를 보고 물러났어. 금광 찾으러 다니는 사람, 광주와 전주들 중 성공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아. 가끔 금맥을 찾아 노다지를 발견하는 일은 있는데 이미 서양 사람들이 죄다 캐내 가고 해방 후에는 금이 나오지 않았어.”

자모작 하는 사람들의 일 하는 시간은 정해진 게 없다고 한다. 부지런한 사람은 몇 푼이라도 더 벌려고 오랫동안 일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진드근히 일을 못하고

후딱 갱도에서 벗어나기가 일쑤였다고 한다.

“여자들도 광산에서 일을 했어. 갱도에서 광석을 캐 나오면 선별하는 작업은 여자들 몫이었지. 돌을 살펴 일일이 눈으로 살펴 금빛이 돌면 한 쪽으로, 그렇지 않은 돌은 ‘버럭’이라 부르는데 한쪽으로 쌓아가는 일을 하지. 동네 어린아이들도 버럭더미를 파헤치며 흑시라도 어른들 눈에서 놓친 광석이 있나 해서 눈이 벌게 가지고 헤쳐 대는 거야. 참 힘든 세월을 보냈어.”

금광석을 캐는 작업이 끝나면 한곳에 모이는 일이 시작되는데, 많을 때는 하루에 30~40포대씩 나왔다고 한다. 갱도 거리만큼 고스란히 사람 힘으로 옮겨야 하는데 그게 정말 고역이었다고.

3개의 광산이 자리했다면 금방앗간도 제법 많았으리라 여쭙었더니,

“네다섯 개 됐지. 천흥리 마을 입구 쪽, 지금 김치공장 자리야. 4백여 평 되는데, 바로 그 자리가 이흥규 씨가 운영하던 금방앗간이지. 중앙광산 소속. 그리고 성거광산 쪽 방앗간은 김수호씨 건데 성거광산 소속이었지. 대한광산 소속 금방앗간은 구랑골 아래 있었고, 내가 있던 중앙광산 소속의 조규희씨가 운영하던 방앗간은 지금 우리집 바로 앞에 있었어.”

참 좋은 시절은 금방앗간이 돌아가던 시절이었다고 회상하시는 구술자는

“광부 복을 입고 다니면 대우받던 시절이었어. 그들 주머니에 금 몇 돈은 늘 넣고 다녔으니, 장사치들은 무조건 그들을 환영하는 시대야.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실감나던 때야. 하지만 그러다 보니, 불행한 일들도 많았지. 술집 여자들을 놓고 싸우기도 하고, 노름판에 나섰다가 돈을 모두 잃기도 하고, 가정을 온전히 건사하지 못한 채 떠돌아다니는 삶도 이어졌지.”

금을 골라내는 작업에 대해 묻자,

“요즘에야 기계로 선광작업을 한다지만, 그때는 죄다 수작업이었지. 금방앗간에서 고르게 부서진 광석들은 물로 걸러지고, 다시 수은을 가지고 비중으로 금과 돌을 분리하게 되지. 수은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는 몰랐었지.”

당시 광산의 갱도는 지금도 예전 그대로인지를 묻자,

“갱도는 그대로 한동안 이어졌어. 내 젊을 때만 해도 요즘 같은 여름날 피서지로 이용하기도 했었는데, 위험해서인지 죄다 입구를 막아 놓았어.”

## 남은 세월에 대한 바람

“작업이 끝난 광부들이 올라갈 시간. 지지대를 하나하나 밟아가며 지상의 땅으로 올라설 때면 참 기쁘지. 굴 안에서 먼지와 땀으로 뒤범벅이던 몸이었지만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이 힘들었음을 금세 잊게 하지. 그러니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힘든 일을 계속 하게 되는지 모르겠어.” 온몸으로 치열한 삶을 사는 광부들의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봤고, 자신 또한 그 일에 매달렸던 기억을 정리해가며 구술자는 남은 세월에 대한 자신의 희망을 이야기한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세월, 자식들도 그렇고 마을도 그렇고 더욱 발전해 가기를 바랄 뿐이라는 그는, 평생을 고향에 살면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암울했던 세월을 이겨내던 때를, 새마을운동과 근대화 과정에서 희망을 지녔던 때를, 대기업인 SKC가 마을 입구에 들어서고 천흥공단이 규모 있게 조성되면서 고향마을을 풍성하게 만들던 때를 기억한다며, 이제 남은 인생 감사함으로 살아가리라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이곳 할아버지, 아버지가 사시던 터전위에 세 번째로 2층 슬래브 집을 지으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는 말씀에 4대째 이어오는 자신 삶에 대한 강한 애정이 고스란히 담겨있음을 짐작케 한다.

아무 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이만큼 이루고, 탈 없이 5남매를 키우며 살아온 세월, 자신을 믿고 따라준 아내와 건강하게 자라준 자식들에게 고맙다고 하신다. 다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금광이 남겨준 교훈, 절대 욕심이 세상을 내 것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자식들이 깨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성실하게 욕심내지 말고 살아가기를 바란다. 라는 말씀을 들으며 구술 채록의 시간을 마친다.

●  
성환 금배  
이야기



**이 흥 규** (1933년생)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일본인들은 성환을 위시한 직산 일대 동서 60리 남북 40리 면적을 차지해 금 광산 내지 사금점을 펼쳤다. 특히 매장량이 풍부한 삼곡리 사금장에는 일본인들을 직접 투입해 새로운 기법의 채굴 방법으로 금을 생산했다고 한다.

이렇듯 역사의 현장, 직산(구한말 이전 성환은 직산현 지역이었기에 크게는 직산지역으로 포함된다)과 성환지역은 사금 대표산지로 금배가 지역 곳곳을 훑으며 사금 채취에 열을 올렸고, 그러한 광경을 목도하고 들었던 이 지역 원로 이흥규 옹의 구술을 채록, 잊혀지고 사라지는 성환 금배의 이모저모를 밝혀본다.

### 암울한 시기 척박한 현실

구술자 이흥규 씨의 삶을 기록한다. 그는 1933년 천안 목천 서흥리에서 출생했지만 척박

한 농촌의 현실, 특히 논이 적은 당시의 삶에서 쌀밥 먹는 일이 쉽지 않았기에 부친은 자신이 9살 때 친지들이 터전을 이루고 있던 성환 대흥리로 이주해 왔다고 한다.

2남 3녀 5남매 중 둘째, 아들로는 맏이로 태어난 그는 빈한한 농가의 기둥이라는 중압감에서 유년의 시절은 조금도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든 시기였다고 회상한다. 게다가 때론 멀리 밖에 나가 돈 버는 일에 집중하고도 싶었지만 농사짓는 아버지와 장사에 나선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생각에서 평생 성환에 거주하게 됐다.

빈농의 장남으로 성환초등학교를 겨우 다녔던 것이 학업의 전부였던 자신은 중풍으로 장애를 지니셨던 아버님을 도와 농사짓는 법을 배우는 것이 순리였다. 해만 뜨면 지게를 지고 나서는 것이 일과였던 그였기에 나이가 차서도 학교를 간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다. 그래서 아주 늦은 나이인 11살 때 1시간 거리의 성환초등학교 입학도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보자기에 책을 싸 어깨에 매고 뛰는 일이 다반사였다. 보리밥에 고추장을 넣은 벤또(도시락)가 덜거럭거리는 소리를 박자삼아 내달리는 게 일어였다고, 그저 학교에 가는 게 너무 좋았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도와 농사일을 거들었다.

아버지는 해방 직전 일본인 ‘산전’의 소유였던 대흥리 일원 농토 1,800평, 9마지기를 임차해 농사를 지었다. 그에게 도지와 물 사용료(수세)를 내고나면 남는 게 별반 없던 시절, 그마저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았다고 한다. 18살 되던 해 아버지는 52살의 나이로 돌아가셨다. 슬퍼할 새도 없이 자신 또한 아버지의 삶 그대로를 답습했다. 조금의 여유가 생기면 농토를 넓히는 일만 생각했다. 당시는 오로지 배불리 먹는 일이 모든 것에 우선이었다.

### 순응하며 욕심 없이 산 한 평생

성환 대흥리에서의 농사짓는 일이 자신의 삶의 기반임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인 그는 17살이 되던 해에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인근에서 가장 나이 많은 학생이었다. 20살에 이르자 인근 직산의 석곡리에 살던 동갑내기 유희순과 중매로 결혼을 했다. 하지만 신혼의 달콤함도 잠시, 몇 달 지나지 않아 그는 영장을 받고 군에 입대, 무려 5년의 세월을 전방에서 힘든 군대생활을 이겨냈다. 그 사이에 큰딸이 태어났다.

어머니는 참으로 억척스러우셨다. 몸이 편치 않은 아버지를 의지할 수 없었다. 그래서 살림은 며느리에게 맡기고 자신은 장사에 나섰다. 성환장 한 편 노점을 펼치고 닥치는 대로

물건을 파셨다. 사실 외갓집은 그리 어려운 형편이 아니었다고 한다. 하지만 어머니는 천정에 손을 벌리지 않고 고단한 일상을 마다치 않으셨다. 이때 외동딸이었던 어머니에게 논 4마지기를 살 수 있는 돈을 보내오셨단다.

조금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가 짓던 일본인 땅은 해방이 되면서 국유지로 전환되어 국가 소유가 됐고, 자연스레 국유지를 임차해 농사를 짓는 형국이었다. 임차한 9마지기 와 새로이 산 4마지기 등 모두 3천 평 논을 짓게 됐다. 생활이 조금씩 나아지는 형국이었다.

그렇게 세월 가는 것도, 시절의 변화도 모른 채, 오로지 농사짓고 내 땅을 만들고, 거기서 얻는 수확의 기쁨만을 좇으며 살았다. 그러면서 4남매의 다복한 가정이 만들어졌다. 풍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장애를 지니셨던 아버님의 노동력의 한계를 자신이 짊어져야 했던 어린 시절, 그 고단함에 비하면 날마다가 천국이였기에 한 번도 현실을 비판하거나 누구를 원망한 적은 없었다고 한다. 당시 어머니는 자식들을 키워야 한다는 일념에서 늘 강인한 모습으로 사셨는데, 어머니의 모습을 교훈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고 회상한다.

1970년 들어 안궁리, 수향리, 신가리, 대흥리 일원 국유지 논들이 소작농들에 불하되기에 이르렀다. 이때 그는 15마지기 땅을 가진 농부로 자리했다. 꿈만 같았다. 땅 한 평 없이 목천에서 옮겨온 삶에서 어머니의 도움과 자신의 노력으로, 그리고 국유지 불하로 어느 새 3천 평 땅 주인이 된 것이다. 한때 거봉포도 농사도 지어보고, 돈이 된다는 특수작물도 해 보았지만 역시 주력하는 것은 쌀농사란다. 쌀은 조금도 속이지 않고 자신의 노력만큼 소득을 가져다주기에 기쁨으로 일을 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힘든 노동의 연속이지만 자식들 키우는 재미와 하루하루 나아지는 생활 속에서, 그렇게 평생 흠을 일구며 천직으로 살아왔다고 자랑스럽게 말을 하신다.

다행히 3남 1녀 자식들이 모두 열심히 공부해, 서울대와 연세대, 인하대에 진학했고 여식은 상고를 나와 직장생활하다 시집을 갔단다.

### 기억 속 성환 지역 금배

대흥 3리는 흥경리, 대흥 5리는 복병재로 불렸던 곳이다. 옛날 청일전쟁 때 병사들이 전쟁을 하던 곳이라 이 이름이 붙은 것 같으면서, 구술자의 첫마디는 성환하면 울금리가 금광으로 유명했다고 한다. 1930~40년대 금 광산이 성행했고 광산 흔적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어



당시의 흔적을 알 수 있단다. 특히 성환 5리 천주교회 서쪽으로 내려오는 길옆에 ‘화성관’이 있었다고 한다. 금곡리(율곡리) 금광이 한창일 때 광부들이 자주 드나들었던 술집인데, 당시 성환사람들 그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화성관 여인들은 신사들보다 돌가루 잔뜩 뒤집어 쓴 허름한 광부들을 오히려 환영했는데, 그들은 콩알만한 금덩이를 술값으로 내는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이란단다.

성환읍내에서 대흥리로 넘어오는 첫 길목, 갯방죽(지금의 대흥 4리)에 금배가 있었다고 한다. 버럭툼(안궁리 4구)리에는 30여 미터정도 되는 큰 금배가 있었고, 갯방죽에는 그보다 조금 작은 금배가 엉금엉금 기듯 움직이면서 물구덩이를 퍼 올리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한다. 당시 마을사람들이 신기해 모두가 구경 갔었고, 그곳에서 광부로 일을 하던 강진옥, 강성옥 두 형제가 기억에 남지만 그들이 정확히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배에 원동기를 실어 성환천 위아래를 훑으며 썰 새 없이 바닥을 파 제끼며 흙 속에 묻혀 있는 사금을 채취했지. 보통 바닥을 5m 정도 파곤 했는데 대흥리 안궁리 일대 웅덩이가 무수하게 파헤쳐졌고, 금세 다시 메꾸어지면서 하천 옆으로는 버럭더미가 주욱 늘어섰고, 금배는 성환 전 지역을 훑으며 사금을 채취했어.” 그러면서 “당시 복새가루(금을 골라내고 남은 돌가루)가 길게 이어졌어. 금배가 사금을 채취하기 위해 하천이나 논바닥을 밀고 내려가면 작은 도랑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하천으로 이어지면서 성환 곳곳은 늘 부산해 보였지. 누구는 그때 만들어진 도랑이 오늘날 성환천이 된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하신다.

본격 금배에 대한 이야기가 무르익자 보다 새로운 기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입장 쪽에서 금배가 움직이는 모습을 심심찮게 봤었고 성환에서는 홍경리(대흥 3리)에 금배가 맨 먼저 들어오려고 했는지, 원동기를 돌리기 위해서 그랬는지, 전기가 가장 먼저 들어왔다고 한다. 대흥 5리 마을회관 앞 어느 공장의 창고 같은 건물 자리가 일본인들이 전기시설을 갖추고 사무를 보던 곳이라고 한다.

“대략 100m 간격으로 시추작업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지역주민들은 일본인들이 얼마만큼의 금을 생산했는지, 얼마만큼 자기네 나라로 가지고 갔는지, 채굴 과정과 생산된 양은 알 수가 없으면서도 당시 일본인들이 대흥리에 일부 거주했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오늘날의 상류층 모습이었다고 한다.

금배, 채금선은 성환 만이 아니고 입장과 직산, 안성지역에서도 사용했었다며, 이는 직접

목격했던 일이다. 또 해방 직전 일본인들이 직산 상덕리와 안공리에서 금배를 해체하던 일도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 성환 금점에 얽힌 사연들

금점판과 관련해 재미있는 이야깃거리를 묻자, 자신은 직접 금점판에서 일한 사람이 아니라 깊게는 알 수 없지만 당시 홍경리에는 오랫동안 ‘70명 구덩이’라는 이름이 존재했었다고 한다. 1930년대 금 러시가 일던 때에 구덩이를 깊게 파내 사금을 채취하던 광부들이 미처 빠져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압력을 받은 물길이 터져 나오는 바람에 구덩이 속 70여 광부들이 몰살을 했는데, 그때부터 그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구덩이는 오랫동안 자리했었는데 2천 년대 들어 공장이 들어서면서 그 흔적이 사라졌단다. 또 당시 일본인 금점 사장인 오시이가 이곳에서 돈을 많이 벌자 만주 쪽으로 진출했는데, 이때 이승재(현 서북구문화원장 부친)씨가 금배 선장이었기에 그를 따라 만주에 올라가 사업에 성공했고, 그 때문에 대흥리, 신가리, 복모리 인근 마을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를 쫓아 만주로 갔었다고 기억한다.

오랜 세월 일본인들이 운영하는 금점판이 성환 곳곳에서 금 채취에 열을 올릴 즈음, 지역 주민들은 성환목장(지금의 국립축산과학원)과 더불어 일본인들의 영토점령, 광업권 획득 등 여러 과정에서 불평등한 계약을 통해 자본 침탈을 가속화 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보면서도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금을 채집하던 일본인들의 탐욕스런 행동은 눈가에서 지울 수 없기에 금 이야기만 하면 지금도 당시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한다.

금 채취는 수은을 이용해 채집하는데, 증류시켜 금가루를 모으는 방식이 있었고, 물을 품어 돌과 사금을 가르는 방식도 있었고, 원심분리기로 규석과 사금을 나뉘는 방식도 있었다고 한다.

해방 후, 사금채취의 향수가 남아서인지 홍경리 부락민들은 60년대 초까지 농한기만 되면 지역주민들 대다수가 논바닥이든 하천 바닥이든 파서 뒤집으며 사금 채취하던 광경이 흔했었다고 한다. 그 당시 사금이 섞인 흙을 ‘감’이라 불렀는데, 이 감을 퍼올리는 감통이 한 동안 부락 이곳저곳에 남았었는데 요즘 통 볼 수가 없단다. 그러나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인

지, 아니면 일할 사람이 없어서인지 새마을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사금 채취의 모습은 사라져 버렸는데, 그러다 보니 금점에 관한 자신의 기억도 차츰 엷어졌다고 한다.

### 평온한 일상 속 남은 생애

고단한 삶을 살아온 지난 세월에 대한 회한은 혹시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없다고 하신다. 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기에 그렇다는 얘기에 진솔함이 절로 묻어난다. 이루지 못할 꿈도 꾸지 않았고, 남을 부러워하지도 않았고, 남에게 질시를 받을 염치없는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조금도 후회되는 게 없다는 것이다.

여든여덟의 연세임에도 정정해 보이는 그에게 건강 비결을 묻자, 껄껄 웃으시면서, “무슨 비결?” 하시면서 “배움도 짧고, 모든 게 부족하기에 욕심 없이 사는 게 비결이겠지.” 하신다.

그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오신 구술자. 자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냐고 묻자, “얼마 전 아버님 제사 때 아들들과 성묘 가는 길에서, 다통 없이 사는 게 애비 소원이다, 라고 했는데, 아들 녀석 왈, 저희가 평생 아버님 뵈고 살았어요. 걱정마세요 합디다.”

살아온 세월, 돌이켜보니 외려 스스로에게 자랑스럽다고 말을 하신다. 어쩌면 그토록 평온한 일상을 만들고 있는 것은 분수를 알고 늘 소박함을 추구해 온 맑은 심성 때문이 아니겠는가 싶다.

●  
입장 양대리  
광부 만세운동



**민 의 동** (1936년생)  
천안시 서북구 입장시장2길

### 민의동 회장님을 모시고

장마철이 다가와 연일 호우경보가 발령되지만, 양대리 가는 날은 하늘도 길을 내어 주었다. 1919년 성환읍(당시 적산군) 입장면 양대리에서 있었던 광부들의 만세운동을 기리라는 하늘의 뜻인가.

당시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하장리 마을분회로 가니 민의동 입장 기미독립만세운동기념사업회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다. 84세의 고령인데도 단아한 모습이셨다.

동석하신 사무국장님의 성씨도 민씨였다. 집성촌이 아닌가 해서 여쭙었더니 까마득한 선대부터 이곳에 정착하여 대대로 살아온다고 하신다. 정착하게 된 동기가 신령하다. 여흥 민씨 집성촌은 본디 경남 거창이었다. 한양에 진출해 있던 어느 한림공께서 사망하시어 거창으로 모시고 내려가던 중이었다. 천안삼거리쯤에서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불어와 만장이 날

아가 버렸다. 수소문해서 겨우 찾고 보니 이곳 입장의 양대리 세련 골짜기였다. 점지해 주신 곳이라 여기고 터를 잡아 재실을 짓고 지금껏 대대로 살아오신다고 한다.

구술자께서는 30대손으로 부친 민태원과 모친 김순예의 4녀 2남 중 장남으로 인근 독정리에서 태어나셨다. 금 장사를 하며 책도 파시다가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가 어렵פות하다. 아홉 살 때 선친을 여의었고 어머니 또한 오랜 병마로 고생하셨다. 입장소학교에 들어갔으나 월사금을 못 내어서, 또는 전쟁이 나는 등의 어려움으로 입학과 퇴학을 세 번씩이나 반복하며 겨우 마치셨다. 당시를 회고하시더니 대뜸 ‘함자 오수남 선생님’을 기억해 내셨다. 개명한 일본식 이름까지 ‘구래 선생님’이라고 똑똑히 기억하셨다. 소학교 2학년 때 가르쳐 주신 담임선생님이라시며 우리에게 잘해 주신 분이란다. 공부보다는 관솔 구하고 싸리 씨 따러 다니던 시절에 반 친구들보다 다섯 살이나 많은 나이로 겨우 졸업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범학교에 들어갈 수 있던 것은 그분의 가르침 덕이 아니었나 유추해 본다.

사범학교 졸업 이후로는 줄곧 교직에 몸담았다. 경기도로 발령받았지만, 편찮으신 어머니를 돕기 위해 충남으로 내려와 고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1999년도에 정년 퇴임하셨다. 입장 주변 초등학교를 돌며 근무하셨기에 지역 사람의 대부분이 제자이다. 부러워하자 마냥 좋지만은 않다고 하신다. 쌀 한 가마니도 채 안 되는 봉급의 빠듯한 살림이라 당시 어려운 처지의 제자들을 애써 모른 척한 것이 지금껏 마음에 걸린다고 하셨다.

안타까운 기억에서 구해드리려고 “첫사랑은요?”라고 환기를 유도했지만, “사랑이구 뭐구 그런 거 생각할 처지가 못 되었다”고 일축하신다. 결혼의 목적은 오로지 편찮으신 어머니를 대신하여 가사를 돌볼 사람을 구하는 데 있었기에 서둘러 사범학교 1학년 때 아내를 맞이하셨단다. 교사가 그 정도였으니 농사 짓던 삶들은 얼마나 어려웠을까 짐작이 간다. 2남 1녀의 자손을 뒀는데 그중 차남이 교직을 물려받았다. 큰아들도 근처에 살아 이제는 든든하시다.

### 마을에 들어선 서양인의 금광

구술자는 천안시 입장면 양대리 마을에 있던 금광을 기억한다. 서양인들이 주인이었다. 일본이 설립한 조선중앙광업소였는데 미국인이 양도받아 경영했다.

당시 직산 광산에서 생산한 금의 양은 충청도 전체 채굴량의 절반을 차지했다니 그 규모

를 짐작할 수 있다. 양대리 골짜기가 서양인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금을 쫓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산골 마을에 500가구에 3,000명이나 살았으며, 일본 헌병 주재소가 설치되어 광산을 보호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우체국도 있었고, 소방서에 소방차도 있었다. 당시 충남에 소방차가 있던 곳은 공주와 이곳 입장면 양대리 골짜기뿐이었다고 한다. 산골짜기에 정기적으로 양대장도 썼다고 한다. 광산에는 기독교계통에서 설립한 학교가 있었다. 광명여숙이라는 여학교였다. 광명여숙은 마을 중간정도에 있었는데 민족대표 48인의 한 사람이며 나중에 부통령까지 하신 함태영 목사가 학교에 계셨고, 임영신, 강기형께서 교사로 있었다.

당시 양대리의 소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했으며 일부 주민들은 광부로 취업하여 채굴작업으로 생계를 이었다. 구술자의 이웃 중에는 광부로 일할 당시 막장의 먼지로 여태 진폐증을 앓는 사람도 있다.

이제 광산은 문을 닫은 지 오래지만, 양대리 사람들 기억에는 오롯이 남아있다. 지금의 정진전자 자리 (한국컴퓨터)가 광산 자리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물 뒤의 수직갱이 남아 있었다. 민윤근 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광구 입구는 직경이 5~10미터 정도였고 깊이는 가늠할 수 없이 깊었다. 돌을 던져 넣었더니 정확히 10초 후에 바닥에 닿아 탁탁 튀는 소리가 3초간 들렸다. 계산해 보니 300미터는 되는 깊이로 수직으로 뚫었다가 다시 광맥을 따라 수평으로 이어진 듯했다. 인근 기로리 골프장 입구에도 갱도가 남아 있었다. 70년대 광산을 재개발한다고 해서 구술자도 가 봤다. 그 당시 관계자에게 물었더니 역시 ‘금구덩이’가 지하 300미터라 대답했다고 한다. 당시만 해도 양대리는 물론 입장이나 도립리에도 몇 군데의 금방앗간이 남아있었다.

### 광부들의 기미독립 만세운동

구술자는 만세운동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으나 들은 바대로 기억해 내셨다. 여기저기서 관련 자료도 찾아서 건네주셨다. 동석하신 오준호 부회장님과 민윤근 사무국장께서도 보완해 주셔서 충분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기미년 병천 아우내장터 만세 운동이 있기 열흘 전인 1919년 3월 20일, 양대리에서 광명여숙 학생들을 중심으로 1차 만세운동이 있었다. 만세 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은 너무나없이 일사불란했으며 철저히 비밀이 유지되었다. 3.1 독립선언문을 함태영 목사가 임영신 교사에

게 가져다주고 학생들에게 전달된 듯하다. 당시 광산의 서기가 회사 등사기를 갖고 교회로 가서 독립선언서 등 문서를 등사했다. 태극기는 한 주택에 여러 사람이 모여 야간을 이용하여 만들었다. 20일 이상의 준비기간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기에, 인근 주재소 관계자들이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막상 만세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자 주재소에서는 너무나 뜻밖이라 멍하니 바라만 보았다고 한다. 80여 명의 어린 학생들은 만세를 외치며 입장 시장으로 향했다. 광부와 상인, 주민 등이 합세하여 순식간에 1천여 명의 인파가 부르는 만세소리는 입장 시장을 뒤흔들었다.

이때 주동자의 한 명이었던 황금순(광복 후 황현숙으로 개명) 학생은 그 일로 일본 헌병에 체포되어 공주형무소에서 1년간 옥살이를 했다. 그곳에서 유관순 열사를 만나 인연을 맺기도 했다. 민옥금(민원숙), 한이순(한도순) 학생도 1년간 수형생활을 했다.

어린 학생들이 무자비한 총칼에 잡혀가고 삼엄한 감시와 탄압 속에서 다시 한 번 만세 함성이 하늘로 울려 퍼진다. 광산의 학생들에 이어 이번에는 광산의 광부들이었다. 젊은 광부들이 중심이 된 강렬한 만세운동이다.

광부 박창신, 한근수, 안은, 백학서 등 몇몇 광부들은 치밀한 준비 끝에 28일 새벽 광부들의 근무 교대 시간을 이용하여 갱구에서 200명의 젊은 광부들을 모았다. 이어 준비한 태극기를 흔들며 시위행진을 감행했다. 주재소에서 총칼로 제지하자 분노한 그들은 극렬히 들고 일어나 주재소를 습격하여 무기 탈취를 시도했다. 벽에 걸린 일장기를 내려찢고 높이 펼쳐서 일장기도 끌어내렸다. 이에 천안에서까지 헌병이 급파되어 무차별 사격을 감행했다. 여러 명이 쓰러졌고 현장에서 광부 김영호, 남기석, 김세철, 신일성 등 4명이 숨을 거두었다. 현재 기념탑이 세워진 바로 그 자리에서였다. 충남 인근에서 만세운동으로 희생자가 생긴 건 처음이었다. 그만큼 독립을 위한 격렬한 시위였다. 비록 막장의 고단한 삶이었지만 무엇이 옳은지 어떤 삶이 바람직한지 목숨을 담보로 보여 주고 가신 광부들께 고개 숙인다.

### 만세운동 기념사업회

민의동 입장기미독립만세운동기념사업회 회장님께서서는 당신은 별로 한 것이 없다고 하신다. 초대 민태일 회장께 공을 돌리신다. 그분께서 작고하시면서 회장직을 물려받은 지 3년인가 4년인가 됐단다. 그러면서 작년에는 양대리 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당시를 재현한

일을 말씀하셨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그리고 주민이 하나 되어 외친 만세의 함성, 그 가운데 태극기를 높이 드신 84세의 회장님 모습을 그리자니 새삼 가슴이 뭉클하다.

기념사업회의 태동을 여쭙었다. 양대리 광산의 여학생들과 광부들의 위업이 한낱 이야기거리로 떠돌던 어느 날, 민태일 초대 회장께서 소중한 자료를 입수하게 된다. 바로 기미년 양대리 만세운동 참가자들이 잡혀가 재판에 받은 기록들을 공주법원에서 입수한 것이다. 그는 당시 조선일보 기자이던 친구 주돈식(이후 문화부 장관을 지냄)에게 도움을 청해 이 사실을 보도하기에 이른다. 이윽고 양대리 만세운동이 알려지고 각계의 관심이 모아져 기념사업이 논의되었다. 모금 운동으로 이어진다. 당시 광부가 희생당했던 자리의 땅 소유주 맹팔용 주민은 해당 땅을 회사하게 된다. 다른 주민들도 십시일반 보태고 출향인사들도 앞장섰다. 그리하여 기념탑이 양대리에 우뚝 선지 어언 30년이 되었다.

초대 회장의 자제분이자 현재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민윤근 씨는 기념탑에 얽힌 일화를 꺼냈다. 현재 기념탑이 세워지기 전인 1949년에 이미 광산 터에 기념탑이 세워지고 기념식도 했다는 이야기를 양대초등학교 초대교장이셨던 둘째 큰아버지(민태한)가 전하셨다고 한다. 그러나 목재탑은 이듬해 터진 6.25전쟁 통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천안역사학자 김종식 씨도 현재 한국컴퓨터 자리가 광산 자리였고, 이후 그곳에 양대초등학교가 잠시 있었는데 바로 그 자리가 기념탑이 섰던 자리라고 전했단다. 그러고 보면 기념사업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한두 사람의 정성이 아닌 양대리 주민 모두의 오랜 염원의 결과물인 셈이다.

기념사업회를 이끄시는 민의동 회장님께 소회를 여쭙었다. “입장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갖는다. 광부와 어린 여학생들이 독립만세 시위를 주도했고 충남의 최초 희생자가 나왔다는 사실은 간과할 일이 아니다.”고 하시며 회장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하셨다. 언젠가 완도 소완면에 갔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시며 그곳 만세운동 유적지는 넓은 터에 기념관까지 갖추고 있어 부러웠다고 하신다. 양대리에도 작으나마 사무실 건물이라도 지어 우선 있는 자료라도 안전하게 보관하고 싶다고 하셨다. 여기저기 관계기관과 협의의 중이지만 쉽지 않다고 하신다. 광구나 금방앗간도 함부로 틀어막고 헐리게 되니 양대리 만세운동의 흔적이 역사에 묻히게 될까 안타깝다.

고령이신데도 장시간 동안 구술해 주신 민의동 회장님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살아오신 날에 대해 한 말씀 여쭙었다. 평생을 교직에 계셨기에 제자들이 많다고 하셨다. 특히 의대



교수가 되어 훌륭한 인술을 펼치는 제자, 자신의 아픈 이를 살뜰히 치료해 준 제자, 고향을 지키는 여러 제자 등 자랑을 하시며 빙그레 웃으신다. 그러면서도 학교에 매달려 지내느라 가정애, 특히 자식들에게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하신다. 그런 터에 자식들에게 당부하거나 달리 할 말은 없다고 하신다. 다들 아버지 못지않게 잘살고 있다는 뜻이리라. 건강하게 좀 더 살아 사회에 봉사하고 싶으나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신다. 부디 건강하시어 양대리 광부만세운동의 독립정신을 널리 알려주시길 바랄 뿐이다.

●  
입장지역  
금광 이야기



**오 병 상** (1959년생)  
천안시 입장면

오병상은 어려서 부친이 돌아가셨기에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 당시 시골에서는 진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많았지만, 두 은사님의 조언과 배려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입장초등학교 5학년, 다리를 다쳐서 학교를 나가지 못할 때의 일이다. 집으로 찾아오신 서정재 선생님은 다정한 말씀으로 격려와 함께 진학에 대한 용기를 갖게 해 주었다. 입장중학교를 거쳐 천안농업고등학교(현 천안제일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이흥우 선생님께서 3년 내내 실습 장학생으로 학비를 면제받게 해 주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안성의 국립 한경대학교(야간)로 진학하여 학업을 이어갔고, 최근에는 공주대학교 문화유산대학원(석사과정)까지 졸업한 학구파이다. 재직 중에는 애항심을 바탕으로 천안시청 아름다운 문화소풍(아문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으며, 천안향토문화연구회 위원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삶의 과정은 그가 성실하게 살아온 면면을 집

작할 수 있게 하였다.

10대조 효자 막생 할아버지가 직산 마정리(미륵산)에 입향조로 정착하였고, 증조부 때 입장 금광이 개발되면서 입장면 독정리로 이주하였다. 부친 오운근과 모친 이채연의 1남 5녀 중 외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출생지이자 평생 떠나본 적이 없는 고향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다. 학창시절에는 고향의 역사와 지리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면서 ‘사회 선생’이란 별명까지 얻었다. 백제 초도 위례성의 고장이고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부터 삼남의 길목 역할을 했으며, 지금은 거봉 포도의 주산지로 명성이 높다는 것이 자랑이다. 그의 고향 마을은 입장 거봉포도의 시배지이기도 하다.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버스비를 아끼느라 열차 통학을 했다. 정기권을 끊으면 매우 저렴했기 때문인데, 당시 안성선 열차는 연착하는 일이 잦아서 엄청나게 마음고생을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농을 꿈꾸며 복숭아 과수원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던 중 어느 해에 올해처럼 장마가 길어져서 복숭아 농사를 망치게 되었다. 배나 포도도 그렇지만, 복숭아도 비가 많이 내리면 당도가 떨어지고 쉽게 썩기 때문이다. 그해 겨울에 공무원 시험공부를 열심히 한 덕분에, 다음 해 도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 응시해서 수석으로 합격하여 지난해 정년퇴직을 하였다.

결혼은 31세에 하였다. 그의 성실함을 눈여겨 본 선배가 성환읍사무소의 여직원을 소개해서 쉽게 이루어졌다. 소개로 만났어도 여러 번 만나다가 결혼했을 텐데, 즐거운 추억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당시 나이가 많은 편이어서라고 얼버무린다. 말을 아끼는 답변에 진솔함이 묻어났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진중함이 느껴졌다.

부인 김선자와의 사이에서 1남 2녀가 태어났다. 아들은 소방학과를 나와 같은 계열의 회사에 다니고 있고, 큰딸은 식품공학과를 졸업한 후 식품제조사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작은딸은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부인은 아직까지도 현직에 있고 자녀들이 모두 성장했으니 경제적으로도 충분한 여유가 엿보였고, 퇴직 후에도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에 당당함이 느껴졌다.

면담이 이루어진 8월 6일의 아침 톱뉴스는 국제 금값이 사상 최초로 온스당 2,000달러를 넘어섰다는 내용이었다. 이 지역 금광개발의 역사를 연구하고 있는 오병상의 구술에 더 기대된다는 말과 함께 주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다. 그렇지 않아도 금광이나 금 노다지 이

야기는 귀가 솔깃해질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먼저 금광개발의 역사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를 물었다. 자라고 태어난 곳이 입장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그에 대해서 들은 것이 많기 때문이라는 답변이다.

예전의 천원군청과 시청에 근무하며, 동아리 활동으로 고적답사반 활동을 했는데, 양대리를 중심으로 입장의 금 생산량이 전국에서 2위를 차지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흥미를 갖게 되었다. 연세가 높은 구술자들에게 금광개발이 한창이던 시절의 금값에 대해 물었을 때,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라 쌀값은 짐작이 되는데, 금값은 전혀 모르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구술자는 연구 활동을 많이 했다고 들어서 기대가 있었는데, 최근에 3배 정도로 뛰었고, 오랜 기간은 큰 변동이 없이 물가 지표가 되어왔다며, 80년대는 금 한 돈이 쌀 반 가마값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이었다.

입장지역은 구한말부터 금광이 개발된 것으로 문헌에도 나와 있다. 광무 5년(1902년) 8월 16일 대한제국 궁내부 대신서리 윤정구와 일본인 시부사와(澁澤榮一)를 대표로 하는 직산광약을 체결하고, 동서 60리 남북 40리 직산현 대부분을 광권지역으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나섰다. 1930년대에는 금 생산이 전국 2위에 이를 정도의 큰 성과가 나타났다. 직산광업소가 있던 양대리의 중앙광산을 중심으로 도림리(보덕원), 기로리, 호당리, 시장리, 등 다섯 군데의 석광이 있었다. 입장 시장리 금광은 성거의 천흥리 금광과 연결되었다. 사금은 소규모로는 입장의 평야지 전 지역에서 채취했고, 산정리에는 규모가 비교적 커서 금 준설선인 금배가 채굴 작업을 했다. 옛 행정구역의 직산현에는 입장, 성거, 성환이 포함되었는데, 네 곳 모두 금광이 개발되었다. 생산 규모의 크기를 비교하면, 입장, 성거, 성환, 직산의 순서로 꼽을 수 있다.

금광산업이 발전하면서 평안도의 운산이나 은산 금광에서 일하던 기술자들이 유입되었고, 당시 영남지역에 큰 흉년이 들면서 노무자들이 대거 이주하였다. 노무자의 일당은 쌀 한 말이 채 안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성환 울금리 금광에 대한 구술자 조재욱은 당시 쌀 한 말을 꾸어다 먹으면 3일 이상 일을 해주어야 했다던 말을 상기하며, 그래도 농사짓는 것보다는 수입이 좋았겠다고 말을 받았다. 금광의 일은 사고 위험이 높아서 목숨을 걸고 하는 일뿐만 아니라, 광산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호흡기 질환으로 60세를 넘긴 사람이 별로 없었기에 노동력을 착취당했다고 보아야 한다는 해석이다.

양대리에만 500가구 이상 형성되었는데, 대가족 시대인 점을 고려하면 인구는 적어도 3,000명 이상이었을 것이다. 인구가 늘어나자 목탄버스가 등장했고 전기도 충청도에서 대전 다음으로 들어왔다. 주재소가 설치되었고 시장의 상권이 형성되었으며, 우체국, 금융점, 병원, 전당포 등이 들어섰다. 당시 다른 시골과 비교한다면 엄청난 변화였다. 윌리엄 선교사가 광명여숙학교를 세웠는데, 천안보다 먼저 중등학교가 세워진 것도 놀랍고, 아울러 사립 보통학교도 존재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고 각종 기관이 들어서면서 술집도 급격히 늘어나 한때는 100여 개 정도에 이르기도 했다. 기생이 있는 유명한 술집으로는 대전옥, 괴산옥, 태평옥, 일신옥, 청주옥 등이 있었다. 재미있는 것은 신사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보다 광부들이 더 환영을 받았다고 한다. 성환의 화성관 이야기와 같은 맥락으로 여겨지는 대목이다. 장사가 잘 되는 술집의 사장은 대부분 덩치가 크고 주먹도 쓸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 후손들도 좋은 체격으로 태어나서 유명한 운동선수로 성공한 경우가 많은 것은 입장 사람이면 다 아는 사실이다.

금광 산업이 위축된 것은 일본이 태평양전쟁에 집중하면서, 금광 개발을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인근의 다른 지역은 해방 직후나 70년 이전에 폐광되었지만, 입장지역은 채굴이 지속되었고 명맥을 유지한 것은 2000년까지이다. 구술자도 금광과 관련하여 많은 것을 목격하였다. 시청에 근무하며 인허가 업무를 담당할 때는 골든힐 골프장의 건설 과정에서 현장 답사를 나가 금광의 흔적을 많이 목격할 수 있었다.

입장은 행정구역으로는 천안에 속하지만, 안성 생활권이다. 더구나 구술자가 살고 있는 독정리는 입장 중에서도 안성 쪽이어서 더욱 그러하다. 평택도 40리에 불과해서 가깝지만, 예전에 경부선 철도에 의해 평택이 커지기 전에는 안성의 상권이 훨씬 컸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안성맞춤’이기도 하다.

같이 진행을 맡은 이정우와 함께 크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은 안성선 철도가 철거된 점이다. 설령 이용하는 승객이 적어서 열차 운행은 멈추게 되었더라도, 레일을 남겨두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오늘날 폐 철도를 활용한 레일바이크가 훌륭한 레저 문화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이고,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철도가 지나는 안서동은 5개의 큰 대학이 밀집해 있는 대학촌으로 유명하고, 서울에서 가깝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면담을 마무리하면서 요즈음은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다. 공직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정년 퇴직했다고 해서 궁금했던 점이기도 했다. 놀랍게도 바로 재취업에 성공했다는 답변이다. 천안 제4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사무국장으로 출근하며, 여전히 문화탐방과 향토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직장 동료들 비롯하여 사회생활을 통해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고 살아왔다는 구술자는 이제 건강에도 신경을 쓰고 싶다고 한다. 자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그의 성품처럼 소박하기만 하다. “자기에게 주어진 길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자.”

질문마다 짧게 답하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빨리 면담이 끝나는 느낌이었다. 면담을 마무리하며 한 말씀만 더 보태시라는 주문에, “향토애를 갖고 앞으로는 더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자리를 통해 다시 뵙고 싶다.”는 의미심장한 말로 면담을 마무리하였다.

●  
일제의  
천안지역  
금광 침탈사



**황 서 규** (1936년생)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일찌기 13대조 할아버지인 황세득 장군(임난 공신 총장공)이 이곳 직산의 용와산 기슭, 미륵산(현재 마정2리)으로 옮겨오면서 4백여 년 간 세거지로 자리했다는 황서규 선생님. 오랫동안 이곳을 터전삼아 내려왔지만 증조부가 동학의 괴수로 몰리면서 효수 당하고, 재산도 몰수 당하면서 빈농으로 전락했다고 한다.

1936년 4남 3녀의 맏이로 태어나 어려운 형편임에도 숙부들과 아버님의 고집으로 직산 초등학교, 천안영성중, 천안공업고를 거쳐 서울문리사범대(명지대학교)를 졸업한 그는 23살 되던 해 천안 성황동의 동갑내기 여성 박상명과 결혼, 슬하에 1남 3녀를 두었다.

가정을 건사해야 했기에 서울시교육위원회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길을 택했지만 적성이 맞지 않는 것 같아 교원자격증을 활용, 평택오성초등학교 교사생활 7년을 거쳐 평생의 직장이 된 천안동성중학교에서 1971년부터 1999년 정년퇴임까지 28년을 헌신했다.

고향에서 교사생활을 시작했던 그가 지역사 연구, 향토문화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우연히 천원군지를 살피던 중 13대 조상인 총장공 황세득장군과 그의 아들 12대 황박장군에 대한 공적이 자세하게 그려져 있음을 보고, 글을 쓴 향토사가 민병달 선생님을 만나면서부터였다.

총신이며 공신인 두 장군이 직계 할아버지임을 너무 자랑스러웠다. 그는 그때부터 인물열전을 읽어 내렸고, 자신의 고향 미륵마을의 내력과 두 할아버지를 위시한 직산 5총신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근대화와 산업화의 흐름 속에서 향토사는 뒷전으로 밀렸고, 술한 이야깃거리가 잊혀지고 사라져 가는 것을 목도했다. 사람들의 관심에서도 밀려났지만 학계나 행정기관에서도 이해가 깊지 않았다.

이때부터 그는 지역사에 관심을 두고 하나하나 조사하고 글로 적고, 동인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해 갔다. 천안문화원의 향토사연구소를 통해 향토연구의 체계를 세워나가기 시작했고, 문화원 내 향토사료관 설치를 기회로 본격 연구 활동을 펼쳤다. 중간에 정년을 맞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문화유산해설사 과정을 이수, 광덕사와 직산현관아를 전문으로 해설하는 봉사의 기쁨을 지금껏 맛보고 있다.

그렇게 40여년 세월을 이어왔다. 그동안도, 지금도, 또 앞으로도 여전히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했다. 그래서일까? 천안시에서는 그간의 노고를 칭찬하면서 문화상이라는 커다란 영광도 안겨 주었고,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자문을 구하는 역할도 맡겨주고 있다.

감사한 일이다. 어느덧 깊은 나이에 이르렀지만 그래도 힘이 되는 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신다.

대강의 삶의 궤적을 살핀 후, 천안 향토사의 한 부분을 담당해 오면서 많은 저술을 남겼던 그에게 이번 구술채록 주제인 ‘일본의 천안 금광 침탈사’를 듣는 순서로 이어갔다.

### 향토사 자료의 기초를 놓는 심정으로

“조선을 위시한 동양에 금과 은이 많다는 것이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으로 널리 알려지고, 원나라에 의해 일찍이 고려에 금이 많음을 안 서구 열강들은 이후 줄곧 우리의 금을 탐냈어요. 이에 천안 전체를 지칭하는 ‘직산의 금광’도 예외는 아니어서 명나라, 청나라에서 조공을 요구하기도 했고.”



우리나라가 금이 많이 나는 지형이었기에 금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오랫동안 살피고 연구해온 직산 출신 천안의 향토사학자 황서규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번 구술 채록작업이 시작되었다.

“1876년에 들어와 일본과의 강화도조약을 체결하고 부산, 원산, 인천 등 3개항을 개항함으로써 세계열강들이 다투어 수교를 맺게 되었어요. 그 후 열강들은 우리 땅에서 금광의 이권을 무수히 침탈해 갔는데, 특히 일본은 직산금광을 비롯해 우리나라 곳곳의 주요 광산을 차지, 강제로 범착한 것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금광은 온 국민이 보호하고 민족자본 형성 차원에서 주력했어야 했는데, 힘이 없어 외세에 밀리고 결국 침탈당했으니 저들, 특히 일제에 의해 우리의 고장 천안의 금광이 무자비하게 탈취 당했음을 당시의 기억으로 향토사적 관점에서 살핀 황서규 선생님께서부터 구술 채록의 형식을 빌어 살펴본다.

“지금은 천안지역 금광들이 모두 폐광되었지만 1800년에서 1900년대에 이르는 구한말까지는 한국의 그 어느 광산보다도 금이 많이 났고, 우수한 품질의 금이 산출돼 서양을 비롯한 열강들이 탐을 냈던 황금의 고장이었어요.”

‘황금의 고장’이라는 말쑤에 귀가 번쩍 트인다. 미국 서부 개척시대에서나 흔히 들었던 말이다. 우리고장 천안이 황금 운운할 정도의 금 산지였음을 놀라움으로 듣는다. 그렇다면 이는 분명 천안의 귀한 문화자산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할 것이다. 우리 향토의 역사 자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향토 발전에 대체 방안을 두고 노력해 가는데 오늘 이 구술 채록의 자료는 향토사 자료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믿는다.

“천안 금 광산은 두 가지 형태였지요. 입장 양대리, 도림리와 성거 천흥리, 성환 금곡리(지금의 울금리), 북면 운용리, 천안읍내 ‘충남광산’ 등 굴착 방식의 채굴광산과 성환, 직산 등 너른 들녘에서 채집하는 사금광 등입니다.”

이해가 된다. 언뜻 들으면서도 느낄 수 있겠다. 천안 곳곳이 모조리 금 산지였음을.

“구한말부터 시작된 천안지역 금광의 채굴과 일제강점기 하에서의 금광이 계속 이어왔지만, 천안금광에 관한 기억은 내가 직산초등학교에 다닐 때인 1945년부터입니다. 당시에 직산면 산직촌(지금의 판정리)에 금방앗간(정련소)이 있었고, 성거 천흥리에 꽤 큰 방앗간이 4군데 있었어요. 또 성환 울금리와 입장면 도림리, 양대리, 성거 삼곡리 등지에 금방앗간이 있었지

요. 이는 아직도 내 기억 속에 또렷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교과서를 통해 직산에 사금이 유명했다는 것을 배우면서 향토에 더욱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고 한다.

“12대를 이어오면서 이곳 직산과 성환에서 살다보니 지연 관계에서 많은 지인들이 생겨나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제강점기 때의 금광업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었지요. 이러던 중 1990년 독립기념관 자료들을 살피는 가운데 1902년에 작성된 ‘직산광약’을 발견하게 됐고, 그 속에서 천안지역 금광이 일본인에게 불법으로 탈취 당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향토사 연구를 하던 이원표씨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부랴부랴 정부보존 기록문서를 뒤지던 이 선생이 직산군수가 금광을 감독하면서 당시 금광과 관련한 여러 사건들을 상세하게 조사 보고한 내용을 발견하게 됐기에 자신은 그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정리해서 오늘 일제의 천안지역 금광 침탈사를 얘기하겠노라고 말씀 하신다.

“신이 났어요. 국립도서관, 광업공사 생산성조사소 등 관계 요로를 찾아다니며 보다 상세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우연히 이배용 저 「한국 근대광업 침탈사 연구」라는 책을 접하게 되고, 그 속에서 직산 금광(여기서는 천안 전체를 지칭하는 표현임)에 관한 기록들도 살필 수 있었어요.”

일본이 한국을 침략할 때 한국의 근대화라는 명분을 걸고 경제적 침탈을 조직적으로 시행했다. 철도, 금융, 토지 등에 야욕의 손길을 먼저 뻗쳤고, 더불어 미국을 비롯해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 등의 열강들도 여러 가지 온당치 못한 수법으로 채광권을 가져갔던 게 사실이다.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나라가 있어도 허수아비였던 게죠. 구한말에는 광산은 물론 철도, 전기, 삼림, 어업권 등에 이르기까지 돈이 될 만한 중요한 이권을 획득하려 경쟁적으로 난리를 치던 시기였어요.”

### 기억과 연구, 전언을 종합해

구술자 황 선생님이가 기억하고 인식하는 천안지역 금광 침탈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이 같은 일은 이번 구술채록의 열 가지 주제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사안이 되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리라 여겨진다.

천안지역에서의 금, 은 채굴에 관한 기록으로는, 1898년 1월 12일 국내 철도, 광산의 외국인 합동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조정에서의 발표가 있었는데, 전국 43개소 광산이 황실 직속으로 운영케 된다. 이때 천안지역 금광들도 포함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청일전쟁 때부터 한국의 철도, 전선, 광산 등 이권의 야심을 품고 우리 정부에 압력을 가해 왔으며, 천안에는 1899년 8월부터 이미 안성에서 일어학원을 경영하던 일본인 복지진장(福祉辰藏)이 직산군 이동면에 사는 영남인 덕대 최광순의 금광을 인수, 채광하고 있었고, 1900년 초부터 일본인과 우리 조정 간 치열한 충돌을 계속하던 중 8월 16일에 직산광약에 의해 궁내부와 일본인 사이에서 계약이 이루어져 일본인 손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한다.

“복지진장은 서울에 있는 일인들과 결탁, 기천원의 자본을 끌어들이 최광순을 책임자로 앉히고 일본인 2명을 감독자로 선임한 후 불법으로 채굴했던 겁니다. 비록 광산 세금은 최광순 명의로 납부되고 있었지만 실질적 광업권은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뿐 아니에요. 복지진장은 영남인 덕대 설관오의 직산 이서면 광산을 인수하고, 계속해서 삼동면 보덕원까지 채굴지를 넓혀 갔어요.”

이같은 사실은 어르신들의 막연한 이야기 속에서 들은 바도 있었지만 기록 문서를 통해 명확히 알 수 있었다고 한다.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겠지만, 당시 일본은 천안지역 금광 채굴권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금이 많이 나던 천안지역, 특히 직산금광 이외에 새로운 광산을 물색하면서 희망하는 광산에 불법적으로 침투, 시굴작업을 한 후, 채산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우리 정부에 회유와 압박을 통해 채굴권을 가져갔어요. 대표적인 곳이 청양의 정산금광이었죠”

구술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시 천안지역 금광개발의 특허를 받았던 삼택(澁澤)·천야(淺野)광산조합은 함흥지역 명태동금광(明太洞金鑛)도 탈취했다고 한다.

“충청남도 관찰사가 보고한 내용을 보면 참 어이없는 일이 나옵니다. 1900년 들어 일본인들의 불법 광산채굴에 대해 우리 조정에서는 일본 공사가 직산금광 채굴권을 요청한 바 있으나 어느 외국인을 막론하고 허가할 수 없으며, 일본인 임의로 한국민 토지를 매입하여 광산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이를 시행하는 직산군수에 항의한 일본인들을 엄히 다스려 줄

것을 일본 공사에게 요구하였는데, 공사 임권조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결국 직산금광에서는 여전히 일본인들의 불법 채굴이 강행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가관인 것은 조속히 일본인들을 직산지역에서 퇴거시키고 의법조치 하라는 우리 조정 외부대신의 독촉을 받자 일본공사는 오히려 조선 측의 해당관리를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직산금광은 일본인 복지진장이 한국인으로부터 정식으로 채굴권을 양도받았고, 예규에 의거 납세한 후 채굴하였으니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마침 우리 광부들 간 싸움이 일어나고 이에 사무소가 부서지고 일본인이 다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에 대해 일본공사는 일본인 보호를 위해 이곳에 순사를 파견해 줄 것과 해당 지방관을 직무태만으로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적반하장의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이때 직산군수 유병웅이 사태를 조사해 보고하게 되고, 이를 기회로 일본인의 끈질긴 교섭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직산금광 채굴권이 체결되면서 합법적인 채굴, 즉 수탈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 천안 직산이 금 광산 유명지로 떠올라

일본이 천안지역 금광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청일전쟁 때부터라고 알려져 있다. 즉 청일전쟁 당시 천안 직산은 일본군의 주둔지역이어서 더욱 사금산지의 모습을 알게 된 것이다.

“1895년 한성신보 기사를 보면, 천안 직산에서 사사로이 채금하는 사람이 수천 명에 이른다고 하니 금광위원을 파견하여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고 세를 징수하여 국가 재정에 충당할 것을 권유하는 글이 나온다.

“천안 보덕원금광은 운산금광과 더불어 전국 금광 중에서 매우 광질이 우수하다는 평판이 났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일본인들은 보덕원에 사무소를 두고 금광채굴에 주력했는데 근대식 설비를 갖추고 채광작업을 펼쳤다고 해요. 특히 직산지역 사금 채취는 한국인들에게 채굴작업을 허가해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당시 천안지역 일대 광부들의 규모에 대해 묻자,

“광업의 상황에 따라, 성쇠에 따라 다소의 증감이 있었지만 대체로 2천 명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중 1/3은 평안도 쪽에서 내려온 광부들이었다고 해요. 그들 손에서 채집된

금의 양은 대체로 1년 평균 약 70관 내지 80관으로 충청남도 총 생산량의 절반정도죠. 그 가치는 당시 화폐 가치로 30만 원 이상입니다.

### 일제의 만행들

“일본 사람들은 천안지역에서 금광을 운영하면서 많은 물의를 일으켰음이 재판기록들과 천안군수 보고서 등을 통해 속속 밝혀지고 있어요. 순 억지였죠. 힘의 논리였다고 봐야 할 겁니다. 계약기간을 산정할 때도 임의로 기한을 늘려 잡아 채광활동의 영역을 확대하려 했음이 날날이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경우였다고 한다. 시굴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광산 인근 뿐 아니라 그 주변의 산천, 농토까지를 마음대로 침범하여 주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고, 또 그들 기대만큼 산금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광구 선정 기한을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들어주지 않으면 직산군수가 자신들 작업을 방해했다면서 다른 광산지역을 허가해 줄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고 증언하신다.

일본인들이 천안지역 금광에서 자행한 여러 간책 중 가장 비열한 것은 광구 선정의 지연 술책이었다고 한다. 기한이 지났는데도 실제작업을 하면서도 공식적으로 광구 선정을 정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방식을 쓴다고 한다. 그러면서 납세금을 내지 않고, 보다 넓은 구역에서의 채굴을 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자신들 이익을 도모했다고 한다.

“기록으로 찾아낸 일본인들의 천안지역 금광 범착을 보면, 직산군 이서면 금곡리(지금의 성환 읍곡리)에서의 무례함과 직산군 이동면 천흥리(지금의 성거읍 천흥리), 직산군 삼동면 보덕원(지금의 입장면 독정리) 등에서 불법적인 채굴작업이 일어나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이 비밀비재 했었죠. 거기에 일본인들의 힘을 믿고 덕대와 혈주들의 세금 포탈사건도 심심찮게 일어났고요.”

구한말, 풍전등화와 같이 국권 수호 자체가 쉽지 않던 시절, 개항에 대한 압박과 그와 연관 지어 금광 등 우리 강산에서의 이권 쟁탈이 심화되어 가던 당시의 상황을 천안 금광 침탈사 중심으로 살펴보는 일은 천안 지역사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겠다.

구술 채록의 끝자락에서 오랜 시간 진지하게 말씀을 들려주신 황 선생님께 드린 질문에 답변의 말씀이 긴 여운을 남긴다. 금광 뿐 아니라, 성환 문화의 전반적인 분야를 두루 섭렵

하면서 향토사 연구에 평생을 바친 소회를 물었다.

“남들은 사명이다, 헌신이다, 재능기부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분야가 내가 잘 할 수 있는 대목이고, 또 평생 하고자 하는 열의를 두었던 일이기에 그저 시간이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시간을 투자했고, 재미있어 했고, 즐겁게 다가섰다는 것 뿐입니다.” 참 소박한 말씀이셨다.

향토사를 평생 연구하며 시간가는 줄 모르고 뛰어다녔던 세월이 돌아다보니 행복이었다고 말씀하시는 황서규 선생님, 참으로 멋진 인생을 사시는 분이 아닐까 싶다.

•  
직산 사금  
이야기



**황서규** (1936년생)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 황세득 장군 후손, 교직생활로 평생을

성주 황씨 13세손 황서규 씨는 1936년생, 올해 85세의 원로이시다. 교육과 향토사 연구에 평생을 헌신한 분이다. 천안동성중학교에 부임하면서 자신의 삶의 터전인 마정리 지역사와 조상들에 대한 관련 서적을 찾다가 우연히 조상들의 종과 효, 덕행을 살피면서 지역사, 향토사 연구에 매진하게 됐다는 그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50여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어온, 존경심을 금할 수 없게 하는 지역의 장로이시다.

고향은 직산 용와산 기슭 미륵이 세워져 있던 미륵마을이다. 오늘날 행정구역으로는 직산읍 마정리 중에서도 가장 안쪽의 막다른 마을로 앞산을 넘으면 아산 땅이다. 용이 누워 있는 모습이라고 해서 용와산인데, 용굴이 쌍굴로 뚫려 있다고 한다. 직산초등학교가 10Km나 떨어져 있기에 워낙 멀어서 9살에 입학했다고 한다.

중학교는 천안시내에 있는 영성중학교를 택했는데, 현재 북중학교로 바뀌었다. 고등학교는 공업고등학교로 진학하였고, 당시로서는 드물게 대학에도 진학할 수 있었다. 서울문리사범대학, 지금의 명지대학교다. 고향마을 마정리로 처음 이주해온 분은 임진왜란의 명장 총장공 황세득 장군이다. 장군의 후손이라는 자긍심과 부모님의 성실함이 어우러진 가풍의 영향 덕분에 평탄한 인생의 길을 걸었고, 근면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교사로 평생을 마칠 수 있었다.

사회생활의 첫 시작은 서울교육위원회 재무과에 잠시 근무하였다. 하지만 교사의 삶이 자신을 이끌었고, 경기도 교원임용고시에 응시하였다. 평택 오성초등학교로 첫 발령을 받았다. 7년의 세월을 그곳에서 보냈다. 하지만 사회학을 전공했던 자신의 세계관, 인생관이 그곳에 안주케 하지 않았다. 마침 중등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기에 고향에서 가까운 동성중학교로 옮기게 되었다. 어느덧 50년 전의 일로 기억된다.

### 천안 대표 사금산지 직산에 대해

구술자의 인생행로는 비교적 순탄해 보이기에 그의 삶에 대한 탐구는 간단하게 정리하기로 한다. 바로 이어서 그에게 가장 듣고 싶어 하는 직산 사금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었다.

실제 한국 금광사를 살펴보면 경부선 관통지역 인근인 천안, 목천, 둔포, 안성 등지는 금광개발 기지로서 중요한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1899년 가등공사는 석정(石井)과 제등(齊籐)을 파견해 광산을 조사시켰는데, 이때 석정은 직산지역이 유망 금 광산이라고 보고했다.

일본인들은 성환을 위시한 직산 일대 60리\*40리(동서~남북) 면적을 차지해 금 광산 내지 사금점을 펼쳤다. 특히 매장량이 풍부한 삼곡리 사금장에는 일본인들을 직접 투입해 새로운 기법의 채굴 방법으로 금을 생산했다고 한다.

“직산은 옛날부터 금의 산지로 이름이 나있었어요. 직산 금광이 처음 역사에 등장한 시기는 고려 말입니다. 원나라는 고려를 복속시키고 고려 조정을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나오게 하고 고려의 왕을 원나라의 공주와 혼인시켜 부마국으로 삼은 다음 많은 공물을 거두어 갔어요. 당시 고려를 산금국(産金國)이라 하여 금을 수탈하다가 나중에는 직접 채굴해 갔지요. 당시 고려 조정은 금의 공물 요구에 처음에는 가능한 범위까지 금을 채취하여 보냈는데, 그 요구량이 점차 늘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본래 산금국이 아니라는 구실을 들어 금의



공물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역사 전공의 향토사가답게 거침없이 말씀을 하신다.

“그렇다고 원이 가만있을 리 있었겠어요? 원나라는 직접 관원을 파견하여 채광하였는데, 『직산현지』와 『연려실기술』에 직산군으로 원나라에서 채금사가 파견되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의 관리가 직산 땅에서 100여 군데나 뺏으나 금을 얻지 못했다하며 이때부터 옛 직산 땅을 금굴평(金堀坪)이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조선 왕조에 들어와서는 명나라에서 금을 공물로 요구할 것을 두려워 세종 때에 전국의 금은 광산을 폐쇄했어요. 그러자 금과 은을 생산할 수 없었으므로 장신구 등이 중국에서 역수입되어 고가로 거래되었죠. 그러나 관원들의 눈을 피하여 몰래 채광하는 이가 있었고 이런 밀채자들을 모두 막지는 못하지요. 관원들이 상납을 받고 밀채를 묵인하게 되고, 효종 때는 금점, 은점이라는 관청을 두어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천안 금광산은 두 가지 형태였지요. 입장 양대리, 도림리와 성거 천흥리, 성환 금곡리(지금의 울금리), 북면 운용리, 천안읍내 ‘충남광산’ 등 굴착 방식의 채굴광산과 성환, 직산 등 너른 들녘에서 채집하는 사금광 등입니다.”

이해가 된다. 언뜻 들으면서도 느낄 수 있겠다. 천안 곳곳이 모조리 금 산지였음을.

“구한말부터 시작된 천안지역 금광의 채굴과 일제강점기 하에서의 금광이 계속 이어왔지만, 천안 금광에 관한 기억은 내가 직산초등학교에 다닐 때인 1945년부터입니다. 당시에 직산면 산직촌(지금의 판정리)에 금방앗간(정련소)이 있었고, 성거 천흥리에 꽤 큰 방앗간이 4군데 있었어요. 또 성환 울금리와 입장면 도림리, 양대리, 성거 삼곡리 등지에 금방앗간이 있었지요. 이는 아직도 내 기억 속에 또렷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교과서를 통해 직산에 사금이 유명했다는 것을 배우면서 향토에 더욱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는 구술자는 산금의 양에 대해 말씀을 이어가신다. 매장량이 많은 큰 광산은 일본인이 모두 점유했지만, 작은 사금광은 한국인이 채굴하는 곳도 많았다고 한다. 명칭은 직산 사금이라 하나 옛 직산군 4개 읍면과 현 천안시 일원이 모두 사금 지대였다고 구술자는 말씀 하신다. 그래서 입장면 구석에서부터 직산면, 성환읍, 성거읍, 천안시 일원의 들판은 파헤치지 않은 곳이 거의 없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직산면 시름세 들이 가장 산금량이 많았다고 한다.

“시름세 근처 들녘은 철도 부설지를 빼고는 한곳도 파헤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시름세 사금광에서 한국인으로 성공한 이는 김봉서(金鳳瑞)였다고 전한다. 그는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나 학업을 닦지는 못하였으나 인물이 호탕하여 큰일을 해낸 인물로 알려지고 있다. 젊어서는 금광의 막노동 인부로 일하다가 덕대, 연상으로 발전하여 이 지역 금광왕이 되었다고. 그는 사금으로 돈을 벌자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줘서 현재 부대동 1호 국도변에 김봉서 시혜기념비(施惠記念碑)가 서 있다고 한다.

“사금을 파내는 과정은 먼저 표토층을 파내면 검은 흙이 나오고 검은 흙이 나온 뒤 사질 토가 나오는데, 이 토층에 사금의 입자가 함유되어 있는 사질층을 ‘감’이라 해요. 나무판으로 짠 물내리개를 걸쳐 놓은 후 ‘감’을 나무판에 물로 일어 내립니다. 그러면 모래흙은 밑으로 내려가고, 금 입자가 많이 함유된 모래를 따로 모아 수은으로 금 입자만 골라냅니다.”

금의 입자를 고르고 난 사토는 ‘버럭’이라 불렀다고 한다. 성환, 직산에서 천안에 이르는 들판에는 버럭 더미와 웅덩이가 곳곳에 널려 있었는데, 한동안 그러한 모습이 이어지다가 나중에는 논으로 환원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금광이 한참 성황일 때 천안 지역에는 많은 색다른 직업, 색다른 풍경이 전개되었다고 구술자는 전한다.

“색다른 모습으로 ‘거랑꾼’이라는 노동자가 있었지요. 아무리 금을 잘 일어난다 해도 버럭 더미 속에는 금 입자가 남아 있게 마련입니다. 거랑꾼은 광산의 채광 인부가 아닌, 금을 일고 버려둔 버럭 더미를 다시 나무 함지로 일어 금을 채취하던 사람을 일컫는 말이에요. 운이 좋으면 품값의 몇 배가 나오는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거랑에 재미를 붙인 사람은 날뎌 팔이를 하지 못했지요.”

재미있는 일은 금을 이는 인부들이 거랑꾼 뉘이라 하여 대충 금을 일고 버럭을 버리는 경우도 있었고, 밤에 아직 일지 않은 ‘감’ 더미를 파오다가 매를 맞는 광경도 있었다고 한다.

“오늘날에는 금을 금은방이나 은행에서 거래하지만 당시는 금이 흔하였기 때문에 금을 사는 노점이 있었다고 해요. 지금의 사직동 시장 입구 길가에 자리를 펴고 작은 책상과 금저울을 놓고 앉아서 거랑꾼이 가져오는 금을 거래하였는데, 일종의 소량 금 수집상이지요.”

거랑꾼이 창호지에 싼 금가루를 꺼내 놓으면 금 노점상은 숯돌 모양의 거문판에 문질러 보아 금의 품질을 판정하고 돈으로 계산하였다고 하고, 당시 가장 산금량이 많은 입장 장터는 술집이 즐비하였다고 한다.

“금 밀수꾼도 있었는데, 당시 금을 가지고 만주를 가면 몇 배의 돈을 받기 때문에 금을 밀수출을 하는 이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금 밀수는 몸을 내던지고 하는 일이어서 매우 어려운 일이었는데, 경부선, 경의선을 타고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갈 수 있었지만, 일본 경찰과 헌병의 감시와 수색이 심해서 모험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운 장사였어요.”

“천안 보덕원금광은 운산금광과 더불어 전국 금광 중에서 매우 광질이 우수하다는 평판이 났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일본인들은 보덕원에 사무소를 두고, 금광채굴에 주력했는데 근대식 설비를 갖추고 채광작업을 펼쳤다고 해요. 특히 직산지역 사금 채취는 한국인들에게 채굴작업을 허가해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이렇게 일제 강점기에 성황을 이루었던 금광이 광복 후 점차 쇠퇴하여 현재는 산금이 막혀 오늘에 이르렀다고 한다. 일제가 철저하게 우리나라 금맥을 살살이 뒤져 금을 캐간 이후, 산출량도 적고 인건비도 올랐기 때문에 도저히 채산성이 맞지 않자 하나 둘 폐광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인터뷰를 마치기 전 지역에서 향토사가로 일을 시작한 계기를 물었다.

“향토사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66년에 지역총람지에 고향 마을에 대한 소개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읽고 나서였습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책에 수록한 것이 마냥 신기했기 때문이죠. 그 후 본격적으로 연구 활동을 한 계기는 천원군지에 실린 황세득 장군과 그의 아들인 황박 장군에 대한 글을 읽고서였는데, 이때 글을 집필한 민병달 선생을 찾아가 두 분이 직계 조상이라고 밝히자, 역사학도로서 훌륭한 조상의 업적을 밝히는 보람찬 일을 해 보라고 적극 권유받게 되었어요. 사실 그때부터 향토사에 관심을 두게 되었어요.”

고향 직산에서의 삶에 대해, 특히 보람 있었던 일들에 대해 여쭙었다.

“학교에 근무하면서 보람 있었던 일은 향토반을 운영하며 학생들과 문화유적 답사를 다닌 일입니다. 덕분에 향토사 연구를 지속할 수 있었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니 많은 성과도 얻었죠. 오늘날 제가 지역의 향토사가로 일컬음을 받고 여러 자료집의 저자로 남게 된 단초였습니다.”

요즈음의 근황에 대해서는, 교직에서 퇴임하고 20년 가까이 문화관광해설사로 보람 있는 여생을 보내고 있는데, 이 일이 너무 기쁘고 즐겁다고 하신다.

금과옥조의 말씀을 더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흐르는 시간이 아쉽기만 하였다. 존경

받는 삶을 살아오셨는데 좌우명은 무엇이냐고 묻자 가훈 이야기를 하셨다. 학교에 근무하던 중에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가훈을 조사하라는 공문이 온 적이 있었다고 한다.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으셨다고 한다. 정작 본인의 가정에는 뚜렷하게 정해 놓은 가훈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계기로 바로 가훈을 정하고 싶었지만, 자자손손 전해질 멋진 가훈을 정하려는 욕심이 앞서서 정하지 못하다가 손자들이 자라면서 겨우 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성(至誠)’보다 더 좋은 말은 없더라는 말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듯이,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다.

●  
금 노다지  
이야기



**임명순** (1948년생)  
천안시 동남구 천안천공원2길

### 하늘이 보고 땅이 보고

직산의 금 노다지에 얽힌 이런저런 말씀을 듣고자 임명순 향토사학자를 모셨다. 구술자께서는 성환은 물론 천안 일대의 근현대 문화사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한 이루신 업적도 대단하다. 마침 지방 신문에 임명순 구술자에 대한 기사가 나서 읽어보았다. 역시 그 일환이었다. 그동안 수집 연구하신 이 지역의 근현대문화 자료 중에 유관순 열사에 관한 800여 점을 유관순열사 기념관에 기탁하였다는 내용이였다. 천안시로부터 수탁증서와 감사패를 받아들고 박상돈 시장과 함께 나란히 서신 사진이 대문짝만큼 크게 보였다.



《중도일보》 8월 11일자 기사에서 발췌

30여 년 동안이나 금전적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일에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사연이 궁금했다. 그동안의 생애에 대한 말씀을 우선 들었다.

풍천 임씨로서 조상님들은 여러 지역에 사셨는데 증조할아버지 때 천안에 이주하셨다. 그러기에 현재 사시는 곳이 아닌 남양주시, 청양 등에 재실이 있다.

아버지께서는 어르신들의 결정으로 어머니를 맞이하셨다. 당시 외가는 인근 평택에서 과수원을 하는 집이었는데 조상의 산소가 천안에 있어 자주 왕래하다가 인연이 닿아 아버지의 처가가 되었다.

아버지께서는 일찍이 병원을 개원하신 의사셨다. 천안시 보건소 원장을 오래 역임하셨으며 도의원으로 정치에 참여하기도 하셨다. 그러한 선대로부터 은연중 터득한 교훈은 하늘을 보고 땅을 보며 아무런 부끄럼 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다짐이었다.

아버지의 4남 4녀 중 막내로 태어나셨다. 당시에도 의사는 명예롭고 부유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직업이었는데 아버지의 뒤를 이을 생각이 없으셨냐고 묻자 웃으시며 형제자매 중에 의사의 길을 간 분은 없고 모두 화학계통으로 진출하여 종사했다고 하신다.

천안시 영성동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내셨다. 당시는 온통 논으로 둘러싸인 곳이었다. 앞에 영성로가 뚫렸는데 서쪽이 시장통이어서 5일에 한 번씩 서는 장을 구경할 수 있었다. 천안 인구가 5만 정도 되었으며, 연탄조차 나오지 않던 때라 매일 아침이면 땀감을 파는 나무장수가 장에 많았다. 나무 한 짐이면 여름에는 열흘 정도 땀다. 장작도 팔았지만 주로 솔잎, 낙엽 뭉쳐놓은 걸 팔았다. 나무꾼들은 날이 새기도 전인 3, 4시경에 나무를 지고 길이 아닌 산을 가로질러 시장으로 왔다. 편한 길로는 아침밥 지을 시간에 못 대므로 한 발짝이라도 가까운 험산으로 나뭇짐을 지고 나무를 팔러 왔다. 구술자께서는 그 당시를 회상하며 ‘나뭇값이 몇 푼 안 되었을 텐데...’ 하고 속말을 하시며 측은지심에 젖는다. 평생 이타적인 삶을 살아오신 분답다.

해방 후에 개교한 제2국민학교(현재 남산초등학교)를 다녔다. 대전중학교와 대전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다. 농학을 전공한 계기가 놀랍다. 대학 들어갈 때만해도 식량 자급자족이 되지 못했다. 보릿고개를 없애는 것은 오로지 농업의 발전이라 믿고 그 길에 뛰어들었다. 대학교 3학년 때 교수님께서 통일벼라는 다수확 신품종 벼를 개발하시는 것을 옆에서 보았다. 통일벼 개발하신 허문회 교수님은 보릿고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주신 분이

라서 지금껏 잊지 못한다.

서울대학교 졸업 후 농촌진흥청에 취업하여 조생통일벼 개발에 뛰어들었다. 지금이야 세 포 배양방법으로 1, 2년이면 신품종이 나오지만, 당시는 10년 이상 걸렸다. 조생통일벼까지 개발하여 식량 문제가 해결되자 천안으로 내려왔다. 농약장사를 하며 농민과 함께 잘사는 길을 연구했다. 애써 농사지어도 판로가 없고 있어도 중간상인에게 헐값에 넘어가는 것을 안타까이 여겨 천안농협공판장을 개설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서는 지금껏 환경관련 업에 종사해 오셨다.

### 성환에 휘몰아친 노다지 바람

구술자께서는 3포 개항 이후 일본의 직산금광(당시 성환은 직산군 소속이었다) 초기 침탈사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하신다. 그러기에 잘 알려지지 않은 직산 광약 이후의 금노다지에 관한 말씀을 들려 주셨다.

당시 서양의 열강들은 우리나라의 광산 유망지를 골라 채굴권을 요구하였다. 아관파천으로 러시아의 보호를 받던 고종은 이들의 이권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일본도 뒤질세라 1900년에 직산금광을 불법 취득하고 이후 채굴계약을 체결하는 등 각지에서 금광, 철광산 등을 탈취하였다. 당시는 통화수단이 오로지 금이었기에 금이 나지 않는 일본은 더욱 혈안이 되어 대한제국을 조였다.

직산 보덕원광 근처는 거죽만 조금 굵어도 금이 나오는 형편이었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의 이름을 빌려 채굴권을 얻은 뒤 무분별하게 금을 채취했다. 그러다가 정식으로 직산광약이 체결된다.

마침 인터뷰 당일이 직산광약이 체결된 지 120년 하고도 이틀째 되는 날이라며 정확히 알려 주셨다. 바로 1900년 8월 16일, 대한제국 궁내무부 대신서리 윤정구와 일본 제일은행 경영자 샤펅영일, 천야총일랑이라는 자본가 사이에 직산 금광채굴 조약이 체결된 것이다. 이로써 일본은 직산의 금광, 동서 60리, 남북 40리 면적의 채굴권을 거머쥔다. 이후 25년 동안 금을 독점 채취하게 된다. 계약 조항에는 이익금의 25퍼센트를 황실에 바치고 고용인의 90퍼센트는 한국인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시행 과정에서 여러 편법이 동원되었다는 사례가 있다.

당시 이곳 인구는 천오백여 명이었으나 광산이 개발되면서 광부만 해도 이천여 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한창때는 만여 명에 이르렀다. 성환 사람들도 광부로 일부 취업했으나 주로 평안도에서 많이 내려왔다(3분의 1). 산금고가 대량 연 70~80관으로 충청도 전체 산금량의 반 이상을 차지했다.

금이 있는 곳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많았다. 오일장이 서고 흥청거리는 고급 술집이 호황을 누렸다. 우체국도 다른 데 있던 것을 이리로 옮겨왔고 직선 신작로가 생겼다. 우리나라 최초의 콘크리트 다리도 놓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리의 원형이 보존되어 있었는데 최근 구술자가 찾아갔을 때는 더 큰 다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전기도 천안보다 먼저 들어왔다.

그렇게 급속하게 신문화가 형성되면서 사건도 많았다. 직산광약이 체결되기 전 광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다. 실업자가 되어 하루아침에 거지꼴이 된 광부들은 2, 3천 명씩 때로 몰려다니며 약탈을 해 주린 배를 채웠다. 광약에 의해 광산을 관리·감독할 수밖에 없는 직산군수는 그들에게 때리는 시어미보다 더 미운 말리는 시누이 격이었다.

마침 평양에서 온 광부 채원실의 사생활이 문제가 되어 직산군의 처벌로 곤장 15대를 맞고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렇지 않아도 양금이 있던 광부들은 그 일을 빌미로 군수에게 반기를 든다. 결국 군수의 목숨을 빼앗는 지경까지 일이 확대된다. 일개 광부의 사생활 문제였지만, 전체 흐름으로 보면 일본의 노다지 광풍에 휩쓸린 광부들의 고단한 여정이었다.

직산이라고 아무 데나 파면 노다지가 쏟아지는 게 아니었다. 이에 두 일본인이 계산해 보고 시원찮다고 여긴 광산의 일부 광권을 미국인(남감리교재단)에게 팔게 된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양도받은 양대리 금광에서 많은 양의 금을 채굴하게 된다. 이때 미국인이 들어오면서 노다지라는 말이 생겨난다. 그들은 귀중한 보물에 손대지 말라고 ‘no touch’를 수시로 광부들에게 외쳤다. 그런데 그 말의 뜻이 와전되어 지금에 이른다. 현재 국어사전에는 ‘노다지’를 찾으면 ‘캐내려 하는 광물이 많이 묻혀있는 광맥’으로 풀이 되어있다.

미국의 문화는 언어 외에도 또 다른 방법으로 성환을 변화시킨다. 선교사 윌리엄에 의해 신식학교인 광명여숙이 설립되고, 한때는 간호학교도 운영되었다. 이들 학교의 유지 및 운



영비는 당연히 광산에서 상당부분(월 50원) 제공하였다. 나머지는 함병철(함태영 큰아들)이 10원, 김인규가 5원을 희사했다는 자료도 찾으셨다.

이는 입장 양대리 광부 독립 운동과도 연결된다. 나중에 부통령이 되는 당시 함태영 목사는 서울에서 독립선언서를 이곳에 가져온다. 그 일은 광명여숙 만세운동과 광부만세운동으로 이어진다.

그러한 일련의 사건이 회오리바람으로 불어간 1928년 광약 기간 25년을 맞는다. 미국인 광주시대가 끝남과 동시에 그들이 운영하던 광명여숙도 폐교를 맞게 된다.

계약이 끝난 땅 130여만 평은 서울 갑부 조정윤이 구입한다. 첫해는 소작료(도지)를 안 받았으나 이듬해 분쟁이 일어나 소작료 쟁의가 발생하기도 한다.

1930년 미국발 대공황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때 다시 한 번 금 가치가 높아졌다 모든 국제거래의 수단은 오로지 금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금광이 다시 붐을 이룬다. 이때 천안 일대에 산발적으로 130여 군데 금광이 다시 허가를 받는다. 우리나라 사람, 일본 사람 가리지 않고 금 채굴 사업에 뛰어들었다. 금 채취 신기술이 도입된다. 금배와 돌 방앗간도 그 일환이다.

그러나 누구나 노다지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었다. 천안의 어떤 부자 장춘배라는 사람은 전 재산을 광산에 투자했다가 실패하자 그의 어머니가 자살한다. 수지가 맞는 광구에서도 안전조치 미흡으로 광산 사고가 자주 났다. 광부 9명의 생매장 등 일 년에 한두 건씩 대형 사고 소식이 신문에 났다. 폭약이나 기계에 희생되기도 하고 매몰사건으로 광부가 죽은 사건이 신문에 계속 나온다. 그런데도 당시 광부는 높은 임금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직업으로 인식되었다. 1만여 명이나 광부로 종사했다.

그런 중에 간혹 사금으로 재미를 본 사람도 있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은 수혈리에서 사금이 쏟아져서 재미 본 김봉서가 있다. 그는 전국 금광을 찾아다닌 사람으로, 기차를 타고 성환을 지나다가 성환 냇가에서 사람들이 사금을 일고 있는 장면을 언뜻 보았다. 바로 광권 허가 수속을 밟고 채금하여 큰 재미를 보았다. 최흥렬도 많은 금을 캐다는 기록이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찾지 못했다고 하신다. 김봉서는 당시 월 1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 한다. 김봉서의 노다지는 현재 59개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 한화그룹의 시작이었다. 그의 후손이 광산에 폭약을 공급하는 공장에서 폭약기술을 익혀 설립한 것이 한국화

약이다.

### 노다지도 끈기가 있어야

이곳에서 태어나 어머니 등에 업혀 피난살이를 하며 칠십 평생을 살아오신 임명순께 금의 의미에 대해 여쭙었다. 잠깐 상념에 잠기시더니 열흘 전 이야기로 서두를 여셨다.

교과서에서 배운 작가 정인보 선생이 천안의 이동녕 생가지 옆에 살았다는 얘기가 돌았다. 얘기로만 전해지는 사건의 근거를 찾기로 했다. 살았다면 토지와 집을 소유했을 터, 소문의 이동녕 생가지 근처의 구 토지대장까지 모조리 떼어 보았다. 과연 정인보 소유의 토지가 이동녕 생가지 옆에 있었다. 5년이나 소유했었다.

정인보께서는 “오천 년간 조선의 얼”이란 글을 일제 강점기에 동아일보에 연재하며 얼이란 말을 최초로 쓰신 분이니 그 자리에 ‘얼의 요람지’라는 표식이라도 붙여 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셨다. 천안시에 그런 내용을 전하셨다.

그렇듯 무슨 일이든 끈기 있게 결말에 도달해야 한다고 하신다. 금광에 전 재산을 투자하여 몇 군데 파다가는 자금만 날리고 떠난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우리가 사건이나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란다. 단면이나 토막 사건만으로 전체를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끈기 있게 흐름까지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말씀을 듣고 보니 그분께서 보릿고개에 농학을 선택하셨고 조생통일벼 개발에 앞장서셨으며 농촌 부흥운동의 일환으로 농약사에서 농민들을 수시로 접하며 천안 농협 공판장을 설립하신 일도 같은 맥락으로 읽혔다.

구술자는 본인의 안일은 뒷전이고 최선을 다해 이타적인 삶을 살아오신 분이다. 그런데도 인터뷰를 마친 후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억지루 하는 것이 아니다. 살고 있다는 자체가 중요하다. 밝히고자 하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것 찾는 것 뿐”이라고 하시며 말씀이먼의 생각할 거리를 던져 주신다. 부디 건강하시어 우리의 모르는 것들을 줄곧 일깨워주시길 바란다.

●  
황금을  
쫓는  
사람들



**임명순** (1948년생)  
천안시 동남구 천안천공원2길

### 의사 아버지와 소설 애독자 어머니

성환지역의 근현대사를 채록하는 과정의 하나로 직산금광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야기는 향토사학자 임명순 선생님께서 민담 위주로 해주셨다. 선생님께서는 아우내 만세운동에 관한 자료 등 가치 있는 향토자료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그 말씀은 나중에 미루었다.

인사를 드린 다음 우선 선생님의 생애에 대해 여쭙었다, 그가 살아오신 길 또한 역사이니까.

증조할아버지 이전 세대까지는 청양에 사셨다. 그런데 증조할아버지께서, 이곳 천안이 활발한 도시이니, 뭐든 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주하신 것 같다고 하셨다. 이주하신 후에는 학자답게 윤리문화 창달을 위해 향교의 책임자인 전교로 계셨다. 이후 자연스럽게 천안에 임씨 집성촌이 이뤄진다.

할아버지께서는 정미소를 하셨는데 살림이 그리 넉넉하지는 않았다.

아버지께서는 의사로서 병원을 운영하시고 천안시 보건소장도 역임하셨다. 해방 전에는 돈을 좀 벌어서 논들이 꽤 있었는데 농지개혁 때 소작농들이 다 가져갔다.

아버지께서는 천안 보건소장으로 계실 때 천안의 백석동에 시영공동묘지를 만드셨다. 그러나 정작 당신은 그곳이 아닌 청양 선산에 잠들어 계신다. 구술자께서 흩어져 있던 13대 전까지의 선대 70여 분을 모두 그곳으로 모셨기 때문이다. 묘는 각각 30×50센티미터 크기의 와석으로, 본인도 장차 그 좁은 곳으로 아내와 함께 들어갈 예정이다. 눈을 크게 뜨자 그것도 욕심인가 싶어 크기를 더 줄이려고 하신단다.

가정교육에 대하여 여쭙었다.

구술자의 어머니께서는 소설책을 즐겨 읽으셨다. 읽으신 후에는 옛날이야기로 전해주시던 모습이 선하다. 의사이신 아버지께서는 4남 4녀를 키우며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하신 적이 없다. 다만 뭐든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을 보여 주시어 내리 배웠다. 덕분에 여덟 형제 자매 중 다섯이 서울대학교를 나왔다.

구술자는 대학 재학 중에 3년 간 군대에 다녀오셨다. 졸업 후 농촌진흥청에 잠시 근무하며 조생통일벼 개발에 참여하셨다. 그 후 고향으로 내려와 농약가게를 운영하면서 농촌 운동을 하셨다. 그 분야의 업적은 많지만 천안농협공판장의 최초 설립은 빼놓을 수가 없다.

슬하에 1남 1녀를 두어 모두 출가시키셨다. 이제는 편히 쉬실 때도 되었건만, 무슨 일이든 의문이 많아 항상 바쁘시다. 특히 고증 안 된 향토사를 읽다 보면 답답하시다. 의문점이 있거나 또는 궁금한데 언급이 안 된 부분, 또 앞뒤가 맞지 않는 토막 문헌 등을 접하면 끝을 보고야 마는 성품이시다. 궁금하면 못 견디기에 먼저 외우고 맞나 틀리나 확인하고 새로운 것을 덧붙이는 재미로 사신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그대로 믿지 말라(Nullius in verba)”는 영국 왕립학회의 모토가 떠올랐다. 과연 선생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실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여 탐구하는 분이셨다.

## 희비의 성환 금광

『고려사』에 의하면 고려시대부터 원나라의 조공 요구로 직산에서 금을 캐다고 한다. 그

러나 그 양은 미미했다. 강화도조약으로 3포가 개항되고 외세가 들어오면서 금광은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1900년대 이전까지는 금 캐는 허가를 받으면 누구나 금을 캐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일본인들은 허가를 받을 수 없으니 우리나라 사람의 이름을 빌려 금을 마구 캐다. 그 중 복지진장이라는 사람은 최광순의 이름을 빌려 입장 보덕원광에서 금을 많이 캐다. 지금껏 성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 꽤 재미를 본 모양이다.

그러다가 1900년에 와서 일본 갑부 두 명이 조정의 궁내부와 광약을 체결하고 이곳 광산 채굴을 독점하게 된다. 광약 내용은 앞서 운산금광 광약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그러다 보니 뿔뿔이 흩어져 금을 캐던 광주와 광부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일자리를 잃고 떼로 몰려다니며 도적질로 연명하던 채원실이라는 광부는 남의 부인을 탈취한다. 그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다른 광부들이 군청으로 몰려가 군수를 매질하여 죽이게 된다. 그것이 지금도 회자하는 작변사 사건이다.

그 사건은 안성 군수가 수습한다. 그는 일자리를 잃은 광부들에게 우선 먹을 것을 대주고 고향으로 돌려보낸다. 당시 미국인 광산주와의 소통을 위해서는 영어를 잘하는 윤치호 씨가 천안군수로 와서 도왔다.

그 사건 외에도 당시 광산에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광부들은 거의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고 인근 입장 사람들은 광산과 관계도 없으면서 공연히 이런저런 피해를 보기도 했다. 토지소유자이지만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거나 불법 점유당하는 등의 일이 비일비재했다.

광부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로는 1917년에 400여명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한 일이 있고, 1918년 광부 411명이 질이 낮은 외국 쌀(안남미)로 임금을 받고는 항의하여 조선미 6, 외국미 4의 비율로 합의하는 일도 있었다.

1928년에는 광권이 말소되면서 서울 사는 조정운이 직산 일대 130여만 평을 95,000원에 산다. 첫해는 소작료를 받지 않았으나 이듬해는 뭘 어떻게 했는지 소작료쟁의가 발생한다. 그래서 소작위원회에서 분쟁을 해결하기도 했다.

선생님께 광산을 보셨냐고 여쭙었다. 당시 직산 땅을 온통 파헤쳐졌기 때문에 여기저기 굴이 있었다. 얼마 전에도 허물어진 성거 광구에 가 본 적이 있으시단다. 온통 바위인데 사

람 돌 걸어갈 정도의 폭으로 굴이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하셨다.

직산 광약이 말소되면서 1930년대 이후에는 100여 명 이상의 광주가 광권을 얻는다. 그러나 일확천금의 꿈을 이루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다. 1934년 6월 신문에는 장춘배라는 사람이 집안 재산을 몽땅 팔아 금광으로 날리고 어머니마저 자살로 잃었다는 기사가 났었다. 서양의 어떤 광주는 금이 나오지 않아 광부들의 봉급조차도 못 쥐 부산으로 도망갔다가 붙잡혀서 두들겨 맞고 만주로 다시 피신했지만 결국 죽고말았다.

광부 중에는 캔 금을 감추어 팔자를 고치려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광부들은 수시로 몸수색을 당하고 출퇴근 시에 몸무게를 측정 당하기도 했다.

그런데 뜻밖에 일확천금의 주인공이 있었다. 직산 삼곡리의 사금 채취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금광이 성하니 부수적인 수요가 뒤따랐다. 인근의 한 노파는 광부들을 상대로 떡을 만들어 팔았다. 광주리 가득 떡을 이고 광산으로 가서 광부들이 쉴 때면 얼른 다가가 떡 광주리를 내려놓았다. 거친 노동으로 허기가 쉬이 오는 광부들은 떡을 즐겨 사 먹었다고 한다.

어느 날 떡을 팔다 보니 소변이 급해졌다. 주변에는 화장실이 있을 리 없고 온통 남정네 광부들뿐이었다. 급한 김에 버럭더미 뒤에서 일을 해결한다. 버럭더미는 금을 고르고 버린 흙더미로 광산 주변에는 어디고 여기저기 산처럼 쌓여있었다.

그런데 일을 본 자리가 누렇게 빛나는 게 아닌가. 금덩어리였다. 놀란 노파는 금덩어리를 허리춤에 숨기고 내달렸다. 달리는 동안 온통 금덩이에 신경이 쓰였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허리춤에 매달린 금덩이는 왼쪽 오른쪽으로 다리를 치며 흔들렸다. 집에 돌아와서 몰래 꺼내 보니 감자 크기만 한 황금이 분명했다.

금광 주변에서는 그렇게 일확천금이 가능했기에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너나 없이 금광으로 몰려들었다. 광산에 투자하여 재산만 날리는 것이 아니었다. 난립한 광산에는 안전시설이 미흡하여 사고가 잦았다. 광부가 매몰되기도 하고 작동하는 금배에 감기기도 했다는 기사가 자주 났다. 1935년 석교리 중앙광산에서도 광구가 매몰되어 4명이 한꺼번에 죽었다는 기사가 났다. 1938년도에는 젊은 소년들이 금 캔다고 하다가 한꺼번에 묻혔다는 기사도 있었다.

일확천금은 아니더라도 논이고 밭이고 다 뒤집어서 사금을 채취하던 사람들은 재미를 보기도 했다. 1934년 자료를 보면 광부 노임도 괜찮았다. 비싼 노임을 받는 광부들이 많으

니 떡을 파는 노파뿐 아니라 고급 기생집이 꽤 있었다.

길도 좋아졌다. 1900년 광약 직후에는 입장 양대리나 안성으로 가는 길이 2차선으로 반듯하게 뚫렸다. 콘크리트 다리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놓였다. 그 자료를 접한 임명순 선생님께서 도하리 지명을 확인한 후 찾아갔더니 이미 부서지고 더 넓은 최신식 큰 다리가 대신 놓여있었다.

광산촌에는 전기나 전화도 시내보다 먼저 들어왔다. 1926년 우체국도 직산에 있던 것을 입장 근처로 옮겼다.

광산이 있었기에 리 단위인 양대리에 주재소가 있을 정도였다. 신식 교육기관인 남감리교회회를 운영하는 해리스 간호부양성소도 있었다. 광명여학교(광명여숙)도 있었다.

광부 만세운동도 빼놓을 수 없다. 입장 광부만세운동 때는 독립선언서가 있었다. 함태영 목사가 서울서 갖고 왔다. 그것을 당시 임영신 교사에게 전했다는 말이 있지만, 신빙성이 없고 함태영의 큰아들이 광산에 종사하는 아들에게 주었을 것이라는 설이 있다. 아무튼 독립선언서를 접한 임영신은 그것을 복사해서 고향인 금산에 가서 돌렸다. 아우내 만세운동이 독립선언서 없이 부른 것에 비하면 광산의 만세운동은 독립선언서를 지닌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양대리 광부 만세운동 때 광부들이 많이 잡혀갔다. 현장에서 죽은 사람이 세 명이나 되고 공주교도소까지 잡혀갔다가 풀려난 사람이 30여 명 된다. 그중에 연세대 의대(세브란스의대) 1회 졸업생인 의사 김희영도 있었다. 광산 따라 입장에 와서 병원을 차려 광부들과 같이 만세운동에 합세하여 붙잡혀갔다. 기소중지되어 풀려났지만 그 후유증으로 1920년에 사망하였다. 금이 나오니 여러 가지 이야깃거리를 만들었다.

광부들이 출퇴근 때는 항상 몸수색을 했으나 그래도 금을 몰래 가져가는 광부들도 있었다. 그래서 당시 유명한 술집 화성관 기생들은 신사복 입은 사람은 홀대하고 허름한 광부들을 좋아했다. 그들은 가끔 주머니에서 팔알만 한 금덩이를 꺼내 기생에게 쥐여 주기도 했기 때문이다.

### 민담으로 남은 금광

해방되고 나서 금배는 없어졌다. 광구도 더 이상 파지지 않았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에는 금이 안 나오는 일본이 국제무역을 하기 위하여(석유 구입 등) 혈안이 되어 금을 캐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캔 금도 국제시세보다 더 쳐 주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맞았지만, 해방이 되어 일본이 물러가자 금값마저 떨어지니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

직산금광의 허가가 끝나 광산에서 쓰던 전기 시설은 천안 전등회사가 사 간다. 그래서 그때부터 천안사람들은 더 많은 전기를 쓸 수 있었다.

광산에 얽힌 자료는 얼마든지 더 있다. 금광 허가에 대한 정보는 조선총독부 관보에 다 있을 텐데 그것을 다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인터뷰 말미에 선생님께서 보시는 금덩어리의 의미에 대해 여쭙었다. 금덩이에 대한 일화를 꺼내놓으셨다.

김봉서와 그의 친구 이야기이다. 그의 친구는 허가가 있는 광구에서 금이 계속하여 나오지 않자 친구인 김봉서에게 금이 나오지 않는 광권을 살기 위해 팔아먹는다. 김봉서는 친구의 광권을 산 뒤 들어가서 여기저기 툭툭 때리니까 바로 금줄기가 나타났다. 팔아먹은 친구는 끈기 있게 파지 않아 행운을 놓친 것이다.

수시로 희비가 엇갈리던 금광, 해방 후 유관순 오빠도 금광을 했는데 망했다. 흥하던가 망하던가, 극과 극이 공존하는, 투기도 그런 투기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어렵게 모셨으니 금광이나 농촌부흥 운동 그리고 향토사연구 들을 통해 터득한 지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마다 본 것이 모두 진실이라고는 할 수 없다. 여기저기 토막 뉴스가 판을 치는 세상이다. 단면을 보고 저 사람 나쁜 놈, 저 사람 좋은 놈 하지 말고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전체를 볼 수 있게끔 눈을 넓혀라. 광산에서도 맥을 짚을 수 있는 사람만이 금을 캐다. 이게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하셨다.



# 공주시

## 공주 금강이야기

공주 금강의 마지막 어부 이제철	128
공주 금강의 마지막 사공 박태규	132
물고기의 천국 여천리	136
공주 금강의 조선소 마을 죽당리	140
사마산에 의지해 산 오동리	144
민속 예술의 마을 대학리	148
토정 이지함이 칭찬한 길지 견동리	152
구석기의 마을 석장리	156
금강 무역선(사업배)의 마을 운암리	160
선산 김씨의 씨족 마을 만수리	164
공주 최고의 민속예술 마을 검상동	168

●  
공주 금강의  
마지막 어부  
이제철



**이 제 철** (1933년생)  
공주시 탄천면 대학리

### 가족관계와 생애

대학리는 공주시의 남쪽, 금강의 동쪽에 자리 잡은 금강변의 마을이다.

이 마을에 사는 이제철은 아버지 이춘보에게 금강에서 물고기 잡는 법을 배워 현재까지 약 78년 동안 금강의 물고기 잡이로 살아 온 인물이다. 대학리를 떠났던 기간은 제주도에서 군 생활을 하였던 5년뿐이었다. 어업으로 돈벌이가 잘 되지 않아 목수 일을 배워 대목을 따라다니며 일하기도 하였으나 강의 생활을 좋아하여 집을 떠나지 않았으며 목수 일은 오래 지 않아 접었다.

전주 이씨 의안대군파인 이제철의 가문은 그의 증조부(이름 미상)가 이 마을로 이사를 온 후 현재까지 살고 있다. 증조부가 농업을 겸하는 어업을 하였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버지는 일생동안 농사를 짓지 않는 어부로 살았다.

아버지 이춘보는 1902년 경 출생자다. 1994년 사망하기까지 물고기를 잡아 노인 어부로 유명했다. 어머니 박씨는 1905년 경 출생자로 언제나 조용하고 목소리가 낮았으며 가난한 살림으로 남의 일을 많이 다니면서도 이제철이 부모의 부부싸움을 본 적이 없다고 기억할 만큼 가정에 충실했다. 90세인 1995년에 사망하였다.

이제철은 3형제 중 막내로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같이 물고기를 잡는 것을 즐거워하여 아버지의 어업을 이어받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20세에 청양군 정산면 미당리의 김남순과 결혼하여 7남 1녀를 두었다. 처 김남순은 “물고기 잡이가 가난한 삶을 살게 하여 좋아하지 않았으나 남편이 좋아서 하는 일이라 말린 적은 없다.” 한다.

### 어로작업

주낙은 본 낚시줄에 낚시를 매달아 길게 놓는 낚시 어로 작업이다. 길이 50발 (70- 100m)의 주낙 5-10조를 만들어 놓고 계절, 강의 상태에 따라 강을 가로질러 놓고 1일 1회 고기를 떼어 오는 물고기 잡이다. 본 줄은 명주실을 사다가 사용하고 낚시를 구입, 수작업으로 만들어 썼으며 고기를 떼는 과정에서 손실이 생기면 현장에서 보완하였다. 고기가 많이 걸리면 줄을 걷어 수확하기도 하나 대부분은 배를 타고 낚시줄을 따라가며 고기를 떼다.

잡히는 고기는 잉어, 동자개, 누치, 메기, 장어, 붕어, 가물치, 자라 등이며 이중 잉어, 가물치, 자라, 붕어는 약제용으로 팔리는데 붕어는 약제용의 예약이 없으면 대부분 놓아 주었다.

잡은 고기는 마을에 찾아오는 도매상이 있어 넘기지만 직접 공주 장에 나가 팔기도 하였다.

수수걸이는 발작물 수수 이삭을 이용하여 참게를 잡는 어로 작업이다. 제작은 다 익지 않은 수수목을 잘라 약간 말린 후 큰 솔에 넣고 살짝 삶아서 찬물에 담갔다가, 쓴물이 빠지면 말린다. 말린 수수목에서 이삭 3-4개를 떼어 주낙과 같은 방법으로 본 줄에 매단다. 수수걸이 본 줄은 청홀치로 노끈을 꼬아 사용하였다. 명주실은 약해서 쓰지 못했다.

강을 가로질러 놓되 강물이 깊고 바닥에 빨이 있는 곳이 좋으며 본 줄에 돌을 매달아 바닥에 닿도록 놓는다. 음력 8월부터 10월까지 하는데 많이 나는 해에는 얼음을 깨고 작업하였다. 한번 설치하면 내내 두고 잡기 때문에 반드시 배가 있어야 한다.

이제철은 7-8세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다가 13세에 본격적으로 아버지와 함께 물고기를 잡았다. 이런 연유에서 아버지가 행한 수수걸이는 이제철 또한 금강 하구 독이 막히기 전까지, 주낙은 그의 나이 70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였다. 그 외 이제철은 강살을 놓거나 명지 그물 놓아서 물고기를 잡았다.

강살은 강바닥에 나뭇가지와 말뚝으로 받을 둘러치고 그 안으로 들어간 물고기를 가두어 놓고 잡는 어로행위다. 강살을 놓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강폭이 좁고 물살이 약간 센 곳에 터를 잡아 강을 가로질러 받을 설치하고 아래위로 고기 함정을 만들어 함정에 들어간 고기를 잡는 방법이다. 둘째는 폭이 넓은 강에 터를 잡아 일부를 넓게 펼쳐 강밭을 설치하고 향아리처럼 고기 그릇을 만들어 놓고 고기를 몰아넣고 입구를 끝이 그물이나 명지 그물<sup>1)</sup>로 막고 뜰채로 잡는 방법이다. 셋째는 강이 넓고 수심이 좀 깊은 곳에 강변에 의지하여 ㄴ자 형으로 강밭을 치고 망루에서 물살로 고기떼를 읽어 물고기 떼가 밭 앞에 이르면 끄리 그물로 고기를 몰아넣고 후리그물로 잡아내는 방법이다. 보리 송어와 잉어가 많이 나는 철에 ㄴ자형 강밭을 치고 잉어와 송어를 잡아 장에 팔았다. 인력이 부족해지고 나이가 많아 강살을 매지 못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쓰는 얽힘 그물을 사용하여 물고기를 잡았다. 그물은 강을 가로질러 설치하고 1일 1회 배를 타고 나가 고기를 떼다.

바닥 고기를 잡을 때는 싸리나무로 통밭을 만들어 된장이나 짐승의 내장 등을 넣어 잡았다. 적을 때는 2-3개, 많을 때는 10여 개를 놓았다. 돈 되는 고기가 잡혔다. 어로 작업이 어려운 수풀이나 뺨에서는 싸리나무로 꼭지가 잘린 뿔 모양의 통을 만들어 등을 찍으면서 통 안에 든 고기를 잡았다. 본인도 하였고, 마을 장정에게 가리를 만들어 주기도 했다. 이제철이 잡은 인생 고기는 잉어 13관 (48kg) 싸리로 비싼 값에 팔았다 한다.

목수 일을 배웠던 이제철은 함석을 사다가 배 모양을 만들고 안에 나무 송판을 깔아 배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였다. 한 번에 7-8인이 타도 안전한 배를 만들어 사용하여 배를 사는 돈을 절약할 수 있었다. 지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소형 배에 노를 저어 이동한다.

이제철은 아직도 강에 나가 물고기를 잡지만 고기의 판로가 없어 마을 노인들과 먹을 매운탕용 정도의 물고기만 잡으며, 간혹 붕어 등 약제용의 예약이 들어오면 잡아 팔아 용돈을

1) 얽힘 그물을 이르는 말

쓴다.

### 대학리의 물고기 잡이

대학리는 강밭, 초코 그물, 끄리 그물, 투망, 떼 그물, 손 그물, 가리질, 통밭, 게밭치기, 수수겉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기를 잡았다. 단 주낙은 어부들의 몫이라 하여 행하지 않았다.

이 마을에서 잡은 물고기는 칠어, 잉어, 메기, 가물치, 송어, 동서, 장어, 붕어, 새우, 참게, 모래무지, 동자개, 쏘가리 등이었으며 바다에서 회유하는 고기는 참게, 복어, 장어, 농어, 송어 등이었다.

마을 물고기 잡이에서 특별한 재주를 보인 사람은 윤택중으로 후리 그물질을 잘하여 마을이나 이제철이 강밭을 설치하면 언제나 그를 불러 고기를 잡았다.

●  
공주 금강의  
마지막 사공  
박태규



**박태규** (1931년생)  
공주시 탄천면 백제큰길

### 마을 이주와 배사업의 시작

박태규는 공주시의 남쪽, 금강의 동쪽에 자리잡은 대학리에 살고 있다. 박태규는 아버지 박노순에게 농사와 배 사업을 이어 받아 1970년대까지 배를 운항해온 인물이다. 한번도 마을을 떠나지 않았고 21세에 파평 윤씨 집안의 윤정숙과 혼인하여 4남3녀의 자손을 두었으며 지금도 대학리에 거주하고 있다.

처음 대학리로 이주를 한 것은 박태규의 조부였다. 마을에 들어와 재산을 일구어 아버지 대에는 20마지기의 논과 600여 평의 밭을 농사짓는 부농이 되었다. 조부는 어업이나 배종사를 하지 않아서 순수한 농부로 살았다.

배종사를 시작한 것은 아버지였다. 박태규의 아버지는 족보에 사용하는 이름과 호적 이름이 다르다. 족보의 이름은 박노순이지만 호적명은 박정노였다. 마을에서 부농으로 살아

가던 박노순은 일제 강점기인 1940년경 같은 마을에 살면서 배종사를 했던 임태수 (1890년경 출생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임태수가 배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박태규에게 빚 대신 배를 양도하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시기 박정노의 아내 김순길의 오빠가 대전에서 금융조합에 근무하여 재정 도움을 받았다.

## 배사업

아버지 박노순은 벼 3백가마를 실을 수 있는 큰 사업선을 가지고 있었다. 이 배는 공주 전막, 곱나루, 강경과 장항을 오가는 배였다. 바닷물의 조수와 관계가 있는 부여 이남 금강 하류의 특성상 바닷물의 물때를 이용하여 오갔다. 뱃사람 2-3명을 고용하여 상시 운행하였고 운반 물품이 많을 때는 10여명의 날품 인부를 썼다. 돛을 세워 바람을 이용했지만, 노와 삿대를 이용하기도 했기 때문에 노와 삿대를 함께 쓸 수 있는 ‘쟁밋’을 사용했다.

주된 화물은 공주 금강변의 각 나루에서 싣는 장작이었다. 장작은 평(坪)으로 거래했으며 대부분 군산이나 강경 나루에서 하역하였다. 나무를 실어다 주면 주인이 팔았다. 강경이나 군산에서 공주로 싣고 오는 물품은 소금, 생선, 새우젓 등이었다. 이 역시 상인들의 물품을 싣는 것이고 직접 장사는 하지 않았다. 김장철 등에는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물건을 사다 주기는 했다. 일제 강점기에는 화물이 많았다. 세곡을 싣고 내려가 일제가 쌀을 수탈하고 배급으로 주었던 스스쌀, 알랑미, 비료, 콩깨묵, 소금 등을 싣고 왔기 때문이다.

사업선 뿐만 아니라 공주 지역 탄천면과 이인면 금강 나루 중 가장 큰 나루였던 반여울 나루에서 나룻배도 운행하였다. 배의 크기는 사람 30여 명과 쟁기, 소를 모두 실을 정도 큰 나룻배였다. 마을에서 걷는 사공조는 봄에 보리 1말, 가을에 벼 1말이 기본이며 장에 자주 다니는 사람은 2-3말을 더 냈다. 청양 청남에서 탄천중학교로 통학하는 학생이 많았으나 이는 청양의 사공이 실어 날랐다. 학생이 박정노의 나룻배를 타면 뱃삿으로 20전을 받았다. 정기적으로 뱃고사를 지냈는데 1년에 한 번은 큰 고사를, 한 달에 한 번은 작은 뱃고사를 빠지지 않고 지냈다.

어느 날 공주에서 짐을 싣고 군산으로 가는 길에 조수를 맞추지 못해 배를 밀고 가다가 잠시 쉬는 사이 난간에 서 있던 배 종사자가 물로 떨어졌다. 배를 멈추지 못해 떨어진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시신을 찾아다가 장례를 지냈다.

박태규는 아버지가 60세 되던 해에 배를 이어받았다. 아버지부터 이어온 사업이 순항하여 여유가 있어 사업선 한 척을 진수하였으나 1960년대 들어서면서 물량이 줄어 낡은 배를 없애고 큰 배 1척만 운항하였다. 1962년 경 부여를 중심으로 놀이 배가 유행하였다. 고란사 앞에 뜨는 유람선들이 많아졌고 모두 동력선으로 바꾸었다. 박태규도 배에 발동기를 설치하여 동력선으로 개조하고 공주, 부여, 강경, 군산을 잇는 물품 운반에 주력하였다. 이후 부여 유람선 조합에 가입하였으나 소득이 적어 나룻배만 운항하다가 배 사업을 끝냈다.

나룻배는 공주 지역 나루 중 가장 늦게까지 운행하였다. 청양의 청남과 정산, 목면에서 논산으로 가는 길로는 반여울 나루가 가장 가까워 청양 사람들이 많이 오갔다. 아버지가 오가던 나룻배를 이어받아 특별한 차이는 없었다. 뱃삯은 당시의 시세대로 조금씩 올렸으나 넉넉하지 못하여 농사에 전념하게 되었고 1976-7년경 나룻배를 없앴다.

### 금강 뱃길 이야기

기억에 남는 사공들이 여럿 있다. 송 사공은 곰나루의 사공으로 곰나루를 출입하는 배들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공주의 박승재 사공은 사업선을 운행하였고 공주에서 가장 먼저 발동선을 만들었다. 대구에서 일제 야마다 발동기를 사다가 부여 조선소에서 부착하였다. 운암의 이창구 사공은 공주에서 유일하게 사업선 2척을 운항하였다. 탄천, 이인, 우성의 금강변 각 나루에 짐을 운반하였다. 발동선으로 개조하여 금강에서 가장 늦게까지 배 사업을 하였다. 소명동 김우식 사공은 벼 3백 가마를 싣는 배로 배 사업을 하였고, 공주 오창서 사공은 벼 5백 가마를 싣는 큰 배를 운항하여 세곡을 도맡아 운반했다. 윤택금 사공은 새나루에서, 운암리 정사공 뚝점나루에서 배를 운항하였다.

상여를 운반한 나룻배도 있었다. 청양의 청남, 목면, 정산에는 공주에서 건너가 자리 잡은 문중이 여럿 있었다. 이런 연유에서 사망 후 종산에 장례를 치르려는 사람들이 나룻배로 금강을 건너는 일이 잦았다. 배로 건너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배에 타기 전 노제를 지내고 상주가 고인에게 『아버님 이제 배로 모시겠습니다.』하고 고한 후 나룻배를 옆으로 대고 상여를 길가로 올린다. 배안에서 상여 행상소리를 하며 건너가 상주가 고인에게 배에서 내림을 고하고 배에서 내려 공주 쪽 문상객을 받는 노제를 지낸 후 장지로 행상하였다.

금강변에 위치한 대학리는 금강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많았다. 병술년(1946년)에는 큰 홍



수가 났다. 청양 정산의 부자들이 일제 강점기에 함석으로 창고를 지어 벼를 보관하고 창고세를 받았는데 많은 물량이 홍수에 휩쓸렸다. 곡식과 창고가 단번에 휩쓸려 내려갔으며 대학리에서 떠내려 오는 물건을 보며 안타까워하였다. 초가집도 떠내려 왔는데 지붕위에 여인이 타고 있어서 부어까지 쫓아가 지붕이 물가로 밀려 왔을 때 구했다.

반여울 나루와 관련된 기억도 많다. 반여울 나루 주변 반탕이라 불리는 곳은 물길이 매우 얇아서 상업선에 짐이 많이 실리면 배의 바닥이 닿아 올라가지 못할 정도였다. 이럴 때는 소 여러 마리를 동원하여 멩에를 썩워 앞에서 끌어 올렸다. 이런 연유로 이곳을 소명돌이라 불렀다. 일제강점기 비행기 3대가 길을 잃어 반여울 나루 위 백사장에 불시착하여 다시 뜨지 못하자 비행기를 뜯어간 일도 있었다. 이를 구경하려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박태규는 일제 강점기때 정산국민학교를 다녔다. 아버지는 날마다 나룻배로 아들을 건너다 주었다. 방과 후 친구들과 노느라 여러 번 늦게 나루터에 왔는데 그때마다 아버지는 아들이 다니는 길의 잔돌을 치우고 쓰레기를 줍고 계셨다. 훗날 아버지는 『그때는 막내가 걸어 오는 길도 예뻐다.』며 『막내아들이 넘어질까 봐 돌을 주웠다.』고 말씀하여 깊은 추억이 되었다.

● 물고기의 천국  
어천리



**이은재** (1931년생)  
공주시 우성면 어천리



**김용순** (1942년생)  
공주시 우성면 어천리

**생애와 가족관계**

춘담(春潭) 이은재는 한학을 공부한 사람이다. 1931년 아버지 법헌 이강헌과 어머니 밀양 박씨의 5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한학자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서당을 다니기 시작하였고 공주 향교에 적을 두고 이사직까지 올랐다. 이은재는 공주시 탄천면 분강리에서 출생하여 23세인 1954년에 어천리로 이주하여 지금까지 살았다. 어천리 이주 후 26세에 청양군 목면 송학리의 유원기와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고 5남 2녀의 자녀를 두었다.

같은 마을에 사는 김용순은 1942년생이다. 어천리에서 아버지 김갑수와 어머니 조남순의 3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도시로 나갈 꿈조차 꾸어 본 적이 없이 어천리만 지키고 살아왔다. 26세인 1967년에 보령시 청소면의 이등과 혼인하여 3남 1녀를 두었다.

### 어천리의 역사와 문화

어천리는 공주군 성두면(城頭面)에 속한 지역이었다가 성두면 건천리·하어리와 반탄면 소명리(昭明里)·운암리(雲岩里), 정산군(定山郡) 목면(木面) 석화동(石花洞)·건예동(乾藝洞)의 각 일부가 통합되어 어천리로 개편되고 1995년 공주군이 공주시와 통합되면서 공주시 우성면 어천리가 되었다.

어천리의 북부, 서부, 동부는 산지이며 동부와 남부로는 금강(錦江)이 북동~남서 방향으로 흐른다. 마을 앞으로 금강의 지천인 어천천이 흐르고, 금강의 수위와 큰 차이가 없는 얇은 지형의 논이 펼쳐져 있으며 마을과 뒤로는 밭이 분포하여 있다. 마을이 번성하였던 1966년경에는 가구의 수가 92호에 이르렀으나 현재는 40여 호가 남아있는 강변 마을이다.

자연환경에서 특이한 점은 마을에 분포한 바위의 모습이다. 바위 안에 잔돌이 많이 박혀 있는데 공주대학교의 지질 연구에 의하면 아주 먼 옛날 금강이 형성되기 전에 이곳이 큰 호수가 있어서 퇴적암이 발생한 때문이라 한다. 마을 사람들은 돌 안에 돌이 들어있다 하여 이를 신비롭게 여긴다.

이 마을에 오래 산 성씨는 대구 서씨, 전주 이씨, 안동 김씨이며 이중 대구 서씨가 가장 먼저 입향하여 9대에 이른다. 현재는 16개 성씨가 살고 있다.

예로부터 이 마을에 서당을 열어 온 집안은 안동 김문이었다. 안동 김문 마지막 훈장은 현재 이 마을에 살고 있는 김현근의 조부였다. 김 훈장 사망 후 방천복의 아버지가 서당을 열어 학동을 모집하고 글을 가르쳤는데 많을 때는 12-3명에 이르렀으나 1957년경 문을 닫았다. 이은재는 이 서당에서 글공부를 하였다. 탄천에서 서당을 다니고 성인이 된 후 이 마을로 이주하였지만 서당 문을 닫을 때까지 다니면서 초학자를 가르치고 스스로는 맹자와 대학을 공부하였다.

정월 대보름에는 장승제를 지냈다. 동방청제대장군과 마을 입구에 서방청제대장군, 이

렇게 두 장승백이가 있다. 정월 열나흘 밤이면 금강 지천의 제방에 벼짚으로 햇불을 만들어 쥐불을 놓고 자시(밤 11시)가 되면 제를 지냈는데 70년대부터 마을 사람들이 모두 보게 하자는 취지로 오후 6시에 제를 지낸다. 이 마을 장승제는 장승을 셋 세운다하여 일명 『첩 장승제』로 불리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 명칭을 싫어한다. 고사는 유교식으로 올리며 농악을 치지 않는다. 여우네 대동계가 주관하며 현재까지 지내고 있다. 제주는 조병렬이 오래 하였고 축관은 서정갑의 뒤를 이어 이은재가 행하며 유사는 사람을 선정하여 운영한다.

어천의 두레는 논매기 공동 작업을 1년에 1회만 하는 『한물 두레』이다. 제방이 쌓이기 전, 특히 한국전쟁으로 전국의 산림이 황폐한 후 홍수가 나면 금강이 자주 범람하였다. 금강이 범람하면 마을에서도 배를 타고 이동하는 형편이라서 논농사를 망치는 해가 많아 두레를 강하게 운영하지 못하였다. 농기는 농자천하지대본에 영기는 청홍기를 썼고 마지막 두레 좌상은 김태명이, 두레 논매는 소리 선창자는 현재 남학원이 잘 하였다. 김용순은 두레꾼으로 활동하였다.

어천에 전래되는 집터 다지기 소리는 매우 특이하다. 후렴을 『어허이야 광광 다저라.』로 부르는 것이 다른 마을과 구분되는 점이다. 세상천지가 만들어지고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는 이른바 『명기 부르는 소리』 노랫말이 우리나라의 자연과 역사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후렴 : 어허이야 광 광 다저라

세상 천지가 깜깜하다가 / 하늘이 생기고 땅 생길 때 / 세상 천하의 중심에다 / 백두산을 마련하시고 / (중략) <짚은소리> 잘 다진다 잘 다진다 / 이 터전을 다지고나면 / 모든 이들이 복을 빌어 / 당대 발복 이루리라 / (후략)

해방 후에 마을에서 젊은이들이 모여 스스로 대본을 쓰고 노래를 만들어 춘향전 공연을 시작하였다. 팔월 추석이나 정월 대보름에 하였는데 공연을 잘하여 인근 동리 사람들이 모여들어 관람하였다. 구경꾼들이 내는 회사금이 많아 『공연하면 인근 3 동네 돈을 모두 굶는다.』고 회자 되었다.

어천리는 다른 마을과 달리 버드나무 정자가 많다. 장승제를 올리는 마을 앞 장승백이에는 장정 4인이 품어야 하는 버드나무 정자 2그루가 있으며 마을 안에는 느티나무 정자가 특이하다.

## 금강과 사람들

마을 전체가 고기 밭이라고 불려도 좋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히던 마을이다. 고기가 많은 이유는 방죽과 냇물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강과 들의 경계지점에 있었던 어천 방죽은 규모가 9000여 평에 이른다.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는 연못이면서도 장마 때 강물이 범람하여 각종 물고기가 서식하기에 알맞은 환경을 지니고 있다. 이 마을은 금강변 다른 마을에 서는 상상도 못하는 큰 고기들이 잡혀 읍내나 타동 사람들이 고기잡이를 위해 찾는 곳이었다.

마을 앞에는 어천 나루가 있었다. 이 나루의 맞은편이 이인면 운암리인데 운암리에서는 낚점나루라 부른다. 조선조 운암리에서 생산되는 낚점이 유명하였고, 그 나루에 강경과 곰나루 등으로 오르내리는 배가 많이 정박하여 부르던 이름이다. 이 경향으로 어천리에서도 낚점나루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어천리의 물고기 잡이는 수수걸이, 강살 매기, 끌이 그물질, 투망, 통발, 장어 후리작살질, 그물질, 가리질 등 다양하였다. 수수걸이는 수수이삭을 삶아 말려 줄에 꼬여 바닥에 내려놓았다가 건져 올려 참게를 잡는 어업으로 하루에 1000여 마리가 잡혔다. 강살 매기는 강의 일정한 부분에 발을 세워 물고기를 유도하여 고기 함정으로 몰아넣고 잡는 방법이다. 강살 매기는 어천리 마을이 주관하는 마을 공동의 고기잡이와 강 조사<sup>1)</sup>들의 행위 두 가지가 있었다. 특히 이 마을에는 장어 후리 작살이 성행하여 많은 장어를 잡았으며 잡은 물고기를 공주 장에 내다 파는 물고기 장사도 있었다. 통발은 대나무나 싸리나무를 엮어서 만들었다. 끌이 그물, 손그물, 투망 등은 일반적인 그물질이다. 냇물과 방죽에서 사용한 가리질은 가물치, 메기 등 그물로 잡기 힘든 고기를 잡는데 사용하였다.

1) 강에 일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

●  
공주 금강의  
조선소 마을 죽당리



**유응균** (1942년생)  
공주시 우성면 은골2길



**서동복** (1950년생)  
공주시 우성면 은골2길

### 생애와 가족관계

유응균은 1942년 11월 죽당리에서 아버지 유병석과 어머니 이운순 사이에 3남 2녀의 장남으로 태어나 마을을 지키며 살아 온 토박이다. 28세에 같은 마을의 서순덕과 혼인하여 2남 1녀를 두었다. 1969년에 동네 혼인을 하였는데 당시에는 동네 혼인을 금하는 관습이 있었지만 양가에서 서로 사돈을 맺기를 위하여 큰 어려움 없이 혼인하였다. 결혼 후 33세에 서울에 올라가 직장 생활을 하였으나 애를 삭이지 못하여 2년 만에 귀향하였다. 귀향 후 젊

은 이장으로 선출되어 생활하였다. 그러던 중 친척이 다시 도시 생활을 권하여 청주에 나가 살았으나 도시 생활의 여유 없음이 싫어 3년 만에 다시 구행 하였다. 이후 마을을 떠나지 않았고 도합 15년 동안 마을의 이장으로 활동하고 현재는 노인 회장을 맡고 있다.

서동복은 대구 서씨다. 대구 서씨는 250여 년 전에 죽당리에 입향하여 15대를 이어 살아 온 마을 최고의 씨족이다. 금강 변 마을의 전형적인 어부로 살았던 아버지 서교월과 어머니 조을형의 사이에 3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나 아버지에게 농사와 물고기 잡이를 배워 평생 살아온 어천리 토박이다. 31세에 서울 아현동에 살던 강성자와 중매로 혼인하고 3남매의 자손을 두어 가정을 이루었다.

아버지 서교월은 장어 후지 작살질, 게잡이 수수걸이, 주낙 등 이 마을의 전통 물고기 잡이에 빼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었으며 마을에 단 한명 밖에 없는 그물 뜨는 사람이었다. 서동복은 이런 영향으로 물고기 잡이를 부업으로 알고 살았으나 금강 하구둑이 막혀 돈 되는 고기들이 사라지면서 농사에 전념하였다.

### 마을의 역사와 문화

죽당리는 공주시의 서쪽 금강변의 마을이다. 강은 마을의 동쪽, 북에서 남으로 흐른다. 공주군 성두면(城頭面)에 속한 지역이었다가 인근의 작은 마을들을 모아 죽당리로 개편되고 1995년 공주 통합 시 우성면 어천리가 되었다. 이 마을에서 유응균은 마을의 지도자로 생활하였고 서동복은 물고기 잡이의 문화에 대하여 많은 경험을 가졌다. 그들이 말하는 어천리는 평화로우면서 풍요로운 마을이었다.

이 마을은 대구 서씨와 강릉 유씨의 집성촌이었다. 처음 이 마을에 들어와 마을을 연 사람들은 대구 서씨 일문으로 250여 년 전에 입향 하였다. 이후 150여 년 전에 강릉 유씨가 들어와 집성촌을 이루었다. 현재는 양 성씨 외 7세대의 타성이 들어와 마을을 이루고 있다.

대구 서씨 일문에서 대대로 서당을 열었는데 마지막 훈장은 서춘섭 훈장이었다. 서춘섭 훈장은 학문이 깊어 검상동에서도 와서 배우는 학동이 있었다. 이 마을의 서동복, 서동화 등이 수학하였다. 서씨 문중에는 선비들이 모여 함께 공부하고 즐기는 강당이 있어 마을 명이 강당골이 되었다.

죽당리의 마을 고사는 거리제다. 정월 대보름에 마을 안 십자거리에서 지냈다. 정월 열나

흘 밤에 쥐불을 놓았고 자시(밤 11시)가 되면 지냈지만, 1970년대부터 미신타파 정책에 따라 폐지되었다. 기우제는 가뭄에 비를 비는 마을 고사로 아낙네들이 울리며 여자들이 기이한 행동을 해야 하늘이 탄식하여 비를 내려준다 하여 키로 물을 까붙고, 양재기와 농악 악기를 함께 두드리는 행동으로 비를 불렀다.

죽당의 두레는 논매기 공동 작업을 1년에 1회만 하는 『한물 두레』이다. 80마지기였던 마을의 논이 금강 고수부지의 땅을 논으로 바꾸어 800여 마지기에 이르게 되자 두레가 매우 성행하였다. 여름 두레 먹는 날은 매년 인절미를 했는데 이를 『두레 인절미』라 칭했다. 두레의 마지막 좌상 김현태는 기운이 장사이면서도 논매는 소리의 선소리꾼으로 활동하였다. 유응균과 서동복도 두레가 소멸 될 때까지 두레꾼으로 일했다.

### 금강과 사람들

죽당리 새나루 앞에는 서부원이 운영하던 금강 배 조선소가 있었다. 조선소는 큰 배, 중배, 작은 배를 짓는 곳을 정해놓고 작업을 하였다. 다른 마을에서도 배를 수리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 언제나 성업을 이루었으나 금강 하구둑이 막혀 어선이 사라지면서 문을 닫았다.

죽당리 새나루 앞 금강은 수량이 풍부하고 물살이 안온하여 봄이면 천렵배가 많이 떴다. 『봄이면 장구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는 정도였고 죽당리의 부자들도 매년 놀이 배를 띄웠다. 공주 읍내에서 띄우는 놀이 배도 이 앞에서 놀다가는 명소였다 한다. 마을의 장정들은 고깃배에 술을 싣고 나가 물고기를 잡아 안주를 만들어 배 철업을 즐겼다.

이 마을에는 공주 다른 마을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집단 어부들의 어로 사업이 있었다. 이를 『강종사』라 하였는데 7-8인의 장정 어부 등이 모여 공동으로 물고기를 잡아 파는 집단이었다. 많을 때는 8개 단체가 활동하였고 금강 하구둑이 막히던 해에도 3개가 활동하였다. 이들의 어로 작업은 끝이 그물이다. 200여 미터의 끝이 그물을 배로 뿌리고 육지로 끌어 올려 잡았으며 돈이 되는 고기는 모두 팔아 수익을 분배하였다. 어로 작업의 범위는 부여부터 지금의 세종시인 연기군 지역까지였고, 타 마을에서도 이들의 어업을 인정하여 시비가 없었다.

이 외에 강살 매기, 수수걸이, 투망, 통발, 장어 후리작살질, 그물질 등 다양하였다. 서동복은 이 마을 최후의 후리작살꾼 이었다. 후리작살질은 늦가을부터 겨울 동안 강의 뺨밭에



동면하는 장어를 잡는 어로 행위로 작살로 바닥을 긁어 잡는다.

죽당리에서는 바다 가오리가 잡혔다. 바다에서 회귀하는 가오리는 공주에서는 이 마을에서만 잡혀 모두 신기하게 생각하였다. 장정이 혼자 지게에 지고 가는 것이 힘들 만큼 큰 고기도 잡혔다. 가오리뿐만 아니라 변대, 모로꼬가 이 마을에서만 잡혔고 칠어, 잉어, 메기, 가물치, 송어, 동서, 장어, 붕어, 새우, 참게, 모래무지, 갈가리, 미꾸리, 동자개, 쏘가리 등도 잡혔다.

죽당리 주민들은 물고기 잡이배 8척, 나룻배 1척, 농선 1척, 낚시배 1척, 강경장배 2척 등 13척이상의 배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는 공주 지역 다른 금강변 마을의 배와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양이다.

●  
**사마산에  
 의지해 산 오동리**



**정기영** (1939년생)  
 공주시 우성면 장개 오동길



**신종철** (1937년생)  
 공주시 우성면 오동리

### 생애와 가족관계

정기영과 신종철은 서로 마을 이장을 보며 오동리를 이끌어 온 사람들이다.

정기영은 1939년 6월, 3대를 이어 이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소를 키워온 아버지 정해관과 어머니 김복현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머니 김복현은 현재의 나이 98세로 1923년생인데 아직도 건강하게 생존하셔서 81세의 정기영이 모시고 살아간다. 25세에 이인면 초봉리의 강정옥과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었고 논 9마지기와 밭 1,300평의 농사를 짓고 있다.

신종철은 1937년생이다. 오동리에서 5대를 살아온 평산 신씨 가문의 신천흥과 어머니 이 입분의 사이에 장남으로 출생하여 마을에서만 살아온 토박이다. 25세인 1961년에 부여 김 말녀와 혼인하여 2남 3녀를 두었다. 정기영의 뒤를 이어 마을 이장을 오래 보았으며 마을의 중농으로 농사를 지었고 금강 하구둑이 막히기 전에는 물고기 잡이를 부업으로 삼아 넉넉한 생활을 영위 하였다.

### 마을의 역사와 문화

오동리는 공주시 서쪽 금강변의 마을이다. 마을 앞쪽 들이 매우 좁고 다른 강변 마을과 달리 금강변의 고수 부지 농토도 빈약하여 논은 적고 밭이 많은 마을이다. 당초 공주군 성두면(城頭面)에 속한 지역이었다가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으로 오동리가 되었으며 1995년 공주군이 공주시와 통합되면서 공주시 우성면 오동리가 되었다.

오동리의 서부에는 사마산이라는 이름의 높은 산이 있고 북쪽까지 산이 많아 금강 서편의 옥성리, 어천리, 죽당리는 물론 구 공주읍내와 검상동 등의 먼 마을에서도 이 산에서 땀 나무를 조달하는 『나무 고지』로 이름났던 마을이다. 이런 연유로 오동리는 논농사나 금강의 물고기 잡이보다 산에 의지하여 나무를 해다 팔며 솥을 굽는 것으로 살아왔다. 금강변의 마을임에도 다른 강변 마을들과 전혀 다른 생활 환경 속에서 살아온 마을인 것이다.

이 마을에 오래 산 성씨는 나주 정씨다. 나주 정씨는 이 마을에서 10대를 살아왔으며 현재까지 12호가 마을을 지키며 살고 있다. 나주 정씨 외에는 3대 이하의 짧은 기간 살아 온 각 성씨들로 인하여 지금은 마을 사람들이 『각성반이 마을』이라 칭한다.

이 마을의 마지막 서당 훈장은 신현주였다. 자기 집 옷방에 학동들을 모아 초학을 가르쳤으며 박근성, 신원철, 검상동의 정태봉 등이 수학하였다.

오동리에는 정기적으로 지내는 마을 고사가 없다. 동민들이 모두 올리는 고사는 기우제가 유일한데 이는 가뭄 때에만 지내는 고사이다. 오동리 기우제는 인근의 기우제와 유사하다. 부녀자들만 지내는데 물 까불기, 모래 까불기, 양푼과 농악 놀이 등이 끝나면 아낙네들이 모두 키와 대야 등에 금강 물을 떠서 머리에 이고 집으로 돌아와 부엌 바닥에 쏟는 것으로 끝낸다.

오동리에서 마을 축제처럼 행해진 민속은 정월대보름 걸립 풍장이 유일하다. 마을에 부

жат집부터 집집마다 방문하여 우물, 부엌, 장독, 마당에서 고사 풍장으로 복을 빌어 주고 술과 음식을 얻어먹고 주인이 내는 쌀이나 돈을 받아오는 풍장마당이다. 얻어진 재화는 마을 공동 경비와 불쌍한 사람을 돕는데 썼다. 농악인은 상쇠 신현상. 장구 신순만. 북 김현기, 징 이효진이 쳤다.

오동리의 두레는 논매기 공동 작업을 1년에 1회만 하는 『한물 두레』다. 마을 앞 들이 좁고 금강변 농토도 적어 마을 부자들이 강 건너 검상동과 옥성리에 논농사를 지어 두레꾼들이 타동 들에 많이 나가 일한 관계로 검상동과 두레 싸움을 많이 하였다. 농악은 약하지만 힘센 장사들이 많아 두레 싸움에서 밀리지 않았다. 농기는 농자천하지대본, 령기 2개, 논매는 소리 후렴은 『얼카덩어리 잘넘어간다.』이다

오동리의 사마산은 매우 높고 깊어 오동리 사람들은 물론 대성리, 옥성리, 검상동, 보흥리 등의 타 마을에서도 이 산에서 떨어감을 조달하느라 마을에 나무꾼들이 줄을 이었다. 특히 검상동은 사마산에서 나무를 해서 오동 나룻배에 싣고 강을 건너야 했기 때문에 검상동 사람들은 오동리 사람들에게 잘해야 했다. 들이 좁은 오동리에서 금강의 물고기를 많이 잡지 않은 것은 사마산의 장작과 숯을 강경나루로 팔 수 있었기 때문이라 한다. 마을 뒤 명검봉에서 숯을 구웠으며 일제강점기까지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나무장사를 했다.

## 금강과 사람들

오동리는 홍수에 매우 취약한 마을이었다. 현재는 강변도로가 개설되어 홍수 피해를 보지 않지만 1990년대까지 홍수에 매우 취약했다. 병술년 홍수에는 10여 채의 가옥이 물에 잠기고 현재 경로당까지 강물이 들어왔다. 사람이 지붕에 올라가 있는데 집이 떠나려가기도 하고, 아내가 물에 휩쓸리는데 남편이 혼자 피했다하여 끝내 이혼을 한 가정도 있었다.

금강변의 마을답게 마을 앞에는 머그름 나루가 있었다. 이 나루의 맞은편은 공주 검상동이었었는데 검상동에서는 이 나루를 검상동 나루라 불렀다. 머그름 나루는 읍내와 가까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나룻배로 강을 건너 학교를 통학했으며 마을에서 생산되는 장작과 숯을 실은 배가 강경나루로 오갔기 때문에 다른 나루보다 배의 출입이 잦았던 나루다. 나룻배는 마을 소유로 여름 보리와 가을 벼를 형편에 따라 도지로 내고 1년 내내 무료로 타던 배였다.

오동리의 물고기 잡이는 수수걸이, 투망, 통발, 손 그물질, 가리질 등 한정적이었다. 가을 참게는 수수걸이로 잡았다. 이 마을에서 물고기를 잡아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은 참게가 유일했다. 통발은 재미로 잡아 마을 사람들끼리 나누어 먹는 정도였다.

오동리에서는 잡힌 고기는 참게, 변대, 칠어, 잉어, 메기, 가물치, 송어, 동서, 장어, 붕어, 새우, 모래무지, 갈가리, 미꾸리, 동자개, 쏘가리 등이었다.

오동리에는 수수걸이 참게 어료용 배 5척, 농선을 겸하는 아주 큰 나룻배가 마을 소유로 1척, 뉘시배가 1척 있었으며 강경 나루로 오가는 장작나무 배는 이인면 운암리의 배가 이 마을을 오갔다.

●  
민속 예술의 마을  
대학리



**김정식** (1949년생)  
공주시 탄천면 합천1길



**임재진** (1941년생)  
공주시 탄천면 오두재길

### 생애와 가족관계

탄천면 대학리는 공주에서 유명한 민속 마을이다. 풍부한 민속과 뛰어난 민속 예술인이 살았던 마을이다. 김정식은 대학리의 마을 고사를 비롯한 민속 분야의 전문가로, 임재진은 공주에서 전설적인 인물로 평가 받았던 해적쟁이 임성수의 양아들로 살아왔다. 해적쟁이란 해금을 켜면서 노래와 재담으로 공연하는 예술인을 이른다.

김정식은 1947년 10월 마을의 두 섬지기 부자였던 아버지 김영인과 어머니 임초희의 장남

으로 태어났다. 김정식의 가문은 이 마을에서만 15대를 내린 토속 양반이었고 어머니는 우성면에서 양반으로 이름 높았던 풍천 임씨 집안이었다. 부모 모두 가문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 자녀 훈육에 엄격하였다. 그중에서도 아버지는 너무 엄하여 어린 시절 김정식은 언제나 아버지가 무서웠다 한다.

임재진은 1941년 5월 공주시 장기면(현재의 세종시 장군면) 제천리에서 출생하였다. 1950년에 한국전쟁 시 이 마을로 양자 입적을 하였다. 전쟁에 아들을 잃을 것을 두려워 한 아버지가 피난을 겸하여 양아버지 임성수의 집에 양자로 보낸 것이다. 양아버지 임성수는 뛰어난 예술인이었다. 당시로는 아주 드문 악기였던 해금을 켜면서 노래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공연을 혼자 할 수 있었다. “한번 나가 공연을 하면 동전 전대를 두둑이 가지고 돌아와 살림에 보태는 사람”으로 타동에서는 “깡깡이 하나로 대학리 들판을 모두 샀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다. 그러나 임재진이 양자로 입적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양아버지는 병환을 얻었다. 마음이 곱고 언제나 교회를 성실히 다닌 양어머니가 지극정성으로 병구완을 하였으나 끝내 병마를 털어내지 못했고 살림마저 궁해져 수수대로 엮은 초라한 집에서 살다가 사망하였다.

1890년생이었던 임성수는 수염이 긴 수려한 풍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사람이 해금을 들고 상여 소리를 하면 모여 앉은 사람들이 모두 울었다 한다. “먼저 울려 놓고 나중에 춤추게 한다.”는 칭찬을 들었으나 자손을 두지 못했고 가난 속에 사망하는 기구한 삶을 살았던 것이다.

### 마을의 역사와 문화

대학리는 영광 김씨 문종이 500여 년 전에 터를 잡은 마을이다. 조선 초 어모장군<sup>1)</sup>, 청도군수를 지낸 김규형이 낙향할 때 임금에게 땅을 하사받아 이 마을에 들어와 터를 잡았다. 지금도 15세대가 이 마을에 살고 있다.

이후 은진 송씨가 들어와 14대, 광주 정씨가 13대를 내리는 등 씨족 뿌리가 깊은 마을이다.

1) 임금을 모시던 장군이라는 의미로 사용함

이 마을의 마지막 훈장은 임재순이었다. 임훈장은 천자문, 동몽선습, 명심보감을 초학으로 가르치고 통감과 사서삼경을 강독하였다. 많을 때는 부여 청양 등에서도 찾아와 학동이 40여명에 이르기도 하였다. 이 마을에서는 송흥순, 정집중, 유대중, 박상근, 유화중, 임재두, 한중훈 등이 수학하였다. 이 경향으로 이 마을에서는 각종의 공직자를 많이 배출하였다.

서당 터는 강산에 있으며 훈장의 안채를 사용하다 학동이 넘쳐 남의 집 사랑채를 얻어 사용하였으며 책다름을 『책시세』라 하였는데 닭 한 마리와 떡 한 동구리를 냈다.

정월대보름에는 대학리 3개 마을 중 2개 마을이 모여 올리는 신대 장승제는 돌 장승을 모신 장승백이에서 올린다. 1970년대까지는 걸립 풍장으로 돈을 모아 고사를 올렸으나 지금은 마을의 공동자금으로 올리며 유교식이다. 부정이 들어도 무당을 부르지 않았다.

가뭄이 들면 금강에서 기우제를 올렸다. 다른 금강변의 마을과 달리 대학리 기우제는 여인들이 지내면서도 술을 올린다. 술잔을 받는 주체는 금강변에 떠도는 잡신이다. 그러기에 한잔 술을 올리고 절을 하고 나면 무나물, 시레기, 밥과 삼색 과일로 고수례를 하였다. 그 후 키로 물까불기, 여인네들의 물싸움 등을 행하는 기우제였다.

신대는 공주시에서 가장 먼저 여성 농악단이 활동한 마을이다. 1980년대 대학리 부녀회가 주도하여 농악단을 구성하여 농악을 즐겼는데 이는 여자들은 농악을 금했던 공주의 정서로 보아 매우 특이한 것이다. 잡색으로 남장 여인을 세운 것도 이채롭다.

대학 두레의 가장 큰 어려움은 홍수였다. 모내기를 한 후에도 홍수가 나면 모든 논에 벼가 죽어 두레를 중도에 폐해야 했다. 이로 인하여 두레 공동작업은 모내기와 논매기 3회를 모두 행하는 4물 두레다. 이 마을의 마지막 좌상은 송흥순이며 공원은 송석구였고 두레 모내기, 논매기 소리의 선소리꾼을 겸하였다. 신대 두레는 70호에 이르는 큰 두레였지만 금강의 제방이 막히기 전에는 홍수로 필농하는 사례가 많아서 두레 공동작업에 빠져도 벌금(겘)을 받지 않았다.

## 금강과 사람들

대학리 남단, 현재의 대학 1리와 2리 경계지점에 반여울 나루가 있었다. 반여울 나루의 맞은편인 청양군 목면 화야리는 청양 사람들이 공주시 계룡면이나 논산을 오가는 길목이었고, 대학 사람들은 정산장을 오가는 길목이었다. 또한 금강에서 공주와 강경나루를 오가는



배들이 쉬어가거나 물상을 푸는 나루이기도 했다.

반여울 나루는 공주의 남단에서 가장 큰 나루였다. 나루 위, 산 밑에는 4채의 주막이 있었고 한국전쟁 전에는 2명의 여인이, 후에는 다수의 여인들이 술시중을 들기도 하였다. 뱃길과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주막이 노름꾼들의 노름장이 될 정도로 큰 나루였다. 나루터의 주인은 박대규 등이며 언제나 돼지 다리가 걸려있었다 한다.

대학리 앞 금강은 강의 폭이 넓고, 금강 하구둑이 막히기 전 바닷물의 수위에 영향이 적었던 곳이다. 한국전쟁 때 이곳에서 북한군은 남쪽으로 도강을 하였고 남한군은 북쪽으로 진격하기 위해 도강을 하였다. 북한군은 마을의 남쪽으로 남한군은 마을 앞으로 건넜는데 그 수가 6만 명에 이르렀다고 마을 사람들은 회자한다. 특히 남한군이 북진할 때 퇴각하는 북한군도 이곳에서 도강하였다. 늦게 올라온 북한군 15명이 강 앞에서 고립되었다가 도망을 하였지만 모두 사살되었던 아픔의 현장이다.

마을 사람들은 금강에 사는 도깨비가 물고기를 좋아하여 도둑질해간다고 믿었다. 이에 강살을 매는 등으로 많은 고기를 잡으면 고기를 가두어 놓은 고기 함정 앞에 거울을 세워 두었다. 도깨비가 어리석어 거울속의 자기 모습을 다른 도깨비로 알고 밤새 싸우느라 고기 도둑질을 하지 못한다고 믿었다.

●  
**토정 이지함이 칭찬한  
 길지 견동리**



**이 상 구** (1950년생)  
 공주시 탄천면 삼각리



**김 성 옥** (1950년생)  
 공주시 이인면 운암리

### 생애와 가족관계

김성옥은 1950년 이웃 마을인 이인면 운암리에서 아버지 김철형과 어머니 김종희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성장하였고 20세되던 1971년 견동리로 이주하여 지금까지 살았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객지로 나갈 생각은 하지 못했다. 다소 늦은 30세에 이인면 이인리의 김광희와 혼인하여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다.

이상구는 견동리에서 출생하였다. 마을에서 중농이었던 아버지 이성록과 어머니 송용분

이 40넘어 얻은 아들로 태어나 귀염을 받고 성장하였다. 28세에 공주시 장기면 (현재 세종시 장군면)에 지방 공무원으로 나가 살았지만 13년 만에 공무원을 포기하고 마을로 돌아와 농사를 지었다. 아버지가 연로하여 병환에 든 것이 이유였다. 27세에 탄천면 내에 살던 박점식과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고 2남 1녀를 두었다.

견동리의 고령 남자는 70대다. 언제부턴가 이 마을에는 남자들이 단명 한다는 말이 돌았고 실제로 마을에 80고령이 한 명도 없는 마을이 되었다. 이상구와 김성옥은 이를 규명하기 위해 평생을 노력했고, 아직도 이 숙제를 풀지 못한 것을 매우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과 마을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문제와 방법을 찾았다. 일제강점기 일제가 지역에 혈을 끊기 위해 쇠말뚝을 박았다는 설을 확인하려 마을 주변의 산을 모두 살펴보고 마을 우물물의 수질 검사를 매년 실시하는 노력을 쏟았으나 시원한 답을 찾지 못하였다.

다행히 74세의 이상구나 71세의 김성옥은 건강하다. 마을의 모든 남자들은 좋은 마을이 되기 위한 최고 시급한 과제로 마을을 장수촌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마을의 역사와 문화

견동리는 함양 박씨가 내두 서원에 봉향된 견산 선생의 후예로 볼피(견동리 남단 중심 마을)에 살았고 남씨와 연안 이씨가 터를 잡았다. 이들은 250여 년 전부터 살아왔으나 모두 떠났으며 현재는 나주 김씨, 경주 정씨, 경주 김씨, 전주 이씨 등이 살고 있다. 우성면 용봉리 삼마산 아래 살던 전주 이씨는 이 마을에 입향하여 7대를 이어오고 있다.

이 마을에는 조재원이 서당을 열어 운영하였다. 1902년경 출생자인 조 훈장은 1970년경까지 서당을 운영하였는데 천자문 동몽선습 명심보감을 초학으로 가르치고 통감과 사서삼경을 강독하였다. 정영달, 김장환, 김영환, 이경호 등의 학동 10여 명이 수학하였다.

이 마을에는 조선조 1500년대를 살았던 토정 이지함 선생이 이 마을에 방문하여 생활한 이야기가 전한다. 이 마을에 강릉 김씨 문중 사람으로 선조 조 기무사 군자감 군기감을 지낸 김훈희의 묘가 있는데 이를 토정이 잡았다 한다. 토정은 이 마을의 지세가 노룡심수(老龍尋水) 즉 늙은 용이 물을 찾은 형세의 지형으로 노인들이 평안히 사는 명당이라 하였다고 한다. 이러했던 마을이 일제 강점기 이후 남자들이 단명 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 이유로 일제가 십리산에 흐르는 명기를 막기 위해 쇠말뚝을 박았기 때문이라 여겨 쇠말뚝을 찾으려 노

력하였지만 찾지 못했고, 예비군의 참호 등 산에 박힌 모든 쇠는 뽑아내는 작업을 하였다.

견동리 마을 중심에는 수령 400년의 은행나무가 있다. 도 지정 보호수인 이 나무에는 마을의 아낙들이 많은 고사를 올렸다. 특히 김순시의 부인은 이 나무를 지극정성으로 위하였으며 그의 아들 김동만의 부인은 타지로 이사를 한 후에도 매년 수시로 찾아와 고사를 올리고 있다.

볼피(見山) 북쪽 수장산 중턱에는 미암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절 뒤 바위에 쌀 바위 전설이 전한다. 바위틈 작은 굴이 있어서 승려들이 먹을 쌀이 나왔는데 손님이 와 더 많은 쌀이 필요한 승려가 부지깽이로 굴을 쭈시자 피가 흐르고는 다시 나오지 않아 승려들이 떠나고 절이 망했다고 한다.

견동리의 기우제는 특이하다. 다른 마을과 달리 남자들이 기우제를 지내는데 면을 대표하는 기우제라 하여 면내 유지들을 초청하여 유교식 고사를 올렸다. 기우제는 강 건너 청양의 금강변에 있는 『용 바위』를 바라보는 장소에 상을 차리고 밤에 지냈다. 축관이 축을 읽는 등 전통적인 유교식 고사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공주시 다른 마을에서는 볼 수 없는 기우제다.

견동 두레는 행정리 하나에 1개의 두레만 활동한 두레다. 논매기 공동작업은 1회만하는 한물 두레며, 농기 1개에 영기 2개를 사용하였다. 마지막 좌상은 김복환, 공원은 김의제였다. 여름 두레를 먹는 날은 좌상을 소에 태워 행진하였고 돼지 한 마리를 잡는 큰 두레였다. 두레 영농 규모는 800마지기였으나 홍수가 지면 절반으로 줄었다. 여름 두레 때 먹는 장소는 놀피 남단 강변의 『쌍거름』으로 불린 십자 거리다.

## 금강과 사람들

견동리에는 4개의 나루가 있었다. 강을 가로지르거나 강경, 공주로 가는 배는 대학리와 함께 반여울 나루를 사용하였다. 5일장이 섰던 청양군 저성리를 오가는 나루는 창강나루였고, 마을에서 운영하는 나룻배로 청양 천내리를 오가던 나루는 닥반나루였다. 이 밖에도 작은 배를 이용하여 마을 앞까지 오가는 작은 나루는 벼락을 맞아 속이 붉게 타고도 살아 남았다는 느티나무 정자 아래, 현재의 경지정리가 된 논외 북단에 『안 나루』라 불린 나루가 있었다.

견동리 사람들 중에는 1950년대까지 참나무, 소나무 장작과 솔가지 나무 다발을 배에 싣고 나가 팔아서 소금, 간수, 새우젓, 조기 등의 생선을 사가지고 돌아와 나무 값을 정산하는 나무장사들이 있었다. 마을 남단 부여 옛바위까지 바닷물의 조수 간만의 영향이 있어 조류를 타면 강경 나루에 쉽게 오갈 수 있었다. 그래서 공주보다 강경 나루를 많이 이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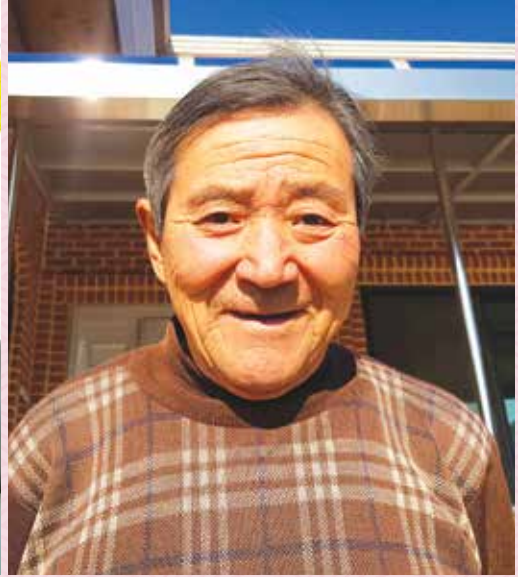
이 마을은 참게를 잡는 수수걸이와 강의 지천에 설치하는 게막, 그리고 메기 둥병의 메기 잡이가 성행하였다. 강변에 있음에도 물고기는 잡지 않았다. 메기 둥병은 1960년대 이후 발동기를 들여 물을 품어 잡기도 하였다. 특이한 고기잡이는 강의 지천에 놓았던 게막으로, 게막 앞에 하얀색의 사금파리를 깔아 게가 잘 보이게 하고 밤에 잡았다. 운곡리 홍성골에 가서 송사리를 잡아 유희성으로 강 낚시질을 즐긴 사람의 이야기 정도만 있을 뿐 마을에서 본격적으로 물고기를 잡았다는 이야기는 없다.

견동리에는 1965년경부터 1975년까지 금강을 오가던 동력선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통통배』라 불렀는데 이 배는 견동 사람이 아닌 이인면 운암리의 이창구와 박승제가 선주였다. 강경 나루와 공주장을 운항하였으며, 운암 나루인 늦점 나루가 본거지였다. 이 배들이 들어오는 날은 마을 앞 나루에 우마차들이 줄을 서 기다렸다. 가뭄에 강물이 줄어 배가 강바닥에 닿으면 장정들이 배를 밀어주고, 배를 밀어주면 선주는 막걸리를 사 주었다 한다.

●  
구석기의 마을  
석장리



**박흥래** (1934년생)  
공주시 석장리동



**김희환** (1940년생)  
공주시 석장리길

### 생애와 가족관계

박흥래는 1934년 이마을에서 6마지기의 적은 토지에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아버지 박영태와 어머니 전분심의 4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한 번도 분가나 객지를 꿈꾸지 못하고 마을에서만 살아온 토박이다. 아버지는 키가 크고 기운이 센 장사이면서 수염이 보기 좋은 미남으로 평생 칭송을 받으며 100세 장수를 누리셨다. 박흥래는 27세에 대전 송강동의 김복순과 혼인하여 2남2녀를 두어 가정을 이루었

고 마을 이장을 4년 역임하였다. 석장리 구석기 유적 발굴 현장에서 오래 일하였다.

김희환은 1940년 9월 105세까지 장수하였던 아버지 김동록과 어머니 장만옥의 3남3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논8마지기 밭 1천여 평의 중농이었다. 어머니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결혼을 서두르게 되어 22세의 어린 나이에 이인면 초봉리의 유희대와 혼인하여 슬하 여 1남 5녀를 두었다.

김희환은 구석기 유적발굴에 작업장의 인부로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발굴 현장에서 일한사람이다. 성격이 원만하고 작업 과정을 기록하는 버릇이 있어서 손보기 교수가 젊어서 부터 중요한 일을 시켰다. 그는 손보기 교수 사망 후에도 구석기 유적 발굴단에서 활약하며 전국을 돌아 다녔다. 덕분에 재산을 일구고 자손을 잘 가르칠 수 있었다 한다.

### 마을의 역사와 문화

석장리동은 우리 나라 최초의 구석기 유적이 발견되어 역사를 새롭게 쓰게 한 마을이다. 초중고 대학교의 모든 교과서에 실려 유명한 마을이 되었으나 정작 공주시에는 석장리가 없었다. 일제가 1919년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장암리로 이름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석장리라는 지명을 복원하여 교과서의 기록과 일치시키고자 다시 옛 이름을 회복하였다. 다만 행정 체계에 따라 공주시에 편입된 ‘동’이다보니 석장리동으로 불린다.

석장리동 주민들의 생활은 구석기 유적 발굴과 함께 크게 바뀌었다. 박흥래와 김희환 역시 그랬다. 강변 마을로 들어 좁아 땅이 부족하여 타동까지 나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구석기 유적 발굴 현장에서 작업 인부로 일하면서 농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소득이 발생하였다. 석장리 유적을 발굴한 손보기 교수는 청년기였던 김희환, 박흥래 등의 마을 젊은이들에게 유적 발굴 작업을 지도하면서 외지 인부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덕분에 유적 발굴의 경험이 쌓인 마을의 젊은이들은 전국의 구석기 유적 발굴 현장에 초대되어 작업하는 고급 인부가 되었다. 그 덕에 마을은 가난에서 벗어났다.

석장리동은 밀양 박씨가 19대를 살아온 마을이다. 이는 5백년 이상의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이후 경주 김씨가 입향하여 현재까지 15대를 이어 살아 왔으며 정선 정씨는 9대를 이어 왔다. 이들 성씨는 지금도 마을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 마을은 일제 강점기 때에 김진웅이 서당을 열었다. 초학으로 계몽편, 천자문, 명심보감

을 강하였다. 덕과 학식이 높아 마을 사람들의 추앙을 받았으며 마을 고사에도 참여하여 유사 선정 등의 일을 행하였다.

거리제는 생이와 석장 사이, 생이 쪽에서 보면 남쪽 마을입구에 있는 느티나무 정자 아래서 정월대보름에 올렸다. 정초에 유사를 뽑고 동계장이 계주를 맡았으며 축관은 고정하여 김진웅이 맡았다. 정초 걸립 풍장은 평범하며 유교식으로 고사를 지낸 후 대두 소지를 올렸다.

석장리의 기우제는 생이와 석장이 각각 올렸으며 아녀자들만의 고사였으나 남자들의 참여를 막지 않았다. 날이 잡히면 서되 서흡의 작은 시루떡을 하며 삼색 과일과 무나물 등의 나물을 준비하였다. 여인들이 풍장을 치고 키, 수수빋자루, 대야 등을 들고 농악과 함께 두드리며 금강변으로 나가 기우제를 올린다. 여인들이 키로 물을 까붙고, 수수빋자루로 물을 허공으로 뿌리며 물싸움을 하는 행위는 다른 마을과 같다. 석장리 기우제가 다른 마을과 다른 점은 그 후다. 참여한 사람들이 고사 음식을 진설하고 동서남북으로 각각 큰 절을 올린 뒤 『시파세-』하고 세 번을 외친 후 팔을 뿌렸다. 이를 끝낸 후 여인들이 강물을 떠서 머리에 이고, 마을 뒷산으로 올라가 산에 물을 뿌리며 남녀가 같이 『비온다.』하고 소리를 질렀다. 나갈 때와 같이 농악과 손에 든 물건을 두드리며 돌아와 뒷풀이로 한바탕 놀았다.

가정에서 올리는 금강의 안택 고사로는 유왕제가 있었다. 집안 사정 꺾, 과일과 돈 등을 마련하여 강변에 나가 생이와 건너 참새골의 바위 아래에서 올렸다. 네 집은 매년 시행하였다.

석장의 푸닥거리 방법은 썩은 벼짚을 태워 연기를 썩게 하고 소금을 뿌리고 빗자루로 몸을 쓸면서 『중도 고기 먹나?』를 외치는 것이었다.

부모나 형제의 상을 당하면 서로 도울 목적으로 만든 연반계가 있었다. 이 계에 장례가 발생하면 매년 대주 33통의 막걸리를 지급하였다. 이로 인해 석장리에서 초상이 나면 술이 넘친다 하여 ‘술계’라 일렀다.

석장리에는 생이와 석장, 두 두레가 있었다. 농기는 농자천하지대본 기였고 두 개의 영기를 썼으며 봄 두레는 단오 전에 먹었고 여름두레는 칠석날 두 두레가 함께 먹었다. 생이 두레의 농악은 상쇠 김동록, 북 김순남, 장구 김동률, 징 김진우가 쳤으며 석장두레는 상쇠 김문한, 북 전재순, 장구 박돌산, 징 김광한이 쳤다. 논이 적고 장정이 많아 모내기와 논매기 3



회를 모두 두레가 주관하였다. 이는 장정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다. 불참해도 벌전(罰錢)은 없다.

### 금강과 사람들

석장리에는 공주시에서 가장 늦게까지 나룻배가 운행한 석장나루가 있었다. 석장 나루의 배터 행길(현재의 석장리 박물관 진입 도로 다리 옆)에 사공 김익환이 거주하면서 나룻배를 운행하였다. 그는 길이 30m에 이르는 큰 배와 10m 정도의 작은 배 한척씩을 소유하고 있었다. 김익환의 아버지 시절에는 큰 배에 돛을 달아 강의 상류와 하류를 오가면서 장작, 소금, 젓갈이나 생선, 곡식을 운반하였고 작은 배는 강을 건너는 나룻배로 사용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나룻배를 무료로 사용하고 배삯은 ‘사공조’라 하여 보리 수확기에 보리 한말, 벼 수확기에 벼 두말을 냈다.

석장리는 끝이 그물로 고기를 잡아 파는 것을 주업으로 삼은 단체 어업이 기업적으로 이루어졌다. 어선 1척으로 7명의 젊은이들이 모여 고기를 잡아 공주장에 내다 팔았다. 선주는 김순환이었고 석장리, 금암리, 외암리에 사는 장정 6명이 참여하였는데 1970년대 겨울에 어로작업을 나갔다가 배가 침몰하여 모든 종사자가 죽었다.

석장리 사람들은 수수걸이로 게를 잡았는데 게막(게발)은 금강에 치지 못하고 왕촌천에 쳐서 게를 잡았다. 마을 앞 금강변에 백사장이 넓어 강중사 외에도 마을 장정들이 끝이 그물질을 하였으며, 얽힘 그물인 명지그물, 투망 등 그물을 이용하여 잡는 물고기 잡이가 성행하였다. 마을 앞 생이에서 내려 오는 작은 천에는 민물장어, 메기, 모래무지 등 물고기가 많아서 내를 막고 품어 물고기를 잡아 천렵도 즐기고 반찬으로 지저 먹는 일이 많았다.

금강의 백사장에는 부전조개, 말조개, 함박조개, 갈조개, 조끼 조개 등 금강 변 마을 중 가장 많은 종류의 조개가 잡혔다.

●  
금강 무역선(사업배)의 마을  
운암리



**오 세 봉** (1947년생)  
공주시 이인면 운암리



**김 영 재** (1958년생)  
공주시 이인면 늦점2길

### 생애와 가족관계

오세봉과 김영재는 운암리에서 배종사의 노동이나 옹기 운반 등의 일을 하며 청소년기를 보냈다.

오세봉은 1947년 7월 해주 오씨 집안으로 78마지기의 큰 농사를 짓는 아버지 오진환과 어머니 김남영 사이에 5남 2녀 중 장남이자 둘째로 태어났다. 대농의 집안이라서 머슴을 두고 살았으나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에 매여 평생 마을을 지키고 살아왔다. 29

세에 이인면 운암리의 이무순과 혼인하여 2남 1녀를 두었다.

김영재 역시 이 마을 태생이다. 1958년 9월에 15마지기 논과 600평의 밭농사를 지으며 살아 온 아버지 김원태와 어머니 정정임의 7남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마을의 유지로 오랫동안 마을 이장을 보았던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여 이장 회의가 있는 날이면 언제나 술에 취해 오곤 하였다. 26세에 강원도 강릉의 장귀순과 혼인하여 아들 형제를 두었다.

### 마을의 역사와 문화

운암리는 공주, 청양, 부여, 일원의 금강에서 배로 물건을 나르는 ‘사업선’이 가장 늦게까지 활동한 배의 마을이다. 이는 1900년경에 출생한 이창구의 영향이었다. 그는 배 사업을 위해 금강변에 집과 주막을 짓고 사업선을 운항하였다. 일제 강점기에는 벼 300가마를 싣고 다니는 큰 배를 운항하였고 1950년대부터 발동기에 동력을 달아 『통통배』로 불린 사업선을 1977년까지 운항하였다. 공주의 곰나루부터 군산이나 강경을 오가면서 화물을 운반하여 샅을 받기도 하고 스스로 물건을 매입하여 공주장이나 탄천장에 파는 상업을 행하기도 하였다.

공주시의 남쪽, 마을 뒤로 금강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강변 마을인 운암리에는 조선조에는 낚섬, 일제강점기에는 용기를 생산했다. 이런 이유로 이 마을의 나루 이름이 『낚섬 나루』였다. 마을 안에는 주막이 6개나 있었다.

이 마을은 해주 오씨가 16대를 살아온 마을이다. 경상도에서 이주해온 해주 오씨는 현재 4호가 살고 있다. 이후 전주 이씨가 10대를 살아왔으며 현재 2호가 살고, 김해 김씨는 7대를 살아왔고 1호가 살고 있다.

이 마을에는 성명미상의 훈장이 1969년까지 서당을 운영하였다. 마을에서는 ‘할아버지 훈장’으로 불렸는데 지금의 정정순의 주택 사랑채에서 학동을 모아 가르쳤다. 성격이 차분하고 학문이 깊었으며 마을 대소사에 택일을 해주고 남을 도와 신망이 높았다. 초학으로 천자문, 계몽편, 동몽선습을, 중학으로 통감과 소학을 가르쳤으며 오래 공부한 4-5명에게는 맹자를 가르쳤다.

운암리 사람들은 생금강의 낚섬나루에서 강 건너 용바위를 바라보며 기우제를 올렸다. 아녀자들만의 고사였으나 남자들의 참여를 막지는 않았다. 떡을 하지 않고 과일도 사지 않

으며 막걸리와 나물 안주만 준비한다. 여인들이 풍장을 치고 키, 수수빫자루, 대야 등을 들고 농악과 함께 두드리며 금강변으로 나가 기우제를 올린다. 여인들이 키로 물을 까붙고, 수수빫자루로 물을 허공으로 뿌리며 물싸움을 한 후 술을 놓고 기우제를 지낸 뒤 풍장을 치며 돌아왔다.

이 마을에는 운암, 배차골의 동네 샘과 향나무 샘 등 3개의 우물이 있었다. 이들 샘은 1년에 4-5차례 우물 청소를 하였고 음력 7월 칠석과 백중 사이에 날을 정하여 샘을 품고 간단한 풍장고사를 지냈다.

운암은 제방이 막히기 전에 논이 100여 마지기뿐인 작은 두레 마을이었다. 동네 부자들이 타동에 가서 농사를 짓기도 하였으나 큰 부자는 많지 않았다. 농기는 농자천하지대본 기였고 두 개의 영기를 썼다. 봄 두레는 단오 전에 부자들이 먹매를 대서 먹었다. 신입 두레꾼 선정, 모내기 날짜 잡기, 품삯 결정 등을 한다. 이 마을의 꿩배는 16-17로 다른 마을보다 조금 빠르며 빈부를 따지지 않고 막걸리 1통을 냈다. 여름 두레는 마을 앞 정자나무 아래서 먹었으며 두레쌀 나누기와 농기 고사를 지냈다. 운암 두레의 농악은 상쇠 정운환 (1932년 생), 부쇠 성명미상 1인, 장구 오일환 (1938년 생), 북 조택일 (1938년 생), 징 이봉호(1935년 생)가 쳤다. 논이 적고 장정이 많아 모내기과 논매기 3회를 모두 두레가 주관하고 먹매두레에 불참해도 벌전(罰錢)은 없다.

## 금강과 사람들

운암리에는 늦점나루가 있었다. 마을 지명으로 현재 이 마을의 본동인 운암이 늦점으로 불렸으나 늦점에 대한 흔적은 없다. 금강 최고의 배 종사자 이창구가 상선을 운행하였다. 늦점 나루는 강을 마주 오가는 나루터와 공주장과 강경, 군산을 오가는 배가 서던 나루터 2개가 있었다. 마주오가는 나룻배의 사공은 장재순으로 1932년경 출생자였다. 사공조는 보리와 벼 각 2말이었고 자주 이용하는 사람은 조금씩 더 냈다.

공주 최고의 배 종사자<sup>1)</sup>는 1900년경 출생한 운암리 이창구다. 그의 아버지 대부터 큰 배를 운영하여 공주장부터 군산까지 상선을 운행하였다. 한 번에 벼 3백가마를 실을 수 있는

1) 배를 소유하고 영업하는 사람을 이르는 공주말

큰 배 2척을 소유했다. 각 마을의 나무를 오가며 장작, 곡식 등을 싣고 강경이나 군산장에 나가고 올라 올 때는 소금, 새우젓과 생선 등을 사다 팔았다. 공주에서 걸어 들인 세곡을 운반하기도 하였고 일제 강점기에는 안량미, 콩, 팻묵 등 배급 물품을 실어 날라 돈을 벌었다. 해방 후 소명동의 박승재에 도움을 받아 자신의 배를 동력선으로 바꾸었는데 이를 통통배라 불렀다. 1977년까지 장집을 나르는 배를 운항하였으나 이용하는 사람이 줄어 중단하였다. 공주의 마지막 상선이었다.

운암리에는 농사를 짓지 않고 고기만 잡는 전업 어부가 없었다. 수수겉이나 강발도 치지 않았다. 마을 주민이었던 오국환은 물고기를 잡는 솜씨가 아주 좋았지만 잡은 물고기를 나누어 먹었을 뿐 팔지는 않았다. 이 마을의 고기잡이는 그물이 주를 이룬다. 추망, 대그물, 얽힘 그물을 사용하여 고기를 잡아도 물고기가 풍성하여 다양한 어종을 많이 잡을 수 있었다. 이런 연유에서 운암리는 천렵이 성행하였다. 강변 ‘모이 마당’은 장소가 넓고 경치가 좋았다. 미꾸리 꼬리만 있어도 찾아가는 ‘어디미골’과 빈대가 하도 많아 종이 떠났다는 ‘절터’는 샘물이 좋아서 즐겨 찾는 천렵터였다.

이 마을에서 많이 잡은 물고기는 잉어, 모래부지, 붕어, 메기, 누치, 피라미, 자라, 장어, 동자개, 칠어, 홍가리, 새우, 등이다. 이중 가물치, 잉어, 장어는 약재로 쓰고 잉어, 붕어, 모래무지는 회로 먹는 것을 즐겼다. 특히 운암리에는 새우가 많았다. 새우가 많이 잡혀 이름도 새우뚝병이었던 뚝병에서 작은 새우와 큰새우인 징계미가 많이 잡혀 새우를 말려 두었다가 겨울 반찬 재료로 사용하기도 했다. 부전조개, 말조개, 함박조개, 조끼조개 등이 잡혔다.

가을에는 뚝병이나 작은 계곡에 물을 품어 잡는 것이 성행하였고 겨울에는 잉어 잡이를 즐겨하였다.

●  
**선산 김씨의  
 씨족 마을 만수리**



**김 무 길** (1942년생)  
 공주시 이인면 상하만길



**김 임 재** (1937년생)  
 공주시 이인면 상하만길

### 생애와 가족관계

김임재는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자신의 말로 풍을 맞아 걷는 것도 불편하게 걷고 말도 어눌하다. 그런데 마을의 이장과 협의하였을 때 “마을 역사는 그분 아니면 안된다.”하여 채록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김임재의 채록은 만수리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자료였다. 마을 유지로 여러 일을 하였고 기억력이 좋아서 전에 살던 사람들의 이름과 있었던 일을 풍부하게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김무길은 이 마을 토속 성씨인 선산 김씨 가문의 아버지 김일석과 어머니 한정자의 3남 중 둘째로 태어났다. 차남이면서도 부모를 모셔야 할 형편이라서 부모를 모시고 평생 살았다. 20대에 유형문화재 중 건축물 보수에 필요한 토역(土役)을 배워 40년 동안 이 일에 종사했지만 한 번도 고향을 떠나지 않은 토박이다. 33세에 부여 송곡의 김기순과 혼인하여 2남 1녀를 두었다.

김임재 역시 선산 김씨 가문의 사람이다. 선산김씨 집안의 아버지 김지양과 어머니 이창녀의 5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그는 오랫동안 종중의 책임자였고 마을 이장을 역임하였다.

26세에 임내자와 혼인하여 3남 1녀를 두었다.

### 마을의 역사와 문화

만수리는 선산 김씨의 집성촌이었다. 선산 김씨가 입향하여 14대를 이어 왔으며 지금도 다수가 살고 있다. 마을에 선산 김문의 사당이 있어서 매년 춘, 추에 제향을 올린다. 만수리에 중요 성씨로는 연안 이씨가 있다.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89호 연평군(延平君) 이귀(李貴)의 신도비가 있는 마을이다. 1557년 출생하여 1633년에 사망하였으며 임진왜란에 활약하고 광해군의 퇴출에 공을 쌓은 인물이다.

마을의 서당은 김지준(金志準) 훈장이 운영하였다. 그의 아버지부터 서당을 열었으며 대를 이은 훈장으로 회자되었다. 1920년경 출생자인 김 훈장은 초학으로 천자, 계몽편 등을, 중학으로 통감을, 대학으로 논어, 대학, 맹자를 가르쳤다. 본인의 집 사랑채에 서당을 열어 김 윤재, 김호경, 김호선, 김임재 등이 수학하였으며 언제나 15명 이상의 학동이 공부하였다. 1970년대 초까지 서당을 열어 이 마을에서는 공무원 선생을 많이 배출하였다.

가뭄이 들면 마을 앞 용성천의 모래밭에서 기우제를 올렸다. 다른 마을과 달리 남녀가 함께 올렸다. 여자들의 기우제는 여인들이 맞지 않는 풍장을 치고 키, 수수빚자루, 대야 등을 들고 두드리며, 키로 물을 까붙고, 수수빚자루로 물을 허공으로 뿌리며 물싸움을 한다. 여인들이 인륜에 반하는 행동을 해야 하늘이 놀라 비를 내려 준다는 의미였다.

남자들은 이와 별도로 물길을 따라 금강으로 나가 유교식으로 기우제를 올린다. 초한, 아현, 종현 후 축을 대신하여 말로 비를 축원하였다.

만수리의 가정 신앙으로는 금강 유왕치례가 있었다. 공주, 청양, 부여 일원의 금강변에서는 용왕이라 하지 않고 유왕이라 칭한다. 만수리의 일부 농가에서는 매년 정월 대보름에 금강에서 고사를 지냈다. 진설 음식은 가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시루떡과 나물류, 술 정도며 집안에 환자가 있으면 무당을 불러 별도의 비션을 행한다. 여러 집이 함께하면 유왕제라 하고 가정이하면 유왕 치례라 하였다.

만수리의 또 다른 가정 신앙으로 손거리 서낭치례가 있었다. 개인이 음력 10월이나 정월 대보름 전에 서낭에서 지내는 고사를 이른다. 동네 사람 중에 서낭 고사를 지내는 사람은 많지 않았으나 손거리 사람들은 매년 서낭을 모셨다. 손거리는 동네 머슴, 두레 머슴들이 살던 작은 마을로 그 사람들을 손거리라 부르기도 했다. 처음 유례는 정확히 전하지 않으나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짓고 모두 마을에서 쫓겨나야 했는데 나가지 않고 살면서 동네 머슴 처럼 살았다 한다. 해방 후 한 두 집이 떠나기 시작하여 1968년경에 모두 마을을 떠났다.

만수리의 두레는 홍수가 잦은 마을 특성상 함께 일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모내기부터 3회의 논매기를 모두 공동작업으로 시행한 4물 두레이다. 금강 제방이 막히기 전까지 이 마을은 홍수가 나면 마을 대부분의 모든 논이 피해를 보았다. 그러나 홍수를 두려워하여 논 농사를 포기 할 수는 없었다. 모내는 일의 양이 많은 공동작업이었고, 초벌, 두벌 논매기도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으로 하였다. 다만 홍수의 피해를 보지 않으면 넉넉하게 일감을 조정하여 여유롭고 흥겹게 공동작업을 하였다.

농기는 신농유업(神農遺業) 기었고 두 개의 영기를 썼으며 봄 두레는 단오 전에 먹었고 여름두레는 백중 전에 택일하여 마을 앞 공터에서 먹었다. 두레의 농약은 상쇠 김태식, 장구 김지중이 잘 쳤다. 김임재는 논매는 소리, 모내기 소리는 물론 상여 행상소리도 잘하였고 김흥준이 상여 행상 요령잡이로 활동하였다. 장정이 두레에 불참해도 벌전(罰錢)은 없다.

## 금강과 사람들

만수리에는 새나루가 있었다. 새나루는 만수리에서 오동리와 죽당리를 오가는 맞나루였다. 공주장이나 강경으로 오가는 배는 이웃 마을인 검상 나루를 이용하였다. 만수리에 거주하며 나룻배를 운영하였던 사공 김지동은 1950년대 초까지 공주장과 강경장에 장짐을 나르는 배를 운항하였으나 일찍 접고 맞은편으로 오가는 배만 운항했다.



이 마을에는 농사를 짓지 않고 물고기만 잡는 어부는 없었다. 게를 잡는 수수걸이를 하였고 게막은 용성천에 쳤으며 강밭은 매년 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이 뜻이 맞으면 치는 정도였다. 냇물이나 둠벙을 품는 물고기잡이가 성행하였고 물고기를 잡아 천렵을 하는 문화는 매우 강하였다. 나루와 물고기 잡이로 인하여 마을에 주막이 있었다. 마을 어귀 방앗간 옆에 있던 주막은 천렵철이면 늘 술이 부족했다고 회자된다.

게밭은 금강에 치지 못하고 왕촌천에 쳐서 게를 잡았다. 마을 앞 금강변에 백사장이 넓어 강종사 외에도 마을 장정들이 끝이 그물질을 하였으며, 얽힘 그물인 명지그물, 투망 등 그물을 이용하여 잡는 물고기 잡이가 성행하였다. 천렵에서는 쌀로 끓이는 어죽을 즐겨 먹었다.

이 마을에서 많이 잡은 물고기는 민물게, 잉어, 모래무지, 붕어, 메기, 누치, 피라미, 장어, 동자개, 칠어, 중태기, 새우, 보리 송어, 변대, 동서 등이다.

●  
공주 최고의  
민속예술 마을 검상동



**양 영 석** (1942년생)  
공주시 검상동



**조 영 일** (1951년생)  
공주시 윗나루길

### 생애와 가족관계

옛 지명이 검상리였던 검상동은 공주의 금강 남쪽 지역에서는 단연 최고로 민속예술이 성행했던 마을이다. 양영석과 조영일은 어려서부터 농악과 소리를 즐기며 성장하여 지금도 마을의 주요 예능을 보존하고 있는 인물들이다.

양영석은 1942년 5월에 아버지 양재용과 어머니 변원희의 2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전답이 많지 않았으나 일찍 배 농사를 시작하여 9백 평의 과수원을 운영하였다. 검상동

이 마음을 편하게 하여 군대 생활 외에는 객지 생활을 하지 않은 토박이다. 25세에 우성면 성머리의 이성자와 혼인하여 슬하에 한 아들을 두었다. 양영석은 농악에서는 장구를, 소리는 논매는 소리와 상여 짝소리를 잘한다.

조영일은 1951년 4월 금강 고수부지 밭 7천여 평을 농사지은 대농이었던 아버지 조갑성과 어머니 이갑술의 3남3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에 면서기의 잘못으로 동생을 대신하여 징용에 끌려갔다. 그 때 탕광에서 일하다가 흙더미에 치어 1년 동안 누워서 치료만 받다가 귀국하였지만 63세에 사망할 때까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조영일은 25세에 공주시 봉정동의 오상례와 혼인하여 1남 3녀를 두었다. 7천여 평의 배 농장을 운영하였으나 4대강 사업으로 금강변 전답이 국유화되면서 매각하였고 취미로 시작한 트롯트 밴드단의 리더이며 가수로 활동한다. 조영일도 농악의 상쇠와 상여 행상소리 논매는 소리 등을 배웠다.

### 마을의 역사와 문화

1920년대부터 1957년까지 검상동의 농악대는 충남 3대장으로 공주장의 장터 풍장을 장악하였다. 또한 검상동의 상여 행상소리는 충청남도 무형문화재를 받은 봉현리 상여소리보다 더 유명했다. 이렇게 민속 예술 마을로 이름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은 뛰어난 상쇠와 소리꾼 덕분이었다. 유장원은 일제강점기 공주 최고의 상쇠였다. “쇠(쟁가리)만 들면 세상이 내 것인 사람”으로 통했으며 당시 여러 고장의 상쇠들이 유장원을 찾아와 쇠파락을 배웠다. 오진영은 뛰어난 소리꾼이었다. 유장원에게 이어받아 마을 농악의 상쇠면서 논매는 소리, 상여 행상의 작소리, 노랫가락 창부타령 등의 모든 소리에 능하여 마을에서 문화재 소리를 들었던 인물이다. 장구잡이로 고봉택등 3부자가 이름을 떨쳤고 조정웅은 북을 잘쳐 ‘조북’으로 불렸으며 양팔만은 상모꾼이었다. 이들의 활약으로 검상동은 금강 이남 지역에서 가장 민속예술이 성행한 마을이 되었다.

검상동은 수원 백씨가 마을을 연 것으로 구전된다. 수원 백씨는 이 마을에서 8대를 이었으나 현재는 모두 떠났다. 이후 진주 강씨, 제주 고씨, 연안 이씨 등이 들어왔으며 연안 이씨는 현재 2호가 살고 있다. 마을에서 양반 가문으로 생활해 온 집안은 연안 이씨였으며 최근 까지 이 마을 최고 부자였다.

이 마을에는 서당이 없다가 사곡면 계실리에서 이주해온 조병렬이 자기 집 사랑채에 서당을 열어 1960년대 중반까지 운영하였다. 조병렬의 집안은 그의 조부 때부터 사곡에서 서당을 운영하고 선비로 이름이 있었던 집안이다. 초학으로 계몽편, 천자문, 명심보감을, 중학으로 소학과 통감을, 대학으로 맹자를 강하였다. 김기철, 장영배, 양창하, 양희석 등이 수학하였고 보통 15명 내외의 학동이 배웠다. 글솜으로 보리 한 가마와 벼 한 가마를 받았으나 가정이 어려운 사람이 많이 감하였다. 책 시세는 떡 한 동고리와 맑은 술이었는데 떡은 학동들이 먹고 술은 훈장에게 올렸다. 조훈장은 학식이 높아 마을 사람들의 추앙을 받았으며 지관, 택일도 잘하였다.

검상의 산신제는 연안 이씨 소유의 산에서 올렸다. 산신각은 없다. 산의 정상 부분 너른 공터가 있어서 그곳을 고사장으로 활용했다. 정월 열나흘 징소리를 시작으로 제관, 축관 유사가 앞장서고 지계에 제수를 진 장정과 마을 사람들이 행렬을 지어 산에 올라가 유교식 고사를 지냈다. 올라갈 때는 풍장을 치지 않으며, 고사 후 내려올 때부터 풍장을 올렸다. 마을의 다른 고사에서는 소지를 올리지 않고 산신제에서 대주소지를 올렸다. 제관들은 정월 초사흘부터 1일 1목욕을 하고 집 밖 출입을 하지 않는 등 매우 조심하였고 걸립 풍장은 모든 집을 다녔다. 이 마을의 유장원은 1904년생으로 고사 축원을 매우 잘했다.

검상동의 마을 안에는 4개의 선돌이 있었다. 독선거리 외에 3개의 선돌은 들 가운데 150cm 정도의 작은 돌들이다. 이곳에서는 정월 대보름 전에 모두 고사를 올렸다. 간단한 제수로 가볍게 고사를 지내고 산신제를 중히 하였다.

검상리 마을 안에는 3개의 두레가 있었다. 1960년대 초 전체 가구 수가 120호에 달했을 때의 일이다. 가장 큰 두레는 검상두레로 70여 호였으며 이백여 마지기의 대농으로 알려진 이택이 이 마을에 살아서 일도 많았다.

농기는 농자천하지대본 기였고 두 개의 영기를 썼으며 기운이 장사였던 조해성은 농기를 들고 춤을 추는 사람으로 유명했다. 마지막 좌상은 양재용이다. 두레 농악이 인동에서 가장 활발해서 여름이면 풍장소리가 끊이지 않는 마을로 유명했다.

상쇠에 유장원, 오진영, 고한근, 장구에 고봉택, 고봉근, 고산택의 아버지, 이만희, 황희수, 북에 조정웅, 조무웅 형제와 이영현, 징에 김석순, 머리 상모에 양팔만이 활동했다. 특히 유장원과 오진영은 공주에서도 상쇠로 이름이 높았던 인물이다. 1930년대 웅진동 풍장패

가 치던 공주장의 장터 풍장을 풍장 싸움으로 빼앗은 뒤 해방 후 1956년 의당 수춘 농악대에게 넘길 때 까지 공주 읍내의 풍장을 좌우했다. 수춘 농악대의 김태산이 유장원에게 상쇠를 배웠다.

검상리는 또한 충남 무형문화재인 상여 짝소리의 고장이다. 1888년경 출생자인 황재성이 연반계의 수장이면서 상여 선소리꾼으로 오래도록 상여 소리를 이끌었고, 이를 오진영이 받아 대를 이었다. 오진영 사망 후 이 소리는 절맥되어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 금강과 사람들

검상리 마을 사람들은 3개의 나루를 이용하였다. 공주와 군산, 강경 등을 오가는 배는 검상나루를 이용했다. 오동리로 오가는 맞나루는 ‘윗나루’였고 우성면 죽당으로 건너는 나루는 새나루였다. 많은 사람이 오갔던 윗나루에서 배를 몬 사공은 이승택이었다. 오동 나루의 이경진과, 새나루의 정진영은 강 건너에 살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오동 나루는 겨울철 강 건너 사마산에 나무를 하러 오가기도 하였다.

검상동에는 다른 마을에 비하여 배가 많았다. 검상나루 이승택의 나룻배, 마을 주민들의 낚시배 3척, 주낙을 주 어업으로 하는 오석봉의 어선 1척 등 5척의 배가 있었다.

검상동 강변에 살던 오석봉은 어업을 주 직업으로 하는 어부였다. 주낙을 주로 하였지만 강살을 매어 송어나 잉어를 잡는 작업도 주도적으로 행하였고, 수수겉이와 겨울 장어를 작살로 잡았다. 농사를 지으면서도 물고기 잡이, 물고기 장사를 함께하였다.

검상동은 마을 공동으로 강발을 치고 함께 물고기를 잡아 장에 내다 팔아 소득을 나누는 강발 설치 물고기 잡이를 행한 마을이다. 좋은 자리에 강발을 치기 위해 죽당리와 경쟁하였다. 금강변 대부분의 마을은 개인들이 모여 강발을 치는데 검상동은 마을 공동으로 행하였다. 마을의 경비를 이 돈으로 행할 만큼 강발치기는 중요한 일이었다.

이 마을에서 많이 잡은 물고기는 잉어, 붕어, 송어, 게, 동자개, 메기, 칠어, 모래무지, 장어, 자라, 가물치, 동서, 누치, 미꾸리, 새우, 징거미, 구구리 변대 등이다. 백사장에는 부전조개, 말조개, 함박조개, 갈조개 등 많은 종류의 조개가 잡혔다.



# 보령시

## 보령의 바다

소금생산(소황리의 소금생산)	174
김생산(보령 김 가공업의 역사)	178
어업(웅천 완장포의 중선어업)	183
보령의 6.25(보령 경찰이 겪은 6.25)	188
소금 생산(양항리의 육염(陸鹽) 생산)	192
섬(송도의 생활)	198
원홍주등육군상무사(元洪州等六郡商務社)	203
셋개포구의 변화	209
녹도리 관내의 무인도서 이야기	214
웅천천변의 옛 생활 모습	220
호도의 생활	224
외연도의 생활	228

●  
**소금생산**  
**(소황리의**  
**소금생산)**



**최 종 설** (1937년생)  
 당진군 석문면 삼봉리

최종설씨는 강릉최씨로 임진왜란 후 보령 소황리로 입향한 최광필(崔光弼, 1553~1608)의 후손이다. 최광필이 처남인 무송윤씨 윤순(尹洵, 1554~1611)과 함께 보령 소황리로 입향한 뒤 후손들이 세거하였다.

최종설씨의 아버지는 4형제로 소황리 지역에서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학교를 세우는 일에 공헌하였고, 큰어머니인 전운여사는 교회를 세우기도 하였다. 최종설씨는 4남3녀 중 막내아들로 1937년에 태어나 평범하게 생활하였으나 해방 후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초등학교 3학년을 중퇴하였다.

12살 때인 1948년, 집 옆에 큰 염전을 만드는 공사가 시작되었다. 최종설씨는 염전에 소사로 취직하여 공사장에서 잔심부름을 하였다. 당시 염전을 건설한 사람은 윤건씨로 예산이 고향이고 경찰의 고위 간부였다.



염전을 만들 때 마을 사람들을 동원하여 소위 ‘평떼기’를 시켰다. 제방 한 평(가로세로 6자, 높이 3자)을 쌓으면 얼마의 품삯을 주는 것이다. 주변에 있는 흙을 지게로 지어다 쌓는 힘든 일로 장정 1명이 하루에 1평을 쌓을 수 있었다.

제방의 밖은 돌로 쌓고, 안에는 작은 돌을 채워 넣었다. 돌들은 독대섬 아래쪽에 있는 황새바위 있는 곳에서 실어왔다. 당시 황새바위 앞에 있던 독살 여러 개를 모두 허물어 이용하였고, 황새바위도 일부 부수었다.

염전을 만든 후, 23살 때인 1959년까지 염전에서 기술자로 일하였다. 당시 품삯은 700~800원을 받았고, 농사짓는 품삯보다는 높았다. 염전의 면적은 20정보였고, 저수지에 바닷물을 가두었다가 난치라고 부르는 곳에서 증발시켰고, 이후 느태라고 부르는 곳에 물을 옮겨 한 번 더 증발시켰다. 마지막으로 결정지에서 매일 소금을 생산하였다. 날씨가 좋으면 하루에 약 30가마의 소금을 생산하였다.

염전의 면적은 느태가 가장 넓어 난치의 2배정도 되었고, 가장 좁은 곳은 결정지로 난치의 1/4정도 되었다.

그리고 염판 2개에 1개씩 물탱크를 만들어 비가 오면 염수를 담아놓았다. 담아놓은 염수는 나중에 끌어올려야 하는데 근래는 양수기를 사용했지만 전에는 수차를 이용하였다. 여긴 힘든 일이 아니었다.

소금 만드는 기술은 결정지에 넣는 물의 농도를 맞추는 데에 있었다. 결정지의 농도가 높으면 농도가 낮은 소금물을 넣어 결정을 시켰다. 소금의 결정은 22도부터 시작되었다. 결정지는 수시로 로울러로 다져 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다.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할 때는 우선 곰배로 염전가를 돌려 소금을 안으로 보낸 후, 대패를 이용해서 가운데로 모은다. 그리고 대바구니에 담아 목도로 운반하였다. 한 번 운반하는 양은 대바구니 2개인데 대략 90kg이 넘었다.

소금의 품질은 간수가 얼마나 섞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었다. 간수가 없어야 소금이 쓰지 않고 고급이다. 고급 소금은 소금이 부스러지고, 간수가 많이 섞이면 손으로 쥐었을 때 뭉쳐진다. 봄에 생산한 소금은 염판에 있는 간수가 겨울동안 모두 씻겨나간 뒤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간수가 적고, 가을에 만들어진 소금은 여름동안 농축된 간수가 염판에 있기 때문에 많은 간수가 묻어있다.

요즈음은 봄에 생산한 소금은 송화가루가 섞여서 좋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다. 오로지 간수가 문제였다.

난치나 느태에는 많은 게가 서식하여 구멍을 뚫었다. 구멍 속에 들어간 물은 증발되지 않기 때문에 게를 퇴치해야 하는데, 염전의 사장이었던 윤건씨는 담배 공장에서 나오는 담배 부스러기를 가져다가 뿌렸다. 그러면 게가 모두 죽었다.

당시는 소금이 전매품이어서 마음대로 팔 수 없었다. 소금 생산량을 전매청에 보고하고, 소금이 모여지면 전매청에서 지시하는 곳에서 구매하였다. 대천의 학교 운동장 같은 데서 구매하였다. 개인적으로 팔면 더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었지만 팔지 않았다. 그러나 규정을 어기고 민간에게 팔다가 적발되어도 큰 벌을 받지 않았다.

염전을 하던 자리는 과거에 수많은 갈통을 묻었던 곳이었다. 갈통 묻는 작업은 최종설씨가 직접 해 보지는 않았지만 하는 것을 보기는 하였다. 땅을 1m쯤 비스듬하게 파고, 가운데에 말뚝을 등글게 박은 다음, 말뚝 주위에 나래를 돌려 모래가 들어가지 못하게 한 후, 햇볕에 말린 흙을 덮었다. 흙을 덮은 곳까지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물이 들어올 때 바가지로 퍼서 위에 뿌려 소금이 녹아 들어가도록 하였다. 근처까지 물이 오지 않으면 물길을 내어 물을 끌어왔다.

갯벌을 말리기 위해서는 소를 이용하여 썬레로 갈았다. 소가 없는 경우는 작은 썬레를 만들어 사람이 끌었다. 갈통은 한 집에서 2~3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염수가 만들어지면 솔에 끓였는데, 이 솔을 ‘벗’이라고 하였다. 이 솔은 바닷가에 많이 있었다. 섬밭이나 제방 위에 있었다.

대규모 천일제염 염전 공사가 시작된 1948년경부터 이런 소금은 생산되지 않았다. 천일제염으로 다량의 소금이 생산되었기 때문이다.

1950년 6.25 무렵, 소항리 낫물 마을 앞에서 주민들이 ‘난물’이라고 부르는 신비한 물을 발견하여 많은 소금을 생산하였다. 마을에 사는 최학규씨가(1912~1978) 마을 앞, 두문개 안의 모래로 된 갯벌을 파다가 바닷물보다 훨씬 짠 물을 발견한 것이다. 이곳은 두문개의 안쪽, 즉 소항사구의 안쪽에 있는 갯벌인데 소항사구에서 모래가 날아와 늘 모래로 덮여 있는 곳으로, 절묘하게도 바닷물이 들어오면 얇게 잠기고, 대부분의 시간은 햇볕에 노출되었다. 따라서 바닷물이 들어오면 모래가 바닷물에 적셔지고, 바닷물이 나가면 모래가 바짝 마르

는 것이다. 이 바깥 마른 모래위에 또 바닷물이 들어오면 모래층에 바닷물이 스며들면서 모래에 붙은 소금을 녹여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

소금물은 아래로 내려가다가 지하 2m쯤에 이르면 딱딱한 굳은 모래층 위에 모이게 되는데 이 물의 염도가 11도~15도에 달하였다. 이 염도는 갈통에서 생산한 소금물 농도 20도보다는 낮지만, 어떤 노동력을 들이지 않고 자연적으로 나오는 소금물이었다.

당시 최학규씨는 ‘난물’을 자기가 발견했으니 자기가 권리가 있다고 하여 세를 거두었기 때문에 주민들과 싸움이 잦았다.

난물이 발견된 후 소항리 사람들은 너도나도 소금을 만들었다. 구덩이를 파고 난물을 길어다가 끓이기만 하면 되었다. 당시 소항리 사람들은 드럼통 4개로 솥을 만들었다. 드럼통을 펼쳐 못을 박아 잇고, 둘레는 구부려 올렸다. 올리는 높이는 20cm쯤 되었다. 이 솥을 2개씩 걸었는데 하나는 앞에 걸어 소금을 생산하였고, 하나는 뒤에 걸어 앞 솥이 소금을 생산할 동안 수분을 증발시켰다. 뒤에 있는 솥을 높게 걸어, 앞에 있는 솥에서 소금을 생산한 뒤 앞으로 흘러내리도록 하였다.

당시 마을 주변에는 나무가 없어 미산 사람들이 나무를 공급하였고, 생산된 소금은 군산 사람들이 와서 사갔다. 전매품이지만 개인적으로 팔았다. 개인적인 거래다 보니 군산 사람들은 소금을 기차에 싣고 운반하느라고 고생이 많았다.

염전에서 염부 일을 하였던 최종설씨는 난물을 이용하여 천일제염을 하기로 하였다. 집 옆에 있는 모래산 400평을 사서 평탄하게 한 후, 바닥을 빨흙으로 돋우고 염전을 시작한 것이다. 염전의 물은 11도짜리 난물을 대었다. 보통의 염전은 2.7도 내외의 바닷물을 사용하는데 그것보다 4배는 더 진한 소금물을 원수로 사용했기 때문에 좁은 면적에서도 많은 소금이 생산되었다. 천일제염이니 따로 연료비도 들지않았다.

생산된 소금은 웅천 완장내에서 중선을 운영하는 정창호씨가 주로 가져갔다. 연락을 하면 차로 실어다가 중선배에서 사용하였다.

당시 논을 살 정도로 돈을 벌었지만, 난물을 품어 올리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난물이 나는 곳에서부터 염전까지 수평으로 약 200m, 수직으로 약 2m나 되는 구간을 인력으로 움직이는 펌프로 품어 올렸던 것이다.

●  
**김생산**  
**(보령 김**  
**가공업의**  
**역사)**



**최종찬** (1937년생)  
 보령시 대전동

최종찬씨는 강릉최씨로 임진왜란 후 보령 소항리로 입향한 최광필(崔光弼, 1553~1608)의 23세 후손이다. 최광필이 처남인 무송윤씨 윤순(尹洵, 1554~1611)과 함께 보령 소항리로 입향한 뒤 후손들이 세거하였다. 최종찬씨는 1937년 소항리 근말에서 태어났다.

어려운 살림이라 큰 누님은 간이학교라도 다녔지만, 작은 누님과 셋째 누님은 학교에 취학하지 못했고, 형님은 웅천국민학교를 졸업하였다. 최종찬씨는 해방 후에 황교국민학교에 입학하여 정상적으로 학교를 마쳤다.

최종찬씨는 중학교에 입학하고 싶었지만 당시 장성해서 집안 살림을 하던 형의 눈치를 보아야 했다. 그래서 형이 하던 소금 만드는 일을 도와주려고 갈통을 하나 만들어 염수를 생산하였다. 갈통은 깻벌을 파고, 가운데에 나무 말뚝을 둥글게 박은 뒤, 나래로 말뚝을 둘러치고, 파낸 깻벌을 말려, 갈통 위에 덮고, 한 사리동안 바닷물이 들어오면 22~23도의 소

금물을 얻는 것이다. 그러나 비가 와서 염수 생산은 실패하였고 형님도 학교에 보내줄 생각을 하지 않아 학교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때 나이가 15~16세 되던 때였다.

18세 무렵, 웅천초등학교 교실 1칸을 얻어 사용하는 고등공민학교가 생겨 그곳에 입학하였다. 학교는 다시 대창리 창고 건물로 옮겨졌는데 환경은 더욱 열악하여 의자도 없이 공부해야 했다. 학교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던 차에 나미선 선교사가 삽교에 있는 성경고등학교 입학을 권유하여 그곳으로 가서 1년간 수학했다. 장로님들이 잘 해 주시고 교회에서 일거리까지 주어 일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이때 주산농업고등학교가 생겼고, 편입생을 뽑았다. 편입시험은 논술이었는데 최종찬씨는 성경학교에 다닌 실력과 집에서 한문을 배운 실력으로 합격하였다. 3학년으로 편입했기 때문에 6개월 후에 바로 졸업하였는데 주산농고 2회 졸업생이다.

최종찬씨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소황리에 교회를 설립한 전운여사 때문이었다. 최종찬씨 때문에 가족들이 모두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전운여사는 전도부인인데 딸 밀양손씨가 소황리의 최환규(1887~1955)씨에게 시집오면서 소황리에 거주하게 되었고, 기독교를 전도하며 교회를 설립하였다. 여사는 재력이 있어 교회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주산면 장적굴<sup>1)</sup>에 있는 밀양손씨의 친정집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소황 교회는 원래 곤말 위에 자리한 6칸 함석지붕 집이었다. 2칸은 전운여사가 쓰고 나머지 4칸은 교회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독산 마을에 있던 예장과 기장, 두 교회 간에 다툼이 발생했다. 싸움을 말리는 길은 교회를 이전하는 것이었는데, 독산 교회도 사실은 소황 교회에서 분리된 교회였기 때문에 독산리와 가까운 황교초등학교 앞으로 교회를 옮기기로 하였다.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이 달밤에 황교리 배다리 앞 냇가에서 모래를 파다 블록을 찍어 100평의 땅에 20평의 교회를 지었다. 최종찬씨가 29살 때인 1965년의 일이다. 당시 곤말에 있던 교회를 최종찬씨가 뜯었는데 상량문에 기미년 3월 1일이라고 기록한 것을 보았다고 한다. 곤말에 있던 소황교회 건물이 1919년에 지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1966년 쯤, 황교리 남쪽 구진과 석진개 마을 사이, 거먹바위 앞에 대합조개를 양식하는

1) 주산면 야룡리에 있는 마을 이름.

큰 양식장(갈릴리양식장)이 생겼다. 박정희 대통령과 5.16혁명을 함께 일으킨 김윤근씨(당시 호남비료 사장) 소유였는데, 김윤근씨의 참모였던 수산청장 오정근씨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곳이라고 소개해 주었다고 한다. 수산청장이 자기의 상사였던 김윤근에게 양식장을 소개해 준 것이다.

최종찬씨는 이 양식장에 관리인으로 취직하였다. 10ha의 양식장 둘레를 50cm 높이로 그물을 치고, 마을에서 작은 대합 치패를 구매하여 양식장에 뿌렸는데 조개가 자라지 않고 사리 때면 자꾸 물리는 것이었다. 황교리 앞이 조개의 치패가 발생하는 데는 최적지이지만 크게 자라기 위해서는 소항리 쪽으로 이동해야만 되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양식장은 실패하였고, 최종찬씨는 양식장을 나와 황교리 부주굴 마을로 이주하였다. 부주굴 마을은 10호인데 모두 경주김씨이고 타성은 3가구 뿐이었다. 최종찬씨는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반장을 자원하였다. 반장 재임 기간 동안 공동으로 사용하는 큰 저울을 구입하는 등, 열심히 일한 덕에 6개월 후에는 황교리 광암마을 이장에 당선되었다.

광암마을 앞 바다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합 종패 생산지로 유명했지만 정작 판매는 못하고 있었다. 반면 이웃한 주산면 증산리는 종패 판매로 한 철에 쌀 30가마를 받는 것이었다. 광암도 양식장을 내면 종패를 유리하게 팔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주민들이 연명하여 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허가는 최종찬 단독 명의로 나왔다. 그러나 최종찬씨는 자기 것으로 하지 않고 끝까지 마을 공동의 것으로 하였다.

이후 양식장을 쌀 700가마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동네 회의를 거쳐 양식장을 팔았다. 가구당 쌀을 2가마씩 나누어주고, 광암 마을회관, 마을창고를 짓고, 구판장도 만들었다. 그리고 최종찬씨는 팔린 양식장을 관리하였다.

광암마을의 김 양식은 아주 늦게 시작되었다. 처음에 주교면 사람이 들어와 시험적으로 재배를 했는데 성공하였다. 이것을 보고 황교리 광암마을 주민들도 김 양식을 시작한 것이다. 최종찬씨가 보령수협 조합장을 할 때(1970년대 초) 황의설씨와 함께 힘써 20ha의 양식장을 허가 받았고, 이후에 20ha를 추가하여 40ha의 김 양식장이 조성 되었다.

그래서 황교리 광암마을 주민들은 한 가구당 15~20떼씩 김발을 댔다. 1떼는 폭 2m에 길이 40m를 말하는 것이다. 이정도면 기계를 설치한 가구를 빼고는 충분한 면적이었다. 당시 황교리 광암마을에는 어촌계에 가입하지 않은 주민들도 있었는데 이들에게는 허가된 양식

장은 주지 않았기 때문에 번두리 좋지 않은 지역에서만 김 양식을 할 수 있었다.

이 양식장이 1980년대 부사지구 간척사업지구로 편입되어 보상을 받게 되었다. 이 보상  
으로 어촌계에 가입한 주민들은 목돈을 받게 되었고,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주민은 한 푼  
의 보상도 받지 못하였다.

보령수협 이사를 할 때, 이사들의 추천을 받아 조합장에 출마한 최종찬씨는 20명 중 16  
표를 얻어 압도적으로 조합장에 당선되었다.

최종찬씨는 보령수협 조합장으로 일하는 동안 무창포에 종묘배양장을 유치하였다. 원래  
는 전북이 우선 순위였는데, 김수진 군수가 심사위원들에게 부지 제공 및 도로 개설을 약속  
을 하였고, 자연조건, 주민협조 등에 감동한 평가위원들이 좋은 평가를 하여 전북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래서 전북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다.

보령수협 조합장으로 있을 때, 김 위판장을 설치한 후, 김수진 군수와 보령군 당국의 협  
조로 김 가공공장을 시작하였다. 김 가공공장은 김수진 군수가 아이디어를 냈고, 수협에서  
해보라고 4000만원의 보조금까지 마련해 주었다. 당시 김 공장은 경기도 발안에 한 군데  
뿐이었고, 설치된 기계도 국산이 아닌 일제였다.

보령수협에서 각 어민들에게 공문을 내어 신청하라고 하였더니 한 명도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다. 연말에 보령군이 보조금 처리를 독촉하여 할 수 없이 조합장인 최종찬씨가 김 가공  
공장을 시작하게 되었다.

당시 일제 기계의 값은 1억~1억3천만원이나 하는데 돈은 4천만원 뿐이어서, 서울 충무로  
에 있는 철공소에 알아보았더니, 그 기계를 고쳐본 적이 있어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제작  
비 4천만원을 들여 기계를 설치하게 되었다. 부사방조제 건설로 김양식장에 대한 보상을 받  
아 금전에 여유가 있던 최종찬씨는 우시장 자리에 80평의 건물을 짓고 보령 최초의 김 가공  
공장을 만들어 ‘대천김’을 생산하였다. 그러나 생산량은 하루에 고작 50톤~80톤 정도였다.

초기 10여년간은 고생이 심하였다. 소비가 안 되어 직원들이 상점에 가져다주고, 팔리면  
수급해 오는 정도였다. 다행히 소비가 계속 늘어나고, 김을 가공하는 기계도 급속히 발전하  
여 품질 좋은 김을 안정되게 생산하게 되었다.

이후 최종찬씨의 둘째 아들이 김공장을 맡아 운영하였다. 젊은이가 뛰어들어 판로를 확  
장하였고, 수출까지 하게 되었으며, 마침 김영삼 대통령이 농어촌에 많은 지원을 해 주어 공

장은 크게 발전하였다.

이에 넓은 공장 부지가 필요하여 대천간척지 900평짜리 논에 공장을 지었다. 그러나 간척지에 지은 공장은 습기가 많아 김 제품을 생산하는 데는 맞지 않았다. 이후 공장을 요암농공단지로 옮겨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대천김은 200여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국내 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대표 김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  
어업  
(웅천 완장포의  
중선어업)



**이 기 복** (1941년생)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이기복씨는 전주이씨 효령대군파이다. 아버지 이창갑씨는 서천군 비인에 살다가 서면으로 이주하였다. 아버지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사꼬기’라는 사람의 일을 보아주다가 해방된 후, 일본인은 귀국하고 그 집과 재산을 얻어 서면으로 이주하였다.

서면에서는 부자로 살면서, 남촌 마을에서 중선어업도 하였는데, 1951년 중선배를 가지고 웅천으로 이주하였다. 교통이 편리한 중심지로 이주한 것이다.

서면초등학교에 입학하여 4학년 때 웅천초등학교로 전학하여 졸업하였고, 중학교는 서천중학교에 진학하였다. 작은 아버지가 서천중학교의 교사로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후 흥성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중앙대학교 화학과에 진학하였다. 원래는 약학을 전공하고 싶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화학과에 입학하였다가 중퇴하였다.

이후 웅천에서 생활하였으며, 결혼 후 인쇄소를 운영하던 처갓집 사촌들의 도움을 받아

웅천에 인쇄소를 열어 운영하였다.

이기복씨가 살았던 서천군 서면 남촌에는 당시 20여 척의 배가 있었고, 선주들이 당제를 크게 지냈다. 당집 옆에는 큰 팽나무가 있었고, 당집 앞에는 저수지 같은 못이 있었다. 당제는 크게 지냈는데 소를 잡지는 않고 돼지를 잡아 지냈다.

이기복씨 아버지는 서면에 이사 오면서 대창리에 집과 논을 샀다. 집은 현재 옥당회관자리로 완장포와 가까운 곳이다. 밭은 남댕이 마을에 있었고, 논은 웅천 시내와 완장포 사이에 많이 있었다. 머슴 2명을 두어 농사를 지었다. 당시 대창리 들은 성동리에 보를 막아 물을 끌어다가 농사지었다. 당시 어린이들은 봇물이 지나는 곳에서 낚시로 붕어도 잡고, 참게도 잡았다.

1951년, 아버지가 서천 서면 남촌 포구에서 중선을 가지고 웅천 완장포구로 처음 올 때는 완장포구에 배가 1척도 없었다. 배를 대는 시설도 없어 수협에 부탁하여 약간의 시설을 만들었다.

당시 배가 한 번 나가면 보름이나 한 달 만에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돈을 소금자루에다가 득 담아가지고 왔다. 고기를 잡으면 현장에서 상고선에 팔고 돈만 가지고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팔기 아까운 것, 좋은 것들은 염장해서 가지고 들어오니까 웅천에서 놀라는 사람이 많았다.

이런 것을 보고 정창호씨가 배를 샀고, 이종화씨, 박용석씨, 박영국씨, 이창성씨 등이 중선배를 사서 운영하였다. 그래서 완장포에 중선배가 6~7척이 생긴 것이다.

이기복씨 아버지는 처음 범선을 가지고 왔는데, 그 시기가 기껏배로 바뀌는 시기였다. 최초로 기껏배를 만든 사람은 정창호씨이다. 정창호씨는 완장포에서 배를 만들었는데 최초로 ‘야끼다마’라고 하는 기계를 놓았다. 당시 배를 짓던 대목수는 군계 중농굴<sup>1)</sup>에 살던 강씨였다. 강씨는 배만 지었고, 기계는 다른 사람이 설치하였다. 이 정창호씨의 기껏배를 보고, 풍선배들도 모두 기껏배로 바꾸었다.

당시 중선배를 운영하던 사람들은 시내에서 완장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살았다. 그곳은 시내에서 완장포와 연결되는 길이 있는 곳으로, 면사무소 남쪽, 남댕이에서 내려오는 길 부

1) 현재 주산면 신구리.

근이다. 완장포에 고기가 들어오면 모두 지게로 저 운반하였다. 웅천 시내에서 완장포로 통하는 길이 좁았기 때문이다. 리어카도 다닐 수 없어 지고 다녔다. 리어카는 접동굴 쪽으로 돌아다녀야 했다.

매년 정월 초하룻날 새벽에 선원들이 뱃고사를 지냈다. 마을에 당집이 없어 당제를 지내지는 않고 배에서 뱃고사만 지낸 것이다. 뱃고사에는 오색 깃발을 준비하고, 돼지를 잡고, 떡, 밥 등의 제물을 올렸다. 마을 사람들이 참여하지는 않고 선원들만 지냈다. 예외 없이 모든 배가 고사를 지냈다.

당시 중선배들은 안강망으로 조업을 하였다. 처음에는 1배에 안강망 1개씩을 가지고 다녔다. 안강망의 닻은 참나무로 만들어 돌을 매달았고, 그물의 입구는 배의 길이보다 길었다. 당시에는 스티로폴 ‘희’가 없었기 때문에 큰 대나무를 여러 개 묶어 사용하였다. 그물의 길이는 약 20여m 되었다. 처음 풍선배들은 안강망을 1개씩 가지고 다녔으나, 기껏배가 생긴 뒤로는 점차 많이 가지고 다니게 되어 3개까지 싣고 다니는 배가 있었다.

중선배에는 6~7명이 탔는데, ‘선장’이 배의 일을 총괄하였고, ‘화장’이라는 직책은 음식을 담당하였다. 고기 잡는 일을 하면서 음식을 준비했기 때문에, 더 많은 급료를 주었다. 다음으로는 ‘건배임자’라는 직책이 있었다. 건배임자는 상고선에 고기를 파는 사람이다. 고기를 팔고 장부를 정리하였다. 나머지는 그냥 선원들이었다.

완장포는 바다가 얁아 배를 대기가 불편하였다. 조금 때는 물이 적게 들어와 더욱 어려웠고 배에 줄을 묶어 사람이 끌어당기기도 하였다. 어떤 날은 중간에 정박하고 있다가 물이 들어올 때 따라 들어오기도 하였다. 안강망은 사리 때 조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리 때 조업하고 조금 때 들어와 더욱 불편하였다. 이런 불편에도 불구하고 완장포에 배를 대었던 것은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중선배들이 잡은 고기는 대부분 현장에서 팔았다. 어장이 형성되면 상고선들이 오기 때문에 상고선에 팔았다. 규격품이 아닌 고기들은 소금에 절여 가지고 들어왔다. 드물게 잡히는 큰 고기들도 절였고, 꽃게도 절였다. 이런 고기들은 완장포에서 장삿꾼에게 팔거나 선원들이 나누어 먹었다.

조기를 잡을 때는 이른 봄 흑산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연평도까지 갔다. 조기가 북상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조업하는 것이다. 이때 잡은 고기들은 상고선에 바로 팔고, 상고선으로부

터 물, 식량, 연료 등을 공급받았다.

연평도에 도착하면 선주는 내리고, 종업원들이 부근에서 조업했다. 잡은 조기는 상고선에 팔고, 조기철이 끝나 돌아올 때 선주를 싣고 오는 것이다. 이기복씨는 흑산도에서부터 3개월 동안 배를 탔는데, 연평도에 내렸다가 여객선과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어느 날, 완장포에 정박하던 배 1척이 실종되는 사고가 있었다. 김승원씨 배였는데, 조기를 잡기 위해 출항한 뒤 어떤 연락도, 조난되어 떠밀린 것도 없이 사라졌다. 선원 6~7명도 함께 실종되었다. 완장포에 있던 다른 배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침몰되어 모두 사망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중선배 6~7척이 드나들던 완장포는 점점 쇠퇴하였다. 점차 어족이 고갈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1970년도 이전에 한척의 배도 남지 않게 되었다.

이기복님의 아버지 이창갑(1909)님은 안강망을 만드는 기술자였다. 포구 근처 넓직한 곳에 군산 등지에서 사온 그물을 재단해서 널어놓고 안강망을 만들었다. 그리고 필요한 그물은 손수 뜨기도 하였다.

만들어진 그물은 갈물을 들여 사용하였다. 갈물을 들여야 실이 뻗뻗해지고 질겨져 오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갈물은 선구점에서 나뭇껍질을 사다가<sup>2)</sup> 드럼통을 잘라 만든 큰 솥에다 삶아 누런 물을 빼낸 뒤, 그물을 넣고 삶는 것이다. 실에 물을 들여 그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만들어 물을 들였다. 염색을 하면 뻗뻗해서 그물을 뜰 수 없었기 때문이다.

중선그물은 가로 15m, 높이 5~6m, 길이 30~40m정도 되었다. 입구의 밑바닥은 참나무로 만들어 돌을 매달아 쉽게 가라앉도록 하였으며, 수직으로는 동아줄, 윗부분은 대나무를 다발로 묶어 사용하였다. 이런 그물을 배에서 내려 설치하였고 배에 고정하였다. 배는 닻으로 고정하였다. 그물을 설치할 때는 배를 고정시키고 그물의 끝에서부터 바다에 넣었다. 입구 부분을 제일 나중에 넣는 것이다.

초기 중선배들은 그물을 1개만 가지고 다녔다. 한쪽 측면에 그물을 싣다 보니 항상 기울어진 채로 다녔다. 그 뒤 점차 여러 개의 그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설치하였는데 이때는 각

2) 무순 나무껍질인지는 모름

그물마다 닻을 놓아 고정시켰다. 현재의 안강망과 같은 것이었다.

당시 어려운 사람들은 배에서 쓸 장작, 반찬거리 등을 가지고 와서 고기하고 바꾸어 먹었다. 완장포에서 물물교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조기를 잡으러 연평도에 갔다가 본의 아니게 월북하는 경우도 있었다. 풍선배를 타고 가면, 정확한 위치도 모르고 바람이 불면 자칫 넘어가기 쉬웠다. 이때 북한에서는 고기를 한 배 주기도 하고, 옷감을 주면서 회유하기도 하였는데, 어떤 사람은 남한에서 조사 받을 것이 두려워 옷감 같은 것을 모두 버리고 왔다고 한다.

●  
**보령의 6.25**  
**(보령 경찰이**  
**겪은 6.25)**



**서 광 문** (1929년생)  
 보령시 대천동

서광문씨는 달성서씨로 부여군 내산면 울암리에서 대대로 살아왔다. 집은 가난하여 아버지가 내산 면장 댁에서 머슴살이를 하였고, 동양척식회사의 논 일곱 마지기를 소작하면서 4남매를 키웠다.

그러나 부모의 교육열이 누구보다 강하여 초등학교를 졸업시켰고, 주인인 내산면장이 공주고등학교 서무과장으로 부임하면서 서광문씨를 급사로 채용하였다.

공주경찰서에서 경찰관을 뽑는 계획이 있어 원서를 내고 시험을 치렀다. 필기시험은 한글 받아쓰기와 간단한 산수 및 경찰 정신에 관한 질문 이었고, 체력시험은 공주대교를 달려서 다녀오는 것이었다. 80여 명이 지원하여 40명 정도만 합격하였는데 서광문씨는 이 시험에 당당히 통과하였다.

경찰관 시험에 합격한 후, 대전 경찰관훈련소에서 3개월 교육을 마치고, 11월 여순반란사

건 현지에서 매복과 수색 등을 하다가, 1948년 12월 22일 보령경찰서에 발령을 받았다. 19세에 보령경찰서의 경찰관이 된 것이다. 처음에 외근을 했는데 주로 순찰을 돌았다. 당시는 남로당의 활동이 많아 항상 불안하였다. 그러나 남로당은 암약했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았다.

남포지서에 근무할 때 6.25사변이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나자 치안본부에서는 전투경찰대를 조직하고, 충남경찰을 12대대로 편성하였다. 보령경찰은 중대로 편성되었는데 중대장은 황규식이었고 소대장은 이정순 사찰주임이었다.

남하하는 인민군을 저지한다고 홍성에 출동하여 홍북 근처에 배치되었으나, 인민군이 예산까지 내려왔다는 정보가 있었고, 역부족이라고 판단하여 철수하였다.

6.25사변이 일어나자 남로당 계열 사람들을 붙잡아 들이라는 명령이 있었다. 사찰계가 이들을 잡아서 유치장에 가두었다가 대전으로 보내거나 여ني재에서 처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보령경찰은 철수 명령을 받았다. 청라, 미산 같은 내륙지역 경찰은 부여 방면으로, 기타 해안지역의 경찰은 대천항에 집결하여 경비선인 계룡호를 타고 7월 14일 00시 20분에 출항하였다. 출항할 때 쌀 6가마와 새우젓 6~7독을 싣고 대천식당의 아주머니 한 분이 식사 준비를 위해 동승하였다.

7월 14일 새벽 6시 군산항에 도착하여, 계엄군 사령관으로부터 장항으로 건너가 군과 합동작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비인에 도착하여 밤새 잠복을 하고, 다음날 작명<sup>1)</sup>이 내려졌는데 보령경찰이 선발대로 진격하여 인민군의 남하를 저지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보령경찰서 병력이 탄 트럭이 선발대로 나가고, 이어서 천안 철도경찰대, 예산, 홍성의 경찰들이 따라왔다. 그런데 비인 고개에서 보령경찰서 트럭이 브레이크 고장을 일으켜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운전은 보령경찰서의 최동렬씨가 했는데 고장이 났다는 것이었다. 이에 뒤따르던 철도경찰대 트럭이 앞서가서 주산 지서에 들어갔다가 인민군들에게 포위되어 집중 공격을 받아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혔다.

뒤따르던 경찰들과 보령경찰은 후퇴하였고, 논산경찰서를 습격한 인민군을 황등에서 저

1) 작전명령

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작전에 투입되어 잠복하고 있는데, 새벽 4시쯤 인민군에 완전히 포위되어 암호가 뒤섞일 정도였다. 당시 아군의 암호는 엠-투였고, 인민군의 암호는 이북-셋별이었는데, 암호가 막 섞여 들렸다. 이 때 이정규 사찰주임의 권총을 인민군이 빼앗는 것을 보았다. 적군과 아군이 섞여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남쪽으로 무조건 뛰어 포위망을 벗어날 수 있었다. 이 전투에서 보령경찰서 병력 32명이 전사하였다. 포로로 잡힌 이정규 사찰주임도 살해된 것으로 안다. 전사한 시신은 나중에 가족들이 찾아갔다고 들었다.

전주까지 왔는데 계엄군이 경찰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회수하고 있었다. 무기를 반납하고, 경리주임한테 월급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다가 남원에서 전투복을 버리고 민간 복장으로 갈아입고 남하하였다. 이어서 임실, 여수, 순천을 거쳐 진주에 들어와 화물열차를 타고 대구에 있는 치안본부로 들어갔다.

대구에 있는 치안본부에 복귀하여 무기를 지급받고 팔공산 땅재에 배치되었다. 당시 충남의 경찰병력이 30명 정도 되었다. 기관총 부사수로 배치되었는데, 초기에는 인민군의 포격을 많이 받았다. 포격 때에는 포탄이 떨어진 곳으로 뛰어가 엎드려 살아남았다. 뒤에는 미군 폭격기의 공습으로 인민군의 포격이 줄어들었다. 여기서 9월 15일 인민군들이 후퇴할 때까지 복무하였다. 당시 월급은 받지 못했다.

9월 16일부터 하루에 30리씩 수색하면서 진격하라는 명령에 복진을 시작하였다. 낙동강을 임시다리로 건너고, 많은 인민군 시신을 보면서 복진하여 대전으로 들어갔다. 부여에 이르렀을 때 부여군 초천면에서 인민군 치하시기에 공산당이 준동했다는 정보가 있어 초천면 부락에 들어가 부여한 사람들을 잡아, 길 양쪽에 무릎을 꿇려놓고, 부여 전투부대에 인계해 주고 보령으로 돌아왔다. 당시 보령경찰서 병력이 모두 68명이었는데 18명만이 복귀하였다.

보령으로 들어오는 입구인 미산면에, 보령의 수많은 인사가 환영하러 나와 있었고, 김선호 서장이 나와 인사를 하였다. 김선호 서장은 대구에서부터 함께 하였다.

당시 보령경찰서는 화산동에 살던 조길용씨가 경찰서장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는 6.25 사변 전에 지서주임이었는데, 남하하지 못하고 인민군에 잡혔다가, 숨어 살아남은 사람이다. 조길용씨는 인민군들이 물러간 후, 의용경찰들과 함께 좌익에 가담한 사람들을 구속하



여 농협창고에 구금시키고 있었다. 당시 경찰서 유치장에는 별 사람이 없었다. 의용경찰들을 나중에 정식 경찰로 채용하기도 하였다.

현재 충청남도 문화재자료로 보존되고 있는 보령경찰서 망루는 1950년 수복 후에 공비들을 막기 위하여 황규식 보안주임이 주도하여 쌓았다. 인부들을 동원하여 품삯을 주고 쌓았다.

수복 후에 보령경찰서에 복귀하고 보니 벌써 우익 인사들이 인민군 치하에서 부역한 사람들을 붙잡아 농협창고에 가두어두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있었고, 잘 먹지 못했기 때문에 병으로 죽은 사람은 있었지만, 살해된 사람은 없었다.

보령경찰서에 복귀한 후, 지리산토벌작전에 지원하였다. 당시 김선호 서장의 여동생과 혼담이 있었고, 사주를 보내라고 해서 보냈다가 퇴짜를 맞은 일이 있었다. 가난하여 사주와 함께 보낸 비단이 문제가 되었다. 서장과 처남매부가 된다고 소문이 났는데 실제로는 퇴짜를 맞아 견디기 곤란하여 지원을 했던 것이다. 지리산공비 토벌이 6.25전쟁보다 더 어려웠다.

지리산에서는 뱀사골, 노고산 등지에서 작전하였는데 추운 겨울 불 앞에서 김밥을 먹다가 공비들의 수류탄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건이 있었고, 공비를 추격하던 소대장이 옆에서 머리에 총을 맞아 즉사하는 사건도 있었지만 무사히 임기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다.

보령 해안에 현역 군인들이 배치되기 이전에 중요한 곳에는 경찰초소가 만들어지고 경찰들이 보초를 섰다. 그런 경찰을 해안경비대라고 하였다. 서광문씨는 웅천읍 관당리, 남포면 월전리 등에서 하숙하면서 관당리 해안이나, 월전리와 관당리의 접경인 장군배에서 근무하였다. 2명의 경찰관이 교대하지 않고 밤새 보초를 선 것이다. 어느 겨울에는 초소의 바닥에서 나온 연탄가스에 중독되기도 하였다.

당시 해안경비대에는 진돗개가 1마리씩 주어졌는데, 불행히도 서광문씨가 관리하던 진돗개가 쥐약 먹고 죽은 쥐를 먹고 죽었다. 이에 다른 진돗개를 사다가 놓았지만, 이 일을 빌미로 감원대상에 올라 퇴직하고 말았다. 1969년이였다.

1969년 경찰을 퇴직한 후에 경우회 사무국장을 42년 8월, 통장을 26년간 하였다. 보수는 없었지만 보람된 일을 많이 하였다.

●  
**소금 생산**  
**(양향리의**  
**육염(陸鹽)**  
**생산)**



**김기창** (1937년생)  
 보령시 남포면 양향리

김기창씨는 13살 때 아버지가 전염병으로 사망하여 월전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소금을 굽고 농사를 지었다. 흥년에는 온 가족이 굶주려 부황이 나기도 하였다.

흥년이 지난 뒤에는 집안의 종손이기 때문에 신흥리 매내의 윤하영 선생님이 운영하는 서당에서 2년 동안 한문을 배웠다. 수업 내용은 천자문, 계몽편, 명심보감과 패철 보는 법, 명정 쓰는 법 등 실용적인 것들로 이런 것들은 집안의 종손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었다.

김기창씨가 아주 어렸을 때도 양향리 개목마을 앞에는 갈통이 가득 차 있었다. 김기창씨는 남들이 하지 않는 곳에 갈통을 묻었다. 당시 갈통은 모두 주인이 있었고, 좋은 자리는 팔고 사기도 하였다. 갈통을 묻었던 사람이 오랫동안 이용하지 않으면 남이 할 수도 있었는데, 김기창씨는 새로운 갈통을 묻었다.

갈통은 50평정도 되는 갯벌을 비스듬하게 1m쯤 파 내려가고 가운데에는 무릎 닿게 구덩이를 판 후, 주변에 반 길 정도 되는 말뚝 20여 개를 박는 것이다. 이때 말뚝은 오그라지게 박아, 밑이 넓고 위가 좁게 만든다. 갈통의 밖은 대나무를 대고 엮고, 대나무 밖에는 나래로 두른다. 갈통 1개에 나래가 5축이 들어간다. 나래 5축은 짚단 25개가 있어야 만들어지는 양이다. 나래 밖은 새끼줄로 단단히 묶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갯물이 스며들 때, 모래가 갈통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때 파낸 흙은 주변에 널어 말린다. 흙을 말리는 공간은 200평 정도이다. 이곳에서 덩어리는 깨고, 뒤적거리면서 완전히 말린다.

말린 흙은 나중에 갈통 위에 쌓는데, 원 지형보다도 1.5자 정도 높게 쌓는다. 이후 사리 때 바닷물이 높게 들어오면 말린 흙을 뚫고, 바닷물이 스며들면서 염도가 높아지고, 염도가 높아진 바닷물이 갈통 속에 고이는 것이다.

갈통 주변의 흙을 퍼내고, 주변에서 말려야 되는데, 흙을 퍼내는 도구가 나레이다. 나레는 폭이 3자, 높이가 1.5자 정도 되는 판자로 소가 끈다. 나레를 경사지게 내어 소의 힘으로 퍼내는데 마치 판자로 눈을 치우듯이 밀어내는 것이다. 소가 말을 잘 들으면 짧은 시간에 퍼낼 수 있다. 이때 흙에 덩어리가 있을 경우 나레를 얹어놓고 끌고 다니면 덩어리가 부서지게 된다.

이 흙을 바삭 말리기 위하여 자주 저어 주어야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도구가 씨레이다. 논에서 사용하는 씨레와 비슷한 도구를 끌고 다닌다.

다 말려진 흙은 나레로 밀어 갈통 주변으로 옮긴다. 바삭 마른 흙이기 때문에 쉽게 밀어 올릴 수 있다. 갈통에서 일하는 소는 논을 가는 것보다 훨씬 힘들게 일했다. 이때 소가 오줌도 싸고, 똥도 샐는데 개의치 않고 그냥 흙을 말려 소금을 만들었다.

소가 없는 집에서는 모두 인력으로 해야 했다. 인력으로 퍼내고, 인력으로 씨레질을 해야 하였으며, 지게로 흙을 옮겨 쌓아야 했다.

갈통 주변에는 갈통에서 파낸 흙을 말려야 했다. 갈통 주변의 흙은 소금이 녹아 갈통으로 흘러들어갔지만, 그래도 일반 갯벌보다는 염도가 높다. 따라서 일반 갯벌을 말리는 것보다, 갈통에서 파낸 흙을 말리는 것이 훨씬 염도가 높았다. 따라서 갈통 주변에서 파낸 흙을 다시 말려 쌓아야 높은 염도의 소금물을 얻을 수 있었다. 이때 갈통 위로 1.5자 정도 높이

쌌었다.

갈통에서 퍼낸 흙은 처음에는 물기가 많아 덩어리지고, 썩레질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몇 일 동안 썩레질을 하면, 물기가 없어져 쉽게 썩레질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익었다’라고 한다.

갈통의 흙은 사리가 끝나는 7일(22일) 퍼내어 헤쳐 말린다. 이후 계속해서 뒤적거리면서 완전히 마르면, 갈통 있는 곳으로 긁어모으는데 적어도 14일까지는 긁어모으는 일을 마쳐야 한다. 1주일 안에 흙을 파내어, 완전히 말려 원위치 시키는 것이다. 이후 보름이 되면 바닷물이 많이 들어와 갈통을 덮어 바닷물이 스며들고, 점차 바닷물이 많이 들어와 바닷물이 스며든다. 이렇게 하루에 2번씩 바닷물이 스며들면서 갈통에 염도 높은 소금물이 고이는 것이다.

갈통 위에는 뚜껑을 만들었다. 나중에 뚜껑을 열고 소금물을 퍼냈다. 뚜껑 위에도 깨끗한 나래를 덮어, 모래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였다. 만약 갈통으로 들어가는 구멍이 생기면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간다. 염도가 낮은 바닷물이 그대로 들어가 갈통안의 염도가 낮아질 뿐 아니라, 모래가 따라 들어가 갈통을 매워버리기 때문이다. 이때는 갈통 속에 들어가 흙을 퍼내야 했다. 갈통의 뚜껑 위에 가마니를 올려놓기도 하였으나, 가마니를 올려놓으면 누런 물이 나오기 때문에 가마니 대신 깨끗한 나래를 덮었다.

갈통 안의 소금물은 농도가 높아야 많은 소금이 나왔다. 1술에 17~18짐을 붓고 불을 땀는데, 15도인 물은 소금이 20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20도가 넘는 것은 30말까지 나왔다.

염도를 재는 방법으로 아주 옛날에는 송진을 문쳐 실로 매달아 넣어 보았다고 한다. 송진이 가라앉으면 못 쓰는 소금물이고, 뜨면 사용할 수 있는 소금물이었다. 김기창씨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한다. 그 뒤에는 계란을 사용하였다. 계란을 넣어 중간보다 더 뜨면 좋은 물이고, 중간보다 더 가라앉으면 좋지 않은 물이었다. 김기창씨가 할 때는 염도계(비중계)를 사용하였다.

갯벌에 갈통을 파고, 마른 흙을 채워, 진한 소금물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조금한다’고 하였다. 바닷물이 많이 들어오고 많이 나가는 때를 사리, 덜 들어오고 덜 나가는 때를 조금이라고 하는데, 물때에서 말하는 ‘조금’의 어원이 아닌가 생각된다.

소금을 만들 때는 불 때는 것이 기술이다. 처음에는 약하게 때어 소금물을 익힌다. 소금물이 익으면 솥의 귀통이에서 뽀글뽀글한다. 이때 불을 강하게 때어 팔팔 끓인다. 이렇게 5~6시간을 때면 귀통이에 살얼음이 지는 것처럼 솥의 귀통이에서 소금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불을 줄여 끄느름하게 때면, 소금만 있고 물기가 없어진다. 이때 불을 완전히 끈다. 불을 때기 시작하여 소금이 만들어지기 까지 3일 동안 계속 때야 한다.

소금을 굽는 과정에서 버کم(거품)이 나오는데, 이것은 ‘시우채’라고 부르는 막대기로 밀어 건져낸다. 그래야 깨끗한 소금이 된다.

만들어진 소금은 삼태미에 담아 솥 모서리에 막대기를 걸치고 올려놓아 간수를 뺀다. 간수는 따로 모았다가 팔기도 하고,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간수를 모아 대규모로 가져가는 사람이 있었고, 드물게는 양간수도 구웠다. 간수를 끓여 드럼통에 부어 식히면 양간수가 된다. 주민들은 두부를 만들기 위해 가져갔다. 주민들이 가져가는 간수는 그냥 주었다.

간수를 뺀 소금은 ‘짜섬’이라고 하는, 한 쪽을 탄 섬<sup>1)</sup>에 모아 보관하고 판매하였다.

6.25사변 후, 한때 소금 값이 좋았다. 이때는 소금 한 말과 쌀 한 말을 바꾸었다. 당시 나무 값은 1짐에 소금 1말이었다. 이후 소금 값은 점차 내려 염전을 운영하기 어려워졌다. 소금 값이 높을 때도 천일염을 녹여 육염을 만들지는 않았다. 갈통에서 소금물을 쉽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다.

소금을 굽기 위해서는 많은 나무가 필요했다. 개목 주민들은 옥마산에 있는 원재 너머에 가서 나무를 해왔고, 봄이 되면 더 멀리 말재 너머까지 가서 나무를 해왔다. 말재 너머는 성주면 개화리 땅이다. 먹을 것을 가지고 가 하루에 1짐을 해오는 것이다.

남포면 읍내리 사람들이나 성주면 개화리 사람들이 나무를 가지고 와서 팔거나 소금과 바꾸기도 하였다.

소금 1솥을 굽기 위해서는 갈통을 3개 묻어야 했다. 만약 갈통에 물이 들어가거나, 비가 오면 그간 증발시켜온 소금물을 모두 퍼내고 다시 채워지는 바닷물을 이용했기 때문에 염도가 높은 소금물을 많이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김기창씨도 3개의 갈통을 묻었다.

소금 굽는 솥을 설치한 건물을 ‘벗’이라고 하였다. 벗은 갈통과 가까워야 했기 때문에 갈

1) 짚으로 만든 저장 도구, 2가마 용량임

통과 가까운 갯벌 안에 만들었다. 갯벌을 나래로 옮겨 쌓아, 왜사리 때에도 물에 잠기지 않는 높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벼 주변은 항상 바닷물에 침식되기 때문에 보수하여야 하였다. 솔은 보통 1개 걸었지만, 2개인 경우도 있었다. 2개인 경우는 소금을 굽는 솔보다 높은 곳에 1개의 솔을 만든 경우인데, 다음에 구울 소금물을 담아 놓는 것이다.

마을 사람 모두가 벼를 운영한 것은 아니고, 한 벼에서 3~4집이 소금을 구웠다. 개목마을 앞에는 6~7개의 벼이 있었다. 이때 남의 벼에서 소금을 굽는 사람은 1솔에 3말의 소금을 세(貫)로 냈다. 벼의 주인을 물주라고 하였고, 물주들은 벼에서 매년 정월달에 고사를 지냈다. 떡, 밥, 삼색실과를 놓고 절하는 정도로 지냈다.

갈통을 열고 소금물을 막대기에 달린 양철두레박으로 퍼내어, 나무로 된 통에 담아 지게로 운반하는데, 보통 17~18짐을 운반해 부어야 1솔이 되었다.

솔은 철공소에서 용접해서 만들었는데 사방 8자, 높이 한 뼘쯤 되었다. 이곳에 17~18짐의 소금물이 들어갔다. 아궁이는 하나였고, 굴뚝도 하나였다. 나무는 가리지 않고 때었는데, 초보자는 장작을 주로 때고, 기술자는 잎나무로도 소금을 구웠다.

생산된 소금은 장사들이 사러 오기도 하고, 배를 가진 사람들은 배를 타고 와서 사갔다. 그러나 팔리지 않은 소금은 개목 사람들이 지게에 지고 팔러 다녔다. 내륙지방인 도화담, 부여 외산, 청양 등지까지 지게에 지고 다녔다. 소금이 잘 팔릴 때는 봄에 장 담글 때와 가을철 김장 담글 때였다.

소금이 무겁고, 산골마을 사람들의 천대가 심하여 소금을 팔러 다니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산골 사람들이 개목마을로 나무를 팔러오면 심하게 대하기도 하였다.

소금은 전매품이었다. 그래서 세무서의 감시를 받았는데, 세무서에서는 무조건 육염을 못 만들게 하였다. 가끔 조사도 나왔는데 2~5명이 나와서 온 마을의 갈통과 솔에 파란 물감을 넣기도 하였다. 파란 물감을 넣으면 소금이 파랗게 되어 팔아먹을 수가 없어 마을 사람들과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법이 그렇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졌다.

세무서에서 나와 소금을 굽지 못하도록 한 것은 천일염전의 사주 때문이었다. 소비자들이 천일염보다 육염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들 소금을 팔기 위해 굽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부근의 천일염전은 대천해수욕장 근처 흑포에 있었다.

세무서 직원들의 눈을 피해 작은 솥을 만들어, 집이나 으스스한 밭둑에 솥을 걸고 소금을 구웠다. 갈통에서 소금물을 운반하기 어려웠고 소금도 한 솥에 1가마쯤 나왔다. 솥이 작았기 때문이다. 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로 소금을 구웠다.

•  
**섬**  
**(송도의 생활)**



**한 상옥** (1950년생)  
 보령시 주교면 주교리

한상옥씨는 청주한씨로 할아버지(1890년대 생)대에 송도로 입향하였다. 증조부나 고조부의 묘소가 주변인 오천면 오포리 여수해에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주변에 거주하다가 송도로 들어온 것으로 생각된다. 송도에 일가친척은 없었다.

할아버지에게는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결혼하기 전에 육지에서 나무를 해서 목다리를 건너 송도로 들어오다가 바닷물에 휩쓸려 사망하고, 작은 아들인 한상옥씨 아버지는, 1958년쯤 남의 중선배를 타고 조기를 잡으러 갔다가 실종되었다.

아버지가 실종되었을 때 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남동생(5세)과 여동생(1세) 각각 1명이 있었다. 어려운 살림에 아버지까지 실종되어 더 어려워져, 결국 초등학교 5학년을 중퇴하고 할아버지를 따라 일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도왔다. 다행히 할아버지가 오래 살아 할아버지로부터 많은 일들을 배울 수 있었다.



초등학교 5학년을 끝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일했다. 나무하는 방법, 지게질하는 방법, 김 양식하는 방법, 갯벌에서 낙지 잡는 방법 등 모든 일을 할아버지한테 배웠다. 특히 낙지 잡는 법은 할아버지한테 배워 송도 최고의 기술자가 되었다. 현재 주변에서 최고의 기술자이다.

한상옥씨의 어머니는 30여 살의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시부모를 모시면서 3남매를 키웠다. 매일 갯벌에 나가 바지락을 잡아 팔고, 겨울에는 김을 뜨고, 굴을 따다 팔았다. 논이 없어 식량은 사다 먹어야 했다. 자식들을 교육시킬 여력은 없었다.

송도 주민들은 물이 나가면 걸어서 목다리를 건너 송학리 안산을 통하여 송학초등학교도 가고, 대전장에도 갔다. 송도에서 안산 쪽으로는 바위와 모래톱이 이어졌으나, 갯골을 건너야 했다. 이 갯골에 돌을 쌓아 썰물 때 건너는 것이다. 수레는 다닐 수 없었고, 자전거도 메고 가야 했다. 센 물살에 돌들이 자주 떠내려갔기 때문에 주민들이 선달그름이나 정월 보름날, 팔월 보름 등 명절에 모여 돌을 다시 쌓았다. 이날은 6매 날이라 오전에 일하기 좋았다.

이 목다리에서는 한상옥씨의 큰아버지가 사망하기도 했고, 1980년대 송도분교 선생님의 어머니가 건너다가 사망하기도 했다. 위험한 다리였다.

물이 들어오면 송도 주민들은 배를 타고 고정리 고만으로 통하였다. 배는 마을에서 마련하였고, 배를 부리는 사람도 마을에서 고용하였다. 1년 단위로 고용하였는데 마을에서 돈을 거두어 주었다. 이 배는 썰물 때는 일이 없었고 들물 때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고만까지 태워다 주었다. 배를 대는 곳은 송도 윗섬 북쪽 해안이었으며, 배를 기다리는 곳은 고정리 고만마을 서쪽 돌출부였다.

송학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목다리에 물이 차면, 지체 없이 사당굴을 돌아 고만까지 와서 ‘배 태우러 와요’하고 소리 질렀다. 그러면 뱃사공은 소리를 듣고 태우러 왔다. 그래서 뱃사공은 멀리 가지 못하고 늘 배 주변에 있어야 했다.

옛날에는 돛대도 없이 노를 저어 운영하다가 후에 경운기 엔진을 달아 운영하였다. 보령 화력이 생긴 후, 송도가 도로로 연결되어 없어졌다.

옛날 송도의 어린이들은 송학초등학교에 입학하였는데, 대개 1~2년 늦게 입학시켰다. 통학거리가 멀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목다리가 위험하기 때문이었다. 한상옥씨가 학교에 다닐 때에는 늘 할아버지가 목다리까지 마중 나와 있었다. 할아버지의 큰아들이 목다리에서

사망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송도 어린이들이 통학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당국에서는 송학초등학교 송도분교를 1974년에 개교하였다. 송도분교는 3학급으로 편성되었고 1학급에 2학년씩 수업을 하였다. 학교는 교실 3칸 교무실 1칸 해서 4칸이었고, 사택은 2채였다. 선생님은 3분 있었다. 2000년에 폐교되었다.

보령화력이 들어서면서 고정리 조금나루에서 송도까지 제방을 만들어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게 되었고, 송도 아랫섬에서 고정리 솟바리로 통하는 길도 만들었다. 이 길에는 다리를 놓아 바닷물과 배가 통하도록 하였다. 조금나루에서 만들어진 제방을 통하여 버스도 들어왔다. 버스는 아랫섬까지 하루에 3~4회 들어왔다.

과거 송도에는 논도 별로 없고, 밭도 많지 않아 김발을 매어 주업으로 삼았다. 송도 남쪽 바다에 댘인데, 송학리 안산 서쪽에서부터 송도 용구녕 앞까지 댘다. 넓은 바다에 노출되어 있어 파도는 심했지만 김은 잘 되었다. 처음에는 말장을 박고, 대나무를 엮어 소위 지주식 양식을 하였으나 점차 대나무 대신 그물을 매다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나중에는 희를 매달아 바다에 띄워 양식하는 지주식 양식도 하였다. 양식에 필요한 자재는 판매하는 업자가 있어, 모두 사서 사용하였다.

김 포자는 처음에는 윗섬 마을 북쪽, 소위 조개땅이라는 데서도 붙이고 송도 남쪽 바위 있는 곳에서도 붙였다. 송도 남쪽에 있는 바위 있는 곳에는 포자가 잘 붙어 그냥 김발을 설치하면 되었다. 소위 '도다'가 붙지 않아 김의 품질도 좋았다. 나중에는 전남 부안에서 인공 포자를 가져다가 붙이기도 하였다.

김발을 설치하는 지역은 처음에는 심지를 뽑아 결정했는데, 하던 곳에서 계속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대로 하였다. 모두 잘 되었기 때문이었다.

한상옥씨는 할아버지와 함께 할 때는 20여 떼, 나중에 장성하여서는 40여 떼를 댘다. 처음에는 소나무로 말장을 박고 대나무를 쪼개 김발을 댘고, 나중에는 그물로 댘다. 온 식구들이 총 동원되어 김을 생산하였고 송도분교에 다니는 초등학생들까지 도와서 김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2~3동, 즉 2000~3000장을 생산하였다. 힘든 일이었지만 소득은 좋았다.

김살 밑에서는 낙지도 잡고 바지락도 캐고, 굴을 따기도 하였다. 특히 한상옥씨는 할아버

지한테 배운 기술로 많은 낙지를 잡아 팔았다. 낙지 구멍만 보아도 크기까지 알 정도이다. 낙지구멍의 특징은 부룻이라는 파란 구멍이 있는 것이다. 이곳은 낙지가 숨쉬는 숨구멍으로 근처에 들어간 구멍도 있다. 두 구멍 사이는 대략 50cm 정도이다. 봄에는 낮게 들어가 손만 넣어도 잡히는 정도이다. 잡은 낙지는 송도의 식당에 팔거나 어머니가 대천에 나가 팔았다.

송도 안쪽 바다, 즉 현재 회처리장이 있는 곳은 썰물이 되면 갯고랑만 남고 모두 드러나는 곳이었다. 바닷물이 들어올 때는 숫바리 마을 앞으로 해서 들어오고, 썰물 때도 그곳을 나간다. 목다리 쪽으로 들어오는 물이 목다리를 넘쳐야 솔섬 안으로 넘어온다. 물의 주 통로는 고정리 숫바리 앞이었다.

송도 안쪽 바다는, 김양식은 하지 않았지만 각종 해산물이 풍부하였다. 낙지도 있었고, 굴과 바지락 등도 많았다. 송도 남쪽 바다와 같았다. 송도 주민들은 갯고랑 건너 고정리 쪽에서도 해산물을 잡았다. 갯고랑은 고정리 숫바리 마을 앞과 송도 위섬 북쪽에서 건널 수 있었다.

송도의 서남쪽 바다, 즉 용구녕 앞바다에는 주벽도 땀었고, 발전하여 낭장망도 땀다. 주벽은 큰 나무 기둥을 세우고, 자루 같은 그물을 매단 것이고, 낭장망은 나무 기둥 대신, 큰 돌과 희를 매다는 것이다.

5~6가구가 이런 그물을 매고 고기를 잡았다. 잡힌 고기는 까나리, 실치, 열치, 빈맹이, 오징어, 꽃게 등이었다. 까나리나 실치 같은 작은 고기는 삶아서 장벌에 말려 팔았다.

송도는 붙어 있었지만 윗섬과 아랫섬으로 불렸다. 윗섬은 동쪽인 송학리 안산 쪽이고, 아랫섬은 서쪽이다. 마을도 2개로 구분되어 불렸고<sup>1)</sup> 당집도 각각 있었다. 당산이 윗섬과 아랫섬에 각각 있었던 것이다. 당제는 각각 지냈으나 정월 초이튿날 같은 날에 지냈다.

윗섬에는 여러 성씨가 모여 살았고, 아랫섬에는 유씨가 많이 살았다. 총 가구 수는 50~60가구 되었는데 윗섬에 좀 더 많이 살았다.

윗섬에서는 정월 초이튿날 당제를 지냈다. 1950년생인 한상옥씨가 청년 시절에 당집에 올라가 당제지내는 일을 거들었다는 증언으로 보아 1970년대까지 당제를 지낸 것으로 보

1)반이 달랐음

인다.

제물은 떡과 밥, 삼색실과 정도였고, 초이튿날 마을의 풍물패와 함께 올라가 새벽에 지냈고, 다음날에는 썸제를 지내고, 마을 안에 있는 팽나무에서 거리제를 지냈다. 팽나무를 거리땅이라고 했다.

한상옥씨가 어렸을 때는 뱃기를 가지고 당집에 올라갔으나 점차 없어지고 그냥 당제만 지냈다고 한다. 송도에서 사용한 뱃기는 5색으로 된 깃발로, 한복집에서 사다가 사용했다고 한다.

송도에서 어업을 하는 사람들은 뱃고사를 지냈다. 대개 정월 열나흘날 지냈는데 5색 뱃기를 달고, 돼지머리, 떡, 밥, 삼색과일 등 제물을 마련하여 선주가 지냈다. 당제와 상관없이 지냈다. 어떤 경우는 봄에 출어하기 전에 13매 날이나 14매 날에 지내기도 했다. 선주가 조용히 지냈다.

송도에는 5~6척의 유자망 어선이 있었다. 이들은 5~6명의 선원을 태우고 외연도 근처에 가서 광어, 강개미, 도다리 등을 잡았다. 당시 강개미는 바로 죽어 얼음을 채워 상자에 담지만, 광어는 최대한 살려 바닷물이 순환되는 간에 넣어가지고 왔다. 이들 유자망 어선은 1주일이나 10일 만에 들어오는데 많이 잡으면 오색 깃발을 달고, 술을 마시면서 흥겹게 들어왔다.

송도 주민들은 섬 동쪽의 목다리를 지나 송학리 안산으로 통행 하였다. 따라서 육지 송학리 쪽으로 많이 소통하였고, 고정리 한여 마을 쪽으로는 소통하지 않았다. 한여 마을 사이에는 썰물 때도 깊은 갯고랑이 있어 소통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령화력발전소가 만들어진 뒤에 한여 마을이 없어지고 주민들이 송도 바로 북쪽에 있는 솟바리 마을로 이사 온 뒤에는 소통을 많이 하였다. 발전소에서 제방을 만들고 다리를 놓아주어 자주 통행했기 때문이다.

한상옥씨는 송도에서 이주한 뒤에도 송도에 출입하면서 낙지를 잡는다. 봄에서 가을까지 잡는데, 봄에는 구멍이 낮아 잡기도 쉽고 크기도 크다. 그러나 제일 좋은 때는 10~11월이다. 이때는 많이 잡히기도 하지만 맛도 좋다. 한상옥씨는 낙지철이 되면 1달에 15일은 낙지를 잡고, 하루에 50여 마리를 잡아 판다. 할아버지한테 전수된 기술이 있어 낙지를 잘 잡는다.

●  
원홍주등육군상무사  
(元洪州等六郡商務社)



**김 동 균** (1937년생)  
보령시 대천동

김동균씨는 1937년 김필제의 6남으로 태어나, 9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형님들 손에 자랐다. 청소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광흥중학교에 다니다가 중퇴하고, 청소면 재정리에 있는 서당에 1년 넘게 다니면서 한문을 배웠다.

집안에서 장사를 시작한 사람은 둘째형이었다. 둘째형은 일제강점기에 서울로 올라가 장사를 시작하여 성공하였다. 6.25사변으로 고향으로 내려와서도 옷 장사를 하였다.

당시 김동균씨는 결혼을 하고, 월급 5000원을 받고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형의 권유로 장사를 시작하였다. 30세쯤 되었고 1960년대이다. 1년간 따라다니면서 장사를 하다가 독립하였고, 형님은 장차를 운영하는 운수업을 하였다.

형한테 물려받은 장사는 옷 장사였다. 옷은 속옷부터 겹옷, 양말부터 모자까지 모두 취급하였다. 대천장, 광천장, 홍성장을 보았고 하루는 서울에 올라가 물건을 사왔으며, 하루

는 쉬었다.

당시 잘 팔린 물건은 외국에서 들어온 구호물자였다. 구호물자는 서울에서 서로가 경쟁적으로 사다가 팔았다. 청바지는 새 옷보다도 헌 옷이 더 잘 팔렸다. 당시 잘 팔리던 청바지가 빅스톤, 쌍마 청바지였다. 새 청바지를 입던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청바지에 땀을 닦는 옷지 못할 일도 있었다.

물건은 잘 팔려 없어서 못 팔 지경이었다. 어떤 때는 모두 팔아 빈 보자기만 가지고 올 때도 있었다. 제일 잘 팔리는 물건은 일할 때 입을 겂옷이었다. 당시는 누구나 육체노동을 했기 때문에 겂옷이 쉽게 떨어졌다. 빨기도 전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5일장에 가지고 다니는 물건은 서울에서 조달했다. 처음에는 광천에서 새벽 5시 50분차를 타고 서울에 가서 물건을 사왔는데, 남대문·광장·평화시장이 대표적인 곳이었다. 그 가운데 평화시장에서 가장 많은 물건을 사왔다. 이때가 전태일이 자살할 때였다.

물건이 많아 사는 대로 한 곳에 맡겨놓았다가 가지고 왔다. 대개 7개의 보따리를 가지고 왔는데, 서울역에 미리 나와 열차에 실어 놓고 타고 내려왔다. 오후 6시 40분차였다. 광천에 도착하면 가족들이 마중 나와 도와주었다. 이때는 소매치기가 많아 현금을 전대에 차고 다녔다.

경부고속도로가 뚫린 뒤에는 천안까지 기차로 가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들어가 물건을 사서 기차에 싣고 내려왔다. 통행금지가 풀린 뒤에는 대전·광천·홍성을 경유하는 버스가 있어 저녁에 서울로 올라가 물건을 사서 새벽에 내려왔다. 이때 도매시장은 저녁 11시에 문을 열고 새벽 6시에 닫았다.

부근의 5일장에서 장사하는 장사꾼은 모두 광천에 살았다. 광천에서 장보러 다니는 사람이 45명이었다. 광천 장사꾼들이 가야 장이 설 정도였다. 김동균씨는 광천에 집을 두고 대전장과 홍성장을 다니면서 장을 보았다. 장집은 새벽에 장차라고 하는 트럭으로 운반하였다. 광천의 장사꾼들이 트럭을 빌려 운반하는 것이다.

장차의 적재함에는 사람이 탈 수가 없어, 적재함 가운데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두고 짐을 싣고 다녔다. 중간에 있는 청소지서와 주포지서에는 가끔 인사를 해야 무탈하게 다닐 수 있었다. 장차에는 장사꾼 모두가 탈 수 없어 주로 젊은 사람들이 타고 대부분은 새벽 기차로 이동하여 천막을 치고, 물건 팔 준비를 했다. 광천에서 새벽 5시 50분차가 교행

했는데 이 차를 이용하였다.

장차에는 짐을 날라주는 인부도 리어카와 함께 싣고 다녔다. 이들이 장보는 데까지 짐을 날라주고 저녁때도 트럭에 실어주어 오는 것이다.

옷이 많이 팔리는 때는 계절이 바뀌는 봄과 가을이었다. 그리고 명절 때 많이 팔렸다. 명절 때는 서울에 올라가 공장에 다니던 처녀들이 내려와 많이 사갔다. 이들이 대천역에 내려서 시장에 들러 많은 물건을 사 갔다. 동생들에게 줄 옷을 사간 것이다.

5일장에 다니는 장차에는 옷과, 옷감, 농기구, 철물 등 모든 상품이 망라되어 있었다. 당시에는 장날 장을 보아야 물건을 살 수 있었고, 팔 수도 있었다. 옷은 물론이고 제사를 지내려고 해도 장을 보아야 했다.

김동균씨가 상무사에 관하여 안 것은 아주 어렸을 때였다. 일제강점기에 보니까 한식날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흥도원으로 올라가는데, 모두 넥타이를 맨 신사들이었다. 아침 11시까지 올라가는 행렬을 보고 자랐다.

이 원흥주등육군상무사에 가입하게 된 것은 청양임소의 최영감(최성덕) 때문이었다. 같이 장사하러 다니면서 김동균씨를 믿음직하게 본 전 접장인 최영감이 불러들여 활동을 시켰고, 광천임소를 책임지는 부접장이 되도록 도와주었다. 광천임소의 부접장도 선거로 당선되었다.

당시에 원흥주등육군상무사에서 힘써 일한 분들은 청양의 최성덕, 남양의 최양식, 화성의 조종길, 운곡의 정고용, 홍성의 최동구, 갈산의 정성규, 용호의 이선군, 평촌의 김갑용씨 등이었다. 남양의 최양식씨는 의사였는데 상무사 일에 적극적이었고, 당시 상무사의 도영위였다. 이분들이 밀어주어 1989년 접장에 당선되었다.

1989년 2년 임기의 원흥주등육군상무사 접장에 당선되었다. 당시 상무사에서 힘써 일한 분들의 도움으로 무투표로 당선되었다. 최성덕 접장의 후임이었다. 최성덕씨가 그렇게 만든 것이었다. 임기 2년을 채운 후, 다음 임기 때에는 투표로 당선되었다.

원흥주등육군상무사에는 명절날 차례를 지내는 전통이 있었다. 김동균씨는 옛 전통을 철저히 지켰다.

설날과 추석날은 아침 일찍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기 위해 마동에 있는 큰집으로 갔다. 이때 부인은 큰집에 가지 못했다. 상무사의 차례를 준비하기 위함이었다.

큰집에서 집에 돌아온 접장은 11시에 상무사 차례상을 차려놓고 제를 올렸다. 제상은 2상 차리는데, 한 상은 역대 접장들을 위한 상으로 예부터 내려오는 접장명단을 펼쳐놓고 지낸다. 이 제상보다 낮은 상은 무한산상(無閑散床)이라고 하여 이름 없이 죽은 선배 상무사 회원들을 위한 상이다. 지방은 없고, 큰 그릇에 술과 밥, 많은 숟가락과 젓가락을 놓는다.

명절날은 각 임소에서도 와서 접장과 함께 차례를 지내는 것이 전통이었는데, 면담자가 관찰할 때는 청양과 홍성 2곳의 임소에서 2명이 참석하였다.

제는 분향하고, 술을 따라 올리고 절하는 것으로 끝난다. 축문은 없다.

원흥주등육군상무사에서는 한식 때 여러 제를 올렸다. 한식 전날은 홍도원 묘사(墓舍)에서 제물을 차려, 예산군 광시면에 있는 초대접장 임인손 묘에서 제를 올린다. 이때 각 임소에서는 청사초롱을 가지고, 또 술 1병씩을 가지고 와서 참여한다. 1990년대 초반 하여도 20~30명이 참여하였다.

먼저 접장이 분향하고, 술을 따라 올린 후, 상무사의 간부들이 술을 올린다. 이어서 후손들도 술을 올리고, 각 임소에서 온 사람들도 자기들이 가져온 술을 따라 올리고 절한다.

제를 마치면 음복을 하고, 모든 제물을 참석자에게 나누어 준다. 옛날에는 짚으로 꾸러미를 만들어 싸 주었다고 한다.

한식날은 홍도원에서 제를 올렸다. 이날은 각 임소에서 청사초롱을 들고 와 모두 참석하고, 각 기관에서도 참석하였으며 마을 사람들도 참석하였다. 이날 접장은 철도까지 나가 도영위 등 선배들이 오는 것을 마중하여 맞아들였다. 풍물패도 불렀는데 주로 웅암의 풍물패가 와 풍물을 쳐 주었다.

지금은 마당에서 함께 올리지만 김동균씨가 접장을 할 때만 하여도 들것으로 제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묘에서 각각 지냈다. 모두 6곳에 제를 지냈으며 산신제까지 7상이었다.

제일 먼저 지내는 것이 산신제였다. 이것은 접장이 직접 지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지냈다. 다음에는 비석이 있는 데서 지내고, 허반수에게 지내고, 계속해서 지낸다. 마지막으로 무한산에서 지내는데, 명절 때 접장 집에서처럼 많은 밥, 많은 술, 많은 수저를 놓고, 다른 제물은 일반 상처럼 차린다. 밥을 일구면서 나온 수많은 찌의 주인공들에게 지내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제를 올린 곳이 어디어디인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른다. 남쪽 언덕에 있는



모는 최성덕씨가 일본놈하고 싸우다가 죽은 사람 묘라고 하면서 제를 올렸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른다. 김동균씨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분은 없다. 안타까운 일이다.

제를 마치면 묘사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어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모든 제는 접장이 주도하여 제를 올렸고, 모든 사원들은 접장을 영감님이라고 불렀다.

한식 다음날은 홍성군 장곡면 옥계리에 있는 정건모의 묘에서 제를 지냈다. 이분은 아들이 없고 따님만 한 분 있었는데, 상무사에 장곡면 옥계리 426번지 701평의 땅을 기부하고 제사를 부탁하고 사망했기 때문이다. 땅은 묘 아래에 있는데 요즈음은 경작료로 쌀 1가마를 받고 있다.

김동균씨가 접장으로 제향을 올릴 때만해도 딸과 사위가 참석했었는데 현재는 모두 사망하였다. 묘지를 누가 관리하는지도 모른다.

현재는 홍도원에서 지방을 붙이고 제를 올린다.

현재는 모든 제향을 묘사 마당에서 한꺼번에 지낸다. 한식 전날 지내던 초대접장 임인손도, 한식날 홍도원에서 지내던 6곳도, 한식 다음날 장곡면 옥계리 정건모도 모두 지방을 써 붙이고 한꺼번에 지낸다. 명절날 접장 집에서 지내던 차례는 지내지 않는다. 모든 것이 간소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한식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제를 올리고 회식을 한다.

총회는 임원을 개선허할 때 열었다. 총회를 열기 위해서는 날을 잡아야 하는데, 한식제날은 홍도원에 각 임소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잡는다. 날짜와 장소가 결정되면 각 임소에서는 청사초롱을 들고 총회장소로 온다.

이때 도영위와 접장보다 높은 사람들이 행사장 입구에 이르면, 접장이 나가 마중하여 모셔온다. 이들이 도착하면 먼저 공문제를 지낸다. 공문제는 청금록과 선생안, 인장 등을 제상에 올려놓고 제를 지내는 것이다. 이들 문서와 함께 제물도 차리고 분향하고 술도 올린다. 모두 접장이 진행한다.

공문제를 마치면 회의를 진행한다.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접장을 뽑는 일이다. 선거에 의해 접장이 선출되면 즉석에서 차증을 써, 도영위가 차증(임명장)을 수여한다.

현재는 접장의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5년에 1번씩 총회가 열린다.

접장 등 상무사의 간부를 역임하고 사망하면 상무사에서 제상을 차려주었다.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제물을 마련하여 빈소에 찾아가 제사를 별도로 올렸다. 김동균씨의 경우는 4명에게 제를 올렸다고 한다.

## • 셋개포구의 변화



**김 동 진** (1939년생)  
보령시 명천동

김동진씨는 경주김씨로 고대도가 고향이다. 고대도에는 할아버지가 이주하여 생활하였으며, 2살 때 아버지가 삼시도로 이주하였다. 7살 때에 아버지가 열이 나는 병에 걸렸는데, 작은아버지가 아편을 주사하여 돌아가셨다. 이때 어머니는 4남매를 데리고 있어 생활이 어려워지자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삼시도에서 머슴 사는 분에게 재가하여 김동진씨는 의붓아버지 아래에서 성장하게 되었다.

삼시도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줄곧 남의 농사일을 하였다. 내 땅이 없었고, 멀미 때문에 배도 탈 수 없어서 품삯을 받고 남의 농사일을 하였으며, 몇 마지기의 소작논을 짓기도 하였다. 박영삼씨네 논이었다. 6.25무렵에는 7년 동안이나 가물어 벼는 심지도 못하고 고구마와 조를 심어먹었다. 삼시도에서도 아주 가난한 생활을 하였다.

어렸을 때 작은아버지가 아편 맞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가 열병을 앓았는데 치료한다고

아편을 놓아 돌아가셨다. 작은아버지는 저녁에 아편을 맞았는데, 철사 손잡이가 달린 조그마한 쇠그릇에 아편을 녹여 끓여서 자기 몸에 주사하였다. 당시에 고대도 사람들은 대부분 아편을 맞았다. 삼시도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안정된 생활을 해서 그런지 아편 맞는 것을 보지 못했다.

작은아버지는 홍어배 사고로 1960년경 2월 23일 돌아가셨다. 흑산도 밖에서 돌아가셨는데 시신도 찾지 못했다.

6.25당시 안면도에는 공산주의자들이 많았다. 그들 중 일부가 삼시도로 들어왔고, 삼시도에 피난 와 있던 이항우씨와 박영삼씨 사위 김홍도씨, 박영삼씨 아들 박창래씨 등에게 구타와 함께 위협으로 총을 쏘았고, 칼로 얼굴을 베기도 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이 이들을 안면도로 끌고 가려고 배에 태우고 출발하였다. 그러나 배가 고장나 고치는 사이에 이항우씨 등 경찰들이 반격을 가하여, 공산주의자들을 제압하고 모두 사살하였다.

이렇게 된 것은 박영삼씨가 공산주의자들한테 양조장에서 내린 소주와 돼지고기를 충분히 주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자들이 이것을 먹고 취했기 때문에 제압할 수 있었다고 한다.

양조장의 술독에 숨었던 경찰들이 발각된 것은 당시 삼시초등학교 교사였던 두 선생이 밀고했기 때문이었다. 나중에 이들은 주민들과 같이 외연도로 피난하였으나, 외연도에서 해군들에 의해 살해되었다. 돌을 매달아 바다에 빠뜨려 죽였다고 한다.

삼시도에서 온 공산주의자들 중에서도 한 사람이 살아남았다. 죽은 척하여 살아난 것이다. 그러나 수복 후에 결국 죽었다고 한다.

삼시도에는 진짜 인민군 1개 소대쯤이 들어오기도 하였다. 이들이 들어와 부잣집이라고 박영삼씨네를 불태우려고 하였으나, 양조장을 하는 박영삼씨가 잘 대접하여 불을 놓지 않았다고 한다.

수복 이후에는 안면도의 공산주의자들을 50여명 신고와 삼시도의 학교 건물에 가두어 두었다. 이들을 심사하여 삼시도 북쪽의 바다에 돌을 매달아 빠뜨려 살해하였다. 시신이 바다에 떠다녔다.

21살 때인 1959년 12월 8일 입대하여 의무병으로 근무하였고 제대 후에는 매제의 소개로 충북 단양의 석회석 공장에서 일했다.

석회석 공장을 약 3년 다닌 후에 비단장사를 하였다. 대구에서 비단을 받아 등집으로 지

고 시골에 다니면서 팔았다. 당시에는 시집가는 신부가 저고리와 치마를 만들어가기도 했지만, 옷감으로 가져가기도 했기 때문이다. 비단을 짠다고 보령 관내에 있는 섬들을 모두 다녔다. 이때가 1960년대 말이었다.

비단장사가 잘 안되어 건어물장사를 하였다. 섬에서 자랐기 때문에 건어물장사가 맞았다. 각 섬에 다니면서 멸치나 김을 사서 서울 상회에 팔았고, 어떤 때는 부산이나 목포에 가서 팔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수협 중매인이 되었다. 수협 중매인은 재산을 담보하면 누구나 될 수 있었다.

한 번은 말린 까나리를 두 차 사서 서울로 가져갔다가, 가격이 안 맞아 창고에 넣었는데 상회의 직원이 모두 팔아먹는 일도 있었다. 까나리 값을 받지 못하고 모두 손해를 보았다.

대전간척지가 만들어진 후, 홍어뿌리를 매립하고 집을 지었다. 이곳에 처음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최순방씨 네였고, 다음은 이기원씨 네였으며, 다음은 김명수씨 네였다. 최순방씨 네가 제일 먼저 섬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시작하였는데, 집이 좁아 방이 2칸 밖에 없었다. 이후 이기원씨 네가 집을 크게 확장하여 5~6칸의 방을 마련하고 섬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였다. 자연히 섬사람들은 이기원씨 네로 모여들게 되었다. 이기원씨 네는 식당과 연관 역할을 하였다.

이곳에 있던 집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수도도 없었다. 그래서 허드렛물은 간척지로 내려가는 물을 이용하였고, 먹는 물은 갈머리 비석있는 곳 근처에 좋은 우물이 있어 길어다 먹었다. 리어카로 실어다 먹었다.

섬에서 대전 시내로 들어오는 배는 1970년 이전에는 썰개에 댔고, 그 이후에는 대전간척지 제방이 시작되는 ‘홍어뿌리’에 댔다. 이곳으로 들어오는 배들은 외연도, 호도, 녹도, 삼시도에서 출발한 장배들이었다. 삼시도의 경우에는 장배가 2~3척 있었다. 장날 들어오는 배는 모두 10여척 되었고,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배를 접안할 때 특별한 시설은 없었고, 가에다 대고 나무판자를 걸쳐놓고 내렸다. 배는 나무판자를 가지고 다녔다.

배로 물건을 싣고 오면 대전에서 리어카를 끄는 사람들 10여 명이 와서 짐을 실어주었다. 이들은 제방을 타고 다녔다.

섬에서 들어오는 배들은 대개 대전장 안날(양력 2일, 7일)에 들어와 짐을 내리고, 다음날 장을 보아 섬으로 향하였다. 1박2일로 장을 본 것이다. 그래서 홍어뿌리에 섬 주민들을 상대

로 하는 밥집이 생겼다. 밥집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잤다. 잠은 여럿이 함께 잤고, 방세는 내지 않았다. 밥을 먹으면 잠은 그대로 잤다. 밥도 반찬이 별로 없었고 값도 싸다.

홍어뿌리에 배를 대는 것은 1980년대에 들어와 소멸되었다. 어항으로 들어오는 것이 여러 가지로 편리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장배들은 어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때 녹도 주민 박상태씨가 대천천을 따라 배가 들어오지 않으면 섬 주민들이 아주 불편해진다고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는데, 막상 생활해 보니 어항으로 들어오는 것이 훨씬 편리하였다. 셋개로 들어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불편했다.

과거에는 배가 대천천을 따라 깊숙이 들어와 셋개 앞에 배를 댔고, 철다리 아래까지 배를 댔다. 물때가 맞지 않으면 기다렸다가 만조 때 깊숙이 들어왔다. 이곳에는 구시에서 구말 쪽으로 건너가는 징검다리도 있었다. 이 다리는 1979년 홍수 때 유실되었다.

이때 배를 독에 바짝 대면 뺨을 밟지 않고 상륙할 수 있었고, 낮은 곳에 대면 뺨에 빠져야 상륙할 수 있었다. 대개 간척사업 이전에는 셋개와 철다리 근처까지 배가 들어왔으나 간척사업으로 물길이 바뀌고 퇴적이 이루어져 배가 들어오기 어렵게 되었다.

이곳에도 섬사람들이 단골로 드나들던 여관이 있었다. 구시 장미여인숙 옆에 있던 금성여관이었다. 밥은 시내이기 때문에 각자 먹었다. 주로 친척집에 다니면서 먹었다.

중앙시장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장사꾼들이 구시 장미여인숙 근처에서부터 송림병원까지 죽 앞아서 물건을 팔았다. 섬사람들이 해산물을 팔기도 하였다.

옛날 철교근처까지 배가 들어올 때는 태영아파트 앞에 있는 송어뚝병이라는 웅덩이에 배를 많이 댔고, 이곳에서 배를 만들기도 하였다. 이곳을 과거 해소포(蟹所浦)라고 하였다.

구시에 있는 셋개포구가 쇠퇴하면서, 포구 앞에 간척지를 막았다. 이 간척지는 박민환씨가 막았는데, 국가에서 막은 대천간척지와 비교하여 ‘민간간사지’라고 불렀다. 대천간척지를 막은 후 구시에 있는 셋개가 쇠퇴하였으므로 셋개 앞에 간척지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간척지는 민간인이 시원찮게 막아 7월에 물이 많이 들어오면 넘쳐 무너지곤 하였다.

홍어뿌리에 섬배들이 들어오면 대천역 앞에 있던 리어카꾼들이 몰려오고, 장사꾼들도 몰려와 작은 시장이 만들어졌다. 섬에서 가져온 각종 젓갈, 건어물 등이 거래되었다. 생선이 많이 나오는 봄에는 젓거리인 등퍼리나 빈뎡이가 들어와 갈머리나 신대리 주민들이 리어카를 끌거나 지게를 지고 나와 사다가 젓을 담기도 하였다.

이곳에는 수수료를 받고 물건을 중개해 주는 사람도 있었다.

대전간척지를 막을 때 돌은 왕대산에서 가져다 쌓았다. 돌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대전천을 가로질러야 하기 때문에 현재 고속도로 있는 곳에 다리를 놓고 가시랑차<sup>1)</sup>가 다녔다. 이 다리 때문에 섬에서 출발하여 셋개로 들어오는 배들은 불편하였다. 작은 배만 다닐 수 있었고, 좀 큰 발동선은 들어올 수 없었다. 2톤짜리 배도 돛대를 접어야 통과할 수 있었다.

섬사람들은 장배를 타고 구시 셋개로 출입했기 때문에, 구시 사람들과 소통하였다. 서로 혼인을 하기도 하고, 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있으면 구시에 방을 얻어 자취를 시켰다. 그래야 부모들도 묵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

1) 레일 위에 무거운 짐을 싣고 운반하는 도구.

●  
**녹도리 관내의  
 무인도서  
 이야기**



**김성용** (1938년생)  
 보령시 오천면 녹도리

### 녹도, 호도의 어촌계 분리

녹도와 호도는 원래 한 동네였다. 이장도 하나였고 어장도 함께 하였다. 그러나 근래 어촌계가 만들어질 때 서로 분리하였다. 어장도 분리하였다.

### 분점

호도 옆에 있는 섬이다. 호도로 붙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해도 상에는 명덕도라고 기록되어 있다. 분점 너머에 있는 명택이(명덕도)를 잘 못 기록한 것이다.

분점은 녹도의 주요 연료 공급지였다. 호도는 산이 많고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무인도로 나무하러 갈 필요가 없었고, 녹도 사람들이 사방의 무인도로 나무하러 다녔다. 심지어는 삼시도 아래 불모도까지 나무하러 다녔다. 분점도 녹도 주민들의 주요 연료공급지였다. 나무



는 녹도 사람들이 모두 베어서 없는 것이다. 요즈음 나무가 생기고 있다.

분점에서 큰 구렁이를 잡았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어느 5월 해녀들이 보았는데 큰 구렁이가 분점에서 내려와서 뱃사람들이 잡아먹었고, 해녀들은 무서워 작업을 못했다고 한다.

### 갯질미(소길산도)

길산도의 가장 동쪽에 있는 섬이다. 길산도(질미)는 큰 4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큰 질미, 가운데질미, 갯질미, 붙은질미라고 부른다.

갯질미는 호도 어촌계에 속한다. 다른 질미는 호도와 녹도가 남북으로 갈라 어업권을 나누는데 갯질미는 호도에서 관리한다. 홍합이 많이 난다. 주변에 주벽을 매 보았으나 고기가 많이 들지 않았다고 한다.

### 가운데질미(중길산도)

질미의 가운데에 있는 섬이다. 섬의 북쪽은 녹도에서 관리하고 남쪽은 호도에서 관리한다. 세모, 김, 고동, 홍합, 해삼, 전복 등이 나온다. 홍합이 아주 많이 나온다.

물이 많이 나가면 큰질미에서 건너갈 수 있다. 1년에 한두 번이다.

### 붙은질미(속질미)

큰질미하고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반물<sup>1)</sup>만 쓰면 연결되어 건너갈 수 있다. 남쪽에는 자갈로 이루어진 장벌이 있다. 북서풍의 의지라 생겨난 것이다. 북쪽으로 치우쳐 있어 녹도에서 관리한다. 해산물은 다른 섬과 같이 해초, 홍합, 해삼, 전복이다. 큰질미 사이에 썰물 때 드러나는 곳에는 과거 굴과 김이 많이 돋았다. 현재는 굴이 없다.

질미는 원래 녹도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주벽어장을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김성용씨의 아버지 대에 이곳에서 호도 사람들과 녹도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코뼈가 부러지는 사고도 있었다. 옛날부터 어장 관할권을 가지고 다툼이 있었다.

1) 물이 절반 나가는 것.

### 큰질미(대길산도)

질미 중에서 제일 서쪽에 있고 가장 큰 섬이다. 1970년대 초까지 5가구가 거주하였고, 과거에는 12가구까지 거주했다고 한다. 안면도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살았고, 녹도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와 살았다. 해안은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중턱 평평한 곳에 마을이만 들어섰다.

마을의 샘은 동남쪽 끝 해안에 있었다. 물이 많이 들어오면 잠길 정도의 위치이다. 주민들은 해안 급경사를 오르내리면서 생활하였다. 큰질미에는 해안에 배를 대고 오르는 길, 샘에 다니는 길이 있었다.

주민들이 소유한 배는 모두 작은 배였다. 바람이 불면 모두 물에 올려놓았다. 날이 좋으면 이 작은 배를 타고 녹도로 왕래하였다.

큰질미의 남쪽에서는 김성용씨가 36년 동안 삼각망을 하였다. 황금어장이었고, 민어, 농어, 도미, 광어 등 고급고기를 많이 잡았다.

등대는 20여년 전에 세웠는데, 고정리로 들어가는 석탄배 때문에 만들어졌다.

### 1972년 가운데질미에서 덕적도 중선이 난파되어 9명이 사망하였다

가운데질미의 남쪽에 있는 물속 바위인 송구녀에서 1972년 한식 때, 덕적도 선적의 중선배가 부딪쳐 난파되었다. 배가 뒤집혀 9명이 사망하고 1명만 살아남았다. 대부분은 선실에서 잠을 자다가 변을 당했다. 기관장과 젊은 화장만 탈출하였는데 기관장은 갯질미 사이로 해서 북쪽으로 떠내려가 죽고, 젊은 화장만 섬으로 붙어 살아남았다.

생존자가 소리를 질러 큰질미의 주민이 와서 시신을 수습해서 해안에 덮어 놓았고, 생존자를 보호해 주었다. 김성용씨는 가족들과 가운데질미로 해산물을 채취하러 왔다가 난파선과 시신을 발견하였고, 바다 속에서 2명의 시신을 건져냈고, 생존자를 녹도로 데려와 돌아가게 하였다.

이후 시신들은 모두 덕적도로 옮겨 장사를 지냈고, 난파된 배는 김성용씨 주도로 수습하였다.

## 가운데질미

과거에는 가운데질미가 녹도의 연료공급지였다. 녹도 사람들이 매일 나무하러 다녔다. 가운데질미는 썰물따라 와서 나무를 하고, 들물 따라 돌아오기 좋은 위치였기 때문에 녹도 사람들이 나무하러 많이 다녔다. 반대로는 다니기 어려웠다. 당시 해산물은 별로 없었다. 해삼도 없었고, 홍합은 붙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따다 팔 줄을 몰랐다.

## 모섬

녹도 옆에 있는 섬이다. 녹도와 바로 붙어있지만 가운데에 도랑이 있어 건너가기 어렵다. 큰 사리 때 어른 목까지 빠지면 건너갈 수 있다. 원래 풀만 있었는데 60년 전에 청년들이 나무를 심었다. 1940년생 청년들이었으니까 현재 살아있으면 80세이다. 현재 몇 그루의 소나무가 나 있고, 아래에는 작은 소나무가 자라고 있다. 이곳은 바람이 세어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한다.

## 선창골

녹도 서쪽 해안 골짜기이다. 골짜기가 넓고 해안까지 완경사이기 때문에 옛날에 밭이 많았고, 녹도의 원주민이 살던 곳이라고 전한다. 녹도에서 가장 수원이 좋은 섬도 있었다. 옛 마을이 있을 때 배를 정박했다고 해서 선창골이라고 부른다. 앞에는 평풍바위가 있다.

## 큰화사리

녹도 남쪽에 있는 섬(큰화사리, 작은화사리) 중 서쪽에 있는 섬이다. 해산물은 세모, 돌김, 해삼, 전복 등이 나온다. 최근 섬을 개발하다가 중단하였다. 섬의 면적은 대략 17만㎡인데 51천㎡는 마을 소유이고, 나머지는 국유이다.

이곳에는 나무가 많아 녹도 사람들의 연료공급지였다. 녹도 사람들은 이곳에 들어와 자면서 며칠 동안 나무를 하고, 신호를 하여 배를 불러 나가기도 하였다. 이때 도깨비가 많아 목어가는 부인을 범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 우지배

작은화사리 남동쪽에 있는 바위. 절벽이라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이다. 가마우지가 서식, 번식하고 있다. 가마우지 똥이 쌓여 바위가 흰색이다. 녹도에서는 가마우지를 ‘우리’라고 한다. 해안에는 깊이 7~8m의 굴이 있다.

## 작은화사리

녹도 앞에 있는 2개의 섬 중 동쪽에 있는 섬이다. 큰화사리보다 작고, 예부터 쇠폭지라고 불리는 썩새풀을 베어 연료로 삼았다.

## 너분여(너부녀)

용섬과 녹도 가운데에 있는 암초이다. 두 개가 나오는데 육지쪽에 있는 것을 안너부녀, 밖에 있는 것을 밧너부녀라고 한다. 해도에는 상홍서(안너부녀) 하홍서(밧너부녀)라고 한다. 이곳 바다는 얇고 고기가 많아, 어선이나 낚시배들이 모여든다.

등대는 밧너부녀에 딸린 밧너부녀 판여에 세워져 있다. 안너부녀는 더 높고 크지만 대개는 물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더 위험한 밧너부녀 판여에 등대를 세웠다. 해산물은 흥합이 많다.

밧너부녀는 2개로 되어 있는데 간조가 되면 건너다닐 수 있다.

## 용섬

녹도와 무창포 사이, 중간에 있는 외딴 섬이다. 홀로 있어 크게 보이거나 작은 섬이다. 주변은 용섬갯골이라고 하여 깊은 골짜기가 지나고 있어 큰 배들이 지나고, 과거에는 보골치 낚시질을 하였다. 섬의 남쪽으로는 용섬곶잔덩이라고 불리는 얇은 곳이 있어 사리 때는 노출된다. 녹도 구역에 있는 섬들은 대개 북쪽이 급경사이고 남쪽이 완경사이다. 바닷 속에서도 그렇다. 용섬을 오를 때에는 남쪽에서 올라야 한다.

이곳 주변에는 여름철에 용오름 현상이 잘 일어났다. 요즘은 잘 발생하지 않는데 옛날에는 흔히 일어났다. 용섬이라는 이름은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다.

용섬의 위에는 평평하여 풀들이 자라고 특히 둥글레가 많아 캐러 다녔다. 이렇다 할 해

산물이 없어 과거에도 잘 다니지 않았다. 현재 많은 가마우지들이 서식하고 있다.

### 종달여

용섬 북쪽에 있는 물속 바위이다. 바위의 꼭대기가 종달새처럼 뽀쪽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미군 LSD(상륙선 거함)가 부딪쳐 부러졌다. 물이 나가면 이 바위 북쪽으로 많은 바위들이 나온다. 바위의 동쪽은 깊은 바다여서 접근할 수 있지만 서쪽과 북쪽은 바위가 많아 위험하다.

1957년 녹도의 장배가 지나다가 이곳에 좌초되어 10여명이 사망하였다.

### 시녀(길응암, 吉鷹岩)

용매기 서쪽에 있는 섬이다. 해도에는 길응암으로 표기되어 있다. 삼시도에서 면허를 내어 어장을 했었는데 녹도 소속이라 현재 녹도에서 관리하는 섬이다. 이 섬부터 녹도에서 관리한다. 썰물이 되면 넓은 갯밭이 노출되고 굴, 홍합 등 많은 해산물이 나온다.

섬에는 나무도 있고, 꼭대기에 묘지도 있었다.

### 질맘(추도)

녹도와 삼시도 사이에 있는 섬 중 가장 서쪽에 있는 섬이다. 가운데가 낮아 말허리에 짐 싣는 것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추녀라는 이름은 서쪽에 있는 봉우리가 송곳처럼 뽀쪽하여 송곳 추(錐)자를 써서 추녀라고 한다. 산능선은 좁아 나무가 많지는 않지만 과거 나무를 하러 다녔다.

이곳에는 조개, 소라, 홍합 등 많은 해산물이 나온다. 녹도 관내에서는 녹도와 작은화사리 사이에 있는 설프녀와 이곳에서 가장 많은 해산물을 잡는다. 녹도는 이곳이 아니면 굴이나 조개를 채취할 수 없다. 주변에 주벽도 났다.

●  
**웅천천변의  
 옛 생활  
 모습**



**김인선** (1941년생)  
 보령시 웅천읍 성동리

김인선씨는 순천 김씨이다. 순천 김씨는 웅천읍 평리(중상골)과 웅천읍(두룡리)에 소규모의 집성촌을 이루며 거주하고 두룡리에는 제실과 선조들의 묘가 있다.

김인선씨는 아버지 김지정씨, 어머니 임삼빈씨의 5남 3녀중 막내딸로 태어났다. 아버지 김지정씨는 유림으로서 서당 훈장님을 하였고,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는 유림들의 장문에 서명을 한 독립지사였다. 고문의 후유증으로 바깥 생활이 어려워진 아버지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아버지는 항상 의관을 갖추고 버선을 신고 책상 앞에서 흐트러짐 없이 책을 보셨다. 가끔씩 평리에서 돈암선생님이 오셔서 아버지와 학문을 논하셨다. 그런 아버지께 일본 순사들은 총과 칼을 차고 매일같이 방안에 들이닥쳤다. 어린 김인선씨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었다. 나중에야 들어보니 옥중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나오셨던 아버지를 감시하러 온

일본 순사들이었다고 한다. 한 달에 두 번씩 사그내를 다녀오신다고 하셨다. 지금의 집성당을 가셨던 것 같다. 편찮으셨던 아버지였지만 천수답에 물을 대는 양수기도 놓으시고 마을의 큰일들을 하시는 마을의 어른이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께 상의하러 오셨다.

고종사촌 오빠가 공산당 당원으로 집안사람들을 공산당에 입당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온 가족의 만류로 입당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인민군들한테 쫓기던 마을 사람들을 모아 멀리 부여 아미산 골짜기 외딴집에 숨겨 무사히 6.25를 넘겼다.

어머니가 행상으로 돈을 벌어 논을 사고 다시 방앗간을 지었다. 웅천에 2곳, 부여 반교에 2곳. 여러 곳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다 보니 집도 여러 곳에 있었다. 살림은 집집마다 올케들이 했고 김인선씨는 그 집들을 오가며 심부름을 했다. 늦은 시간에 부여 반교 방앗간에 심부름을 가면 올 수가 없어 어두운 새벽에 길을 나서야 학교에 갈 수 있었다. 우릿티재(수부리고개)를 넘어올 때면 수부리 사람들은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하러 올라오곤 했다.

김인선씨의 어머니는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구제해주셨다. 인민군에 쫓기는 사람들을 몰래 숨겨주고 음식도 나누셨다. 방앗간을 하셨기에 어머니는 식사 때가 아니어도 집에 찾아오는 모든 손님들을 위해 항상 밥상을 차리셨고,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시래기나 나물을 넣어 밥의 양을 늘리셨다. 후에 어머니가 연로하시고 쇠약해지실 때도 그때의 고마움으로 어머니를 찾아뵙는 사람들이 많았다.

김인선씨는 사촌 언니 중매로 성동리에 사는 임씨 성을 가진 초등학교 교사와 결혼했다. 큰아들이지만 시아버님의 배려로 결혼과 동시에 분가를 했다. 도시로 가서 편하게 살라는 아버님 명과는 달리 부모님 가까이서 살게 되었다. 수부국민학교에 근무하는 남편을 따라 학교 근처에 집을 얻어 1녀 2남을 낳았다. 남편은 학교에서 부진한 학생을 하고 후 김인선씨에게 보내 보충 수업을 하게 했다. 물론 댓가가 없는 무상교육이었고, 유난히 제자들에게 애정이 많았던 남편은 붓글씨나 산수 공부를 집중적으로 가르쳤다. 큰아이가 여섯 살쯤 되었을 때 시아버님의 갑작스런 별세로 시댁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다.

성동리에는 집집마다 모시 삼고 짜는 집이 많았다. 봄이면 모싯대가 올라온다. 거름을 많이 주면 모싯대가 굵고 키가 커진다. 모시를 잘라 껍질을 벗기고 물에 담가 여러 가닥으로 나누어 가늘게 찢는다. 그 가닥을 이어 꾸리로 만들어 다시 모시를 매고 짜면 필모시를 만들 수 있었다. 낮에는 농사 일을 하고 밤에 모시를 삼아 짜서 한 필 33자를 만들어 장에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었다. 주변에 모시장이 많이 서서 꾸리로 삼아서도 팔 수 있었다. 어느 때는 모시 팔아 논도 사고 부자가 된 집도 있었다.

한낮에 더우면 일손을 멈추고 시원한 대문간에서 모시를 삼았다. 모시를 짤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명절 때면 동네 사람들이 편물 옷을 맞추려고 줄을 섰다. 특별한 방한복이 없었던 시절에 내복 위에 실로 짠 편물 옷은 겨울 의복으로 인기가 많았다. 추석이 지나면 편물 옷을 짜기 시작했다. 제일모직에서 나오는 순모와 505(순모합성사)를 주문한 사람의 치수에 맞게 게이지 내서 문양도 넣고 수작업으로 짰다. 제일모직의 합성사는 손으로 짜는 것보다 올이 곱고 어떤 디자인의 옷도 만들 수 있었다. 수공료는 성인 옷 한 벌에 2,000원 정도였다. 당시 공무원 월급이 4,000원이었음을 감안하면 큰 공임이었다.

음력 7월이 되면 먼 바다에서 은어가 돌아온다. 유난히 모래와 자갈이 많았던 웅천천에는 은어가 많았다. 노노리 그물을 치면 하루 저녁에 300마리도 잡았다.

은어는 젓국을 담아 삭혀서 단(대상포진)에 특효약으로 썼다. 대부분 젓국을 담았지만, 훈제구이로 만들어 파는 사람도 있었다.

70년대 초반, 동네 사람이 처음으로 딸기 농사를 도입하여 짓게 되었다. 처음에는 딸기 농사를 독점하기 위해 모종을 버리면서도 보급하지 않았는데 인정 있으신 분이 다시 나누어 주어진 동네가 딸기 농사를 짓게 되었다. 서울로 나무상자에 담아 매일 같이 올려 보내면 서울상회에서 돈이 내려왔다. 딸농사에 비해 소득이 높았고 5월에 수확을 하면 모를 심을 수 있었다.

성동리에서 수부리로 가려면 작은내를 건너 넓은 밀밭을 지나고 다시 큰내를 건너야 갈 수 있었다. 70년대 후반에 동아건설이 들어와 수년간 밤낮으로 골재 채취를 하다 보니 너른 모래밭과 소나무 숲이 사라졌다. 지금은 웅천천 제방공사로 옛 모습이 흔적도 없다.

성동리 위뜸에는 고동집이 있었다. 자갈과 모래가 많았던 웅천천은 고동이 많았다. 저녁이면 여럿이 줄을 맞춰 햇불에 의존해 고동을 잡았다. 밤새 잡은 고동은 큰 양동이를 가득 채울 수 있었다. 이렇게 잡은 고동은 고동집에서 일괄 매입을 했다. 어린 학생들도 여름에 냇물에서 먹을 감으며 고동을 잡아서 고동집에 팔아 용돈을 벌었다. 고동집 아저씨가 철도청에 근무해서 매입한 고동을 기차를 타고 대전으로 가져가 팔았다.



웅천 평리에는 정금나무가 많았다. 추석이 지나면 먼저 익은 올정금부터 따기 시작해서 눈이 올 때까지 따다. 정금은 새콤달콤하고즙이 많아 정금주로 담으면 색깔도 예쁘고 맛도 좋았다. 시장에 내다 팔면 정금주를 담그려는 사람들이 주로 사러 왔다.

정금을 따서 기차를 타고 광천장으로 팔러 다녔다. 광천의 독배는 섬에서 나오는 배가 다녔기 때문에 섬사람들이 광천장에 넘쳐났다. 섬에서는 볼 수 없는 정금을 섬사람들은 좋아했다. 광천은 새우젓으로 유명하고 장이 컸기 때문에 대천장보다 광천장에 가면 정금을 더 잘 팔 수 있었다.

1980년 새마을 운동이 한창일 때 다른 집들은 양옥집을 짓고 시멘트 담을 치고 할 때 한옥집을 짓기로 했다. 동네가 낮은 평지이고 옆집에는 높은 2층집을 짓지 않을 것을 예상해 한옥집을 지었는데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동네 목수 3명과 토역일(미장일) 하는 두 명으로 음력 정월에 시작해 한해가 다가도록 지었다. 석가래 연재는 미리 베어 말려 둔 걸로 하고 기둥은 좀 더 커야 해서 목재소에서 사왔다. 모래는 가까운 웅천천에서 가져오고, 황토는 산에서 퍼다가 집 짓는 데 썼다.

음력 9월 9일이 되면 구절초를 찾아 새벽같이 길을 나서 사랑골(미산 봉성리)까지 걸어가 구절초를 뜯다가 집에 오면 한밤중이 됐다. 구절초는 다듬어 말렸다가 끓여 먹으면 손발이 차고 감기에도 특효약이었다. 쓴맛을 싫어하는 아이들에게는 식혜를 만들어 먹였다. 그래서 가족들은 감기를 모르고 살았다.

다른 동네에는 쪽파를 김장할 때 심었지만 김인선씨의 동네는 일 년에 평균 두 번에서 네 번까지 심었다. 여름에는 40일, 가을에는 좀 더 길게 자라는 쪽파는 예전에는 부여장, 공주장까지 버스를 6번씩 갈아타며 팔러 다녔다. 모래로 된 땅은 물 빠짐이 좋아 파농사가 잘 되었다. 지금은 파 장사꾼들이 와서 계약재배도 하고 심어만 놓으면 밭떼기로 사간다. 파 씨 사는 것과 인건비가 비싸 손해 볼 수도 있는 농사이다.

부사방조제가 생기기 전까지 웅천 완장내에서는 농어가 잡혔고, 송어는 물론 갈매기, 장어, 통건이, 모래무지, 은어, 참게, 갈피리, 납자루 등 지금은 볼 수 없는 수많은 물고기가 살았다.

●  
호도의  
생활



**김명울** (1927년생)  
보령시 오천면 호도리



**최쌍신** (1940년생)  
보령시 오천면 호도리

김명울(1927)님은 할아버지가 호도로 이주한 이후 대대로 살고 있다. 할아버지를 직접 보지는 못 했지만, 통나무배를 타고 길산도에 갈치를 잡으러 갔다가 배가 전복되는 바람에 돌아갔다. 통나무배는 육지에서 가져온 큰 통나무를 파 만드는데 돛대 하나와 노 하나가 있었다고 들었다.

김명울님은 15세에 19세의 남편과 결혼하여 7남매를 낳아 길렀고, 2008년 남편과 사별하였다.

호도는 다른 섬에 비해 논과 밭이 많아 외지에서 곡물이 들어오지 않아도 먹고살 만 하였다. 그렇지만 호도 사람들이 쟁기질을 할 줄 몰라 육지에서 쟁기질하는 사람이 들어와 모 든 논밭을 갈아주었다. 녹도와 외연도의 경우 농기구로 따비를 사용했는데 호도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쟁기와 쇠스랑으로 땅을 팠다.

호도는 마을과 농경지가 분리되어 있었고, 마을은 포구 주변에 뻣뻣하게 들어섰기 때문에 추수하여 말리고 쌓아 둘 공간이 없었다. 그래서 마을에 거름마당이라고 불리는 공동의 마당을 2개 만들어 벼와 보리를 추수하는 공간으로 사용하였다. 농작물은 벼, 보리, 밀, 수수, 조, 고구마 등이었다.

호도에서는 어업으로 흥어잡이가 흥했다. 한 집에서 시작하니까 여럿이 따라서 했다. 흥어잡이를 위해 이른 봄에 어청도를 거쳐 흑산도로 가서 조업했다. 흑산도 밖에서 흥어를 잡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김명울님의 남동생도 죽었다. 호도에는 사람이 많이 죽었으나 묘지가 없다. 모두 바다에서 죽어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남편을 잃은 부인들은 아이들과 어렵게 살았다.

호도에는 김이 많아 음력 3월부터 김을 뜯어 팔아 생활하였다. 김은 미끄러워 뜯기가 어려워 재를 바르면 쉽게 뜯을 수 있었다. 뜯어온 김은 김칼로 조쉬 발장에 떠서 말렸다. 하루에 한 바구니 또는 두바구니가 채워졌다.

김은 광천장이나 대천장에 팔았다. 호도에는 장배가 없어 장에 가려면 댐마를 타고 녹도에 가서 장배로 갈아탔다. 장에는 하루에 다녀오지 못하고 장 전날 갔다가 장날 돌아왔다. 대천이나 광천 독배에는 잠자고 밥 먹는 집이 있었다. 장에는 주로 여자들이 다녔다.

호도에는 바지락은 없고 굴은 많았다. 그러나 굴을 팔지는 못했다. 굴을 따다 먼 광천장이나 대천장에까지 가져가 팔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많아도 먹기만 했다.

호도에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해녀들이 와서 살았다. 호도 사람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해삼이 많았기 때문이다. 해녀들은 배에서 먹고자고 하다 정 추우면 호도 가정집으로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배에서 생활하였다. 그들은 제주도에서 스숙(조)을 한 포대씩 가져와서 먹었고, 반찬으로는 된장을 가져와서 먹었다.

당시 안흥 사람 유중식이라는 사람이 해녀들을 고용해 해삼을 잡아 호도에서 삶아 말려 팔아 큰 돈을 벌었다. 이후 호도 사람들도 해녀사업을 하였고, 호도에 온 해녀들은 호도 총

각과 결혼하여 현재 23명의 제주도 출신 해녀들이 호도에서 물질하고 있다. 호도는 해녀의 섬이 되었다.

해녀 작업은 낮에 하고, 물이 나갔을 때 한다. 수심이 낮고 밝아야 작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업을 시작하는 날이 3매 날이다. 이날은 새벽 어두운 때 썰물이 시작되기 때문에 2시간 정도 작업할 수 있다. 4매 날은 3시간, 5매 날 이후에는 4시간 작업할 수 있다. 4시간만 작업하는 것은 물이 많이 들어오면 수심이 깊어져 작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무짓날까지 작업하고, 1매, 2매 날은 쉰다.

해녀들이 작업하는 깊이는 7~8m가 가장 적당하고 10m가 넘어서면 어렵다. 최고의 기술자인 상군은 15m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 깊이 들어가면 작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돌에 걸린 닳을 꺼낼 때 깊이 들어갈 경우가 있다.

해녀들이 해삼을 잡아오면 배를 갈라 내장을 빼고, 바닷물에 소금을 섞어 끓이다 해삼을 넣고, 펄펄 끓인다. 이후 물을 퍼내고 더 끓이면, 해삼의 뿌이 나온다. 삶은 해삼은 꺼내 소금에 절여 놓는다. 이때 소금을 많이 넣기 때문에 소금방아를 찧는다고 한다. 이렇게 저장하여 두었다가 판매하기 위해서는 다시 끓인다. 이때 소금물에 물푸레나무 껍질을 함께 넣고 끓인다. 그러면 해삼의 뿌이 더 나오고, 검은색이 되어 상품성이 높아진다. 이런 과정을 ‘이반사’라고 하였다. 두 번 삶아 절인 해삼을 말리면 완전한 상품이 되었다. 해삼은 삶을수록 딱딱해진다.

호도에서는 과거 소를 잡아 정월 보름에 당제를 지냈다. 소는 마을 안에 있는 거름마당에서 잡았고 당제를 파한 후 마을 잔치도 이곳에서 하였다. 당제는 원당주와 손당주, 발당주가 올라가 밤새 지냈다. 손당주는 발당주와 함께 물을 길어다가 당집에서 떡을 하고 밥을 하였다. 당주들에게는 수고비를 주었다.

큰당의 당집에는 그림이 붙어 있었다. 무서운 그림이었다고 기억한다. 작은당은 그냥 굴참나무만 있었다. 작은당에 먼저 제를 올리고, 새벽에는 큰당에서 제를 올렸다. 새벽에 큰당 제를 마치면 화장들이 올라와 뺏기를 들고 뛰어가 뺏고사를 올렸다.

당제 지내는 기간에 출산 예정인 산모들은 섬의 서쪽 끝에 있는 마을인 솔내로 들어갔다. 이곳은 큰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고, 당산이 보이지 않는 곳이다. 솔내 마을에 있는 3가구의 집에 들어가기가 여의치 않으면, 당산이 보이지 않는 곳에 막을 치고 놓았다.

정월 보름날 호도의 젊은이들이 마을 뒤 재빠기에 올라가서 매생이를 불렀다. 한 사람이 재빠기 밑에 숨어 매생이가 되고, 나머지는 재빠기 꼭대기에 올라 매생이를 불러 원하는 바를 이야기한다. 매생이를 부르면 “예”하고 대답하였고, “올해는 모기와 깔다구는 모두 사슴(녹도)으로 가고, 고기와 조기는 모두 여슴(호도)으로 오게 해다오”하면 “예”하는 식이다.

호도 포구의 방파제는 ‘몬돌’이라고 불렀다. 정월 보름날 마을 사람 모두가 나와 큰 동아줄을 만들어 겨우내 무너진 몬돌을 보수하였다. 몬돌역사라고 하였다. 몬돌 옆에는 작은농배, 큰농배가 있어 배를 대기는 어려웠으나 파도를 막아주는 역할도 하였다. 이들 바위는 몬돌과 함께 모두 없어졌다.

호도의 주민인 최쌍신(1940)님은 농사짓는 집에서 태어났고, 학교가 없어 다니지 못 해서 당에서 한문을 조금 배웠다. 아버지는 1952년 흥어배 사고로, 어머니와 작은 형은 1958년 경 오천에서 들어오던 배가 뒤집혀 사망하였다. 농업, 해녀사업, 어업 등에 종사하였고 1966년 20살의 해녀 현여생(1947)씨와 결혼하였다. 현여생씨의 고향은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이다.

현여생씨는 호도로 시집온 최초의 해녀이면서 최고의 기술을 가진 해녀였다. 그러나 길산도 뒷면 수심 22m 지점에서 하루종일 머구리 일을 하다가 그만 잠수병에 걸리고 말았다. 해삼이 많아 물 속에서 나오지 않고 오랫동안 일하다 일어난 사고였다. 이후 4년 동안이나 여수 산소병원에 다녔다.

호도 근처에서 조기를 처음으로 잡은 사람들은 무창포에 살던 경상도 사람 이순호씨와 이순하씨 등이었다. 이분들이 낚시로 조기를 잡는 것을 보고, 호도 사람들이 배워 조기를 잡았다. 그게 1950년대 말이었다.

최쌍신씨는 댐마를 타고 길산도 북서쪽 질미뚝에서 조기를 낚았다. 한 손으로 노를 젓고 한 손으로 낚시질을 하였다. 많이 잡을 때는 혼자서 150~200마리를 잡았다. 조기도 컸다.

조기가 없어진 뒤에는 전라도까지 다니면서 우럭낚시질을 하였다. 우럭은 많이 잡았으나 죽은채로 갖다 팔았기 때문에 제값을 받지 못했다.

●  
외연도의  
생활



**김정의** (1945년생)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이종분** (1933년생)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김정의님은 김해김씨이다. 그의 13대조가 외연도에 입향하여 3백여년 살아왔기 때문에 외연도에서 가장 오래 거주한 성씨이다. 할아버지가 1남 5녀를 낳고, 외아들인 아버지가 4남 1녀를 낳았는데 장남으로 태어났다. 슬하에는 2남1녀를 두었다. 외연도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줄곧 농사일을 하였다. 가진 땅이 많아 보리 20여 가마, 고구마 30여 가마를 수확해서 먹었다. 외연도에서는 부자에 속했다.

과거 외연도 사람들은 농사를 많이 지었다. 쟁기질을 하는 사람이 2~3명 있어 밭을 갈았

고, 따비로 파기도 하였다. 쟁기질도 따비질도 못하면 쇠스랑으로 팠다. 농작물은 주로 보리와 고구마였고, 콩·수수·조 등 다양한 작물을 심었다. 이때에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 직접 먹는 정도였다. 팔 수 없었기 때문이다.

농사를 짓다가 어업을 시작하였다. 그물을 사용할 줄 몰라 모두 작은 배를 타고 주낙을 놓거나 낚시질을 하였다. 노를 짓는 작은 배였기 때문에 멀리 나가지 못하고 오도, 황견도, 청도 근처에서 잡았다. 어종은 조기, 우럭, 놀래미, 강개미, 농어 등 고기는 많았다.

낚시질한 조기는 서로 나누어 소금에 절여 시장에 팔았다. 조기는 부드러워 아가미를 떠 들고, 손가락을 넣어 파면 부레와 내장이 나온다. 이곳에 소금을 가득 넣어 독에 절인다. 이때 소금을 많이 뿌려 뽀뽀하게 절여 내다 파는데 조기 아가미와 턱을 손상하면 안 된다.

조기는 황견도 북쪽 1km 지점의 깊은 바다에서 잡았다. ‘골시’라고도 하고 ‘조기두멍’이라고도 하였다. 이곳에만 조기가 많아 녹도, 호도, 무창포 사람들도 몰려들었다. 많이 잡을 때는 1인당 100여 마리를 잡았다. 큰 조기를 잡았는데 ‘우조기’라고 하였다. 잡은 고기는 깃으로 나누며 배를 1깃으로 쳤다. 우럭이나 놀래미는 많았으나 활어로 팔 수가 없어 돈이 되지 않았다.

김정의씨 어머니는 차씨로 청라면 의평리 껌밭에서 살았다. 당시 아버지는 16살이었고 할아버지가 어머니를 민며느리로 데려와 결혼시켰다. 할아버지가 색시 집 어른들과 통하여 데려왔다. 나중에 더 나이가 들어 정식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때가 몇 살이었는지는 모른다.

과거 외연도에서 돈이 되는 것은 돌김이었다. 돌김은 시김과 가김이 있는데, 가김은 부채처럼 포기져 있는 김이고, 시김은 긴 김이었다. 재를 뿌려 골무를 끼고 뜯었다. 가김은 칼로 다져 시김과 섞어 떼다. 가김만 뜨면 마른 뒤에 김장이 으등그러졌다.

김밭은 여름부터 준비하였다. 여름에 띠를 베어 말려 추려 놓았다가, 겨울에 엮었다. 엮는 줄은 질강이라고 하는 풀을 말렸다가 삶아 노끈으로 꼬아 사용하였다. 김밭대<sup>1)</sup>라고 하는 가느다란 막대기를 대고 시작하여 띠를 엮다가, 김밭대로 마무리한다. 처음에는 지르는 사람이 가운데 줄을 엮어 말아놓고, 이후 엮는 사람이 양쪽 가에 2줄을 엮어 마무리한다. 이런 김밭이 집집마다 수천 장 필요하였다.

1) 여당나무.

김 철이 끝난 다음, 음력 5~6월에는 미역을 뜯었다. 미역은 물 속, 숨은 바위에서 밤에 뜯었다. 여름에는 밤에 물이 많이 나가기 때문인데, 송방망이에 횃불을 밝히고 뜯었다.

대전제일감리교회에서 외연도에 교회를 세웠다. 이광은 목사님을 보내 전도하였고 김정의씨 동생이 교회에 처음 나가기 시작하였다. 이후 어머니와 김정의씨가 다녔다. 김정의씨의 동생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어 지금 키르키스탄에서 전도하고 있다.

현재 외연도교회에는 20여 명의 신도가 있다. 대부분 여자들이다. 남자들은 고기잡이 때문에 다니기 어려운 점이 있다. 과거에는 50명 정도 되었는데 인구의 감소와 함께 많이 줄어들었다.

1960년대 말 외연도에 들어온 원산도 사람들이 주박을 매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초에는 외연도 사람들도 가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박을 매거나 낭장망을 매서 멸치, 까나리 등을 잡았다. 외연도가 호황을 맞이하였다.

주박이 수지맞는 사업이었지만 김정의씨는 포기하고 낚시어선을 운영하였다. 주박을 하면 밤낮없이 주일 없이 일해야 했기 때문에 교회에 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주일날 교회에 다니기 위해 주박을 매지 않고 낚시어선을 운영하였다. 이때는 잡은 고기를 활어로 팔았고, 횃집이 성행하여 비싼 값에 팔렸다. 낚시어선으로 성공하였다. 당시 외연도에는 모두 주박을 맨 것이 아니고 몇 가구는 낚시나 자망으로 고기를 잡았다. 자망으로 잡은 고기는 활어로 팔 수 없어 수지가 맞지 않았다.

주낙은 새벽에 나가 먼동이 뜨기 전에 놓았다. 고기가 먼동이 틀 때 잘 물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기는 주낙을 내릴 때 주로 문다. 바닥에 닿기 전에 올라와 무는 것이다. 주낙을 다 내린 후, 아침밥을 먹고 걸어 올린다. 주낙배는 늦어도 오후 3시까지는 외연도항에 들어와야 한다. 그래야 어항에 운반하여 보관했다가 다음날 아침에 경매에 들어간다.

외연도에는 꼭두각시놀이가 있었다. 꼭두각시놀이는 1930년대에 출생한 고모님들 세대에서 한 놀이이다. 1942년생인 누나들은 하지 않았다. 꼭두각시놀이는 추석 때 마을 처녀들이 마당에서 놀던 놀이이다. 한 사람을 가운데에 두고 뺑 둘러서서 그 사람한테 모두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점차 최면에 걸리게 되고, 뭘 물어보면 대답을 한다. 어릴 때라 어떤 내용인지 기억은 못한다. 당시 남자들은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놀았다.

외연도 남자들은 공치기를 하였다. 초등학교 학생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했는데, 물이



나간 뒤 백사장이 생기면 바닥이 단단해져 공치기하기 좋았다. 위로는 마른 모래와의 경계가 경계였고 아래는 수면이 경계였다.

산에서 필드하키 스틱과 같은 나무를 베어다가 막대기로 사용하였고, 공은 나무로 깎아 만든 골프공 크기의 공이었다.

백사장 가운데에 금을 긋고, 동촌말과 서촌말로 나누어 시합을 했는데, 그 넓은 백사장 전체가 놀이장이었다. 골문은 돌로 놓았다. 많을 때는 각각 20여 명씩 참가하였다. 심판은 나이 많은 사람이 맡았다.

경기는 몇 점을 약속하고 먼저 나는 팀이 이겼다. 축구처럼 같은 편끼리 작전을 펴서 공을 넣었다. 마을 사람들의 관심이 높았고, 같은 편끼리 단합심이 생겼다. 1960년대 중반까지 공치기를 하였다. 김정희씨도 하였다.

정월 열나흘날에는 불쌘놀이를 하였다. 불쌘은 동촌말과 서촌말이 불이 꺼지지 않게 오래 피우는 놀이이다. 동촌말은 마을 동북쪽 산기슭에 불이 퍼지지 않게 구덩이를 만들고, 서촌말은 발전소 있는 곳에 구덩이를 만들었다. 이 구덩이에 불을 계속 피워 꺼지지 않는 마을이 이기는 것이다. 서로 불을 꺼트리기 위해 특공대를 보내기도 하였다. 벌칙은 없는 기싸움이었기 때문에 다음날 학교에서 서로 자랑들을 하였다. 초등학교 정도의 남자어린이들이 즐기던 놀이였다.

이종분(1933)님은 1933년 홍성군 서부면 이호리에서 태어났다.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살림이 어려워 작은어머니 댁에서 자랐다. 학교에는 들어가지 못해 야학에 다녔는데 그나마도 남녀가 함께 공부하며 연애한다고 큰아버지가 못 다니게 하여 그만두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한글을 읽지 못한다. 작은어머니 댁에서 일만 하다가 23살에 이웃마을로 시집갔다. 남편은 병역 기피자로 숨어 다니는 신세라 속병을 앓다가 죽었다.

남편이 죽은 후, 시아주버니가 넘겨다보아 집을 나왔고, 외연도 사람을 따라 무작정 먼 곳으로 떠난 곳이 외연열도에 속한 작은 섬인 오도였다. 단 3가구가 사는 섬이었다. 이 섬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20세 연상의 남자를 만나 생활하였다. 딸 둘을 낳았고, 1975년에는 독가촌이주정책으로 외연도 본섬으로 이주하였다. 1990년 남편이 사망하고 아이들은 외지로 나가 88세의 나이로 홀로 거주하고 있다.

오도에 살던 집은 작은 방 2칸, 부엌이 전부였다. 마루도 없고 지붕은 옥새를 베어 덮었

다. 산넘어 대출이라는 곳에 작은 밭이 있어서 고구마를 심어 먹었다. 다른 집들도 농사라고 해야 고구마를 심어 먹는 정도였다.

오도에는 좋은 물이 많이 나왔다. 3가구가 먹기에 충분하였다. 섬의 크기에 비해 주민이 적어 나무도 충분하였다. 그래서 나무를 팔기도 하였다. 나뭇가지를 잘라 잘게 쪼갠 찌질나무를 만들어 팔았고, 외연도 사람들이 배에서 때려고 사갔다.

오도에는 집집마다 작은 텀마를 두고 타고다니면서 낚시질을 하였고, 잡은 고기는 절여서 팔았다. 바람이 불면 3가구의 주민들이 모두 모여 배를 물에 올려놓았다.

옛날 오도에서도 돈이 되는 것은 김과 미역이었다. 김과 미역을 말려 대천장에 팔았다. 갯벌에서 생산되는 다른 것들은 자급자족 하는 정도이지 팔지는 못 했다. 굴이나 조개 등은 캐도 팔 수가 없었다.

먹임에 3가구가 살았어도 당제를 지냈다. 정월 나흘날 저녁에 밥을 해 놓고 술을 부어 올렸다. 당산 꼭대기에 돌로 판판하게 놓고 지냈다.

외연도로 나온 후 살림이 어려웠다. 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아 일을 못했고, 땅이 없어 농사지를 수도 없었다. 그래서 주벽이나 낭장망을 운영하는 집에서 멀치 말리는 품팔이를 하거나, 더덕을 캐다 팔았다. 더덕을 캐기 위해 외연도의 산이란 산은 모두 뒤졌다. 오도에서는 더덕을 캐어도 팔 수가 없었다.

더덕을 캐다가 넘어져 보름 동안 누워있다가 나왔다. 마을 사람이 똥물을 먹어야 재발하지 않는다고, 누구를 시켜 똥물을 퍼다주어 세 사발을 먹었다. 그냥 숨을 쉬지 않고 뽕뽕뽕 마시니까 토하는 법도 없고 괜찮았다. 물을 마시고 사탕을 먹으니까 냄새도 나지 않았다. 속도 편하였다. 당시에는 독에다 똥을 누었기 때문에 노란 똥물을 구할 수 있었다.

# 아산시

## 온천과 문화의 발자취

약수터(유황온천)가 없어진 건 도고온천의 역사가 없어진 것	234
활기 넘치던 도고온천(물탕) 체육시설 인프라로 되살리자	237
아산온천 탄생과 마을 이야기	241
온양 청주 온천탕과 더불어 함께 탄생한 은행나무길과 충무풀장 이야기	245
온양온천 목욕탕 최초로 남녀 1층 2층으로 나누어 운영한 삼보천	248
아산온천 설립 및 발전과정	251
신천탕의 설립과정 및 신천탕의 숨은 이야기	255
온양 최초의 민간온천당인 신천당 이야기	259
도고온천 발전과정과 현재의 모습 비교	262
온양온천과 함께 발전한 용문당 이야기	265
도고온천 유황온천의 미래는 한방 보양온천	268

●  
**약수터(유항온천)가  
 없어진 건  
 도고온천의  
 역사가  
 없어진 것**



**김 동 천** (1941년생)  
 충남 아산시 도고면

김동천 씨는 이곳 기곡(텃골)리에서 태어나 동네의 크고 작은 일을 해결하고 봉사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선천 때부터 대대로 살아온 텃골 마을은 골이 길고 깊어서 긴골이라 부르다가 지금은 진골이라 한다. 김동천 씨가 어릴 적에는 동네에 약 50여 가구가 살았다. 당시에 한집에 사람 수가 평균 7명이었는데 이를 합치면 약 350여 명이 되는 비교적 큰 동네였다. 마을 앞으로 도고천이 흐르고 있고 마을 뒤에는 작은 농수용 수로가 있었다.

마을 입구에는 서낭당이 있었으나 사라진지 오래되었고 진골 아래에는 조상꽃이가 발달해 있어, 마을 사람들은 이 야산을 일구어 밭농사를 짓고 살아오고 있다. 예로부터 텃골에서는 인재를 많이 배출되었는데 이를 불안하게 여긴 일본이 마을 수로를 양쪽으로 갈라놓고 마을 산맥을 끊는 만행을 저질렀다. 지금은 마을 수로가 도로로 변하고 마을 산도 날개가 꺾인 형상을 하고 있다.

도고천이 흐르는 한 곳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마르지 않고 일 년 내내 따뜻한 물이 솟아나는 웅달샘이 있었다. 한겨울에도 이곳은 얼음이 얼지 않았다고 하며 동네 사람들은 이것을 약수터라고 불렀다. 약수터에서는 동네 아낙네들이 빨래도 하고 저녁에는 목욕도 하곤 하였는데 동네 사랑방 같은 곳이기도 했다. 물론 동네 남정네들도 수시로 목욕도 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허리나 다리가 아프면 약수물에 몸을 담가 하루의 피로를 풀곤 했다. 이 소문이 인근 마을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가 어느 순간부터 약수터에 아픈 곳을 치료차 모여든 사람들로 넘쳐나게 되었다. 심지어는 피부병을 앓는 사람들도 찾아와 몸을 담그면 말끔히 나아서 가곤 했고 안질병을 앓는 사람도 이 물로 씻으면 다 나았다고 한다.

이 약수물은 하천에서 나오다 보니 본래 주인이 없는 것인데 일제시대에 평능이라는 사람이 샘을 잘 만들어 돈을 받고 팔았다고 한다. 그 뒤 또 다른 일본인 고옥득포라는 사람이 유향수를 개발하여 욕탕을 잘 만들어 유향천으로 알려진 것이다. 유향수는 위장병 피부병 안질 등에 큰 효험이 있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비가 많이 내려 도고천이 범람하면 약수터 아래에 도고천을 휘감아 꺾이는 곳이 있다. 이곳에 어느 순간부터 모래가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모래밭이 조성되었다. 이 모래밭에 밀 명석이나 짚더미로 만든 움막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 움막들은 약수물의 효능을 듣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임시 거처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해방이 되어 일본인들이 떠나고 한동안 주인 없이 너도나도 사용할 때 도고온천 최초의 목욕탕인 원탕이 생겼다. 목욕탕이라고 해 봤자 개울에서 노깁을 묻고 펌프질로 물을 뽑아 내어 원탕으로 공급하였는데, 밀 명석으로 가리고 목욕하는 원시적인 시설이었다. 원탕에 이어 청수장 등 여러 여관이 생기면서 현대식 시설로 변화하였다.

어느 해 진덕산업에서 박 대통령 별장을 짓는다고 하면서 약수터 주변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외부인 사용을 금했다. 수백 년간을 주민들이 민간치료요법이나 식용수로 사용하던 약수터를 다이내마이트를 설치하여 폭파하고 그 자리에 파이프를 심어 별장으로 공급하기 위해서였다.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지만 감히 진덕산업을 이기지 못 하였다. 소문에는 진덕산업 회장이 박 대통령하고 군대 동기라는 등 여러 가지 소문이 무성하였다. 별장도 박 대통령이 별장을 원한 것이 아니라 진덕산업 회장이 스스로 별장을 지어 바친 거라고 한다. 거대한 암반 속에서 나오던 약수물은 암반이 파괴된 이후에 유향성분이 사라졌다. 겨울이

면 주변에 얼음이 얼어 더 이상 약수터라 할 수 없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의 고향 같은 약수터는 이제 추억 속에서만 존재한다.

비록 약수터는 사라졌지만 온천법 개정으로 인해 주변에 다른 여관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여관이 청수장 여관이었는데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당일에는 방을 빌릴 수가 없었다. 청수장 여관 거리에는 신혼여행 온 부부들이 넘쳐나고 가족 단위로 온 천연여행을 온 사람들로 인해 항상 왁자지껄하게 활기가 넘쳤다. 덩달아 거리에는 많은 식당들이 들어서고 저녁에는 맥주집과 선 술집이 하나둘 자리 잡고 장사를 하였다. 식당이나 술집이 늘어나도 모두 다 먹고 사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다.

특히 청수장은 집적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 객실까지 식사를 배달해 주는 방식이었다. 음식 맛도 일품이었지만 반찬 가지 수도 대략 30여 가지가 넘었다고 한다. 당연히 청수장은 손님이 넘쳐나고 외지에서 온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지역 여러 친목 모임으로도 인기가 많았다. 박 대통령도 들려 쉬어갔다고 한다. 하지만 날마다 관광객이 넘쳐날 줄 알았던 도고온천도,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온천으로 인해, 어느 날부터 하나둘 손님이 줄어 이제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약수터가 사라지고 대통령 별장과 기념관이 들어섰지만 정작 박 대통령은 이 별장에서 한 번도 자지 않았다고 한다. 갑작스럽게 박 대통령이 서거하고 한동안은 찾아오는 이 없는 쓸쓸한 건물로 남아 있었다. 개인이 인수하면서 별장을 헐고 온천사우나로 변경하고 조그마하게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으로 개장하니, 한동안은 유명세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시끌벅적하니 활기 넘치던 청수장 여관도 이제는 늙은 고목처럼 앙상한 건물 뼈대만 남아 보는 이들의 마음만 서글퍼지게 한다. 도고호텔도 철거되어 이제는 우리들 추억 속에서만 존재한다. 한때는 이 건물들로 인해 마을의 발전도 이루고 일자리도 창출 할 거라고 생각도 했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돈은 타지사람들이 다 벌어들여 떠나 가버리고 낡은 건물과 늙은 원주민들만 남아 옛날을 회상하고 있다.

김동천 씨는 내년이면 팔순에 들어선다. 아직도 김동천의 머릿속에는 그 옛날 텃골의 모습이 생생하다. 할 수만 있으면 그 옛날 친구들과 뛰어놀던 텃골로 뒤 돌리고 싶은 마음이며 약수터만큼은 꼭 되살리고 싶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약수터는 텃골 주민들 마음속의 고향이기에.....



●  
**활기 넘치던  
 도고온천(물탕)  
 체육시설 인프라로  
 되살리자**

**김준배** (1943년생)  
 충남 아산시 도고면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는 물탕, 텃골, 숲말로 이루어졌다. 물탕은 도고온천이 있는 마을이고 현재 행정으로는 기곡1리라 한다. 물탕마을은 도고천이 흐르며 마을이 자그마한 산으로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유향온천이 나오는 지역이다.

옛날부터 강씨와 김씨, 이씨가 주로 살았다. 아주 터를 잡고 살은 것은 진주 강씨지만 온천이 개발되면서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가 많이 들어왔다. 지금은 다양한 성씨들이 살고 있다. 그중에 김씨가 많은 편이다.

이곳 물탕의 온천과 관련한 전설은 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라 진흥왕이 숲말 마을산의 삼봉산을 지나다가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다리 부러진 학이 어디론가 날아가서 한참을 있다가 오곤 하였다. 이것을 궁금히 여긴 왕이 신하를 시켜 따라가 보게 하였더니 학이 앉은 자리에 김이 모락모락 나며 온천수가 나오는 것이었다. 며칠 후 학의 다리는 씻은

듯이 나아 있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여러 전설이 전해진다.

김준배 씨는 도고온천 물탕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다. 김준배 씨가 기억하는 도고 온천은 지금처럼 큰 마을은 아니지만 숲말 이나 텃골보다는 조금 큰 마을에 속했다. 당시 물탕에는 아산군에서 운영하던 목욕탕이 있어, 주변에 크고 작은 상점들과 식당·이발소·약방·술집도 있었다.

당시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목욕탕은 없었고 군에서 운영하던 목욕탕 하나 있었는데 제법 손님이 많았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밖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일이 비일비재 하였다. 물론 공짜는 아니고 요금을 받았는데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기억 하지 못한다.

도고온천 원탕과 도고호텔 사이에는 도고천이 흐른다. 지금은 제방공사와 도로가 생겨 폭이 많이 줄었지만, 원래는 지금보다 더 큰 개울이었다. 물이 범람하면 내 건너에 살던 사람들은 건너오지 못하고 물 수위가 낮아지지만 기다리거나 보를 막아놓은 뚝을 이용해 다니곤 하였다. 이후 철근을 넣은 작은 콘크리트 다리가 생기고 잠수교라고 하는 다리가 하나 더 생겼다. 이 다리는 비가 조금만 와도 넘치곤 했는데 당시 다리 건설하는 기술이 부족해 노깡(토관)을 서너 개 묻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덮어 사용하는 다리였다.

도고천에 웅덩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는 항상 유황냄새가 가득한 약수물(유황온천물, 도고온천 사람들은 약수물 이라고 함)이 솟아나고 있었다. 물 온도는 약 25~30°를 넘나들었고 넓은 개울가에 항상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루었다. 인근 주민들은 물론이고, 멀리 서울·경기·충주에서 찾아와 움막을 짓고 약수 물에 손발과 온몸을 담그면서 피부병 치료를 하였다. 더러는 이곳 개울에서 사금을 채취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금이 종종 발견되어 일확천금을 누린 사람도 있었다.

도고온천 원탕 목욕탕을 처음 개발한 신은조 씨는 도고 천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오는 것을 상시 보다가 이곳에 온천을 개발하였다. 총 4개의 온천공을 개발하고 원탕이라는 상호 명으로 숙박을 겸한 목욕탕을 개발하였다. 원탕 목욕탕이 영업을 하자 인근은 물론 타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도고온천을 찾아왔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자 덩달아 숙박업소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여관이 생기고 목욕시설을 갖추었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원탕 만이 진짜 유황온천물이라는 고정관념이 박혀 있어, 잠은 자도 목



욕은 원탕가서 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 물론 원탕 사장도 이점을 적극 홍보하면서 한동안은 목욕 유치를 독점하다시피 하였다. 벌은 돈으로 인근 땅을 많이 사들여 주민들의 원성도 있었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대소사에는 꼭 참석하고 목욕비도 할인해 주었다고 한다.

온천 고시 지역이 8만여 평으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온천이 개발되었다. 한국콘도, 토비스콘도, 글로리 콘도 등이 생기면서 이제는 어느 곳에 가서 목욕을 하더라도 유향온천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아산온천이나 온양온천과 달리 도고온천에서는 새로운 숙박시설이 건립되어 운영하려면 반드시 이곳 온천수를 사용해야 건축 허가가 승인된다는 규정이 있다.

도고온천은 온천물을 다른 숙박업소에 공급하지 않는다. 아니 못 한다는 게 맞는 말이다. 이유인즉 이곳 온천물 온도는 평균 25°~30°이다 보니 지하 관로를 이용해 공급하면 가는 도중에 물이 다 식는다. 보일러를 사용해 데워서 공급 할 수도 있지만 연료비가 너무 발생해 실용성이 떨어진다. 결국 건물주가 온천공을 시추해서 사용하는 게 현실적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곳 도고온천을 자주 방문할 즈음 도고호텔이 건립되었다. 객실 214개의 대형호텔로 야외 수영장과 잔디구장도 갖추고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도고선장평야(서들광문)에 자주 와서 모내기도 하고 벼 베기도 하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자주 듣곤 하였다. 그중 하나가 농사 지을 물은 항상 부족한 반면 홍수가 나가나 삼교천 물이 들어오면 들판에 벼가 다 잠기는 통에 1년 농사를 망치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 당시에는 삼교천에 제방 둑이 없어 물이 자주 범람하였다. 이를 우려한 박정희 대통령이 삼교천 공사를 지시하면서 수위 조절이 가능해지고 하천이 범람하는 일은 없게 되었다. 비가 아무리 오거나 가뭄이 극심해도 이곳 도고 선장평야는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도고 선장평야를 자주 방문하곤 했는데 일을 마치면 도고호텔에 들어서 심신을 달래고 국정을 계획했다. 도고호텔 207호 방이 박 대통령 전용 방이었는데 이곳도 역시 도고온천 유향물이 공급되었다.

도고온천은 신라시대부터 피부병, 신경통, 위장병, 관절염, 당뇨병 등에 탁월한 효염이 있다고 전해졌다. 특히 동양 4대 유향온천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70년대와 80년대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온천 문화의 다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현재는 침체의 어려움으로 온천장과 목욕탕의 폐업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도고온천의 핵심시설인 청수장이 부도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고, 도고호텔마저도 철거되면서 이제는 주민들의 기억 속에만 남게 되었다. 설

상가상으로 간이역사였던 선장역마저 장항선 직선화 사업으로 엄한 곳으로 옮기니 더더욱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고 말았다.

전국적으로 온천문화는 하향세다. 버스나 기차 타고 와서 하루를 묵고 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가가호호마다 승용차가 있어 당일치기가 가능하고 굳이 목욕탕에 안 가도 집 안에 샤워시설이 있는 영향도 일부 작용했을 것이다. 지금 도고온천은 대다수의 숙박시설이 하루에 한 팀도 못 받는 실정이다. 문을 열고 영업을 해 봐야 전기세도 안 나온다. 어쩌다 아산사에서 전국체육대회나 기타 축구대회 하키 대회가 열리면 선수들이 찾아와 묵고 가는 게 최대의 손님이다.

김준배 씨는 한국 외식업조합 중앙회 충청남도 지부장과 아산시 지회장을 역임하였다. 또한 아산시 의회 의장 및 시의원을 하면서 도고온천 발전을 위해 마을 정화조 사업, 전통 재래시장 개설, 마을 천 다리건설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유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쇠락해 가는 온천을 보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한때는 유황온천을 이용해 유황 돼지를 사육해 브랜드로 개발하였다. 초기에는 큰 관심과 매출을 올렸지만, 지금은 간신히 이름만 유지할 뿐이다.

김준배 씨는 현역에서 은퇴하였지만, 지역 발전을 위한 일은 아직도 청춘이다. 도고온천은 타지역 온천에 비해 부대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주변에 골프장이 있고 전통옹기체험관, 레일바이크, 세계 꽃 식물원, 코미디 홀 등이 있다. 이 모든 걸 도고온천과 하나의 코스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  
 아산온천 탄생과  
 마을 이야기

 김학근 (1945년생)  
 충남 아산시 음봉면

아산시 음봉면 신수리는 예로부터 산이 깊고 참나무가 많았다. 주민 대부분이 참숯을 만들어서 생계를 이어가는 마을이었다. 참나무가 많은 동네는 큰 숯골, 적은 마을은 작은 숯골이라 불렀다.

해발 286m의 산간마을은 주로 밭농사를 경작하고 약간의 다랭이 논농사도 경작하였다. 타지역보다 지대가 높아 물이 부족해 농사짓기에는 부적합할 것만 같은데도 물 걱정은 없었다. 비가 오면 논두렁을 잘 만들고 물꼬를 잘 관리한 덕도 있지만,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물이 있어 농사짓기에 불편함이 덜 하였기 때문이다. 매봉산 정기를 가득 품은 동네는 마을 모두 편안하게 장수하는 마을이다.

김학근 씨는 신수리에서 태어나 농사를 천직으로 삼고 밭농사와 논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마을 이장을 맡으면서 새마을 사업으로 마을 길도 넓히고 부농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이장직을 내려놓고 살아가던 어느 해였다. 동네에 공원묘지가 들어온다고 신임 이장이 가 가호호 방문하여 도장을 받으러 다녔다. 그러자 삽시간에 마을이 두 패로 나뉘어 왈가불가 하였다. “마을의 발전과 개인의 용돈벌이를 위해서는 공원묘지가 들어와야 한다.” “아니다. 동네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땅값이 하락하고 정서상 안 좋다.” 하며 서로가 설전을 하였다. 평온하게 정을 나누고 살던 마을이 하루아침에 죽일놈 살놈 하며 핏대를 세웠다. 특히 이장은 공원묘지 업자와 뜻이 맞아 주민 설명회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주민들의 질책과 절차상의 이유로 중도 사임하였다.

얼떨결에 다시 신수리 이장을 맡게 된 김학근 씨는 여러 번의 주민회의와 열띤 토론 끝에 주민 찬반 투표를 실시하였다. 투표 결과 반대가 많이 나와 공원묘지 유치는 없던 일이 되었다. 마을은 다시 평온해지고 김학근 씨는 주민들의 신임과 리더십을 인정받게 되었다.

공원묘지 유치를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던 박병용·정한근 등은 큰 난관에 부딪히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했다. 이곳에 온천물이 나오는데 타당성을 조사하여 진행해보자며 온천공 개발로 눈을 돌렸다. 지하에 어마어마한 온천수가 있는 것을 확인한 정한근 씨는 온천을 개발하고자 마음을 먹고 김학근 씨를 찾아갔다. 온천은 혐오시설도 아닌데다 온천이 개발되면 동네도 좋아지고 주민들의 일자리도 창출되니 이장님이 앞장서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달라고 요청하였다.

김학근 씨는 수 차례 마을 회의를 개최하여 온천개발로 인한 동네의 득과 실을 설명하였다. 일부 주민들은 정든 땅을 팔고 타지로 이사 가야하는 사람도 발생하고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게 되면 마을 인심도 사나워진다고 반대하였다. 하지만 주민들 대부분이 첩첩산골 마을이 개발되어 활기 넘치는 마을이 되고 별 소득이 없는 논밭농사에 더 이상 미련이 없다 하며 찬성하여 온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김학근 씨는 온천개발 업체 대표를 만나 동네에서 찬성하는 대신에, 마을의 숙원사업이었던 마을 공동 수도설치, 마을안길 확대 포장, 주민들 일자리 창출, 마을 회관 신축 등을 조건으로 수락하였다.

하지만 온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매입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당시 신수리 땅값이 평당 7천 원 하였는데 온천개발업체에서는 평당 5만 원을 제시하였다. 당시에는 큰 금액이었다. 하지만 김학근 씨는 업체 측에 7만 원을 요구하였다. 주민들이 찬성은 했지만 내 땅을 팔아야 한다는 생각에 주저하고 있으니 7만 원을 주면 내가 먼저 도장 찍고 팔겠다고 설득 하였

다. 이에 업체는 평당 7만 원에 합의 하였고 김학근 씨가 제일 먼저 땅을 팔자 주민들도 따라서 하나 둘 팔기 시작했다.

외지에 살고 있는 땅 소유주들은 김학근 씨와 유문식 씨가 서울·경기지역까지 찾아다니며 설명하고 사정하여 온천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대부분 매입할 수 있었다.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니었다. 특히 외지에 살고 있는 소유주들은 아쉬울 게 없으니 끝까지 팔 수 없다며 대화 자체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삼고초려 이상으로 방문하여 어떤 소유주는 평당 30만 원에 팔고 어떤 소유주는 평당 100만 원에 팔기도 하였다.

이 소문이 신수리에 퍼지자 김학근 씨는 졸지에 죽일놈이 되었다. 일찍 안 팔고 버티면 나도 30만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장 때문에 고작 7만 원에 팔았다고 많은 주민이 김학근 씨를 원망하였다. 김학근 씨 마음은 쓸쓸했다. 7천 원짜리 땅을 7만 원에 팔 때는 우리 이장님 덕분이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죽일 놈 소리 듣는구나 하며 인생 허무함까지 느꼈다.

김학근 씨의 노력과 많은 우여곡절 끝에 온천은 성공적으로 개발되었다. 동네 주민들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출근도 하게 되었다. 또한 일부 주민들은 건물도 짓고 임대 사업 및 식당을 하면서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다. 마을로 들어오는 길도 확장되고 집집마다 상수도가 설치되어 깨끗하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었다. 조용하던 산골마을이 온천을 즐기려고 찾아오는 인파로 인해 교통체증까지 생길 정도였다. 김학근 씨가 추진하던 모든 일이 잘 진행되고 신수리 주민들의 삶이 바뀌고 생활이 윤택해지는 거 같았다.

하지만 세상일은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신수리 주민들의 생활이 좋아지는 대신에 이웃간의 정이 서서히 멀어지고 대화마저 소홀해져 갈 무렵이었다. IMF로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최고의 건설인 대우건설마저도 위태로워지더니 결국에는 아산온천과 신수리 동네까지 큰 재앙이 닥쳤다. 마을 길이 좁을 정도로 찾아오던 손님들이 하나둘씩 줄어들다가 급기야는 사람 발길이 끊기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인산인해를 이루던 거리에는 황량한 바람만 지나가고 고기 굽던 식당에는 주인의 한숨 소리만 들리는 동네가 되었다. 하루 묵고 갈 방이 없어 아쉬움을 달래며 돌아 나가던 손님들을 위해 증축하던 모텔은 뼈대만 남은 채 오늘날도 즐고 있다.

지금 아산온천은 운영 주체인 대우건설의 자금난으로 인해 약속했던 스파비스 시설은 엄

두도 못 내고 더 이상의 시설투자를 못 하고 있다. 그나마 김학근 씨의 위안은 영인면 소재지와 음봉면 소재지로 가는 길이 시원하게 뚫렸고 동네에 수도시설이 들어오면서 주민들 삶이 편안해졌다는 것이다.

김학근 씨는 올해 70대 중반을 지나고 있다. 지금은 신수리 노인회장을 맡고 있다. 혈기 왕성한 시절에 아산온천이 생기는 과정과 활기 넘치던 온천의 모습, IMF 이후 쇠락해가는 과정을 말없이 지켜보며 지나온 과정이 젊은 날의 일장춘몽 같다는 생각이 든다.

●  
**온양 청주 온천탕과  
 더불어 함께 탄생한  
 은행나무길과  
 충무풀장 이야기**



**박한철** (1969년생)  
 충남 아산시 충무로

온양온천에서 이름난 호텔이나 여관 또는 대중탕은 거의 대부분 온양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하지만 청주온천탕은 유일하게 온양이 아닌 다른 지역명을 사용하고도 영업이 잘 되고 번창하였다. 청주온천탕 창업주인 박재학 씨는 청주가 고향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청원군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묘목 사업을 하다 온양에 온천개발이 성행하자 온양으로 내려와 온천개발에 참여하였다. 박재학 씨가 온양에 왔을 때에는 주변에는 크고 작은 건물이 막 들어서고 온천수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시기였다.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랐던 박재학 씨는 온천탕을 개업하기 전 상호명을 가지고 고민하다, 늘 고향을 생각하자는 마음으로 청주라는 지명을 넣어 청주온천탕으로 정하였다. 타지에서 온 걸 굳이 티 내려고 하느냐며 주변에서 만류하였지만 박재학 씨는 독심 있게 밀어붙였고 지금도 변함없이 청주온천탕으로 영업하고 있다.

기존의 온천탕은 신정관 주변에서부터 개발되다 보니, 신천탕·용문탕·양진여관 등 서로 서로 가까이 밀집될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주변 땅값이 하늘 높이 치솟고 그 주변만 발전이 될 수밖에 없었다. 온천수를 개발하였지만 비싼 땅에다 건물을 짓기에는 금전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다. 박재학 씨는 온천수가 나오는 곳에서는 비록 떨어졌지만, 이곳까지 온천수를 끌고 올 수만 있다면 하는 생각이 들어 과감하게 지금의 자리에 건물을 지었다. 건물 공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땅을 일정한 깊이로 파면서 파이프를 연결하여 건물까지 끌고 왔다. 온양의 온천물 온도가 평균 57°를 유지하다 보니 지하로 오는 동안에도 결코 물 온도가 내려가지 않았다.

청주온천탕을 개업하자마자 밀려드는 손님으로 연일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청주탕에 손님이 몰려들자 주변에 또 다른 여관이 하나둘씩 들어섰다. 하지만 이곳은 온천수가 안 나오는 지역이다 보니 여관주인들은 난감할 수밖에 없었다. 외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대충탕에 안 가더라도 방에서 편안하게 뜨거운 온천수로 목욕하는 것을 원했다. 온천수가 없는 여관은 앙꼬 없는 찐빵이요,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나 다를 바 없었다. 대다수의 손님들은 찾아왔다가 온천수가 없다고 하면 발길을 돌려 청주탕으로 찾아오는 실정이었다. 박재학 씨는 이런 현상을 보고 좋아하기보다는 온양이 관광도시로 더 발전하려면 내 것을 저들에게 나눠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 주변 여관에 온천수를 모두 공급해 주었다.

박재학 씨의 생각은 적중하였다. 모든 여관에 온천수가 공급되자 찾아오는 관광객이 늘어났다. 이로 인해 주변에 식당과 술집, 다방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급기야는 나이트클럽과 예식장 등이 들어섰다. 온양의 본전통거리가 기존 신정관 주변에서 서서히 청주온천탕 쪽으로도 확대되면서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었다.

박재학 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도 인연이 깊었다. 1967년 3월 18일 현충사를 사적 제 155호로 지정했다. 국가에서 현충사 성역화 사업을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온양에 오면 청주온천장에 자주 들르곤 하였는데 그때부터 인연이 생겼다. 현충사 성역화 사업을 진행할 즈음 온양에서 현충사 가는 도로를 확장하면서 길가가 너무 허전했다. 박 대통령이 이곳 도로가에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당시에 동네 주민들을 대동하여 양 길가에 어린 은행나무를 심었다. 어린 은행나무를 심고 얼마 지나자 짓궂은 사람들이 은행나무를 발로 차기도 하고 부러트리기도 하며 여러 형태로 훼손이 많았다. 이에 온양 경찰서장은 감



짜 놀라 은행나무를 지키는 전담 순경을 배치하였다. 현재 은행나무 길은 전국의 아름다운 10대 가로수길로 선정되어 아산의 명소가 되었다. 충무교 다리에서부터 현충사 입구까지 약 2.2km의 도로변에 350여 그루의 은행나무가 아름다워 사시사철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온양 현충사 성역화 사업으로 온양은 많은 신혼여행 부부들과 전국의 학생들 필수여행지가 되었다. 현충사를 방문하고, 온양온천에서 목욕하고 신정호 관광국민단지에서 하루 놀고 가는 일이 대표적인 관광코스였다. 박 대통령이 온양에서 여름에 즐길 수 있는 위락시설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말에, 박재학 씨는 염치 대동리에 총부지면적 30,000평에 지하 300m에서 채수한 물로 길이 50m 폭 20m 성인용 풀과, 길이 30m 폭 20m 어린이 풀을 ‘총무 풀장’이라는 명칭으로 개장하였다. 주변에는 염치저수지와 플라타너스 나무를 심어 가족 단위나 학생단체들이 와서 즐길 수 있게 하였다. 온양시민은 물론이고 인근 안성 평택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비록 박재학 씨는 외지에서 왔지만, 온양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많은 애착을 가지고 온천 개발과 온양개발에 힘썼다. 세월이 흘러 박재학 씨는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가 남긴 청주온천탕은 지금도 옛 향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찾아오고 있다. 지금의 총무풀장은 도고파라다이스 현대식 스파비스 시설에 밀려 예전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가 심은 플라타너스 나무는 높고 푸르게 아름답드리나무가 되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그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곡교천 은행나무들도 아름답드리나무가 되어 온양의 대표 명소가 되어 전국의 관광객들이 1년 내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다. 특히 노랗게 물든 가을이면 단풍이 절정에 달해 전국 사진작가들이 찾아오고 예쁜 병아리 같은 유치원 학생들이 소풍을 온다. 차가 다니던 도로를 마을을 돌아 우회로 다니게 새로 만들어서 공해와 매연으로부터 자유롭다. 연인들이 찾아와 데이트를 즐기고 젊은 부부들은 유모차로 자녀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다.

손주 손을 꼭 잡고 거니는 노부부가 말한다. 행랑하던 이 길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한 것은 고향 청주보다 더 온양을 사랑했던 젊은 시절의 박재학이라는 청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아마도 박재학은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온양온천**  
**목욕탕 최초로**  
**남녀 1층 2층으로**  
**나누어 운영한**  
**삼보천**



**석성수** (1945년생)  
 충남 아산시 온화로

석성수 씨는 온양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비교적 살만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교육열이 대단히 높으신 선친의 영향으로 중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서울 보성고등학교에 입학하였다. 이후 연세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에 전념하던 중 대학 졸업하던 해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 석성수 씨는 졸업 후 여기저기에서 오라는 것을 다 마다하고 67년도에 고향인 온양으로 내려왔다.

당시 온양에는 온천수 개발이 한창일 때로, 신천탕과 용문탕 등이 시추에 성공하여 성황리에 영업을 하고 있었다. 석성수 씨는 온천사업이야말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한 미래의 사업이라는 걸 직감으로 깨닫고 지금의 삼보탕 자리에서 과감하게 시추를 시작하였다. 온양 대다수의 사람들은 온천물은 관광호텔이나 신천탕에서만 나오는 줄 알고 있던 시절이었다.

석성수 씨는 관광호텔 주변 이곳저곳에 수맥 물줄기를 조사하고 연구하면서 확신을 가졌다. 지금의 삼보천탕 터에 시추기를 박고 돌리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시추기라는 것이 지금처럼 좋은 것이 아니고 자동차 엔진을 개조하여 만든 것이었다. 또한 시추 할 때에 지금처럼 관할 시에 신고해서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시추해서 온천물이 나오면 영업을 할 수 있던 시절이었다. 다행히 석성수 씨는 지하100m부터 온천물이 콧콧 나왔다.

석성수 씨는 기존에 있던 목조건물을 과감하게 철거하고 신식 철근 콘크리트 2층 건물을 신축하였다. 당시에 온양의 모든 목욕탕은 1층 건물에 남탕, 여탕으로 나누어 목욕을 하는 구조였다. 석성수 씨는 이 틀을 깨고 2층 건물을 지어 1층에는 여탕, 2층에는 남탕을 만들어 삼보천 이라 이름 짓고 운영하였다. 삼보천은 세 가지 보물이 흐르는 물이라는 뜻이다.

이 운영방식이 여자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기존의 건물은 대부분 목조건물인지라 심술곳은 사람들이 목조에 구멍을 뚫어 몰래 엿보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였다. 아무리 목욕탕이라 하여도 남녀가 같은 공간에서 옷을 다 벗고 있다 나오면서 서로 얼굴을 부딪치는 것이 웬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여자들은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목욕을 하곤 하였다. 남탕과 여탕을 1층과 2층으로 나누었으니 여자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편안하게 목욕을 하였는지 알 수가 있었다.

삼보천은 1년 내내 뜨거운 물이 넉넉하게 나온다. 일부 온천탕 소유주들은 온천물을 다른 여관이나 호텔에 공급해 주면서 수입을 창출하지만 석성수 씨는 오로지 삼보천탕 만을 위해 온천을 사용하였다. 이로 인해 타 업소에 비해 수입은 적을 수 있었겠지만 삼보천 대중탕 물은 항상 넘쳐나서 때 찌꺼기가 떠다니지 않고 깨끗하다는 소리를 매일 들어 행복 하였다고 한다.

석성수 씨가 삼보천탕을 개업하고 영업을 시작할 무렵, 온양은 현충사 성역화 사업으로 새롭게 단장하였다. 전국의 신혼 여행객들과 수학여행 학생들이 밤낮으로 찾아와 북새통을 이루었다. 특히 신혼여행 온 부부들은 조금만 늦장이나 여유를 부리면 십중팔구는 방을 못 구하는 일이 허다했으니 삼보천탕은 언제나 손님들로 넘쳐 날 수 있었다.

당시에는 전국에 자가용이 있는 집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고 대중교통 또한 크게 발달하지 못하여 온양온천으로 놀러 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다. 다행히 온양은 장항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오는 것이 수월해졌다. 1970년도에 들어서면서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천안에 톨게이트가 생기자 고속버스가 서울에서 천안까지 운행하였

다. 온양온천으로 여행 오는 사람들은 고속버스를 이용해 천안에 도착해서 간간히 다니는 직행버스나 완행버스를 타고 오곤 하였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때 막차 버스 시간에 맞추지 못하면 천안까지 택시를 타는 방법 밖에 없다 보니 택시 영업이 잘 되었다. 찾아오는 관광객 수에 비해 교통수단이 너무 열악하자, 아산군과 지역 유지들이 고속버스가 온양까지 경유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진정서를 중앙정부에 내어 유신고속이 온양까지 운행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온양온천으로 관광 오는 사람들이 고속버스를 타고 바로 올 수 있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 온양의 경기는 더욱더 번창하였지만 택시 종사자들은 고속버스가 온양까지 오는 것을 반대 하면서 데모를 하였다고 한다.

찾아오는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온양은 통금해제라는 큰 혜택을 받았다. 당시에는 밤 12시가 되면 모든 사람들의 통행이 금지되는 시대였다. 당연히 온양도 밤 12시가 되면 모든 영업을 중지하고 문을 닫고 손님들은 여관방으로 들어가야 했다. 관광객들이나 주인 입장에서 아쉬움이 많았다. 통행금지법이 해제 되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왔다. 이웃 시·군에서도 젊은이들이 찾아와 온양은 밤과 낮 구분 없이 활기 넘치게 돌아가는 지역이 되었다.

영원할 것 같던 호황기도 나라가 부강해지고 소득이 올라가자 온양온천으로 여행 오던 사람들이 제주도로 가고 해외로 나갔다. 어느 순간부터 학생들의 수학여행마저 다른 지역으로 빠지는 지경에 이르렀고 급기야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기고 말았다.

석성수 씨는 지금 삼보천탕을 폐업하고 쉬고 있다. 한때는 미래사업 이라고 생각해 온천공을 개발하여 열심히 살았지만 이제는 힘에 부치기도 하고 새로운 시설투자가 부담스럽기도 하다. 일부 사람들은 온양온천수가 고갈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도 하지만, 천년을 넘게 솟아나는 온천수가 그리 쉽게 고갈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석성수 씨는 오히려 빈 건물만 남는 게 더 걱정이라고 생각한다.

●  
아산온천  
설립 및  
발전과정



**유문식** (1939년생)  
충남 아산시 음봉면

아산온천은 충남 아산시 음봉면 신수리 매봉산 기슭 25만평 부지에 건설되었다. 아산 온천의 온천수는 성인병 피부질환 미용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게르마늄이 함유된 최상급의 온천수이다.

유문식 씨는 이곳 아산온천의 시작부터 쇠락까지의 과정을 남다른 사명감과 애착을 가지고 함께 한 인물이다. 유문식 씨는 공주에서 태어나 광산 일을 하다가 30살 되던 해에 아산 음봉면 신수리 친척 소유의 야산에서 목장을 하기 위해 이사를 왔다. 처음 이곳 신수리로 이사 올 당시에는 마을까지 큰 도로가 없고 좁은 길만 겨우 있는 전형적인 산골마을이었다 한다. 공주에서 이삿짐을 싣고 와 큰길이 있는 곳에 짐을 내리고 마을 청년들이 손수레와 지게로 직접 이삿짐을 날라 주었다. 3km에 이르는 먼 길 끝 외딴집이었다.

유문식 씨는 산에 있는 돌과 풀을 개간하여 자그마한 밭을 만들었다. 당시에는 마을 최

초로 수박농사와 비닐 씌우기 농법을 이용한 농사도 시도했다. 처음으로 자전거를 구입해 타고 다니면서 선진영농기술을 남들보다 먼저 배우고 시도하였다.

젓소를 키우는 이윳이 있어 젓소 사육에 관심을 갖다가 아산시 낙우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젓소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였다. 매일우유 회사에서 젓소 50마리를 지원받아 낙우회 회원 가정에 2마리씩 분양하여 가정 소득증대에도 힘썼다.

어느 날 유문식 씨 댁 뒷산에 공원묘지를 유치하기 위해 외부사람들이 찾아왔다. 유문식 씨는 산골 오지마을에 공원묘지가 들어오는 것을 굳이 반대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대놓고 찬성하지도 않았다. 평생 가야 팔 일 없는 오지 땅을 팔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도 찬성하지 못했던 이유는, 동네주민들의 눈치도 봐야 했기 때문이다. 공원묘지 조성으로 인해 동네 인심이 뒤숭숭해지고 급기야 동네 이장마저도 물러나는 일이 발생하였다. 새로운 이장을 선출하고 수차례 마을 회의를 한 결과 공원묘지 조성은 불발되고 대신에 온천개발을 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공원묘지 유치가 실패하자 뜻 있는 몇 사람이 마을에 온천수가 흐른다는 말을 듣고 온천수를 개발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우선 장호원에 살고 있는 목진석 씨를 찾아가 수맥을 봐 달라고 하였는데 물이 아주 좋고 많다고 했다. 주식회사 아산온천개발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하였다.

1985년 온천수 부존 탐사를 시작으로 1987년 온천 시추공을 굴착 했다. 1988년 온천 제1호공 굴착공사를 착공하였지만 좀처럼 온천공은 발견되지 않았다. 굴착을 하면 할수록 인건비와 굴착기 임대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준비해 두었던 자금은 바닥이 나서 개개인의 전담을 매각하여 부족한 비용을 메꾸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 정한근 씨는, 서울 답십리 무당·속리산 무당·계룡산 무당을 모셔와 여러 번의 굿을 하였다. 그중 서울 답십리에서 온 무당이 굿을 하다가 한곳을 계속 지목하면서 이곳을 파면 수맥이 열린다 했다. 속는 셈 치고 파보자 해서 봤는데 기다리고 기다리던 수맥이 터진 것이다. 지금도 이곳에 아산온천에서 제일 잘 나오는 대표적인 온천공은 답십리 무당이 지목한 곳이다.

유문식 씨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에 도전할 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였다. 하지만 유문식 씨는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을 항상 가슴속에 새기면서, 내가 비

록 시골 산골의 필수이지만 내 전 재산을 투자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지역에 좋은 온천을 개발하여 꼭 성공하리라는 마음을 굳게 다졌다.

유문식 씨는 온천수 발견을 신고하고 온천지구 지정고시와 국토이용계획 변경신고를 하였다. 1991년 아산온천 관광지에 필요한 부지조성 공사 및 온천수관 매설 및 오폐수 처리시설 등 필요한 모든 것을 마치고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산온천장을 개업하였다.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늦게 온 사람들은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 인근 온양온천과 도고온천으로 가야 할 정도로 온천은 번성하였다.

하지만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IMF가 찾아오면서 손님은 나날이 줄었다. 투자한 돈에 이자와 더불어 원금이 바닥나고 가지고 있던 논밭도 모두 은행에 저당 잡혔다.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바람에 결국 대우건설에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

유문식 씨는 3명의 무당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불현 듯 생각났다. 무당들은 매가 알(마을.아산온천)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산이 매봉산이니 절대로 매의 알을 건드리면 안된다고 했다. 만일에 알을 건드리면 아산온천은 누가 운영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개발 한다면 1평이라도 더 늘리려고 매가 알을 품고 있는 지형 가운데 알 부분을 포크레인으로 밀어 버린 것이다. 유문식 씨는 무당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에는 못 버티고 대우건설에 매각하는구나 하며 탄식했다.

우여곡절 끝에 대우건설이 인수하면서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96년 12월 문화체육부의 관광특구 지정과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다. 온천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대우건설도 IMF 여파와 본사의 무리한 경영으로 약속한 투자와 휴양 스파비스 건설을 못하고 부도직전까지 내몰렸다. 최근 현대산업개발이 금호아시아나를 인수한다고 발표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였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인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현대산업개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인수 포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문식 씨는 이 또한 매봉산의 저주이며 인간의 무리한 욕심이 화를 불렀다고 생각한다.

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넘쳐나는 관광객들로 인해 항상 도로가 비좁고 숙박시설 및 식당도 부족하여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괜히 미안하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아산 온천은 을씨년스럽고 황량하기만 하다. 90년대에는 신혼여행 부부부터 이름만 대면 알만

한 연예인들과 기업가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던 아산온천이다. 지금은 그 옛날의 추억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처음에 큰 꿈을 품고 시간과 재산을 투자하였던 동업자들이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아있는 유문식 씨는, 여러 가지 이유로 후유증을 가슴에 안은 채 살아가고 있다.



●  
**신천탕의  
 설립과정 및  
 신천탕의  
 숨은 이야기**



**유재봉** (1945년생)  
 충남 아산시 온천대로

유재봉 씨는 충남 천안에서 태어나 6.25때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온양으로 피난 오면서 정착하였다. 당시 신천탕 옆 건물에서 당구장을 운영하시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신천탕의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났다. 당시 신천탕 대표이신 이관용 씨가 인부들과 함께 삼과 곡괭이로 온천공을 파는 모습을 자주 보면서 살았다.

중학교 1학년 무렵 신천탕이 개업을 하였는데 온양군수님 외 유지분들과 수많은 온양군민들이 참여하였다. 박노을 온양문화원 간사님이 사회를 보고 군수님 외 여러분들의 축사를 했다. 돼지머리 고사, 농악놀이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고 떡과 막걸리를 대접하였으며 개업기념선물로 부채를 나눠주었다고 한다. 세월이 흘러 개업선물로 준 부채는 모두 없어지고 딱 한 개만 남아 이재용 씨가 간직하고 있다.

유재봉 씨와 이재용 씨는 동갑내기 친구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같이 다녔다. 이재용 씨가 대전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유재봉 씨는 서울 성동공업고등학교 전기과에 진학하였다. 서울성동공고 전기과를 다니면서 방학이면 온양에 와서 아버지 일을 도우며 당구장 전기배선이나 기타 작업을 집적 하였다. 그 시기 신천탕 이관용 씨는 온천공 개발을 위해 구식 모터나 일본인들이 버리고 간 발동기를 개조하여 온천 굴착을 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전문 굴착기가 없고 개조한 것을 사용하다 보니, 여러 곳에서 자주 고장이 발생하였다. 특히 전기 사정이 안 좋았던 시기라 전기 고장이 많았다.

여름방학을 맞아 온양에 온 유재봉 씨가 신천탕 앞을 지나는데 기계가 고장 나 작업을 못하고 있었다. 친구 아버지 이관영 씨를 보고 전기 배선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으니 제가 한번 고쳐보겠다 하고 발동기 배선을 점검하여 깔끔하게 고쳐놓았다. 이에 이관영 씨는 크게 기뻐하며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하면 유재봉 씨를 불러 고치곤 하였다. 이런저런 사유로 유재봉 씨와 신천탕은 어려서부터 인연이 참 많았다.

서울 성동공고를 졸업한 유재봉 씨는 대기업 건설회사인 대림산업에 입사하고 군대에 갔다. 군 생활을 하면서 휴가 나오면 꼭 신천탕 기계실에 들러 굴착기 기계를 보고 집적 시운전도 해보곤 하였다.

군 제대 후 회사를 사퇴하고 온양문화원에 취업하였다. 문화원에서 일을 하면서 당시에는 라디오가 귀한 시절이라 문화원 방송시설로 군민들에게 라디오 뉴스를 전해주었다. 영사기를 구입하여 군민들에게 영화를 보여 주기도 하였다. 신천탕이 3층 건물로 새로 신축하고 리모델링하면서 재개업을 할 때에는 유재봉 씨가 사회를 보고 박노을 원장님이 축사를 하였다.

친구인 이재용 씨의 권유로 신천탕에 입사한 유재봉 씨는 기술자들과 상의하고 본인이 현장에서 집적 굴삭기를 운전하면서 문제점과 개선할 점을 파악했다. 신 굴착기를 개량하여 시간과 노동력 원가를 절감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새로운 온천공을 개발하고 온천공이 호텔이나 여관으로 가는 동안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하 땅속 깊이 매설하여 공급하였다. 신천탕 지하에 현대식 모터와 계량기를 설치한 기계실을 제작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한때는 사람들이 가족단위나 모임에서 또는 신혼여행을 온양온천으로 와서 목욕도 즐기

고 여관에서 준비해준 식사(한정식)를 하고 현충사와 신정호 등을 관람하는 문화가 있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단체나 신혼여행객 들은 묵고 있는 숙소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했는데 반찬이 25~30가지나 되었다. 지금은 사라진 문화이지만 옛날 온천문화는 여관방에서 목욕도 하고 모임도 하고 세미나도 하면서 밥 때가 되면 거하게 차려진 식사(한정식)를 하는 것이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끝나고 아산시민체육관과 실내수영장(국가대표 훈련장)이 온양에 생겼다. 이 수영장 물을 신천탕에서 실내수영장까지 땅에 파이프를 묻어 온천물을 공급하여 사용하였다. 수영장에 1회 공급하는데 3일 밤·낮이 소요되었다. 물론 물은 보일러나 기타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따뜻한 신천탕 온천수를 공급하였는데 선수나 일반인 모두 다 만족하였다. 지금은 국가대표선수들은 사용하지 않고 아산시민들만 사용한다. 현재는 신천탕 온천수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 보일러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데워 사용한다고 한다.

온양에 온천수가 개발되면서 호텔 여관 등이 많이 건립되고 더불어 전국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찾아오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한때는 온천수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였다. 신천탕에서 여러 업소에 공평하게 온천수를 공급해야 하지만 물이 부족한 이유로 제한적으로 공급했다. 아침 일찍부터 기관실로 찾아와 물 달라고 사정하고 심지어는 살머시 돈 봉투를 가지고 와서 먼저 물을 달라고 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생기기도 하였다.

신천탕도 어느 순간 온천수량이 감소하고 물 온도도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여, 유재봉 씨와 이재용 씨가 남모르게 큰 걱정을 하던 시기가 있었다. 여러 개의 온천공 중에 하나를 막고 사용하기도 하고, 하루 사용하는 양을 조금씩 줄이기도 하고, 주변 수맥을 재조사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였지만 답은 없었다.

하루하루 걱정이 더해지던 어느날 이재용 씨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다.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이관용)와 합장을 하기위해 묘를 파보았다. 아버지 묘에 물이 가득해 깜짝 놀라 물을 제거하고 잘 정돈하여 어머니하고 합장을 하였다. 부모님을 잘 합장하고 일상생활을 하던 어느 날 직원이 급하게 찾았다. 급히 달려가보니 온천공에서 진흙물(머드)이 나오는 게 보였다. 온천공에서 진흙물이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 온천물이 나온다는 초기 증상이다. 이후 얼마간의 진흙물이 다 나오자 거짓말처럼 온천물이 콧물처럼 나오고 온도도 예전처럼 올라갔다.

아마도 온천공이 어떠한 이물질에 의해 막혔던 것이 공교롭게도 아버님 묘를 정돈하고 나서 뚫리다 보니, 유재봉 씨와 이재용 씨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다시 온천수를 공급해 주는 것이라 믿고 있다.

온천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온천물이 약 30°만 되어도 온천허가를 내 주었기에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온천이 생겨났다. 또한 온양은 현대자동차, 삼성디스플레이 등 대기업의 1·2차 공장이 입주하면서 인구가 늘어나 아파트가 많이 건설되었다. 아파트가 생기면서 집집마다 목욕 시설이 마련되어 젊은이들이 굳이 목욕탕에 안 가더라도 집에서 목욕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또한 온양온천으로 향하는 발길이 줄어든 원인이 되었다. 이로 인해 온양온천이 심하게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한다. 유재봉 씨는 아쉬움을 삼키면서도 그때 생긴 온천지역이 지금은 모두 다 쇠퇴하였지만 물이 좋은 온양온천만은 지금도 왕성하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유재봉 씨는 76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신천탕 지하 기계실에서 일하고 있다. 출근해서 제일 먼저 모터를 점검하고 온천물의 온도 체크와 수량을 기록 점검 하고 있다. 벌써 은퇴할 나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것은,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그저 온천수를 지켜보는 것이, 본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젊은 세월을 굴착기 기계와 함께 온천수를 찾았고 노년에는 햇빛 없는 지하에서 힘차게 솟아나는 온천수를 지켜보며 살아가지만, 그의 얼굴이 20대 피부보다 더 젊게 보이는 것은 온양온천물의 효능이 아닐까 생각한다.

●  
온양 최초의  
민간온천탕인  
신천탕 이야기



**이재용** (1944년생)  
충남 아산시 온천대로

온양온천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으로 그 역사가 약 1300년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에는 세종대왕 외 세조, 현종, 숙종, 명종, 영조, 정조 등 여러 임금께서 온궁을 짓고 휴양이나 병 치료를 위해 머물고 돌아갔다는 기록과 유적들이 남아 있다. 현종, 숙종, 명종 임금은 온천에 오실 때 과거를 보게 하여 지역인재를 발굴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일제 때에는 온양온천주식회사가 온천장을 경영하고 1927년 이후에는 경남 철도주식회사가 경영하던 신정관과 일본이 소유한 탕정, 이렇게 2 개소 뿐이었다. 1963년 신천개발공사 이관용 씨가 개발한 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은 약 38개공의 온천공이 있다.

이관용 씨는 일반인들이 저렴하고 편안하게 목욕을 할 수 있게 대중온천을 개발하고자 신정관의 물줄기를 수없이 파악하고 연구했다. 많은 시행착오 끝에 1936년 온수광천을 개

발하여 오늘의 신천탕과 함께 온양의 대중탕문화의 첫 발판을 만들었다. 당시에는 굴착기가 없어 30여명의 일꾼들이 삽과 곡괭이를 이용해 깊이 약30m를 파 내려가자, 신천탕 온천물의 시초가 된 온천수가 솟아올랐다고 한다.

이관용 씨가 민간인으로는 처음 온천공을 개발하였다면 아들인 이재용 씨는 온천탕의 대중화를 위해 평생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온양온천탕 발전과 성장 과정을 이야기 하면서 이재용이라는 이름을 논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재용 씨는 아버지 이관용 씨의 장남으로 태어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온양에서 다니고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이후 한양공업대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전자회사의 선두기업이었던 아남전자에 입사하여 탄탄대로를 걷고 있었지만 아버지 이관용 씨의 부름을 받고 온양으로 내려왔다.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온양에 내려온 이재용은 온천공 개발에 참여하면서 특히 굴착기 개발에 관심을 가졌다. 기존 구식 발동기로는 깊이 파기가 힘들고 굴착시간도 너무 오래 걸려 비효율적이고 작업능률도 나지 않았다. 이재용 씨는 현장에서 작업하기 용이하게 굴착기를 설계 하고 공업사에 의뢰해 제작 하였다. 현장에 적합한 굴착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체계적인 굴착작업이 가능해졌다. 어린 시절 친구이자 평생지기인 유재봉 씨와 함께 새로운 온천을 개발하여, 온양시내 약 80여 곳에 온천수를 공급하면서 온양이 온천도시로 발전하는데 선구자 역할을 하였다.

신천탕 온천공에서 많은 양의 온천수가 나올 즈음에 인근에서는 식당과 호텔과 여관들이 많이 건립되었다. 호텔과 여관들이 개발되면서 온천수가 필요해 지자, 이재용은 온양시내 골목 땅속에 파이프를 매설하여 신천탕에서 호텔과 여관에 온천수를 공급하였다. 온양시내 모든 여관에 온천수가 나오게 된 것이다.

대중온천탕이 개발되자 목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게 되고 이로 인해 주변에 여관이 많이 들어서고 식당이 들어섰다. 숙박업이 발전해지자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였는데 특히 신혼여행 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유명 연예인들도 많이 방문하였다.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온양으로 모이자 자연스럽게 술집과 다방들도 성행하였다. 특히 술집이 많아지면서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동네 파출소에는 통행금지 위반자들이 넘쳐나곤 하였다. 다행히 뜻있는 지역 유지들이 통행금지를 해지해달라고 건의한 결과 온양은 통행금지가 해지 되어 더욱더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재용 씨는 온천 사업 외에도 지역사회 봉사 활동에 큰 기여를 했다. 해병대 온양·아산 전우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면서 재난방재와 자연보호운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아산 청년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지역 어르신을 위한 각종 나눔봉사에 참여하였으며, 바르게 살기 운동 회장을 맡아 지역 청소년교화운동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1981년 온천법 개정 후 무분별하게 온천이 생기고 이로 인해 온양온천이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는 이재용 씨는, ‘온천수라면 적어도 50°이상이 되어야 온천수지’ 하면서 얼굴에 아쉬움이 가득하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던 전국의 온천지역이 어느 순간 하향 길을 걷고 있다. 이유야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온천수 온도가 일정 온도에 미치지 못하는 곳은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있다. 다행히도 온양온천물은 수질이 매우 좋고 물 온도도 항상 50°이상을 유지하므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더불어 교통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에서 전철을 타고 온양에서 내리면 어느 온천탕을 가더라도 모두 걸어서 5분 안에 갈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온양의 온천수는 무궁무진하게 나오지만 무분별한 온천수 낭비를 막기 위해 이재용 씨는 정해진 하루의 양만을 사용하고 있다. 집에서 간단하게 샤워를 즐기는 젊은이들도 언젠가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목욕탕으로 찾아오는걸 알기에, 큰 걱정은 안 하고 남은 인생을 온양온천 발전에 이바지 하는 일념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재용 씨는 큰 욕심없이 생활하고 있다. 인간 이재용의 몸은 마르고 얼굴에는 주름이 있고 머리는 백발로 변했지만 온양온천의 물은 지금도 변함없이 솟아 나온다는 것에 행복하다.

80~90년대처럼 사람들로 인사인해를 이루지는 못하지만, 온양온천물의 가치를 알고 있는 국민 1명이라도 있다면 행복하다고 말한다.

●  
**도고온천  
 발전과정과  
 현재의 모습  
 비교**



**이 종 식** (1938년생)  
 충남 아산시 도고면

온양 점양동에서 태어난 이종식 씨는 군대 제대하고 온양우체국에 취직을 하였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필기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었다. 기본적인 체력과 전국으로 배송될 우편을 누가 빨리 지정된 함에 넣고 빼기를 잘하는가를 보고 결정하였다. 하지만 우체국 일은 그리 만만치 않았고 평생 직업으로는 삼기에는 웬지 불안하고 석연치가 않았다. 이종식 씨는 고심 끝에 과감하게 사표를 내던지고 도고온천으로 내려왔다.

당시 도고온천은 온천 개발을 막 시작해 어수선한 분위기였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 외지에서 많은 이들이 이사 오던 시기였다. 이종식 씨도 조그마한 상점을 임대해 식료품 가게를 시작했다. 여기저기에서 건물을 짓고 여관과 식당이 하나 둘씩 생기고 개울 건너에는 도고호텔이 들어섰다. 연이어 한국콘도와 글로리콘도 외 공기업 연수원 등 다양한 숙박시설이 많이 들어섰다. 당연히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인해 도고온천 안길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특히 한복 입은 신혼여행 부부들이 신혼여행을 많이 왔다.

식료품 가게를 하던 이종식 씨는 식료품 가게로는 수입이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고 자리를 옮겨 식당을 시작하였다. 이종식 씨의 예상은 적중했다. 밥을 먹으러 찾아오는 손님들이 다 받을 수가 없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다. 이종식 씨를 비롯하여 도고온천에서 장사하는 모든 업종이 수입이 높아지고 날로 번창하였다.

하지만 날마다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원주민들은 생활하기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자 작은 호프집이 하나 둘 생기면서 불야성을 이루더니 어느 날 나이트 클럽이 생겼다. 밤낮없이 술 마시고 질러대는 고성방가는 기본이요, 집 앞까지 차를 주차하는 사람들로 인해 경운기가 못 나가 논·밭일을 못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외지에서 들어와 장사하는 사람들만 좋고 원주민은 아무런 소득도 없이 불편함만 초래 하였다.

급기야 원주민들과 상인들 간의 불화가 심해지더니 길을 막는 사태가 발생하고 싸움이 일어났다. 이에 이종식 씨는 상인들과 마을 젊은 청년들을 연합하여 도고 방법대를 조직하고 초대 회장을 맡으며 야간순찰 및 동네 대민지원 등 스스로 봉사에 앞장섰다. 또한 개인 친목단체인 ‘짬’이라는 단체를 이끌고, 동네 방역 소독, 하수구 청소, 마을 안길 청소 등 다양한 봉사를 통해, 원주민과 상인들 간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여 보사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온양온천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 도고온천은 큰 각광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주변에 도고종합레저타운이 설립되면서부터 크게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레저타운에는 도고 골프장, 테니스장, 승마장, 수영장 등이 있었다. 이로 인해 도고온천은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국민명소가 되었다. 날마다 수많은 관광버스와 택시가 들락거려도 손님을 못 데려오자, 장항선 학성역과 도고온천 역 사이에 임시 선장 간이역이 생겼다. 이로 인해 서울 경기지역에서 수백 명이 한꺼번에 편안하게 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자 도고온천은 더 큰 호황을 이루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이곳 도고온천을 좋아했다. 업무에 지치고 힘들 때에는 이곳에 내려와 도고호텔이나 청수장여관에서 쉬곤 하였는데, 대통령이 내려올 때에는 지역경호가 매우 심했다. 사복 입은 남녀 경호원들이 미리 내려와서 거리를 순찰하고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검문을 했다. 박 대통령이 청수장 여관에 머물 때에는 그 여관에 다른 손님들은 받지 못하

게 하고 주변 여관 창문은 커튼을 치고 열지도 못하게 하였다고 한다. 그래도 그 시절에는 나라님이 오셨으니 불편함은 당연히 감내하고 영광으로 생각하였다고 한다.

이종식 씨는 이제 팔순의 나이가 됐다. 이립의 나이에 도고온천에 정착하여 한참 호황 일 때에는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쉬고 싶을 때도 있었다. 이제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나이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곳 도고온천에는 찾아오는 관광객이 없다. 도고 파라다이스 스파비스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북적대지만 지역경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스파비스에 들어가면 하루 종일 나올 수가 없다. 모든 용품들이 스파비스 안에 다 있다. 간식도 식사도, 심지어 껌 한 통도 다 안에서 해결한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도 지역 상인들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면서 쓸쓸해 한다.

세상살이가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는 법이지만 이곳은 너무 내리막길만 있는 거 같다. 밤 낮 없이 불야성을 이루고 사람과 사람이 치여서 못 다닐 정도로 복잡하던 거리는 가로등 불빛만 혼자줄고 있다. 토목공사 하고 분양하기 위해 정돈한 땅에는 이름 모를 잡초만이 무성하게 흔들거리고 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온천 여행이 시들어져 가는 마당에 장항선철로 직선화 사업으로 인해, 도고온천역이 엉뚱한 곳에 들어서니 더 더욱 손님도 오지 않는다.

그마나 이종식 씨네 식당은 선지 해장국으로 유명하여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고 인근 지역에서도 자주 온다. 또한 골프장에서 골프 치고 나오는 사람들도 가볍게 먹고 가는 게 이 집 선지 해장국이다. 한결 같은 맛을 유지하는 게 비결이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둘째 아들에게 물려주고 마을회관에서 아코디언을 배워 재능봉사를 다니는 게 낙이라고 말한다.

어려운 시절에 처자식 데리고 먹고 살기위해 도고온천에 와서, 모진 풍파 이겨내며 아들 딸 다 잘 키우고 시집 장가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도고온천물과 고마운 이웃덕분이라고 말한다.

•  
**온양온천과  
 함께 발전한  
 용문탕 이야기**



**조국형** (1953년생)  
 충남 아산시 온천대로

조국형 씨는 온양에서 개인병원을 집적 운영하고 온천공을 발견하여 작은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 아버지로 인해 부유한 유년시절을 보내고 서울로 올라가 대학을 다녔다. 졸업 후 대기업에 취업하여 일하던 시기에 고향 온양에서는 온천사업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었다. 조국형 씨는 미래 사업이 온천업이라 생각하고 과감하게 사표를 제출하고 온양으로 내려왔다. 하지만 아버지의 생각은 조국형 씨와 너무나도 달랐다. “대학까지 나온 자식이 나라를 위한 일을 해야지 아랫사람들이 하는 온천일은 엘리트가 할 일이 아니다.” 하시며 극구 반대를 하셨다. 조국형은 아버지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면서 온천공에 대한 희망을 더 크게 가졌다.

우여곡절 끝에 용문장을 물려받은 조국형 씨는 처음에는 목욕탕만 운영하였다. 하지만 온천이 활성화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되면 목고 갈

방이 많이 부족할 거라고 판단하여 과감하게 여관을 신축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국형의 예상대로 전국에서 신혼여행, 가족여행, 수학여행 등 엄청난 사람들이 온양으로 관광을 왔다. 현충사 성역사업으로 현충사를 잘 가꾸고 온양 민속촌, 외암민속마을, 신정호 관광단지 등의 관광지 조성화 사업이 맞물리면서 온양은 사람들로 넘쳐났다. 목욕탕과 객실은 늘 만원이었고 주변 식당은 손님들이 더 많았다.

이에 조국형 씨는 손님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여관에서 집적 한정식으로 준비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도입하였다. 결과는 대 성공이었다. 객실 손님들은 일부러 일찍 일어나서 밖에 식당으로 나가지 않고 방에서 여관 밥상을 받아 편안하게 식사를 하였다. 당시의 가정집에서 먹기 힘든 조기구이, 돼지수육, 낙지숙회, 어리굴젓, 돌계장 등 30여 가지가 푸짐하게 나왔다. 특히 결혼한 부부들이 온양온천으로 신혼여행을 많이 왔는데 온천물도 물론 좋았지만 방안까지 가져다주는 한정식은 최고의 인기 상품이었다.

용문탕은 지하 약300m에서 온천물이 나온다. 선친께서 병원을 운영하시다가 주변의 땅에서 온천수가 나오자 본인의 땅에도 온천수가 나올 것 같은 생각에 인력을 동원해 시추했더니 지하 300m경에 이르러 온천수가 나왔다. 1호관을 설치하고 용문탕이라는 이름으로 대중탕을 개업하였다.

다른 온천탕들은 처음 시추 할 때나 처음 개업할 때 여러 신들에게 고사를 지낸다. 하지만 용문탕은 시추할 때도 개업할 때도 고사는 한번 도 안 지냈다. 조부 때부터 믿어온 천주교 신앙으로 인해 고사를 안 지내고 영업을 하였지만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물 잘 나오고 있다. 아마도 옛날 고사는 동네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일을 시작하니 많이 오셔서 음식과 술도 드시고 도와 달라는 의미인거 같다.

온양의 모든 온천탕은 기차(전철)역에서 내려 5분 이내에 도착 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참으로 복 받은 동네이다. 특히 용문탕은 걸어서 3분이면 도착하니 이것 또한 큰 행운이다. 최근에 장항선 철로가 복선화 되고 전철이 이곳 아산까지 개통 되면서 서울 경기 지역의 어르신들이 목욕여행을 많이 오게 되었다. 그 전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면 전철이 개통되면서 어르신들의 방문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아마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전철요금이 무료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고 또 당일치기 여행이 가능하기 때문인 듯하다.

대다수의 목욕탕이 새로운 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운영하지만 용문탕은 옛 모습 그대로를

고집하고 있다. 지금도 여관 방문을 열면 온돌식 방이 반겨주고 1인용 FRP욕조가 아닌 타일을 붙여놓은 흔치 않은 가족탕 욕조가 있다. 요즘에도 옛날을 추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회의나 기타 모임을 하고 식사도 시켜 먹곤 한다. 방 옆에는 약 20여 명이 함께 들어가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이 따로 있어 언제든지 사용 할 수 있다. 또 다른 객실에는 가족들이 와서 남녀 따로 따로 목욕탕으로 들어가지 않고 한 가족이 한 방에서 함께 들어 갈 수 있는 가족욕조도 있다. 부부가 와서 함께 몸을 담글 수 있는 부부 전용 욕조가 지금도 있다.

조국형 씨는 온천협회 회장과 총무를 역임하면서 동종 업종간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과대 경쟁 및 각종 민원발생이 없도록 중재자 역할을 해 왔다. 그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한 일은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온천수 보호를 위해 전국 최초로 민관이 뜻을 모아 온천수 측정 자동시스템을 설치한 것이다. 이로 인해 온양온천이 전국에서 모범적인 온천도시로 인정받기도 하였다. 또한 아산시 최대행사인 4.28 성웅 이순신 축제에서도 온천수신제를 지내면서 온양이 온천 도시임을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노력한 것이, 조국형 씨에게는 큰 자랑이고 가장 뜻 깊은 일이라고 말한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온양온천은 지질이 단상흑운, 각섬석 화강암으로 되어있으며 용출되는 수온이 58° 내외로 유지되는 고온 온천이다. 이는 타지역 온천과는 질 적으로 다르고 효능은 다른 온천에서 흉내 낼 수도 없는 것이다. 온양온천의 경쟁력이 다른 지역의 온천들과 비교해서 크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 조국형 씨는, 온양온천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으며 제주도나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가족단위 온천여행은 꼭 온양으로 오고 있다고 말한다.

●  
**도고온천**  
**유황온천의 미래는**  
**한방 보양온천**



**최영재** (1956년생)  
 충남 아산시 도고면

철도공무원이셨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비교적 중상위 가정에서 태어난 최영재 씨는 도고 온천 물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가 철도공무원으로 일을 하시고 어머니께서는 지금의 신온천장 자리에서 구멍가게를 하시면서 살아오셨다.

옆에서는 원탕이라는 목욕탕이 영업을 하고 있었고 앞 도고천에는 약수터가 있었다. 약수터는 어릴 적부터 이 물을 마시고 먹도 감고 아낙네들은 빨래도 하는 동네 사랑방 같은 곳 이었다. 또한 이 약수터물을 동네 공동우물로 사용하였는데 이 물은 유황성분이 강해서 피부병, 위장병, 부인병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었다. 유황 성분이 얼마나 강했는지 동네 사람들 대부분이 치아가 누렇게 변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를 잘 모르는 타 동네 사람들은 물탕 사람들은 밥 먹고 양치도 안하는 사람들이라고 오해를 하기도 했다.

원탕이 도고온천 최초의 유황온천으로 각광 받으며 영업을 하자, 인근 근거리에 있는 사

람들이 치료차 찾아왔다.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원탕 앞에는 하루 종일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몇 날 며칠 이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최영채 씨의 아버지는 원탕보다 가까운 이곳(신온천장)에 시추하면 물이 더 잘나오지 않을까 하고 수일을 생각 하다가 수맥을 확인하고 시추에 들어갔다. 경운기 엔진을 개조하여 만든 시추기를 가지고 파 내려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불과 지하 25m에서 유황물이 솟아 올라온 것이다. 물 온도는 온양온천에 비해 덜 하였지만 유황성분은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아낙네들이 머리 감을 때 샴푸를 사용 안 하고 물로만 감아도 머릿결이 부드럽고 엉키지 않았다. 몸에 비누칠을 안해도 피부가 매끄럽고 탄력이 넘쳤다고 한다.

최영채 씨는 어머니가 하시던 구멍가게를 철거하고 목욕과 숙박을 겸한 여관을 신축하였다. 각 방마다 욕조를 설치하고 가족탕까지 완비하여 신온천장이라는 간판을 달고 1981년 개업을 하였다. 개업식에는 동네 면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을 초대하여 돼지머리 놓고 고사를 지내고 떡과 막걸리로 대접하였으며 개업선물로 당시에는 귀했던 수건을 나누어 주었다.

80년대만 해도 돈 있는 사람들이나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도권에서 가까운 온양온천이나 도고온천으로 신혼여행을 오던 시절이었다. 특히 도고온천은 유황온천으로 유명한 데다 도고호텔이 준공되고 옆에는 지금의 스파시설과 유사한 도고수영장이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러왔다. 신온천장여관은 객실이 40개 였는데 주말이면 전날에 예약이 다 되고 40개 객실 중 35개는 신혼부부들이 예약하였다.

도고호텔에는 박정희 대통령을 위한 방이 따로 있었는데 대통령은 매년 이곳 선장과 도고를 방문했다. 이 때는 경호원들이 미리 와서 주변 곳곳을 순찰 하고 심지어는 신온천장여관에서 도고호텔이 보이는 창문에는 모두 커튼으로 가려서 안 보이게 하였다. 저녁 6시 이후에는 동네 사람들도 마실을 못 다니게 하였다. 물론 신온천장여관 뿐만 아니라 도고호텔이 보이는 모든 여관 창문은 다 커튼으로 가렸으며 일부 경호원은 각 여관 옥상에서 주변을 감시하기도 하였다.

한 때는 전국민이 사랑하고 즐겨 찾던 도고 유황온천도 세월과 함께 변화의 소용돌이에는 어찌하지 못 하고, 쓸쓸한 늦가을 별판처럼 황량한 도시로 변해 버렸다. 도고온천 최초

의 목욕탕이었던 원탕은 문을 닫은지 여러 해가 되었다. 한때 최고의 손님이 찾아오던 청수장여관은 폐업하고 방치되어 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반짝이던 네온간판은 불빛을 잃어 녹이 슬고 방치되어 위태롭기까지 하다. 최영채 씨의 신온천장여관은 지금도 영업을 하지만 찾아오는 손님은 거의 없다.

도고온천은 동양 4대 유황온천이 1년 내내 솟아나오고 있는 곳이다. 유황온천은 피부병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지금 현대인들은 아토피 피부병 환자들이 너무 많다. 최영채 씨는 이곳 유황물에 1주일만 치료하면 나올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놀리고 있는 크고 작은 여관들을 리모델링하여 아토피 전문 치료 센터를 만들어 마을공동사업으로 운영하고 스포츠 종합타운을 운영하면,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물론이고 1년 내내 사람들로 북적일 것이라고 말하는 최영채의 입가에 핀 미소가 아름답다.



# 서산시

## 서산의 포구와 파시

오편강 포구 이야기	272
서산 해미면의 포구들	276
명천 포구 이야기	280
산수강 포구 이야기	285
사기리 포구 이야기	289
창리 포구 이야기	294
봉생 포구 이야기	299
덕지천 포구 이야기	303
무장리 포구 이야기	307
노라포 이야기	311
굴양식 이야기	315

●  
**오편강 포구  
 이야기**



**민 형익** (1939년생)  
 서산시 낫머리길

민형익 씨는 서산 덕지천에서 태어나 성장하였다. 방조제가 건설되기 전까지 덕지천 포구는 바닷물이 들어오는 전형적인 포구였다. 사람들은 덕지천 포구라는 말 대신 오편강 포구라고 불렀다. 오편강에 ‘강’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방조제 건설 이후 작은 개울로 바뀐 지금의 덕지천의 모습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너른 포구였다.

덕지천 포구가 오편강 포구로 불리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다. 과거에 덕지천에는 서울에 사는 지주를 대신하여 농토를 관리하던 마름이 살았는데, 가을걷이가 끝나면 모든 수확물을 마름집으로 가져와 보관하였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비축이 되고 수확한 벼가 마르게 되면 덕지천 포구에 정박한 배까지 사람들이 곡식을 지게로 져서 날랐다. 벼 두 가마니를 짊어지고 가서 배에 부리면 품삯으로 5푼을 주었는데 그때부터 오편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덕지천 포구는 중선배가 6-7척 정박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넓은 포구였다. 포구라고 불렀지만 배가 정박하는 항만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 자연적으로 배를 댈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언덕이 있어 그곳에 배를 대었다. 덕지천 포구에는 안면도를 지나 먼 바다까지 나가 고기를 잡은 배들이 들어왔는데 그때마다 작은 장이 열렸다. 서산의 사람들은 주로 곡식을 가지고 가서 물물교환으로 생선과 맞바꾸었고 구루마에 생선을 실은 상인들은 이를 서산의 동문시장으로 가지고 가 팔았다. 뱃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회포를 풀 집을 찾게 마련이어서, 덕지천 포구에는 좌판을 벌인 몇 집과 함께 기생 2-3명이 있는 술집이 세 곳 정도 있었다. 그 집들은 넉넉하게 생활한 것으로 민형익 씨는 기억하고 있다.

덕지천 포구에 정박한 배는 길이가 10m정도 되는 크기로 선원은 5-6명 정도 있었다. 외지 사람들이 소유한 배도 있었지만 덕지천 주민 중에서도 네 집이 중선배를 가지고 있었다. 중선배를 가진 사람들은 상당히 재력이 있는 이들로 마을에서도 유지로 대우를 받았다. 이들은 상당히 먼 곳까지 나가 조업을 했는데 연평 앞바다나, 칠산 바다에 나가 주로 조기를 잡았다. 배가 나갈 때 선주가 풍물패를 데리고 나와 풍물을 치기도 했다. 배를 타는 선원들은 대부분 덕지천 마을 주민들이었다. 선주와 성씨가 같은 집안의 친척들이 주로 뱃일을 맡았는데, 중선배 주인과 같은 집안사람들인 홍씨나 박씨들이 함께 뱃일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덕지천 포구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생선은 조기, 밴댕이, 새우이다. 특히 황석어젓과 새우젓이 들어오게 되면 서산의 상인들이 구루마를 가지고 와서 이를 사가지고 갔다. 덕지천 마을 사람들도 생선을 많이 사서 먹었는데 보리를 2-3말 가지고 가 그에 맞춰 생선을 받아왔다. 민형익 씨는 직접 할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보리를 가지고 가서 생선과 바꿔 온 기억이 있다. 생선을 사지 않더라도 마을에서 2km정도만 가면 바로 덕지천 포구여서 친구들과 자주 덕지천 포구로 놀러가기도 했다. 선원들은 배에 생선을 말리기 위해 널어두었는데 민형익 씨는 친구들과 몰래 배에 올라가 생선을 슬쩍 가지고 오기도 했다. 엄연한 도둑질이었지만 당시에는 이를 너그럽게 봐주는 풍조가 있어 지금도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있다. 덕지천 포구에는 너문재라는 해초가 풍성했는데 이를 뜯어다 먹기도 했고, 망둥어, 살조개, 게 등을 잡아먹기도 했다. 바지락은 벌에 가서 굽어 와도 다음날이면 다시 넘쳐날 정도로 정말 풍족한 바다로 기억한다.

오폐강이라 불리는 덕지천은 천수만에서 십여 리 이상 들어온 곳에 있는 포구로 교통의 요지이기도 했다. 오폐강에서 좀 더 올라가면 개삼포구가 있었는데 그곳은 포구가 넓지 않아 배가 2-3척 밖에 정박하지 못했다. 서산에서 인접한 가야산은 나무가 많은 곳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장작이 많이 산출되었는데 오폐강에 화물선 2척이 와서 장작을 가득 싣고 가던 것을 본 기억도 있다. 배 이름은 서산환, 해미환이었다. 하지만 오폐강에 여객선이 다닌 적은 없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주로 걸어서 다녔기 때문에 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지는 않은 것 같다. 더욱이 70년대부터 해미나 서산 쪽으로 버스가 다녔기 때문에 바다를 이용한 교통수단은 없었다.

덕지천 옆 마을은 낫머리 마을이다. 한자로는 장동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노루가 많이 놀아서 노루 장자를 써 장동이라 하고 마을의 생긴 모습이 기억자 모양의 낫을 닮아서 낫머리라고 부른다. 낫머리 사람들은 바다가 가까워서 바다에 가서 해산물을 채취해오기도 했다. 이들이 주로 잡은 것은 각뿔이, 황말이, 능쟁이 등이다.

덕지천 포구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것은 새우젓이다. 새우젓은 담그는 철에 따라 여러 이름이 있다. 5월에 담그면 오젓, 유월에 담그면 육젓, 8월 이후 가을에 담그면 추젓이라고 한다. 덕지천 포구에서는 주로 5월에 새우젓을 많이 담갔다. 다른 곳과 달리 덕지천에서는 새우젓을 담글 때 새우와 소금의 비율을 일대일로 했다. 새우젓은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담갔고 이를 마을 주민들에게 팔기도 했다. 역시 서산의 상인들이 와서 새우젓을 사다가 시장에서 팔았다.

이때 배를 부린 사람으로 민형익 씨가 만난 이는 편은태 씨인데 그분의 형인 편정순 씨가 배를 부렸다. 편정순 씨는 배의 기관 관리를 남에게 맡기고 월급을 주는 것보다 동생에게 맡기는 게 좋다고 여겨 편은태 씨에게 기관장을 맡겼다. 그래서 편은태 씨로부터 배를 몰고 먼 바다까지 고기 잡으러 간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연평도에 꽃게 잡으러 갔다가 북한군 때문에 게 잡는 것을 포기하고 온 적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덕지천 포구의 사람들이 상당히 멀리까지 진출했음을 알 수 있다.

덕지천 포구에 들어오는 배를 일컫는 말인 덕포귀범(德浦歸帆)은 서산팔경 중에서 일곱 번째에 해당한다. 배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씩 간격을 두고서 들어오는데 배에 깃발을 달아 만선을 표시했다. 사람들은 배에 단 깃발을 보고 ‘저건 만선이구나. 많이

잡아가지고 오는구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배가 들어오고 나면 그때부터 포구는 부산해지고 고기를 가지러 오는 사람, 사러 오는 사람 등 많은 사람들이 모여 성시를 이루었다. 그래서 포구에 들어오는 배를 서산팔경의 하나로 넣은 것이다. 그만큼 덕지천 포구에 고기를 잡고 들어오는 배의 모습은 장관이었다.

덕지천은 상당히 큰 마을이었다. 샘터, 앞골, 뒷골로 이루어진 마을로 70-80호 정도 되는 마을이었다. 마을에 기와집이 두 채 있었는데 양반은 아니었지만 상당한 부자였다. 덕지천 사람들은 바다에 나가 해물을 잡아 식생활에 보탬고, 배가 들어오게 되면 생선을 받아먹기도 했고, 새우젓을 만들어 팔기도 했지만 주업은 농업이었다. 그래서일까, 방조제가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마을 주민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덕지천처럼 내륙까지 바다가 길게 들어온 포구에 살던 사람들과 달리 안면도나 태안처럼 큰 바다 가까운 곳의 사람들은 인천과 같은 도시로 나가는 것을 빨리 선택했다. 지금 인천에는 안면도나 태안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데, 서산 사람이 선거에 나가면 반드시 당선될 정도로 숫자가 상당하다.

덕지천 포구는 이렇게 명맥이 이어지다가 방조제가 건설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바닷물이 막히면서 더 이상 배가 들어올 수 없게 되고, 갯벌까지 사라졌다. 그래서 지금은 개울처럼 변했고 덕지천 포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도 많지 않다.

●  
서산 해미면의  
포구들



**한 기 송** (1949년생)  
서산시 해미면 남문7길

한기송 씨는 해미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어 해미의 사라진 포구를 여럿 알고 있다. 한기송 씨가 가장 자주 간 포구는 개삼포와 그 위쪽에 있던 항개였다. 모래사장이 길게 뻗어 있던 곳으로 친구들과 어울려 놀던 곳이다. 학교에서 돌아와 소를 몰고 가 독에 매어두고 놀다가 배가 들어오면 달려가 배를 구경하곤 했다. 항개는 폭이 50m정도 되는 곳이었고 개삼포는 70m정도는 되었다. 이곳은 도당천과 해미천이 흘러들어오는 곳으로 담수와 해수가 만나는 곳이기도 했다. 바닷물이 항개까지 들어왔는데 사리때에는 밀려오는 물이 많고 빨라 무서워 건널 수 없을 정도였다.

당시 사람들은 포구를 이용해 바다로 나가곤 했다. 1950년대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김치와 먹을거리를 달라고 한 후 배를 타고 사라졌는데, 너른 바다로 곧장 나갈 수 있을 정도로 항개는 넓었다. 바다에서 오는 배들은 천수만을 거쳐 산수강을 지나 들어왔다. 항개

에서 더 내려가면 간월도, 언암리, 석포리로 이어진다. 그 마을들에는 중선배를 가진 부잣집들이 몇 집 있어서 그 배들이 올라온 것이라고 추정한다. 포구는 대략 2m정도의 깊이였고, 사리 때에는 3m까지 깊어져서 수영을 하다보면 허우적대기 일쑤였다. 항개에는 마을이 없었고 개삼포에는 7-8채 정도의 집이 있어 갯벌에 나가 조개나 게 등을 잡았다.

하지만 해미 포구의 여러 사람들의 주업은 농업이라고 봐야 한다. 그래서 갯벌을 막아 논으로 만든 곳도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통개들이다. 통개는 바닷물이 드나들던 곳으로 다른 지역보다 바닷물이 비교적 잘 빠지는 간사지였다. 일제강점기에 송태권이라는 사람이 이곳을 막아 900마지기 상당의 논을 만들었다. 이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동원되어 지게로 흙을 쟈 날라 바다를 막았다. 넓은 들이 생기게 되고 마을 주민들이 이곳에서 소작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게 되자 송태권을 위한 공덕비까지 세웠다고 한다.

개삼포나 항개는 배가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곳은 아니었다. 도당천, 해미천, 개심사 쪽에서 내려오는 물길이 합하여 개울을 형성하였는데, 항개에 있던 말무덤 앞에서 휘돌아가고, 다시 개삼포에서 휘돌아갔다. 그 과정에 자연스럽게 한쪽이 파여 나가면서 배를 정박할 수 있는 급경사가 생겨 자연적인 항만이 되었다. 이곳을 다니는 배들은 노를 젓는 4m 정도의 배가 있었고, 중선배라고 하여 기계로 움직이는 배가 있었다. 사람들은 중선배를 통통배, 기계배라고 불렀다. 중선배는 들어올 때 울긋불긋한 깃발을 달고 징을 치면서 사람들에게 배가 왔음을 알렸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보리를 비롯한 여러 곡식을 가지고 가서 물물교환으로 필요한 것을 구매했다. 이때 가장 많이 들어와 팔린 것은 새우젓, 황석어젓, 소금이었다. 김장철을 앞두고 젓갈 수요가 많아 많은 사람들이 젓갈을 구매해서 그것이 유독 강하게 기억에 남아있다.

항개에는 모래톱이 있었다. 길이가 30m정도인 모래톱은 동네 아이들이 즐겨 가는 곳이었다. 이곳에는 나문재라는 해초가 자라 이것을 뜯어 나물로 먹기도 했고, 길게 자란 것은 낫으로 잘라 불을 피워 놀기도 했다. 이때 주로 잡은 것들은 논게, 황발이, 능쟁이 등이다. 맨손으로 이들을 주로 잡았지만 청년들은 끝이 살짝 구부러진 쇠막대기를 이용해 잡기도 했다. 포구의 위쪽에는 민물이 바닷물보다 많아 물게라고 부르던 참게도 즐겨 잡았다. 모래톱에 뚫린 구멍을 보면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대략 알 수 있었다. 황발이가 들은 구멍은 탁구공모양의 둥근 구멍이었고, 참게나 물게는 표면이 살짝 막힌 듯한 구멍이었다. 황발이

가 들어있는 구멍을 쭈시면 옆에 있는 다른 구멍에서 물이 쭈 나와 두 구멍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았다. 어떤 구멍에서는 참게와 뱀장어를 동시에 잡기도 했다. 조개도 여럿 있었다. 개량조개라 불리는 것이 유독 많았는데 마을 사람들은 맛이 없다고 먹지는 않았다. 사리가 지나게 되면 쌀조개가 유독 많았다. 크기가 1cm정도인 쌀조개는 하얀 색으로 재첩과 비슷했다. 껍쟁이, 갯망둥어 등도 많이 잡았다. 혼자 바다로 나가면 어른들이 걱정을 하셔서 여럿이 어울려 나갔다. 석포리 앞바다까지 나가 대합을 잡았던 기억도 남아있다.

마을 사람들은 서산장이나 해미장을 주로 이용했다. 장에 갈 때에는 개삼포에 놓인 다리로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다. 이때는 모두 걸어 다녔다. 지게에 시장에 팔 물건을 짊어지고 나갔다. 서산장에는 여러 어물들이 팔렸다. 한기송 씨가 기억하는 상품은 능게인 능쟁이, 꽃게인 사시랭이이다. 이 둘을 이용해 계국지를 담가 먹었는데 지금도 그 맛을 잊을 수 없어 가끔 찾아다니지만 옛 맛을 내는 곳은 찾기 어렵다. 장동 쪽은 갯벌이 상당히 넓어 염전이 있었다. 갯벌을 막아 만든 염전에서는 소금을 직접 팔기도 해 김장철에 소금을 사러 간 기억이 있다. 이 소금이 서산장이나 해미장에까지 팔렸다. 갯벌에서 소금을 만들기도 했지만, 가야산 쪽에서 나오는 장작을 이용해 소금을 만드는 화염도 있었다. 이곳은 화염과 천일염 모두가 생산된 곳이었다.

개삼포를 비롯한 여러 마을에는 풍물이 있었다. 칠월 보름인 백중사리에 포구에 정박한 배에서 풍물을 치면서 굿하는 장면을 보기도 했다. 원안이라고 부르는 언암리에도 풍물패가 유명했고 기지리, 양림리 등에도 풍물패가 있었다. 한기송 씨가 나고 자란 양림리의 풍물에 대한 기억은 또렷하다. 정월에 집집마다 풍물을 치고 다니면 각 집에서 쌀이나 술을 냈다. 그러면 온 집안을 돌면서 풍물을 쳐주었고 장독대 앞에 가서는 빌어주기도 했다. 떡을 해내는 집도 있어 한바탕 잔치였다. 양림리에는 서낭당이 없었지만 이웃 마을인 기지리, 언암리에는 서낭당이 있어 그곳을 지나갈 때 돌을 던져 빌곤 했던 기억이 있다. 그 전통이 지금도 남아있어 해미에는 해미풍물단과 다른 또 하나의 풍물단이 활동 중이다. 대통령상까지 받은 풍물단이었지만 현재는 옛날만 못하다.

옛날에는 천수만을 거쳐 들어와 한티고개를 넘어 공주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송나라의 사신도 이 길을 이용할 정도였다. 대곡리에는 사신들이 숙박할 수 있는 시설과 정자까지 있었다. 해미 현감이 거기까지 마중을 나왔다. 그 정도로 이곳이 바다를 통해 접근이



용이한 곳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광천의 새우젓 장사들도 이 길을 이용해 개삼포까지 들어왔던 것이 아닌가 한다.

방조제를 건설하기 전 이곳은 정말 살기 좋은 바다였다. 해미면 석포리와 고북면 신정리 사이에는 삼섬이라는 작은 섬이 있어 모래벌이 넓었다. 이곳의 초등학교 학생들은 삼섬으로 소풍을 가기도 했다. 이쪽에서 교사 생활을 할 때는 싱싱한 해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 새조개를 채취해 해미장으로 팔러가는 아낙네들이 언암리 학교 앞을 지나가면 그분들에게 직접 조개를 사서 교직원들이 점심시간에 나눠먹는 재미도 있었다. 온갖 생선과 조개가 넘치는 곳이어서 주민들은 갯벌에서도 잡고 배를 타고 나가 잡고, 통발을 놓아 잡기도 했다. ‘거이막’이라고 하여 게막을 지어놓고 발을 쳐두면 게가 물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발에 걸려 그냥 주워 담으면 되었다. 살을 막아두고 밤을 지낸 후 가보면 많은 고기들이 걸려 있어 그를 가져오기도 했다.

항개에서는 물길을 따라 위아래로 포구가 있었다. 항개보다 훨씬 상류인 한다리 지역에 사창리라는 마을이 있다. 옛날에 세금으로 곡식을 거둬 모아두는 창고가 있던 곳으로 그곳까지 배가 다녔다고 보아야 한다. 한다리 앞에 큰 장터가 있어 그곳을 개일포라 불렀고, 좀 더 내려와 해미천과 만나는 곳을 개이포라 불러 개삼포와 함께 큰 포구였던 것이다. 개삼포나 덕지천 포구를 강이라 부를 정도로 물이 깊고 많아 배가 충분히 다닐 정도였다. 중왕리에 살던 신씨 성을 가진 분이 이쪽에서 방앗간을 했는데 배에 쌀을 싣고 인천이나 서울 쪽으로 팔러 다니기도 했다. 그분을 비롯한 몇몇 분은 직접 배를 소유하기도 했다.

한기송 씨는 방조제가 건설되어 바다를 막은 것을 무척 아쉬워한다. 그냥 두는 것이 훨씬 좋았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실내에서 구술을 마친 한기송 씨는 직접 대담자를 차에 태우고 다니며 개삼포, 항개 등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계속했다. 과거에는 갯벌이 있었고 바닷물이 밀려와 중선배가 다닐 정도로 바다와 통하는 곳이었지만, 한기송 씨를 따라다니면서 본 곳은 작은 개울에 불과했다.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지만 한 번 막힌 바닷길이 다시 열리지는 않을 것이다. 몇몇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과거의 아름다웠던 포구가 남아있다.

●  
명천 포구  
이야기



**박정자** (1942년생)  
서산시 성연면 명천리

박정자 씨는 명천3리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다. 어머니는 명천에서 새우젓 장사를 했는데 이웃 마을인 혜성리로 결혼하여 이주했다가 그곳에 공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다시 명천3리로 와서 살면서 어머니의 일을 이어받아 새우젓을 팔고 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앞은 과거 명천포구가 있던 곳으로, 명천포구에 대한 내력을 적은 현판이 서있다. 명천포구라는 이름을 가진 곳은 모두 2곳으로 한 곳은 박정자 씨가 살고 있는 집 앞을 지칭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주로 새우젓을 실은 배들이 들어오는 곳이었다. 다른 하나는 바다 쪽으로 조금 나가면 있는 포구로 여기는 인천까지 가는 여객선이 드나들던 곳이다. 두 곳 모두 명천포구라고 부른다.

박정자 씨가 살고 있는 집 앞의 명천 포구는 특별한 접안 시설이 있지는 않았다. 돌과 자갈이 깔려있는 간이 포구였던 셈이다. 새우젓 배는 인천 쪽에서 주로 왔다. 생새우를 싣고

온 것이 아니라 새우젓을 담은 독을 배에 가득 싣고 왔다. 그러면 서산의 사람들이 와서 지게에 새우젓 독을 지고 옮겼다. 새우젓을 싣고 온 배는 쌀과 같은 곡식, 배추나 무 같은 야채를 가득 싣고 돌아갔다. 새우젓 배가 정기적으로 오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박정자 씨 어머니를 비롯한 마을 주민 두 사람이 새우젓을 팔았다. 서산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새우젓을 주로 사가 그런대로 장사가 되었다.

이때 새우젓을 싣고 온 배 중에서 덕적배가 기억난다. 덕적도에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배를 덕적배라 불렀다. 새우젓 배는 주로 사리에 왔다. 조금에는 바닷물이 명천 포구까지 들어오지 않아 새우젓 배가 오지 않았다. 새우젓 배는 김장철에는 새우젓을 싣고 왔지만 다른 철에는 갈치, 조기와 같은 여러 어물을 싣고 와서 팔았다. 박정자 씨 어머니는 조기나 갈치와 같은 생선은 거래하지 않았고 새우젓, 밴댕이젓, 골뚜기젓을 주로 팔았다. 새우젓은 시세가 때마다 달랐는데 주로 곡식을 받고 팔았다. 새우젓 중에서 가장 크고 좋은 것은 6월에 잡은 육젓이다. 5월에 잡은 오젓도 있고 가을에 잡은 추젓도 있지만 육젓을 최고로 쳤다.

인천 가는 여객선은 다른 명천 포구에서 떠났다. 여객선 중에 총남호, 칠북호는 지금도 기억한다. 서산의 많은 사람들이 명천 포구까지 와서 인천으로 가는 여객선을 탔다. 그런데 조금 때가 되면 여객선이 명천 포구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그 전의 포구인 출포에 멈추었다. 바닷물이 적어 배가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마을에서 뗏마라고 불리는 작은 배를 출포까지 끌고 나가 사람들을 태워왔다. 박정자 씨 남편도 한 때 뗏마를 몰고 가 사람들을 태워왔고 나중에는 똑딱이, 통통배라 불리는 배를 몰고 가 사람들을 태워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뺏값으로 10원 정도를 지불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명천포구에는 특별한 시설은 없었고 매점이 하나 있었다. 매점에서 사람들은 배를 기다리면서 주전부리를 사먹기도 했다. 그곳에서 표를 샀다. 매점을 제외한 다른 건물은 하나도 없었다. 물때가 다르기 때문에 인천 가는 배가 떠나는 시간도 매일 매일이 조금씩 달랐다. 명천 포구에서 떠난 여객선은 출포리, 대요리, 지곡, 대산을 거쳐 인천으로 갔다. 대략 항해 시간은 6시간 정도 걸렸다. 지금 생각하면 서산에 있는 여러 포구에서 사람들을 태운 후 넓은 바다로 나가서는 곧장 인천으로 간 것 같다. 배를 타고 가다가 큰 바람을 만나 고생한 기억도 있다. 배가 엎어졌다 젖혀졌다 하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다. 그 후에는 인천을 웬만하면 가지 않으려 했다.

서산에서는 아이들을 인천의 학교로 많이 보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을 보러 가기 위해 인천으로 나갔던 것이다. 이때만 하더라도 도로망이 부족하고 자동차가 잘 다니지 않아 인천에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뱃길이었다. 연안부두에서 명천 포구로 돌아오는 배 출발 시간도 물때에 따라 매일 달랐다. 도착할 때 물 때가 맞지 않으면 명천 포구까지 못 들어와 작은 배를 타야 했지만 바람이 불면 작은 배가 뜨지 못해 그 먼 산길을 걸어서 돌아온 적도 있었다. 이렇게 힘든 뱃길이었지만 서산에서 생산된 곡식이나, 소고기 돼지고기를 배에 싣고 인천에 가서 파는 사람들도 있었다. 아무래도 서산보다 가격을 더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리라. 이러한 사람들을 ‘인천장사’라 불렀다.

명천리 사람들은 바다에서 많은 것을 채취했다. 배를 부리지는 않았지만 전적으로 바다에 의지해 사는 집이 몇 집 있었다. 명천리 옆 마을인 혜성리에는 직접 배를 부리는 집이 몇 집 있었지만 명천은 없었다. 어구를 사용하여 여러 물고기를 잡았는데 바구니로 만든 족대 같은 것으로 방대이를 잡았다. ‘올라가는 방대이 내려가는 방대이’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물을 두드리면 방대이가 가득 들어왔다. 주로 집에서 식용으로 방대이를 사용했는데 남는 것은 시장에 내다 팔기도 했다.

밤에는 햇불을 켜고 고기를 잡았다. 밤이 되면 고기나 게가 움직이지 않아 잡기가 수월했다. 물이 들어올 때는 고기가 많이 떠서 들어오는 것이 보여 그물을 던져 잡기도 했다. 자전거에 달린 발전기를 이용해 고기를 잡기도 했다. 자전거 바퀴를 돌리면 발전기에 전기가 발생하고 그곳에 선을 연결해 물에 넣으면 장어 같은 것도 떠올랐다. 무꾸이, 각대이, 딱쟁이, 사시랭이와 같은 게도 많이 잡았다. 게는 물이 밀려나갈 때 나가서 주워 담을 정도로 많았다. 마을 주민들은 조금만 움직이면 바다에서 상당한 수확을 거둘 정도로 정말 풍족한 바다였다.

조개도 많이 주웠다. 바지락이나 대합같은 것은 무척 많았다. 굴은 일종의 양식을 하기도 했다. 돌을 주워 바다에 두면 굴이 붙어서 성장했고 어느 정도 자란 굴을 따다. 말이 양식이 자연산 굴을 채취한 것이다. 굴의 크기는 작지만 달콤해서 날로 먹기 좋았다. 명천3리에서는 살을 매어 고기를 잡기도 했다. 큰 기둥을 깻벌에 세운 후 그물을 걸어둔다. 물이 들어왔다 나가면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려, 붙어 있는 물고기를 그냥 떼어 오면 되었다.

바다에 나가 조개나 물고기를 잡는 일은 가끔 위험을 초래하기도 했다. 바다에서 바지락

과 조개를 잡아가지고 돌아오던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비를 만난 적이 있었다. 천둥과 번개가 치는데 무척 무서웠다. 마을 사람들은 빠른 걸음으로 바다를 빠져나왔는데 이상하게도 뒤쳐지는 마을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은 결국 해변에 도착할 무렵 바로 옆에 있는 바위에 벼락이 떨어져 죽었다. 그 사람을 위해 상여를 매고 바다를 지나가는데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남아있다. 실제로 박정자 씨도 바지락을 캐는 재미에 빠져 물때를 놓쳐 죽을 위기를 몇 차례 넘기기도 했다.

명천3리는 대략 60-70호 정도 되는 마을이었다. 자연마을마다 이름이 있어 큰말, 개건너, 우무꾸지라고 불렀다. 바다에 의지하고 살던 명천3리 사람들은 산에 서낭당을 모시고 고기잡이가 잘되기를 빌었다. 지금도 음력 초사흘에 제를 올릴 정도로 믿음이 깊다. 서낭당 제를 올리기 며칠 전에 다들 올라가 청소를 했다. 이때는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고 모든 마을사람이 참가했다. 치성은 반드시 부부가 함께 있는 사람만 드렸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죽은 집은 부정하다고 하여 치성을 드리지 않았다. 시루떡, 조기, 미역국, 밥, 배와 사과 같은 과일, 전, 청주를 차리고 제를 올렸다. 가장 정결한 사람이 들어가 상을 차리면 마을 사람들은 밖에서 지켜보다가 차례로 당에 들어가 정성을 드렸다. 당에는 부처님 같은 큰 그림이 세 장 붙어 있었다. 당은 엄정하게 관리를 했다. 제를 올리는 날 이외는 당 문을 절대 열지 않았고, 당 밑에 가서 나무도 꺾지 않으려 조심했다. 이러한 금기를 어기고 당 밑에 가서 나무를 해온 어떤 집은 벌전을 받아 손녀가 꿈추가 된 적도 있는데 이를 일러 ‘지골 입었다.’고 한다. 제를 올린 후 모든 음식을 마을 회관으로 가져와 나눠먹는다. 경비는 마을기금으로 했다.

마을기금은 마을에 초상이 나면 마을사람들이 모두 도와주고, 그러면 그 집은 마을에 일정액을 기부했는데 그것을 기금으로 삼았다. 오래 전에는 무당이 와서 치성을 주관하기도 했고 마을 사람들이 풍물을 치면서 한바탕 놀기도 했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주관하는 집을 도가집이라 불렀다. 박정자 씨 집도 도가집을 한 적이 있다.

명천리 사람들은 경 읽는 사람을 불러 굿을 하기도 했다. 경을 읽는 것은 마음 편안하라고 하는 것이다. 상을 차리고 경쟁이가 신장을 모신 후 경을 읽으면 아픈 것도 나왔다. 박정자 씨의 시댁은 경쟁이를 자주 불렀다. 규모가 큰 굿은 큰경이라 했는데 그때는 10만 원을 주고 했다. 그 당시를 생각하면 10만 원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다. 명천리 사람들은 밤마실

을 자주 다녔는데 박정자 씨 집이 도가집을 할 정도로 부자여서 많은 이들이 모여 놀았다. 화투를 치면서 성냥개비 내기도 했고, 장난으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의 옷을 하나씩 벗기기도 했다.

이처럼 과거의 명천리는 풍성한 마을이었다. 대호지 방조제가 생기면서 바닷물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되면서 과거의 풍성함은 사라졌다. 갯벌이었던 곳은 모두 논으로 바뀌었다. 집집마다 논을 10마지기 씩 불하받았는데 지금까지 이를 지키는 집은 많지 않다. 명천포구가 있던 자리라는 현판만이 남아있고 아직도 그 앞에서 박정자 씨는 과거를 기억하면서 새 우젓을 팔고 있다.

●  
산수강 포구  
이야기



**리승만** (1941년생)  
서산시 교운로

리승만 씨는 서산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마쳤다. 해군에 입대를 하면서 포항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수산대를 마쳤다. 고향으로 돌아와 공주교대 교원양성소를 마치고 초등학교 교사로 20년간 근무한 후 약종상을 30여 년간 경영하였다. 리승만 씨가 태어나 성장한 언암리는 갯벌에서 아주 가까운 곳으로 마을과 포구가 거의 붙어있었다. 그곳을 산수강, 산수뚝땀, 산수모탱이라고 불렀다. 리승만 씨는 고향에 대한 기억이 무척 소중한 서산 문화원에서 활동하면서 향토문화연구지에 자신의 고향에 대한 기억을 글로 남기기도 했다.

언암리는 일종의 동족 마을이다. 전주 이씨 양녕대군파가 30-40호 있었고 다른 성씨가 10여 호 있어 마을 사람 대부분이 친척이었다. 다른 마을과 달리 전주 이씨 집안은 다른 성씨들을 절대 차별하지 않았다. 그래서 함씨, 성씨도 마을 이장을 맡아 볼 정도로 매우 분위기가 좋았다. 현재 언암리에는 공군비행장이 들어서 있다. 그래서 마을에는 어떤 흔적도 없

고 그때 함께 생활했던 친척 중심의 마을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버렸다. 지금은 시제나 별초를 할 때만 정기적으로 모인다.

언암리는 동쪽 마을이어서 설이나 추석 때에는 60-70명이 모여 차례를 지냈다. 상에 올린 과일이나 과자를 나눠주는 것도 일이어서 집안 어른들이 죽 서서 아이들에게 과일과 과자를 하나씩 나눠주었다. 집안에서는 불교를 믿어 산수강을 건너 도비산에 있는 절에 다녔다. 썰물이 되어 물이 빠지면 걸어서 건너갔는데 추운 겨울철에도 팬티 하나만 입고 바다를 건널 정도로 독실했다.

언암리 앞의 바다를 산수강이라 불렀다. 송태원 씨가 언암리에 독을 쌓았고 그 아들인 송석구 씨는 언암리에 아흔아홉 칸짜리 집을 짓고 살았다. 동네 사람들은 그 사람의 땅을 소작 받아 농사를 지었다. 마을에서 산수강을 가면 독이 나왔고 독 아래는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다. 산수강 건너편에 넓이가 20m정도 되는 모래사장이 있었다. 건너편은 서산을 장동으로 염전이 있었는데 소금을 산수강까지 운반해 와서 중선배에 실어 보냈다.

중선배는 아무 때나 올라오는 것은 아니어서 주로 사리 때에만 올라왔다. 사리가 되면 바닷물이 엄청 밀려와서 모래사장이 모두 잠길 정도로 깊어져 중선배가 올 수 있었던 것이다. 산수강에는 큰 둑방이 있었는데 사리 때에 물이 깊어지면 중선배가 들어왔다. 그런데 사리를 지나면 물이 빠져서 사람들이 걸어서 건널 수 있을 정도로 얕아진다. 만약 중선배가 사리에 들어와서 짐을 싣고 다시 바다로 나가지 못하면 다음 사리때까지 꼼짝 없이 갇혀야만 했다. 그만큼 산수강은 사리와 조금에 따라 물의 양에 차이가 컸다.

일제강점기에 산수강에는 다리가 있었다. 건너다니는 것이 불편하여 주민들이 다리를 놓았는데 중선배가 다닐 수 있도록 다리 중간에 다리를 들고 문을 열 수 있는 장치가 있었다. 중선배가 오면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밧줄을 당겨 다리를 들어 올려 중선배가 지나가게 했다. 다리를 놓을 정도로 언암리와 산수강은 사람 통행이 많은 곳이었다. 중선배가 산수강까지 올라온 것은 염전에서 생산하는 소금을 싣기 위해서였다. 항구처럼 접안 시설은 전혀 없어 중선배를 독에 대놓고 나무다리를 걸친 후 지게로 소금을 저서 실었다.

산수강 한 쪽에는 수문이 있었다. 그곳은 청룡벌이라 불렀는데 마을에서 보면 좌청룡이어서 그렇게 불렀다. 그 수문 옆에서 마을 사람들은 화염을 만들었다. 바닷물을 평평한 곳에 모아 어느 정도 증발되면 그를 가마솥에 옮겨 끓여서 소금을 만들었다. 화염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깨끗한 바닷물과 뿔감용 나무인데 언암리는 이 두 가지가 모두 가능했다. 그래서 리승만 씨는 언암리가 매우 살기 좋은 부자 마을이었다고 기억한다. 소금을 끓이는 솥에 갯벌에서 잡은 논게와 같은 게를 짚으로 묶어 넣어 익혀 먹기도 했다. 소금을 만드는 이들은 이런 아이들의 장난에 화도 내지 않고 잘 받아주었다. 화염은 불을 때서 만든 소금 이어서 천일염보다 3배 정도 비쌌다. 그래서 사람들은 화염을 고급 소금으로 인식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팔지 않고 다른 곳으로 보냈다고 한다.

산수강에 올라오는 중선배는 상당히 컸다. 소금을 싣기 위해 온 배여서 정확한 양은 알 수 없지만 상당히 많은 소금을 실었던 기억이 있다. 장사를 위한 중선배도 가끔 들어왔다. 갈치, 조기 등을 싣고 온 장사배는 물물교환 방식으로 곡식과 바꾸어주었다. 커다란 깡통에 생굴을 담아 싣고 온 배도 있었다. 배 주인 몰래 굴을 가져다 먹기도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배들은 군산이나 대전 쪽에서 올라온 배가 아닌가 한다. 산수강에서 올라가면 오폭강이고 더 올라가면 개삼포이다. 그 위가 양릉 포구인데 사람들은 그곳을 통개라고 불렀다. 세 군데서 내려오는 물이 그곳에서 합해서 그렇게 불렀다. 산수둑병에 바닷물이 들어와 가득 차면 호수처럼 보일 정도로 넓었다.

산수둑병에서 마을 사람들은 천렵을 자주 했다. 이때 가장 많이 사용한 어구가 사돌이이다. 삼각형 모양의 큰 그물인데 양쪽에 자루가 달려있어 족대와 흡사했다. 크기가 컸는데 중간에 자루가 달려있어 물고기가 들어오게 되면 자루로 모이게 되어 있었다. 물고기가 매우 많아 천렵하는 마을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 그래서 산수강에서는 논게, 능쟁이, 깍쟁이는 해산물로 취급도 하지 않았다. 송어와 같은 큰 고기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산수둑병에는 명석바위라는 큰 바위가 있어 아이들의 좋은 놀이터가 되었다. 명석처럼 넓이가 넓어 명석바위라 부르는데 바위 위에서 잠도 자고, 농악놀이도 하면서 보냈다.

언암리 곳곳에도 부르는 이름이 있었다. 독 안의 마을을 원안이라 불렀고, 수문이 있던 청룡벌에서 좀더 상류로 올라가면 벼게라는 곳이 있었다. 함씨들 묘를 쓴 곳에는 비석이 많아 비석골이라 불렀고, 창령 성씨 들이 살던 곳은 과거에 절이 있어서 절골이라 불렀다. 마을에서 떨어진 외진 곳에 고려장터가 있었다. 부모가 늙으면 그곳으로 모시고 가서 우물을 판 후 며칠 먹을 음식과 함께 묻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그곳에서는 땅을 파면 토기와 같은 그릇 종류가 많이 나왔다. 앞에 나온 명석바위를 산수돌이라고도 불렀다. 그곳은 마을 부녀자들

이 떡 시루를 찌가지고 가서 바친 후 정성을 드리던 곳이다. 대개 자식들 잘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언암리와 석포리가 맞닿는 곳에는 증신할미바위가 있었다. 언암리와 석포리 사람들을 증신해주고 잘 살게 도와주어서 그렇게 부른다.

언암리에는 박첨지 놀이가 전승되었다. 현재 충청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박첨지 놀이는 실상 언암리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마을에 유지 중의 한 사람인 엄황룡 씨 집에 방만복 씨가 머물면서 박첨지 놀이에 필요한 온갖 소품을 다 만들었다. 가을이 되어 추위가 다가오면 엄황룡 씨는 마당에 천막을 치고 한쪽에서는 소품을 놀리고 한쪽에서는 대사를 주고받으며 박첨지놀이를 했다. 당시에는 구경거리가 거의 없어서 동네 부녀자들이 모두 와서 구경을 했다. 방만복 씨를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했다. 나중에 탐곡의 음암리에서 박첨지 놀이를 하는 것을 보고 ‘이건 틀림없이 방만복 씨가 시작한 놀이야.’라고 했던 기억이 있다. 놀이를 본 지 오래되어 자세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우스운 놀이를 주로 했다.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흥겹게 놀기도 하면서 보았다. 그때 도움을 준 신진호 씨가 지금도 생존해 있으니 만나면 사정을 알 수 있다. 마을에는 풍물패도 있었다. 상쇠, 부쇠, 징, 북, 장구, 소고 등으로 구성된 풍물패는 마을에 경사가 있으면 모여서 쳤다. 과거에는 두레패가 있어 논에서 김을 맬 때도 풍물을 쳤다.

지금 생각해봐도 언암리는 살기 좋은 곳이었다. 산수강에는 온갖 것이 넘쳤다. 쌀조개, 맛조개, 숭어 새끼인 물치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남아있다. 물치는 성미가 몹시 급한 물고기로 바닷물이 밀려들어올 때 항상 물을 따라 가장 앞에서 올라왔다. 그러면 동아줄을 스무 발 정도 준비한 후 올라오는 물치를 바라보다가 물치 뒤에 동아줄을 놓고 한쪽으로 몰았다. 그래서 모래사장으로 물치가 물리면 뒤에는 동아줄이 있어 도망가지 못해 쉽게 잡았다. 지금도 가장 먹고 싶은 것은 쌀조개이다. 쌀조개를 많이 잡아와 물에 넣어 계속 삶으면 껍질과 조갯살이 분리된다. 껍질을 모두 꺼낸 후 애호박을 찧어 넣고 국수를 삶아 먹으면 정말 진국이었다. 호미로 갯벌을 파 대합을 잡던 기억도 소중하게 남아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방조제가 생기면서 사라졌다. 지금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옛일이지만 그래도 과거에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 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글을 쓰기도 했다.

●  
사기리 포구  
이야기



**김종현** (1942년생)  
서산시 고북면 사기리 큰마을2길

현재 사기리 마을에는 친족이나 친척은 없다. 방조제로 갯물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사기리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 원래 친척이 별로 없었다. 사촌 형님 한 분은 6.25 때 전사하셨고, 아버님 형제분들도 자식이 귀했다. 김종현 본인도 형제가 없다.

하지만 방조제 때문에 마을을 잠시 떠난 적이 있었다. 천수만 A지구 방조제가 생긴 이후, 정말 고향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농사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의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땅이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대부분의 생업을 바다와 함께 한 입장에서 마을에 남아 할 수 있는 일이 딱히 없었기 때문이다.

방조제와 함께 들어선 간척지가 있기 전, 포구가 멀쩡히 남아있을 때부터, 사기리는 풍광이 좋기로 유명했다. 왜냐하면, 넓은 백사장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기리에는

해풍을 막아주던 소나무숲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데, 그 자리는 일제 강점기에 별장이 있던 곳이기도 하다. 방조제로 바닷물이 막히기 전에는 그리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대전이나 서울에서 해수욕을 하러 관광객들이 찾아오기도 하던 곳이었다.

사기리 포구는 어촌계가 조직되어 있을 정도로, 동시에 중선배 몇 척이 포구에 정박할 수 있을 만큼 나름의 크기를 자랑했다. 실제로 일제 강점기에는 창고가 있었는데, 서산의 넓은 들에서 나는 쌀을 이 창고에 모아두고, 당시 미곡항 이었던 군산으로 옮기기 위한 용도였다 고도 한다.

사실 사기리는 풍족했다. 지금도 간척지 덕에 그리 부족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예전 포구가 있었을 때에 비할 수는 없다. 바닷가 옆 넓은 농토에선 쌀을 얻고, 야트막한 둔덕에선 밭을 일구면서, 갯벌에 나가면 온갖 해산물이 널려 있었을 뿐더러, 포구에 있는 중선이나 작은 고깃배를 타기만 해도, 먹고 살 걱정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방조제로 막히기 전 천수만은 온갖 바닷고기들의 산란장이었기에, 매우 다양한 종류의 어족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사기리의 고깃배들은 사실 고기를 잡으러 먼 바다로 나갈 필요도 크게 없었다. 조기 어장으로 유명했던 저 멀리 연평도나 가까운 안면도조차 나갈 일이 없었다 한다. 그만큼 천수만, 지금의 간월도의 어장의 어족 자원이 풍부했던 것이다. 당시 사기리 포구에는 지금 기준으로, 그 당시 기준으로 그렇게 큰 배가 있지는 않았다. 작은 배로 만선을 이루고, 계속 포구로 들어와서 고기를 장에 내다 팔아도 생계유지에는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요즘 연안어업이 추구하는 바가 이런 것임을 생각해 볼 때, 천수만 방조제를 막은 역사가 과연 옳은 것인지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 당시 사기리 포구에 있던 제일 큰 배는 10톤 정도로 추정된다. 마을도 꽤 컸다. 140호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사기리는 130호 정도 된다. 차이점이 있다면, 각각의 집마다 사는 사람의 수가 크게는 1/5로 줄었고, 없어진 바다 덕에 더 이상 물을 생업의 터전으로 삼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른 농촌 혹은 농어촌 마을처럼 사기리에서 아기 울음을 들어본 것은 20여 년 전이 마지막이다.

사기리 포구가 변성하던 시기에는 새마을 운동을 통해 정부의 지원과 마을사람들의 합심으로 150미터 정도의 선창을 만들기도 했다. 이렇게 사기리 포구가 어업으로 흥청하던 시절

에는 선창가에 술집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기도 했다. 넓은 백사장은 갯벌로 나가는 수월한 길을 만들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고기잡이의 편리함을 주기도 했고, 방조제로 바다를 막지 않았다면, 지금 관창은 해수욕장이 되었을 수도 있다고 한다.

사기리 포구에서 잡은 고기들은 주로 인근 장으로 직접 가져다 팔았다. 차도 귀하고 대중교통도 흔하지 않던 시절이었지만, 인근 서산읍내와 가까운 홍성까지 가서 팔았다고 한다. 남자들이 고기를 잡으면 아이들이나 여자들이 간간이 다니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져다 팔았다. 사기리 포구에서 잡히는 바닷고기의 종류는 한정이 없었다. 봄에는 쭈구미, 그 다음에는 대하, 여름이 되면, 도미, 농어, 민어, 가을이 되면 도미새끼라고 불리는 고기가 나오는데, 찬바람이 불면 고기는 더 맛있지만, 고기 수는 적어졌다고 한다.

고깃배가 많았으니 풍어제가 있었을 법도 했다. 하지만 무당을 불러 풍어제를 지내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그래도 갯가 마을이기에 당은 있었다. 정월 대보름에 올리는 당제는 남자들만의 행사로 부정한 남자는 제례에 참여할 수 없었다. 풍물도 있었는데, 바닷가에서 제를 지낼 때 쓰는 풍물은 육지의 것과 다르다고 한다. 북을 딱딱딱딱 맞춰 치기 보다는 징처럼 박자의 시작과 끝을 맞추는 정도로 쳤는데, 이는 갯가 당신에게 지내는 제례 혹은 풍어를 기원하는 제례에서만 보이는 특징이기도 한다. 고깃배가 많았으니 뱃고사도 있었는데, 특별한 형식이 있는 건 아니었다. 일반적인 고사의 형태와 거의 같았다고 한다.

드넓은 갯벌이 펼쳐져 있으니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그물(살)을 매어두고 고기를 잡기도 했다. 갯벌의 살은 돌로 만들어진 돌살이 더 많지만, 사기리 포구에선 참나무로 대를 만들고 그 사이에 그물을 엮은 살이 더 많았다. 살은 살마다 임자가 있어서 남의 살에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 넓은 갯벌이 있고, 백사장도 펼쳐져 있었지만, 해초는 그리 많지 않았다. 사실 갯벌이 있는 곳에 해초가 넓게 있기는 어렵기도 했지만, 파래 종류 외에는 해초를 캐거나 먹는 적은 없었다. 대신 넓은 갯벌에서 얻을 수 있는 해산물의 종류는 대단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를 다양한 방식으로 생업에 활용했는데, 고깃배를 타고 나가 고기를 잡아 먹고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갯벌에서 나는 해산물을 주로 잡아 생업을 삼는 사람도 많았다. 바지락은 온 갯벌에 천지였다고 한다. 전남의 남해안 쪽처럼 젖은 갯벌을 힘들게 다니지 않고, 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줍기만 해도 바지락을 많이 캘 수 있었다고 한다.

바지락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갯벌에는 할미조개가 많았다. 여자들이 갯벌에 나가 호미

나 조새로 할미조개를 말 그대로 캐면, 그 무게가 무거워 여자들이 갯벌로 가지고 나오기 힘들었다. 갯벌 밖에서 남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할미조개를 캔 것이 일정량이 되면, 지게로 지고 나오기도 했다. 사실 호미나 조새로 조개를 캐다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손으로 살짝만 갯벌을 파면 잡을 수 있었기에 줍는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나올 정도였다.

예상 외로 대합은 없었는데, 대합은 오픈강이나 대호방조제 쪽 만에서만 잡혔다. 할미조개 뿐만이 아니었다. 가막조개, 황발이, 깔뎅이 장어, 능쟁이 등, 서해안 갯벌을 풍요롭게 하는 해산물들은 물이 빠진 갯벌에 들어가면 언제나 구할 수 있는 것이었다. 가끔은 갯벌 한 가운데 들어가 이런 해산물들을 잡다가 물때를 놓쳐 고립되는 경우도 가끔 있었다고 한다.

잡은 해산물들은 가져다 팔기도 했지만, 간단하게 염장해서 직접 먹기도 했다. 그 당시 잡은 능쟁이들은 워낙 신선해서 염장을 많이 하지 않아도 보관을 오래 할 수 있었고, 시간이 많이 지나도 무르거나 하는 법이 없었다고 한다. 가장 돈이 되는 것은 낙지였다. 낙지를 잘 잡는 사람들은 낙지로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낙지가 얼마나 흔했는가 하면, 두부나 호박을 넣고 뭔가를 끓일 때, 낙지가 없으면 아예 못 먹는 거 아닌가 생각했을 정도라고 한다.

넓은 갯벌 덕에 염전도 있었다. 하지만 이 염전은 사기리 보다는 정자리 앞 쪽에 많았다. 사기리 쪽 염전은 천일염으로 태양을 통해 해수를 증발시키는 게 아니라, 구운 소금이었다. 구운 소금이라 그 맛도 다른 소금과 다르고, 좋았다고 한다. 소금 장사들은 소금짐을 이고, 덕산이나 먼 데 가서 팔았는데, 그만큼 바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셈이다.

이런 바다가 천수만 방조제로 인해 민물로 바뀌자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전적으로 어업에만 종사하던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바로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간월호 물에 아직 소금기가 남아있던 시절에는 방조제로 막힌 간월호에 뱀장어가 많았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물에서 뭔가를 잡아 생업을 이을 수 있었던 것은 그때가 마지막이다. 방조제가 막히고 2년 정도는 뱀장어를 잡아 팔아 생계를 이을 수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전혀 잡히지 않았다고 한다.

이제 사기리 사람들 중에서 옛날에는 바다였다가 호수가 된 저 곳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드넓은 간척지만이 보일 뿐이다. 김종현 어르신과 인터뷰를 진행하던 도중 지나던 할머니 한 분의 말씀이 귀에 남는다. “저거 안 막았으면, 지금 내가 뭐덜리고

이러구 산대유? 관광객도 많이 왔을텐디?” 김종현 어르신도 바다가 있던 시절이 그림다 했다.

넉넉해 보이지는 않아도, 언제나 풍성했던 시절, 먹을거리와 팔 거리가 지천으로 널려있던 시절. 자기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배부를 수 있던 시절이라 했다. 그 덕에 서산군 혹은 서산시 체육대회나, 면민 체육대회를 하면 사기리가 언제나 1등이었다고 했다. 이를 시기한 주변 마을 사람들은 고기가 풍부한 사기리 사람들이 고기 많이 먹고 언제나 1등이라고 놀려댔단다. 소위 바닷가 사람이라고 폄하한 의미가 담겨 있지만, 그렇다 해도, 사기리 포구가 있던 사기리의 풍성함을 지울 수는 없다. 이렇게 사기리 포구는 기억 속에만 남았다.

●  
창리 포구  
이야기



**김영기** (1942년생)  
서산시 부석면 창리

창리는 천수만 방조제 끝자락에 있다. 간월호의 끝자락에 놓여있지만, 창리를 지나 조금 더 나가면 두 번째 천수만 방조제의 시작과 맞닿아 있다. 창리는 예전부터 포구였고, 지금도 포구다. 방조제의 끝 혹은 시작점에 위치하기에 아직도 포구는 물론이거니와 횃집과 작은 관광타운까지 조성되어 있다. 하지만 천수만 방조제가 생긴 이후 창리 포구의 삶도 예전과 같지는 않다.

김영기 씨는 창리에서 태어나서 거의 창리 부근에서만 살았다. 창리에서 4남매를 낳아 기르고 다 키워 시집, 장가보냈다. 올해(2020년) 팔순이니 창리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다. 또한 어업이 중심이었던 창리에서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아와서 어떤 면에서는 창리 포구의 변화 모습을 더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도 하다. 현대가 천수만 방조제를 막고 간척사업을 시작한 건 꽤 오랜 시간을 투입한 일이라 한다. 정확한 연도를 기억하



진 못하지만, 현대 아산에서 일을 다닌 세월만 20년이니, 간척사업부터 방조제 완공까지 그 처음과 끝을 다 본 셈이다.

부석면은 예로부터 포구가 많았다. 물론 방조제로 갯물을 막기 전이다. 당암리, 칠전리, 봉락리 등의 포구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창리 만큼 크지는 않았다. 창리에는 중선배도 있었다. 11척 정도가 창리를 중심으로 어업활동을 했다고 기억한다. 주로 새우를 잡아 새우젓을 만드는 곳에 팔았는데, 새우를 잡으러 먼 바다로 나갈 일이 없었다고 한다. 소위 정주영공법으로 널리 알려진 폐유조선을 바닷속으로 가라앉히는 공법에서 알 수 있듯 유속이 매우 빨라서 방조제 마무리 공사에도 애를 먹은 적이 있는 곳이 이 천수만이다. 방조제로 막기 전에도 유속은 그대로였으니, 그 물길을 잘 살펴 길목만 잘 막으면 새우잡이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다.

새우젓은 배에서 바로 담갔다고 한다. 새우를 잡아 올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염장을 했다는 거다. 물론 염장하지 않고 포구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쉽게 배를 움직일 수 없는 때가 있으니, 냉장기술이 크게 발달하지 않은 예전에는 배에서 직접 염장하는 것이 새우젓의 신선도를 나름 보장하는 방법이었을 성 싶다.

창리에 11척 정도의 중선배가 있었고, 그 선주도 창리에 살았지만, 선원들 모두가 창리에서 산 건 아니라고 한다. 고기잡이배 선원들은 창리는 물론이거니와 남당리, 안면도, 황도 사람들이 많았는데, 중선배를 직접 부리는 선주들이 많은 곳, 그리고 중선배가 많이 정박했던 곳은 창리와 황도라고 한다. 당암이나 칠전에는 배를 타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중선배 선주는 없었다고 한다.

새우가 항상 잡히는 것은 아니기에, 새우철이 지나면 먼 바다로 나가 조업을 했다. 뒤프기 혹은 보리새우도 많이 잡았다. 뒤프기, 즉 보리새우는 젓갈용으로 많이 사용했다. 창리나 황도나 당시에는 큰 포구였기에, 사람들이 항상 북적거렸지만, 방조제가 생긴 이후 마을 사람들의 삶은 별로 나아진 게 없었다. 당연히 바다가 호수가 되었기 때문이다. 어업이 흥했던 이유는 역설적으로 물살이 강했기 때문인데, 그 물살에 오리다리가 부러진 곳이 지금 방조제 한 가운데 있는 옛 섬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새우 말고도 도미가 많았다고 하는데, 도미는 주낙으로 많이 잡았다. 당연히 갯벌이 펼쳐져 있는 곳이기에 낙지, 꽃게, 대하 등도 많았다. 따라서 마을 사람들 중 농사에만 전념하는 몇몇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기 배가 있었

다. 큰 배는 아니고, 모터 혹은 엔진조차 없는 나룻배 형식의 고깃배들은 가지고 있어서 작은 배를 타고 가까운 바다로만 조금 나가도 며칠 먹을 고기 잡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사실 방조제가 생긴 이후, 창리는 그래도 바다에 면해 있기에 타격이 그리 크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당암, 칠전, 봉락 사람들은 생계에 큰 위협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분명히 정부와 현대에 방조제 건설의 반대 의사 표시를 보였지만, 군사정권(박정희, 전두환) 아래에서 시위를 크게 한다는 것은 그 당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고 한다. 그래도 몇몇 마을에서는 음식을 해다 나르며까지, 서울 현대 사옥 근처에서 반대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창리 역시 방조제 건설 이후, 천천히 먹고 살기가 나빠졌다. 원래 갯벌이 많은 곳도 아니었고, 바다에 면해 있기에 어업에도 큰 타격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수많은 물고기들의 산란처였던 천수만이 막히고 나니, 고기가 줄어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실제로 천수만 방조제 성립 이후 연간 1만 2150톤에 이르던 어획량이 3년 후 4,750톤으로 62%나 감소해서 어업을 주업으로 삼았던 사람들의 고통은 매우 컸다. 근 40여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천수만 A지구의 역간척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이를 통한 갯벌 복원에 관한 이야기가 슬며시 등장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천수만 방조제로 인해 간척된 땅들에서 소금기가 쉽게 빠지지 않기 때문이다. 전남 해안의 갯벌처럼 무른 것이 아니고 장화를 신고 그나마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던 단단한 갯벌을 간척했기 때문에 간척된 땅의 크기가 매우 넓고, 간척에 큰 힘을 들이지 않을 수 있었지만, 그만큼 소금기는 쉽게 빠지지 않았다. 실제로 창리쪽 부남호의 물은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고, 현대 아산은 간척된 농토에서 더 이상 농사짓기를 포기하고 최근에는 태양광 사업으로 돌아설 기미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방조제와 간척 사업에도 포구로서의 위용을 아직 그대로 간직한 창리는 주변 포구에서 찾아볼 수 없는 큰 당을 가지고 있다. 영신당이 그것이다. 임장군, 즉 임경업 장군 내외를 모시고 있는데, 그 연원은 정확히 알기 어렵다. 무학대사와 임경업 장군의 내기 이야기가 천수만 일대에 전해지는데, 김영기 씨는 세세한 줄거리를 기억하고 있지는 못했다.

영신당은 각시당과 신랑당으로 나뉘는데, 신랑당 자리에는 현대의 건물이 들어서 있다고 한다. 지금 남아있는 영신당은 소위 각시당이다. 창리 영신당은 정월 초사흘날 제를 지내는 데, 당에 올라가서 제를 지내는 사람은 비린 것을 먹지 못하고, 육고기도 먹지 못했다. 즉 비

리고 누린내가 나는 것은 못먹는 썸이었다. 오로지 간장과 밥만을 먹을 수 있었는데, 제를 지내기 20일 전부터 그렇게 먹었다고 했다. 그렇게 제를 지내는 사람은 당주이고 당주는 남성이었다. 혼자서 제를 올릴 준비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음식 준비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 함께 했지만, 동장영감이 주축이 되어 준비했다. 제를 지내는 당주는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게 상례였지만, 바다에 나가기 보다는 주로 농사일에 힘썼던 김영기 씨는 한 번도 당주 역할을 맡아 본 일은 없다고 한다.

사실 임경업 장군과 조기잡이는 관련된 여러 설화들이 전해지지만, 주로 연평도에 많다. 창리는 연평도까지 나가는 배들 덕에 그 이야기가 함께 전승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임장군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이 있었는데, 이것은 매우 무섭고 권위가 있었다. 지금은 도난당하고 비슷하게 그려 놓은 새 무신도를 올려놓았다. 하지만 예전과 같은 위압감을 들지 않는다고 한다.

조선후기 세곡선이 편하게 다니기 위해 원래 육지와 붙어있던 안면도에 운하를 놓아 바닷길을 뚫었다는 사실은 그리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데, 김영기 씨는 이에 대한 전승된 기억을 정확히 이야기했다. 그때, 땅이 잘려나가 피가 났다는 전설이 있고, 그 덕에 창리가 포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지금 현대건물이 있는 원래 신랑당에는 호랑이와 얼킨 전설이 하나 전한다. 호랑이가 그 신랑당에 밥 좀 하나 점지해달라고 빌었다. 즉 인간 하나 잡아먹게 해달라고 빈 썸이다. 하지만 임경업 장군이 매어 놓은 말이 호랑이를 낚다 발로 차 버려서 석바루라고 불리는 썸이 생겼고, 그렇게 도망가던 호랑이는 그 아래 있는 상당장승에 놀래 다른 곳으로 도망가려고 했으나, 그쪽에는 지금 남아있는 각시당이 있어 꼼짝을 못했다고 한다. 즉 그렇게 어디로 도망갈 수 없어서 헤매다가 임경업 장군이 매어놓은 말에 발길로 채였다는 것이다. 이는 주변의 섬들에 대한 지명전설로 볼 수 있는 이야기다.

창리 사람들은 행정구역상 서산에 속해있지만, 천수만 덕에 주로 부석면이나 신평리 쪽으로 장을 보러 다녔다고 한다. 서산장에 가는 경우는 소를 사거나 팔 경우에만 다녔다고 했다. 방조제가 생긴 이후 가두리 양식장이 생겼지만, 그보다는 천천히 관광객이 늘면서 펜션이나 도시인들의 낚시를 위한 작은 배들이 더 많이 생겼고, 곳곳에 낚시터도 들어섰다. 새로 생긴 방조제는 사람들의 삶의 동선을 크게 바꾸기도 했다. 예전에 방조제가 없던 시절에

는 물살이 하도 빨라, 창리에서 간월도로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더군다나 유속이 빠르기로 유명했기에 배로 간월도나 천수만 방조제 반대편 지구로 나갈 일도 거의 없었다. 즉 삶의 동선이 옛 천수만을 따라 성립된 셈이다.

하지만 지금은 방조제가 생겨 길이 열리고, 도로교통이 발달함에 따라, 서산시로 집중되는 경향은 분명하다고 한다. 창리도 방조제가 생긴 이후 어업에 종사하던 이들이 나름 고향을 많이 떠났다고 했다. 간척지로 만들어진 농토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소금기가 많아 아직도 벼농사 짓는데 애로가 있고, 품이 많이 들면서도 소득이 많지 않아 간척지에 있던 논들이 지금은 화훼단지로 많이 변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 했다.

현대에 다니며 방조제 만드는 것을 지켜보고, 간척지가 들어서는 것을 목도했던 김영기 씨도 포구가 있는 창리에서 거의 농업에만 종사하며 지금껏 살아왔지만, 방조제가 생긴 이후 삶이 나아진 점은 없다고 했다. 오히려 바다가 주는 풍요로움만 사라졌을 뿐이다.

•  
**봉생 포구  
 이야기**



**안 기 란** (1947년생)  
 서산시 고북면 봉생2구 생천길

19살에 홍성에서 이곳 봉생리로 시집와서 50년이 훌쩍 넘었다. 원래 고향은 홍성군 구항면이다. 대가족의 집에 시집와서 큰며느리 노릇을 툭툭히 했다. 스스로 여위어 보낸 시동생 시누이가 하나 둘이 아니다. 방조제 덕에 없어진 바다 옆에서 대가족을 돌보며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이다.

대가족이 먹고 살려면 다들 부지런해야했다. 시아버님은 큰 일꾼이셨다. 그리고 남편의 형제분들 중에 유독 남편이 머리가 좋고 생활력이 강했다. 시아버님은 일찌감치 살을 뺐다. 독살은 아니고, 대나무로 살을 매서 갯벌에 물 빠지기를 기다렸다. 50여 년 전, 봉생 포구의 갯벌은 풍요 그 자체였다. 살에 걸린 고기의 수는 엄청났다. 19살에 시집와서, 이제 손을 훌쩍 넘긴 큰 아들을 키우는 사이 남편은 군에 갔다. 큰 아이 키우느라 새댁 놔두고 남편이 군대 갔다는 사실은 생각할 틈도 없었다. 물이 한 번 빠지고 나면, 살에 걸린 고기 나르는 일도

정말 고되었다. 살은 1년에 두 번 정도 새 그물을 댔다. 대나무로 살대를 만들었는데, 봉생리에서는 좋은 대나무를 구할 수 없어 먼 곳까지 나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살은 가족의 중요한 수입원이었기에 봄에 살을 댔 때 살고사를 지내기도 했다.

살에 걸리는 고기의 종류는 무척 다양했다. 대하, 갑오징어, 꽃게, 도미, 민어, 농어 종류별로 다 있었다. 심지어 갈치가 걸리는 경우도 많았다. 천수만이 온갖 해양 생물의 산란지였기 때문이다. 살에 걸린 고기를 빼려 갈 때 특별한 도구 같은 건 없었다. 다행히 갯벌이 단단한 편이라, 발이 빠져서 걷기 힘든 건 없었다.

고무다라나 양철대야 등으로 고기를 집 근처로 옮겨오면, 시어머니는 장으로 고기를 팔러 나서셨다. 60년대 후반, 고북면에 버스가 자주 다니던 시절이 아니었을 뿐더러, 소위 고무다라나 양철대야에 담긴 생선을 머리에 이고, 사람들을 돈을 주고 시켜 장으로 나가 고기를 파는 것은 보통 고역이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이 일을 오롯이 해냈다. 남편이 군에 갔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다. 주로 나가는 장은 갈산장, 흥성장, 고북장 등이다.

사실 살을 매는 집은 마을에 안기란씨 덕 한 군데 뿐이었다.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게 시집올 때까지 남편의 형님들이 아직 분가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대가족이 모여 살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19살 혼례식 이튿날은 사실 시아버지 환갑 잔치날이었다. 그래서 혼인날 온 가족이 모여 찍은 귀한 사진을 가지고 있다. 사진 속 어른들은 돌아가신 분들보다 아직 생존해 계신 분이 더 많을 정도다. 대가족 사이의 우애가 아직도 매우 좋은 편이다.

이렇게 대가족이 어업에 한꺼번에 종사할 수 있어서 대나무 살도 댔지만, 갯벌에 말뚝을 박아 큰 그물을 만들어 고기를 잡기도 했다. 말뚝에 막은 그물은 육지 쪽으로 입구를 내고 그물 안에 네모난 모양으로 고기들이 모일 수 있는 살을 하나 더 댔다. 육지 쪽으로 낸 입구에 밀물 때 고기들이 들어가 있다가 물이 서서히 빠지면서 그물 안 고기들이 어디 도망가지 못하고 네모난 살에 다시 들어가 잡도록 되어 있는 구조다. 따라서 조금 때는 많이 잡을 수 없지만, 사리 때는 잡는 양이 많았다.

살이나 그물에 많이 걸리는 것으로 빠질 수 없는 게 대하와 꽃게다. 봄에는 알이 짝 찬 꽃게가 주로 걸리고, 그 다음에는 대하들이 많이 잡혔다고 한다. 대하는 사기리 쪽에서 대랑으로 사는 구입처가 따로 있었다. 봄에는 꽃게, 대하, 갑오징어가 주로 잡히고, 여름에는 잡어들이 많았고, 가을에도 다양한 고기들을 잡았지만, 갈치가 잡혔다는 사실은 특이하다. 지

금은 갈치값이 매우 높지만, 그 당시만 해도 갈치가격이 높지 않아 큰돈은 되지 않았지만, 시집와서 처음으로 시아버지가 가득 담아왔던 은갈치 한 소쿠리는 잊지 못한다 했다.

봉생리에는 특이하게 바지락도 많았지만, 꼬막도 많았다고 한다. 이제 간척이 되어 갯벌이 없으니 자세한 조사를 할 수는 없겠지만, 천수만 지역의 없어진 포구마다 특징적으로 잡히는 어패류의 종류가 다른 것은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바지락도 많았지만, 꼬막의 수도 꽤 많았다는 사실은 봉생 포구만의 중요한 특징으로 파악된다. 거기다 방조제가 생긴 이후 갑자기 재첩이 등장했다고 한다. 사실 재첩은 섬진강이나 낙동강을 중심으로 바다와 민물이 만나는 곳에 많이 서식한다. 바다가 막힌 뒤, 아직 소금기가 빠지지 않았을 무렵, 3~4년 간은 재첩 수확으로 꽤나 괜찮은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 때 뿐이었다. 소금기가 약해지자 어느 순간 재첩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사실 봉생 포구 주변 사람들은 갯벌을 통해 고기를 잡고 바다를 생업의 터전으로 삼은 성격이 강하다. 예전에도 반농/반어의 형태였기 때문이다. 농사를 지었더라도 바다와 갯벌의 존재가 삶을 풍요롭게 했던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봉생 포구에 직접 배를 부리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았는데, 역시 배를 제대로 부린 사람은 안기란 씨의 남편이었다. 배는 안면도에서 사왔다. 서산일대 포구에서 중선이나 고깃배는 대부분 안면도에서 사왔다고 하는데 안기란 씨의 남편도 그러했다.

미양호라 이름붙인 배로 남편은 갯지렁이를 잡았다. 갯지렁이는 봉생 포구 앞 쪽 바다나 갯벌에서 잡기보다는 간월호 쪽으로 나가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렇게 잡은 갯지렁이는 초창기에 전량 일본으로 수출을 했다. 정말 괜찮은 수입원이었다. 남편 혼자 갯지렁이를 잡은 건 아니다. 선주였지만 마을 사람들과 함께 했다. 마을 사람들이 선원이 된 셈이다. 그렇게 잡은 갯지렁이는 어촌계로 넘겨 팔았다.

여성들은 갯벌에서 바지락을 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연히 갯벌에 바지락만 있던 것은 아니다. 능쟁이, 맛조개 등이 널려있었는데, 갯벌에서 능쟁이가 만들어놓은 구멍과 맛조개가 만든 구멍은 모양이 달랐다. 맛은 철사로 만든 서개라는 것으로 잡았다. 맛은 잡아서 팔기 보다는 직접 먹는 경우가 많았고, 형편이 안 좋은 집들은 능쟁이를 대량으로 잡아 장에 내다 팔아 살림에 보태는 경우가 많았다.

봉생리에서 안기란 씨 덕은 생활력이 강하고, 마을일을 선도적으로 처리하는 몇 안되는

집이었다. 농토가 적은 것도 아니지만, 바다를 생활의 터전으로 삼아 많은 일을 했다. 특히 마을 내에서 살을 매는 경우가 안기란 씨 덕밖에 없었다는 것은 재밌는 지점이다. 하지만 방조제가 생긴 이후 안기란 씨 덕도 삶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바다는 긴급히 돈이 필요할 때, 혹은 넉넉한 돈이 필요할 때, 더 나아가 삶을 풍요롭게 해 주는 중요한 곳이었다. 갯벌에 나가면 당장의 반찬거리, 먹을거리를 구할 수 있었을 뿐더러, 그걸로 생업을 삼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천수만에 방조제가 생긴 이후, 바다에서의 수입은 완전히 끊어졌다. 다들 대놓고 말은 못해도 방조제가 생긴 이후 마을 사람들의 형편이 천천히 나빠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바다가 방조제로 막힌 후, 형편이 어렵던 마을 사람들은 마을을 많이 떠났다. 농토가 부족한 사람들은 바다에서 생기는 추가 수입 없이 생계를 잇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사실 많은 고북면 사람들이 방조제가 생기는 걸 반대했다. 사기리 쪽에 아산 정주영의 동상을 세우려 했던 계획을 무산시킨 것도 고북 주민들이다. 간척을 한 땅은 대부분 현대 아산의 땅이었고, 현대 직원들이 농사를 짓다가, 나중에 주민들에게 불하했다. 하지만 목돈을 쥐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으니, 그 땅을 사서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은 생각만큼 많지 않다. 결국 방조제가 생긴 이후 보상은커녕, 마을 사람들의 형편만 나빠졌다. 안기란 씨 덕도 마찬가지였다. 바다에서 나오는 부수입, 사실 부수입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많던 수입이 딱 끊기고 나니 자식들 공부시킬 걱정이 커졌다.

봉생리 포구는 서창 포구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그리 많은 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배가 있으니 당연히 뱃고사도 지내긴 했으나 무당을 부르거나 당을 모시거나 하지는 않았다. 전형적인 반농/반어의 형태다. 83년 방조제가 생겨 바다가 막힌 이후, 안기란 씨는 농사 일에 힘쓰면서 마을일에도 앞장섰다. 시동생들을 모두를 자신의 힘으로 시집장가 보낸 것도 물론이거니와 부녀회 활동을 오래하면서 이런 저런 표창도 많이 받았다. 하지만 바다가 있었으면 싶은 마음은 지울 길이 없다.

갯벌에는 염전도 있었다. 단대염전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논으로 바뀌었다. 어떻게 보면, 농사를 크게 짓고 사는 사람들은 소득이 더 나아진 부분도 있다. 비록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대단위 농사가 기계화되면서 더 그런 측면이 커졌다. 하지만 방조제가 생기기 전 바다의 풍요는 잊지 못한다. 갈치를 직접 잡아먹던 마을이, 이젠 생선트럭이 언제 마을로 들어오나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으니 말이다.



•  
덕지천 포구  
이야기



**박중래** (1950년생)  
서산시 덕지천로

박중래 씨는 덕지천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4학년까지 거주하다가 학업을 위해 인천으로 가서 학교를 다녔다. 하지만 부모님은 덕지천에서 계속 생활을 하여 주기적으로 덕지천을 왕래했다. 대학을 마친 후 회사원 및 개인사업을 하다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귀향하여 현재 농업에 종사한다. 박중래 씨의 아버님은 일제강점기에 강제 징용을 다녀온 분이다. 국권을 다시 찾았을 때는 나이 서른이 막 되셨는데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면서 중선배를 운영하기도 했다.

박중래 씨 아버님은 상당히 부지런하고 당찬 분이셨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권유도 있었지만 사업을 하실 마음이 있어 중선배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덕지천에는 중선배를 가진 집이 있었고 이웃 마을에도 2-3집이 중선배를 가지고 있었다. 그분들이 아버님께 중선배를 운영하라고 권하여서 중선배를 부리기 시작했다. 주로 농사를 지으신 분이 중선배를 부

릴 정도의 재력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는 지금도 의문이다. 큰 누님이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하여 거정 경제에 보탬이 되기도 했지만, 8남매를 키우면서 중선배를 부린 것은 지금 생각해도 대단한 일이다.

중선배를 부리는 것은 상당한 경비가 드는 일이다. 배를 구입할 때도 상당한 비용이 들지만,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에도 선주가 모든 경비를 부담해야 했다. 선원들은 각각 자신이 일한 몫을 받아갔는데 맡은 역할에 따라 분배받는 금액이 달랐다. 1년에 두 차례 선주가 썸을 봐주었다. 배를 처음 구입한 때는 1961년 무렵으로 박중래 씨가 중학생 때였다. 그래서 중선배를 구입한 것은 확실히 기억하지만 배 구입 금액이나 운영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알지 못한다.

이때는 중선배를 톤수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배의 넓이로 크기를 따졌다. 그래서 몇 자 배, 몇 자 배라고 불렀는데 몇 자 이상을 중선배라 불렀는지는 알지 못한다. 아버님이 몰던 배는 서른다섯 자 배로 10m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처음 구입한 중선배는 기계배가 아니라 풍선배로 돛을 두 개 단 배였다. 5-6년 풍선배를 몰다가 기계배로 바꾸었고, 다시 5년 정도 운영하다가 배 사업을 접었다. 풍선배에는 선원이 모두 8명 있었다. 기계배로 바꾸었을 때도 선원 숫자는 변함이 없었고 기관장 한 사람만 추가되었다.

선원들은 모두 동네분들 이었다. 집에서 자신의 일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다녔다. 항상 배를 타고 나가면 집안에서 다른 일을 못했겠지만, 한 사리 나가서 고기를 잡고 돌아오면 한 사리는 집에서 쉬고 다음 사리에 다시 바다로 나갔다. 그래서 쉬는 동안에 선원들은 집안일을 돌볼 수가 있었다.

중선배를 대던 곳이 덕지천 포구인 오피강이다. 포구에는 집이 여덟 집이 있었고 술집도 두 집 있었다. 술집에는 기생까지 있어 마을로 돌아온 선원들이 찾았다. 덕지천 마을과 이웃 마을에 있던 중선배들이 오피강에 들어왔는데 많을 때는 7-8척이 동시에 들어오기도 했다. 그 당시 오피강 포구 넓이는 100m 이상이였다. 물이 다 써도 족히 50m는 되어 중선배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었다. 포구에서 수영을 하고 망둥이를 잡던 기억과 중선배를 봤던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다.

중선배를 몰고 선원들이 주로 간 곳은 연평도부터 목포까지 서해바다이다. 연평도에는 조기를 잡으러 갔고, 목포에는 새우와 갈치를 잡으러 갔다. 연평도로 가서 잡은 고기는 인천

에서 처리했고, 목포에서 잡은 고기는 목포에서 바로 처리했다. 그러면 아버지는 목포나 인천으로 돈을 가지러 가곤 했다. 인천과 목포에는 아버지가 주로 거래하던 상점이 있어 때를 맞춰 가면 되었다. 아버님은 직접 배를 몬 것은 아니지만 선주여서 모든 관리를 다 한 것이다.

때로는 중선배에 새우젓과 같은 것을 싣고 돌아오기도 했다. 그래서 집에는 젓갈 창고가 따로 있었다. 배에 싣고 온 새우젓의 가격이 맞지 않으면 선원들이 집 창고로 새우젓을 쳐서 날랐다. 새우젓은 신선도와 숙성도가 생명인데 중간상인들은 싸게 사가려 하고 아버지는 좀 더 가격을 쳐서 받으려 했다. 이렇게 이윤에 맞게 적정금액에 파는 것을 ‘시구미’라고 한다. 들어간 돈과 맞추어 손익을 따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맞지 않으면 아버지는 배짱을 부려 집 창고에 쌓게 했고 나중에 좀 더 나은 가격으로 팔았다. 오폴강에 창고를 지으면 더 편리했겠지만 오폴강에는 창고를 지을 터가 없어 집에 창고를 지었던 것이다.

오폴강이 있는 덕지천에는 서울 사는 지주들이 소유한 땅이 많았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소작을 주었는데 가을걷이가 끝나면 중선배를 이용해 소작료를 걷으러 왔다. 오폴강 포구는 일제 강점기에 공출이 나가던 곳이기도 했다. 아버님은 농사를 지으면서도 중선배를 부려 집안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있었다. 그래서 박중래 씨 남매들은 그 시절에 인천까지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었다.

배가 나갈 때마다 뱃고사를 지냈다. 그때 같은 마을에 살던 후배들이 고사상에 올랐던 떡과 돼지고기를 얻어먹었는데 세월이 많이 간 지금도 그 시절 이야기를 한다. 밤 10시 넘어 고사를 지내는데 떡과 고기를 얻어먹기 위해 잠도 자지 않고 기다렸다. 절편과 시루떡을 준비하고 돼지고기와 술을 상에 차린 것이 고사상이다. 고사상은 이물에 차렸다. 여자들은 배에 올라갈 수 없어 남자들만 고사를 올렸다. 박중래 씨도 따라갔다가 아버님이 시켜 절을 했던 기억이 있다. 고사를 지낸 후 마을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었는데 박중래 씨는 친구들을 배위로 올라오게 해서 음식을 먹게 해주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엄청난 특권이였다.

고사를 지낸 후 배는 출항을 했다. 그러면 동네 아낙들은 항아리에 열무김치와 같은 반찬을 만들어 배에 실어주었다. 이 항아리는 배가 마을에 돌아왔을 때 잡은 생선을 가득 채워주는 것이 관례였다. 그래서 모든 집에서 반찬을 실어주고 그 대가로 생선을 받고 싶어 했

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어서 어머니께서 선택해 준 집만이 할 수 있었다.

당시에는 소가 귀했는데 박중래 씨 집에는 소가 있었다. 머슴도 둘이 있어 농사도 많이 지었다. 소가 없는 집에서는 소를 빌려 농사를 짓는데, 소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특별식으로 소여물을 끓여주어야 했다. 소를 빌려준 값은 돈으로 받지 않고 품앗이로 받았다. 작은 일에 소를 빌려주었으면 3일, 큰 일에 소를 빌려주었으면 5일을 품으로 갚았다.

박중래 씨 집에서는 주기적으로 무당굿을 했다. 정월 보름과 가을에는 무당을 꼭 불러 굿을 했는데 가야산 넘어가는 곳에 있는 마을의 무당을 불러왔었다. 무당은 밤새 굿을 했다. 그 무당이 박중래 씨를 보고 수영아들 삼아야 한다고 해서 무당을 수영어머니로 모시기도 했지만 자세한 내막은 기억할 수 없다. 마을에 서낭당이 있어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도 무당이 주관하여 시키는 대로 했다.

아버님이 중선배 사업을 접은 것은 방조제 막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천수만에 방조제가 생기면서 많은 배들이 사라졌지만 아버님은 70년대 초반에 배사업을 그만 두었다.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아버님이 따져보니 채산이 맞지 않아 그만 둔 것이다. 반면 같은 마을에서 중선배를 부리며 아버지에게 중선배 사업을 권했던 홍씨네는 계속 배를 부리다가 결국 모든 재산을 털어먹었다. 이런 것으로 보아도 아버님이 보통 분은 아니셨다.

박중래 씨는 덕지천 포구에서 조개를 잡던 기억도 있다. 맛조개는 구멍이 작아 쉽게 구별이 되었는데 철사같은 것으로 끝을 구부려 구멍에 넣으면 맛조개가 걸려 올라왔다. 소금을 뿌려 잡기도 했고 갯벌을 파서 잡기도 했다. 대합은 굵은 연장이 따로 있어 끌고 가다가 퍽하고 걸리면 잡았다. 삼조개는 호미로 파서 잡았고, 능쟁이는 쭈셔서 잡았다.

덕지천에는 용대기놀이가 있었다. 흑룡과 청룡이 그려져 있는 용대기를 앞장세우고 풍물을 울리면서 놀았다. 정월 보름에는 이웃 마을의 용대기와 기싸움을 하기도 했다. 깃발 위에 꽃힌 꿩털을 뽑으면 이기는 것으로 방어조는 용대기를 지키고 공격조는 상대방 용대기를 공격했다. 이 용대기놀이를 가지고 여수에서 열린 민속예술경연대회에도 참여하여 입상까지 했지만 그 이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흐지부지되었다. 박중래 씨는 과거 덕지천 포구의 생활을 잊지 않고 있으며 지금은 사라진 포구를 생각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 무장리 포구 이야기



**한준자** (1940년생)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1구

한준자 씨의 고향은 성연면 평리로, 지금 살고 있는 무장리에서 바다 건너에 있는 곳이다. 무장리로 혼인을 해서 들어온 후 지금까지 살고 있다. 어려서 상당히 똑똑했지만 오빠가 군인 나가면서 학비를 대줄 수 없게 되어 결국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 무장리에서는 50년 동안 부녀회장을 했고 현재는 지곡면사무소 공공근로 반장을 할 정도로 딱 부러진 성격이다.

무장리에서 인천이나 서울을 가기 위해서는 명천까지 가서 배를 타야 했다. 물때에 따라 뱃시간이 달라 어떤 때에는 새벽에 일어나 명천까지 걸어가야 했다. 바다가 있어 질러갈 수 없어 신대이, 평리, 예덕리를 거쳐 2시간 정도 걸어야 여객선이 있는 포구에 도착할 수 있었다. 포구에는 매표소가 있었다. 그리고 독 아래에는 석축을 쌓아 배가 정박할 수 있었다. 배를 탈 때에는 물에 빠지지 않고 걸어서 탈 수 있었다. 명천에서 배를 타면 인천까지는 3-4시간 걸렸다. 바다가 잔잔하면 쉽게 갔지만 바람이 불면 큰일이었다. 배안에서 멀미를 하고

기느라고 다들 고생이 심했다.

인천에서 돌아올 때도 배를 탔는데 물때에 따라 명천 포구까지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 경우에는 뗏마라고 노를 젓는 배로 바꿔 타고 포구로 돌아왔다. 명천 포구에는 배가 여럿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바다에서 조개 파는 데까지 건네 주는 배, 뗏마, 고기 잡는 배, 중선배 등이다. 근방에서는 성연, 명천 포구가 가장 컸다. 서울이나 인천을 가려면 반드시 명천 포구를 가야했다. 명천 포구를 떠난 배는 생기리 포구를 거친 후 곧장 인천으로 갔다. 인천에 도착하면 각자 흩어져 제 일을 보고 다시 돌아올 때 항구에서 만났다.

이처럼 명천 포구는 무장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명천에는 새우젓 장사가 있어 새우젓을 사러 가기도 했다. 새우젓을 한 독 사서 짊어지고 걸어서 마을로 돌아왔다. 지금은 무장리와 명천 포구 사이의 바다가 막혔지만 과거에 막히기 전에는 양쪽이 모두 바다였다. 한쪽은 명천 포구가 있는 바다였고 다른 쪽은 중왕리, 도성리가 있는 가로림만 바다였다. 성연 포구에 가까운 마을은 무장리와 대요리인데 결국 두 마을만 바다가 없어진 셈이다. 새우젓은 명천 포구에서 사왔지만 무장리 사람들이 주로 장보러 간 곳은 서산장이다. 30리 길을 걸어 서산장을 다녀 밤 12시 무렵에 돌아온 적도 있다.

무장리 사람들은 함께 어울려 바다로 조개를 캐러 가곤 했다. 조개는 사리 때 주로 캐러 갔다. 조금 때는 물이 안 써서 조개가 거의 없었다. 사리 때 물이 들어왔다가 빠지면 조개가 많아 캐러 갔다. 그래서 무장리 사람들은 모두 물때를 잘 알고 있었다. 여섯 때, 초여드레 한조금, 스무 살 한 조금, 사리 하는 식으로 구분하였다. 물때에 맞춰 조개를 캐러 가면 마을 사람들이 하나들 씩 모여들었다. 모두 손에는 호미와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굴 따는 사람, 망둥이 잡는 사람, 조개 파는 사람, 낙지 잡는 사람 등 제각각 특기가 있었다.

한준자 씨는 조개 캐는 것이 특기였다. 벌을 파면 바지락이 커다란 게 튀어나왔다. 얼마나 바지락이 많았는지 어떤 바지락을 주어야 하는지 모를 정도로 많았다. 높은 데는 능쟁이가 많았고 물이 잘박잘박한 모래벌에 조개가 많았다. 한 번 바다에 나가면 3-4시간 조개를 켰다. 사람에 따라 캐는 조개량은 달라 많이 캐는 사람은 바지락젓을 담아 생기리포구에서 팔기도 했다. 한준자 씨는 겨우 집에서 먹을 정도로 바지락을 켰다고 한다.

무장리에서 바다까지는 30분 정도 걸어가야 했다. 바다에서는 대요리 사람, 혜성리 사람, 평리 사람을 모두 만난다. 동네별로 바다 갯벌의 구분은 없었다. 지금은 어촌계가 있어

바다를 엄하게 구분하고 관리하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 다만 굴밭은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었다. 굴밭은 만든 집이 따로 있어 그 집만이 굴을 딸 수 있었다. 다행히 동생네 시댁에서 굴밭을 하고 있어 한준자 씨는 굴을 얻어올 수 있었다. 굴은 모두 자연산 굴이었다. 물이 빠지면 사람들이 달려들어 굴껍질을 깨고 굴을 깎았다. 낙지는 마을의 남자들이 주로 잡았다. 낙지 10마리를 한 코라 부르는데 한 코 잡는 사람, 두 코 잡는 사람 제각각이었다. 바다에 나가는 날은 따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한 달에 한두 번은 나갔다. 한준자 씨는 바다 생물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것은 아니어서 자주 다니지는 않았다고 한다.

무장리에도 살을 댔다. 말뚝을 박고 그물을 건 후 고기가 모이는 곳에 적당한 크기의 망을 자루처럼 달아놓으면 그리로 고기가 모였다. 모인 고기를 털어오면 되었다. 마을에서는 강서방네라는 사람이 살을 잘 댔고 고기도 잘 잡았다. 조개를 캐러 갔다가 물때를 놓쳐 못 나오게 되면 뗏마가 태우러 오기도 했다. 무장리에는 배를 가진 집은 없었다. 모두 성연 쪽 사람들 배여서 그들의 배를 이용했다.

무장리는 마을의 집이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그래서 갑골제, 안편지, 두부실, 샘치, 삼박골, 가루지로 자연 마을들을 불렀다. 과거에는 무장리2구에 서낭당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지고 터만 남아있다. 정월 열 나흘날에 마을에서 제를 올렸는데 지내지 않은 지 30-40년은 되었다.

특이하게 무장리에는 논둑제가 있었다. 한준자 씨도 논둑제는 지냈다. 물 잘 들어오고 논둑 터지지 말라고 올리는 제사이다. 논둑에 떡과 술만 놓고 야무 말도 하지 않고 절만 했다. 실제로 논둑이 터지고 안 터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믿음이 중요해서 논둑제를 지냈다.

정월 보름에 주왕제라고 하여 부엌에서 고사를 드리기도 했다. 떡시루 찌놓고 절을 올리는 정도였다. 정월 보름에는 터줏가리를 만들어 놓고 떡을 찌서 올린 후 한바탕 놀았다. 이를 일러 벵가릿대 세우기라고 했다. 무장리에는 이처럼 민간신앙이 여럿 있었지만 현재는 전승되지 않는다.

무장리에는 풍물이 있었다. 동네에 악기가 있어 풍물을 칠 줄 아는 외부 사람이 와서 가르쳤다. 한준자 씨는 풍물에 상당한 흥미를 느껴 열심히 참가하여 대전에서 열린 풍물대회에 나가 1등으로 입상하기도 했다. 지금부터 20년 전 일이라고 한다. 풍물패가 있을 때에는

정월달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풍물을 쳐주었다. 그러면 돈을 놓고 절을 하곤 했다. 지금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고 마을회관에 악기들이 보관되어 있다.

무장리 쪽 바다는 물살이 센 곳이었다. 뗏마에 참나무를 싣고 생기리포구로 가다가 배가 얽어져 익사한 사람이 있을 정도이다. 부부가 함께 바다에 나갔다가 부인이 빠른 물살에 휩쓸려 죽기도 했다. 물이 들고 날 때에는 빠르기가 장마철에 큰물 나가는 듯했다. 하지만 이제는 바다가 막히면서 모두 과거의 일이 되었다.

한준자 씨의 남편은 1년전 작고하였다. 남편은 동네에서 지관을 했다. 마을 사람들이 와서 뒤틀자리를 잡아 달라고 하기도 했고 집터를 봐달라고 하기도 했다. 터를 잡아주면 사례로 돈을 주어 비교적 유족한 생활을 했다. 평소에는 농사를 짓다가 하얀 도복을 갖추어 입고 한문을 보면서 일을 하는 남편의 모습은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무장리는 농업이 주업인 마을로 바다가 막히기 전에는 한참을 걸어가 조개도 캐고 게도 잡으며 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이런 일을 기억하는 이가 거의 없다. 서산읍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지만 초등학교 하나 중학생 둘만 있을 정도로 고령화 되어버렸다. 성연쪽으로 더 이상 가지 않게 되었다. 걸어가는 것보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면 더 빨리 가던 곳이 성연이었지만 지금은 아주 먼 곳이 된 것이다.



●  
노라포  
이야기



**하 광 예** (1944년생)  
서산시 부석면 노라포1길

하광예 씨는 이곳 봉락2리 토박이다. 많은 여성분들이 인근 동네에서 시집오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이 분은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서, 이곳에서 결혼까지 했기 때문이다. 4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자식은 오남매를 두었다. 아들 형제는 인근 서산에, 딸은 안산과 호남에 다른 한 딸은 미국에 있다. 증손주도 두었다. 큰 아들이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손자와 함께 한다. 아들이 사업을 하며, 용돈을 두둑이 주는 터라, 지금도 사는 것이 불편하지는 않다.

봉락2리는 특이한 모양의 마을이다. 서산의 없어진 포구 쪽 마을 들은 대부분 띄엄띄엄 집이 있었다. 농사를 짓거나 고기를 잡거나 마당에서 해야 할 일이 많으니 그렇다. 하지만 봉락2리는 방조제가 막히고 어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뒤, 간척지로 농토가 늘어나고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자 흩어져 있던 마을집들을 한 군데 모아 지었다. 93~95년 정도로 추정되던 시기에 정부 지원으로 집을 한꺼번에 지었는데, 새마을 운동 당시 많이 지어졌던 비둘기

집의 형태도 아니고, 담이 없는 형태로 지어진 90년대식 단독주택이 두 줄로 마을 회관 건너편에 형성되어 있다. 어느 집에 누가 들어가 살 것인가는 제비뽑기로 정했는데, 재미있는 점은 뽑기의 결과 노년층은 뒷줄에, 젊은 층은 앞줄에 배정되었다는 것이다. 시골집치고 집의 만듦새가 괜찮은 편인데, 어르신의 말씀처럼 정부지원금으로 지은 전문업자의 솜씨가 눈에 띈다.

시집 온 하광예 씨 댁은 바깥어르신 때부터 본격적으로 어업에 뛰어들었다. 시아버지는 선비의 모습이셨다 한다. 손발에 흙 같은 거 안 묻히고 사셨다 했다. 집안 전체의 경제를 하광예 씨의 바깥어른이 책임진 셈이다. 방조제가 생긴 이후,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 없었으니, 배를 창리로 옮겼다 했다. 큰 배는 아니었지만, 창리 포구에 배를 두고, 집은 봉락2리에 둔 채 두 부부가 오토바이로 창리까지 나가 고기를 잡아 팔았다. 하광예 씨 댁만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어업에 주로 종사했던 봉락2리 사람들 중, 바다가 아직 면해있는 창리 포구에 배를 두고, 집은 봉락리에 둔 채 출퇴근하면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간 사람이 꽤 되었다고 한다. 방조제가 실제로는 마을 사람들의 삶에 엄청난 타격을 준 셈이다. 방조제가 생긴 이후로 주로 잡은 건 송어였다. 송어가 참 많았다. 하지만 방조제가 생기기 전의 풍성함은 따라올 수 없다고 한다.

여자들은 주로 굴을 따다. 조개나 바지락도 많이 잡았다. 조새로 굴을 따는 재미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사실 노라포에는 굴 양식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일한 재미도 좋았다. 지금도 다른 바다에 가서 가끔 재미로 자연산 굴을 채집하기도 한다. 노라포 갯벌에서는 능쟁이랑 빠리고동을 주로 잡았다. 하지만 역시 돈이 되는 것은 낙지였다. 낙지의 경우, 잡는 솜씨에 따라 수확량이 크게 달랐다. 잘 잡는 사람은 10여 마리 이상 잡을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3~4마리 잡으면 많이 잡는 편에 속했다고 한다. 사실 봉락2리 마을 사람들은 바지락이나 조개 따위를 잡은 뒤 하나하나 손으로 다 깎 뒤, 염장을 직접 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젓갈을 시장에 내다 팔았다. 재미있는 지점은 그렇게 젓갈을 만들어 팔게 되면, 마을 어촌계 같은 곳에서 집단 작업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 노력했을 듯싶는데, 그런 것은 없었다고 한다. 집집마다 조개젓을 담그면, 알아서 팔거나 사러오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다.

마을에 살을 쓰는 사람은 한 집이 있었다. 독살의 형태는 아니고, 대나무에다 그물을 매

서 쓰는 살의 형태다. 농사를 지으면서 부업처럼 살을 댔는데, 남의 살에 걸린 고기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살이 얼마만큼의 수입을 얻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고 했다.

노라포에는 배가 그리 많지는 않았다고 했다. 11척 남은 정도였는데, 큰 배는 별로 없었다. 노라포라는 이름은 산이 없어서란다. 놀아서 뭐 해먹고 살 게 없어서 노라포라는 셈이다. 놀고 편해서 봉락리란 이름도 붙었다 했다. 방조제가 막힌 이후에는 창리로 나갔는데, 그 때는 바다가 더 넓었으니 노라포에서 부리던 배보다 더 큰 배를 부렸다. 노라포에 있던 배도, 창리에서 부리던 배도 모두 안면도에서 사온 것이다.

창리에서 어업에 종사할 때는 갯벌 일을 할 수는 없었고, 주로 고기만 잡았다. 창리포구에서 잡은 고기는 대부분 수협에 넘겼다. 나이가 들고 힘이 들어 더 이상 배를 부릴 수 없게 되자 고깃배는 수협에 팔았다. 나름 좋은 가격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사실 경제적 여유가 더 있었으면 고기잡이로 괜찮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했다. 좋은 배를 구하지 못해서 기관 고장이 나면, 고기를 잡아 번 돈을 오롯이 배 수리비로 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수협에서 괜찮은 가격에 배를 가져가 주어 다행이지만, 노라포에서도 창리에서도 그런 아쉬움은 크다.

창리로 넘어오기 전에는 노라포에 포구가 없어지고 간척지가 생겼지만, 작은 함석배를 만들어 고기를 잡기도 했다. 배를 둘 곳이 없으니 함석으로 만든 배를 고기잡이가 끝나면 집으로 끌고 들어오기도 했다. 포구가 있고 배가 있는 곳이니 뱃고사를 지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당을 부르거나 당이 있거나 하지는 않았다. 그저 고사를 지낼 때는 마을 사람들이 고사를 위해 하는 떡을 먹기 위해 모이는 경우가 많았다 했다.

없어진 서산의 수많은 포구들처럼 노라포 사람들도 반농/반어의 형태로 경제생활을 영위했다. 문제는 바닷가 가까운 논들이 의외로 천수답이 많았다는 거다. 사실 리아스식 해안에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것이 방조제를 쌓고 간척지를 만드는데는 최적의 조건이었겠지만, 아직도 소금기가 있어 호숫물을 농사에 쓸 수 없다는 말을 생각해보면, 방조제는 커녕 저수지조차 없던 시절에 눈에 물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음이 분명하다.

재미있는 지점은 봉락리에 나름 큰 저수지가 있다는 점이다. 사실 바로 옆에 방조제로 생긴 대형 호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규모의 저수지가 남아있는 이유는, 현대가 일부 지역의 농사를 포기할 정도로 간척지의 소금기가 쉽게 빠지지 않았을 뿐더러, 아직 저 큰 호수

의 물을 바로 농업용수로 쓸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저수지 근처에 있지 않은 논, 높은 곳에 있는 논은 모내기가 되면, 물을 댈 수 없었기 때문에 못자리를 만들지도 못하고 호미로 땅을 파고 물을 조금 부은 뒤, 벼씨를 바로 넣는 직파법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결국 이렇게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소득의 대부분이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 논에서 나오는 수확량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바다가 있던 시절, 방조제가 생기기 전의 시절이 더 좋긴 했지만, 이제 와서 방조제를 없애든 말든 큰 관계는 없다고 했다. 방조제 생긴 이후 논을 불하받기도 쉽지 않았지만, 지금 마을은 대단위 농경으로 잘 버는 사람은 괜찮다고도 했다. 다만 그 당시 현대건설 사장이고, 나중에 대통령까지 지낸 분이 하광에 씨 댁 뒤 야트막한 산을 조금 더 좋은 값에 사줬다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은 있다고 했다. 그때는 다들 뭘 몰라서 가격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몰랐다고 했다.

사실 봉락2리 사람들은 방조제가 생기는 걸 강력히 반대한 축에 속한다. 마을 사람들 일부가 서산 시내에 나가 시위를 하기도 했고, 서울에 가서 시위하는 사람들에게 밥을 해서 나르기도 했다고 한다. 그 당시는 물정을 몰라서, 동시에 엄혹한 시절이라서 대놓고 시위를 하고 반대를 하기도 쉽지 않았지만, 더 많은 보상이 필요했다는 생각, 바다를 막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지금도 남아있다고 한다.

바다가 있던 시절은 분명히 풍요로웠다. 이 세대가 돌아가시면 바다를 기억하는 세대는 그리 많지 않다. 바다가 주던 풍요로움은 자기 손을 먹을거리를 직접 얻을 수 있을 뿐더러, 그게 수입과 연결되었다는 점이다. 갯벌의 풍요로움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  
**굴양식  
 이야기**



**김 평 강** (1938년생)  
 서산시 부석면 노라포1길

김평강 씨는 큰 장사꾼이셨다. 배움이 없다고는 하나, 비범한 부분이 눈에 띈다. 40여 년 전 일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실뿐더러, 노라포 인근 포구의 양식장들에 대한 정확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사실 김평강 씨 집안은 방조제가 망쳐놓은 경우다. 봉락2리에는 시집와서 살게 된 것도 아니고, 양식장을 만들기 위해 들어왔을 뿐이다. 그 덕에 여기서 자식들을 키웠으니 고향 아닌 고향이 된 셈이다. 방조제가 생긴 이후 양식장은 제대로 된 보상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망했다. 바다가 주던 풍요로움이 사라진 뒤, 정말 간신히 살아남은 게 아닌가 싶다는 말씀이 가슴을 울린다.

태어난 곳은 마룡리다. 창리 위쪽. 여기 봉락2리와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다. 이곳으로 시집왔다고 하지만, 사실 바깥어른은 이곳에다 양식장을 만들었던 분이다. 그 당시로는 획기적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자식들을 키워 시집, 장가보냈으니 여기가 고향

이나 마찬가지로. 사실은 위쪽 마을 봉락1리 쪽에 있었는데, 딸들이 더 이상 고생하지 말라고 해서 세종시로 들어갔다. 하지만 처음 살아보는 아파트 생활에 도저히 적응할 수 없었다. 그래서 농토가 남아있는 봉락2리에 자그마한 컨테이너를 두고 소일거리를 삼고 있다. 그런데 소일거리라고 보기엔 농사규모가 꽤 컸다. 올해 생강 농사도 기대 이상이라고 한다.

5남매는 힘든 과정에서도 잘 커서 모두 자기 앞가림을 한다. 아들 하나가 사고로 몸이 불편해진 점은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젊은 시절에는 중장비를 몰며 잘 살았다. 가장 가슴에 사무친 일은 바깥어른의 일이다. 바깥어른의 일은 잊혀진 간척지와 방조제 공사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듯싶다.

김평강 씨의 바깥어른은 굴 양식장을 이곳 노라포, 봉락2리 앞바다에 만들었다. 배를 하나 구해서 고기잡이는 하지 않고, 굴이 붙어 있을 수 있는 돌만 수없이 날라 바다에 뿌렸다. 굴 양식장은 양식장인데, 사실은 반자연산 양식처럼 굴을 기른 셈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양식장은 꽤나 큰 돈벌이가 되었다. 사실 김평강 씨 가족들만 돈을 번 건 아니다. 마을 사람들이 굴 양식장에서 벌어들인 수입도 나쁘지 않았다. 기계를 동원하지 않는 이상 굴을 혼자 팔 수는 없는 노릇이니 말이다.

마을의 굴 양식장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 굴을 까게 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굴을 까면, 사람마다 다르지만, 많으면 10kg 적으면 7~8kg 정도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까온 굴들의 반은 굴 양식장 주인인 김평강 씨 것이고, 반은 굴 만 사람에게 그대로 주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받은 굴을 내다 팔 곳이 많지는 않았을 거다. 그렇게 남은 반의 굴을 김평강 씨가 직접 샀다. 땅을 소작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로 양식장을 운영한 셈이다. 어촌계가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굴 양식장에서 굴을 까는 마을 사람들도 굴을 다시 사주는 데 불만은 없었다.

그렇게 되산 굴들은 어리굴젓을 담그지는 않고 그대로 서산 도매업자들에게 팔았다. 놀랍게도 근 40여 년 전 굴 값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한 깡이 20kg 정도 되었는데, 그 한 깡 기준으로 4만원 정도였다고 한다. 물론 시세에 따라 굴 값의 변동은 있었는데 3만 5천원이 되던 시절도 있고, 비싸면 5만원에서 5만원이 넘는 적도 있었다 한다. 물가 변동을 생각해보면, 그 당시 4만원은 지금의 40만 원정도로 추산된다. 굴양식장이 김평강 씨 집안과 봉락2리 마을 사람들에게 큰 소득원이 되었음은 분명하다. 김평강 씨는 그 당시 서산 굴 도매업

자의 이름도 기억하고 있었다. 지금 생존해계신지는 모르지만, 당시 서산 내 굴 유통의 상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문제는 이 굴 양식장이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양식장에 대한 법적 허가 기준이 모호하던 시절이고, 양식장 자체가 마을 사람들의 경제 활동에 많은 기여를 생각했다는 점을 보면,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방조제를 만들고 간척지를 개척한 정부와 현대는 허가되지 않은 양식장이라고 해서 보상을 전혀 해 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렇게 많은 돈이 나오던, 온 가족의 경제적 터전은 방조제가 생긴 이후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다. 막걸리를 좋아하고, 굴 양식장 만드는 데 온 평생의 노력을 기울인 김평강 씨의 바깥어른은 그 답답함과 울분을 참을 수 없었다고 한다. 결국 이렇게 좋아하는 막걸리 평생 먹다 죽었음 싫다 하시다가 그렇게 핏병으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렇게 한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

봉락2리에 인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방조제 건설과 간척사업에 반대를 지속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견해가 다 같을 수는 없었다. 반농/반어의 경제 구조에서 동시에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일찍 눈뜬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보상금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이 경운기를 동원해 모두 모여 시위를 하러 나가면, 그 당시 새마을지도자나 이장 비슷한 일을 하셨던 분들이 나서서 막았다고 한다. 징역 간다는 말에 속고, 그게 무서워서 시위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게 한이라 했다. 서울에 가서 항의하고 싶었지만, 그것도 한두 번에 불과했다. 결국 방조제가 만들어지고 간척지가 생기면서, 마을 사람들의 시위와 항의를 막던 사람들은 나름 보상금을 챙겼다. 보상금이 나오는 구조가 어떤 것인지 알았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그들을 원망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어떻게 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은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마음에 와 닿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봉락리에는 양식장이 많았다. 굴 양식장 옆에는 바지락 양식장도 있었다. 바지락 양식장을 운영하시던 분은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김홍란 씨란 분이다. 그 분의 양식장은 등록 혹은 허가가 되어있어 보상금을 나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바지락 양식장에서 나온 조갯살들은 김평강 씨나 마을 사람들이 직접 조개젓을 만들어 서산에 팔았다. 어촌계와 같은 협동조직 없이 김평강 씨가 마을 여성들에게 깐 바지락, 즉 조갯살을 사서 직접 조개젓을 대량으로 만들었고, 몇몇 마을 여성들도 그렇게 했다고 한다. 이걸 서산에서 도매로 사러 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돈이 되니 괜찮은 벌이었다고 한다.

노라포에는 고기잡이배 11척 정도, 오징어배 11척 정도가 있었다. 오징어배가 있었다는 증언은 처음이다. 갑오징어가 많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된다. 김평강 씨 집안은 살도 댔다고 한다. 크게는 안하고 200m정도 되는 살을 댔는데, 이 살로는 주로 갑오징어를 많이 잡았다고 했다. 여러 증언과 마찬가지로, 노라포에도 없는 고기가 없었다고 했다. 수많은 물고기들의 산란지였으니 당연한 일일테다.

풍어를 위해 갯대도 끊고 뱃고사도 지냈지만, 인근 포구와 마찬가지로 당집이 있거나 무당을 부른 적은 없다고 했다. 인근에서 가장 큰 풍어제는 역시 창리 영신당이다. 영신당에서 제를 올리면 인근 사람들이 엄청 몰려 구경을 할 정도로 장관이었다고 했다. 지금도 창리가 바다에 면해있음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80년대 초반, 방조제가 완성되고 간척지가 생기고 현대의 농토가 늘어났지만, 김평강 씨댁의 상황은 좋지 않았다. 굴 양식장에 평생을 바친 바깥어른이 화병으로 세상을 버린 뒤 남은 자식들을 먹이고 키우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했다. 바다가 주는 풍요로움을 잊지 못해, 안면도로 우도로 다니면서 돈을 벌다가 죽을 뻔 한 일도 있었다. 풍랑에 배가 침몰할 뻔 한 일도 많았다 한다.

방조제가 있기 전, 마을 사람들은 심심하면 여름 밤바다로 나갔다. 햇불을 들고 나가면 갯망둥어가 지천으로 깔려 있었다고 한다. 거짓말 좀 보태서 그 갯망둥어는 잡는 게 아니라 쭈는 수준으로 잡을 수 있었다 했다. 민물 망둥어는 흠냄새 난다고 잡히면 버리거나 먹지도 않았다고 한다. 그렇게 풍요롭던 바다가 막힌 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농사로 돌아섰다.

안타까운 지점은 도시의 재개발처럼 150만 원정도 하는 딱지를 마을 사람들에게 대량으로 사놓은 업자들이나 서울 혹은 대전 사람들이 나중에 이걸 비싸게 되팔아 많은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거다. 그걸 소작하는 마을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당하기 일쑤였다.

지금 봉락2리의 농사는 대규모로 짓는 사람들에게 좋다. 방조제로 만들어진 민물은 아직도 농사에 쓰기는 부적합하다. 한 번 크게 농사를 망친 이후 김평강 씨도 지하수를 뽑아 밭농사를 짓는다 했다. 현대가 몇몇 간척지의 농사를 포기할 정도면, 그 상태를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어르신의 연세 많은 자제분들도 바다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간척지가 잔뜩 들어선 뒤 마을의 환경이 크게 변화했는데, 견딜 수 없는 것은 날파리가 엄청나게 늘어 살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는 점이다. 예전에 갯물이 앞에 있을 때는 전혀 없



는 일이 벌어지는데, 한 여름에는 밖을 나서기가 무서울 정도라고 한다. 갯벌이 없어진 뒤 간척지에서 생기는 환경변화로 이는 한번 짚어봐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김평강 어르신은 역간척이 되어 갯벌이 다시 생긴다면, 굽은 등을 펴고 뛰어나가 땀박질이 라도 할 수 있다 했다. 바깥어른이 만든 평생의 굴 양식장이 없어진 한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일지 모른다. 지금이라도 방조제를 열면, 갯벌이 생기고 해수욕장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 예상하고 있었다. 못 받은 보상은 기대도 안한다고 했다. 그저 풍요롭고 아름다웠던 바다와 갯벌을 다시 볼 수 있기를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셈이다.



# 논산시

## 논산지역의 문화예술인

논산전통 예술 발전의 길라잡이	322
경서를 연구하며 이룩한 서예의 대가	327
그림으로 빛나는 인생	332
논산 문화 발전의 견인차	337
논산 미술 발전의 선구자	342
종이로 꽃 피운 인생	347
서예에 인생을 걸다	351
삶의 소리를 품다	355
논산 문화 발전의 산증인	359
논산에 연극의 뿌리를 내리다	364
사진은 인내와 열정의 예술	368

●  
**논산  
 전통 예술 발전의  
 길라잡이**



**김 남 수** (1952년생)  
 논산시 화지동

김남수 이사장은 김해 김씨 삼현파로 1952년 6월 24일 논산 연무읍 봉동리에서 2남 3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태어났을 때 집안은 소가 세 마리 있을 정도로 부농이라 어린 시절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

아버지께서는 국악에 심취하신 분이셨다. 논두렁 광대라 하여 봄부터 가을까지는 농사를 짓고 추수가 끝나면 난장판에 가서 부채 들고 판소리도 하시고 사물놀이도 하셨다. 아버지께서는 오갑순 선생님께 국악을 배우셨다. 오갑순 선생님은 남원에 계시면서 판소리를 하시다가 목이 좋지 않아 가야금 병창을 하셨는데 팽과리도 잘 치는 명인이셨다. 아버지께서는 가을 추수가 끝나면 그분을 따라다니시다가 3월에 논 갈 때면 집으로 오셨다.

아버지께서는 북 치고 소리를 하시고 가야금 연주를 하셨지만 아들이 국악을 하는 것은 절대 반대하셨다. 그 당시는 ‘아버지는 저렇게 하시면서 왜 나는 못 하게 할까?’ 속으로 생

각했는데 지금은 이해하고 있다. 국악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힘들게 살았다. 속된 말로 배고프게 살았기 때문에 국악을 못 하게 했던 것 같다. 그래도 아버지 몰래 국악을 한 형이 서울시청 예술단 단장을 한 것을 보면 형제는 아버지의 재능을 물려받은 것 같다.

김 이사장은 12살 때 서울에 올라가서 30살 때 논산으로 내려왔다. 고향에 와서는 택시 운전도 하고 축산 설비도 하다가 IMF 때 사업을 접었다. 그 뒤 지금까지 국악만 했다. 돈도 벌지 못하고 어려운 시절이었다.

어릴 때 아버지께서 북 치고 소리하는 것을 봐 왔고, 초등학교 때 북 치고 팽과리와 장구를 친다고 아버지께 혼이 나면서도 놀았던 그 재주로 고향에 내려와서 서른한 살부터 본격적으로 국악에 빠져들었다. 1988년도 강경노동조합에 풍물패가 있었다. 북과 장구를 치는 기능인들 중에 논산에 사는 분이 계셨다. 강경노동조합이 해산하자 이분들이 논산으로 와서 논산농악단을 만들었다. 그 농악단이 논산에서는 최초의 예술 단체가 되었다. 지금 논산의 국악에 관계되는 모든 단체가 다 논산농악단에서 출발하였다.

김 이사장은 국악을 제대로 배우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용인 민속촌 출신인 김재범 선생에게 풍물을 배웠다. 그 뒤 김덕수 사물놀이패에서 제1기 전수생으로 풍물 실력을 다졌다. 민속촌에 계셨던 정인삼 선생님은 무용을 하신 분인데 선생으로부터 두레와 연출하는 법을 배웠다. 정인삼 선생은 충청남도가 대전과 분리될 때 금산, 청양, 부여, 공주 무형문화재 민속놀이를 모두 다 연출한 분이어서 모셔다가 연출 지도 및 논산의 민속놀이를 재현할 때 자문을 받기도 했다. 판소리는 전라북도 전주에 계시는 무형문화재 이순단 선생님에게 배웠고, 고법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주봉신 선생에게 배웠다. 또 서울의 진봉규 선생에게 춘향가 도막소리를 사사 받았고, 서울 문화재 송원주 선생에게도 고법을 배웠다.

1990년 나이 36살 때 참가한 제31회 민속경연대회에서 연산백중놀이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참가 인원이 130명으로 엄청난 인원이었다. 연산 백중놀이는 쌍룡기를 세우고 나가는데 다른 지역의 두레와 판이하게 차이가 나서 상을 받았고 충청남도문화제가 되었다. 그 해 김 이사장은 충청남도 도지사상을 받았고, 1993년에는 논산군수 표창을 받았다.

1996년 제1회 충남 민속예술제에서는 지와바리 놀이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그해는 충청남도가 생긴 지 100년 되는 해였다. 도 백년민속경연대회에 80명을 이끌고 오강리 지와바리 놀이로 출전했다. 직접 연출하고 출연한 공연으로 상을 받아 무척 뜻깊은 대회였다.

2001년에는 임성규 시장의 관심과 도움으로 경상북도 영주 민속경연대회에 출전해서 문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그러나 재현된 논산의 민속을 충청남도문화재로 만들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충청남도 문화재가 되지 못하면 논산시 문화재로 지정해서 전수자와 이수자를 만들어 민속놀이가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 민속놀이에 출연하시는 분이 연로해지면 놀이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걱정에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1996년에는 미국 멤피스 주 한인회 초청으로 미국 5개 주 순회공연을 하였다. 논산에 김미숙이라는 무용가가 있었는데 그분이 미국 멤피스 한인회와 교류를 하고 있어 크리스마스 때 공연을 하였다. 1998년부터 2년 동안은 멤피스 한인 학생들에게 사물놀이를 가르쳤다. 그리고 3년 동안 멤피스 한인회와 연결된 앨라배마 등 여러 곳에 순회공연을 다녔다.

상월면 대명리 두레도 독특한 민속놀이이다. 다른 지역과 대명리 두레는 달랐다. 두레 끝에 초상이 나서 상여를 매는데 이것이 대명리 방맹이 상여다. 이때 부르는 소리가 충청남도 어디에도 없는 소리다. 당시 류제협 문화원장이 발굴에 관심을 보여서 상월 고구마 축제 때 시연을 했다. 그러나 문화재로 발전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아 있다.

김 이사장은 고법 문화재 전수자라 2004년에 우리 소리 고법 보존회를 시작으로 계백장군 선양 전통예술보존회를 사단법인으로 창립하였다. 평소 백제 문화권 안에 있는 논산이 백제문화제에서 빠져 있어 안타깝다고 생각했다. 이 생각이 동기가 되어 계백장군 출정식만은 황산벌과 계백장군 유적지가 있는 논산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 황산벌 전투 재연을 격년제로 실시하게 되었다. 출정식 당시 계백장군 묘 앞에서 진혼제를 지내면서 계백 장군가를 직접 판소리로 지어 불렀다. 주봉신 선생님이 북을 쳐 주셨고, 춤은 김미숙 무용가가 추었다. 그 진혼제를 본 국회의원, 논산시장, 예총 회장의 관심으로 사단법인 계백장군선양전통예술보존회를 창립하였다.

2006년 제1회 계백장군선양 전국 국악 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2018년까지 13회를 개최했는데 2019년은 돼지열병으로 개최하지 못하고, 2020년도 3월에 개최하기로 준비했는데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전국 국악 경연대회는 논산시청에서 지원을 했고, 10회까지 자부담으로 1억 3,800만 원을 썼다. 상격으로는 종합 대상에는 국회의장상, 문광부

장관상을 주었고, 농악으로는 농림부 장관상, 고법으로는 통일부 장관상, 학생부에서는 교육부 장관상과 교육감상을 시상했다. 그리고 도지사, 시장, 국악협회 이사장, 예총 이사장상을 주어 대회의 격을 높였다. 참가 범위는 판소리를 비롯하여 무용, 기악, 농악, 고법으로 우리나라 국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김 이사장은 대명리 두렛소리 발굴 등 전통 민속 중에 예술적 가치 있는 작품을 많이 발굴했는데 그중에 1998년 3월 강경포구 용왕제도 있다. 이 용왕제는 당시 논산문화원 양인식 사무국장이 조선 후기 때 강경 용왕제가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못 하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채록하여 재현하였다. 강경 등대 꼭대기에 사는 임규설이라는 법사에게 용왕제 채록을 했다. 옥녀봉에 지금은 없어진 ‘옥봉사’라는 절이 있었다. 그 절의 주지 스님이 앞에서 목탁을 치고 뒤에 풍물패가 풍장을 치면서 집집마다 시주를 받아 재물을 준비하고 배에서 용왕제를 지냈다고 하는데 일종의 풍어제였다. 일제 때 말살되어 지금까지 못 하다가 김 이사장이 직접 재현했다.

무속의 의례에 따라 산신제를 먼저 지내고 그 다음 용왕제를 지냈다. 그래서 산신제를 준비하기 위해 옥녀봉에 올라가니 항일독립투사의 묘가 있는데 제사를 지내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 이듬해 독립투사의 묘지에 제를 지내고 나서 강경 포구 용왕제를 지냈다. 햇수로 8년간 진행되었는데 종교적인 문제로 지금은 못 하고 있는 상태다.

김 이사장은 “지금 논산에는 두레 붐이 일어났는데 논산의 국악 발전을 위해서는 두레를 함께 연구하고 공생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국악 발전을 위해 충분한 예산 지원 필요한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고 무대를 훌륭하게 만드는 방법도 알고 있지만 무대 울리기에 걸맞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것이다. 예산 지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악은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고 멋진 공연을 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더 좋은 무대를 위해 폭넓은 지원을 받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지원이 늘지 않아 국악 발전은 점점 하향길로 접어들고 있다.

김 이사장은 지금 학교에서 실시하는 국악 교육이 더 장려되어 국악의 맥을 이어 나갈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국악 교육을 강조했다. 어릴 때 할아버지 손잡고 시장터에서 구경한 신기하기만 했던 줄타기가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하다고 옛날 기억을 떠올렸다. 국악 교육도 영어 교육처럼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면서 매일 열심히 연

구하고 또 연습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대통령상 받기 전에는 전통예술보존회에 만들어진 상석에 앉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한다. “문화 선진국들은 문화재를 장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분명히 국악이 꽃 필 날이 찾아 올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끈기,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하니까 좀 더 노력하면 분명 우리 국악은 봄을 맞이할 것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  
경서를 연구하며  
이룩한  
서예의 대가



**윤두식** (1952년생)  
논산시 노성면 죽림리

노정 윤두식 선생은 1952년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죽림리에서 파평 윤씨 문정공파 후손으로 태어났다. 아버지께서는 6.25 전쟁에 참전하느라 6월에 제주도로 가서 그 후로는 소식이 없었다. 그래서 2월에 태어난 선생은 아버지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

홀로 되신 어머니께서는 증조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할아버지의 병수발을 오래 하셨다. 어머니는 힘들게 사시면서도 선생을 훌륭하게 키우셨다. 어머니께서는 선생을 품에 안아 본다든가 손을 잡아 본다든가 하지 않았다. 밥을 먹을 때 반찬 투정을 하면 손에서 피가 나도록 때리는 등 굉장히 엄하게 키우셨다. 그래서 선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머니를 정신적 지주로 생각했다. 선생이 18살 때 한학을 공부하신 증조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증조할아버지의 영향으로 한학 공부를 하면서 글씨 공부를 하였다.

어릴 때는 몸이 무척 약했다.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보다는 살아만 있으면 좋겠다할 정

도로 병약했다. 그래도 중학교는 대전에서 다녔는데 3학년 때 할아버지가 쓰러지는 바람에 ‘소종계 종손이라 이 집을 지켜야 한다.’고 해서 논산으로 내려와 논산농업고등학교에 다녔다. 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집안 살림을 꾸려 나갔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뽕나무를 심었고, 2학년 때는 닭을 2,000마리 키워 군납을 하였고, 3학년 때는 3만 평을 목장으로 만들어 소를 35마리나 키우고 누에도 쳤다. 그 당시 일꾼이 집안에 6명이나 있었다. 선생은 스물두 살 때 새마을 지도자가 되었는데 전국적으로 최연소 새마을 지도자였다.

노정 선생은 5살 때 증조할아버지께 천자문과 동몽선습을 배우고 서예 공부를 해서 항상 머릿속에는 동양사상이 있었다. 그리고 노성이 파평 윤씨 노종의 본거지이며 기호 유학의 중심지이니 그 학문의 맥을 이어야 한다는 생각했다. 그러나 집안이 어려워져 공부를 못하고 살림을 하다가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서울로 유학을 가 서예에 입문하였다.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다 내보내고 소도 팔고 농사를 그만 잡고 서울 인사동에 가서 글씨 공부를 시작했다. 평범한 사람들과 다르게 인생을 거꾸로 살았다. 공부한 다음에 일해야 하는데 일을 한 다음에 공부를 시작했다. 결혼도 어머니께 아내 될 사람 구해 오라고 해서 사진 한 장 보고 장인 될 분을 만나 허락받고 결혼하였다. 아내 될 사람 얼굴 한 번 보지 않고 결혼한 것이다. 아내는 종손집 맏이로 태어나 심성이 고와 선생이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생활을 해도 잘 견뎌주었다. 그 덕에 지금까지 서예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원래는 한문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한문 공부는 기반이 없었다. 그래서 서예로 국전에서 상을 받으면 서실을 열어 사서삼경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서예를 시작했다. 노성에서 소론집의 글씨로는 국전에서 상을 받기 어려워 서울로 가서 공부하기로 했다.

노정 선생은 낮에는 글씨 공부에 전념하기 어려워 새벽 3시에 일어나 7시까지 글씨 공부하는 생활을 평생 해왔다. 매일 1,500자를 쓰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서울에 올라갔을 때 당대 훌륭한 서예가로 일중 최충현 선생님이 계셨는데 연로하셔서 일중 선생님의 수제자를 찾았다. 그때 서예에서는 국무총리상이 최고상인데 그 상을 받은 조정 권창운 선생께 입문하였다. 또 일중 선생의 동생인 백아 김창현 선생을 만나 한문 공부를 했다. 가장 훌륭한 선생님들 아래서 열심히 연마하여 1983년 논산에 있으면서 국전에

입선했고, 10년 뒤인 1992년에는 국전 초대 작가가 되었다.

조정 선생과는 나이 차이가 11살 났는데 조정 선생께서 ‘윤행’이라 불러 듣기가 민망하여 호를 짓기로 했다. 마침 조정 선생이 백아 선생께 인사를 시켜주었는데 그때 호를 지어야겠다고 말씀드리며 새로 짓는 호는 멩텅구리라는 뜻이 들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백아 김창현 선생은 안동 김씨로 창문여고 교장을 하셨다. 병자호란 때 척화의 상징인 청음 김상헌 선생의 자손이었다. 선생이 팔송 윤행 선생의 후손인 것을 알고 반가워하시면서 ‘노성’의 ‘노’자가 멩텅구리, 둔하다는 의미이니 앞 자는 ‘노’자로 하고 조정 선생의 ‘정’자를 써서 ‘노정’이라 지어 주셨다.

당시 글씨 공부하는 사람들은 경서를 잘 몰랐는데 노정 선생은 사서삼경을 잘 알고 있어서 백아 선생의 사랑을 받았다. 백아 선생께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때 대학 서문을 외어야 하는데 서전 서문을 외우고 계시기에 “선생님 서전 서문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수업 끝나고 식사하러 가서 술잔을 주시면서 “자네 서전 서문을 어떻게 아나?” 하셔서 “얼어들어서 조금 압니다.”라고 대답했다.

백아 선생을 인사동 술집에 모셔서 밤늦도록 말씀을 들으며 공부를 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 강의로는 부족하여 다음 날도 전화 드려서 말씀을 들으며 열심히 하였다. 백아 선생, 청명 선생 같은 분들의 말씀은 오묘하고 깊이가 있어서 말씀을 듣기 위해 술을 사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다.

서체는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가 있는데 논산에 있을 때는 해서, 행서밖에 몰랐다. 서울 가서 조정 선생에게 배울 때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를 체계적으로 배웠다. 전서를 배우고 그다음 예서를 배우고 해서를 배우고 행·초서를 제일 나중에 배우는데 세상 사람들이 “노정은 예서를 좀 쓴다.”고 평가했다. 왜냐하면 예서로 국전 초대 작가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조정 선생은 노정 선생의 개인전에서 “노정은 금문이 괜찮아, 해서가 볼만 해.” 두 번째 전시회에서도 예서는 칭찬하지 않으셨다. 1997년도 세 번째 전시회가 끝난 뒤 조정 선생은 전서와 해서를, 세상 사람들은 예서를 좋다고 인정했으니 이제는 나머지 행서와 초서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초서를 잘 쓰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다가 2000년에 조정 선생과 심봉 선생이 예술의 전당에서 개인전을 했는데 그때 심봉 선생의 초서를 보고 개안이 되었다. 심봉 선생은 중국 작가로 그분의 작품을 보기 전 4년 동

안은 초서의 맥락을 잡지도 못하고 있다가 심봉 선생의 영향을 받아서 초서를 썼다.

노정 선생은 2009년 서울 예술의 전당을 전부 빌려 작품 전시회를 열었다. 그때 길이 8m 낙관의 크기만도 28cm, 25cm로 엄청나게 큰 작품을 전시해서 화제가 되었다. 예술의 전당 앞쪽의 높이가 8m이고 폭이 8m라서 거기에 맞춰 썼다. 4 작품은 모두 다른 서체로 초서, 전서, 예서, 해서 작품을 전시했다. 전시회 작품집에는 모두 250 작품으로 전시는 200 작품을 걸었다. 그때 작품을 보신 어머니께서 “맨날 술만 마시는 줄 알았더니 이런 작품을 했구나.” 하셔서 속으로 ‘내가 서예로 어머니께 효도 한 번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2019년에 노정 선생은 또 한 번 거대한 전시회를 열었다. 당시 언론은 ‘세계 최초 시경 전편을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 오체 작품 전시. 세계 최고 노정 윤두식 서예 대전 시경 무위재필취’라고 전시회를 알렸다. 장소는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 전관에서 열렸다. 시경 전편을 오체로 써 총 작품 수가 무려 1,130편이나 되는 대역작을 전시했는데 실제로는 시의 내용과 어우러지는 세부적인 특징을 살린 약 30~40여 가지 서체를 사용함으로써 세계 최초의 작품을 완성했다.

시경은 젊었을 때 읽었는데 모든 근본 원리를 알아야 하고 세상천지 운에 대한 이치를 알아야 시경을 이해할 수 있어서 읽기를 그만 두었다.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씩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삼경 중에 시경은 백아 선생께 가르침을 받아 글의 이치도 알고, 전부 시로 쓰여 있어 작품하기 용이한 점 때문에 작품으로 쓰게 되었다. 또한 중용 전체를 작품화하고 도덕경 또한 작품으로 완성하였다.

노정 선생은 학문에 뜻이 있어 1992년에 초대 작가가 되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노성에는 종학당도 있고, 팔송 고택, 노강서원, 명재고택 등 문화 유적이 10곳이나 있어 조상들이 남기신 업적을 알려 보자는 뜻을 품게 되었다. 조상님들은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셨는데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고 알려지지도 않은 것이 안타까워 학회를 만들어 알려야겠다는 뜻을 세우고 서울에서 여러분들은 만나 학회를 조성하자고 설득하였다. 그러나 10년 동안 종종 어른들이 반대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가 서울 마포에서 종종 어른 전체가 모여 종종과 학회를 분리 운영하기로 정하였다. 이에 종종에서 백록학회를 분리하여 출범하였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2005년에 제1회 백록학회 학술발표회를 개최하였다. 백록학회는 옛

조상을 숭배하며 화목을 돈독하게 하는 송조돈목의 정신과 학문을 계승 발전시키고 인재를 양성하는 정신으로 운영하였다. 윤기중 씨가 초대 학회장으로 취임하셔서 3회까지 맡아 운영해 주셨다. 지금은 충남대학교와 협력하여 ‘종학당의 맥을 잇자’는 생각으로 사단법인 백록학회를 운영하고 있다.

백록학회는 유교 정신을 바탕으로 포은 정몽주 선생이나 정암 조광조 선생 같은 분들이 나라가 잘못되면 상소를 올려 바로 잡으려고 했던 것처럼 현재 잘못되어가는 것들을 바로 잡는 것이 목표이다. 잘못된 예절과 교육, 서양 학구제도 속에 잃어버리는 우리 것들을 정치계나 언론계에 알려 옳은 길로 인도하는 활동을 주로 하였다.

2019년에는 종학당 아래에 가칭 충청유교 문화원이 착공되었다. 이를 기념하여 백록학회 제10회 학술발표회를 ‘충청유교 발전모색 학술세미나’라는 주제로 충남도서관에서 성황리 개최하였다. 노정 선생은 백록학회를 이 사회에 공헌하는 학회로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법인의 이사장을 맡아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나라에서 가장 귀한 선비를 이사장으로 모셔서 학회를 더욱 발전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일찌감치 아버지와 사별한 어머니께서는 청상의 몸으로 시조부와 시부모를 모시면서 힘들게 사셨다. 그러면서도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 헌신하신 어머니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고 있다. 노정 선생은 글씨로 효도했을 때 기뻐하셨던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묵향이 가득한 서실에서 후학을 가르치며 생활하고 있다.

●  
그림으로  
빛나는  
인생



**박춘화** (1947년생)  
논산시 반월동

논산 미술을 이야기하려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박춘화 화백이다. 그는 논산에서 잔뼈가 굵었고, 논산에서 계속하여 작품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학원과 화실 운영으로 논산의 미술학도를 교육하였고 미술 인구의 확대에도 큰 공헌을 하였다.

#### 소년 박춘화의 삶

화가 박춘화는 1947년에 논산시 반월동 98번지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본래 부여군 충화면에 살았는데 논산으로 이사하였다. 어렸을 적에는 대개의 서민들이 그랬듯이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 논산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공주 논산의 고등공민학교를 졸업하였다. 이후 17세의 어린 나이에 서울로 올라가 서라벌고등학교 2부(야간)에 입학하였다. 낮에는 직장에 다니고 밤에는 학교에 나가서 공부하였다. 어린 나이에 학비를 벌기 위하여 안

해 본 일이 없었다. 한때는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공장을 다니기도 했다. 참으로 어려운 나날의 연속이었다.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1969년에 육군에 입대하여 1972년에 제대하였다. 제대 후에 다시 서울로 가고자 하였으나 하나뿐인 형님이 보증을 잘못 서서 파산하게 되어 그 화병으로 사망하였다. 갑자기 2대 독자가 되었다. 노부모님은 일가친척도 없고 생활도 어려운 형편이라 서울로 갈 수 없었다. 서울에서 이루려던 꿈은 좌절되고 말았다.

### 그림 공부에 전념하다

그는 논산에 머물면서 그림 공부에 전념하였다. 그의 그림에 대한 재능은 초등학교 시절에 두각을 나타냈다. 그의 미술로의 입문은 매우 우연이었다. 6학년 때, 교실에 붙여진 현충일 포스터를 본 학교의 미술 담당 선생님은 박춘화의 재능을 한눈에 알아봤다. 미술 선생님은 박춘화에게 그림을 그릴 것을 권했다. 일본에서 그림 공부를 한 오인성 선생님의 지도로 일주일간 그림 연습을 하고 도대회 참가자 선발을 위한 논산군 예선에 참가하여 특선을 한 것이다. 그래서 미술에 발을 디딘 박춘화는 고등공민학교 시절에도 도대회에 나가서 금상을 수상하였다.

그렇게 미술에 재능을 인정받고 나니 그림에 대해 열정이 생겼다. 그 뒤로 계속하여 그림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서울에서 어렵게 생활할 때에도 그림에 대한 열의는 식지 않았다. 당시는 유화 물감을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여 모두가 수입품이었기 때문에 값이 무척이나 비쌌다. 그래서 유화 물감을 구할 수 없어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곤 했다. 친구의 소개로 극장에서 영화 간판 그리는 일을 하기도 했는데, 그 일이란 것이 부분적으로 색칠을 하는 보조였다. 자신의 독자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일이라서 이내 사직하고, 제트기건전지 회사(후에 로켓건전지와 합병) 디자인실에서 보조로 일하기도 했다.

논산에 살면서 차트 쓰는 일을 했다. 군대에서 차트를 쓴 경력이 있어서 실력을 인정받아 일거리가 많았다. 그 사이에 한국도자기 등 여러 기관에서 일할 기회가 있었지만, 자신의 그림을 그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포기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무엇보다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결혼도 하지 않으려 했다. 결혼하여 여유가 없는 생활을 하느니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실컷 그림이나 그리는 것이 행

복할 것만 같아 미루고 미루다가 서른여섯에 늦은 결혼을 했다. 아내는 그의 그림에 대한 열정을 깊이 이해하고 어려운 살림을 하면서도 내조를 잘 하였다.

### 놀이미술회를 창립하다

차트로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그림에 대한 열의는 전혀 식지 않아 그림 그리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다른 지역에서는 미술 활동이 활발하였는데, 논산에서는 활동이 없었다. 논산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들었다. 그래서 논산공고에 근무하던 김치중 선생(후에 배재대 교수)를 비롯하여 6명이 모여 1972년에 놀이미술회를 결성하였다. 주요 멤버는 박춘화, 김치중, 김영기(대전 제일화방 경영), 김갑기(목원대 교수 역임) 등이었다.

박춘화 화백은 정규 미대를 졸업하지 않아서, 학력을 중시하던 당시 풍토에서 어려움도 많았다. 학연이 중요하게 작용하던 때라서 충남미술대전에 출품하면 으레 입선이었다. 그래서 실력으로 인정받으려고 서울 목우회전과 대한민국 미술대전에도 출품하였다. 목우회전에서 여러 차례 입선을 하고 1983년에는 특선으로 수상하였다. 특선작은 프랑스 르사롱전에 출품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출품에 필요한 경비를 도둑맞아 기회를 놓쳐서 안타깝다고 한다. 그해 우리나라에서 출품한 작품들이 대거 수상하였으므로 출품했으면 수상했을 것이다.

### 산성을 그리다 이끼로 전환

박춘화 화백은 처음에는 풍경을 주로 그렸다. 그러나 단순한 풍경화로는 공모전에서 입상을 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착안한 것이 산성이었다. 우리나라는 전쟁도 많이 겪었고, 여러 지역에 산성이 있으므로 산성을 좋은 소재로 생각하였다. 전국에 있는 산성을 모조리 답사하였다. 승용차가 없던 시절이라 버스 타고 그 지역에 가서 다시 산성까지 걸어서 올라가야 했다. 높은 산에 있는 산성까지 걸어 올라가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었지만 보은 삼년산성에는 여섯 번이나 올라갔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 1985년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산성을 그린 100호짜리 그림으로 입선을 하였다. 이어서 1986년에는 충청남도미술대전(충남 대전 통합)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문화공보부장관상을 받는 쾌거를 이룩한다. 학벌과 학연이 중요하게 작용하던 당시에 정규



미대를 다니지 않아 학연도 없는 그가 대상을 수상한 것은 오로지 그의 실력 덕분이었다.

도전에서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공모전은 끝이 났다. 여기서 그는 진정한 자기 세계를 탐구하게 되었고, 성벽에 많은 이끼를 그리기로 한다. 이끼를 처음 그리기 시작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 놀이미술회를 주도하다

박춘화 화백 하면 놀이미술학원, 놀이미술회를 떠올리게 된다. 그는 그렇게 오래 미술학원을 운영하여 논산 미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물론 생계를 위한 일이었다고는 하나 그가 지도한 많은 미술학도들이 화가가 되고 미술교사가 되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박춘화 화백은 논산의 미술 인구 저변 확대에 지대한 공로가 있다.

그는 처음으로 화실을 연 것은 1978년쯤 연무읍에서였다. 여기서 삼 년 뒤에 논산으로 이전하였다. 지금도 화실을 열고 있으니 40년 세월이다. 그동안 논산에서 여덟 군데를 옮겨 다니면서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그림을 지도하였다. 박춘화 화백이 운영하는 화실은 놀이미술회의 본거지였다. 놀이미술회가 48년을 지나는 동안 박춘화 화백이 거의 회장을 맡다시피 했다. 그리고 그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전시회를 연열했는데, 이러한 예는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 논산미협외 창립

1980년대에 충남에는 미술협회가 공주에만 있었다. 공주에 있는 대학의 교수들이 주축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논산과 부여의 화가들도 공주미협에 속해 있었다. 그러다가 부여미협이 발족하였다. 미협지부를 창립하려면 15명 이상의 회원이 있어야 하는데 논산과 부여를 합해야 했다. 논산보다는 부여에 사는 회원들이 많아서 논산의 화가들도 부여미협의 회원이 되었다. 논산에 사는 회원은 박춘화, 이병문, 오종근, 신현태, 김익규였다. 부여미협의 회장은 부여의 조각가 정찬국, 부회장은 박춘화였다.

이듬해에 논산에 논산미협이 탄생하면서 부여미협에서 활동하던 화가들이 논산미협에 합류하였다.

## 그림으로 빛나는 일생

박춘화 화백의 1회 개인전은 1979년 논산문화원에서였다. 당시 논산문화원은 논사읍사무소에 있었는데, 창문을 다 막고 각목 위에 작품을 걸었다. 도록은 고사하고 팸플릿도 흑백으로 만들었다. 이후에 대흥다방, 대림다실, 남궁다방, 천호다방 등에서 여섯 차례의 개인전을 열었다. 개인전이 열려도 그림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은 드물고 다방에 차 마시러 왔다가 그림을 보고 갔다.

그러다가 논산에는 적당한 전시 공간이 없어서 대전문화원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그 뒤에 주로 논산과 대전, 서울에서 19회의 전시회를 열었다. 위에서 말한 논산의 다방에서 가진 전시회는 제외한 횟수이다. 그리고 경향 각지의 단체전에도 출품하였고, 여러 차례 초대전에 작품을 전시하였다.

지금은 충남미술대전 초대작가, 대전광역시미술대전 초대작가, 충청미술전람회 초대작가로 활동 중이며, 여러 곳에서 미술 지도를 하고 있다.

박춘화 화백의 일생은 오로지 그림과 함께하였다. 그의 인생에서 그림을 그리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고, 그래서 그의 인생은 빛난다. 지금도 그는 많은 꿈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작품으로 그의 인생에 빛을 더할지 지켜볼 일이다.

●  
논산  
문학 발전의  
견인차



**권선옥** (1952년생)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권선옥 논산문화원장은 산 좋고 물 좋은 논산 연무읍 소룡리에서 4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대학 공부를 위해 대전에 유학 간 것을 제외하고는 논산을 떠난 적이 없다. 안동 권씨로 조선 후기 문신이며 학자인 탄옹 권시 선생의 후손이다. 아버지께서는 대를 이어 농사를 지으며 사셨는데 학식은 많지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정도로 남을 도와주길 좋아하셨다. 아버지의 인격은 권 원장의 정신적인 성장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어머니께서는 권 원장의 문학적 소양에 큰 영향을 미쳤다. 문학에 관심이 많으신 어머니께서는 낮에는 집안일을 하시고 저녁이나 농한기인 겨울에는 이야기책을 많이 읽으셨다. 권 원장은 어머니 무릎을 베고 누워 어머니께서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같은 이야기라도 문학적 수사를 사용하시며 재미있게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 자연스럽게 문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이미 한글을 다 알고 있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똑똑하다는 칭찬을 많이 들었다. 중학교 때부터 강경으로 학교에 다녔고 고등학교는 강경상업고등학교로 진학했다. 권 원장은 상업학교에 가기 싫었지만, 그곳에서 시를 쓰게 된 동기가 되는 김영배 선생님을 만났다. 당시 강경상고에는 김영배 선생님을 비롯하여 많은 선생님이 학교의 분위기를 문학적으로 만들었고 학교 교지도 발행했다. 학교에 다니면서 친구들과 어울려 문학 서클을 만들어 활동했다. 2학년 때 학교 교지에 실린 학교 선배인 박용래 시인의 시를 읽으면서 ‘나도 시인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그때 처음 시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꾸었다.

김영배 선생님은 3학년 때 국어를 가르치셨는데 개교 50주년 행사에서 권 원장에게 기념 축시를 쓰라고 하셨다. 김 선생님도 강경상고 출신이라 본인이 글을 써도 되는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권 원장에게 맡기셨다. ‘시를 잘 쓴다’라는 말은 들었지만 생각지도 못한 큰일이었다. 그 후 『현대문학』이란 문학 전문지를 읽으면서 문학적 소양을 키워나갔다.

권 원장은 25살의 이른 나이에 문단에 등단하였다. 시보다는 수필가가 되고 싶어서 작고하신 박영구 선생님께 편지로 수필 작품을 보내기도 했었다. 그러다가 나태주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선생님이 “무슨 수필을 쓰느냐, 시를 써라.”하고 권유해서 시를 쓰게 되었다. 그 당시 편지의 왕래가 3일 정도 걸렸는데 시를 써서 편지를 보내면 정성껏 고쳐 쓴 답장이 오고, 그 답장이 오기 전에 또 다른 시를 써 보내서 나태주 선생님과 많은 편지를 주고받았다. 그 후 나태주 선생님의 도움으로 현대시학 전봉건 선생님의 추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사회에 첫발을 디딘 때라 사회생활이 너무 재미있어서 시 쓰기를 등한시했다. 그때 나태주 선생님이 “권형, 시 좀 써. 추천받아야지, 완료 추천받아야지.”라고 해서 시를 열심히 써 현대시학사에 보내 추천을 완료했다. 나태주 선생님의 도움이 매우 컸다.

추천받은 후 전봉건 선생님께 3년 동안 인사를 드리지 못하다가 찾아뵈었다. 대학원 다닐 때였다. 선생님께서 문학평론을 써 보라고 하시기에 『문학사상』이란 잡지에 박용래 시인이 쓴 아름다운 산문을 읽은 적이 있어 그런 글을 쓰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잡지에 수필 란을 만들어 주셔서 1년 동안 연재했고, 그 후 3년 동안 시를 연재했는데 그 시가 바로 ‘떠도는 김시습’이었다. 문학적으로 호사를 누리던 때였다.

1976년 등단하여 1985년에 첫 시집을 냈다. 추천받고 첫 시집을 낼 때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 사실 시를 열심히 쓰지도 않았지만 시집을 낸다는 것이 두려웠다. 그러나 나태주 선

생님이 ‘시집을 낸다는 것은 현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독촉을 하셨다. 이에 전봉건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출판사를 통해 첫 시집을 출간했다. 전봉건 선생님께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제대로 은혜를 갚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다. 첫 시집은 이렇게 두 선생님의 도움으로 발간할 수 있었다.

첫 시집의 제목은 ‘풀꽃사랑’이었지만 원래 쓰고 싶었던 제목은 ‘질경이꽃’이었다. 막 짓밟히면서도 곳곳하게 살아나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맺어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질경이꽃 같은 경향의 시를 썼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출판사에서 책이 잘 안 팔린다고 ‘풀꽃사랑’으로 바꾸자고 해서 출판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고쳤다. 초기 시는 시가 칼이 되어서 부조리한 사회를 개혁해 보고 싶었다. 문학잡지에 연재한 ‘떠도는 김시습’도 그런 경향의 시였다.

근래에 낸 시집은 ‘감옥의 자유’이다. 고향에서 인격 형성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부모님을 모시고 교사로 생활하다 보니 많은 절제가 필요했다. 젊어서는 이런 통제된 삶이 지켜왔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테두리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감옥이 지켜온 것 같지만 감옥은 나름대로 편안함이 있다는 생각으로 시집을 완성했다.

앞으로 쓰고 싶은 시는 사람들에게도 유용한 것이어야 한다고 그는 생각한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아파서 신음하는 사람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시를 써야 되겠다.’고 말한다. 우리 주변에 있는 따뜻한 사람의 이야기, 아름다운 인정 같은 시를 써서 시집을 낼 계획을 하고 있다.

1980년대 논산은 문학의 불모지였다. 권 원장은 지역 학교의 국어 교사를 하면서 논산에 문학 풍토를 조성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글을 쓰는 사람 모아 <놀이문학회>를 결성하였다. 1989년에 다방을 빌려서 시 낭송의 밤을 열었다. 현수막도 없이 캔트지에 색지를 오려 안내 포스터를 만들어 붙였는데도 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호응해 주었다. 그 후 놀이문학회는 ‘문학을 통하여 우리 삶을, 지역을 향기롭고 윤택하게’라는 슬로건을 내 걸고 활발하게 활동했다. 놀이백일장을 개최하였고, 독자와의 대화, 교양 강좌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당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사업을 잘하는 단체로 인정받아 지원을 받을 정도였다. 놀이백일장은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실시했는데 학생 600여 명이 참가하는 큰 행사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회원들의 작품을 모아 『놀이문학』이라는 동인지를 발간하였다. 당시 총

충남도에는 20여 개의 문학 동인회가 있었는데 놀피문학회는 아주 모범적인 하이클래스에 속하는 문학 단체였다.

1989년 대전이 직할시가 되면서 충청남도와 분리되었다. 분리된 충남문인협회 초대 회장에 스승이며 선배인 김영배 선생님을 추대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 당시 논산에는 공식적인 문인협회가 없었다. 논산이 시가 되기 전에 논산군청 전영기 예술과 계장이 논산에 예총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권 원장에게 말해 가장 먼저 문학인들이 관심을 보였다.

1991년 놀피문학회를 이끌어 오던 권 원장은 고향으로 근무지를 옮긴 김영배 선생님과 뜻을 모아 한국문인협회 논산지부에 착수했다. 논산 내의 청장년기의 문학 동인들을 모아 정식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논산지부 인준을 받았다. 시, 소설, 수필, 평론, 아동문학 등 5개 분야로 조직했으며 김영배 선생님이 회장, 권 원장이 부회장, 그리고 창립 인원은 30명이었다. 문인협회를 창립하면서 미술협회, 사진협회, 국악협회 등 4단체가 함께 창립되어 한국예총 논산지회가 탄생하였다.

김영배 선생님께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 가서서 권 원장이 회장 대행을 하다가 김영배 선생님의 임기가 끝나고 나서 회장을 맡았다. 놀피백일장은 놀피문학회에서 운영하다가 권 원장이 문인협회 회장이 되면서 문인협회에서 주관하게 되었다. 놀피백일장은 심사를 공정하게 하고 예산의 절대액을 학생들의 상품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정성을 많이 들여 발전시켜 지역에서 신뢰도도 매우 높았는데 회장에서 물러난 뒤 더 활성화되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권 원장은 논산문인협회장을 세 번 역임하면서 논산 문학 발전에 공헌하였다. 논산문인협회장을 하다가 충남문인협회장을 하느라고 논산문인협회장을 그만두었다. 충남문인협회장 임기가 끝나 다시 논산문인협회장을 하라고 해서 또 한 번 회장을 맡았는데 모르는 사람에게는 감투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오해받을 수도 있었다.

놀피문학회 주관으로 교양강좌를 할 때 포스터를 직접 들고 눈에 잘 띄는 양복점 같은 큰 유리에다 붙이려고 가게마다 사정하여 포스터를 붙이며 다녔다. 그때 함께 다니던 김진성 회원은 저녁에 커피를 홀릴 정도로 열심히 활동했던 것들이 모두 행복한 추억이 되었다. 그러나 상복은 없어서 논산 시민대상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충청남도 문화상 문학부에서 수상하였다. 그때 두 명의 후보가 추천되었는데 다른 한 명은 작품이 교과서에 실릴 정

도로 아주 유명한 소설가였다. 그러나 충남 문학 발전에 공헌도가 권 원장보다 낮다는 평가로 권 원장이 수상했다.

논산문화원장으로 활동한 2년 동안 많은 사람이 도와주어 참 즐겁게 일했다. 문화원장이라고 논산문화를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문화란 한 개인이 이끌어 갈 수 없고 또 이끌어 나가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지역의 문화는 시민 모두 문화원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지역의 문화가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활동했다. 문화원장직을 수행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남들보다 한발 앞서 움직였다.

권 원장은 “능력이 많았으면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겸손하게 말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일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직책을 성취하는 데 목표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적으로 낮은 직책이라 할지라도 맡은 일을 훌륭하게 처리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끊임없는 변화를 강조했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아버지와 문학의 소양을 키워 준 어머니, 그리고 공무원이었던 아내와 사랑으로 맺어진 결혼. 1남 3녀의 자녀를 두었고 자식 농사도 잘 지었다는 권 원장. 평균사에서 교감, 교장을 역임하였고, 건양대학교에서 연구교수로 초빙되어 문예창작과 학생들에게 현대시에 대해서 수준 높은 강의도 하였다. 가르치는 것을 천직으로 생각하면서 교직생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존경을 많이 받았다. 논산문화원장이라는 바쁜 자리에 있으면서도 책 읽고, 시 쓰고, 텃밭 가꾸기를 좋은 취미로 생각하며 재미나게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  
논산  
미술 발전의  
선구자



**김 회 직** (1944년생)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

김회직 선생님은 논산군 구자곡면(현 논산시 연무읍)에서 태어났다. 성격이 매우 올곧으셨던 부모님은 매화산과 대둔산이 멀리 바라보이는 진등마을에서 농사를 지으시며 살았다. “다른 사람과 송사에 휘둘리지 마라, 이웃과 화목하며 살아라.”고 어릴 때부터 가르침을 주신 부모님의 말씀을 지금도 가훈으로 여기며 살고 있다.

김 선생님은 함창 김씨 31세손으로 증조할아버지가 의금부도사를 지내신 가문이었다. 3남 5녀 중 형님 한 분과 누님이 다섯 분, 그리고 남동생이 하나인 대가족에서 우애 있게 자랐다. 초등학교 1학년 때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 중 장티푸스에 걸려 어린 시절을 힘들게 보냈다. 전쟁이 끝난 후 3학년으로 학교를 다시 다녔으며 강경중학교와 강경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은 서울로 유학을 갔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미술실에 걸려 있는 그림을 보고 ‘저 정도



면 나도 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뒤부터였다. 그림에 흥미가 있어 미술실을 드나들며 석고상 데생을 시작으로 자연스럽게 그림 속에 빠져들었다. 그 당시 논산에는 그림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어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께 그림지도를 받는 것이 전부였다. 미술실에는 석고상이 하나밖에 없었다. 달랑 하나뿐인 ‘아그리파’ 석고상을 그리고 또 그릴 수밖에 없었다. 3학년 때 전국 고등학교 포스터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조각실기대회에서 입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학입학은 실패했다. 석고상 ‘아그리파’만을 그렸는데 대학입학 실기시험에는 난생 처음 보는 ‘비너스’가 출제되었으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 해, 서울로 짐을 싸 들고 와 미술학원에 다니면서 여러 석고상을 열심히 그린 끝에 대학시험에 합격하고 본격적으로 미술 수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시골학생이 서울로 유학 간다는 것이 그 당시로서는 매우 드문 일이었다. 대학 2학년이 될 때까지 미술대학에 다닌다는 사실을 숨겼지만 결국 아버지가 아시고는 ‘환쟁이가 돼서 뭐 하려느냐?’며 혼을 많이 내셨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힘들게 농사지어 올려 보내주신 돈으로 4년간의 대학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다.

1960년대 미술 교육은 주로 서구식 인상주의와 기존의 조형 질서가 절대적으로 강조되던 시절이었다. 당시 원로 미술인으로 추앙받던 박영선, 장리석 선생님을 비롯하여 최영림, 윤중식, 박항섭, 박창돈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았다. 풍경화보다는 인물화, 그것도 여인좌상이 중심이었다. 4학년 때 국전(대한민국 미술전람회)에 입선했다. 입영영장이 나왔으나 군대 가기 전에 뭔가를 이루어놓겠다는 생각으로 입영을 연기했다. 그리고 그해 ‘신인예술상전, 목우회전, 국전’ 등에 입·특선을 하고 나서 군에 입대하였다.

군 생활을 마친 후 중등교사 채용시험을 거쳐 강원도 춘천에서 교직에 들어서고, 결혼하여 한 가정을 꾸렸을 때가 29세였다. 중 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작품제작에 집중하기란 여러 여건상 쉽지 않은 일이다. 20여년을 학교 근무에만 충실하다가 서울올림픽이 있던 1988년에 이르러서야 논산 지역의 미술협회 회장으로 추대되면서 다시 붓을 들었다. 단체를 이끌어 나가는 책임의식 때문에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다.

김 선생님은 학교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동안 3남매 모두를 서울 소재 대학에 유학 보냈다. 결혼까지 시켜 안정된 가정을 꾸리게 한 다음 60세의 나이에 정년퇴임을 2년 앞두고 명예퇴임을 하였다. 퇴직하여 시간적 여유가 생기자 창작 열기에 불이 붙었다. 거주지를 서

올로 옮겨 화랑가를 찾아다니며 작품을 감상하였다. 기존의 인상주의적 화풍뿐만 아니라 새로운 조형 언어에 심취한 작품에 이르기까지 감상의 폭을 넓혔다. 작가의 개성과 집중력이 유감없이 드러나는 작품들을 많이 보았다. 또한 어떤 특정한 양식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제작태도와 표현기법이 자유롭고 무한하다는 것을 배웠다. 그 후 6회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조형전, 프랑스 국제 미술제 같은 국내외 초대전에 40여회 가까이 작품을 출품하였다.

논산지역이 다른 시군에 비해 미술에 대한 관심도가 부족한 편이었다. 한국 미술협회에 가입하기 위해 창립 5인 추진위원회(강성렬, 김희직, 송신호, 이병문, 황선모)를 구성하였으나 협회가입 정족수를 채우기가 매우 힘들었다. 중고등학교 미술선생님과 미술에 관심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 그리고 지역인사와 사진, 서예하시는 분들을 어렵게 모셔왔다. 다행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1988년에 논산미술협회가 탄생하였다.

그해 논산미협 창립전을 반월동에 있는 태림상가에서 열었다. 당시 태림상가는 완공이 덜된 상태로 2층이 비어 있었다. 회원들이 사무실에 찾아가서 논산미술의 현실을 이해시켜가며 협조를 요청해 창립전 승낙을 받았지만 완공되지 않은 건물이라 전시회 여건이 매우 열악했다.

논산에서 처음 여는 미술 전시회여서 그런지 예상보다 많은 관람자가 찾아주어 그간의 수고를 다 보상받는 것 같았다. 공주, 부여, 대전 등지로 곁방살이를 하다가 논산에 미술협회가 창립되고, 창립 전시회를 열기까지 어렵고 복잡했던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지금도 가끔씩 꿈속에서 그때를 보게 된다. 건양대학교가 개교하자마자 건양대학교 미술과 교수님을 찾아가 논산미협에 가입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교수님들 덕분에 다른 지역 학교로 전근 간 교사회원들의 빈자리를 채울 수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작품수준 향상은 물론 작품의 다양성까지도 확보할 수 있어 논산미협으로서는 큰 영광이었다.

회원전이 2회, 3회 거듭되면서 논산 학생들의 미술 교육을 위해 미술실기대회를 열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의기투합된 회원들이 모여 공문을 보내는가 하면 학교를 방문해 설득도 하고, 또 담당 선생님 덕으로 직접 찾아가 미술 실기대회 개최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그런 물질작업이 있고 나서야 미술실기대회가 열릴 수 있었다.

김 선생님은 논산미협을 탄생시킨 창립 회원이며, 초대 회장이었다는 어떤 의무감 때문에

라도 그림그릴 수 있는 날까지 회원전에 출품할 것이라는 다짐을 했다. 또한 회장을 연임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며 화합에 힘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협회에 조금씩 문제가 발생하였다. 분위기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자 초심으로 돌아가 열정을 갖고 맡아보라는 주변의 권유와 여러 회원의 추천으로 4대 회장을 다시 맡게 되었다. 회장으로 선출된 뒤 회원들을 찾아다니며 설득도 하고 젊은 회원의 참여를 권유하기도 하는 등 발로 뛰면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갔다.

퇴직하고 서울에서 10여년을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논산의 ‘청년작가초대전’을 보게 된다. 미술을 전공한 기본기 탄탄한 청년작가들의 작품을 보고 감회가 깊었다. 논산 미술의 발전이 놀라웠음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모두가 논산미술협회 창립이 뿌린 씨앗의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다.

40여년 넘게 그림을 그려온 김 선생님은 변화의 천재였던 파블로 피카소를 가장 존경했다. ‘창작은 곧 변화’라고 믿었기 때문이란단다. 그렇게 생각한 때문인지 변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인상주의 기법으로 표현되는 인상적 이미지에서 서정적 이미지로, 구조적 이미지와 추상적 이미지까지를 넘나들며 그림을 그려왔다. 선생님은 ‘습윤유채’ 기법을 연구하기도 했다. 수채화에서 느낄 수 있는 경쾌함이나 촉촉한 윤기를 유화로 표현해보려는 일종의 실험이라고 할 수 있겠다.

김 선생님은 수필가로 활동하면서 <목요일에 만나는 사람>이라는 수필집도 발간하였다. 한때는 대학 강사로 출강하였으며 오랜 세월 고등학교에서 제자를 가르쳐서 그런지 자녀교육에도 남다른 열정을 갖고 있었다. 자녀 중에는 미술전공 대학원을 졸업하고 여러 차례 개인전을 열어가며 현역작가로 활동하는 딸도 있다.

김 선생님은 이 세상이 감성보다는 감각적인 면이 앞서는 것 같다고 지적한다. 글이나 그림, 영화 같은 문화예술도 그렇지만 정치적 발언이나 심지어는 사사로운 대화 중에도 감각적인 말투가 빈번히 오가는 것을 아쉬워했다. 스스로 수필을 쓰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쓴 글을 읽어 보면 그런 느낌을 자주 받게 된다고 하며 감각주의를 특히 경계했다. 젊은 사람일수록 감성을 중요시해야 정의롭고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이라며 후학을 사랑하는 애정 어린 충고도 빼놓지 않았다.

같은 학교에 근무했던 교장 선생님이 “김 작가는 복도 많아서. 하고 싶은 걸 다 해가며 살

고 있으니.”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한다. 자녀들이 서울에서 잘 살고 있는데다 손자손녀들 또한 명문대학에 다니고 있어서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모양이다.

논산에서도 개인전을 갖기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으나 코로나19 때문에 지금은 연기한 상태란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끝나게 되면 이곳에서 작품전을 꼭 열고 싶다고 했다. 비록 넓은 화실공간은 아닐지라도 작품이 빼곡하게 걸려 있는 작업실에서 언제든지 붓을 들 수 있게 준비된 선생님만의 작업공간이 아담하고 깨끗해보였다.

아직은 우리 부부 모두 건강해서 꽃도 심고, 텃밭을 가꾸며 시골생활을 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면 자식들 곁으로 다시 갈 것이란다. 그때까지는 그림 그리는 일도, 글 쓰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며 해마다 논산미술협회전에 작품을 꼬박 꼬박 출품하겠다는 김 선생님의 활짝 웃는 모습이 참으로 밝고 행복해 보였다. 그래서 그런지 마당을 온통 진녹색으로 물들인 잔디밭이며 잘 손질된 나무들도 덩달아 싱그럽고 풍요로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았다.

●  
종이로  
꽃 피운  
인생



**김현숙** (1958년생)  
논산시 광석면 이사리

한지부조공예 명인 김현숙은 열정적으로 살아왔다. 오늘날 그가 명인으로서 누리는 영광과 행복은 일찍이 예상된 것이었다. 마음에 열정을 품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미술적 재능을 발휘함**

김현숙 명인은 1958년 논산시 화지동에서 태어났다. 부창초등학교, 썸뿔여자중학교, 썸뿔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다. 2008년에 전주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한지문화산업학과를 졸업했다.

김 명인의 꿈은 화가인 미술 교사였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을 잘 그려서 학교 대표로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여러 차례 상을 받았다. 고등학교 시절에도 홍익대 등 여러 대학의

미술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실력을 인정받았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명인은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신학자가 되기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썬뜰여고의 장학생이었던 명인은 신학대학에 진학하고자 하였으나 학교에서 일반 계열로 원서를 써 주지 않고 예능 계열로 원서를 써 주는 바람에 신학대학 진학의 꿈은 좌절되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고교 시절 대학 미술대회에서의 수상을 경력으로 논산에서 <아동미술학원>을 열고 미술 교사가 되었다. 18년 동안 미술학원을 운영하였는데,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하여 8개월가량이나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을 당했다. 이에 미술학원을 계속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들었다. 미술학원을 인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학원 설립 취지를 생각하여 그냥 폐쇄하였다.

### 한지부조공예와 인연을 맺다

건강이 회복된 후에 김 명인은 여러 분야에서 사회활동을 하였다. 논산YWCA에 참여한 9년 동안의 활동이 두드러져 부회장을 거쳐 차기 회장에 선출되었다. 그런데 공무원인 남편이 사무관 승진 대상자가 되자, 구설이 붙을까봐 전격 사임하였다. 맡고 있던 썬뜰여자중고등학교 총동창회장에서도 물러났다. 남편의 성공을 위하여 모든 활동을 접고 조용히 내조하겠다는 결의를 보인 것이다.

아동미술학원을 운영하면서 각종 미술 관련 전시회에 참석하였고, 종이공예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96년에 논산YWCA 산하 논산인력개발센터에서 직종 설명회가 있었다. 여기서 한길순 선생의 한지부조 작품 「어우동」을 접하고, 회화와 결합한 한지 그림에 매력을 느껴 자신도 이런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 당시에는 미술학원을 운영하던 때라 시간에 매우 쪼들렸지만 5주간 대전에 다니면서 한지 부조 기술을 전수받았다. 나중에는 재료를 구입하여 독학으로 연습을 거듭하였다. 한지 부조 작품을 만들어 보니 아주 재미가 있었다. 새로운 세상을 만난 기분이었다. 밤낮으로 시간을 쪼개어 작품 제작에 매달렸다. 어찌나 재미가 있었는지 하루에 22시간을 작업한 날도 있을 정도였다.

## 실력을 인정받아 작품 제작에 전념

이렇게 작품 제작에 열중하여 2002년에 논산시 공예품 공모전에 처음으로 한지부조공예 액자를 출품하여 동상을 받았다. 그 이후로 충남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특선을 하는 등 여러 공모전에 출품하여 실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2004년에는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한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특선을 하기도 했다. 그로 하여 상당한 금액의 지원금을 받아 작품 창작에 전념할 수 있었다.

2004년은 김 명인에게 행운의 해였다. 충남공예품대전, 대한민국문화관광상품대전에서 연거푸 수상을 하여 10개의 상을 받았다. 2007년에는 헤럴드경제신문이 주최한 헤럴드전문문화예술대전에 출품하여 입상함으로써 명인의 작품이 전세계에 소개되기도 했다.

작품의 가치를 널리 인정받으면서 더욱 깊이 공부하여야겠다는 생각으로 원광대학교 전철 교수에게 사사했다. 그러던 중에 전주대학교에 한지문화산업학과가 생겨 1기로 입학하였다. 한지공예를 하려면 색채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필요할 것 같아 단청 문양에 대한 공부도 하였다.

## 명인에 선정

2003년에 강경절갈축제에서 대형 부스 2개에 전시를 하고, 2004년에는 미국 샌디에고에서 열린 문화예술초대전에 출품하였다. 그 후에 여러 초대전에 출품하다가 2007년에는 백제군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소지 개인전」이라는 명칭으로 약 한 달간 전시를 하였다.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각종 전시회에 참여하였다. 프랑스 파리의 국제박람회에서는 150여 개국에서 참여했는데 메인으로 전시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전시회를 가졌고, 노르웨이 대사관에 초청을 받아 전시회를 갖기도 했다.

이렇게 활발한 전시 활동을 통해서 김 명인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그 결과 2016년에는 종이문화재단에서 한지부조공예 명인 1호로 선정되었다. 명인 선정 기준은 매우 까다롭다. 그 분야에서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해야 하고, 다양한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수상, 강의, 전시, 사회봉사 등 여러 요건을 갖추어야 명인으로 선정될 수 있다. 김 명인이 명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제출한 서류가 210페이지에 달할 정도이다.

명인으로 선정된 후인 2017년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명인들이 모인 전시회에도 참

가하였다. 경기도 광주에 사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뒤를 이어 한지공예를 하고 있다. 2019년에는 며느리와 함께 「전통을 잇다」라는 제목으로 150여 점을 선보이는 전시회를 열었다. 부여 생활사박물관에서 나무와 삼베로 만든 꼭두를 보고 난 뒤에 한지공예야말로 우리의 고귀한 전통을 이어가는 작업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동안 24년간이나 작품을 제작하였기에 200점이 넘는 작품을 제작하였다. 그 많은 작품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은 전통 부엌에서 아궁이에 불을 때는 <어머니>라는 작품이라고 한다. 한지 고유의 서정적이고 은은한 느낌을 살려 어머니에 대한 추억과 정취를 표현한 한지 부조 작품이다. 지금까지 제작한 작품은 거의 판매하지 않고 명인의 집에 딸린 전시관에 전시하고 있다.

요즘도 명인은 새로운 작품 세계를 개척하기 위하여 실험하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그의 작품 세계는 무한히 넓어질 것이다. 김 명인이 보여줄 새로운 세계를 설렘으로 기다린다.



●  
서예에  
인생을 걸다



**윤 여 익** (1943년생)  
논산시 반월동

논산에서 여러 서예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서 서예 인구도 어느 지역 못지않게 많다. 그 여럿의 서예가 중에서 은천(恩泉) 윤여익(尹汝益) 선생의 글씨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서실이나 여러 강좌를 통해서 윤 선생은 후진 양성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 그래서 논산의 많은 서예가들 중에서 윤 선생의 존재는 유난히 두드러진다.

**한학자인 지주의 아들**

윤여익 선생은 1943년에 공주시 탄천면 덕지리에서 10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상당한 토지를 소유한 지주였고 한학자였다. 아버지의 가치관이 뚜렷하고,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시절까지 편안하게 살았다. 아버지는 평범하게 살라고 늘 강조하였다. 아버지가 글을 읽고 글씨를 쓰는 것을 보고 자라면서 글씨 쓰기를 익혔다. 탄천의 덕

지초등학교, 공주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려고 인문계 고등학교인 공주고등학교에 진학하였다. 공주에서 하숙을 하며 열심히 공부하던 2학년 때에 아버지가 버스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급격히 가세가 기울어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

윤 선생은 어려서부터 글씨를 잘 썼다. 아버지도 글씨를 잘 썼고, 할아버지도 그랬다고 한다.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서울로 올라간 윤 선생은 평소에 글씨를 잘 쓴다는 소리를 들었기에 강생회(홍익회 전신) 인쇄부에 취직하여 인쇄 원지를 굵고 프린트하는 일을 3년간 하였다.

육군에 입대하여 서울 한남동에 있는 1200건설공병단에서 사병계로 근무하였는데, 여기서도 인쇄 원지를 굵어 프린트하는 일을 많이 했다. 30개월의 군 생활을 마치고 1967년에 만기 제대하였다.

### 논산에 터를 잡다

제대하고 집에 돌아오니,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는 논산시 노성면 송당리에서 은거하고 있었다. 글씨를 잘 쓰는 윤 선생은 형님이 하던 프린트사에서 함께 일했다. 형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자 그 사업을 전적으로 인수하여 경영하게 되었다. 1975년 무렵의 일이었다. 당시는 평판인쇄라고도 하는 옅셋인쇄가 주류를 이루던 시절이어서 상장 등을 글씨를 써서 인쇄했다. 윤 선생이 글씨를 잘 썼기 때문에 다른 인쇄소에서도 윤 선생의 글씨를 필요로 했다. 그래서 인근에서 윤 선생의 글씨가 크게 각광받았다.

제대 후에 건강이 안 좋아서 요양을 하면서 금강대도라는 종교에 입문하였다. 거기서 만년 여성과 서른한 살에 늦은 결혼을 했다. 금강대도는 달걀이나 생선같이 비린내가 나는 음식은 먹지 않았다. 1남 3녀를 두었는데, 아이들에게도 음식을 골라 먹이니 건강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금강대도를 나와 40세에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

### 서예 지도의 길에 접어들다

윤 선생의 글씨를 눈여겨 보아온 사람들이 글씨를 잘 쓰니 사람들에게 천자문이라도 가르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했다. 그래서 1984년에 현재의 논산제일감리교회 아래로 이전하여 금강프린트사라는 인쇄소를 경영하면서 <제일서예>라는 서실을 열어 사람들에게 서예

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서실을 열고 글씨를 지도하자 윤 선생에게 글씨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당시 서실 면적이 10여 평 정도여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어 밖에서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했다. 어느 날은 30분을 기다리기도 할 정도로 윤 선생의 서실은 인기를 누렸다. 그러던 차에 농협논산지부 옆 시민약국 4층에 장소가 났다. 공간이 40평이나 되는 넓은 장소였다. 그리로 이전하면서 서실 이름을 오늘날의 은천서실로 바꾸었다. 이때에 은천서실은 절정기였다. 회원이 130여 명이 되어 여기서도 밖에서 한참을 기다려 입실하는 일도 있었다. 당시에 박갑순 선생이 서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집에서 하는 일이라서 회원은 그리 많지 않았다. 이 두 서실이 나란히 논산의 서예가들을 배출했다. 이 당시 은천서실을 거친 서예가로는 김철기, 논산시서예협회장을 맡아 봉사하는 박희성 회장, 유순진 등이 두드러진다.

은천서실의 은천(恩泉)은 윤 선생의 호이다. 하느님의 은혜가 샘물처럼 솟는다는 뜻이다. 건강이 안 좋아서 10여 년이나 민던 금강대도에 나가지 않고 있는데, 논산제일감리교회 신자 한 사람이 “나도 건강이 안 좋았는데 교회에 나가면서 건강이 좋아졌다. 일주일만 교회에 나와 보라.”고 권하였다. 때마침 가야곡에 있는 영암기도원에서 부흥회가 열리고 있어 참여했다.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하느님이 계시다면 무언가를 보여 주세요. 그러면 내가 교회에 다니겠습니다.’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요란한 소리가 들리더니 저 멀리서 예수의 형상이 보였다가 사라졌다. 그 일이 있던 후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여 40여 년이 된 현재는 논산제일감리교회 권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느님께 세 가지를 달라고 기도했다. 조그마한 집 한 채, 자신은 아이들을 기를 재간이 없으니 하느님이 맡아서 길러 주실 것, 그리고 국전 초대작가가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하느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고 했다.

논산에서 서예 지도를 한 사람은 박갑순 씨가 처음이다. 서실은 없이 집에서 가르쳤다. 그리고 윤여익 선생이 은천서실을 가장 먼저 열었고, 다음으로 유병선 씨가 남송서실(후에 송남서실로 개명)을, 그 뒤에 김재만 씨가 성보서실을 운영했다. 이렇게 네 곳에서 서예를 지도했는데, 회원이 가장 많은 곳은 은천서실이었다. 지금(2020년)은 윤 선생과 김재만 씨, 송기영 씨가 서실을 운영한다. 그 외에도 조경희, 정창기, 최경화 등에 의해서 여러 기관을 통해 서예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 안분지족의 삶

윤 선생은 국전 초대작가가 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윤 선생은 처음부터 정식으로 서예를 한 것이 아니라 상업적인 글씨를 써 왔기 때문에 예술적인 서예 공부도 필요했다. 그래서 대전의 서예가 박승배 선생의 문하에서 공부했다. 그리고 1990년 국전에서 처음으로 입선의 영예를 누릴 수 있었다. 그리고 1999년 마침내 국전 초대작가가 되었다.

1998년에 논산서예협회가 창립되었다. 참여한 서예가는 유병선, 박희성, 윤여익, 박갑순, 백동현, 황호준 씨 등 20여 명이었다. 회장은 유병선, 부회장은 윤여익이었다.

윤 선생의 글씨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논산에서 서예가로서 윤 선생만큼 호사를 누린 사람이 없다. 그렇게 서예가로서, 서예 강사로서 호사를 누린 이유는 글씨도 좋았지만 그보다도 온화한 성품에 매사 정성을 다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늘 안분지족하는 자세가 가까이에서 겪어본 사람들을 감동시킨다. 그렇게 서예에 정진하였음에도 행초서를 잘 쓰기가 어려워서 예서를 즐겨 쓴다는 데에서도 그의 겸손을 엿볼 수 있다.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윤 선생의 지론이다.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력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는 믿음, 글씨도 사는 것도 마찬가지란다.

윤 선생은 오랜 기간 동안 글씨를 썼고, 지금도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한다. 그야말로 하느님의 은혜로 생각한다고 한다. 평생을 서예에 정진한 윤여익 선생은 앞으로도 붓을 놓지 않고 글씨를 쓸 것이다. 지금까지도 많은 영광이 있었지만, 앞으로 그의 서예 인생에 더 큰 영광이 있을 것으로 본다.

●  
**삶의  
소리를 품다**

**박점자** (1954년생)  
 논산시 자산동

박점자는 전라도 함평군에서 태어났다. 대갓집 둘째 아들인 아버지는 공부보다 소리를 좋아했다. 이것을 용납하지 않는 할아버지를 피해서 함평군 화순에서 함평군 금정면 세류천으로 도망쳐서 살다가 박점자가 세 살 때 어머니가, 아홉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홉 살 된 그녀를 데리고 언니가 충청도로 시집갔다. 언니의 중매로 열아홉 살에 논산으로 출가했다.

결혼한 후에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게 됐다. 아픈 와중에 다행히 아들 삼 형제를 낳았다. 주변에서는 신이 와서 아프다고 여겼는데 상태가 심해져서 사람이 들고나는 것도 모를 정도가 되었다. 보다 못한 이웃 사람이 “이대로 놔두다가는 사람 죽겠다. 나랑 신원사 금룡암 스님한테 가보자. 무당이면 어쩌냐, 살아 있으면 되는 거지.”라며 설득해서 그곳에 데려갔다. 신원사에 올라갈 때는 양쪽의 부축을 받아서 간신히 갔다. 그녀는 문 앞에 쭈그려 앉았

고 스님은 당상에 앉아서 바라볼 뿐 말 한마디도 시키지 않았다. 그저 데리고 가라는 말뿐이었는데 내려올 때 그녀는 돌계단을 팔딱팔딱 뛰어 내려오게 됐다. 그녀도, 데려간 사람도 모두 놀랄 뿐이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장구나 한번 만져봤으면”하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왔다. 남편은 “장구 못 만져서 죽네, 사네 이 난리를 치냐? 만져, 가서!”라고 소리치더니 그다음 날부터 제일감리교회 옆에 있는 국악학원에 데려다주었다.

그 당시 이옥진 선생이 국악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구술자 나이 스물일곱이었다. 매일 남편이 데려다주고 집에 데려왔다. 삼 년 간 장구를 만지면서 놀다 보니 이불을 개켜 엮을 정도의 몸 상태가 되었다. 남편은 병이 다 나았다며 학원에 못 가게 했다. 그녀가 죽어도 하겠다고 우기자 남편이 장구를 때려 부수기까지 했다. 못 하면 죽을 것 같아서 나가려고 보따리를 싸는 것을 본 아들이 만류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했다. 아들이 강력하게 옹호한 덕분에 남편의 허락을 받을 수 있었다.

이옥진 선생한테서 소리와 장구를 배우면서 공연에 따라다녔다. 요즘은 거의 없지만 그때는 환갑잔치에서 소리꾼을 부르는 것이 다반사였다. 비록 소리를 들려줄 기회는 없었지만, 이옥진 선생을 따라 이곳저곳 많이 다녔다.

어느 해인가 용남중학교에 강의를 나가기로 했는데 이옥진 선생이 병으로 쓰러졌다. 이옥진 선생이 그녀에게 혼자라도 해보라고 권했고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이를 악물고 했다. 일 년간의 교육비는 이옥진 선생에게 돌아갔지만, 선생은 그녀에게 잘했다며 한복 한 벌을 해주었다. 이듬해부터 용남중학교 수업은 혼자 하게 됐다. 그러나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 많이 애먹었다. 나중에는 아이들이 다 그만두고 한 명만 남게 되었다. 춘향전을 하는데 춘향을 할 학생이 없어서 그녀가 춘향을 하고 남은 한 명이 이몽룡 역할을 했다. 그 학생을 악착같이 가르쳐 학예회에 올라갔다. 그녀가 춘향인 것을 몰라보고 두 학생을 잘 가리켰다며 모두가 무척 칭찬했다. 그 이후로 6년간 논산에 있는 가야곡초등학교, 동성초등학교, 부창초등학교 대천에 있는 초등학교 등에서 수업했다.

이옥진 선생은 쓰러진 후에 학원을 그녀에게 맡겼다. 그 당시 학원이 이 층에 있었는데 2 층은 장구 소리가 시끄럽게 울려서 그녀 이름으로 자리를 계약할 때 일 층으로 이전했다. 선경국악원이 일 층에 자리하게 된 이유이다.

이옥진 선생한테서 춘향가와 경기민요 등을 배웠고 심청전은 전주에 사는 주영숙 선생한테 배웠다.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에 40분 수업하는데 10분 정도 들려주고 연습해 오라고 했다. 기차로 오가면서 녹음을 들으면 혼란 소리에 설움이 북받쳐 울음이 터지곤 했다. 학원 운영하고, 딸기 농사를 다섯 동이나 짓고, 공부까지 하러 다니는 게 결코 쉽지 않았다. 그 바쁜 와중에도 봉사하러 다녔다. 아기 낳고 누웠을 때 지나가던 스님이 이대로는 단명하게 생겼으니 만인을 웃겨야 산다고 봉사하라고 했다. 썬뿔 요양원에서 일주일에 한 시간씩 14년간 봉사하고 있다. 학원생들로 구성된 선경국악예술단과 함께 갈 때도 있고 혼자 갈 때도 있다. 이외에 고향의 집과 중립원, 큰사랑의원에 가서 공연하고 있다.

노력의 결과는 결실을 보기 마련이다. 정음에서 열리는 전국국악대회에서 송성섭 선생은 그녀의 소리를 충청남도 같은 황무지에서 나온 기적이라고 평했다. 당연히 대상을 받아야 했지만, 진도아리랑을 부른 고령의 참가자에게 대상을 주기를 원했다. 초보자였던 그녀는 최우수상만으로도 만족해서 기꺼이 양보했다. 이후에도 많은 대회에서 심청가로 다수의 상을 받았다. 대회 때마다 심청가를 부르는 이유는 완창하기에는 길어서 각 대회에서 한 대목 정도를 하고 다음 대회에서 다음 대목을 부르기 때문이다.

전주에서 주영숙 선생한테 30년을 배웠는데, 주 선생이 병환이 걸려서 지금은 대구에서 주윤숙 선생한테 3년간 배우고 있다. 주윤숙 선생은 주영숙 선생의 동생이고 작년에 무형문화재가 됐다. 이렇게 거리가 먼 곳으로 배우러 다니는 이유는 그녀는 동초제로 소리를 내는데 서편제로 바꾸면 소리를 버리기 때문이다.

그녀가 제일 잘하는 분야는 춘향가와 남도민요 그리고 경기민요이다. 판소리와 남도 민요는 자연적으로 따라가는데 경기민요는 판소리를 하는 사람에게는 어렵다. 판소리는 소리를 짝 내리고 경기민요는 ‘얼씨구나! 절씨구나!’ 하는 높은 소리를 내야 한다. 그런데 충청도 지역은 경기민요를 선호하고 판소리는 알아주지 않는다. 이옥진 선생한테 경기민요를 하다가 판소리로 심청전을 몇 년 눌러서 부르니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대회 때마다 고무장갑에 팔팔 끓인 뜨거운 물을 넣고 묶어서 밤새 목에 대고 잤다. 그렇게 하면 아침에 짧게나마 목소리가 나오곤 했다. 삼 년 정도 이런 과정을 반복했는데, 어느 날 경기민요를 배우러 수강생이 왔다.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서 “사실은요, 내가 목이 좀 새갓고 지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오려나는 모르겠는데 차차 나올 테지만 지금 안 나오더라도 이해하세요.”라

는 말로 양해를 구했다. 조심스레 소리를 냈는데 높은음까지 올라갔다. 그 뒤로 경기민요도 다시 부를 수 있게 됐다.

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목청을 띄우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한다. 그녀는 목청을 띄우는 수행은 안 했지만, 한 가지 특이한 경험이 목소리를 띄게 했다고 믿는다. 지인의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에 간 김에 창경원에 다녀왔더니 다 가고 7명만 남아 있었다. 남은 돈으로는 대전밖에 갈 수 없어서 대전에서 내려 돈을 빌려 논산으로 오게 됐다. 멀미약도 못 사 먹은 채 내내 토하니까 대전에서 내렸을 때 누군가 밥을 물에 말아서 먹였다. 먹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게 명치에 딱 걸려서 아무리 토하려고 해도 안 나와서 몸부림만 쳤다. 누군가 등을 두드리니까 탁 터지면서 피와 함께 다른 것을 토해냈다. 집에 도착해서 시어머니가 끓여준 된장국을 먹고 아침에 일어났다. 그 이튿날 시누이가 데려온 아이를 동네 가게에다 데려다주면서 시누이가 사준 음료수를 마셨다. 그런데 그게 잘못됐는지 집에 오는 동안 몇 번이나 피를 콧물 쏟았다. 병원에서 폐에 염증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고 한 달간 치료를 받았다. 그 이듬해부터 아무 어려움 없이 소리를 하게 됐다. 그때는 꾀꼬리처럼 맑은소리였다. 그 소리를 판소리에 적합하게 만들려고 틈틈이 노력했다.

그녀는 선경국악예술단을 2013년에 창단했고 현재 단원은 열다섯 명 정도이다. 단원들은 다양한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선경국악원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또한 배우는 학생으로서 구술자는 열과 성을 다한다. 특히 배우는 것에는 끝이 없다면서 판소리 다섯 마당 중에서 현재 세 마당인 심청전, 춘향전, 흥부전을 하는데 적벽가, 수궁가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인터뷰 도중에 갑작스럽게 요청한 판소리 한 대목은 그녀가 겪은 삶의 무게를 초월한 소리였다.

그녀는 소리를 배우기 전에 가요밖에 몰랐다. 열세 살에 가요 콩쿠르에 나가 상을 받은 적도 있다. 아버지가 소리를 하셨지만, 그녀가 판소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었다. 아프게 되면서 하고 싶은 것을 하다 보니 종착점이 소리였다.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여기까지 온 것 같다고 그녀는 생각한다. 그녀는 다시 태어나도 소리를 할 거라고 말한다.



•  
논산  
문화 발전의  
산증인



**박응진** (1940년생)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박응진 원장은 공주에서 2남 1녀에 막내로 태어나 지금은 계룡시가 된 두마면에서 자랐다. 1940년생으로 올해 81세이다. 밀양 박씨로 아버지께서는 박 원장이 태어난 지 100일 되던 때 돌아가셨는데 당시 양조장을 하셨다. 어린 시절은 우리나라 격동기라서 많은 경험을 했다. 학교 들어가기 전에 8.15 광복을 맞이하였고, 초등학교 다닐 때 6.25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새재라는 곳으로 피난을 갔는데 인민군들이 저녁마다 시키는 공산주의 교육을 들어야만 했다. 당시는 잘 몰랐지만 공산주의의 허구성을 알게 된 후 한국반공연맹 논산지부장을 맡아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데 앞장을 섰다.

박 원장은 큰형과 함께 공부를 잘했다. 수재들만 다닌다는 명문 학교인 대전고등학교를 다녔다. 그러나 통학하기가 어려워 대전에서 입주 가정교사를 하면서 공부를 했다. 두마에서 대전까지 기차 통학을 할 때는 증기기관차가 양정고개를 넘지 못해 연착하면 3교시쯤

등교했지만 학교에서는 인정해 주었다.

대학은 서울에 있는 성균관대학교로 유학을 갔다. 대학교 때 4.19 혁명과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나 매우 어렵게 대학에 다녔다. 경제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보장된 수입이 있는 직업이 무엇가를 생각해서 안정된 직업을 얻을 수 있는 약학대학에 들어갔다.

대학을 졸업하고 3년 동안 제약회사에 다니다가 약국을 개업하고 결혼을 했다. 슬하에 1남 2녀를 두었다. 아들은 지금 박 원장의 사업을 이어받아 열심히 일하고 있고, 두 딸은 서울에서 거주하는데 모두 성공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

박 원장은 논산문화원장이 되면서 지금까지의 관행에 변화를 주려고 노력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축제의 변화였다. 축제는 민간주도형이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관주도형 축제를 열고 있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를 다니면서 보고 배워서 우리나라 축제에 변화를 주려고 노력했다. 그중 하나가 축제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의 축소나 폐지였다. 다른 나라는 축제에 개막식이 없었다. 팡파르로 개막을 알렸다. 우리나라는 개막식에서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등 여러 명이 축사를 하는데 축제와 관계없는 부분은 없앨 것을 강조하였다.

또 축제 평가의 방법을 바꿔 보고자 했다. 축제위원이 평가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없으니까 충청남도를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대학교수가 만들어 대학생들을 활용하면 공정한 평가 자료가 나올 거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실행하지 못했다.

문화원 사업을 시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운영을 하겠다는 생각도 했다. 그 당시 문화원은 마치 시의 하청업체처럼 시에서 해야 하는 일을 대신해 주는 데도 간섭은 무척 심했다. 그중에 하나가 『내 고장 소식지』였다. 논산문화원에서 발간하는 책자인데 정작 논산 문화에 대한 글은 별로 없고, 시청에서 하는 일만 알리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논산 소식지를 없애고, 2003년 『논산문화』라는 계간지를 발간했다.

논산은 젓갈축제, 딸기축제 등 농수산물 위주의 상업적인 축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논산은 향교와 사원이 많은 유교 문화의 중심지인데 상업도시, 군사도시로만 알려진 것이 안타까웠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논산에 오는 사람들에게 문화 유적 답사를 통하여 논산의 참모습을 알리려는 사업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다. 당시 사무국장이었던 류

제협 전 문화원장이 향토사에 관심이 많고 해설도 잘해서 문화 유적 답사 활동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문화 유적 답사를 유교·선비 축제 같은 문화 축제로 발전시키고 싶었지만 어려움이 많았다.

박 원장은 지방 향토 문화 수집에 비중을 두는 사업을 펼쳤다. ‘촌동네 노인이 한 분 돌아가시면 그 동네의 박물관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으로 논산 지역 향토사를 발굴하였고 좋은 자료를 수집하면 표창을 했다. 그리고 ‘내 고장 문화유적 답사’라는 지역 답사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에 많은 시민을 참가시켜 수준 높은 논산 문화의 정수를 널리 알렸다. 특히 『논산금석문대관』이라든지 『역주 논산지리지』와 같은 책자를 발간하여 논산 시민의 정서 함양과 정체성 확립에 큰 기여를 했다.

논산문화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논산 시낭송회를 개최한 것이었다. 다른 시군 문화원장들이 논산 시낭송회를 보고 “논산에서 제일 부러운 활동이 시낭송회다.”라고 말할 정도로 성공적인 활동이었다. 논산 시낭송회는 충청남도 내에서 손꼽히는 시낭송회이며 시낭송가도 많이 배출하여 전국 대회에 나가 상도 많이 받았다.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원이 잘 되는 문화원이라는 생각에 시민들을 위한 문화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2005년 박 원장은 한국문화원 연합회 충청남도 지회장에 선출되었다. 도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충청남도 지역 향토사 발굴이 그 지역의 문화를 일구는 것으로 생각해서 지역의 사람들이 직접 향토사를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리고 향토사 발굴 결과를 논문으로 쓰는 공모 사업을 벌였다. 또 2006년에는 충청남도 내에 문화예술인대회를 열어 문화예술 발전 공로자를 표창하고 문화 예술 대회를 개최하여 충남 문화 예술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역할을 했다. 2008년에는 「아이 러브 코리아 청소년 역사문화 대장정, 찬란한 백제 문화 탐방」이라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청소년이 미래의 주역이라는 생각으로 청소년을 올바르게 교육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펼쳐 나갔다.

박 원장은 도회장으로 있으면서 문화원 종사자 교육, 지방 문화원 운영 활성화 워크숍, 시낭송회 개최, 『충남 문화』 발간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러면서도 매년 해외 유명 축제는 꼭 참가하여 그 축제가 왜 유명한지 유명 축제의 특징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인 축제를 만들려고 8년 동안 줄기찬 의욕을 보이기도 했다.

박 원장은 충청남도 문화예술포럼이라는 단체의 회장으로 활동했다. 문화예술포럼은 문화와 예술인들이 모여서 충청남도 문화와 예술의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고, 운영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주로 했다. 초창기부터 500명이나 되는 큰 단체라 대의원들을 따로 뽑아 회의를 진행했다. 회원은 각 지역 문화원이나 예술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했고, 문화예술포럼 소식을 발간하여 회원들의 동정을 알려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예술포럼 활동은 문화원과 예술 단체가 결국은 같은 뿌리라 서로 만나서 소통하면서 상생 발전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활동 중에서 괄목할 만한 것은 바로 『충남문화지도』의 발간이었다. 이 지도는 충청남도 지역의 문화재와 기반시설, 축제 등을 총망라하고 있으며, 시군별로 상세한 문화지도를 수록했다. 560쪽 분량의 많은 자료를 충청남도 각 시군 도서관과 문화원에 배포하여 관광객과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충남문화지도』를 제작할 무렵 각 지역 문화원에 청년 인턴 사업으로 2~3명의 대학생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 대학생들을 활용하였고 각 지역 문화원들도 협조를 잘해 주어서 지도를 완성할 수 있었다. 『충남문화지도』는 각 지역의 문화와 경치 좋은 관광지를 기록하고 지역 예술인까지 소개해 놓은 방대한 자료로 이 지도만 보면 충청남도의 문화, 예술 모두를 알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만들었다. 경치만 보고 가는 그런 관광이 아니라 지도를 통해 그 고장에 담겨 있는 의미까지 생각하는 뜻깊은 관광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컬러로 인쇄하다 보니 경비가 무척 많이 들었지만 당시 이완구 도지사를 자주 만나 지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명하고 소통하여 비용은 전액 충청남도에서 지원을 받았다.

박 원장이 논산문화원장으로 취임했을 때는 문화원 청사가 없었다. 논산문화예술 회관 2층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래서 『역주 논산지리지』 발간 지원비, 논산문화원 운영비 찬조 및 충남 문화예술포럼 운영에도 거액의 사재를 기부하였고, 매년 불우이웃이나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쌀과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등 셀 수 없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논산반공연맹 지부장을 10년 가까이 역임하였고, 논산지원조정위원회 자문위원, 논산세무서 세정협회 회장 등 많은 봉사활동을 하였다. 논산시청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힘이 되어 주어 논산지역사회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다.

박 원장은 택시 운수업, 버스 운수업, 정비공장, 주유소 등 많은 사업체를 운영한 사업가이기도 하다. 사업을 하면서 평소에 후배들에게 4가지 기준의 저울 이야기를 자주 해 주었다고 한다. 첫째는 옳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저울, 이것이 최고이며 제일 좋은 저울이고, 두 번째는 옳긴 옳은데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은 저울, 세 번째는 옳지는 않지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저울, 넷째는 옳지도 않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저울이 있다고 말하면서 첫 번째 옳고 이익이 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했지만 손해 가는 사업은 하지 않았고 첫 번째와 세 번째의 저울과 같은 삶을 살아왔다고 말했다.

많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논산문화에 관심을 둔 것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문학을 좋아했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친구 중에는 국문과를 졸업한 유명한 문필가가 있는데 그 작가와 가장 친할 정도로 문학에 관심이 있었다. 당시 성균관대학교에는 야간 대학이 있었는데 주간에는 약학 대학을 다니고 야간에는 문과 강의를 도강했었다. 사실 경제적인 이유로 약대를 간 것이지만 적성은 국문학과이고 소질도 문학 쪽이 더 컸었다. 문학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논산 문화에 대해서도 애정이 깊었다.

요즈음은 정해진 일은 없지만 아직도 젊었을 때처럼 바쁘게 살고 있다. 골프를 좋아해서 아마추어로서 할 수 있는 기록은 모두 갖고 있을 정도로 수준급 실력이다. 또 TV에서 방송한 건강한 삶에 대한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마지막으로 박 원장은 젊은이들이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젊은 시절에 최선을 다한 삶을 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룩할 수 있고 그래야 나이 들어서 존경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논산에  
 연극의 뿌리를  
 내리다**



**김종욱** (1969년생)  
 논산시 취임동

한때 문화의 불모지라고 했던 논산에서 연극의 뿌리를 내리게 한 김종욱. 그가 아니었다면 논산에서 연극은 싹트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연극인 김종욱은 논산에 연극을 뿌리내리게 한 공로자이다.

**좋은 환경의 유년 시절**

김종욱은 1968년 논산시 부창동에서 태어났다. 부창초등학교와 대건중학교를 거쳐 대전에 있는 보문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연극을 하다가 본격적인 연극 공부를 하고자 하여 현재 (2020년)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다.

부모가 천주교 신자여서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성당에 다녔고, 어린 시절에는 복사를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할 정도로 성실한 천주교 신자였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사진관을 운영하였다. 할아버지는 공주에서 사진관을 운영하였는데 논산에 훈련소가 창설되면서 논산으로 이사하여 사진관을 경영하였다. 당시는 사진업이 크게 호황을 누리던 시기여서 가정 형편은 매우 넉넉한 편이었다. 아버지는 미술 교사였는데, 할아버지는 교사를 그만두고 사진관을 잇게 하였다. 그러니까 김종욱은 어려서부터 상당히 예술적인 분위기에서 생활하였다고 할 수 있다. 김종욱의 예술적 재능은 처음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서는 남진의 노래를 비롯하여 대중가요를 잘 불러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 연극과 인연을 맺다

1987년 대학입시에서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지원했으나 합격하지 못했다. 연극영화과를 나와서 탤런트가 되고 싶었던 열망만 있었지 체계적인 공부는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학입시에 떨어지고 나서 6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에 병이 생겼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 투병을 하면서 간간이 연극에 대한 서적을 읽기도 했다.

이렇게 2년 정도 투병생활을 하여 병이 거의 완쾌된 상황에서 정건일, 길현울 등 6~7명이 모이게 되었다. 정건일은 서울에서 영화와 관련한 일을 하였던 사람이었다. 이들이 자주 가는 레스토랑에서 일하던 분(김수연 씨)이 연극에 대해 애정이 있던 사람이었다. 김 씨는 이들에게 희곡이 있으니 연극을 해 보라고 권유하였다. 이들은 의기투합하여 연극을 하기로 하고 1990년 4월에 극단을 조직하였다. 김 씨의 제안에 따라 극단 이름을 <처용>이라고 정했다. 극단 대표는 정건일이 맡았다.

김 씨가 건넨 희곡이 「멍청이네 가게」였다. 이들은 연극을 한다는 꿈에 부풀어 회비를 걷어 포스터를 찍고 연습비용을 충당했다. 연습은 자주 가는 레스토랑에서도 했고, 김종욱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진관과 예식장에서도 했다. 1990년 6월에 논산군민회관(현 논산예술회관)에서 김종욱 연출로 「멍청이네 가게」를 무대에 올렸다. 김종욱, 길현울, 박병태, 전행선 등이 출연하였고, 정건일, 조영기가 스태프로 활동했다. 논산에서 극단을 조직하여 무대에 올렸다는 데 대한 긍정적 평가도 있었지만, 연극의 질에 대한 평가는 그리 좋지 않았다. 그렇지만 단원들의 다음 작품을 향한 의욕은 충만했다. 이해 9월에 극단 처용 소속의 <처용 어울림사물놀이패>를 결성하였다.

김종욱은 첫 작품에 대한 평가가 낮은 것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했다. 여러 희곡집을 탐독하고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다음 공연 작품으로 「굿 닥터」를 선정했다. 배우들이 연습을 많이 하면서 연기력을 높일 수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연출은 김종욱이 맡았고, 「명청이네 가게」 출연진과 스태프였던 정건일과 조영기가 연기했다. 단원들이 무대와 소품을 제작하였는데, 매우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1990년 11월에 논산군민회관에서 「굿 닥터」를 공연했다.

### 연극에 몰두하다

1991년에는 「방향하는 별들」,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가나」를 공연했고, 1992년에는 「불타는 별들」과 「꿈꾸는 별들」을 공연했다.

공연을 마치고 나서 단원들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었다. 정건일을 비롯한 여러 단원들은 충남연극제에 참가하자는 의견이었고, 김종욱은 아직 작품의 완성도가 떨어지니 더 성숙한 단계에서 참여하자고 주장하였다.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김종욱은 극단을 탈퇴하였다.

1994년에 김종욱이 다시 채용으로 돌아온 것은 이결재의 요청 때문이었다. 이결재는 <송산리 고분 도굴기>라는 희곡을 써서 채용극단에 주었다. 그러면서 김종욱에게 주연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 김종욱이 연출을 맡은 <송산리 고분 도굴기>로 충남연극제에 참가하여 김종욱은 최우수 남자 연기상을 수상했다. 이 작품은 또 미술상을 수상했다. 김종욱이 다시 극단에 들어와 보니 단원의 수는 늘어 있었지만 분위기는 진지하지 않았다. 그래서 김종욱은 젊은 단원들에게 치열하게 연습하여 연극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주장을 여러 단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김종욱과 단원들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어 마침내 김종욱은 다시 채용극단을 떠나야 했다.

### 연기자로서 인정받다

채용극단을 탈퇴한 김종욱은 연기에 대한 열정에 공주에서 활동하던 극단 <젊은 무대>에서 연극에 몰두하였다. 그 당시에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매일 일찌감치 사진관의 문을 닫고 공주로 향하였다. 김종욱은 1996년에 <젊은 무대>가 공연한 「짚레와 장미」에서 주연으로 연기했다. 이 작품은 충남연극제에서 김종욱에게



최우수 남자 연기상을 안겨 주었다. 1994년 「송산리 고분 도굴기」에 출연했을 때에 이어 두 번째의 최우수 남자 연기상이었다. 이로써 충남 연극계에서 김종욱은 실력 있는 배우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짚레와 장미」는 공주 공연에 이어 논산에서도 공연하였다.

공주 극단 역시 논산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연습 시간에 맞춰 김종욱은 사진관 문을 닫고 공주까지 갔는데, 연기자들이 다 모이지 않았다. 그런 데에 환멸을 느끼기도 하고 생업인 사진관에 보다 충실하기 위하여 연극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아내를 만나 결혼했다. 김종욱은 연극을 떠나 있는 동안에 사진관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사업을 번창시켰다.

2003년 공주의 극단에서 공연하는 뮤지컬 「천도헌항가」에 우정으로 출연한다. 이 작품에서 그는 부여로 천도하려는 세력과 맞서는 내신좌평 역을 했다. 그 뒤에 그는 연극을 떠나 생업에 충실하였다. 그간에 정건일과 함께, <처용어울림사물놀이패>를 모태로 발전한 사물놀이 단체인 <전통예술단 마당굿>에 애정을 쏟아부었다. 이의 운영 경비를 위하여 정건일과의 2인극 「색시공」으로 충남연극제에 참가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는 연극보다는 사물놀이에 열중했다.

### 새로운 연극 인생의 시작

김종욱의 새로운 연극 인생은 2016년에 다시 시작된다. 대전문인협회장을 역임한 권득용 시인이 논산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지하를 이들에게 무료로 임대해 준 것이다. 그래서 마당굿의 대표인 정건일과 같이 <소극장 마당>을 꾸미고, 그 소극장을 함께 사용하기로 하였다. 김종욱의 연극에 대한 열정을 높이 산 논산시청에서 지원금을 받아 <시민 연극학교>를 개설한다. 연극학교에는 연극에 관심이 있는 사람 15명가량이 지원하였다. 이들과 함께 무대에 올린 작품이 「희망상가 임회장님」이다. 2017년에는 「크리스마스에는 삼십 만원이 필요해」를, 2018년에는 「어제의 용사들」을 공연하였다. 2019년에는 극단 처용과 논산시민 연극학교의 공동 주관으로 「러브 스토리」를 공연하였다.

김종욱은 연극의 불모지인 논산에서 <극단 처용>을 설립하여 논산 최초로 지역 극단이 공연하는 위업을 이루었고, 그 뒤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연극을 공연함으로써 지역 연극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 특히 소극장 마당을 연극 전용 공간으로 조성하고, 시민연극학교를 운영한 연극인 김종욱은 논산 연극의 창시자, 논산 연극의 대부(代父)라고 하겠다.

●  
사진은  
인내와 열정의  
예술



**정은수** (1946년생)  
논산시 화지동

정은수는 1946년 7월 19일 논산시 화지동에서 아버지 정상금과 어머니 조정환 사이에서 3남 1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현재로 말하면 약국인 약방을 경영하였다. 그 당시에는 의료시설이 없어서 약방이 거의 종합병원 역할을 했다. 심지어 아버지는 주사도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그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투약하거나 염가로 사람들을 치료했다. 의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구강 검사나 신체검사를 맡아서 했다. 논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아버지를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아버지는 의용소방대 구급대장으로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다. 또 상당히 가정적이고 형제간의 우애를 중요하게 여겼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보고 자라서 그 역시 형제를 소중히 여기고 자녀들에게도 ‘제일 중요한 게 형제간의 우애다.’라고 교육한다.

아버지는 약방을 운영하고 형 또한 수의사여서 부모님은 정은수도 같은 계통을 전공하기

를 원했다. 그 당시에는 약사가 되는 것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인정받는 일이어서 자연스럽게 약대를 선택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떨어져서 후기로 원광대학교에 지원했다. 나중에 하숙했지만, 거의 통학했다. 교통편이 많지 않아 함열에서 한 시간씩 오가며 기다렸다. 대학 때는 학점 따느라 바쁘고 통학에 시간을 많이 빼겨서 따로 취미 활동을 하기가 어려웠다.

사진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아버지의 영향이다. 어릴 적에 아버지가 미놀타 카메라를 갖고 계셨다. 호기심에 카메라를 만져보고, 눌러보면서 사진을 찍다가 흥미가 생겼다. 직접 약국을 하게 되면서 시간상으로 여유가 생기자 “한번 찍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찍다 보니 마음에 맞는 친구 몇이 사진 동아리를 만들어 보자는 의견을 내놨다. 집에 있는 카메라만 들고 나오면 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게 됐다.

그때만 해도 논산이 충남에서 상거래는 앞서 있었지만 문화에 있어서는 불모지와 다름 없었다. 특히 사진의 불모지였고 모인 사람들끼리 사진을 예술로 정착시켜 보자고 결의를 다졌다. 1979년 12월에 놀피사진회의 창립총회를 열었다. 그때 열다섯이 명단에 올랐는데 도중에 빠진 사람이 있어서 회원은 그와 정화천, 조기홍, 박태진, 이학렬, 전대훈 총 여섯 명이었다. 그 후에 차츰 회원이 늘었다. 초대 회장 정화천을 시작으로 조흥기, 정은수, 이학렬, 박태진 순으로 회장을 맡았다.

놀피사진회는 사진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며 창작 활동을 겸해서 자체 사진전을 열자는 목적으로 시작했다. 또한 회원들 간에 ‘상호친목도 다지면서 상부상조하자.’는 취지도 있었다. 그때는 출사하는데 차편도 없었고 거의 다 비포장도로여서 무척 힘들었다. 회원들의 차나 대중교통으로 인근 관측사나 유적지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멀리 가서 촬영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 실력으로는 안 되겠다.’는 한계에 부딪혔다. 더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 대전과 충남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사진작가 신건희를 지도위원으로 모셨다. 그와 같이 촬영하면서 지도를 받았다. 난생처음 사진에 대해 배우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배우고 더 찍으려는 분위기였다. 요즘처럼 디지털카메라가 아니어서 찍은 것을 현상해서 보려면 최소 한 달은 걸렸다. 어떤 때는 일 년 만에 빼보는 것도 있었다. 그 당시 논산에서는 사진을 현상하고 인화할 만큼 여건이 좋지 않아서 대전이나 서울에 오가야 했다. 초창기 때 흑백사진은 개인 암실에서 할 수 있었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고 원하

는 작품이 나오지도 않았다. 처음 배우다 보니 인화에 서툴러서 대전 전문가들한테 갖다 주어야 했다. 논산에 있는 사진관은 회원보다도 더 능력이 부족했다. 현상하는 기술을 배울 수는 있지만 재료도 사야하고 그 재료를 다 쓸 수도 없을 뿐더러 무엇보다 질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1980년에 첫 번째 놀피전시회를 열었다. 처음 전시한 곳은 기억나지 않지만, 전시할 공간이 마땅치 않았다. 현재 하나은행 옆, 왕 외과 자리 2층이 비어 있어서 그곳에서 전시회를 연 기억이 있다. 훨씬 뒤에 옛날 읍사무소 자리에 있던 문화원 전시실이나 다방에서도 전시회를 열었다. 그 당시에는 전시 일정이 잡히면 며칠 전부터 회원들이 전부 다 나와서 팸플릿을 만들고 우편을 보내고 전시장을 정리해서 작품을 걸었다. 물론 지금도 전시가 있으면 회원 모두가 나온다. 놀피사진회는 논산에서 사진에 대해 말할 때 씨앗과 같은 존재이다. 아마추어로서 일반인들이 사진에 관심을 갖도록 충분한 불씨 역할을 했다. 취미로 찍던 사람들이 평생학습관 강사로 활동하고 동아리 모임에서 지도하기도 한다.

그와 뜻이 맞는 사람들은 더 전문적인 사진을 위해 1992년 1월 15일에 한국사진작가협회 논산지부를 창립했다. 초대 지부장은 박태진이었고 그는 부지부장을 맡았다. 2대 회장은 김동홍이고 그는 3대 회장을 지냈다. 같은 해 12월 10일에 화지산 문화공간에서 창립 회원전을 열었다. 사진작가협회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 전국 사진공모전에 작품을 내서 대상, 우수상, 특상,佳作, 입선 등을 해서 소정의 점수를 따야 한다. 그는 놀피사진회가 창립하기 전인 1979년 10월 14일 한국청년회의소에서 주최한 전국 사진 콘테스트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을 받은 것이 그를 크게 고무시켰다. 사진작가라는 자격을 얻으려고 평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전국을 누볐다. 그가 사진에 빠진 동안 관리 약사 두 명과 부인이 직원들하고 약국을 운영했다. 부인과 가족들에게 미안했지만, 그때는 사진에 대한 열정이 무엇보다 강했다.

출사하러 가면 다양한 일이 생긴다. 한 번은 금산에 갔는데 인삼밭이 있었다. 짚으로 엮어 덮은 인삼밭을 따라 비탈을 기어서 올라갔다. 오전에 올라갔는데 찍다 보니 정신이 팔려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배고프고 허기져서 간신히 내려와서 수박을 사 먹었다. 그때 인원이 네 명 정도였는데 모두 그 일을 잊지 못한다. 그 수박이 무척 맛이 좋았고 그 수박은 아사직전의 목숨 살린 거였다. 어떤 분들은 사진 찍기 위해 산에서 자기도 하고 몇 시간씩 한 자리에 머물기도 했다. 심지어 몇몇 회원은 간첩으로 오인당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찍다 보니

이상한 사람으로 신고당하기도 했다.

해외로 출사를 하러 가면 더 고생했다. 그 이유는 관광하랴, 작품 만들랴, 쇼핑하랴 1인 3역을 해야 해서 세 배는 힘들었다. 선물 하나를 사더라도 각각 아이들 취향에 맞게 사느라 일행 중에서 쇼핑을 제일 많이 했다. 그리고 가이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좋은 것을 찍다 보면 일행이 어디로 갔는지 찾아야 했다. 늦거나 이탈하지 않기 위해 매번 달려서 쫓아가다 또 찍고 달리곤 했다. 옛날에 아버지는 외국에 가서 찍은 경치 사진을 모두 벽에 걸어놓기도 하셨다. 한때는 그런 것이 좋았지만, 색다른 작품 하나를 만들어야겠다는 압박감 때문에 이제 외국에 가는 것은 부담이다.

그는 서정적인 풍경, 농촌 풍경, 인물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한다. 좋은 사진을 위해서 같은 대상에 여러 번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는 재촬영을 나가기 어려워서 한번 나가면 누구보다 많이 찍는다. 강진 도자기 축제에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갔을 때였다. 천장에 달린 우산을 배경으로 찍었는데 이색적인 사진이었다. 민속촌에 갔을 때는 말린 옥수수나 씨앗을 하려고 말려놓은 식물 같은 종류를 많이 찍었다.

그는 여전히 놀피사진전과 논산사진협회전에 매년 작품을 제출하고 충남사진작가협회 회원전에도 작품을 낸다. 또한 그는 대전에서 열리는 백제사진대전 초대작가로서 그곳에도 작품을 낸다.

그는 사진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을 가리지 않았다. 사진협회가 없는 금산에서 2000년 11월 12일에 ‘금산을 알리자.’는 차원에서 인삼과 약초, 금산의 산하와 풍속이라는 전국 사진 공모전을 주최했다. 금산 지역에 사진 동아리를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작년에 논산문화원에서 개설된 문화학교 사진 강좌를 들었다. 시대의 흐름을 따르려면 디지털카메라를 완전히 습득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아직 장비를 사지 못했다. 여전히 아날로그 카메라로 찍고 있지만, 디지털 카메라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디지털카메라는 컴퓨터 작업을 해야 해서 할 일이 끝이 없다. 배우고 싶은 욕구 때문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수업을 들었다. 디지털카메라를 잘 다루기 위해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 보고 있다. 그러나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카메라의 종류보다 직접 촬영해 보는 거라고 말한다. 사진에 대한 배움과 열정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다.



# 계룡시

## 계룡의 옛 길과 옛 지명 이야기

두계리 아랫장터 소문난 두부집	374
장고개 연대기	379
광김 종손의 애환 ‘고생도 역사’	384
안산밑 뚝심 좋은 동네혜결사	389
왕대리 은동마을 박선생	394
신도안 옛 동산에 올라	399
대궐터 말강구네 막내딸	404
엄사리 산태미터 젊은 이장	409
나분들 착한 농부이야기	414
합한이 도련님들	419

●  
**두계리  
 아랫장터  
 소문난 두부집**



**이 기 열** (1926년생)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이기열은 1926년 여름, 대덕군 기성면 흑석리(現대전시 서구 흑석동)에서 1남 4녀 중 둘째딸로 태어났다. 백수(白壽)를 바라보는 나이에 한 세기의 역사를 또렷이 기억하며 차분히 운을 떼기 시작하였다.

장평보(獐坪淤) 관리를 맡아 보두(湫頭)를 지낸 아버지는 동네사람들을 사랑방에 불러 모아 마을 대소사를 의논하여 결정하고,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러다 야단도 치는 반듯한 어른이셨다. 없이 살아서 학교는 보낼 형편이 아니었지만 글을 가르쳐주고 딸들에게 험한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키우셨다. 자상한 아버지 밑에서 자랄 때는 그나마 좋은 시절이었던 것 같다.

나라를 잃고 넉넉한 살림은 아니어도 평화롭고 행복한 유년시절을 보낸 고향산천. 갑천(甲川) 물길이 휘돌아나가는 물안리, 누렇게 물들어가던 장평리(獐坪里) 노루벌 들녘, 삼으



로 깎아놓은 듯 반들반들한 바위 아래에는 용이 솟아오른 자리 용태울(장태산)이 있었다. 그곳에서 천진난만하게 뛰어놀며 물놀이도 하고, 봄나물 캐고, 고사리 꺾으러 다니면서 배고픔도 잊고 살았다. 비 오는 날엔 도랑가에서 헐레벌떡 맥고자를 벗어 펼떡펼떡 뛰어오르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허둥대던 일본인들의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럽던지, 재미난 구경거리가 따로 없었다. 맑은 날엔 동네사람들이 도랑물 막아 붓어도 주워 담고, 새우 한 바가지씩 훑어다 호박이나 무 썰어 넣어 지저먹었다. 그걸 못다 먹으면 별 좋은 데서 말렸다가 겨울에 진피국(김장 시래기)에 넣어 얼큰하게 끓이면 진수성찬이 따로 없었다.

열셋 되던 해에 아버지가 세상을 뜨자, 살기가 막막해진 어머니는 8개월 된 막내아들까지 다섯 남매를 데리고 고향집을 팔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세상은 그리 녹록치 않았다. 처음엔 멀리 논산군 노성면 사촌네로 갔다가 그 다음엔 아버지 고향인 벌곡면 증촌으로 갔다. 그런데 작은어머니가 살던 데 가서 살라고 떠미는 바람에 어머니 고향인 흑석리로 왔다. 또다시 입암리 고모네로 갔더니 친정으로 가라기에 유성에 있는 외삼촌한테 갔다. 다들 저 살기가 바빠 받아주는 친척이 없다보니 여기저기 떠도는 떠돌이 신세를 면치 못하다가 마지막에 정착한 곳이 두계리 윗장터였다. 그 후로 팔십 평생을 줄곧 살다보니 두계리 역사의 산증인이 되었다.

변변한 땅땀 하나 없이 짓먹이까지 키워야 했던 어머니의 짐을 덜고자 열넷 어린 나이에 그 시절 면장 작은마누라가 운영하던 서울 삼청동 장미여관으로 더부살이를 갔다. 비록 고달픈 더부살이였지만, 주인이 순하고 너그러워서 딸처럼 귀여워해줬다. 어머니 성화에 못이겨 2년 남짓 살다 내려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속 썩일 때마다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었다.

나이 많은 신랑 얻으면 사랑받는다 하여 10년이나 차이나는 신랑과 열여섯에 결혼을 했다. 윗장터에서 아랫장터로 가마 타고 시집이라고 왔더니 나이 빼고는 다 거짓말이었다. 제 집 한 칸 없이 남의 집 행랑살이에 늙은 시부모까지 봉양해야 했다. 늦둥이 외아들로 오나 오나 자라 잘난 척하고, 나이 먹었다고 어른 행세를 했다. 시집온지 3일 만에 노름한다고 나가서는 하루 이틀 외박은 고사하고, 저 깊은 산골짜기 으실독뱅이까지 들어가서는 뽕얇게 입혀서 내보낸 바지저고리가 새까맣게 때가 타고 담배연기에 절어, 열흘 만에 돌아오는 날도 있었다. 이태 동안 서울물도 먹어봐서 천지분간 할 줄 알고, 친정에서 귀히 대접받으며

켰기 때문에 호락호락 당하지는 않았다. 두 번이나 도망가려다 붙잡혀서 돌아와야 했는데, 스물넷에 큰딸을 낳고서야 그만 포기하고 팔자려니 하며 눌러앉게 되었다. 지금도 제일 큰 후회로 남는 건, 신랑 잘못 만나 꺼먹 고무신 한 짝 못 얻어 신고 징글징글하게 고생만 했다는 것이다.

갓 시집온 새댁이 남의 집 빨래해주고, 입암리 구건까지 가서 나무 해다 장터에 내다팔고, 노름빛에다 빌어먹은 양식 값 갚느라 남의 농사 지어주다 보면 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했다. 그러다 윗장터를 둘러싸고 있는 과수원에서 날품팔이를 했다. 배꽃 필 때는 벌레 잡고, 요만치 크면 알맹이 숙아주고, 더 크면 봉지 씌우고, 밭 매고, 배를 따다보면 겨울이 왔다. 그럼 또 풀칠해서 봉지 만들고,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았다.

태평양전쟁이 막바지로 치달을 무렵, 비행기 소리만 나면 빨간 깃발을 꽂고 공습경보가 발령됐는데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던 ‘게카이케이호(일본어:空襲警報)’를 지금도 입버릇처럼 외친다. 다시 파란 깃발 꽂을 땐 해제를 의미하였다. 일정시대(日帝強占期)에는 공출에 협조하지 않으면 잡아다 때리고 가두었다. 쌀이며 녹그릇이며 죄다 뺏어가는 통에, 외양간 더구메(천정)에 짚으로 싸서 콩콩 숨겨놓아야 비루한 살림살이라도 지켜낼 수 있었다. 지서 순사들은 고약한 놈도 있고, 고약한 놈 가면 또 순한 놈 오고, 또 더 독한 놈도 오고 그러다 해방이 되었다.

해방되고 얼마 안 있어 6.25전쟁이 발발하자 동네사람들 모두가 입암리로 피난 가는데, 천하태평인 영감은 ‘사람이 사람 잡아먹었나? 뭣이 무섭다고?’하면서 피난 갈 생각을 말라 했다. 인민군이 들이닥쳤지만 전혀 무섭지 않았다.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쌀 갖다 주며 밥 해달라고, 착하고 사람만 좋더라.’ 하지만 전쟁의 화마는 비껴가지 않아 살던 집이 폭격을 맞고, 온 동네가 불타버렸다.

암담한 시절이었다. 미국에서 기름 짜고 남은 콩깻묵을 배급받아 그걸 깨트려 물에다 살살 씻어줬다가 쌀 조금 해서 밥 할 때, 끓어오르면 얼른 었는다. 한소끔 더 끓인 후에 밥을 푸면 콩밥 같다. 콩기름 짠 콩이라 납작납작하고, 양념간장에 비벼 먹으면 고소했다. 다들 너나없이 그렇게 먹어가면서 연명했다.

그 무렵 피난 내려온 이복사람들은 하나같이 억척스럽고 지독했다. 한 집에서 식구 수대로 밥주발 하나씩 들고 동냥하러 오다보니 아예 마루에다 밥 한 바가지 퍼다 놓고, 열댓 번

씩 들락거리며 한 손가락씩 나눠주었다. 다 같이 어려운 처지였지만, 정 많고 인심 좋은데다 음식솜씨까지 나무랄 데가 없다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외사촌 동생이 찾아와서 보고는 사는 처지가 딱했던지, 콩 한 말 사다주면서 두부 장사를 해보라기에 이웃집 이북 노인네에게 매투(맷돌)를 얻어다 두부를 만들기 시작했다. 두부 하기 전에는 배피떡(개피떡의 황해도 방언)을 했는데, 장터에 내다팔 새도 없이 동네방네 소문이 나서 생일이나 환갑, 시집·장가가는 잔칫집에서는 십리 길을 마다않고 찾아와 주문할 정도였다.

4·9일 팔거리 장날에는 사방에서 장사꾼들이 옷감이니 쌀이니 나무니 한 짐씩 지고 몰려 들었다. 개성여관, 금남여관, 이름 없는 식당들은 늘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두부도 덩달아 잘 팔렸다. 특히 장날에는 신(新) 삼거리 술 파는 영업집에서 앞다투어 가져가는 바람에 만들기 무섭게 팔려 나가다보니 손으로 갈던 곶 1마력짜리 모터를 맷돌에 달아서 갈았다. 콩이 닳 되면 두부가 열다섯 모. 다 팔면 저녁에 또 만들고 쉴 새가 없었다. 콩 사러 몰아래 동네, 입암리 등 십리 길은 안 가본 데 없이 다녔다. 콩 닳 말씩(40kg) 사서 머리고 이고 오면, 막내딸이 조막만한 손으로 저녁에 불러놓았다가 매투(맷돌로 갈아서) 아침에 끓였다. 한나절이면 딱딱딱한 두부를 낼 수 있었다. 나중에는 콩장사가 외상으로 콩을 한 가마니씩 대줘서 밤낮없이 두부만 만들었다. 얼마가 남는 지도 모르고 하루에 서 말씩 만들 때도 있었다. 부지런히 일한 덕분에 큰아들 고등학교 다닐 때, 큰딸 공장 다녀서 번 돈과 껌돈 타서 보태고, 농협에 빚도 조금 내어 40만원 주고 어엿한 내 집도 하나 장만했다.

장사가 잘 된다고 소문이 나다보니 이웃집에서도 두부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그런데 경쟁상대가 되질 않았다.

“내 거 떨어져야 그리 가요. 그러든 얼른 갖다 우리 거라고 하고 팔아 달래유.

그런데 만져보면 틀리거든. 나는 단단히 눌러유.

그런디 그 집은 돌이 채 눌러지기도 전에 내려놔요. 커 뵈라고.

이렇게 들어보든 흥청흥청 해여. 작아도 야물어야져. 그러든 안 사가유.

‘그 집서 갖다 뵈지?’ 하면서... 정 없으면 그것도 사가유. 저 집 건지 바로 알아뵈유.”

장사가 어찌나 잘 되던지 재료가 남는 일이 없었다. 한 모만 하면 셋이서 물리도록 먹을 수 있는 곶 그거 하나라도 더 팔겠다고 안 먹었다. 하루는 이거 하나 먹어보자 싶어 양념간

장 찍어서 먹었는데, 고까짓 것조차도 다 못 먹었다. 하도 만져서 징그럽고 냄새나서 보기도 싫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두부는 안 먹는다.

우여곡절도 많았고 온갖 풍파에도 작은 체구로 단단히 버텨온 사람. 모진 세월을 살아왔지만 그냥 살던 동네라 정이 들어서 앞으로 남은 생은 혼자 마음 편하게 살겠단다. 먼저 간 남편 옆 자리에 나 들어갈 묘 자리도 마련해놓았단다. 세월의 수만큼 곱게 패인 주름 속에서 간간히 수줍은 듯 피어나는 미소는 그녀의 굴곡진 삶을 가늠하기보다 앳된 소녀의 얼굴을 먼저 떠올렸다.

•  
장고개  
연대기



**김 흥 순** (1947년생)  
계룡시 두마면 왕대2리

김흥순에게 장고개는 인생의 꼭짓점 같은 곳이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매순간 고비마다 장고개를 넘어 다녔다. 일곱 살 꼬마아가씨는 아버지 손을 잡고 무서움에 떨면서 첫 고개를 넘었다. 책 보따리 허리춤에 두르고 조작(鳥雀)걸음으로 학교 다니며 한 고개, 시집간 새색시가 어린 남매 데리고 친정살이 오느라 한 고개, 빨랫비누 사고 소 팔러 장에 가느라 한 고개, 자식 공부시키느라 한 짐 머리에 이고 마지막 고갯마루를 넘어가니 어느덧 아낙네가 되었다.

두계리와 왕대리를 오가려면 크고 작은 다섯 고개를 넘어야 했다. 지금은 2차선 포장도로가 깔려 차로 10분 거리도 안 된다. 게다가 마을입구까지 버스도 들어오니까, 이제는 옛말이 되어 인기척 하나 없는 장고개엔 무성한 풀만 자라고 있다. 두계역, 국민학교, 직행버스 정류장, 팔거리장터, 두계리 면소재지에 가려면 어른이고 아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울고 웃으면서 장고개를 넘어 다녔다.

6.25전쟁이 끝나갈 무렵, 53년 3월 대전시 문화동에서 가구공장을 운영하던 아버지는 식솔들을 모두 거느리고 어머니의 외가 동네로 피난을 왔다. 살림살이는 소달구지에 실어 보내고, 사람은 버스를 타고 들어왔다. 울퉁불퉁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버스가 덜컹거릴 때마다 널 뒤통수 찔 듯 영덩방아를 찧었다. 어린 홍순은 얼마나 놀랐던지 울음보를 터뜨렸다. 더군다나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도 모르고, 집이라고는 한 채도 보이지 않는 낯설고 무서운 산길을 걷고 또 걸었다. 동네 어귀에 다다르자 또래 아이들이 아는 척도 않고 논두렁에서 쭉만 뜯고 있었다. 아버지는 가산(家産)을 정리한 돈 몽텅이를 들고 와서는 살 집과 농사지를 땅을 샀다. 논 10마지기, 밭 2마지기면 열 식구가 그럭저럭 먹고살 수는 있었다.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자상하고, 따뜻한 분이셨다. 어머니는 호미자루 한 번 안 잡아보고, 집 앞에 있는 우물물 한 번 길어본 적이 없다. 아들은 내 집에서 살지만 딸은 남의 집 가면 고생한다며 업어서 키우셨고, 엄동설한에 공장 다녀오는 딸이 안쓰러워 맨발로 뛰쳐나와 빨끈 안아주고 아랫목 이불 속에 포옥 파묻어주셨다. 발가벗고 다니는 동네 애들을 보면 풀잎사귀라도 뜯어다 영덩이를 닦아주고, 아픈 아이에겐 고름도 짜주고, 주사도 놔줬다. 약값 한 푼 받지 않고 한없는 인정을 베풀었다. 처외가 동네로 살러 온데다 광산 김씨 집안의 텃새도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세상 물정에 어둡고 답답한 시골 노인네들과 소통하느라 처음엔 마찰도 심했다. 농 째던 손기술로 허물어진 집도 고쳐주고, 동네에서 인심을 얻었지만, 다시 도시로 나갈 준비를 했다. 그런데 그 해에 그만 화폐개혁과 고리채 정리(1961.6.29. 시행)를 하는 바람에 재산은 반 토막이 나고 그 충격으로 폐인처럼 살았다. 애비 잘못 만나 고생하는 딸들이 가여워서 시집가는 거나 보고 죽으려 했던만큼, 서울로 날품팔이 갔다가 안타깝게도 짧은 생을 마감했다. 그녀는 세상에 둘도 없이 다정한 아버지만 믿고 살아왔는데, 하늘이 와르르 무너지는 슬픔을 삼키며 아버지를 떠나보냈다.

국민학교 다닐 때 장고개는 그야말로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이루었다. 학교 가는 어린아이, 교복 입고 통학기차 타러 가는 오빠, 나뭇집 지고 장에 가는 아저씨, 달걀꾸러미 안고 빨랫비누나 사카린 사러 가는 어머니, 대전에 모판 사러 가는 아버지, 소 팔러 가는 할아버지, 운동회 구경 가는 온 식구들, 그야말로 긴 줄 늘어서서 굽이굽이 고갯길을 넘어갔다.

“너도나도 한 집에 보통 네다섯 명씩 학교를 다니니까 장고개가 뻑뻑~했어.

입암리 동네에서도 우리 집 앞을 지나야 학교를 갔으니까.

고갯길이 넓지도 않고 좁은 길인데 뻑뻑하게 갔어유, 앞뒤로 서로.

그라고 옛날에는 소나무에 송충이가 많았어. 여름에는 송충이가 이 길바닥에 새까만 해가지고, 그걸 밟으면 으득으득 막 그럭카고 학교를 다니고...”

음력 10월 6, 13, 14, 15, 19, 20, 21일이면 왕대리 광산 김씨 일곱 종가에서 시제(時祭)를 올렸다. 또 모원재(慕遠齋)에서는 3년에 한 번씩 의정공 김국광(議政公 金國光)의 별사(別祀, 음력 10.6)를 지냈는데 황소 한 마리 잡고, 떡을 세 가마니씩 했다. 문중에서 3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이고, 배고픈 시절이라 동네사람들이 다 와서 일을 거들어주고 얻어먹었는데, 5~600명이 음식을 나눠먹으니 잔칫날이나 진배없었다. 그러니 시월 한 달은 장고개에서 그야말로 웃지 못 할 광경이 벌어졌다.

“시사(時祀)를 지내고 나면 뭍이라는 게 있어요. 시사 지내러 온 어르신 뭍을 다 싸.

그니까 떡, 음식 같은 걸 다 싸고 기부리(자투리)가 조금 나면 애기들 뭍을 주고,

한 집에서 다섯이 와도 다섯 명 뭍을 다 줘... 가난한게 그걸 타서 허기를 면할라고.

옛날에는 양철필통이었잖아? 그냥 연필이 다 언뭍어가지고(서로 부딪쳐서) 다 부러지는겨.

그런게 시월 한 달은 학교서부터 여까지 날마다 뛰어다 뛰어야 디야. 근디도 힘든지도 몰랐어.

늦게 오면 못 타니까. 끝나면 안 주니까. 늦게 와서 아무리 달래도 안 줘유.”

스물다섯에 금산 땅으로 시집을 갔지만, 살기가 너무나 껍뻑하고 서러운 시집살이에 매일 밤 눈물로 베갯잇을 적셨다. 그래, 겨드랑이에 보따리 하나 달랑 끼고 어린 남매 데리고 장고개를 넘어 친정으로 돌아왔다. 친정식구들이 남세스러워 할까봐 이를 악물고 살았다. 남의 집 행랑살이를 전전하다가 아랫동네 사의공파(司議公派) 산지기로 들어갔는데 집터 텃도지를 내야 해서 두 내외가 종갓집 일을 봐줘야 했다. 남자는 종중산(宗中山)을 관리하고, 여자는 제사음식을 장만해야 했다. 시제가 다가오면, 두부하고 떡은 기본이고 한 달 전부터 술 빚고 조청을 고았다. 집에서 떡을 세 가마니나 쪄냈다. 종발(鍾鉢)로 떠서 바람떡, 팔 거피(去皮)내서 하얀 고물 덮고 대추로 무늬 넣은 창호지떡, 장정 넷이서 들어야 한다는 네 꼭지 시루떡을 했다. 거기다 우쭈지(참쌀전병)는 단자(團子)를 만들었다. 그렇게 6년을 살았는데 그냥 해야 되는 의무인 줄로만 알고 살았다. 그래도 종종 땅 농사짓고 열심히 산 덕분에 배불

리 먹고 재산도 불리고 자식들 공부도 시켰다.

산지기 못지않게 머슴들도 광산 김씨 그늘에서 살았다. 극쟁이로 밭을 갈고, 쟁기로 논 갈고, 논물 댔다가 씨레로 논바닥 고르고, 네 번을 갈고 나서 모내기를 했다.

칠월 백중날, 음력 7월 15일은 머슴들이 돈 받는 날이다. 그날 하루는 머슴들도 무조건 쉬었다. 소꼴도 안 베고, 물도 안 길고, 장에 가서 먹고 싶은 거 사먹고 놀다 온다. 일머리에 따라 12·10·7·5가마짜리로 나눠서 새경을 정했다. 머슴들은 대개 이북에서 온 피난민들이라 마누라가 없다보니 장터 온양옥 가서 색시 끼고 술 퍼마시고 놀다 보면, 마님한테 받은 용돈은 고사하고 1년 치 새경을 몽땅 날리는 일도 숭했다. 그래도 밥은 먹여주니까 저녁에는 산내끼(새끼) 꼬아서 멧꾸리(떡동구미), 산태미(삼태기), 명석 만드느라 쉼 새가 없었다. 밤이 깊으면 그제서야 윗목에다 밀쳐놓고, 아랫목에 꼬꾸라져 자고, 날 새면 제일 먼저 일어나 쇠죽 끓이고 물을 길었다.

세상이 변해 양반의 위세는 떨어지고, 산지기나 마름은 재산 불려 독립하고, 머슴은 공장 일꾼이나 장사꾼으로 직업을 바꿨다. 그녀의 삶 역시 변화가 찾아왔다. 농촌에도 새바람이 불어 비닐하우스에서 상추 뜯고 딸기 따서, 머리에 한 짐씩 이고 날마다 대전 역전(驛前) 공판장으로 팔러 다녔다. 막내아들(1977년생) 태어나서부터니까 한 40년 동안 하우스 농사를 지어 돈 버는 재미도 쏠쏠했고 웬만큼 먹고 살게 되었다.

국민학교만 간신히 졸업하고 열다섯 나이에 돈을 벌었으니 평생은 몸이 부서져라 일만 했다. 지금은 호남고속도로가 나 있지만, 냇물이 한 바퀴 빙 돌아나가는 동네를 물도리 무도리(前대덕군 기성면)라 했는데 이북사람이 운영하는 방직공장이 다섯 군데 있었다. 여름엔 모기장 짜고, 겨울엔 소창을 짰다. 농소리, 입암리, 조령리, 우명동까지 100여 명의 여공들이 찬밥 한 덩이 싸 와서 12시간씩 교대로 일했다.

“저 옆댕이 안산고개 넘어가면, 냇물(두계천)이 엄청이 넓어.

공계 이쪽은 논산군이고, 저쪽은 대덕군 아니여? 서로 미루고 다리를 안 놔.

그니까 비만 오면, 장마가 지면 네다섯 명씩 손을 붙잡고, 도시락 목에다 걸고,

그럭카고서는 물을 건너야지, 혼자씩 건너가면 떠내려가더라고.

아래로 조금씩 내려가면서 물을 건너야지, 위로 올라가면 물살이 쳐서 안 돼.”

냇물이 목까지 차오를 때는 하릴 없이 실 대주는 아저씨가 사는 샷갓집(現대전시 방동) 있는



데로 올라가 기찻길 굴다리를 지나 1시간이나 돌아서 갔다. 겨울엔 그나마 낫다. 공장에서 구멍이 뿡뿡 뚫린 철판 다리를 놓아줬는데, 눈이 오면 구멍 사이로 눈이 다 빠지니까 조심 조심 건너다녔고, 가끔 고무신이 미끄러워 살얼음판에 발이 빠지기도 했다. 발 시린 줄도 모르고, 옷이 젖어도 갈아입을 옷 하나 없이 언니동생 서로 의지하면서 실을 감아 북에다 넣고, 설 새 없이 발을 굴러 쪽딱기(수동 베틀)로 베를 짰다. 나중에는 발동기를 돌려 북만 갈아주면 베를 짤 수 있었지만, 그녀가 다닌 작은 공장은 끝끝내 쪽딱기로 베를 짰다. 처녀 홍순은 키가 작아서 발이 닿질 않아 남들보다 몇 배는 더 힘이 들었다.

돌이켜 보면 눈물 마를 날 없는 인생이었다. 이제는 자식들 다 장성하고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있으니 그 가난도 추억이 되었다. 이따금 동창들이나 함께 공장 다닌 친구들을 만나면 밤새 옛이야기 보따리 풀어놓고 하하 호호 깔깔거리며 웃고 떠든다. 인생이 뭐 별 건가? 더 욕심내지 않고 이만하면 족하다고 감사기도를 드린다.

●  
광김  
종손의 애환  
‘고생도 역사’



**김용식** (1945년생)  
계룡시 두마면 왕대1리

광산(光山) 김씨(金氏) 수사공파(水使公派) 금사동(왕대리) 종가 9대 종손, 김용식(金容式)입니다! 짧고 묵직한 자기소개를 마친 후, 조상에게 예를 다하고, 가문의 품위를 지키며, 부모님의 말씀을 하늘처럼 받들고, 자식을 올곧은 길로 인도한 종손의 삶을 나지막한 음성으로 들려주었다. 생가(生家)는 현재 살고 있는 집 바로 옆에 있는 재실(齋室) 한모재(汗慕齋)이다.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 가문을 일구자는 뜻인데, 그 덕분인지 어렵지 않게 살고 있다며 가풍을 소개했다. 쑥스러운 듯 뿌듯한 듯, 도무지 의중을 가늠할 수 없는 절제된 표정과 메마른 웃음소리가 순간 스쳤다.

조선왕조 519년 역사에서 큰 세도를 부리거나 큰 벼슬을 지낸 분이 많지 않은 광산 김씨 가문, 줄여서 ‘광김’이라 부른다. 그러나 삼정승과도 안 바꾼다는 대제학 11명과, 홍문관 예문관 7명을 배출한 예법과 학문을 중시하는 가문이다. 명문가족(明文家族), 삼한갑족(三韓甲

族)이라고 허세를 부리지는 않지만, 선조들이 자랑스럽고 후손들은 가문의 누(累)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품은 채로 살고 있다.

“워낙 가난해서 초가집에 재실 겸 살림을 살았어요.

매년 음력 10월 21일 시제(時祭)를 지내는데, 제물을 준비해서 산소에서 지내요.

옛날 할아버님들은 상배(喪配)를 몇 번씩 하셔서 1년이면 제사가 12번도 넘어요.

‘네가 장손이다’라는 말을 자주 듣고 자랐죠.

‘나는 장남이다’라는 책임감이 늘 머릿속에 있었어요.”

제사에 대한 부담이 컸다. 차남들은 절이나 꾸벅꾸벅하지, 장남과 맏며느리가 음식을 준비하고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옛날 부계(父系)사회에서는 장손 위주로 모든 재산을 물려주었지만, 가문이 번성하다보니 분파(分派)가 많아져 물려받은 재산이 적은 집안도 있었다. 아마도 그의 집안은 물려받은 재산도 적고, 살림을 크게 불리지도 못한 것 같다. 그렇다 해도 하다못해 주과포(酒果鮑)만이라도 간소하게 놓고, 언제나 정성을 다해 조상의 은덕을 기렸다.

어렸을 때는 너무나 엄한 아버지 밑에서 매도 많이 맞고 자랐다. 내성적인 성격에 참하다는 소릴 들었지만, 부모님은 성에 차지 않았던 모양이다. 논 세 마지기 농사로 일고여덟 식구가 겨우 입에 풀칠만 했던 터라 장남인 그가 직장에 취직하자 훨씬 더 어깨가 무거웠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반듯하게 살자는 생활신조를 지키다보니 약간은 경직되어 있었고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으로 비춰졌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약주도 한잔씩 하고, 트로트도 좋아하고, TV예능프로그램도 즐겨본다. 배꿍던 시절은 ‘보릿고개’라는 트로트 노랫말로, 광김의 자부심은 KBS ‘살림남’ 피디와 작가에 대한 고마움으로 나타냈다. 두어 달에 한번씩 동갑계·동창회를 할 때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소주 한 병씩은 마신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동안 종손이면서 장남이라 늘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왔지만, 어찌면 그는 밝고, 재미나고, 자유로운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6월 보리타작을 하기 전, 가난한 집에서는 4~5월이면 양식이 다 떨어져 가을에 한 배 반을 갚아야 하는 장리쌀을 꺾다가 먹고 살았다. 잘 사는 사람이 1~20%였다면, 못 사는 사람이 80% 이상이었다. 그나마 5월에는 아직 고개도 안 숙인 풋보리를 꺾어 키에다 비벼서 삶아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니까 변을 보면 보리 알맹이가 그대로 빠져나왔다. 또, 풀떼죽

이라고 밀가루도 아닌 것을 돌돌 풀어서 죽을 쑤서 먹었다. 추수가 끝나면, 할머니는 제일 먼저 장독대 작은 항아리에 쌀을 하나 가득 채워놓으시고, 제사 때나 칠월칠석날 꺼내서 떡을 하셨다. 산 사람은 아무리 보리밥에 죽을 먹더라도 제사상에는 늘 하얀 쌀밥을 올렸다. 조상님은 하늘이었다.

책 보파리에 필통 하나 달랑달랑 들고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사친회비 50환이 없어 학교에서 선생님께 매를 맞았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견디는 수밖에 없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우체국에 취직한 후로는 집안 형편이 차츰 나아졌다. 물론, 직업에 대한 선택의 여지도 없었고, 아버지가 ‘너, 이거 해라’ 하면 그냥 따르는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의 말씀은 절대 거역해서도 안 되고, 반항할 수도 없어 꼭 참고 숨죽이며 살았다.

아버지 친구의 소개로 흑석리 별정우체국에 집배원으로 들어가서, 커다란 가방을 둘러매고 산골짜기 골짜기 하루에 수십 리를 걸어 3~400통의 편지를 배달했다. 우편배달 일을 하면서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었냐는 물색없는 질문에, 재미있었다기보다는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말을 이었다. 출퇴근길만 왕복 삼십 리였다. 그리고 무거운 배달가방을 메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골길을 헤집고 다녔다. 멀리 집 한 채 바라보며 높은 산을 올라야 했고 시냇물을 건넜다. 길가 나무 그늘에 앉아 땀을 닦으며 변변한 찬도 없는 도시락을 꾸역꾸역 넘겼다.

옛날엔 정겨운 편지들이 참 많았다. 외지로 나간 연인에게서 편지가 올까, 날마다 문밖에 나와 기다리던 처녀는 그의 발걸음 소리만 듣고도 무척 반가워했다. 수줍게 찬물을 떠다주고는 봉투에 붙은 마른 꽃잎이 떨어질세라 고이고이 품속에 간직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보람을 느꼈다. 군대 간 아들한테 온 편지를 받아들고 까막눈인 노모는 읽어달라고 부탁했고, 아무리 바빠도 귀찮은 내색 없이 편지를 뜯어 읽어드리면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지금은 문자나 SNS로 소통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꼭꼭 눌러 쓴 편지가 진짜 편지다. 누가 편지 빨리 가라고 10원 더 붙여주지도 않았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봉사하며 살았노라 자식들한테 얘기한다.

첫 월급을 탔을 때, 나도 이제 돈 버는 사람이다! 실질적인 가장이 되어 가족의 생계와 동생들의 교육을 책임져야 했지만, 고생스럽다가보다는 오히려 뿌듯함을 느꼈다. 6개월 정도 배달 업무를 하다가 마침 두계우체국에 자리가 나서 옮겨온 후로는 환금업무를 맡았다. 두

계우체국에는 아버지뻘 되는 4~50대 집배원이 7명, 그를 포함한 사무원이 4명, 전화교환원 11명이 근무했다. 일이 끝나면 동료들과 막걸리 한잔씩 하며 그날의 노고를 위로했다. 월급 날엔 장터 한성집에서 외상값 받으러 찾아오면 집배원들은 이리저리 숨고 다녔는데, 몇 푼이라도 값으면 또 술 한 주전자 얻어마셨다. 그 사이 농촌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옛날엔 가난해도 이웃끼리 콩 한 쪽도 나눠먹고, 장사꾼은 덤도 퍼주며 인정을 베풀었다. 요새는 순박한 시골사람을 찾기 힘들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사회가 급변하다보니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지금처럼 은행이 많지 않던 시절, 우체국 환금업무는 농협과 경쟁을 벌이며 우편전신함과 예금 및 보험 금융상품을 취급했다. 정직하고 빈틈없어 환금업무는 그의 적성에 잘 맞았지만, 남에게 아쉬운 소릴 못해 보험 판매실적을 놓고 운운할 때는 직업에 회의를 느꼈다. 1965년 한일협정 체결로 일제강점기 때 가입한 보험증서는 휴지조각이 되어버렸고, 우체국 보험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은 하늘을 찔렀다. 기껏해야 일가친척 내지는 연고 있는 사람에게 사정해서 할당량을 채웠다. 그마저도 어려울 때 결국 정년을 못다 채우고 33년의 공직생활을 은퇴했다. 그렇다고 전부 나쁜 기억만 있는 건 아니다. 신도안 용화사에 있던 젊고 빼어난 미모를 가진 비구니는 소액환을 환전하러 우체국에 자주 들렀다. 아마도 그에게 마음이 있었던 모양인데 식사도 한 번 하고, 편지도 주고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소식이 끊겨 절로 찾아가봤더니 어디론가 떠나고 없었고, 그의 짧은 로맨스도 끝이 났다.

전화 교환실에도 씩씩한 해프닝이 벌어지기 일쑤였다. 전화는 자석식에서 공전식, 다이얼식으로 세 번의 변화를 거치는데, 앞의 두 번은 교환원을 거쳐야 통화를 했다. 24시간 교대로 근무했고, 자석식의 경우 최번시(最繁時)와 최한시(最閑時)가 있었다. 장날에는 교환원들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그러다 간혹 교환실로 들이닥쳐 교환원의 머리채를 잡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도 있었고, 직원들은 뜯어말리느라 진땀을 뺐다. 괜한 트집을 잡거나 술주정에 성희롱, 욕하는 사람, 가지가지였다. 주말이나 밤에는 한숨 돌렸다. 동창 중에 물감집(천연염색) 둘째딸은 대전여고를 나와 대전전화국에 취직했는데, 전화번호부를 보지 않고도 3천 가입자의 번호를 다 외워 바로바로 연결해줄 정도로 머리가 아주 좋았다.

스물여덟, 다소 늦은 나이에 세동 사는 고모의 주선으로 두 살 차이나는 아내를 맞아 결혼했다. 제주도는 꿈도 못 꾸던 시절이라 동학사 산장호텔로 신혼여행을 갔다. 첫날밤을 보

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서설(瑞雪)이 하얗게 내리고 있었다. 어쩌면 이만큼 사는 것도 그날의 축복 때문인지 모른다. 아내는 가난한 종갓집 종부(宗婦)로 시집와서 불평 한 마디 없이 생색 한 번 내는 일도 없었다. 푸짐하게 차리지 못하는 못해도 나물 세 가지에 따뜻한 밥 한 그릇 소복이 담아 정성을 올렸다. 손에 물마를 날 없이 묵묵히 남편을 내조하고, 많은 식구 건사하며, 이웃을 보듬었다. 형편이 좋아지면, 예쁜 집 하나 지어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겠다던 그의 꿈은 이루어졌다. ‘고생도 역사다’, 두 내외는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조상이 물려주신 터전을 지키며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고 있다.

●  
안산밑  
독심 좋은  
동네해결사



**하 태 일** (1940년생)  
계룡시 두마면 왕대2리

하태일은 왕대리 산소말 남쪽에 있는 안산밑(案山下)에서 6남 2녀 중 첫째로 태어났다. 왕대리는 한국전쟁 직후, 인구가 가장 많을 때는 55호(戶)가 살았는데 광산 김씨 22호, 진주 하씨 8호, 그리고 황씨를 비롯한 타성과 피난민 25호가 살았다. 그가 태어난 안산밑(왕대2리 1반)은 18호가 살았는데 공단이 들어서면서 전부 철거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지금 현재 왕대리는 고령세대 33호만 남아있다.

그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그 시절은 모두가 가난했고, 형제들 줄줄이 딸린 대식구가 함께 사는 소작농 집안 출신이다. 식민지시대와 냉전시대, 분열의 시대를 거쳐 오면서 그는 가슴속에 응어리를 품고 세상과 맞서 싸웠다.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던 날, 국민학교 3학년이던 그는 부모님의 손을 잡고 팔거리장터로 나가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대며 얼싸안고 춤을 췄다. 어린 나이였지만 일찍 철이 들었고, 그가 겪은 일제강점기 시대는 뼈아픈 상처로

남았다.

“옛날에는 호적을 다 늦게 올려요. 홍역 치르다가 많이 죽어요.

자꾸 죽으니깐 안 하고 있다가 뒤늦게 출생신고를 하면, 나이가 줄지요.

출생신고를 했다가 죽으면, 그대로 뒀다가 동생이 태어나면 형 호적으로 살아요.

오히려 나이가 더 많게 뒤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늘었다 줄었다 고무줄 나이에, 나이 차이가 났어도 엇비슷한 연령대끼리 어우러져 지냈다. 그 시절 왕대리에는 일본 순사들이 두어 달에 한 번씩 순찰을 돌았다. 한 번은 사물놀이패가 풍물을 치면서 마을을 한 바퀴 도는 두레먹이 백중놀이가 한창이던 백중날이었다. 느닷없이 일본 순사 둘이 들이닥치더니 무불간섭(無不干渉), 이유를 불문하고 휘방을 놓았다. 양쪽 길가에 사물놀이패를 넷씩 세워놓고 입술이 터져 피가 나도록 매섭게 따귀를 후려갈겼다. 그 모습을 지켜본 그는 반드시 일본 놈들을 죽여야겠다는 분노가 치밀었고 어떻게 죽일지 날마다 궁리했다. 하지만 어린 마음에 상상만 할뿐이지, 실행으로 옮기는 건 가당치 않았다. 며칠 후, 힘이 장사였던 큰집 머슴 맹씨는 순사 둘을 마당에 엮어놓고 연거푸 몽둥이질을 하고서 그날 밤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두마국민학교에 부임한 일본 선생들은 전교생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다. 학교 정문에 들어서면 곧장 오른쪽에 있는 신사를 향하여 경례를 하고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무실로 불러 사정없이 두들겨 뺐다. 다른 학생들은 위기만 모면하자 싶어 그냥 시키는 대로 했지만, 그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도망가다가 교무실 창문 너머로 지켜보던 선생한테 걸려 흠씬 두들겨 맞았다. 일본인 교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아부하는 조선인 교사들은 한술 더 떴고, 비겁한 어른들을 보면서 그의 증오심은 더해갔다. 패전의 기운이 감돌 무렵에는 간간히 일본말로 수업을 하긴 했어도 일본어 교육은 흐지부지 되어가고 있었다.

한편, 전쟁의 패색이 짙어질수록 동네 분위기는 더욱더 험악해졌다. 놋그릇은 물론이고 쇠붙이란 쇠붙이는 싹 다 걷어가고, 아주까리기름이며 곡식이며 온갖 살림살이를 다 뺏어갔다. 게다가 어떤 이는 같은 조선인이면서도 일본 순사들에게 고자질을 하는 등 인심이 흉흉했다. 큰어머니는 일본 사람들 눈을 피해 왕신이 골짜기 바위 샘터에 누에를 쳐서 실을 짜고 옷을 해 입었는데 그마저도 못하고 막혀버렸다. 그 바위에서 나오는 샘물은 아직도 왕대리에서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시원하고 맑은 물을 마실 때마다 또 한 번 옛 기억이 떠



오르곤 한다.

대부분이 어렵게 살던 시절이었다. 냇가에서 물고기라도 조금 잡으면 고깃국을 끓여먹을 수 있어 다행이었다. 새벽 3시, 일찌감치 집을 나서서 감나무에서 떨어진 홍시를 주우러 다녔다. 늦게 가면 그마저도 없었다. 입암리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오면 2시간씩 걸렸는데 나물 죽 한 그릇 먹고 학교를 갔다. 어머니는 구건에 가서 썩을 뜯고, 독이 없는 산나물 잎사귀를 훑어다 콩깍묵을 함께 넣어 날마다 죽을 썼다. 거름도 부족하고 퇴비도 구하기 힘들어서 논 한 마지기에서 고작 쌀 다섯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 여덟 마지기 농사로는 열 식구가 하루에 한 끼니조차 제대로 먹지 못했다. 어쩔 수 없이 고지(雇只)를 먹고 살 수밖에 없었다. 그가 어렸을 때는 곱장리가 가장 많았다. 한 가마를 빌리면 이듬해에 두 가마로 갚아야 했다. 쌀로 갚지 못하면 모심기 하루, 김매기 이틀, 추수 하루, 타작 하루, 닳새는 몸으로 때워야 했고, 그것도 힘들면 땅을 넘겨야 했다. 땅까지 다 잃게 되면 머슴살이나 더부살이를 가야 했는데 고초가 심했다. 종살이를 해 본 사람이 머슴을 들이면 더 지독하게 굴었다. 어린 마음에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걸 새삼 느끼며 분통을 터트렸다.

남들은 다 평범하게 사는데 유독 정의감에 불탔고, 도리에 어긋나는 걸 두고 볼 수 없었다. 아버지와 주변에서는 그를 돌연변이라며 타박했다. 열일곱 살 때,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다. 우선은 하시스 선교사의 원조를 받아 허물어진 교회 건물을 손수 지으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다른 동네까지 다니며 교회건물을 수리해줬다. 장남인 그가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니 집안의 반대는 불 보듯 뻔했다. 그렇지만 한다면 하는 강단이 있어서 아무도 꺾을 수가 없었다. 큰아버지는 도마를 갖다 놓더니 도끼로 다리를 잘라버리겠다고 겁박했다. 그 때 다리가 잘리더라도 교회를 나가겠다고 눈 하나 깜짝 하지 않자, 집안 어른들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왕대리 뒷산은 대대로 기우제를 지내던 곳이다. 그 해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내라고 논산군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그의 큰아버지는 하씨 집안 종손으로써 제사를 주관했다. 그는 미신이라며 제사를 못 드리게 막아섰다가 어른들과 크게 부딪쳐 죽이네 살리네 난리국이 따로 없었다. 작대기고 뭐고 닥치는 대로 들고 매질을 했지만 그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고, 결국 어른들이 항복했다. 어른들을 맞서 싸우려면 목숨까지 걸어야 했다. 그 후로 왕대리에서 더 이상 기우제를 지내지 않게 되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집이 커지고 기운이 세져

노쇠한 어른들은 더 이상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왕대리는 논산군 일대에서 유교사상이 가장 뿌리 깊은 곳이다. 비가 오지 않으면 산제를 드리고, 정월 대보름에는 냇가에 나무를 쌓아놓고 보름제를 지냈다. 음력 칠월칠석 백중날, 논에서는 호미씻기를 하고, 팽과리를 두드리며 풍물패가 동네를 한 바퀴 돈다. 가로 2m, 세로 4m 되는 용기(龍旗)를 굽은 대나무에 걸어 10m 높이 깃대배기에 꽂는다. 이 때 세 군데에 줄을 매어 잡아당기는데, 깃발이 쓰러지지 않도록 잘 조준해서 꽂아야 한다. 줄을 잡은 세 사람과 기를 받은 사람이 손발을 맞춰 잘 지탱해야 한다. 김국광의 묘소가 위치한 왕대리는 좌상마을로써 각 동리의 두레패를 통솔하여 백중놀이를 주관했지만 관리소홀로 중단되었다가 1989년 연산백중(連山百中)놀이로 재연, 전승되고 있다.

시골에서는 소가 큰 재산이었다. 소 한 마리만 있어도 부자였다. 1961년 5.16 군사정권이 들어설 때, 서울로 축산교육을 받으러 가서 수의사 자격증을 땀다. 면사무소에 취직할 수도 있었지만 한 곳에 얽매이는 게 싫어 동네에서 어려움을 겪는 집들을 도와주었다. 소 한 마리가 죽느냐 사느냐에 따라 그 집안의 존폐(存廢)가 달랐다. 소가 소화할 못 시키고 배에 가스가 차면 터질 만큼 부풀어 오르는데, 오른쪽 옆구리에 가늘고 긴 관을 찔러 가스를 뽑아내고, 약을 먹이거나 주사를 놓는다. 또 약을 구하기 힘들면 막걸리나 산약을 먹여서 죽어가는 소를 살려냈다. 새끼가 제 때 나오지 못하면 사람 손으로 꺼내야 했다. 잘못하다 새끼는 고사하고 어미 소까지 죽게 되면 그보다 난감한 일이 없었다.

소나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동네에서 산통에 시달리며 죽을 고비에 놓여있는 부인이 있으면 그 시어머니나 식구들이 쫓아와서 도와달라고 애걸복걸이었다. 혹시나 잘못되어 원망



왕대리 김국광 묘역

들을까 처음엔 거절했지만 한사코 도와달라고 하면 도저히 거절할 수 없었다. 근처에 병원도 없고, 병원비가 무서워 대전으로 나가지도 못했다. 무턱대고 힘만 썼다가는 아이가 나오지도 못하고 산모는 힘이 빠져 죽는다. 주기적으로 오는 진통시간에 맞춰 손을 집어 넣어서 뽑아내야 하는데 자칫하다 산

모가 죽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다행히도 아기 셋을 받아냈고, 엄마와 아이에게는 생명의 은인이었다.

“힘을 주게끔 강제로다 진통을 넣으면서 두 다리가 딱 꼬였을 때, 입을 딱 벌리잖아요?”

그 때 목구멍에다 손꼬락을 팍 집어넣으면 나도 모르게 웅! 구역질을 하면 뱃심이 생겨요.

그 때 잡아당겨서 빼내야지요.”

세월에 장사 없다고 질곡의 세월을 뚝심 있게 살아온 그도 이제는 다소 마음을 누그러뜨렸다. 따뜻한 말 한 마디 서로 나누며 욕심 부리지 않고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

●  
**왕대리  
 은동마을  
 박선생**



**박찬원** (1946년생)  
 계룡시 두마면 왕대리1

은동마을 박선생의 첫인상은 딱 인자한 선생님의 모습이였다. 존경받는 교사, 온화한 가  
 장(家長), 그리고 ‘계룡세계군(軍)문화 엑스포’ 홍보모델로 발탁될 만큼 훈남이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대전 세동리에서 두마면 왕대리로 피난 와서 지금까  
 지 살고 있다. 삼남매로 식구도 단출하고, 느지막이 태어난 외아들이라 귀한 대접받으며 성  
 장했다. 끼니 걱정하던 시절이라 다른 집은 죽도 제대로 못 먹었지만, 어머니는 반찬까지 신  
 경 써가며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주셨다. 학교는 폭격을 맞아 비스듬히 쓰러진 건물을 간  
 신히 떠받쳐놓고, 유리창도 없이 신문지를 덧대놓았다. 학생 수에 비해 교실이 턱없이 부족  
 해서 고학년은 오전반 저학년은 오후반으로 나뉘서 수업을 했다. 어수선했던 전시상황에서  
 제 나이에 입학하는 학생이 드물어 같은 학년이라도 많게는 다섯 살이나 차이 났다.

박찬원은 제 나이에 학교에 들어갔어도 상대적으로 어려보이고, 숫기도 없고 얌전하여

계집에 같다며 오히려 놀림을 받았다. 그래도 영락없는 개구쟁이 머슴애였다. 친구들과 학교 땡땡이 치고, 왕대리 큰 산소 뒷산에 올라가 도시락 까먹고 전쟁놀이하다 땀에 흠뻑 젖어서야 들어와서는 학교 갔다 왔다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도 했다. 공휴일에는 친구들과 작당모의 해서, 지금은 폐역(閉驛)이 된 원정역에서 서대전역까지 몰래 무임승차를 하거나 석탄 실은 화물칸에 올라타고 대전 시내 구경을 갔다. 1968년에 호남선 철로 복선공사를 했으니까 아직 단선일 때였다. 두계역이나 대전역이 가까웠지만 차표 검사를 하고 개찰을 했다. 원정역 같은 간이역은 십리 길을 더 걸어가야 했지만, 아무 때나 들어가서 기차를 탈 수 있었다. 화물차 뒤에 객차가 몇 량 달려있어서 일단 화물칸에 올라타기만 하면 검표를 하러 와도 숨바꼭질하듯 이 칸 저 칸으로 도망 다니면서 차장을 골려주었다. 또, 지붕 없는 석탄차 위에 타고 가다보면 석탄가루가 바람에 날려 얼굴이 시꺼멓게 되었다. 서대전역에 내리면 대전방직을 사이에 둔 철조망이 있었는데 너무 허술해서 개구멍 밑으로 빠져나왔다. 서대전사거리 잔디광장에는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었다. 철모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피 묻은 담요를 쌓아 비닐로 덮어놓았다. 혈벗은 사람들은 그걸 훔쳐다 입기도 하고 팔기도 했을 테지만, 장난꾸러기 소년들은 그저 지나칠 뿐, 대전 중앙도매시장을 맥없이 쏘다니다 같은 경로로 돌아왔다.

전쟁 중에 직접 북한군을 목격한 적은 없지만, 당시 좌익활동을 하던 사람들의 얘기를 어른들에게 자주 들곤 했다. 그들의 적(敵)은 양반 지주, 특히 광산 김씨가 타깃이었다. 현재 계룡시 농업기술센터 자리가 개발되기 전에는 면산(面山)이면서 공동묘지였다. 그 산에 방공호를 파놓고, 거기다 밀어 넣어 몰살시켰다고 한다. 비가 많이 올 때는 하얀 해골바가지들이 뚝뚝 떨어오기도 했다. 인민군에 협조했던 옆집 남자는 수복이 되었어도 군인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민군에 휩쓸려 북으로 가지도 못하고, 황룡사가 있는 광산 김씨 진사택을 찾아가 죽이려 했다. 진사는 자꾸만 말을 걸면서 시간을 끌었고, 날이 밝자 하인들이 지서에 신고했다. 결국 경찰에 쫓기다가 위왕산(爲王山) 밑에서 죽고, 가족들은 야반도주 했다고 한다. 그 사건 외에는 특별히 난리통이라고 할 수도 없는 평범한 시골마을이었다.

그의 집 앞에는 작은 고개가 하나 있다. 예전엔 상당히 가파른 고갯길이었었는데 지금은 양쪽에 절개지가 나있고, 길을 확장해서 5~6m정도 낮아졌다. 산마루에서 조금 내려가면 큰 참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데 ‘사냥당 나무’라 부르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소원을 빌고 다



신도안의 옛모습

고개를 ‘막은고개’, 그 너머 숨어있는 동네라 하여 은동(隱洞)이라 불렀다. 지금도 연세 드신 분들은 왕대1리보다는 은동마을이라고 하면 금방 알아들으신다.

두마면은 사통팔달로 길이 뚫려 있고, 면적이 넓다보니 장이 두 곳이나 섰다. 두계 팔거리장과 신도안 대궐터장인데, 특히 팔거리장은 우시장이 서서 큰돈이 오갔다. 장터까지 가는 길목인 은동마을에는 정자나무 둘레에 주막집이 네 곳 있었다. 주막에는 대전에서 온 몰이꾼(중간 도매상)이 죽치고 있었다. 산골에서 가용(家用)할 돈을 마련하느라 무거운 짐을 메고 주막에 들러, 몰이꾼들에게 물건을 다 넘겼다. 홀가분하게 막걸리 한 잔 하고, 노름도 하다가 그 돈을 다 털리고 빈털터리로 집에 돌아가면 한바탕 난리가 났다. 하지만 작은 몰이꾼들은 장날에만 맞춰서 오기 때문에 착실한 아버지들은 곡식 판 돈으로 장에 가서 집에 필요한 물건도 사고, 지깃다리에 장보따리 매달고, 눈깔사탕 한 봉지 들고 바쁜 걸음을 재촉했다. 꼬마들은 동네 아저씨한테 엇 얻어먹는 재미로 괜히 장에 가서 여기저기 누비고 다녔다.

1953년 6월 18일, 휴전선언을 앞두고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포로 석방을 선포했다. 두마면은 연무대 훈련소가 가까워서인지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포로병을 집집마다 한두 명씩 배정했다. 농사철에는 일도 시키고, 나무도 해오게 하고, 그 대가로 밥도 먹여주고 잠도 채워주면서 돌봤다. 그렇게 동네에서 살다가 불과 1년 사이에 포로들은 또다시 국군 현역으로 징집되었고, 제대해서 돌아왔다. 박선생네도 두 명의 포로가 다시 돌아왔는데 오갈 데가 없어 한 사람은 위왕산 밑 중미(중피)로 시집 간 큰누님 댁으로 머슴살이를 보냈다. 또 한 사람은 무도리 직조공장에 가서 허드렛일을 하다 결혼도 하고, 양계장을 차렸는데 달걀 얻어먹으러 몇 번 가본 적이 있다. 그리고 2년 후쯤 서울로 이사를 가서 소식이 끊겼다. 93년도

났다. 왜정 때, 이 고갯길을 조금 넓혔는데, 넓히고 나니 동네에 불이 나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재앙이 들었다. 하도 이상해서 어떤 사람에게 물었더니 고개를 절단해서 그렇다고 하자, 이 동네 진사가 ‘사람이 먼저다. 길을 뚫으면 안 된다’라기에 다시 막았다고 한다. 그래서 이

대전엑스포 할 때 그들이 다시 찾아왔지만, 교사가 된 그는 외지로 발령이 나서 집에 없었기 때문에 만나질 못했다. 사춘기 중학생이 어엿한 선생님이 되었다니 그들도 진심으로 기뻐했다고 어머니께 전해 들었다. 7~8년을 가족같이 지낸 인연이라 꼭 다시 만났으면 좋으련만 연락처를 받아두지 않아 못내 아쉬웠다.

두마국민학교 졸업생 86명 가운데 3분의 1정도가 진학을 했는데, 공부시키는데 돈이 많이 들다보니 대개는 장터에서 장사하는 집 아들딸들이 중학교를 갔다. 웬만큼 사는 살림이라 박선생도 중·고등학교는 통학기차를 타고 대전으로 다녔다. 교원 자격을 취득한 후, 첫 부임지는 태안이었다고, 4년 정도 논산에서 근무하다가 두마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아왔다. 두마초등학교에서 5년씩 3번을 근무했고, 개태사가 있는 개화초등학교에서 5년씩 2번 있었다. 그리고 벌곡초등학교에서 또 3년 있다가, 마지막에는 모교로 와서 2008년 정년을 맞이했다. 두마초등학교는 대전에서 제일 가까워서 퇴임할 때까지 이곳은 오고 싶어도 오기 힘든 곳인데, 교직원생활 40년 중 절반을 이곳에서 근무하고 모교에서 정년퇴임을 맞았으니 감사할 따름이다.

어릴 때 달리기도 잘하고, 배구도 잘하고 핸드볼 선수도 한 경험으로 가장 자신 있게 가르치는 과목은 체육이었다. 그런데 그만큼 기준이 엄격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더 어려웠다. 평소 학생들에게는 항상 ‘꿈을 가져라’, ‘앞으로는 글로벌시대가 될 것이니 영어공부를 열심히 해라’ 라고 강조했다. 96년도 초등교육과정에 영어과목이 들어갔으니 선견지명이 있었다. 교사의 책무는 모름지기 학생들의 학력을 정착시켜야한다는 직업적인 교육관이 아니라 꿈을 가지고 실천하여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라고 그의 교육철학을 밝혔다.

현재, 계룡시 인구는 4만 3천 명 정도인데, 토박이는 5%도 안 되는 2천 명 정도에 불과하다. 대부분이 군인가족들이고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라 계룡시 역사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다. 더구나 현대사회는 개인주의가 팽배하다보니 남과 어우러져 살기 보다는 내 것만 챙기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계룡시는 정체성을 상실하고 대충 섞어놓은 비빔밥처럼 되어버린다. 가끔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모임에 가서 ‘출신지역은 다르지만, 계룡시에 모여 살고 있으니 이 지역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말해도 시쳇말로 씨알도 안 먹힌다. 고즈넉한 옛 모습은 온 데 간 데 없고 도시문명의 쓰레기들로 메워지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기만 하다.

“왕대산 기슭에 골마다 어우러진 농자천하지대본 쌍룡기 열두 골기 머리 숙여 예 올리니

칠월백중이라 농민 머슴 양반들과 풍년 농신제 드리니

국태민안 세화연풍 기원하고 충효 으뜸 상을 주며 액막이 굿길놀이 풍악에

남녀노소 어울려 흥에 취해 덩실덩실 춤추며 화합 한마당 잔치 펼치니

만민의 행복강녕 풍효충예의의 정신이니

왕대백중놀이는 백중놀이 정신 계승하여 밝은 세상 이뤄보세.

2016년 가을 왕대리 백중놀이 정신에서 은재 박찬원”

얼카사니가 잘한다♪~ 왕대리 은동마을의 정취를 한 글자 한 글자 반듯반듯하게 눌러써

가며 그 옛날 한 마음으로 화답했던 노래를 후세에 전한다.



●  
신도안  
옛 동산에  
올라



**김영덕** (1939년생)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2005년 3월 7일, 마침내 신도초등학교는 옛 명맥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엄사리 언덕에 새로이 등지를 틀었다.

1984년 ‘620사업’으로 신도안 주민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신세가 되었고, 나라의 반석이 될 인재를 육성하던 신도초등학교는 44회, 계명중학교는 29회 졸업생을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다시 신도안의 뿌리를 찾고, 얼을 되살려 바로 세우려는 복교(復校)과정은 대단히 신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이루어져야 했다. 왜냐하면,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삼군본부 이전(移轉)과 도시화의 물결 속에서 상전(桑田)은 벽해(碧海)되어 안타깝게도 같은 자리에 원형을 그대로 앉힐 수는 없었다.

김영덕은 신도안 실향민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쇠한 몸을 이끌고 동분서주하였다. 물론, 한 사람의 힘으로 이토록 중차대한 일을 수행하기란 불가능하다. 하지만 자신의 안위는

제쳐두고 선친의 유지(遺志)인 ‘이사우고 사사우금(理事又古 事事又今:이치는 옛 것을 따르고, 일은 현실을 따르라)’을 받들고, 동문들과 뜻을 모아 결국 신도초등학교를 복교하기에 이르렀다. 다른 무엇보다도 학교 이름을 되찾고 명맥을 잇는다는 것은 뜻 깊은 일임에 틀림이 없다.

우선, 신도안 이름의 유래부터 살펴보자. 신도 안쪽이라는 의미의 신도내(新都內)라는 주장도 있고 실제로 한동안 그렇게 불리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고유명사를 한글과 한문으로 혼용해서 쓰는 경우는 없을 뿐더러, 1446년에 한글을 창제했는데 그 이전인 1392년 조선을 건국할 때 도읍을 정하고자 했으니 시대적으로도 맞질 않는다. 일설에는 도읍을 세울 곳이 ‘아니다’라는 발음에서 유래되었다는 억지 논리도 있다. 또, 일제강점기엔 강경경찰서 신도내주재소라는 명칭도 썼고, 해방 후에도 신도안은 인구가 많고 두마면에서 멀었기 때문에 신도내출장소를 두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도읍을 정하기 위한 계획안(計劃案)이 있었을 터, 신도안(新都案)이 역시 옳다고 생각한다. 1961년 이후로는 그 이름으로 고착되었다.

신도안은 계룡산 상봉(上峰)아래 고원분지(高原盆地)에 자리 잡고 있어서 선선하고, 항상 맑은 물이 흐른다. 회룡고조(回龍顧祖) 지형으로 높은 산과 물줄기가 어우러져 거친 비바람과 외세의 침입을 막아준다 하여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소문났다. 그 이유로 방방곡곡에서 이상향(理想鄉)을 찾아 속속 신도안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김영덕은 경북 달성군 현풍면 부동 출신으로 다섯 살이 되던 해, 그의 일가족은 간단한 생필품만 챙겨 덜컥거리는 화물열차에 몸을 싣고 낙동강을 건너고 대전을 거쳐 신도안으로 들어왔다. 1943년 태평양전쟁이 절정에 다다를 무렵, 부친과 의형제를 맺은 한학자의 권유로 잠시 어수선한 세상을 피할 요량으로 택했던 피난처였으나 정들면 고향이라고 적게나마 농사를 지으며 신도안 부남리에 정착했다. 아직 경상도 사투리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 좀 신기한데, 친척들과 왕래도 잦고, 신도안의 특성상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살기 때문에 충청도뿐만 아니라 팔도 사투리가 다 섞여서 공존하는 것도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신도안에는 일찍부터 사립 중등교육기관 1곳과 초등교육기관 2곳이 있었다. 1922년 계명의숙학원(鷄鳴義塾學院, 김정묵)과 1927년 사립신도학교(불교계 김정묵), 1929년 사립신성학교(상제교계 임기창)가 설립되었다. 면소재지 치고는 인구가 많았다는 증거인데, 최시형의 핵심 제자 3암 중 구암(龜菴) 김연국(金演局)이 1924년 시천교(侍天教, 나중에 上帝教로 교명 변경) 교도

천여 명을 데리고 신도안으로 들어와, 교인들이 황무지를 개간하고 학교를 세워 정착하면서 인구가 늘어났다고 한다.

1939년 제 3차 조선교육령 사립학교규칙이 발령되어 전국의 사립학교가 폐지되었고, 교육은 완전히 전시체제화 되었다. 더욱이 미나미 지로(南次郎) 조선총독의 교육방침에 의해 황국신민교육이 실시되었다. 이 영향으로 신도안의 두 사립학교는 폐교가 결정되었고, 두마석계공립심상소학교(豆磨石溪公立尋常小學校)로 합쳐졌다가, 1941년 두마석계공립국민학교로 명칭을 바꾸었다. 이후 1945년에 정식으로 6년제 신도국민학교는 개교를 맞이했다. 한편, 계명의숙학원은 1929년 사정은 알 수 없으나 폐교되었다가 49년 10월 신도고등공민학교(新都高等公民學校, 김재준 설립)로 복교, 54년 김영덕의 부친과 더불어 두마면의회 3인의 발기로 중학교 설립인가를 받고, 55년에 문교부 인가를 받은 사립 계명중학교가 개교했다. 당시, 자식을 객지로 보내서 공부시킬 형편도 아니었던 신도안 주민들로서는 반가운 일이었고, 학교를 세워서 글을 깨우쳐 주고 신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독립운동이나 다를 바 없었다. 그리고 그 발자취에 김영덕도 늘 함께 하고 있었다.

그는 신도국민학교를 나와 신도고등공민학교 졸업하고 검정고시를 친 후, 1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대전사범학교에 진학했다. 1958년 20세에 교사가 되었는데, 첫 부임지가 감격스럽게도 모교였다. 그가 교사가 되기 1년 전, 각고의 노력으로 학교를 지켜낸 부친은 연이은 사업실패와 약주를 많이 한 탓인지, 대견한 아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마흔아홉이라는 젊은 나이에 타계했다. 첫 발령을 받을 당시만 해도 신도국민학교는 교통편이 없는 오지여서 눈물을 머금고 매서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십리 길을 걸어 들어와야 했던 곳이었다. 1962년 5월 10일, 드디어 하루에 세 번 대전-신도안 버스노선이 개설되면서 부임 경쟁지가 되었다. 또한, 신도안은 논산군 관할이었지만 생활권역은 논산이 아니라 대전권이었고 신도안 주민들의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생겨났다. 물자도 풍부해지고 장사하기도 좋아졌다. 학생들은 대전으로 진학하기도 수월해졌고 통학하기도 편리했다.

교사가 적성에 맞기는 했으나 너무나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인지 아이들에게 원칙을 따져 엄격하게 대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특히, 거짓말하거나 약자를 괴롭히고, 법을 지키지 않는 아이들은 호되게 야단쳤다.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으려고 철저히 자기관리를 했다. 형제 중에서도 유독 아버지를 많이 닮아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의

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살고자 노력했다. 그러다보니 때로는 스스로 옥죄면서 고달픈 인생을 살았다는 생각도 든다.

모교로 첫 발령을 받았을 때, 부친의 3년 상중(喪中)이었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큰 짐을 지고 있었다. 학교에는 은사님들이 모두 계셨기 때문에 행동거지가 여간 조심스럽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친구 분이 딸(김영덕의 동창생)을 시집보내는 자리에 초대받아 갔는데 잔칫집을 초상집 분위기로 만들어버린 황당한 실수를 하고야 말았다며 겸연쩍게 웃었다.

“아버님 친구 분들과 은사님들이 다 계셨는데, 술 한 잔씩들 하시니까 노래를 시키셨어요.

그 때 부른 노래가 ‘옛 동산에 올라’였어요.

♪~내 놀던 옛 동산에 오늘 와 다시 보니, 산천의구란 말 옛 시인의 허사로다.

예 섰던 그 큰 소나무 베여지고 없구료~ ♪

아, 그런데 갑자기 손님들이 우는 거야. 우리 아버님 생각을 했던 게지.

고마 막 울음바다가 돼버려요. 내가 왜... 잔칫날 그 노래를 불러서 이렇게 굳어...

너무 미안했고, 너무 어렸었고 아무 것도 모르고, 가시방석이었어요.”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리운 친구, 그리운 아버지... 그날을 회상하며 다시금 눈시울을 붉혔다.

그가 꼽은 가장 존경하는 은사님, 6학년 때 담임이셨던 이상진 선생님은 신도초등학교 교가를 작사·작곡하신 분이기도 하다. 그분에게 음악이론은 배웠고, 덕분에 계명창(階名唱)을 다 외웠다. 사범학교에 가서 음악시간에 콜위분겐(Chorubungen)시창 시험을 보는데 제대로 하는 학생이 하나도 없었다. 절대음감을 타고난 건지, 노래에 소질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노력한 결과 유일하게 혼자 합격했다.

어릴 적 동네에는 작은 동산이 하나 있었다.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돌아올 때면 친구들 대여섯이 동산에서 격구(擊毬)도 하고, 자치기도 했다. 겨울에는 냇가에서 철사를 대어 만든 썰매도 탔다. 부남리 큰동네, 고개 너머 깊숙이 들어가면 안골, 작은 고개를 또 넘어 노릿골 사는 애들과 같이 놀았다. 개판이와 두실리는 멀어서 같이 놀진 못했다. 내성적인 성격에다 공부를 해서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는 중압감에 마음껏 놀지는 못했지만 씨름도 잘하고

배구도 잘하고 운동신경이 남달랐다.

신도안에서는 매년 ‘8.15 축구대회’가 열렸다. 해방의 기쁨을 나누면서 부남리 1·2·3구 3개 부락, 석계리 2개, 용동리 3개, 정장리 1개, 총 9개 부락이 참가해서 축구시합을 했다. 남선리(前대덕군, 現대전시)는 가까이 있어도 군(郡) 경계지역이라 참여하지 못했다. 남선리 주민들은 이래저래 소외감도 느끼고 부러워할 따름이었다.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다시 교사로 부임해서까지 바나나킥의 귀재였던 그는 줄곧 주전으로 뛰었다. 선수가 모자라면 어린 아이 너나없이 모두 다 들어가서 함께 뛰었다. 뜨거운 띄약별 아래, 옷이 흠뻑 젖는 것도 잊은 채, 이기려고 안간힘을 썼다. 구경꾼들의 응원소리도 하늘을 찔렀다. 그야말로 온 동네가 떠들썩한 잔치 한마당이였다.

이북사람들은 통일이 되면 고향에 갈 수 있지만 신도안 사람들은 갈 곳이 없다.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든 옛 동산, 내 부모가 묻힌 땅, 신도안! “강산 제일 계룡산에 뿌리를 뺏고~ 무궁화 꽃수레를 우리 손으로~ 힘차게 우렁차게 밀고 나가자(신도초 교가)” 그는 옛 은사님의 노랫말을 읊조리며 서글프고 한탄스러워도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면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가리라 다짐한다.

●  
대궐터  
말강구네  
막내딸



**육종신** (1941년생)  
계룡시 엄사면 광석2리

어렸을 때 신도안에서 살던 얘기 좀 해달라고 했더니, 팔순의 육종신은 일곱 살짜리 어린 애마냥 해맑은 얼굴로 동네 이름부터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다. 불암리(부남리), 개판이(東堡里), 소징이(松亭洞), 병부, 종로터, 대궐터, 진등(긴 언덕), 백암동, 또 백암동 이건너 저건너. 그리고는 무성영화에나 나올법한 재미난 이야기보따리를 하나하나 풀어놓는데 점점 그 시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육종신의 집안은 대대로 계룡산 할머니만 믿으면서 백암동 종로터에 자리를 잡고 살아왔다. 종로터에서 대궐터까지 할아버지 땅을 밟지 않고는 못 다닐 정도로 소문난 땅부자였지만, 일제가 1912년 식민지 악법인 토지조사령을 공포하여 소유권을 약탈하고 토지재분배를 하는 바람에 적잖은 땅을 빼앗기고 말았다. 아버지는 수확한 벼를 집계하거나 쌀금을 올리고 내리는 말강구를 하며 대궐터에서 짜전을 운영했다. 그녀는 2남 2녀 중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내딸로 태어났다. 사방이 찢어지게 가난하던 시절에도 장터에서 자릿세를 받고, 일꾼 셋을 두고 살 만큼 양식이 풍부했다. 천진난만한 막내딸은 이웃집에 쌀을 퍼 돌리고, 아버지는 인심이 후했고, 상이군인(傷痍軍人)들과 겸상을 하고 재워주며 침도 놔주었다.

작은아버지는 귀여운 조카를 업어주려다 댛돌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장애인 되었다. 아버지는 장터에 고패집을 지어주고 말강구질 해서 벌어먹게 했고, 숙모에게는 술집을 하나 차려줬다. 그녀는 겨우 걸음을 떼자마자 십환짜리 동전 하나 얻는 재미로 작은아버지 가게까지 기어가다가 무릎에 흠이 졌다고도 한다. 그녀의 유일한 일과라고는 논에 나가 새를 쫓는 것이었는데, 지금도 참새만 보면 징글징글하다며 손사래를 쳤다.

아버지는 추수가 끝나면 윗방 마루에다 곡식을 쌓아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방아를 짚어 내다팔았다. 가슴팍까지 오는 쌀독에 쌀이 가득 차면 그녀는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퍼주고, 바닥이 보일쯤이면 쌀 푸다가 향아리 속으로 꼬꾸라져 결국 깨먹고 말았는데, 저녁에 돌아온 아버지는 그러려니 하면서 삼베에다 풀질해서 깨진 독을 붙였다. 싸전 곳간에는 콩, 팥, 메밀, 찹쌀, 멍쌀, 호밀, 온갖 곡식들을 무더기로 쌓아놓았는데 마치 공동묘지 같았다. 하지 감자 나올 때는 주체를 못할 정도였다. 냉면집에 메밀 퍼다 주고 무슨 맛인지도 모르는 냉면을 얻어먹기도 했다.

그 시절 신도안에는 별의별 기괴한 일들이 일어났다. 우선, 그녀가 여섯 살 때 어머니는 솥용추에 빠져 돌아가셨다. 그날은 증촌 장날이었는데 아버지는 쌀금 매기러 가고 집에 없었다. 어머니는 백암동 장정에서 몸뚱이 부서지는 줄 모르고 정신없이 보리방아 두 번 짚어놓고, 이유도 없이 솥용추로 갔다가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지나던 장꾼들의 도움으로 시신은 건져 올렸지만, 객사한 사람은 집안으로 들이지 않는 법이라 울타리밖에 가마떼기 깔고 홀이불을 썩워놓았다. 그 나이까지 짓을 떼지 못한 응석받이 종신이 어머니의 차가운 짓을 만지면서 칭얼대자, 외삼촌은 애처로워 눈물을 글썽였다. 3일 만에 염을 하고 상여가 나가는데 어린 딸이 쫓아오지 못하게 막고는 생명수 옆자리에 묘를 썼다. 뒷간에서 밥풀을 주워 먹어도 될 정도로 살림을 깔끔하게 하시던 어머니가 죽자, 옹기전만한 장독대에 있는 장들을 이웃사람들이 다 퍼가고, 아버지는 돈푼개나 있는 한량이라 본심이, 왕백이 기생들 끼고서 허구한 날 술만 퍼마셨다. 나중에 울케 얻었다고 인사하러 산소에 가는데, 누군가 자

신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것 같고 뒷골이 서늘하여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다. 어머니는 딱 한 번 꿈에 나타났는데, 어린 딸의 손을 뿌리치며 선녀의 모습을 하고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한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1975년 계룡산정화사업)에는 쌀 허비한다고 계룡산 기도꾼들을 다 몰아내고, 삼군본부가 들어올 때 암자들을 다 철거했지만, 독립운동가들의 은신처였던 삼신당과 산신령의 선물을 받은 해봉스님이 곳곳이 버틴 제석사(帝釋寺)는 유일하게 남아있다. 제석사 석굴에는 용구추(龍口湫)라는 샘이 있는데, 물만 먹고 살아도 백년은 산다고 한다. 현재 경비대가 들어서 있는 계룡산 할머니바위를 당시 군인들이 부수려하자, 양지바른 날 느닷없이 안개가 끼고 무지개가 떴다. 그들은 등골이 오싹하여 포기하고, 샘을 파서 옥수(玉水)를 올리며 무사안녕을 기원하고 있다.

옛날에 암용추와 솟용추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멀쩡한 사람이 기도드리러 가서 떡 시루 박아놓고 죽고, 증촌장 가려고 지나가는 사람은 귀신이 불려대어 미끄러져 죽는 괴이한 곳이었다. 왜정 때는 일본사람들이 물을 퍼내려 하자, 소죽 쑤는 큰 가마솥 뚜껑이 나타나 암용추를 덮어버렸는데 그 뚜껑을 열었더니 시퍼런 물이 솟구치더라. 6.25 때 미군이 들어와서 미신이라면서 대포를 쏘아댔더니 바위가 굴러 떨어졌는데 이튿날 아침에 가보면 그대로 붙어있더라. 또, 지나가다 손전등을 비춰보면 물속에서 푸르르 부스럭 이상한 소리가 나서 들여다보질 못했다. 골짜기에는 금주사 바위가 있는데 객기부리는 청년들이 그걸 캐내려고 하자,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고 하늘이 요동치는 바람에 그대로 두고 줄행랑을 쳤다고 한다.

요즘 세상에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졌다. 대개 묘를 잘못 쓰면 산신이나 조상의 노여움을 사서 동네에 재앙이 들거나 집안에 흉사가 생긴다고 했다. 옛날에 누가 가새봉에 묘를 썼는데, 그 집 할머니는 입이 찢어져 물도 삼키지 못했다. 또, 이웃집 종감이네 엄마는 아들 하나 낳고 미쳐서 죽었는데 국사봉 날등에 묘를 썼다. 계룡산 기도꾼들이 집을 지고 들어가다 저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려 살금살금 가봤더니 양지바른 곳에 무덤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땅이 짹 갈라지고, 관 뚜껑이 팍 열리더니 여자가 앉아서 살려달라고 하더라. 동네 이장을 불러다 여자를 꺼내서 데리고 갔는데, 시퍼렇게 일곱 매듭 묶은 자국이 선명하여 어찌나 무섭던지 그이가 있으면 동네사람들이 물 길러 가지도



않았다고 한다.

계룡산 골짜기로 들어가면 먹뱅이, 우적골, 갯골, 뗏골, 이백리, 수국리가 있고, 동학사 넘어가다 보면 쌀바위가 있다. 보살이 혼자 먹을 정도의 쌀이 매일 조금씩 나왔는데, 퍼내면 또 금세 고였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드리러 왔던 신도가 욕심을 부려서 마구 파냈다가 결국 쌀이 나오기를 그쳤다고 한다. 또, 금강올이라는 뚱뚱한 여자는 삿갓을 쓰고 다녔는데, 청학사 올라가는 상왕바위 밑에 기거하면서 생쌀을 먹고 술잎을 뜯어먹으면서 ‘어허이~ 신도백판, 신도백판’ 중얼거렸다. 그랬더니 새까맣던 바위가 진짜로 하얗게 변했다고 한다. 밀목재에서는 소가 메주콩을 먹고 배가 터져 죽었는데, 소를 잡아 냇물에다 씻어보니 뱃속에서 붉은 콩이 나오고 쪼글쪼글한 콩도 나와 그걸 꺼내다 메주를 썼더니 된장 맛이 끝내주더라.

그녀가 아홉 살 때, 무슨 종교인지는 알 수 없으나 종로터에서 쌀 서른 가마니로 떡을 하고, 돼지 스무 마리를 잡아 기도회를 열었는데, 백암동 근방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그 떡을 얻어다 고추장을 담아먹을 정도였다고 한다. 암용추와 솫용추에는 기도꾼들이 끊이질 않았는데, 기도드리고 나서 띄워놓은 마른 명태가 한 가득이었다. 그걸 유치원이라는 이가 건져다 말려서 대궐터 장에다 팔아먹고 살았다.

전쟁이 터졌을 때 백암동에도 한바탕 난리가 났다. 인민군들은 산에 숨어 있다가 야밤에 몰래 내려와서 총부리를 겨누고는 호박나물이니 배추니 남아날 것 없이 죄다 가져가버리고, 미군들은 인민군을 숨겨줬다고 장터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불바다가 되었다. 그녀는 저건너 동네 물레방아 밑에 숨어서 총알이 썩썩 날아다니는 소릴 들었고, 미군들이 무밭에서 무를 뽑아다 우둑우둑 베어 먹고,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똥 싸고 묻는 것도 다 지켜보았다. 어쩌다 마주치면, 처음엔 무서워서 피하다가 미군들이 마누라 사진도 보여주고 바둑알처럼 생긴 하얀 껌도 줘서 나중에 아무렇지도 않았단다. 백암동 마을 공회당 앞에는 미군의 총에 맞은 인민군들의 시신이 쌓여있었는데, 드럼통에 쑤셔 넣어 몇 트럭이나 싣고 갔다고 한다.

어지러운 세상이 지나고, 외상 쌀 얻어먹던 중매쟁이한테 속아, 그녀는 열아홉에 나분들로 시집을 왔다. 굶기를 밥 먹듯 하는 집에 시집와서 인물만 뻥하고 성질 더러운 남편 만나 그 때부터 고생문이 열렸다. 잘 알아보지도 않고 시집보냈다면 아버지는 노밭대밭 하면서

작은오빠를 작대기가 부러지도록 때렸다. 친정오빠는 논산 과자공장에 조청 배달하러 가다가도 고생하며 사는 막내동생이 가여워 자주 들여다보곤 했다. 쌀이니 보리쌀이니 조청을 내려놓고 가고, 담요나 빨랫비누도 사다주고, 벨벳 뉴퐁 양단 호박단 같은 치맛감도 떠다 주었다.

희한한 일들이 그녀를 따라다녔어도 옛날이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다. 애장구덩이라고 홍역하다 죽은 애들 파묻어 놓은 중터 산 밑에다 보리 갈고, 누에치면서 살았는데, 비만 오면 애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원통골이라는 데는 사람이 죽으면 나무에다 걸쳐놓아서 짐승이 다 파먹었는데 이상하다는 생각도 안 들었다. 스물셋 삼월삼진날, 나분들에서 암용추까지 무언가에 이끌리듯 한걸음에 달려가 기도하고 춤추면서 계시를 받았지만, 거부했다. 그 때문인지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모진 풍파를 겪었다. 다만, 1년에 한 번씩 향한리로 대감굿을 하러 다녔더니 살기도 괜찮아지고, 자식들도 편안해졌다고 한다.

•  
**엄사리  
 산태미터  
 젊은 이장**



**김 필 화** (1946년생)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미륵계열의 대한불교 법상종(法相宗)을 이끌던 송인숙 스님이 신도안을 피난처로 지목하여 부남리에 부남사라는 절을 짓고, 불암보육원을 운영하면서 고아들을 돌보았다. 그 사찰의 신도회 회장을 맡았던 고모의 권유로, 김필화 가족은 서울 제기동에서 살다가 그가 두 살 되던 해에 신도안으로 내려왔다. 신도안에는 마땅히 농사지를 땅이 없어, 임시 거처에서 1년 정도 살다가 엄사리 큰동네(본동)에 논 2천 평, 밭 3천 평의 농토와 집을 마련해서 이사했다.

아버지는 탐골공원 인근 장전거리에서 운영하던 가구점을 정리하지 않고, 엄사리와 서울을 오가면서 농사는 일꾼들의 손에 맡겼다. 어쩌다 서울에서 내려오면 동네 사람들이 술이라도 한 잔 얻어먹으려고 텃새 아닌 텃새를 부렸다. 농사는 문외한인 양반이라 못자리를 해 놓고도 피와 벼를 구별 못해, 들고 다니던 부채를 좌우로 쓱 쓸어보고는 바람에 한들한들

흔들리면 피고, 뺏뺏이 서 있으면 벼인 줄 알았다. 추수 때가 되면, 동네 청년들이 품삯도 안 받고 마당에다 벳가리를 쌓아다주었다. 그럼 어머니는 막걸리 좀 하고 팔죽 한 판재기 썰서 한 그릇씩 먹여서 보냈다. 서울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머니의 택호는 서울댁이었다. 아버지 생신 때나 제사 때 정갈하게 음식을 하고, 기장술을 빚어 노르스름하게 잘 익으면 대접했는데, 동네 어른들에게 사찰(四察: 눈코입귀로 두루 살피다)하다는 칭찬을 들으며 나눠먹는 문화, 대접문화를 퍼트렸다.

예전에는 밀주단속이 심했다. 농번기에 술은 많이 필요하고, 양조장은 하나뿐인데다가 비싸서 집집마다 몰래 막걸리를 담가먹었다. 명절에 제주(祭酒)로 조금 담그는 건 눈감아줬지만, 양조장에서는 매출이 좀 줄었다 싶으면 세무서에 신고했다. 벌금 무는 게 무서워 단속 뜬다는 말만 나오면 그냥 독채로 깨트려 내버리거나 직원이 보는 앞에서 쏟아부어버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 때, 밭 넓은 이장이 가서 세무서 직원들 바짓가랑이 붙잡고 주막에다 주저앉혀, 술이야 밥이야 사 먹이고 돈 찢려줘서 무마시켰다. 그 틈에는 요령껏 단속을 피하는 집도 있었다. 대청마루 밑 한 가운데에 공간을 파서 밀실에다 숨겨놓고 먹다가 마루 짝을 덮어놓으면 감쪽같았다.

엄사리 본동은 음절, 절터마을이라 불렀는데, 윗말은 아직 남아있지만, 아랫말은 천지개 벽이 따로 없을 변화가로 변해버렸다. 검은 바위가 있던 검배(玄巖)라는 동네는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예전에 엄사리를 또 다른 말로 산태미터라고 불렀다. 능선이 가운데로 쪽

뺏어나가다가 양쪽으로 폭 거진 구릉지인데, 산태미(삼태기) 같이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산태미에 재나 곡식을 가득 담으면 넘친다. 이 동네가 부자는 들어오면 까먹고 나가고, 가난한 사람은 밥을 먹고 산다고 했다. 딱 삼태기만큼만 먹고 산다는 전설 아닌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 부자도 없고, 가난뱅이도 없이 모두 다 공평하게 사는 동



엄사1리(2006년)

네였다.

6.25 때도 업사리는 큰 피해가 없었다. 물론 좌·우익 편은 갈렸지만, 밀고 밀릴 때 서로가 미리 정보를 교환하고 숨겨줘서 어쩌다 행방불명이 된 사람은 있어도 죽이고 죽는 일은 없었다. 생각이 좀 다를 뿐이지 서로 미워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아주 잘 사는 사람도 없고, 너무 못 사는 사람도 없이 서로 엇비슷하게 사니까 털끝 하나 해할 일이 없었다. 본동산 밑에 있던 인민군 기마부대가 밤나무 숲속에 말을 매놓고 죽을 먹이면서, 밤이면 요깃거리를 구하러 민가로 내려왔다. 그의 집에는 동네에서 유일하게 재봉틀이 있었다. 어머니는 바느질 솜씨가 좋았는데, 몰래 담 넘어 들어온 인민군들의 찢어지고 뜯어진 군복을 고쳐주기도 했다. 눈이 소복하게 내리던 날 밤, 쥐도 새도 모르게 북으로 도망갔다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 산등성이에 길이 훤히 나 있더라.

업사리에서 석계리와 두계리까지는 각각 4km, 중간에 있는 양정고개 신도역은 지금은 폐역이 되었지만, 호남선 철로에서 지대가 가장 높다. 지금까지도 몇 번이나 철로를 깎아내리는 공사를 하고 있다. 옛날 증기기관차였을 때, 화통에 모래를 싣고 다니면서 철로에 솔솔 뿌리면 마찰에 의해 힘을 받아 올라갔다. 석탄에서 디젤로 연료가 바뀌자 성능도 좋아지고 짐도 많이 실게 되었다. 연산에서 올라온 기관차 한 대가 밀어주지만 하고 돌아가기도 했다. 사투를 벌이던 기찻길을 새벽에 가보면, 시꺼먼 기름덩어리가 푹푹 떨어져 있었다. 길 한쪽에 치워두었다가 학교 가기 전에 철로에다 매끈매끈하게 발라놓으면 기차가 미끄러지면서 오르락내리락 뱅글뱅글 제자리만 돌았다. 그 때 사람들이 자가용 타듯 기차를 잡아타고 다녔다.

옛날에 두계역 앞에는 이른바 깡패가 많았다. 남선리는 물론이고 신도안 사는 사람들은 업사리나 두계리 사람들에게 꿈쩍을 못했다. 왜냐하면 외지로 나가기 위해 버스를 타려면 업사리 양정고개로 나와야 했고, 또 기차를 타려면 두계역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껍적거리고 덤벼봤자 두들겨 맞기만 하고, 통행세를 단단히 치러야 했다. 그리고 쓰리꾼(소매치기)도 많았다. 대전-논산 간 버스 안에서 대전 팀은 쓰리를 해서 양정에서 내리고, 논산 팀은 논산에서 양정까지 왔다. 기차에도 쓰리꾼들이 득실거렸는데, 훗친 돈을 신도역과 개태사역 부근 어느 지점에다 던져놓았다. 그리고 두계역에 내려 찾으러 갔다. 그런데 어느 날, 때 아닌 횡재를 한 사람이 있었다. 새벽에 신도안에서 옛을 고아 두계역으로 짊어지고 가 대전으

로 팔러가려던 참인데, 철독에서 이만한 가방 하나를 주워 열어보니 돈이 들어있었다. 얼른 돈가방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다. 그 양반은 가진것 없이 살다가 그 해에 남의 논 열 마지기를 샀다고 한다.

그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배구선수로 차출되어 두마면 대표로 논산 가서도 뛰고, 남선국민학교 출신이라 대덕군 대표로 신탄진 연초제조창에서 열리는 대회에도 나가고, 진잠면 대표로 스카우트되기도 했다. 누나들과 친척들이 서울에 살고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자주 서울엘 다녔고, 시골에서 벗어나고 싶어 약간의 방황도 했지만, 스물 되던 해에 착실한 농사꾼으로 정착했다. 아버지가 환갑의 나이로 연로하셨고 전답을 물려줄 자식도 딸랑 외아들 하나뿐이었다. 농사일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집안 농사를 도와주던 동네 형님들을 보고 배웠다. 한 마지기에 한 섬밖에 나오지 않던 논에서 비료가 배급제에서 자유판매제가 되고, 통일벼 IR667을 재배하면서 수확량이 서너 섬씩 나오게 되자, 배불리 먹고 살만큼 넉넉한 동네가 되었다.

스물다섯, 동네에서 가장 어린 농사꾼이 이장이 되었다. 그는 거침없는 리더십과 과감한 결단력을 발휘하여 하루하루 근근이 살던 깡촌을 자립마을로 바꾸어놓았다. 우선, 길을 새로 냈다. 건설공병단 단장에게 부탁했더니 덤프트럭 세 대를 열흘간 내주었다. 군인들과 합심해서 동네에서 누구 하나 빠짐없이 동참했고 단합이 잘 되었다. 두계천에서 자갈과 모래를 채취해서 길에다 깔고, 구릉지를 밀어 평평하게 땅을 고르고, 꼬부라진 길은 바로잡아 넓혔다. 초가지붕은 뜯어내고 슬레이트지붕으로 개량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그의 집에서 음식대접 해가며 마흔이 넘은 각 반장들과 마을 일을 의논했다. 밭에 뿌리는 비료나 수도작(水稻作)비료는 평수대로 공평하게 배분했다. 동네 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하여 자신의 땅 5천 평을 선뜻 내놓았고, 이 모든 일을 진두지휘한 젊은 이장이었기에 주민들의 신뢰도 두터웠다. 새마을운동 열풍에 부응하여 자신들의 손으로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었다는 자부심도 대단했다.

남종흙 씨와 함께 제일 먼저 비닐하우스 농사를 시작해서 소득증대에 힘썼다. 그 후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상추를 재배하여 대전으로 내다팔았다. 그런데 교통이 발달한다고 해서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었다. 조금 남는 것이 있으면 이웃과 나눠먹던 순박한 시골 인심은 어느새 야박해져갔다. 쌀은 내다 팔 정도로 넉넉하지는 않아, 돈이 되는 채소나 고구마

를 심어서 내다팔았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억척스러워졌다. 대전역에서 도매시장까지 운반해주는 지게삿이 아까워 목이 빠지게 끙끙거리면서 10관(37.5kg)이나 되는 상추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팔러 다녔다. 게다가 곁에는 좋은 걸 보이게 하고, 속에는 나쁜 걸 넣는 이른바 속박이를 서슴없이 했다. 하지만 그의 딸 이름을 딴 수정이네 물건은 대전역에 내려놓기만 하면 보지도 않고 서로 사가려는 제일 좋은 상품(上品)으로 인정받았다.

620사업으로 동네가 들썩거리기 시작했다. 헬기를 타고 와서 사진도 찍어가고, 옛날에 도읍지가 될 뻔 했다는 말도 있었으니, 뭔가 크게 되는 줄 알았다. 보상을 더 받으려고 버티기도 하고, 개발지역에 안 들어간 동네는 반대하면서 욕심각신했다. 하지만 국책사업에 어설피 대들어봤자 손해만 보지 이익이 별로 없다는 걸 깨달았다. 일찌감치 내놓고 나가서, 대토(代土) 산 사람들은 또 땅값이 오르니 결과적으로 보상을 잘 받은 셈이다. 또한 인구가 많이 유입되어 편의시설도 생겨나다보니 건물 경비도 보고, 유치원에서 애들 밥도 해주는 노인 일자리도 늘어나 오히려 살기는 더 좋아졌다.

“우리 동네 엄사리는 옛날부터 아주 점잖고 주위에서 모범이 되는 동네였어요.

현재에도 일부는 옛 동네가 남아있는데, 더 이상 개발보다는

옛것이 같이 공존해가면서 이웃끼리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웃끼리 정답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산태미만큼만 먹고살면 바랄 게 없다. 그는 청춘을 함께 한 동지들의 빈자리를 그리워하며 오늘 하루도 마음을 다잡는다.

●  
나분들  
착한 농부  
이야기



**김 광 수** (1946년생)  
계룡시 엄사면 광석1리

2020년 9월 7일, 호남선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서대전, 가수원, 흑석리를 지나오는 동안 빗방울은 더욱더 세차게 차창을 때렸고, 살벌한 포털뉴스들을 검색하다보니 어느덧 계룡역에 도착했다. 사상 초유의 긴 장마와 태풍이 연이어 덮치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가운데 나분들 착한 농부를 만나러 가는 길은 마음이 편치 않았다. 자연재해로 인하여 지난해보다 쌀 생산량은 줄어든 전망에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아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로 농촌의 일손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그로인해 하늘만 믿고, 땅만 의지하며 사는 농부의 시름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다.

김광수는 광석리 방죽안에서 농사지며 부모님 봉양하고,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성실히 살아왔다. 실제로는 올해 일흔아홉이지만, 전쟁으로 혼란한 시기였고, 항렬에 따라 개명을 해서 호적나이는 4살이나 줄었다. 우연이지만 나이가 줄어든 만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날이 늘어난 셈이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의 집은 전형적인 배산임수(背山臨水) 형국으로 뒷산은 집터를 포근히 감싸고, 앞에는 망중한(忙中閑)을 즐기며 낚시하는 소류지(沼溜池)가 있다. 언덕 위에 지은 집은 멀리서도 눈에 띄는 파란색 창고에 트랙터를 비롯한 갖가지 농기구가 즐비하다. 부슬부슬 내리는 비에 안개까지 끼어 철길 너머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눈앞에는 그의 일터인 비닐하우스 여러 동이 펼쳐져 있고, 푸른 들판에는 곡식이 영글어가고 있다.

광산 김씨 의정공(議政公) 16대손, 목사공파(牧使公派) 12대 차종손(次宗孫)으로 서울 사는 형님을 대신해 조상의 묘역을 돌보고 집안 대소사를 책임지고 있다. 신위를 모신 재실은 도곡리에 있었는데, 삼대를 살던 산지기가 나가자 그의 집은 나분들 집을 팔아 지네모양을 닮아 옹골이라 불렀던 오공곡(蜈蚣谷)으로 이사를 갔다. 정든 집을 떠나기 싫어 군대 휴가 나와서 울고불고 난리를 쳐봤지만, 종손(宗孫)인 아버지가 결정한 일을 말릴 재간이 없었다. 제사 때는 8색, 12색 과일을 한 자(30.3cm)씩 무진장 길게 쌓아올리고 찹쌀로 떡을 했다. 보리흥년에 먹을 쌀이 없어도 찹쌀단지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쌀 없으면 찰밥 해먹으면 되지’라고 철딱서니 없는 소리들을 하지만, 정성을 다해 조상을 모시는 건 사명과도 같았다. 그리고 더 이상 재실집에 들어올 산지기가 없어 결국 재실을 팔고 살림집에서 사대봉사(四代奉祀)를 하며 제수는 감품(減品)을 했다. 5대조부터는 시제를 올리고, 1년이면 12번 기제사를 지내며 전국에서 오는 친척들 수발까지 들었다. 형편이 좀 나아지자 종종 임야를 팔고 가진 돈을 털어 3년 만에 한옥으로 된 훌륭한 재실, 영효재(永孝齋)를 완공했다. 아버지가 못하면 자신이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숙명처럼 받아들였고, 대대로 효를 실천해온 집안이라 착한 자식들도 잘 따라 줄 것으로 믿고 있다.

역설적이지만 그는 변화를 원했다. 마땅히 지켜야 할 건 지켜야 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동네가 발전하는 것은 환영한다. 굶은 날씨에도 동네 입구 연산천을 따라 남공주 IC까지 이어지는 도로확장공사가 한창이었다. 도로가 나아 숨통이 트이고 훨씬 더 살기가 편하고 여유로워진다는 이유에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나분들 큰동네를 비롯해 광석리, 합한리, 향한리, 아이들은 소리재를 넘어 도곡리 안고랑으로 학교를 다니고, 유동리에서는 철길 넘어 광석리로 농사를 지으러 왔다. 옛날에는 사람소리 꽤나 들렸는데 이제는 다 떠나고 듕성듬성 몇 집만이 고향을 지키고 있고, 도곡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 폐교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지금도 작목연구반에서 새로운 농법을 개발하기 위해 정보를 교환하고, 선진지 견학을 다니고 있다. 마을입구에는 ‘청정마을, 계룡 쌈채 피망’이라는 큼지막한 입간판이 세워져 있었는데 전형적인 농촌 브랜드를 연상시켰다. 1998년도부터 토마토를 심기 시작했고, 상추, 썩갓 등, 채소를 재배하다가 2년 전부터는 딸기를 키우고 있다. 농촌 인력난을 고려해 손이 덜 들어가는 작목으로 전환하거나 양액재배(養液栽培) 등,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다. 농기계 발달과 화학제품 개발로 농토를 늘리고 대규모 농사도 가능해졌다. 제초작업을 물론 모내기에서 추수까지 전부 기계화 되었다. 얼마 전에는 기계에 약을 넣어, 모를 심으면서 동시에 약을 떨어뜨리는 걸 처음 시도해봤는데 아주 효율적이다. 이제 막내아들까지 직장을 그만두고 내려와 농사에 뛰어들었다. 아버지로써 자식이 도시에서 편하게 살길 바랐고, 힘든 농사를 물려주고 싶지 않아 속상했다.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잘 하니

까 지금은 아낌없이 지지해주고 있다. 역대 연봉 못지않은 큰 소득을 올리고 있어 농사짓는 보람 또한 크다.

한 가지 더 보람된 건, 이장을 맡아오면서 동네 발전에도 기여했다는 사실이다. 사방사업(砂防事業), 식목행사, 신작로 개설, 비료 배분 등 마을 일에 팔 걷어 부치고 나섰고, 수해라도 나면 군청에 찾아가 복구 사업을 앞당기기도 했다. 지그재그로 난 땅을 반듯반듯하게 농지정리를 할 때, 군청에서 적산토(敵産土)를 불하받으라고 이장에게 우선권을 줬지만 받지 않았다. 괜히 동네 사람들과 싸움만 나고 골치 아픈



광석리의 고목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잇속을 챙기지 못해 자신의 명의로 된 땅은 적어도 등골이 휘도록 부지런히 일해서 자식들 대학공부까지 다 시켰다.

마을의 화합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산신제를 지낼 때 제관으로 참여한 적도 있다. 축관과 세 명의 소염사는 제사를 지내는 정월 열나흘 날 자시(子時)가 되기 열흘 전부터 부정 타면 안 된다 하여 비린내 나는 생선, 심지어 새우젓이 들어간 김치마저도 입에 대지 못했다. 매일 찬물에 목욕재계(沐浴齋戒)하고, 경비를 충당하는 등,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제관들은 엄동설한에 제사 음식을 지게에 짊어지고 어두컴컴한 산길을 올라가는데 참나무 장작불을 벌겍게 피워두어서 무섭지도 춥지도 않았다. 곧이들을 말은 아니지만, 옛날 어느 소염사는 산제당 올라가는 길에 지게가 기울어져 밤 한 톨을 흘렸는데, 그걸 옆드려서 주워 먹고 죽었다는 일화가 있다. 소지(燒紙)를 올리고 제사를 마친 후에 내려오면, 그들의 부인들은 소머리로 국밥과 안주를 만들어 2~300명이나 되는 동네사람들에게 손수 음식 대접을 했다.

타고난 농사꾼처럼 보이지만, 그의 꿈은 학교 선생님이었다. 동네에서 수재소리 들어가며 대전사범중학교로 진학했고, 자연적으로 사범학교에 가서 교사가 되려고 했다. 그런데 1961년 사범학교가 폐지되고 4년제 교육대학으로 바뀌면서 고등학교를 가서 대학을 나와야 교사가 되었는데, 가정형편상 대학은 꿈도 못 꾸었다. 울화도 치밀고 좌절감에 적잖이 방황도 했다. 전쟁시절엔 미군들에게 공책을 얻기 위해 양정고개로 가서 기다린 적도 있었다. 양정고개는 경사가 심하고, 지반이 약해 비만 오면 웅덩이로 변했다. 그날은 백발백중다 빠져서 오도 가도 못하다가 구조차량이 올 때까지 몇 시간이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는데, 아이들이 그들의 무료함을 달래주었다. 그 보상으로 초콜릿이나 껌, 공책을 나눠줬다. 얼마나 공부가 하고 싶었으면 주린 배를 잡고 비를 쫓닥 맞아가면서 공책 한 권 받아들자고 몇 시간을 고생했을까? 종이가 없을 때는 땅바닥에 글씨를 써가며 공부했다. 요즘 아이들이 필기구를 함부로 버리는 걸 보면 아까워 죽겠단다. 지금까지도 공부를 못한 게 통한(痛恨)이라며 가슴을 찔다.

그렇다고 마냥 고단한 삶이었던 것만은 아니다. 폭격으로 간이학교마저 부서졌어도 동네 아이들은 재실에 모여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았다. 학교에서 우유 배급을 타서 집으로 돌아오면 쌀하고 같이 끓여서 끼니를 때우곤 했는데 영 입맛에 맞지 않아 물렸다. 동네에 배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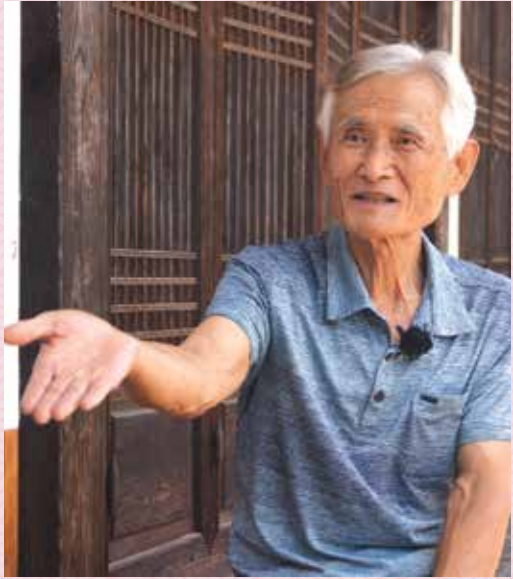
으로 나온 흑설탕과 우유가루를 섞어 찌면 웬만큼 먹을 만한 간식거리였다. 또, 동네에 옛 장수가 오면 전선줄 벗겨서 구리 모아다 주고, 떨어진 신발짝이나 손가락 같은 쇠붙이 가져다주고 가락엿 한 토막과 바꿔먹었다. 겨울에는 논바닥에 물 가둬놓고 신나게 썰매를 타고 놀았다. 논갈이를 못한 주인은 장난꾸러기들을 야단치기도 하고, 왕겨를 잔뜩 뿌려서 얼씬거리지 못하게 했다. 농사를 지어보니까 이제는 그 심정을 잘 알 것도 같다.

동네사람들이 다 둘러앉아 쉴 만큼 넓은 돌이 있었다는 나분들, 합한리고개 무덤 속에서 학이 나와 들녘에 앉았다는 하기들, 그 학이 돌아왔다는 도리들, 명당터로 불리던 복덕마당. 우암(尤庵)이 회덕에서 스승 사계(沙溪)를 위해 사골국을 고아 오다가 식을세라 품에 안고 쉬었다는 개태날 느티나무, 연산장 보러 넘어 다니던 장고개 진날. 이제는 그 이름조차 가물가물한 과거 속으로 잊혀져가고 있다. 그리고 해방을 맞아 고향길로 향하던 열차는 화재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굴(現 광석터널)속에서 폐죽음을 당해 인골은 발부리에 채었다. 그 산자락에는 인민군들이 긴 땅굴을 파놓고 저항했고, 미군들은 B29로 연일 폭격을 가했다. 주민들은 문틈 사이로 빛이 새어나갈까 담요를 씌워놓고 두려움에 떨었다. 김광수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농부로 살면서 아름다운 고향의 옛이야기와 자신이 경험한 혼돈의 역사를 담담하게 전했다. 그리고 쉽 없이 달리는 기차를 바라보며 오늘도 열심히 하루를 살고 있다.

●  
합한이  
도련님들



**안중천** (1948년생)  
계룡시 업사면 유동리



**김기중** (1948년생)  
계룡시 업사면 광석리

안중천과 김기중은 동갑으로 같이 학교를 다니고, 형편도 엇비슷한 죽마고우(竹馬故友)이자 철십 평생을 함께 한 벗이다. 이들을 취재하면서 김만중(金萬重)이 쓴 「서포만필(西浦漫筆)」의 ‘오성(李恒福)과 한음(李德馨)’편(하-51)이 문득 떠올랐다. 어렸을 때는 장난이 심하고 기지가 뛰어났던 말썽쟁이들. 자라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소신 있게 행동하고, 지금까지 곳곳하게 우정을 지켜나가고 있는 합한이 도련님들이다. 합한이는 도곡천, 향한천, 유동천 세 물머리가 합쳐져서 흐르는 곳을 말한다. 안중천은 순흥 안씨(順興安氏) 양공공파(良恭公派) 세거지

유동리에서, 김기중은 광산 김씨(光山金氏) 문헌공파(文憲公派) 후손으로 제일 부자동네 향한리 권돌마을에서 각각 태어나 함께 도곡국민학교를 졸업했다.

안중천의 조부는 절손이 되자 작은집 장손인 그의 부친을 양자로 들여 가문을 이었다. 부친은 물론이고 종손인 안중천은 남부러울 것 없는 귀한 대접을 받았다. 아버지는 왜정(日帝強占期) 때, 18세의 나이로 최연소 기자가 되었다. 대전 동방신문사에서 수습딱지를 떼고, 만주 열하신보사(熱河新報社)에서 기자생활을 했다. 1944년 11월, 부친상(喪)을 당하여 식솔들을 데리고 만주에서 고향집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어머니 택호(宅號)도 만주댁이다. 당시에는 조선의 예법이 남아있어 적어도 1년 상은 치러야 했다. 곧 항복할 것 같은 일본군의 정세를 꿰고 있던 아버지는 고향집에서 미적대고 있었다. 직장의 복귀 명령이 거듭되자 이듬해 8월 초 만주로 향했다. 기차로 보름씩 걸리는 여정이었다. 신의주쯤 올라가자 해방을 맞이해 그대로 발길을 돌렸다.

처음 16대조가 버들골에 터를 잡고, 그 후손들은 유동리 일대에 퍼져 살았다. 증조부 대에는 쌀 300석을 거두는 동네에서 제일가는 부자였다. 그로부터 200여 년을 같은 집터에서 대대손손 살고 있다. 가끔 지나다니는 지관이 들어와서는 땅기운이 좋다는 말을 했다. 증조모가 돌아가셨을 때 대전일보 부고란에는 상주가 47명으로 유례없는 기록으로 남았다. 앞으로 자손의 번성을 기원하며 건너편 산 개구리터에 묘를 썼다. 옛집은 초가지붕으로 위쪽에 안채가 口자형으로 3칸, 현재 살고 있는 집터인 사랑채가 一자형 3칸, 바깥쪽 큰 사랑에는 마름이 살았다. 동네에서 가장 큰 집이었던 그의 집 안채는 6.25 때 인민군 장교들이 기거했다. 어느 날, 그들이 사랑채로 내려와 닭을 잡아먹는 걸 보고 ‘아저씨, 왜 우리 닭 잡아먹어요?’라며, 철부지 아들이



유동리 전경

대들자 부모님은 혹여 귀한 아들 다칠까 그들의 비위를 맞춰가며 닭을 삶아 대령했다.

광석리 향한리 유동리 삼총사는 매일 함께 산등성이를 넘어 학교에 갔는데, 거리는 3km정도였지만 아이 걸음이거니와 해탈(솔데

없는 판 지)하면서 가다보면 1시간이 넘어서야 도착했다. 중간에 엉뚱하게 씨름도 하고, 호기심이 많아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면서 여유만만이었다. 6학년 때는 교장선생님 사택에서 진학반 특별수업을 같이 받았다. 키도 크고 걸음도 빨라서 수업 끝나고 집에 왔다가 저녁 먹고 다시 가면 2~30분이면 충분했다. 겨울에는 학교 가는 길에 아릅드리 버드나무에 고구마를 숨겨놓았다. 아침에 가보면 얼어서 아이스크림처럼 되어 있었는데 주전부리삼아 씹어 먹으면서 다녔다. 공부는 뒷전이고 사택 문구멍을 뚫어 여학생들이 자던 방을 몰래 훑쳐보기도 했다. 김기중의 아버지는 교장선생님께 한지를 사다주며 종아리를 쳐서라도 공부를 시키라고 신신당부를 했기에 피가 나도록 맞은 적도 있었다.

다른 아이들은 죽도 못 먹고 다닐 때, 할머니들은 손자들에게 쌀밥 도시락을 싸서 보냈다. 안중천은 어쩌다 보리쌀 한 톨이 섞이면 그걸 못 넘기고 입안에서 우물거리다 뱉었다고 한다. 담임선생님은 가난한 집 아이들을 배려해 오히려 보리밥을 섞어서 싸오라고 야단치며 매를 들었다. 위낙에 악동들이라 급식주려고 창고에 쌓아둔 우유가루를 몰래 훑쳐 먹다가 들키기도 했다. 행정실 소사가 뒤통수를 후려치면 우유가루가 온 얼굴을 덮었고, 눈에 들어가고 콧속으로 들어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연신 재채기를 해댔다. 광석리 사는 친구는 곧장 가면 1km밖에 안 되는데, 같이 어울려 놀려고 오히려 돌아서 다녔다.

유동리에는 여담(麗潭)이라는 무릎 정도 깊이의 작은 연못이 몇 군데 있었다. 지금은 다 눈을 만들어 없어졌지만 옛날엔 아이들이 모여 놀이삼아 물고기도 잡던 곳이다. 아름다운 연못이라는 뜻과 달리 옛날엔 너여 자를 써서 여담(汝潭)이라 부르기도 했다. 왜냐하면 버들골이 큰집이었고 유동리는 작은집들이 들어와 자손을 퍼트렸기 때문에 너네 동네라는 뜻이었던단다. 앞산 위에는 띠밭이 있었다. 띠밭 끄트머리가 칼날같이 생겼다 하여 띠밭날이라 불렀다. 띠꽃이 필 때, 빨기(띠풀의 어린 새순)를 뽑아서 빨아먹고 띠뿌리를 캐서 먹으면 달짝지근했다.

또, 증골 산사태 난 곳에 가면, 그다지 힘을 주지 않고 호비작거리면서 잡아당기기만 해도 칩뿌리를 쉽게 깎 수 있었다. 암침은 섬유질이 알알이 뭉쳐있어 먹으면 달고 오래 씹다보면 고소했다. 솜침은 줄기가 곧고 맛이 씹쓰름해서 캐면 바로 버렸다. 학교 끝나고 저수지에 가서 같이 목욕도 했다. 친구 집에서 놀다 보면 할머니나 어머니들이 공부는 안 하고 떼지어 다닌다고 혼내기도 했지만, 고구마도 찌주고 나무통 지고 동네로 찾아오는 아이스께

끼도 사주었다.

향한리 동네 어귀에는 아주머니들이 돈이나 떡을 놓고 치성을 드리던 당산목이 있었다. 그들은 산속 소나무 밑에 숨어 있다가 소원을 빌고 떠날 쫘에 얼른 뛰어 내려가서 떡시루째 들고 도망을 갔다. 할머니들은 쌀 몇 되 가져다주면서 ‘우리 손자가 원래 나쁜 놈이 아닌데, 이해 하~’ 대신 잘못을 빌었다. 또, 친구들끼리 서로 담력을 으스대느라 무밭에서 무도 뽑아먹고, 수박 서리도 했지만 밭주인들은 적당히 먹고 가라며 눈을 질끈 감았다. 그들의 서리는 점점 대답해졌다. 중학교 때, 엄사리에 가서 사이나(청산가리)를 깨트려놓고는 닭이 먹고 쓰러지면, 냉큼 보자기에 싸들고 산속으로 도망쳤다. 산에다 살짝 물어봤다가 주말에 다시 모여 삶아먹거나 진흙을 개서 발라가지고 장작불에 구워먹었다. 한겨울에 한 번에 두 마리나 서리를 할 때는 산속 개울가에서 눈을 끌어다 꼭꼭 묻어두었다. 이듬해 봄에 가서 눈이 녹은 자리에서 파내어 구워먹고 놀았다. 그 때만 해도 동네사람들은 서운한 게 있으면 서로 대화로 풀고, 경찰에 고발하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안중천과 김기중은 중·고등학교는 서로 달랐지만, 학교 끝나면 매일 만났다. 할머니 몰래 쌀 퍼다 책 대신 가방에 넣고 가서, 대전역 앞에서 빵이나 아이스크림을 사먹었다. 통학차를 함께 타고 다니는 대학생 선배들까지 삼삼오오 무리지어 다녔다. 겨울에는 길이 너무 캄캄해서 고갯길이 아니라 철길을 따라 걸어갔는데, 멀리서 부모님들이 호롱불을 들고 마중을 나왔다. 동네에서 돼지를 잡으면 버리는 돼지비계를 모아다 깻잎이나 채소 뜯어서 튀김도 해먹었다.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할머니가 제주로 담가둔 두견주나 국화주를 훔쳐다 형들과 나눠 마시기도 했다. 재미삼아 신도안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유성장에다 팔고서 할머니 박하사탕도 사다드리고 본인이 신을 양말도 샀는데 아버지한테 걸리면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화전밭 일구는 신도안 고아원 아이들한테 괜히 시비를 걸었다가 몰매를 맞기도 했다.

귀하다 귀하게 키운 도련님들은 재기발랄하고 모난 곳 없는 성격에 다들 제 밥벌이를 하면서 제법 의젓하게 성장했다. 안중천은 건설회사 회계직으로, 김기중은 농협에 취직해 신도안지점에 근무했다. 이른바 뼈대 있는 집안 출신들이라 사회생활도 남달랐다. 안중천은 종손으로써 관혼상례에 대한 예법이 몸에 배어, 회사 대표로 밭주처 조문이나 인사를 다녔다. 지역개발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지만, 산림청에다 자진해서 청원을 넣어 종산을 그린 벨트로 묶어놓았다. 600년 터를 잡고 산 고향산천이 변하는 걸 원치 않았고, 후손들이 아무



때나 와서 쉬어갈 수 있는 어머니 품처럼 푸근하고 따뜻한 동네를 남겨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자식이 좋은 놈이든 나쁜 놈이든, 지랄 맞든 사고를 치든 미워하거나 내치지 않는다. 설령 타성이 들어오더라도 반갑게 맞아주고, 옛 풍습을 이어가면서 오래도록 같이 살다보면 자연스럽게 융화가 될 것이다. 그로인해 마을은 활기를 되찾을 거라고 믿고 있다.

김기중은 농협의 주요고객인 신도안 120여 곳 교주들의 목돈관리뿐만 아니라 기도처로 향하는 신도들의 짐을 자전거에 싣고 길 안내를 자처했다. 또한 각양각색의 종교인들 행사에 기관장으로써 입회했다. 일례로, 한 여름날, 떡보살이 돼지 100마리, 쌀 100가마니, 떡 100시루, 초 100개, 과일 100상자를 놓고 성대하게 제사를 지내는데 유지들이 돈 봉투를 놓고 절을 하다보면 돼지 썩는 냄새가 사방에 진동했다. 그는 1975년 계룡산종교정화사업과 1983년 620사업으로 옛 모습이 자취를 감추는 과정을 일일이 지켜보았다. 퇴직을 하고도 천계황지(天鷄黃池), 하늘아래 으뜸인 계룡시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해 사계고택에서 문화해설사로 봉사하고 있다.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한 두 친구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담소를 나누며 유동리 도곡리 광석리 향한리 업사리를 한 바퀴 돌며 변치 않는 우정을 약속한다.



# 당진시

## ■ 당진 포구에서의 삶

삼교천 주변의 열민장과 화염(자염, 전오염, 육염)에 대한 기억을 말하다	426
삼교천의 변화와 함께한 범근내포 어업인의 삶	430
장고항에서 한 평생 배를 만든다	434
장고항의 실치잡이와 실치축제의 운영	438
바다가 육지가 된 당산리에서의 삶	442
오도의 과거와 현재	445
당진 채운포구에서의 삶	448
포구에서 농토로 간척된 해창포구	452
20세기 후반 한진포구의 변천	455
한진포구에서 염전사업과 나와 선대의 삶	458

●  
**삼교천 주변의  
 열민장과 화염  
 (자염, 전오염, 육염)에 대한  
 기억을 말하다**



**김상래** (1938년생)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김상래(1938년생) 씨는 당진군 신평면 운정리 14번지에서 출생하여 지금도 당진시 신평면 운정길 142-8번지에 거주하는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토박이다. 김상래 씨 12대조 선략장군 행오위부호군이 운정리에 정착한 후 강릉 김씨 후손들은 이곳 삼교천 인근에서 농업과 어업을 생계로 삶을 영위해 오고 있다. 그의 기억에 따르면 증조부 위로는 들은바 없고, 농사일에 종사한 조부께서는 구레나룻을 멋지게 기른 풍채 좋은 어른이었다. 조부께서는 일찍이 5형제를 두셔서 자식들의 봉양을 잘 받으셨다. 당시 백부와 숙부들은 대부분 운정리에 지급을 나서 돈독하게 살았다. 지금도 대부분의 이웃이 일가친척으로 마을의 터줏대감이 되었다.

김상래 씨는 일제강점기 때에 신평보통학교(현재 신평초등학교)를 2학년까지 다녔고 해방 이후에는 동네의 이주영 씨로부터 야간에 명심보감 계몽편을 수학하였다. 이것이 배움의 전

부였다. 김상래 씨는 곧장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방앗간에서 마부생활부터 시작하였는데 이때 1년 수입이 쌀 12가마로 이는 일반 머슴의 곱절도 더 되는 품삯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길도 험하고 힘에 겨워 몸이 축나게 되자 그만 두고 주로 농사와 화염에 종사하게 되었다. 스물일곱에 결혼을 하고 서른에 서울로 올라가서 막노동을 하다가 부모가 연로하자 고향으로 내려왔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부모님을 봉양하기 시작하였고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며 가세도 일궈나갔다.

한 달이면 두 번의 사리가 있었는데 이때 ‘얼민장’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고기잡이를 하였다. 당시 삽교천 인근에서 고기를 잡았던 방법을 일러 ‘눈장’ 혹은 ‘얼민장’이라고 하면서 두 개념을 하나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김상래 씨에 의하면 그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고기잡이 방법이라고 한다. ‘눈장’과 ‘얼민장’은 어로하는 방법에서는 동일하지만 그물의 크기와 잡히는 고기가 완전히 다르다. 김상래 씨가 주로 사용하였던 방법은 ‘얼민장’이었는데 ‘얼민장’은 손이 쑥쑥 들어갈 정도로 성근 그물이었고 그에 비해 ‘눈장’은 손가락도 잘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촘촘한 그물이었다.

‘얼민장’은 주로 집에서 만들어 썼다. 집에서 재배한 목화에서 실을 뽑고 그 실이 바닷물에 쉽게 삭지 않도록 들기름을 흠뻑 먹여 바짝 말린다. 실이 다 마르면 그 실로 그물을 뜨고 이것을 튼튼한 바(새끼로 끈 굵다란 줄)에 맨 뒤 ‘말’이라고 하는 말뚝에다가 위쪽을 묶어 댄다. 여기서 말하는 ‘말’이란 ‘얼민장’을 지탱하기 위한 기다란 말뚝을 일컫는 것으로 ‘말’은 대부분 인근의 산에서 참나무를 베어다 만들었다. 길이가 대략 3m쯤 되는 긴 말뚝의 끝을 뾰족하게 깎은 뒤 두 사람이 갯벌 양쪽에서 ‘말’을 잡고 흔들면 아래로 쑥쑥 1m쯤 박히게 된다. 이때 지표 위에 남은 말뚝의 끝에다가 그물코를 붙잡아 매면 고기 잡을 준비가 끝이 난다. 그물을 ‘말’에 댄 때 밑물에 그물이 물살에 뜨도록 안쪽으로 매면 고기가 들게 되는데 썰물 때에 그물이 가라앉으면 빠져나가지 못한 고기가 잡히게된다. 동네 어른들 대부분이 남쪽 방향으로 말을 박고 그물을 설치한 반면 김상래 씨는 동남쪽을 향해 그물을 설치하여 다른 집들보다 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 당시에 잡힌 고기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꽃게와 준치였다. 그야말로 삽교천 인근은 꽃게 천지였고 갯벌에도 작은 게들이 즐비하였다.

김상래 씨는 주로 6월과 7월 두 달에 걸쳐 집중적으로 ‘얼민장’을 활용하였다. 이때에는 고기들이 너무 많이 잡혀서 잡은 고기들을 다 팔지 못하고 버리기도 하였다. 특별한 판로나

소비처가 적었기 때문이었다. 가끔은 동네 어른들이 김상래 씨가 잡은 고기를 선장(아산시 선장면 선장포)으로 싣고 가서 팔아다 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얼민장’ 밧줄도 새끼로 꼬아서 만 들고 그물도 목화실로 만들어서 1년만 되면 축축 처져서 못쓰곤 하였다. 하여 이곳의 일반 민중들의 생활은 그리 넉넉하지는 않았다. 땅을 가지고 벼농사를 좀 하는 집들이나 잘 산다고 할 수 있었다. 때문에 운정포구가 있었던 곳(현 삽교천방조제 자리)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밧 일에 종사하였고 삶은 더욱 궁핍하였다.

당시 대부분의 지역은 천일제염으로 소금을 생산하였는데 운정리는 ‘화염’이라는 방법으로 소금을 생산하였다. ‘화염’은 김상래 씨의 조부 때부터 운영해 오던 가업이었다. 김상래 씨가 전하는 이야기, 즉 ‘화염’의 제염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금 사리 때에 갯벌의 1,000여 평을 소를 이용하여 쟁기로 갈아엎고(김상래 씨는 이 전체를 염판이라고 하였다) 이를 다시 수차례 써레 같은 것으로 2~3일간 저으면(갈아엎으면) 갯벌 흙이 파실파실해지고 붉은 색을 띠게 된다. 이때 염판 가운데에 마른 흙을 약 5m정도 높이 쌓아 올려 두둑(김상래 씨는 이를 흙 무덤이라고 함)을 만들고 가운데를 파서 중간에 벼집과 솔가지등을 채운다. 그 동안 염판에서 발갱게 마른 갯벌 흙을 퍼다가 담고, 그 위에 깨끗한 물을 부으면 아래로 정제된 빨간 간물이 빠져나와 고이게 된다. 이를 퍼다가 염분집진기가 있는 납작한 쇠가마에 붓고 아래에 장작불로 대략 24시간 정도 열을 가하면 거기서 하얀 소금이 만들어졌다. 이때 만들어진 1차 간수의 염도를 재는 방법도 특이하였다. 간수의 염도를 재기 위해서 보리밥풀을 ‘푸!’하고 뺄는데 밥풀이 간수에 뜨면 염도가 괜찮다고 여겨 소금을 굽기 시작했고 그렇지 않으면 장작 값도 나오지 않는다며 소금을 굽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는 소금을 굽고 저장하고 판매하는 것까지 모두 한 장소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곳을 일명 ‘빨’이라고 하였다. 당시 운정리 ‘빨’을 관리하던 백부께서는 그로 인해 ‘빨순사’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김상래 씨는 운정리에 존재하던 가장 큰 ‘빨’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준 것은 물론 ‘빨’이 있던 장소도 정확히 증언하여 주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금은 대부분 사람들이 직접 와서 물물교환해 갔는데 당시 소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고구마나 쌀, 더러는 장작과 바꾸어가기도 하였다. 그 자리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아서 가마니에 지고 합덕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였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때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나 시장에서 직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합덕장의 거간꾼이 되질을 해주어 이를 매개로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당시 소금값이 금값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금 두 말 가량을 지고 합덕장에서 쌀로 바꾸면 겨우 쌀 한 되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이는 배로 싣고 멀리 내다 팔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여 운정리 ‘화염’으로 생산된 소금들은 가내 수공업 형태로 생산되어 지역에서 필요한 수요를 충족하는데 충실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의 토박이인 김상래 씨는 ‘화염’의 제염과정 뿐만 아니라 당시 운정포구의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삼교천 방조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이후 동네 이장을 역임하면서 추진한 산림녹화사업, 지붕개량사업, 도로확장사업 및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에 대하여도 소상하게 설명하여 운정리 지역사회의 변화 과정과 삼교천을 중심으로 전개된 민중들의 삶을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었다.

●  
**삼교천의 변화와  
 함께한 범근내포  
 어업인의 삶**



**강순식** (1949년생)  
 당진시 함덕읍 지새울길

강순식 씨는 1949년생으로 한국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기억은 없다고 했지만, 부모세대를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이 지역 주민들은 한국전쟁 시기에 타 지역으로 피난을 많이 가지 않았다고 한다. 고향을 버리고 떠날 생각도 하지 못했고, 드넓게 펼쳐진 평야 지역으로 인해 숨을 곳도 마땅치 않았다는 이야기다. 우강면은 넓은 평야지역과 인근 바닷가로 인해 인구가 많은 지역이었다.

한국전쟁 후 초등학교에 다닐 때의 기억은 오전, 오후반으로 나뉘서 초등학교를 다닐 정도로 이 지역에 어린이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강순식 씨가 초등학교를 다닐 시절인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초반에 우강초등학교 졸업생이 200명 정도가 되었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예당평야가 넓게 펼쳐진 지역이어서 쌀, 보리의 생산이 인구를 부양하기에 적당했기 때문



이라 생각되었다. 넓은 평야지역이기도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조금이라도 농경지를 넓히기 위해 갯벌 지역을 손수 흙을 날라 막고 농경지를 만들었다고 한다. 썰물이 되어 물이 빠져 나가면 작을 독을 쌓고 흙을 메워 농경지를 만들어 경작을 하는 모습도 많이 봤다고 한다. 하지만 삽교천의 범람과 조석 간만의 차에 따라 농경지가 해수에 침수되는 피해를 직접 겪기도 하였다고 한다.

침수 피해를 입는 일들은 삽교천을 막고 방조제를 건설하면서 없어졌다고 한다. 강순식 씨는 어린 시절 바닷가에서의 삶을 온전히 즐기며 살았다. 학교를 다녀온 후 바닷가에서 멍을 감으며 놀고 그로 인해 나중에 배를 타는 전문 어업인으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다.

강순식 씨는 범근내포에서 다양한 어업활동으로 젊은 시절을 보냈다. 목선을 타고 다양한 어종을 잡으며 소규모의 어업을 하다가 우강면 내경리 지역 최초로 인천에 가서 기계배를 제작하여 어업활동에 활용하였다. 그 당시로는 최신 기계 문물인 기계배를 제작해 올 정도로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계절별로 다양한 어종을 두루 잡았는데, 계절별로 잡히는 어종을 보면 이른 봄에는 장어류, 사·오월에는 송어를 주로 잡았다고 한다. 여름에는 준치, 삼치 등을 주로 잡았다고 한다. 특히 준치가 많이 잡혀서 다양한 준치 요리를 먹었던 기억을 전해줬다.

하지만 적극적인 어로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는 제대로 된 장이 서지 않아서 판로를 개척하기 무척 어려웠다. 근처에 범근내장, 합덕장 등이 열렸지만 수송과 보관기술이 없고 이 지역에 장사치들이 너무 혈값에 생선을 구매해 갔기 때문에 어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쌀 한가마에 16,000원~17,000원 일 때 송어 4kg에 백원 정도에 팔려 나갔다고 하니, 얼마나 수익성이 없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지금은 수요가 많고 냉동 기술이 발달하여 비싼 값에 팔리는 해산물들이 당시에는 팔 곳이 없어서 혈값에 매각되고, 그로 인해 어업활동에 의욕이 없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특히 꽃게는 똥게라고 불릴 만큼 기피 어종이었다고 하니 철에 따라 꽃게를 금게라고 부르는 요즘 상황에서는 믿기지 않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꽃게는 지천으로 널려 있어 그물에 걸리면 떼어내기도 불편하고 그물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아 잡히지 않기를 바랐다고 한다.

생선 도매 가격은 너무 싼 소매를 통해 판로를 개척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당시 내경리 일대에는 대도시가 없었고 함께 어업하는 사람들이 물고기나 잡을 줄 알지, 그걸

어떻게 팔아야 할 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해결책이 없다고 하였다. 소규모 판로라고 해봐야 머리에 생선광주리를 이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파는 아낙들이 전부였다. 그나마 소득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송어의 알을 소금과 간장에 절여서 말린 어란이었다. 아무래도 보관과 이동이 편리해서 먼 곳까지 판매가 가능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또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 아주 독특했다. 밀물과 썰물의 바닷물 흐름을 이용했다. 바다에 말뚝을 박고 그 사이에 그물을 걸어 밀물 때 들어온 물고기가 썰물을 따라 빠져 나갈 때 그물에 걸리는 방식을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았다고 한다. 강순식 씨는 물고기를 잡았던 시절을 회상하며 자부심 있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 시절 바닷속의 지형과 장애물까지 그럴 수 있을 정도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인천은 육상으로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바닷길로 그리 멀지 않은 거리로 여겨졌다. 당진의 선구점에 없는 물건들은 직접 인천에 가서 구매하기도 하고 당진의 선구점에서 인천으로 주문을 넣어 대신 구매해 주기도 하였다. 이 지역에 선구점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어업만을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회상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평야를 이용해서 농업에 주로 종사하고 어업은 부업 정도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특히 내경리 도깨나루를 건너다니던 나룻배에 대한 이야기도 인상적이었다. 사람의 힘을 이용해 밀물과 썰물이 드나드는 하천을 건너기 위해, 물의 흐름을 따라 아래위로 선착장과 하선하는 곳이 달라지는, 배를 이용하는 그 시절의 주민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다.

삼교천 방조제가 우리 지역 농업에 미친 긍정적 영향은 분명히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 식량이 부족하던 시기에는 식량 확보가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일대에는 삼교천의 범람이나 밀물에 의한 농경지 침수가 잦았을 텐데 삼교천 방조제를 건설하여 농경지를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 강순식씨와 이야기 나눴을 때에도 자주 나왔던 이야기가, 삼교천 방조제를 건설했을 때에 지역 어업인들의 삶을 보장해주지 못했다는 대목에서, 요즘의 시대적 상황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 여겨졌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 지역민은 자신의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는 점이 쓰라린 과거사로 다가왔다. 또한 갯벌의 가치가 재평가되는 요즘 삼교천 주변의 평야지역을 보전하며 연안 생태계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도 하였다.

갯벌을 메워 경지를 만들고 공업용지로 활용하고 있는 우리 당진지역의 해안지역들을 지금처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회의가 드는 시간이었다. 우리 지역의 갯벌을 다시 살리는 것이 우리 서해의 생태계를 다시 살리는 길이라는 생각이 더욱 강하게 들었다.

●  
장고항에서  
한 평생 배를  
만들다



**임 의 규** (1943년생)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로

임의규 씨는 당진 장고항에서 태어나, 일평생을 당진에서 지내 온 토박이다. 장고항은 포구가 자리한 바닷가의 지형이 장고(鼓)를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당진의 전형적인 어촌 마을이다. 일출과 일몰을 모두 감상할 수 있어 수도권 인근에서 찾아오는 나들이객이 많으며 낚시 마니아들 사이에선 배낚시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대호방조제를 오른 편에 두고 있어 물결이 잔잔하고 배를 빌려 바다로 나가면 우럭, 놀래미, 광어 등이 많이 잡힌다.

임의규 씨의 어린 시절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어린 시절 겪은 6.25전쟁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인민군들이 지역에 들어와 내가 살고 있는 터전을 차지하고 집을 빼앗았다. 방공호를 파고, 수차례 사격 교전을 치르는 모습도 보았다. 눈앞에서 겪은 전투는 지금도 무서운 기억이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피난을 내려왔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이곳 장고항은 6.25전쟁 당시 많은 피난민들이 내려온 곳이다. 특히 인천에서 배를 타고 피난 온 사람들이 많았고, 그 사람들은 판자와 천막을 치고서 지내기가 다반사였다. 임의규 씨는 전쟁의 참상이 있던 그 시절을 몸으로 직접 겪었다.

어린 시절 임의규 씨는 삼봉초등학교를 다녔다. 4회 졸업생이었는데, 학교에서는 한글보다 한문을 더 많이 배웠던 것 같다. 그래서 학교보다는 서당에서 배운 한문을 더욱 유용하게 사용했다.

아버지의 직업은 뱃사공이었다. 한 달이면 집에 계시는 날이 2~3일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바쁘셨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늘 걱정하시면서 기도하셨다. 아버지는 힘든 일도 늘 열심히 하셨고, 7남매를 보란 듯이 잘 키워내셨다. 뭇 모르고 뛰어놀던 시절, 옆집에는 배를 만드는 어르신이 계셨다. 한 번씩 찾아가서 놀기도 하고 배를 만드는 것도 구경하고 했었는데, 그것이 참 멋져 보였다.

하루는 배 만드는 과정에서 어르신이 길이를 잘못 기록하는 것을 보고서 말씀드렸더니 어르신이 놀라셨다. 어떻게 배를 만들어 보지도 않고 보는 것만으로 잘 아느냐고, 나중에 커서 너도 배를 만들면 잘할 것 같다고 칭찬해 주셨다. 그 말 한마디가 임의규 씨를 바꾼 것 같다. 이때 임의규 씨도 배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지 않았나 싶다.

당시 장고항 사람들의 삶은 조금 특별했다. 농사를 지을 땅도 적었고, 배도 많지 않아 어업이 쉽지 않았다. 생계는 주로 굴을 따서 유지했다. 근처 입화도라는 섬에 가면 그 당시에 굴이 참 많았다. 어렵게 탄 굴을 당진 시장에 가서 팔았다. 거리가 멀었지만 그 거리를 다닐 때에도 머리에 모두 이고서 다녔던 기억이 난다. 그만큼 이곳 사람들의 형편은 넉넉하지 못했다.

젊은 시절 기억에 남는 것은 군 생활이다. 호적 신고가 잘못되어 조금 늦게 간 군대에서는 참 많은 것을 배웠다. 전방에 있는 임진각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북한과 경계가 맞닿아 있었다. 그곳에서의 군 생활이 힘들지는 않았으나 늘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곳이었고 북한과 관련된 여러 차례 사건 이야기를 듣고 겪으면서 조심스러웠다. 북한 군인들을 마주하는 곳이었기에 늘 A급 복장과 전투화를 준비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다.

특히나 국회의원 및 사회 지도층이 다녀갈 때면 많은 지원이 있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이 대부분이었고, 고생한다는 격려도 참 많이 받았다. 그곳에서 근무하며 판문점 ‘자

유의 집' 건설에 참여하기도 하고, 대학생들의 방문을 지원해주기도 하였다. 또한 민통선 안쪽의 마을과 연락을 담당하는 등 조금은 특별한 군 생활을 하였다.

군 생활을 마치고 장고항으로 돌아와 결혼을 하였다. 곧 생겨날 아이와 임의규 씨를 믿고 결혼해 준 아내를 위해 배 만드는 일을 하기로 결심하고 옆집 어르신(조영환씨)과 배 만드는 작업을 함께 했다. 배를 만들기도 하고, 수리하기도 하면서 힘들었던 일, 즐거웠던 일들이 많았다. 한 번은 배 양쪽에 구멍이 나서 2곳을 수리해야 했다. 어르신과 임의규 씨는 각각 한 곳씩 맡아 수리하였는데, 임의규 씨는 수리할 부분을 위해서 아주 큰 나무를 자르고 조립해 나가며 이틀 만에 마무리 하였지만 나와 함께 한 어르신은 임의규 씨보다 더 오래 걸렸다. 많은 사람들이 임의규 씨의 실력을 인정해주었고, 임의규 씨는 배를 만드는 것이 참 즐거웠다. 장고항에는 배를 만드는 사람이 임의규 씨 혼자였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했는지도 모른다.

배를 만드는 일은 참으로 힘든 과정이었다. 일반 사람이 하루에 4~5천원의 품삯을 받는다고 하면 배 목수는 1만 5천원 정도 받았다. 지금으로 치면 약 30만원의 돈이다. 배를 만들 때에는 물에서 하지만 배를 수리할 때에는 물 안에서 하는 경우도 많았다. 금방 끝나는 작업이 없었고, 한 번 시작하면 4~5일은 기본이었다. 또한 정확하게 수리를 하지 못해서 조금이라도 물이 새면 큰일이 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더욱 신중히 작업해야 했다.

배를 만들고 수리하기 위해 밤마다 참으로 많은 연구를 했다. 배를 만들 때 내가 쟀 치수가 딱딱 맞아떨어질 때 느끼는 희열은 말로 설명할 수 없었다. 임의규 씨가 만든 배가 출항을 하거나, 혹은 풍어제를 지내면서 제를 지낼 때에는 종일 웃음을 떨칠 수가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배 만드는 과정을 보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방문했으며, 특히나 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주인은 더욱 자주 드나들었다. 임의규 씨가 만들고, 출항한 배가 아무 이상 없이 바다에서 기능을 하게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임의규 씨에게 찾아와 배 건조를 요청했다. 혼자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고, 힘에 부치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배를 만드는 일은 즐겁고 자랑스러웠다. 또, 출항한 배가 만선이 되어서 돌아오면 너무나 좋았다. 그 기억에 배를 참 많이, 열심히 만들었던 것 같다고 임의규 씨는 회상하였다.

90년대 초에는 대하드라마 <먼동>에 임의규 씨가 만든 배가 등장하기도 했다. 우리 고장 당진에서 촬영한 드라마인데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면서 임의규 씨가 직접 만든 배가

TV에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기도 하였다. 또한 장고항 2리 입구에는 직접 만든 배가 전시되어 있다. 2011년 제작한 실치잡이 배이다. 장고항 실치잡이 배는 플라스틱 동력선이 등장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배로 옛 형태를 재현하고 후대에 남기기 위해 제작하여 전시하였다. 임의규 씨는 자신이 만든 배를 타고 많은 장고항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다음 세대를 키운 것을 생각하면, 한 평생 배를 만들고 배를 수리하면서 살아온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예전의 장고항과 지금의 장고항은 너무나 다르다. 1970년대 서산과 대산을 시작으로 어획량이 많이 늘었다. 1980년대 부터는 이 곳 장고항에서 실치가 많이 잡혔고, 2010년부터는 장고항 실치축제가 유명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다. 초가집에 다닥다닥 붙어 있던 집들은 이제 모두 새로운 모습을 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을 기점으로 농촌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길도 넓어지고, 버스도 다니기 시작하고. 시설 면에서는 많이 좋아졌지만 안타까운 것도 있다. 그 옛날 장고항은 공기가 좋기로 소문 난 곳이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 외지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된 것도 큰 변화다. 농사 짓는 집, 물고기 잡는 집이 대부분이었던 곳에 이제는 펜션이 들어서고, 카페가 들어섰다. 시대의 변화를 역행할 수는 없지만 그 옛날 이웃간의 정은 조금 줄어든 듯 하다. 임의규 씨는 앞으로 이곳 장고항에 살아갈 사람들이 이곳에 애착을 가지고 잘 보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장고항의  
실치잡이와  
실치축제의  
운영



**김기용** (1970년생)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로

구술자 김기용 씨는 경주 김씨로 아버지 김재성과 어머니 어리 박씨(무안 박씨)의 6남 4녀 중 일곱 번째로 1970년 석문면 장고항리 309번지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이북 출신으로 6.25때 월남하였고, 장고항에 정착하였다. 어머니는 당진시 우두동에 집성촌을 형성하고 있던 무안 박씨였다.

아버지는 스스로 익힌 침술로 동네사람들을 치료했지만, 가정경제를 책임지지는 못하였다. 집안은 거의 어머니의 희생으로 유지되었다. 어머니는 장고항 어민들이 잡아오는 생선들을 ‘다라(대야의 일본어)’에 담아 팔러 다녔다. 멀리 갈 때에는 함덕에 이를 정도로, 어머니는 힘겨운 ‘고무 다라 장사’를 하였다. 집집마다 방문하여 생선을 파는 것도 힘들지만, 원거리를 생선을 이고지고 다니는 것은 참으로 버거운 일이었다. 그 덕택에 6남 4녀는 큰 고생 없이 성장할 수 있었다.



김기용 씨는 장고항에서 실치잡이에 종사하였다. 장고항은 긴 장고처럼 생겼다는 속설이 있다. 바다로 길게 나온 용무치라는 바위가 있고, 그 안쪽에 둥그런 만이 있는데 장고항은 만 안에 있다. 장고항 주변에는 서해안의 무한한 개펄이 펼쳐져 있다. 간조 때에는 배가 들어올 수 없지만 만조가 되면, 많은 배들이 자유롭게 왕래한다. 실치는 장고항 부근에서 무한히 서식한다. 어민들은 먼 바다에 나갈 필요 없이 장고항 인근에서 실치를 잡는다. 시기는 3월에서 5월에 이르는 봄이다. 주민들은 인근 해역에 구획을 가하여 자신의 영역에 말뚝을 박고 긴 통발을 설치한다. 무동력선을 이용해 통발에 접근하여 실치를 포획한다.

물론 실치는 장고항에만 서식하는 것은 아니다. 서해안에는 대부분 실치가 서식한다. 하지만 장고항 이외의 지역에서는 실치를 잡고 항구로 돌아와 소비자에게 공급하기까지 몇 시간이 소요된다. 대부분의 실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장고항의 실치는 그 점에서 남다른 특성을 보여준다. 실치를 잡아 장고항에 입항하고 소비자에게 공급하기까지 20분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실치는 생명력을 유지하며 파닥거린다. 살아있는 실치를 맛보는 소비자는 실치의 감칠맛에 깊은 감동을 느낄 수밖에 없다. 김기용 씨는 직접 횃집도 운영하였다. 현재 실치를 잡는 어민들은 거의 횃집을 직영하고 있다. 약 30여호에 이른다. 이들은 경쟁적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봄날에 공급하는 실치는 장고항 1년 소득원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실치는 생으로 먹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다. 5월 중순이 지나 실치에 뼈가 생길 즈음엔 실치를 찌서 말리는 뱅어포(실치포)를 만든다. 이때쯤 장고항에는 타 지역에서 건너온 아주머니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한 집에 보통 15명 이상의 아주머니들이 집을 친다. 이들은 실치를 일정한 크기의 판에 깔아 햇볕에 말리는 작업을 진행한다. 뱅어포는 당진 장고항에서만 생산되는 유일한 특산물이다. 뱅어포는 그냥 먹어도 좋지만, 고추장을 바르거나 설탕이나 소금을 살짝 뿌려서 구워 먹으면 더욱 맛있다. 뱅어포는 멸치 이상의 칼슘을 함유하고 있다. 이제 실치를 빼고는 장고항을 이야기할 수 없게 되었다.

약 20년 전부터 주민들은 실치축제를 고안하였다. 마침 당진시에서 축제 예산을 조성했고, 양명길 조합장이 이 예산을 얻어서 장고항 실치축제를 최초로 열었다. 그러나 당진의 특산물인 수산 먹거리를 활용한 축제는 초기에 큰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 더구나 비슷한 시기에 당진에는 기지시줄다리기 축제가 열린다. 축제가 겹쳐서 실치 축제의 인지도는 올라가지

않았다.

김기용 씨는 실치축제 조직위원회에 참여하여 동료들과 함께 실치축제를 홍보하기 위해 주요 방송사와 신문사를 찾았다. 실치축제는 전국에 유일한 축제였기 때문에 각 방송사에 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이른 봄에 먹거리 축제를 여는 곳이 드물다보니 언론 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하면서 많은 외지인들에게 자연스럽게 홍보되었다.

사람들의 입맛도 다 다르다. 장고항 주민들은 5월 초가 되어야 실치가 맛있다고 한다. 실치가 약간 꺼칠해야 씹는 맛이 좋다고 한다. 하지만, 외지인들은 3월 말의 실치가 맛있다고 한다. 실치가 입안에서 살살 녹기 때문이다. 실치축제는 입맛과 달리 사리 때를 맞춘다. 이 때가 가장 많이 잡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축제는 3월 말에서 5월 초엽에 2박 3일간 열리지만 시기는 일정치 않다. 그래서 사람들은 축제와 관계없이 3월말부터 자신의 입맛에 따라 5월 초까지 장고항에 온다. 주말이면 장고항은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축제는 다양한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 첫 해에는 실치 잡이 체험도 있었지만 초보자가 실치를 직접 잡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한번 시행한 후에 실치 잡이 체험은 없었다. 대신에 뱅어포를 직접 만드는 뱅어포 체험을 계획하였다. 올해는 뱅어포 김밥을 길게 말아서 기네스북에 등재하고자 했지만, 이 야심찬 계획은 코로나 19로 축제가 열리지 못하면서 무산되었다.

당진시의 주변 축제와 연계하여 실치축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계획도 있다. 사리 때에 맞추지 않고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와 연결하는 방식이다. 관광객이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에 참여한 후에 장고항에 와서 먹거리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다. 또한 각종 벚꽃 축제와 연계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벚꽃 축제는 너무 흔하기 때문에 아예 장고항에 벚나무를 심자는 의견도 있다. 축제위원회에서도 이 의견을 존중하여 요소요소에 왕벚나무를 심어나가는 중이다. 몇 년 만 지나면 장고항에서는 흐드러진 벚꽃 속에서 실치회를 먹는 진풍경이 벌어질 것이다.

축제의 운영방법 중 개선사항으로는, 어린이 백일장과 사생대회개최, 주변 단장, 주차장 확보, 실치회센터 확장 등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그 동안 정례화 되었던 유명가수 초청과 노래자랑은 축소하기로 하였다. 김기용 씨는 말한다. “저희 실치축제는 바뀌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유치하여 주민소득을 올리는 것 보다는 관광객에게 감사하는 축제, 보답하

는 축제로 나가려 합니다”라고.

문제는 실치의 어획량 감소다. 사람들은 당진화력에서 배출되는 온수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그 영향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아산만에 준설하는 해로에 있다. 엄청난 크기의 선박들이 아산만으로 들어오면서, 이 배들을 위한 해로를 파내고 있는데 해로를 준설하면 장고항의 개펄이 파여진 해로에 쓸려 들어간다. 이렇게 개펄과 모래가 쓸려가면서 실치의 산란지가 사라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로에서 파낸 모래를 다시 장고항 앞에 쌓아주어야 한다. 왜목마을에서 해안에 모래를 깔아 해수욕장을 조성한 사례와 같다. 어차피 3년마다 정기적으로 해로를 준설한다고 하니 그 때 파낸 모래를 주변 해안에 쌓아준다면 어민들에게도 피해가 적을 것이다.

●  
**바다가  
 육지가 된  
 당산리에서의  
 삶**



**정 종 선** (1940년생)  
 당진시 송산면 당산리

정종선 씨는 올해 나이 80으로 증조부에서부터 대를 이어 충남 당진시 송산면 당산리에 살고 있다. 집근처까지 바닷물이 넘실대던 시절과 그 바다가 육지가 되어 농작물이 풍성하게 자라는 현재까지 살고 있다. 정종선 씨는 바다의 역사와 함께 살아오고 있는 것이다. 정종선 씨의 할아버지는 원래 서산 음암에서 사시면서 목수 중에도 대목으로 집짓는 일을 하였다. 이 어른이 그의 아버지를 뒤희고 당진 고대 슬항리로 이거했다가 다시 이곳 당산리로 오셔서 자리 잡았다. 그런 후로 대를 이어 당산리 바닷가에서 살아오고 있는 중이다.

정종선 씨의 할아버지는 목수로 여기 저기 다니면서 집을 짓는 일을 하였고 아버지는 향리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사셨다. 당산리는 석문방조제가 막히기 전까지는 바닷가였다. 바다는 어린 정종선 씨에게는 어머니 품과도 같은 곳이었다. 더운 여름이면 동무들과 옷을 벗어 던지고 뛰어들어 물장구치고 수영하고 안방처럼 친근하게 놀던 곳이었다. 때로는 게도

잡고 조개도 캐고. 바다가 있으면 동무들이 안보여도 심심하지 않았다. 겨울이면 세찬 바닷바람과 겨루며 그 곁을 지나 학교에 다니던 그런 혹독한 곳이기도 했다. 그래도 바다는 종선에게는 동무처럼 다정한 곳이었다.

자라면서는 바다의 이미지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바다는 생활의 터전이 되기 시작했다. 갯벌은 보물창고 같은 곳이었다. 호미를 들고 나가면 조개를 캐고, 삽을 들고 나가면 낙지를 잡았다. 조새를 들고 나가면 굴이 무진장으로 있었다. 바다는 다가가기만 하면 무엇이든 조건 없이 내어주는 곳이었다. 성장해서는 배를 지어가지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가 고기잡이를 했다. 송어, 모쟁이, 망둥이, 낙지, 굴... 원하는 대로 내어준다. 이렇게 잡은 어물은 집에서 먹기도 하고 때로는 시장에 나가면 돈이 되었다.

정종선 씨는 목선을 만들어 바다를 드나들며 고기를 잡았다. 그렇다고 전문적인 어부는 아니었고 배를 가지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고기를 잡았다. 배 한척이 있으면 마을 사람 십여 명이 타고 나가 고기를 잡는다. 잡은 고기는 각자의 생활이 되었다. 때로는 먹을거리가 되고 때로는 주머니를 채워주는 상품이 되기도 했다.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없었다. 배를 가지고 나갈 때 누구든지 같이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타고 나가서 각자 필요에 따라 고기를 잡는다. 잡은 고기는 각자의 몫이다.

바다는 사람을 가리지 않았다. 누구나 다가가기만 하면 내어 준다. 조건을 달지 않는다. 그런 바다가 어느 날 사라졌다. 어업보상금이라는 걸 몇 푼 쥐어 주고 바다를 막아 놓지가 조성되면 몇 만평씩 분배해준다는 솔깃한 말로 다독이면서 바다는 막혀 육지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이 무시로 드나들면서 조개 캐고 낙지잡고 때로는 배를 타고 나가 고기를 잡던 너그럽던 바다는 이제는 육지가 되었다. 너른 평야가 되었다.

상전벽해(桑田碧海)가 아니라 벽해옥담(碧海沃菴)이 되었다. 천지개벽과도 같은 일이다. 조개, 굴, 낙지를 내어주던 갯벌은 전설이 되었고 고기잡이배를 띄우던 푸른 바다는 옛이야기가 되어 흐른다. 푸른 별판에 농작물이 넘실댄다.

시간은 언제나 현재를 지우고 흘러간다. 무진장의 과거를 만들어 낸다. 그게 시간의 속성이다. 푸른 물결 넘실대던 배들의 고향은 먼 과거가 되었고, 너른 들판에는 녹색 벼들의 물결이 일렁인다. 바다에서 배를 몰던 청년 정종선은 이제 80대의 노인이 되었고 그가 누비던 바다도 사라졌다. 그가 배를 몰아 고기잡이를 하던 바다는 이제 80 노인의 머릿속에서만

일렁일 것이다.

면담자를 안내하여 들판의 길가에 서서 어디가 어딘지 구분도 안 되는 너른 들판의 논둑 길가에 서서, 저기는 누구네 염전이었고 저곳은 또 누구네 염전이었다고 손가락으로 가리키지만, 면담자의 눈에는 그저 너른 들판에 벼들이 일렁이는 것이 보일뿐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그저 전설이 되었다.

채록을 하던 마을 회관에서 만난 마을 사람들이 목청을 높이며 떠들어 대던 불평들이 면담자의 머리에 맴돈다. 바다를 막아 육지를 만들었던 당국자들에게도 물론 그 나름의 당위성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무진장으로 내어 주는 바다를 없애는데 대해 얼마나 깊은 고심을 해 보았을까? 바다가 준 것과 육지가 베푸는 혜택에 대하여 얼마나 생각을 해보았을까?

이곳 말고도 우리지역에는 많은 갯벌이 육지가 되었다. 돌아다녀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것을 보았다. 바다를 막아 육지를 만들면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다. 들판의 길가에 서서 면담자를 안내하며 녹색 물결 일렁이는 너른 들판을 바라보는 머리 희끗한 노인 정종선 씨의 눈에는 만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  
오도의  
과거와 현재



**안명수** (1948년생)  
당진시 당진중앙1로

안명수 씨는 4남 2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구술자가 태어난 곳은 그 당시 당진의 유일한 항구인 오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을 보냈다. 안명수 씨가 어렸을 시절에는 오도는 법정리동은 당산리에 속해 있었고 자연환경은 거의 대부분이 바다였었다. 그 바다는 염전을 이루고 있었으며 교통수단은 인천을 다니는 연락선을 이용하고 있었다. 바닷가였으므로 주로 어업이 주산업이었고, 염전이 있어서 천일염을 생산하기도 하였었다.

안명수 씨의 아버지는 정미면 봉생리가 고향인데, 소년 시절에 구술자의 외조부가 아들이 없어서 외조부의 데릴사위로 당산리 오도로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되었다. 따라서 구술자도 오도(당시에는 당산리가 법정리동이었음)에서 태어나서 성장하였다. 어린 시절에는 바다 건너마을인 고대면 슬항리로 밤에 수영을 해서 건너가 참외서리도 하였던 일이 아련한 추억이라고 한다.

안명수 씨의 선고께서는 농사일도 하였지만 농토가 적은 지역이어서 연락선에 선적물을

선적하거나 하역하는 일도 하였다. 가마니를 짜고 새끼를 꼬아 염전에 갖다 주고 대금으로 소금을 받아와 팔기도 하였다. 안명수 씨의 어린 시절, 안명수 씨의 부친과 마을 사람들은 인천으로 올라가는 연락선에 물품을 선적하거나 인천에서 실려 온 물품을 하역하는 일도 하였는데, 이러한 인원이 꽤 많았다고 한다. 이러한 연락선과 관계된 일을 하는 환경은 매우 열악하였다고 한다. 배와 연결하는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배와 육지 사이에 다리판을 놓고 작업을 하였는데 이것이 그다지 안정적이지 못했다. 특히 물건을 선적하는 과정에서 등짐으로 지고 다리판을 올라가는 과정에서 몸의 균형을 잃으면 짐을 바다에 빠트리는데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한다.

그 당시 인천으로 올라가는 물품 중에는 쌀이 많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를 물에 빠트리면 변상을 해 줘야 하는데, 당장 현물 변상이 어려웠다. 그 배는 그냥 올려 보내고 부두에서 상하역을 하는 사람들이 공동 책임으로 생각하여, 십시일반으로 각출하여 다음 배편에 올려 보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안명수 씨는 회상하였다.

안명수 씨는 4남 2녀 중 둘째로 태어났으나, 형님이 일찍 타계하여 지금은 장남노릇을 하고 있다. 어린 시절은 특별히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한 어린이로 성장하였다. 유년 시절에는 4km 정도 떨어진 송산초등학교(당시는 송산국민학교)를 걸어서 통학하였다. 그 시절은 누구나 그랬다.

안명수 씨는 초등학교 시절을 회상하면서 사소한 일로 벌을 서는데 너무 오래 세우므로 화가 나서 집으로 그냥 돌아와 다음날부터 학교를 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는 중 홍사훈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와서 안명수 씨를 달래고 안명수 씨 아버지에게도 잘 말씀하시는 것에 감동하여 다시 등교를 하였다. 지금까지도 그 선생님을 못 잊어 돌아가실 때까지 꼭 1년에 한번 이상은 찾아뵈었다고 한다. 그 뿐만 아니라 그 선생님이 정년퇴임할 때는 구룡휴게소 2층 식당에서 피로연을 해드렸다고 한다. 그만큼 그는 깨끗한 영혼의 소유자이다.

안명수 씨는 그 은사를 평생 스승으로 마음속에 되시면서 살아오고, 살아갈 것이란다. 안명수 씨는 그 은사를 잊지 못하여 2007년 6월 18일자 모 지역신문 독자마당에 ‘선생님 뉘석이 피네요.’란 제목의 공개서한을 투고하였다. 은사의 노환을 보면서〈전략〉 ‘어린 시절 큰 버팀목 같던 선생님의 모습을 앗아간 세월이 참 밍고 야속했습니다.’라고 슬회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요즘 보기 드문 일이어서 면담자도 숙연해 짐을 느꼈다.



안명수 씨는 자라서 청년시절에는 고향에서 새마을지도자, 이장 일을 오래하였다. 특히 새마을지도자를 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단합이 잘되어 일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회상하였다. 면담자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마을 사람들이 순박하고 인심이 후하여 그렇기도 하겠지만, 마을에서 일을 맡아 추진하는 사람이 사심이 없고 마을을 위하여 열심히 하는 까닭으로 마을 사람들이 호응한 면이 많을 것이란 생각을 하였다. 구술자는 동리 일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범죄 없는 마을’로 지정을 받은 일을 꼽았다.

인천으로 연락선이 다닐 무렵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연락선은 일기조건에 따라 출항을 못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 일이었다. 외지에서 배편을 이용하려고 왔다가 배가 출항을 못하면 숙박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하여 주류 판매와 숙박업을 겸행하는 주막이 몇 군데 있어서 지역에는 활기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80년대 무렵 육상교통이 발달함에 따라 해상교통은 쇠퇴하였다. 천일염을 생산하던 염전도 차츰 농지로 개답되면서 해변의 모습은 점차 사라져 지금은 그러한 흔적을 찾기도 힘들다고 한다.

안명수 씨는 1993년도에 어려운 일을 당했던 일이 있었다. 그때 병원에 오래 입원했었는데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많이 목격했다고 한다. 그래서 장애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없을까 고심하다가 장애인 후원회를 조직하여 초대회장을 하면서 기반을 다져놓았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한다. 그 일로 당진군민대상을 받기도 하였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그 뒤로 후원회의 여러 사람이 군민대상(혹은 시민대상)을 수상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일은 안명수 씨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된다.

●  
당진  
채운포구에서의  
삶



**손종길** (1944년생)  
당진시 태성 1길

손종길 씨는 당진 채운포구에서 출생한 이 지역 토박이로 당진 채운포구의 지역 변화 모습을 증명해 낼 수 있는 산증인이라고 볼 수 있다. 손종길 씨는 선대부터 채운포구 근방에 거주해왔다. 밀양 손씨 가문에서 태어나 성실과 근면을 가훈으로 여기며 살아온 손종길 씨는, 할아버지가 이 지역에서 상업에 종사하여 채운포구와 주변 지역을 자주 돌아다니면서 견문을 넓힐 수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농사일로 바쁘셔서 어린 시절의 많은 시간을 할아버지와 함께 보냈다고 한다.

손종길 씨의 할아버지는 채운포구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답게 견문이 넓고 입담이 좋은 분이셨다. 그로 인해 손종길 씨의 어린 시절에 많은 이야깃거리를 남겨 주셨다. 특히 조부님이 승려를 도와주고 얻은 가전 비술이 인상적이었다. 민간치료 요법을 두 가지 소개했는데, 구안와사 치료법과 눈병을 고치는 방법이다. 의료서비스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 사상의학과 연관된 민간치료술로 마을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다고 한다.

구안와사 치료법은 쑥뜸의 온기와 쇠스랑을 이용해 몸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삼이 서는 눈병은 눈다래기와 다른 눈병이라고 하는데 음양의 조화를 다스리는 부적을 쓰고 지푸라기 모형을 만들어 바늘을 찌르는 형태의 상세한 방법을 정확하게 전해주었다. 이러한 치료법으로 마을 사람들을 치료해줬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불법의료행위로 벌금을 부과 받을 뻔했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의료행위가 근대사회에서 현대사회로 변화해가는 상황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다.

손종길 씨와 할아버지의 에피소드는 호랑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다. 손종길 씨의 할아버지가 밭에 걸린 호랑이 새끼를 구해주고 그 호랑이가 보은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장사꾼으로서의 재치가 돋보이는 이야기지 않나 싶다. 또 타 지역에서 온 장사꾼과 담력 대결을 한 이야기가 있다. 이 지역에 있었던 가묘에 가서 자신의 담력을 자랑하고 오는 대결이었다. 타 지역에서 온 장사꾼이 자신의 웃고름에 말뚝을 박고 귀신이 잡아채서 못 가는 줄 알고 무서워 울고 있는데 손종길 씨의 할아버지가 가서 구해왔다는 이야기이다. 이야기 자체는 보조구술자 또한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봤다고 하는 옛 어른들의 입을 통해 전해져 내려오는 흔한 이야기 일지도 모르지만, 채운포구 지역에 다른 지역의 장사꾼들이 많이 모여들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손종길 씨가 직접 겪은 어린 시절 채운리 지역은 갯벌이 넓게 펼쳐져 있고 바닷물이 수시로 들어오는 전형적인 바닷가 마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항상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고 굴을 따는 놀이를 하면서 지냈다. 갯벌이 넓게 펼쳐진 다른 마을들과 마찬가지로 독을 쌓고 흙을 매워 농경지를 확장했는데 대규모 토목 공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마철에는 물에 잠기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특히 어린 시절 친했던 동무가 장마철에 물난리가 난 농토에서 막힌 물을 빼기 위해 물이 잔뜩 불어난 수로 속으로 헤엄쳐 들어간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다.

어업과 관련해서는 작은 아버지와 고모부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채운포구에서 출발해 연평도까지 바람을 타고 가서 조기를 잡아오는 어업활동을 주로 했다고 한다. 또 어부들의 무사귀환과 풍어를 기원하는 당제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채운포구 근처의 당산의 위치에 대해 자세히 기록할 수 있었다.

채운포구의 이름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 있지만, 손종길 씨의 경우에는 포구에서 주막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 딸 이름이 채운이어서 그렇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어미가 하던 주막을 이어받은 채운이 마음 씩씩이가 좋아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짜 술이나 음식을 대접하고 미모도 좋아 그 이름이 알려지며 채운포구로 불렸다는 것이다.

또 채운포구는 항시 큰 배가 예닐곱 척 정도 정박해 있는 큰 포구임을 증명해주었다. 특히 채운포구는 수도권으로 향하는 뱃길의 중요한 지역이었는데 북창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예당평야지역에서 산출되는 많은 양의 세곡들이 북창으로 들어와 잠시 머물렀다 인천과 서울로 수송되었다고 한다. 북창이 있던 곳의 땅을 파보면 지금도 땅속에서 썩은 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또 배편을 통해 대도시인 인천에 가서 물건을 구매해 오는 사람들도 많았다.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시내버스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선들과 장사꾼이 항상 차고 넘치는 아주 활성화된 포구였다고 한다.

손종길 씨는 현대의 교육과정과 구학을 모두 경험한 세대이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10대 중반 쯤 부터는 4년 정도 인근마을 서당에서 수학을 하였다. 그 시절 지역민들은 초등학교 졸업 후 보통 농업이나 어업 등 생업 활동에 뛰어들어야 했으므로 정규 교육과정을 계속 수학하기는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청년이 되어서는 이 지역 염전에서 산출되는 소금을 싣고 나가 타 지역에서 판매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진포구 근처에서 삼만구천평정도 되는 넓은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고 있었다. 날이 좋을 때에는 매일 실어 날라도 다 나르지 못할 정도로 많은 양의 소금이 생산되었다고 한다. 하루에 백오십가마 정도. 햇볕에 바닷물을 증발시키는 천일염 방식으로 소금을 생산했다고 한다. 소금은 주로 내륙지방으로 운반에 그 지역의 현물과 교환을 했는데 주로 교환하는 현물이 보리쌀이었다고 한다. 소금과 보리쌀은 보통 1:1의 교환을 할 수 있었다. 보은 지역으로 소금을 팔러 가서 홍시와 바뀌었는데 운반과정에서 모두 터져서 팔지도 못하고 사발로 터진 홍시를 퍼먹었다는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다.

80년대 후반쯤부터 석문방조제를 건설하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채운포구는 막혔고 그때부터 바닷가 마을이 아니라 농가로 변했다고 한다. 번성한 포구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손종길 씨도 안타까운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하지만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 곡물이 부족했던 현실을 떠올리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 새마을운동과 방조제 건설이 함께 이

뤄지면서 육로 교통이 편해진 사실은 좋은 점이라고 하였다.

과거 채운포구 매우 깊은 곳까지 바닷물이 들어오고 넓은 갯벌이 펼쳐져 있었다는데 현재는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없다. 지금은 이곳이 해안 지역인지도 모를 만큼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다. 시내에서는 바닷가까지 나가려면 20분 가까이 차를 달려 나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해안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어렵다. 손종길 씨의 이야기를 들은 후 손종길 씨와 함께 이야기의 배경이 되었던 곳을 직접 둘러보았다. 채운교, 거북산, 당산, 북창 등을 직접 둘러보니 과거 갯벌이 넓게 펼쳐져 있고 바닷물이 출렁이는 모습이 손에 잡히는 듯 선명하게 상상이 되었다.

방조제가 생기고 현재의 넓은 들판이 생긴 후의 모습만을 경험한 면담자로서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 또 간척사업을 통해 농지를 늘릴 수밖에 없었던 그 시기의 한국 경제 발전 계획이 갯벌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있는 지금에 와서는 정말 아쉬운 선택이었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  
포구에서  
농토로 간척된  
해창포구



**이 정 호** (1934년생)  
당진시 고대면 고대로

이정호 씨는 고대면 당진포리에서 태어난 토박이다. 8남매 중 2째 차남으로 태어났다. 이정호 씨의 본관은 신평이며 선조는 고려말엽 문인으로서 활약했던 이첨의 후손이며 그의 재실 사당은 당진 신평에 있다. 선조들은 신평에서 대대손손 내려오며 살아오다가 증조부께서 당진포리에 이주하여 목선을 만드는 사업에 종사하면서 4대가 배 사업을 하였다. 아버지의 아명은 이봉호였고 성년이 되어 이인학으로 개명하여 불리 왔다. 아버지가 6형제였는데 생활이 부유하였으나 형제간에 재산을 모두 나누어 주어 아들인 구술자 이정호 씨는 아주 어렵게 살아왔다.

이정호 씨의 유년 시절은 일제강점기로 고대초등학교를 4학년 때까지 다녔다. 당시 일본인에게 일본어로 교육을 받아 한글을 몰랐다. 4학년 때 학교 교육을 중단하고 집에서 독학으로 한글을 배웠으며 서당에서 한문, 유학을 공부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생활을 하였으며 아버지의 일을 도와 생활하다가 8.15 해방을 맞이했다. 하지만 6.25 동란이 발발, 북한군은 한국 청년들을 모아 정치보위부 보조 역할과 당진포진성 산위에서 보조 서는 역할을 해야만 했다. 이정호 씨도 북한군에 의해 당진포진성에 근무를 서게 되었다. 이때 미군 군함 120여대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 이날 밤에 이정호 씨는 북한군의 지시에 의해 야간에 보조 근무를 했는데 인천방면에서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환한 모습의 발포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다. 바로 그것이 지나고 보니 인천 상륙 작전이었던 것이었다.

그 수난기를 겪은 후 22세 때에 결혼을 하고 이후 군에 입대하여 36개월 복무를 마쳤다. 제대 후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자 노력하였다가 5년 만에 당진포리 고향으로 낙향하였다. 이정호 씨는 슬하에 1남 6녀를 두었다. 당진포진성인 해창 포구에서 아버지 유업을 받들어 송어그물 제작 및 송어잡이 배를 운영하여 생활기반을 잡았다. 한때는 아버지께서 경영하는 화염 사업에도 참여 하였고, 조그마한 염전사업도 참여했지만 주 사업인 송어잡이 배 사업을 하는데 많은 세월을 보냈다. 그 외에도 바다를 막는데 죄수들을 이용, 간척사업 현장과 삼봉방조제 간척사업에도 참여했었다. 바다를 막는 몇 곳의 간척사업장 일을 할 때 당시 배로 돌을 운반하는 일을 하다가 배가 전복되어 구사일생으로 살아온 일도 있었다.

해창포구는 당진포진성 뒤에 두고 큰 마을이 형성되었다. 주로 우리지역 해창포구에는 크고 작은 배들이 많아 인천에 나무를 운반하는 배, 실치잡이 배, 송어잡이 배 등 여러 척이 있었고, 전체 주민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정호 씨는 해창포구에서 송어잡이를 최고로 많이 잡았을 때가 7가마까지 잡았다고 구술하였다. 해창포구 지역에서 송어잡이를 한 다음에는 한진 포구로 이동하여 송어와 준치를 잡아 건조하여 일본으로 수출까지 하였다.

이곳 당진포리 해창포구에는 목선을 이용하여 나무를 인천으로 실어다 판매하는 어선도 있었고, 인천으로 왕래하는 연락선 칠복호도 있었다. 이정호 씨는 오랫동안 송어잡이 배 사업을 마친 다음에는 주로 낙지를 잡았다고 한다. 해창포구가 삼봉방조제로 막히고 당진포리 주변에도 크고 작은 간척사업으로 차츰 차츰 바다가 막혀 굴 양식장, 낙지잡이, 송어잡이 배 사업이 저조하고 농사로 변천하였다. 그 후 대호방조제가 완성되면서 해창포구는 완전한 농업 지역으로 전환되었다.

한편 이정호 씨는 새마을운동 때의 기억도 함께 구술해주었다. 좁았던 마을길이 새마을운동으로 인하여 넓혀지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였으며 비록 새마을 지도자는 아니었지만, 하고자 하는 마을사업에 대해 적극 협조하였다. 특히 마을의 길을 넓히는 사업에 있어 토지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는데 이러한 토지문제 해결에도 적극 협력하였다. 당시 마을회관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 마을 일은 내 일이다’ 생각하여 지금 마을회관 자리 토지를 마을에 무료로 희사했다. 이후 마을회관이 건립되고 지금도 지역 주민들이 유용하게 쓰고 있어 늘 보람을 느낀다고 이정호 씨는 얘기한다. 주민들 역시 이정호 씨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지역 주민 모두가 가족 같은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다.

해창포구 주변에 크고 작은 방조제 축조로 농토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대호방조제가 축조되면서 더욱 많은 농토가 생겨나 더 이상 해창포구는 포구로서의 역할이 상실되었다. 이정호 씨는 과거 포구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어느 지역 부럽지 않은 많은 농토가 생겨서 부자 농가들이 늘어나 나름 부자동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2020년 근·현대 구술채록 사업으로 구술자 이정호 씨를 통해 과거 해창포구에서의 삶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제는 잊혀져가는 당시의 이야기를 실감나게 듣고 이를 기록할 수 있게 돼서 감사 말씀을 드린다.



●  
20세기 후반  
한진포구의  
변천



**방우진** (1950년생)  
당진시 송악읍 한진포구길

방우진 씨는 한진에서 태어나고 자란 지역민이다. 방우진 씨의 선친은 조부 때부터 한진에서 인천으로 오가는 배를 소유하였고 이 배를 통해 각종 물건을 당진과 인천사이를 유통, 연계해주는 일을 해왔다. 당시(20세기 초중반)에는 당진에서 인천으로 다니는 뱃길이 있었는데 내륙의 부리포, 구만포, 운정리, 멧돌포, 한진에서 인천으로 다녔다. 이는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 내륙의 하천을 이용해 드나들었다. 즉, 밀물 때 내륙으로 들어가고, 썰물 때 조수 방향을 활용해 바다 쪽으로 나오는 것이다.

방우진 씨의 부친은 주로 인천에서 공산품, 석유 등을 구매해 당진에 유통시켰고 당진의 농산물을 인천에 운송, 그곳의 상인에게 연계해주는 일을 담당했다. 방우진 씨의 부친은 한진의 초대 어촌계장을 맡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도 많이 했다. 인근 행담도가 유빙이 있어 오가지 못하고 고립되어 식량이 떨어지자 어렵게 행담도에 식량을 가져가서 주민들을 살려

메달을 받기도 하였다. 방도 옆에 있는 노출암에 갇힌 80여명의 사람들을 구하기도 하여 지역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방우진 씨의 아버지는 이후 당진 송악읍 복운리와 부곡리 일원에서 천일염 염전사업을 대규모로 진행했다(송악염전, 대동염전). 그러나 천일염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 부족 및 생산원가가 투자대비 미흡하여 염전사업은 실패하였고, 이로 인해 건강을 잃어 일찍 별세하였다. 이후 가세가 기울면서 방우진 씨도 그때부터 학업을 그만두고 한진포구에서 염전 및 어선 운영 등에 참여하였다.

60~70년대 한진은 서산, 태안, 당진에서 생산하는 소금을 집산, 야적했다가 전매청에서 검사 후 반출하는 소금의 집산지였다. 많은 노동자들이 근무하였고, 그래서 산을 헐어 부지를 마련할 정도로 넓은 공간이 요구되었다. 한진포구 주민들은 주로 어업에 종사하였다. 인근 바다에서는 준치를 비롯한 수자원이 풍부했다. 그래서 어민들은 종선과 닻배를 활용해서 봄에는 꽃게를 잡고, 여름에는 전라도에 가서 새우젓을 담그는 잔새우 조업을 했다. 이후 방조제가 막히고 낭장망 어선의 남획으로 풍족한 어족자원들이 크게 줄었다.

87~90년대 초 인근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어업이 어려워지자 어업보상으로 많은 배들이 폐선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은 과거에 비해 배가 크게 줄어들었다. 주민들은 현재 소규모로 어업에 종사하기도 하고, 인근에서 잡은 소라, 낙지 등을 포장마차에서 팔기도 하면서 여전히 바다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방우진 씨는 독학으로 항해사와 기관사에 대해 공부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1974년부터 1979년까지 평택 만호리에서 한진을 오가는 연락선을 운영하였다. 1979년에는 해양 조사를 위한 조사선을 건조해 운영하였다. 경기도,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수심을 측정하고 해저 시추, 해저 지질도를 작성하는 일을 하기도 하였다. 80년대 한진에서는 여전히 어업이 어느 정도 성행하기도 하였으나 예전 같지는 않았다. 방우진 씨는 이후 방조제가 생겨나고 수자원이 크게 줄면서 ‘잡는 어업’의 한계를 절감하고, ‘기르는 어업’에 관심을 갖고 1983년 어민후계자가 되었다. 방우진 씨는 후계자가 되기 전부터 김, 굴, 바지락 등을 양식하였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비웃기도 하였고 유빙으로 인하여 김 양식 등에서 피해를 입기도 하였으나 꾸준히 양식 준비를 하고 연구해서 많은 소출을 올리기도 하였다. 특히 바지락은 큰 매출을 올렸으나 방조제와 항만이 생겨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예전처럼 많이 나오지는

못하였다.

한편 방우진 씨는 1989년부터 16년간 한진리 이장을 역임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많은 일을 했다. 방조제가 생겨나고 포구의 기능이 저하되었지만 방우진 씨는 한진의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섰다. 지속적으로 인근 마을 개발사업과 연계하거나 시 예산을 확보하여 서해대교 개통 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된 한진포구 일부를 매립하여 주차장을 조성하였다. 그 외에도 마을 안길 및 진입로 확포장 그리고 관광어촌마을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방우진 씨는 물, 나무, 양식 즉 주민들에게 수자원, 연료, 먹거리를 제공하거나 개선하는데 힘 썼다. 대규모 산업단지의 등장으로 김 양식과 관련하여 보상과정에서 주민들과 갈등이 있기도 하였으나 방우진 씨는 대대로 살아온 지역에 대한 애정과 긍지를 가지고 맡은 바 일을 했다.

방우진 씨의 생애는 20세기 후반, 한진과 나아가 당진이 겪었던 급격한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이 사실상 일치하고 있다. 과거 해로를 통해 활발한 교역과 어로 활동이 있었으나 육상교통의 활성화가 되고 방조제의 설치, 어족자원의 남획 등으로 과거의 산업들이 쇠퇴하였다. 이러한 수십 년 동안의 급격한 변화를 구술자는 현장에서 본인이 경험하고 목격하여 이번 구술채록을 통해 생생하게 담을 수 있었다.

●  
한진포구에서  
염전사업과  
나와 선대의  
삶



**차재석** (1951년생)  
당진시 오류동길

차재석 씨는 당진 대덕리에서 태어나 조상 대대로 살아온 토박이다. 그의 선대 연안 차씨가문에는 조선중기 ‘동방문사’라 일컬어지는 창주공 차운로가 있다. 14대 조부인 차운로 공은 조선중기 명성 높은 문인이다. 시흥현감을 하다가 당진으로 낙향하여 정착하였으며 그의 산소 재실이 수청 2 지구 내에 모셔져 있다. 명 문장가의 후예로서, 차재석 씨의 조부님 역시 한시를 좋아하셨고 한시를 직접 짓고 시조를 읊고 또한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차재석 씨는 2남 4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고 이러한 조부님 모습과 할머니의 지극한 불교 신앙정신을 보면서 성장하였다.

차재석 씨의 외가는 당진 대덕리에서 가까운 용연리로 청주 한씨 가문이다. 외조모님은 차재석 씨의 친할머니와 함께 가족처럼 생활하였고 외숙부는 방앗간 정미소를 운영하였다. 당시 면단위 지역에서는 초등과정도 간신히 다녔던 시대이다. 차재석 씨의 유년시절은 서

산, 당진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당진성당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을 다녔다. 대덕리에서 거리가 먼 당진성당 유치원을 중학생 누나의 도움으로 다녔으며, 초등 과정까지 당진에서 마쳤다. 중학교 1학년 때에는 서울로 전학하여 서울에서 중학교 및 고등학교, 대학과정을 수료하였다.

차재석 씨가 당진에 내려온 지 1년 만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 차재석 씨는 아버님이 경영하시던 한진포구 인근 황해염전 사업을 맡아 1976년부터 1994년까지 18년간 운영하였다. 3면이 바다였던 당진지역에는 크고 작은 염전이 많이 있었다. 이제는 세월이 지나 염전을 직접 경영하던 인사들은 나이가 연만하여 돌아가시고, 기업적으로 운영하던 유명 염전들은 당진 3곳에 방조제가 생기면서 사라졌다. 때문에 차재석 씨를 통해 들은 당시 염전에 대한 이야기는 큰 의미가 있다.

차재석 씨의 아버님 차철영 씨는 지금 환영철강 제철소가 있는 고대면 슬항리에 공심포 염전을 운영하시면서 한진포구에 바다를 막아 염전을 개발, 운영하였다(황해염전). 황해염전에는 한진포구 주민들이 많이 일을 하였다. 이러한 관계로 차철영 씨는 크고 작은 한진포구 숙원사업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차재석 씨 또한 새마을 사업에 참여하는 등 한진포구를 마치 우리 마을처럼 여기며 지역 주민들과 가족처럼 생활해왔다. 일례로 한진에 배를 가진 어민들이 송어, 준치를 잡아 담을 그릇이 없으면 소금가마니를 내어 주었고, 운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염전의 화물차를 이용해 시장까지 실어다 주어 판매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염전사업 초기에는 차가 없어 당진에서 버스를 이용해 한진포구 사업장까지 가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염전 차를 구입한 이후에는 차를 이용해 출퇴근하였고 한진포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내어주기도 하였다. 또한 전국의 소금 사용처를 찾아 직거래를 성사시켰다. 특히 강원도 소금 거래처에는 소금을 팔고 배달 후에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랭지 배추를 서울 시장까지 실어다 판매하기도 하였다.

한진포구에는 송어와 준치가 많이 잡혔다. 그래서 여기 저기 먼 곳에서도 송어, 준치를 잡으려고 한진포구를 너무 많이 찾아와 배와 배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빈번했다고 차재석 씨는 말한다. 차재석 씨를 통하여 당시 소금의 생산과정에 대해 상세히 알 수가 있었으며, 한진 풍어제와 관련한 이야기도 함께 들을 수 있었다.

삽교천 방조제가 생기고 한진포구 건너편에 평택 국제항이 생기면서 바다 생태계가 변화

했다. 송어, 준치가 잡히지 않자 한진포구를 드나들던 고기잡이 배 들도 줄어들었고 지역 주민들은 바지락이나 굴 양식 등 해산물 판매로 눈을 돌렸다. 또한 인근에 생긴 공장으로 일을 나가는 주민들도 많아졌다. 염전에 대한 애착이 그 누구보다 강했던 차재석 씨지만 한진포구에 있는 황해염전이 공단으로 수용되자 도리 없이 정든 염전을 떠났다. 이후 차재석 씨는 지역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테니스장을 경영하는 한편 창고 임대업, 식당을 운영하며 근면하고 성실히 살고 있다.

면담자는 차재석 씨의 건물에서 35년간 세입자로 생활했던 인연이 있다. 차재석 씨는 35년간 건물세를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다. 게다가 주변 건물세의 반 정도 되는 저렴한 건물세의 혜택을 받았다. 이렇듯 차재석 씨는 지역민들에게 많은 인정을 베풀었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에도 기여한 공적이 많으면서도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것을 싫어하는 겸손한 성품의 소유자다. 차재석 씨는 유년시절 살생을 말아야 한다는 불교의 가르침 그리고 조부님, 아버님의 거짓말을 하지 말고 살라는 지침을 받들어 지금도 성실히 타인에 무언의 귀감이 되도록 살아가고 있다.

# 금산군

## 금산 인삼이야기

19살에 삼농사를 시작하다	462
군 제대 후 인삼농사를 시작하다	466
형님들을 대신해서 가사를 도우며 인삼을 재배하다	471
장남의 이름으로! - 20살 무렵에 삼농사 시작하다	477
토마토를 금산에 알리라	482
내 적성에 안 맞아서 못하겠어	486
떠돌이 장사	490
여기 나올 때 보리쌀 두 말 갖고 나왔나, 서 말 갖고 나왔나	494
어렸을 때부터 가장이었다	498
맨 처음 시작한 것이 우리 회사였어요	503

●  
19살에  
삼농사를  
시작하다



**손 동 연** (1935년생)  
금산군 추부면 마전로9번지

### 19살에 삼농사를 시작하다

어머니는 위에 형님들에게 살림을 안 맡기셨다. 착실하다는 이유로 손동연이 가사 일을 맡았지만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라 먹고 살길이 막막했다. 처음에 시작한 것이 미곡 장사였다. 미곡이라야 쌀은 별로 없고 잡곡을 주로 취급하였다. 주로 대전 사람들을 상대하였는데 그들은 대전까지 자전거로 곡식을 운반했다. 태봉재를 넘어다니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돈을 받고 자전거를 밀어주는 직업 아닌 직업도 생겨났다.

처음 삼을 심을 때는 삼씨를 어우리했다. 그 당시는 삼씨 어우리도 어려웠던 때이다. 실패해서 삼씨도 못 건지는 경우가 많았다. 막상 인삼을 심었을 때는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없었다. 먼저 풀을 인근 산에서 해다가 썰어서 그것을 밭에다 뿌리고 갈아서 열개미로 쳤다. 판을 찍어서 작판을 만들어 농사를 지었다. 인삼에 살포할 약도 없었다. 입고병이 돌면 도



리가 없었다. 무조건 번지지 못하도록 흙을 파내는 수밖에 없었다. 처음 재배하는 삼이었고 또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라 열심히 했다. 다행히 삼씨 서 되를 어우리 해서 심은 것이 대박 났다. 그때 당시 쌀 60가마 가격을 손에 쥐었으니 삼 값이 얼마나 비쌌는지 알 수 있다. 그때도 칸매를 했던 것 같다. 원래 삼씨를 준 사람과 삼을 캔 사람이 나누어 가지고 또 내뭇도 나누었으니 삼 값이 얼마나 비싼지 실감이 났다.

워낙 귀한 몸값을 자랑하는 삼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심지 못했다. 돈이 없으니 삼씨를 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어우리 주신 분은 아버지하고 호형호제하는 분이였다. 그렇다고 귀한 삼씨를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워낙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에 믿음이 갔었나 보다. 무보수로 어우리 주신 분의 삼밭을 몇 년간 지켜주기도 했다. 그때는 보상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단지 아버지하고 각별하다는 이유 하나였다. 다음에는 삼씨 2말을 주었다. 그 당시 삼시 한 말에 쌀 일곱 가마 가격이었다. 어지간한 머슴 일 년 새경과 맞먹는 가격이었으니 얼마나 귀하게 취급하였는지 모른다. 이번에도 열심히 인삼 제배를 하였다. 군에서 7년간 복무하신 형님이 제대를 하고 도와주어 큰 힘이 되었다. 두 번째도 재미를 보았다. 그 이후로 현재까지 살면서 인삼을 떠나본 적이 없다. 인삼과 함께 한평생을 보낸 셈이다.

### 삼포를 깨끗하게 하다

가을에 단풍이 들 때면 풀을 해다가 삼장밭을 덮었다. 겨울에 얼지 않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을에 나락 수확도 해야 하고 이만저만 바쁜 것이 아닌데 삼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삼장밭에서 살아야 했다. 한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겨우내 덮어 놓았던 풀을 걷어내야 한다. 인삼이 움이 나려고 할 때가 덮어 놓은 풀을 제거하는 적기이다. 아주 조심스럽게 걷어내야 한다. 만약에 인삼 움을 건드려 부러트리는 날이면 그 인삼은 제대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깨끗하게 삼장 관리를 했다. 해마다 가을이 되면 풀을 덮고 또 봄에 걷어내기를 반복해야 한다.

풀은 주로 산에서 나는 잡풀이었다. 예전에는 지금보다 추운 날이 많았다. 삼이 얼기라도 하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기 때문에 언제나 몸과 마음이 삼장에 가 있었다.

## 인삼 도둑을 잡다

인삼이 고가이기 때문에 도둑이 많았다. 금산에서 삼은 현찰처럼 통용되었다. 물건을 구매할 때 삼 서너뿌리만 가지고 가면 그대로 현금처럼 받아주었다. 어떤 때는 현찰보다 낫다고도 했다. 처음 삼 크기가 작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해가 지나 삼이 많이 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했다. 삼농사를 지으면서 여러 번 도둑을 맞았다.

타지에서 땅을 얻어 인삼을 심었다. 해가 지나 어지간히 자란 삼을 지켜야 해서 금산 사람을 하나 구해 움막도 지어서 살게 하고 인삼을 지키도록 부탁했다. 그런데 이곳저곳 인삼을 캔 흔적이 있는 것이었다. 삼밭을 잘 모르는 사람이 캐다면 사방 어지럽게 해 놓았을 터인데 함부로 캔 것이 아니었다. 그 동네 사람의 말을 들으니 삼장을 지키라고 고용한 그 사람이 그랬다는 것이다. 인삼을 캐다가 술도 먹고, 음식도 사 먹고 했다는 것이다. 하루는 그 사람이 와서 울면서 말하기를 인삼 도둑을 맞았다는 것이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안 그런 척 울면서 이야기를 하니 난감하였다. 그렇다고 사실 관계를 따져 책망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모르는 척하고 잃어버린 것을 어찌겠냐고, 다음부터는 잘 지키라는 말만 했다.

## 재배 지역에 따라 인삼이 다르다

수삼은 전라도 쪽이 좋다. 흙 자체가 황토 흙이라 인삼의 색이 예쁘게 나온다. 삼을 깎아서 말려서 가공하는 인삼은 충북에서 재배한 삼이 좋다. 우선 예정지를 잘 정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곡식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공을 들이느냐에 따라 품질이 달라진다. 충북 쪽이나 금산, 제원, 진산 쪽 인삼은 인삼을 탈피했을 때 부수가 덜 먹는다. 반면에 전라도 삼은 백삼을 만들 때 부수가 더 먹는다. 그래서 깎는 작업을 할 때 재배산지를 고려해서 작업을 해야 했다.

지금이야 다른 지역 사람들도 인삼을 재배하지만 예전에는 금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타지에서 인삼 재배를 하더라도 그곳 현지인이 아니라 금산 사람들이 재배를 하였다. 황기 지역은 연작장애가 심했다. 재배지가 한정되어 있다보니 연작을 많이 해서 황이 많이 찼다. 예정지는 사질양토냐, 질땅이냐가 삼농사를 좌우한다. 자갈이 많은 곳도 피해야 한다. 제원은 대부분 석비래고 진산 쪽은 질 땅이 많다. 진산 흙은 검은 색을 띄어서 삼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히려 진산은 삼이 잘 된다. 게다가 받은 한번 심고 나면 다시

는 연작이 불가능한데 진산은 그렇지 않았다. 진산은 옹기를 만드는 흙이 나는 곳으로 예전부터 옹기를 생산해 왔던 곳이기도 하다.

재결이 가능한 땅도 있었나 보다. 괴산에서 재결 땅이라는 곳에 인삼을 심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5년근이었을 때 캐보니 인삼이 짱짱하고 괜찮아서 재미를 보았다. 대부분 재결을 하면 인삼이 잘 자라지 않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흙의 성분차이인지 재결도 가능한 곳이 있음을 알았다.

인삼재배, 인삼 칸매를 위해 안 다닌 곳이 없다. 전라도 부안, 고창, 무주, 충북 괴산, 황간, 경기도 김포, 강화 등 타지에서 인삼을 했을 때 실패도 많이 하였지만 그래도 큰 손해를 본 경우는 없다. 오히려 칸매를 잘 못하여 손해를 본 경우는 더러 있었다. 칸매하는 사람들에게 타지역에서 인삼을 볼 때 금산에서 생산되는 인삼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고 알려주면 반신반의 한다. 사실 재결의 경우 생산량을 예측하기 어렵다. 혹시 썩은 것이 눈에 띄면 30% 감해서 흥정하라고 한다. 실제로 캐보면 틀림없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 여자는 삼장에 들어오면 안 된다

어느 곳이나 금기는 존재한다. 삼을 재배하면서 금기하는 것도 당연히 존재한다. 다른 작물에 비해 고부가가치 작물이기 때문이다. 재배를 위해 들이는 수공도 만만치 않다. 일 년 내내 삼장을 떠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타지에 삼장을 마련해도 매일 가서 확인을 해야 한다. 다른 작물 재배보다 품이 여러 곱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다. 집안 식구 모두 동원되어도 어렵다. 특히 삼을 깎을 때는 온 동네 사람들이 동원된다.

금기 중 하나는 여자는 삼장 출입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 그러냐라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지만 단지 부정탄다는 이유로 남자들만 삼장에 들어가 일을 했다. 그러나 남자들만의 노동력으로 삼장을 손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자들이 삼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금산에서 언제부터 여자들이 삼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는 여자들의 노동력을 빌리지 않고는 삼 농사 짓기가 어렵다.

삼장에서 고사도 지냈다. 처음 삼을 심었을 때 한 번 제사를 지내는 것이 보통이지만 해마다 지내는 집도 있었다. 특히 삼을 채굴할 때는 제사를 지내고 일하는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하나의 미신이라기보다 정성이라고 보아야 한다.

●  
군 제대 후  
인삼농사를  
시작하다



**이 종 열** (1940년생)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 군 제대 후 인삼농사를 시작하다

1963년도 군대를 제대하고 인삼농사를 시작했다. 아버지가 인삼농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삼과 접했고, 또 당시는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겨를도 없었다. 이곳은 월봉산이 가까이 있어 지주목과 풀을 조달하기에 용이했다. 월봉산은 인근 주민들의 연료를 공급하는 산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나무를 해 가는 바람에 벌거숭이가 되었고 나무라고 해야 겨우 지주목 정도 할 수 있을 정도였다.

새벽밥 먹고 지게에다 짚신 하나 매달고 월봉산으로 향했다. 눈이 녹아 질퍽한 길을 걸어 다니다 보니 동상을 달고 살았다. 부친이 삼을 재배하셔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기술이전이 되었지만 많은 평수는 아니었다. 겨우 가내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소서부터 대서까지 삼을 꺾어서 말려서 접어서 백삼을 만들었다. 대서가 지나면 삼이 준다고 해서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했다.

삼농사 만큼이나 삼의 유통도 중요하다는 생각에 삼화산업사라는 가게를 읍내에 차렸다. 30대 초반에 장사를 시작했으나 망했다. 자본이 딸리고 또 동업 했던 사람들과 의견이 달랐기 때문이다. 금산 사람, 서울사람과 함께 했지만 거의 사기꾼이나 다름없어 가게를 접고 나 혼자만의 공장을 마련했다. 홍삼과의 경쟁에서 어려우니까 수삼을 물에다가 살짝 삶아서 말리는 태극삼을 만들었다. 태극삼은 홍삼보다 백삼향이 더 나온다. 원래 태극삼의 원조는 일본이었는데 일본의 ‘유도시’라는 말을 태극삼으로 바꾸어 명칭을 붙였다.

### 1905년 인삼 전매가 시작되다

인삼 전매는 1905년부터 었다. 황실에서 내탕금을 만들기 위해 전매 비슷한 제도를 만들어 수출과 판매를 막았다. 일본사람들이 들어와 전매로 바꾸어 버렸다. 그 전매법이 계속 바뀌지 않고 내려왔다. 전매법은 악법이었다. 남의 집에 인삼을 캐서 팔면 벌금만 물어주면 그만이었지만 자기가 지은 인삼을 허가 없이 캐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살아야 했다. 삼을 캐서 팔려면 15일 이전에 전매청장 허가를 얻어야 했다. 동남아에 대한 수출권을 선경에게 주어 수출도 선경만 하게 되었다. 인삼조합연합회라는 단체가 적자를 내자 선경이 대신 빚을 갚아주고 동남아 수출 권한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선경도 재미를 보지 못하고 두산그룹에 팔아 넘겼다. 그러나 두산도 수출 경쟁에서 밀려 손을 들었다. 이렇게 되면서 수출에 대한 제재가 없어졌다. 다음은 전매법을 고치기 위해 투쟁을 시작했다. 장장 24년간 부단히 노력하였다. 경찰서를 제집 드나들 듯이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영삼 정부가 되면서 행정쇄신위원회가 발족이 되었다. 당시 금산군수인 이명수가 불법적인 투쟁 말고 정당한 방법으로 쇄신위원회에 제소하자고 해서 접수한 뒤 다음 군수인 김동환이 나서서 전매법 폐지를 이끌어 냈다. 1996년 7월 농림부로 이관하면서 현재 전매법이 없어진 인삼시장이 된 것이다.

### 100% 인삼이 들어가야 홍삼정이다

홍삼정이라면 홍삼 이외의 물질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홍삼정은 15%밖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것은 홍삼정이 아니라 홍삼이 들어간 조제품에 불과하다. 정관장도 정

관장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홍삼을 곁들인 한약을 팔아먹는 것이다. 정관장은 돈을 어떻게 해야 빼 갈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한약재만 많이 넣어 제품을 만든다. 이걸 막아야 한다. 그러나 이제는 배가 고프지 않아 누구 하나 앞장서는 사람이 없다.

일화가 중국삼을 암암리에 많이 들여온 적이 있었다. 인삼 엑기스를 밀수했던 것이다. 그 자료를 찾아 탄원서를 냈다. 일개인이 밀수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는데 하물며 큰 회사에서 상식 이하의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결국 일화도 손을 들고 떠났다. 우리가 지켜야 인삼이 산다. 그런데 요즘은 부당한 일에도 나서려는 젊은 사람들이 없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초창기 가공, 연탄으로 말렸다

제대를 하고 집에서 삼농사 거들면서 보냈다. 젊은 사람이 시골에만 있을 거냐는 말에 삼방을 하나 마련하였다. 가공이라야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연탄에다가 말리는 수준이었다. 건조실 같은 건 생각지도 못했고 방에다가 깔아놓고 연탄으로 불을 땀다. 아니면 화덕에 담아 가지고 채반에다가 널어서 말렸다. 실로 매달아 놓고 화덕으로 온도를 높였다. 그때는 육안으로만 삼을 감별하던 시절이어서 어떻게 말렸는가가 중요하지 않았다. 인삼시장에서 경매는 없었다. 단지 흥정으로 가격이 결정되었다.

인삼시장이 잘 될 때는 여관도 잘 되었고 술집은 더 말할 필요가 없었다. 교통상황이 열악하여 삼을 사러오면 하루 자고 가야 했기 때문이다. 그때는 물량이 많았지만 그래도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았다. 새벽에 태봉산을 넘어오다가 강도에게 돈을 빼앗기기도 했다. 현찰로만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강도가 많았던 것이다.

1998년 도의원을 그만두고 고향에다가 공장을 지었다. 유희노동력인 노인들 일자리도 마련할 겸 공장을 세우고 삼원무역이라 해서 수출도 하기 시작했다. 홍삼은 당시에 전매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고 태극삼을 하게 된 것이다. 차차 대만의 바이어를 알게 되면서 대만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 백삼에서 수삼으로

인삼은 백삼, 즉 곡삼으로만 거래되었다. 수삼으로 거래된 역사가 짧다. 수삼으로 먹으면 약이 안 된다는 이유로 백삼을 선호하였다. 그러던 것이 객상들의 노력으로 수삼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백삼만 보다가 수삼을 보니 신비스러웠던 것이다. 객상들 덕분에 금산의 수삼 수요가 확대되면서 수삼을 파는 시장이 필요해졌다. 현재의 수삼센터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어지게 되었다.

홍삼으로 가공을 하면 전매청에서 잡아갔기 때문에 오로지 백삼으로만 가공을 했었다. 그런데 백삼 또한 전매청에서 규제를 하려고 했다. 전매법이 문제였다. 삼을 심을 때도 허가를 내야하고 또 채굴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모순이 금산 인삼을 옥죄고 있었다.

수삼은 1972년도 이후 전매법이 폐지되자 활발하게 거래되기 시작했다. 일반인들이 수삼을 직접 캐가지고 금산에 와서 거래를 하였다. 삼방에서 수삼을 사다가 집에서 수작업으로 백삼을 만들었다. 홍삼은 여전히 전매법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제조를 못하였지만 수삼을 가공하여 백삼으로 만드는 것은 가능했다. 당시 금산에는 인삼가공을 하지 않는 집이 없었다. 인삼이 금산을 먹여 살렸다는 말이 맞다. 가공한 백삼을 인삼 시장에 내다 팔아 생계를 유지했던 것이다.

백삼도 검사가 있었지만 검사 없이도 거래가 이루어 졌다. 인삼조합에서 검사하는 이유는 상품을 고급화하려는 취지였지 허가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검사로 팔아도 무방했다. 검사품은 꼭에다 넣었지만 무검사는 조잡하게 비료포대를 재활용하여 봉지를 만들어 편급 별로 담아서 판매를 했다. 검사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 가격은 검사품보다 저렴했다. 금산 사람들은 노는 사람이 없었다. 삼시장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전국으로 팔러 다녔다. 인삼객상 즉 보따리장사가 이때부터 시작되었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자식들을 교육시켰다. 당시 금산 학생들이 중앙대학을 많이 갔는데 중앙대학을 인삼대학, 금산대학이라 부를 정도였다.

## 인삼의 역사를 다시 쓰다

백삼은 한약방에서 주로 약재로 거래가 되었다. 많은 외지 장사들이 금산으로 삼을 사러왔다. 하루에 다녀갈 수 없는 상황이라 금산에 와서 하루 저녁을 지냈다. 잠도 자야 하고,

식사도 해야 하니 금산 경제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유통이 활발해지자 금산시장이 이루어졌고, 정비가 되면서 시장다운 모습이 갖추어 졌다. 그러나 그 정비가 긍정적인 방향이 아니라 수탈을 위한 방향이어서 문제가 되었다. 전보다는 발전을 거듭해서 현재에 이르렀지만 인식 부족으로 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매우 많다.

홍삼제조는 여전히 홍삼전매법에 묶여 있었다. 1997년도에 드디어 홍삼제조법이 폐지가 되면서 민간인도 홍삼제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전매로 생산했기 때문에 제조 경험이 전무한 상태였다. 홍삼제조는 예전부터 있었으나 전매로 철저하게 생산을 막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제조하려니 어려움이 많았다. 다행히 태극삼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어서 쉽게 홍삼 제조법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전매법이 폐지되면서 1998년 10월에 현재의 공장을 지었다. 태극삼이 홍삼과 거의 유사한 제품이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처음 만들 때는 실패도 많았다. 인삼공사가 홍삼제조법을 알려 주지 않아 기술이전이 어려웠다. 전매권을 인삼공사가 아닌 인삼조합이나 경작자 단체에게 주었다면 기술이전이나 상권에 있어서도 더 자유로워졌을 것인데, 그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  
형님들을 대신해서  
가사를 도우며  
인삼을 재배하다

**강복상** (1944년생)  
금산군 금성면 두곡2리

### 형님들을 대신해서 가사를 도우며 인삼을 재배하다

금산중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자퇴를 했다. 65년 12월, 22살에 군에 입대하여 논산에서 근무하고 68년 8월에 제대를 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지병으로 돌아가셨다. 남겨진 가족은 3남 3녀와 어머니 뿐이었다. 할머니마저 아버지 돌아가신 해에 작고하셨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만형은 한국전쟁 때 수류탄 사고를 당해 오른쪽 팔을 절단했다. 중형은 이웃 마을로 분가하여 만형과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살림 형편은 좋아지지 않았다. 69년 결혼하고 70년 분가를 하면서 첫아들을 얻었다.

형님은 그전부터 인삼을 재배했었다. 오른손이 없어 다른 사람을 사서 일을 했지만 백 칸에서 2백 칸 정도 인삼 농사를 했다. 조부 때부터 인삼을 재배해온 것은 삼 가격이 아주 좋았기 때문이다. 묵은 삼 두 근에 밭 500평이었던 시절이다. 아버지가 천 평 정도 토지를 마

련했고, 살림을 하면서 500여 평을 직접 농사지었다.

처음 인삼재배를 할 때는 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했다. 풀과 가랑잎을 산에서 해다가 삼발을 만들었다. 밭에다 퍼서 그것이 마르면 소로 갈아엎고 이렇게 몇 번을 한 후 손으로 통을 쳐서 다 손으로 심었다. 혼자 할 수 있는 규모는 150칸에서 200칸 정도였다. 기계가 없어서 오로지 손으로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자가의 밭이 있었기 때문에 어울은 하지 않아서 좀 수월한 편이었다. 총대는 소나무를 주로 썼는데 동네 사람과 어울어서 사다가 사용하였다. 총대 장사가 나무를 실어다 주면 나무 꺾데기를 벗기고 기둥과 걸대를 만들었다. 꺾데기를 벗겨내야 오래 사용할 수 있었다. 삼농사 준비를 하느라 겨울에도 쉴 틈이 없었다.

### 겨울에도 엉덩이 붙여 보지 못했다

겨울엔 호미를 가지고 밭을 엮었다. 날이 따뜻하면 밖에서 작업을 할 수 있지만 추우면 방에서 엮었다. 한겨울에 적어도 200장에서 300장을 엮었다. 삼장 한 칸에 밭 한 장 정도이니 이만큼 밭을 장만해야만 했다. 겨울에 밭을 준비하지 못하거나 모자라면 금산장에서 사다가 총당하였다. 삼농사는 하지 않지만 전문적으로 삼발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 대부분 호미를 경작하여 자가 조달하는 경우가 많았다. 호밀 밭은 4년 정도, 즉 4근까지 사용가능하다. 밭을 올리고 또 짚으로 이영을 해서 3중으로 덮었다. 짚도 많이 필요했다. 가을에 초가지붕 이영 해야지, 소 먹이 해야지, 이영으로 삼밭 덮어야지, 짚이 다용도로 사용되었다. 그래도 큰 형님이 농사를 많이 지어서 그 짚을 사용할 수 있었다.

삼장을 만들려면 새끼가 많이 필요했다. 겨우내 짚으로 새끼를 꼬는 것이 중요 일과 였다. 손바닥 지문이 닳도록 새끼를 꼬았다. 우선 짚을 잘 추려서 안 썩은 놈을 가려내고, 그냥 하면 뻣뻣하기 때문에 메로 치든지 바위에다 놓고 두드려 부드럽게 해서 물을 축이면서 밤새 꼬았다. 굵어서도 안 되고 너무 얇아도 못쓴다. 중간 크기로 새끼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듭으로 밭을 엮기도 했다. 미듭은 짚으로 꼰 새끼보다 오래 갔다. 4근 정도 버텨 주었으니까 어렵더라도 미듭으로 새끼를 꼬아서 했다. 근동에는 미듭이 없었다. 대전 쪽 산내까지 가서 미듭을 채취했는데, 마을 사람들과 함께 가서 식사를 부탁해 먹으면서 공동으로 작업

을 했다. 미듬은 말려서 사용하였다. 마른 미듬을 소여물 끓인 물에 넣었다가 꼬던지, 아니면 살짝 찢다. 이렇게 하면 잘 꼬아지고 더 오래 갔다. 소 없는 집이야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수명이 좀 더 오래 가도록 머리를 쓴 것이다. 미듬으로 70년대 중반까지 사용하다가 천으로 된 끈이 나오면서 대체 되었다.

### 인삼을 심기 전에 공을 들이다

소 두엄도 냈지만 주로 산에 가서 풀을 해다가 시비로 사용했다. 바닥풀을 해 놓고 놉[일꾼]을 얻어 썰었다. 썰어 놓은 풀로 밭에 죽 퍼서 흙을 덮었다가 마르면 소로 갈아서 엮었다. 대부분 소를 가지고 있어서 쟁기로 갈아 섞었다. 여러 번 갈아서 완전히 섞이면 고랑을 쳤다. 그해 가을에 고랑을 치는 경우도 있었고, 다음 해 봄에 치는 경우도 있었다. 풀을 여름에 채취하여 여러 번 갈아 썩혔다. 거름으로 사용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니면 콩이나 밀 같은 것을 썩혀 고랑에 조금씩 시비를 했지만 그것도 어려운 일이었다.

삼농사를 지을 때 삼에 꽃이 피고 열매[삼딸]가 맺으면 바로 없애 버렸다. 뿌리로 가야 하는 영양분이 열매로 가기 때문에 모두 집어냈다. 5월 달에 열매가 맺으면 다 집어 주었다. 다음 해에 씨앗으로 사용할 것은 따로 준비를 했다. 빨강계 잘 익은 열매를 채취하여 그릇에 물을 담아 손으로 문질러 씨를 싸고 있는 육질을 제거한다. 잘 씻은 씨를 음달에 말렸다가 시루를 준비하고 자갈 넣고, 삼씨 넣고, 모래 넣고 해서 개갑을 시켰다. 온도는 대략 15도에서 20도 사이어야 한다. 이것보다 온도가 낮던지 높으면 개갑이 안 된다.

굵은 모래를 삼 씨하고 잘 섞은 후 삼 씨 한 채, 섞은 거 한 채, 굵은 자갈을 놓았다. 굵은 자갈을 위에다 놓은 이유는 물을 줄 때 패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모래도 너무 가는 모래를 쓰면 물 빠짐이 나쁘고 개갑 때 갈라지는 곳을 막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다. 물 빠짐이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떡 해 먹는 시루를 사용하였다.

여름에 씨앗을 채취하여 개갑시키려면 약 한 달 가량 걸렸다. 입동 즈음에 개갑이 되도록 세심하게 관리를 했다. 이틀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물을 각각 감각으로 알아서 주었다. 온도가 없던 시절이라 오로지 경험과 감으로 온도를 맞추었다.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놓으면 개갑이 잘 되었다. 손수 좋은 씨앗을 준비해서 개갑을 했지만 후대에는 개갑을 시켜주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개갑이 되면 가을에 씨밭(종자밭)에 심었다. 판으로 찍어서 사람이 일일이 하나씩 심었다. 10칸도 하고 50칸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일일이 다 해야 했기 때문에 고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심는 일이 끝나면 산에 가서 풀을 해다가 덮었다. 겨울에 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듬해 봄에 싹이 나면 한 해 키워가지고 또 다음해 봄에 캐서 옮겨 심었다. 가을이 오면 다시 풀로 덮는데 이것은 흙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 삼이 솟아나기 때문이다.

### 겨울, 인삼관리의 험난한 계절이다

풀을 해다가 삼장을 덮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눈이 오면 밭이 눈 무게를 견디지 못한다. 왜 그렇게 눈이 많이 오는지, 밭을 미리 걸어 놓지 않으면 낭패다. 밭은 대개 한 칸에 하나씩 처진다. 밭을 걸어서 말아 가지고 총대에다 묶어 놓았다. 봄이 오면 다시 원상태로 해 놓아야 한다. 인삼은 햇빛을 피해야 하는 식물이라 여간 까다로운 작물이 아니다. 요즘은 차광망으로 한번 쳐 놓으면 그만이다. 밭을 엮을 필요도 없고, 짚으로 영을 엮을 필요도 없게 되었다. 겨울 노동에서 해방이 된 것이다. 예전에는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면적이 한정적이었지만 이제는 기계를 사용하고 또 새롭게 나온 여러 편리한 자재로 인해 넓은 면적의 삼밭을 쉽게 관리 할 수 있게 되었다. 2년근 째, 3년근 째 때에도 처음처럼 계절마다 똑같이 반복해서 삼을 길러 냈다.

### 삼장에는 물을 주지 않았다

겨우내 보온으로 쓰였던 풀은 깨끗하게 걷어내서 땀감으로 사용하였다. 남은 풀은 빗자루로 살살 이파리까지 쓸어냈다. 아마도 병충해가 오는 것을 우려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다.

아무리 가물어도 삼에는 물을 주지 않았다. 왜 물을 주지 않았는지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90년대 이후 까지 삼에 물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 철저히 지켜졌다. 한번 가물면 인삼을 수확을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한방울 주지 않았다.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물을 주는 사람은 보지를 못했다.

### 초상집 다녀 온 사람은 삼밭은 들어오면 안 된다

초상집을 다녀 온 사람은 자신의 삼밭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삼장도 출입을 해서는 안 된다. 부정탄다는 것이다. 여자들이 삼밭을 출입하는 것도 꺼려했지만 삼밭 일을 해야 하니 어쩔 도리가 없었다.

### 삼 캐는 날은 잔치를 했다

삼을 잘 캐는 사람을 얻어 수확을 한다. 가마니에 담아서 집으로 가지고 와서 상, 중, 하로 가렸다. 먼저 잔뿌리를 제거하고 100개든 200개든 동네 사람들이 가져다가 깎았다. 삼을 내줄 때도 헤아려서 주고 돌려받을 때도 정확한가 세어 보았다. 삼을 깎는 사람은 가져간 삼을 물에 잘 닦는다. 그리고 죽 돌려앉아 대나무로 만든 칼로 겉껍질을 깎았다. 삼을 깎은 껍데기는 작업 한 사람이 차지했다. 깎은 삼만 가져다주면 되었다. 껍데기만 모아 가져가는 사람이 있었다. 잔뿌리도 버리는 것이 아니다. 인삼 제품 만들 때 인삼향을 내는 데 주로 사용하였다.

깎는 샅을 조금 더 쳐주고 삼껍데기까지 주인이 모두 차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니면 아예 삼을 나누어 주지 않고 자기 집에 일하는 사람을 모아 놓고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하였던 이유는 인삼이 매우 귀하게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깎은 인삼은 이제 접어야 한다. 하루 이틀 말린 다음에 꼬들꼬들 해지면 동네 노인들이 등장한다. 이 때 주인은 잠을 자지 못한다. 선풍기까지 동원해서 고르게 마르도록 돕는다. 햇빛에다 말릴 때는 골고루 마르게 뒤집어 주어야 했다. 그렇게 잘 마른 인삼을 동네 어른들이 접는 것이다.

### 화학비료는 전혀 쓰지 않았다

인삼 재배에 화학비료를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삼이 썩는다고 여겼다. 콩이나 밀기울 같은 것으로 웃거름을 했지만 화학비료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일부러 웃거름으로 쓸려고 콩을 많이 재배하는 경우도 있었다. 벌레도 별로 없었으나 두더지는 많았다. 두더지가 한번 지나가면 삼이 솟아서 쓸 수가 없었다. 대부분 두더지는 약보다는 텃으로 잡는다. 예전에는 두더지 가죽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다.

평도 인삼을 많이 파먹는다. 이제는 망 없이는 평의 피해를 막기 어렵다. 멧돼지는 삼을 먹지는 않는다. 다만 땅강아지를 잡아먹으려고 삼밭을 쭈시고 다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다. 예전에는 뱀도 많이 보았는데 근래에는 뱀 보기가 어렵다. 개밭통(땅강아지)도 많았다. 삼을 심기 전에 땅강아지 같은 것을 퇴치하기 위해 약을 뿌렸지만 효과는 오래 가지 않았다. 워낙 많다보니 땅강아지만 전문적으로 잡아주는 사람도 있었다. 땅강아지는 삼은 먹지 않지만 삼밭을 일궈 놓기 때문에 골치였다.



●  
**장남의 이름으로!**  
 - 20살 무렵에  
 삼농사 시작하다

**윤영석** (1941년생)  
 금산군 금성면 두곡리

### 아휴 참! 굉장히 어려웠어요

없는 집안에 2남 5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초등학교 2학년 때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집에서 일만하다가 17살에 초등학교를 졸업하다보니 동창들과는 다섯 살 차이가 나게 되었다. 그때는 담배 농사를 많이 지을 때였다. 아침에 담배를 따고 등교를 했다. 학교에 가면 수업이 진행 중이기 일쑤였다. 교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산에 숨어 있다가 1시간 끝나고 나면 교실로 들어갔다. 돈이 안 드는 중학교가 있어 진학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서당 교육을 고집하셔서 서당만 4년 다녔다.

아버지는 남의 삼장을 지켜주다가 이 씨네 산지기로 들어갔다. 12살 되던 해 친척분들이 어떻게 남의 산지기 노릇을 하느냐, 아들이 12살이면 알 것은 다 안다며 집을 지어주어서 마을로 내려왔다. 군복무는 방위로 지서에서 1년 동안 복무했다. 삼농사를 해서 동생들을

다 결혼시켰다.

### 장남의 이름으로! - 20살 무렵에 삼농사 시작하다

금성산은 군 땅이 많았다. 그곳에 땅을 구해서 삼농사를 시작했다. 산을 개간해야 했다. 손수 땅을 일구고, 나무를 베고, 비탈밭을 삼밭으로 만들었다. 삼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보니까 관찮아 보였다. 그래서 삼씨를 금산 시장에 가서 사왔다. 운이 좋게 처음 재배한 삼이 잘되어 재미를 보았다. 당시만 해도 노점에서 삼씨를 팔았다. 경험은 없었지만 남들 하는 것을 눈여겨보고 그대로 하였더니 삼이 의외로 잘되어 그 덕택에 동생들을 다 시집보낼 수 있었다.

삼밭을 만드는데 총대를 베어다 사용하였다. 가까이 금성산은 벌써 민둥산이 되었고, 그나마 총대로 쓸만한 나무는 월봉산으로 가야만 했다. 마을에서 20여 리 떨어진 월봉산으로 다니며 나무를 베어 왔다. 당시는 멀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곳에 가야만 총대를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 7, 80칸 정도 하다가 후에 150칸까지 늘렸는데 삼이 잘 되어서 논 네 마지기를 구입했다. 살림집이 없던 차에 동네에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매물로 나와서 구입을 했다. 그 당시 680만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샀다. 현재 시가로 하면 1억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보면 된다.

### 빚을 얻어서 한 삼장

집을 구입하는 데 돈이 좀 들어가서 빚을 냈다. 그때 매제가 보증을 서주어 천만 원으로 익산에 가서 삼장을 했다. 그 이후로 대략 20여 년 동안 익산에서 삼장을 했다. 익산에서는 통 크게 나갔다. 처음에는 200에서 300칸 정도 하다가 나중에는 800에서 1000칸 정도로 크게 했다. 얼마 지나자 용담사람들이 익산으로 삼농사를 지으러 왔다. 용담사람들이 큰 밭을 다 차지해서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고 올라와 버렸다. 53살 때 청양 사돈네 땅에 인삼을 심은 것이 삼 재배의 마지막이었다.

인생에 있어 삼농사를 완전히 내려 놓은 것은 63세 때였다. 그동안 따라 다니면서 소독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던 막내며느리가 이제 삼장은 그만 하자고 하여 삼장을 다 팔아서 막내며느리에게 주고 손을 뗐다.



삼장에 쓰이는 것 모두 금산에서 만들어다 썼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차가 흔하지 않을 때여서 양조장 차를 빌려 나르기도 했다. 그 후로는 직접 군산에 가서 아피통이라는 나무를 구해서 총대를 만들었다. 아피통이라는 나무는 10년이 가도 썩지를 았았다. 군산에 직접 가서 나무를 켜 왔다.

밭은 익산에서 밀짚을 사서 만들었다. 현지에서 뚝(일꾼)을 얻어서 만들었다. 남아도는 것이 인력이어서 쉽게 사람을 구할 수 있었다. 익산 김 씨라는 사람이 삼을 하겠다고 해서 도와주었다. 익산에서 재배한 삼을 금산으로 가지고 와서 판매를 했다. 처음에 세 사람이 갔었는데 두 사람은 일찍 그만두는 바람에 혼자 오랫동안 익산에 남아 삼농사를 지었다.

### 석비레 땅만 찾아 다녔다

질땅은 삼이 잘 자라지 않는다. 질땅보다는 석비레 땅을 선호했다. 그 당시만 해도 재결에 대한 염려는 없었다. 그동안 삼을 심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땅이든지 석비레 땅이면 얻어서 삼을 재배하였다. 빨간 질땅에서 농사지은 것과 석비레 땅에서 지은 것을 비교해 보면 질땅에서 재배한 삼이 냄새가 덜 했다. 사실 삼농사를 짓지만 집에서 먹는 인삼은 진산 같은 검은 땅에서 나는 것을 사다 먹었다. 질땅보다 석비레 땅에서 생산한 삼이 더 크다. 석비레 땅에서 자란 인삼은 땅속으로 곧게 들어간다. 그래서 석비레 땅을 고집했던 것이다.

남들은 상갓집 다녀오면 삼장에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 별로 신빙성이 없는 말이라 지키지 았았다. 내가 정성껏 재배하면 되지 미신을 왜 믿는지 모르겠다.

### 인삼밭에는 풀이 나지 않는다

인삼 밭, 삼장은 언제나 잡초 하나 없이 깨끗했다. 매일 살펴 보러가서 제거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풀이 았었다. 왜냐면 들에 풀이 았었기 때문이다. 풀이 나기만 하면 베어다 소먹이로 썼기 때문이다. 심지어 논두렁의 풀도 베어가지 못하게 하던 때였다. 산에 았는 나무나 풀도 모조리 땀감으로 썼기 때문에 자연히 민둥산이 되어 버렸다. 풀이 자라 꽃이 필 시간이 았었다. 씨가 형성되지 았으니 삼밭에 풀씨가 들어올 수 았었다. 삼이 독해서 풀이 나지 았았던 것이 아니라, 아예 풀이 날 수 았는 환경이 되었던 것이다.

### 인삼재배의 패러다임이 바뀌다 - 논에 인삼을?

인삼은 오로지 밭에다 재배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언제부터인가 논에다 재배를 하기 시작했다. 인삼은 가뭄이 들어도 물을 주지 않았다. 아예 물을 주면 안 되는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다. 논은 물이 많아 인삼재배에 적합하지 않은 곳으로 여겼을 수도 있다. 그러나 논이라는 것은 벼농사를 지어야 하는 곳으로 식량사정이 어려울 때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관에서도 용납을 하지 않았다. 토지 이용에 관한 한 허가가 나지 않아 논에는 인삼을 재배하지 않았던 것이다.

삼장을 하고나면 보리나 고구마를 심곤 했다. 작물이 잘 되지는 않았지만 먹고 살아야 하겠기에 놀리지는 않았다. 호밀이나 콩 같은 작물도 많이 심었다.

### 인삼은 그림에 떡 - 삼농사 지으면서 삼을 못 먹었다

아무리 내가 재배를 했더라도 인삼은 먹을 엄두도 내지 못했다. 한 뿌리라도 팔아서 돈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고가로 판매되었기 때문에 하나라도 소비한다는 것은 바보짓이었다. 인삼 꺾은 껍질도 돈이 되는 판국에 온전한 인삼을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었다. 삼딸(씨앗), 이것도 집어서 팔았다. 삼을 캐 때도 잎이 좋은 것은 모아서 팔았다. 잎은 화장품 원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 때는 삼 잎이 없어서 못 팔 지경이었다. 그만큼 수요가 늘었던 것이다. 인삼은 어디 하나 버릴 것이 없었다. 그러나 잔류농사 검사를 통해 농약 성분이 검출되면서 잎은 더 이상 쓰지 못하게 했다. 삼을 조금씩 재배하는 사람이야 뭐 어려운 점이 있겠냐만은 몇 만 평씩 재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생산되는 잎의 양도 많았다. 당연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제는 삼 잎은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다.

### 띄웠다 심으면 헛일이여! - 목돈 만지려면 삼밖에 없다

벼농사를 2만 평 이상 하는 대농들은 삼농사를 우습게 본다. 1년 내내 어렵게 일만 한다는 것을 비꼬는 말이다. 그러나 단위면적당 소출은 인삼을 따라올 수가 없다. 예전과 달라서 이제는 혼자 삼을 짓더라도 평수에 제한이 없게 되었다. 기계로 지을 수 있게 되었고, 인삼재배를 위한 시설도 노동력에 의지하지 않고 현대화되어 쉬워졌기 때문이다.

기계화되고 현대화된 시설은 대략 1990년대 후반으로 30년 전 쯤이다. 총대나 차광막을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들지 않고 개량해서 만든 것을 사용하면서 광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삼은 적어도 7년 간 꾸준히 심고 캐고 반복해야 한다. 7년 후부터 채굴하여 자금이 회전되기 때문에 해마다 심었다. 문제는 자금이었다. 처음 심고 채굴하기까지의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어렵다. 자본만 충분하다면 인삼재배로 인생의 승부를 걸 수 있었다.

1990년대 인삼은 가장 절정에 이르렀다. 이때 이후로는 생산량이 늘기 시작하여 가격이 많이 하락하였다.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가 늘면서 재배면적이 확대되었고, 아울러 재배기술도 발달하면서 생산량이 많아진 것이다.

### 아이고 많이 올라갔네-속임수에 당하다

분명히 시장에서 삼을 눈으로 직접 보고 물건이 좋아서 사왔다. 그런데 막상 집에서 열어 보니 이상하게도 시장에서 보았던 삼보다 크기가 작아진 것이다. 오는 길에 삼이 변신했을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분명히 내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삼이 굵고 실해서 샀는데 말이다. 집에 와 보니 크기도 작아졌고 뭐 실하지도 못하고 뭔가 이상하다.

분명히 좋은 삼을 샀다. 그러나 삼을 담고, 가격을 치르는 과정에서 당했다. 박스 팔이로 살 때 흔히 당했던 이야기다. 수삼을 박스에 재기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 작은 것을 아래에 넣고 보기 좋게 실한 놈을 위에 올려놓는다. 위에 올려놓은 실한 인삼을 보고 소비자는 구매를 한다. 삼 장사는 듬뿍 들어 저울에 올린다. 세 채 달라고 하면 다섯 채 정도 올린다. 저울 눈금이 많이 올라간다. 그때 삼 장사는 너스레를 떤다, ‘아이고 많이 올라갔네.’ 넉넉한 미소를 지으며 저울에 올려놓았던 삼을 던져낸다. 그리고 다시 ‘아이고 이건 덤이여’하며 몇 뿌리를 더 올려놓는다. 삼을 산 고객은 흐뭇하다.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을 모르면서 흡족하다. 사실은 위에 있는 좋은 삼은 눈요기감으로 고객행위에 쓰였던 것뿐이다. 저울에 올라갔다가 내려지는 용도의 삼이다. 실제 포장이 되어 소비자의 손에 쥐어진 것은 좋은 삼에 가려져 있었던 삼이다. 흥정할 때 보았던 삼이 아닌 숨겨져 있었던 작은 삼을 가지고 온 것이다.

●  
**토마토를  
 금산에 알리라**



**길 옥 순** (1928년생)  
 금산군 부리면 평촌2길

### 17살에 이웃마을로 출가

1944년 일제는 전쟁 준비에 혈안이였다. 마침내 금산까지 처녀들을 끌어간다는 소문이 확 퍼졌다. 정신대 모집이 전국적으로 확산 되었던 때이다. 젊은 처녀들을 잡아다가 기름 짜는 일을 시킨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아버지는 급하게 중매를 주선했다. 이웃에 사는 아저씨와 나무를 하러 갔다가 중매 이야기를 나누시게 되었고 곧바로 결혼이 성사되어 17살에 시집을 갔다.

돌아가신 친어머니가 아들 둘에 딸(구술자) 하나, 그리고 새어머니가 아들 다섯에 딸 하나를 낳아 9남매가 되었다. 마을에 야학이 생기면서 야학에 다니다가 얼마 후에 소학교가 생기면서 2년간 학교에 다녔다. 한글은 주로 아버지가 지도해 주셨다. 아버지 덕택에 일찍 국문을 터득하여 도움이 많이 되었다. 당시에는 여자들이 신학문에 접하기가 어려웠던 시절이

었기 때문에 국문을 터득한 사람이 많지는 않았다. 소학교는 나이와 상관없이 섞여서 공부했다. 취학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었고, 또 때를 놓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 학년임에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났다. 심지어는 장가간 남자들도 섞여 있었다.

시집와서 2년만인 19살에 딸을 낳았다. 그해 정월에 시어머니가 딸을 낳았고, 6월에 딸을 낳았으니 고모와 조카가 동갑으로 클 수밖에 없었다. 둘이 나란히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쌍둥이로 착각할 정도였다. 예전에는 며느리도 아이를 낳고 시어머니도 아이를 낳는 것이 흔한 일이었다. 어른들이 계셔서 아이들 키우는 데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언제나 어른들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런데도 잘 커 준 자녀들이 고맙다.

### 토마토를 금산에 알리라

시집을 와보니 시댁도 어려웠다. 논이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주로 밭에 의지해서 살았다. 삼베, 보리, 조 농사가 주였다. 당시는 인삼은 재배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이곳은 상습적으로 침수하는 곳이었다. 바로 금강가에 위치하고 있어 물난리는 해마다 반복 되는 일이었다. 강가에 둑이 없어서 조금만 비가와도 높은 곳으로 피난해야 했다. 시집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물난리를 만났다. 옷담에서 물들어 온다는 고함이 들려왔다. 벌써 마당까지 물이 들어와 넘실거리기 시작했다. 급하게 나오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간장을 옹기에 담아 들고 나왔다. 다음날까지 물이 빠지지 않아 작은어머니 댁에서 있다가 왔다. 다른 집에 비해 조금 높은 곳에 집이 있어서 방까지는 물이 들어오지 않았다. 가족들은 미처 대피시키지 못해 다 죽어 있었다.

남편이 토마토 농사를 지었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당시에는 토마토가 생소한 때였다. 광주리에 담아 머리에 이고 그 먼 금산 읍내까지 가서 팔았다. 읍내 사람들은 생소한 과일에 관심이 별로 없었다. 생소할 뿐만 아니라 먹는 법을 몰랐다. 즉석에서 토마토를 잘라 당원을 뿌려 시식까지 시키면서 팔았다. 그냥 팔기도 대간한테 시식판까지 벌여 놓았으니 고생은 말도 못했다. 읍내 시장에서도 팔았지만 이고 다니면서 행상을 했다. 인근 마을을 돌면서 홍보도 하면서 팔았다. 갈 때는 토마토를 담은 광주리를 이고, 올 때는 돈 대신 받은 곡식을 또 이고 와야 했다. 혼자 가게 되면 어디서 쉴 곳이 없었다. 내

려놓았다가 다시 머리에 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목이 부러지도록 아파도 어금니를 깨물면서 집에까지 와야 했다. 다른 마을보다도 용화리는 좀 사는 집이 많았다. 인근의 마을이지만 용화리는 강을 건너지 않으면 산을 넘어야 했다. 다니는 길이 후미진 곳이라 도와줄 사람도 없어서 광주리를 내려놓지 못했다. 고개를 넘을 때는 길 가 언덕에 겨우 광주리를 엮어 놓았다가 잠시 쉴 수 있었다. 신촌으로 오려면 금강을 건너고 다시 평촌 앞에서 강을 건너야 했다.

### 보따리 장사를 시작하다

인삼 재배는 좀 늦게 했다. 둘째 아들이 부모를 모신다고 들어오면서 시작했다. 첫해에 인삼 농사가 잘 되었다. 농사라는 것이 매년 잘 되라는 법은 없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지어서 인삼을 깎 때는 놉을 얻어서 캐고 또 매매를 해주는 사람을 통해 판매를 하였다. 당시는 삼 가격이 매우 좋았다. 개별적으로 사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중간상인을 통해 팔았다. 남의 땅을 빌리지 않고 농사를 짓다보니 좀 여유가 있었다.

장사를 안 하다가 삼을 팔러 나서게 되었다. 처음에는 검사받은 건삼으로 시작했다. 마침 동네 아주머니가 서울로 장사 간다기에 따라 나섰다. 몇 번을 망설였는지 모른다. 건삼곽을 들고 나섰다가는 다시 들어오기를 여러 번 했다. 가고는 싶었지만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따라 나섰다. 아주머니는 시장에서 구입한 청심환, 단삼 같은 것을 가지고 갔다.

처음엔 장사하는 아주머니만 따라 다녔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배우자는 요령이었는데, 장사하러 간 사람이 남만 따라다니니 물건이 팔릴 리가 없었다. 그러자 함께 간 아주머니가 따라오지 말고 다른 집에 가서 팔아보라고 했다. 물건을 팔고 나와서 만나자는 약속을 했지만 막상 나와보니 아주머니는 보이질 않았다. 무턱대고 기다릴 수는 없고 용기를 내어 다른 집을 들어가서 팔았다. 처음으로 삼을 팔고 나니 자신감이 생겼다. 문제는 하룻밤 묵기로 한 하숙집을 찾는 것이었다. 초행에 서울 지리는 거기가 거기 같아서 무척 힘이 들었다. 다행히 하숙집을 찾았다. 같이 간 아주머니는 자기 물건을 다 팔고서야 다음날 들어왔다.

## 서러움 반 눈물 반

다른 사람들은 업 삼아서 다녔지만 자주 장사를 나서지는 않았다. 누가 간다면 따라나서는 경우가 많았다. 물건을 팔면 그 자리에서 돈을 주는 경우가 많지 않다. 서울이라 곡식으로 주는 경우는 없었지만 외상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외상을 주다보니 갚지 않고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 다음에 준다고 해서 가보면 이사 간 경우도 있고, 이사 간 경우 돈을 보내주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받지 못했다. 한번은 이사 간 사람이 돈 2만원을 보내왔다. 전화를 걸어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외상을 놓으면 못 받은 돈이 많았다.

식사는 주로 얻어 놓은 하숙집에서 해 먹었다. 여러 사람이 지내면서 당번제로 식사를 마련했다. 장사를 나가면 단골집에서 얻어먹었다. 당시만 해도 서울 인심이 좋았다. 끼니때가 되면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오고 가는 정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한번은 잠자리가 마땅치 않았는데 얼굴도 모르는 아주머니가 자기네 집에서 자고 가라는 것이었다. 막상 들어가 보니 방 한 칸에 두 모녀가 기거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집 딸이 잠자는 것은 안 된다고 고집을 부렸다. 아이가 하도 극성맞게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난처하게 되었다. 아주머니는 급하게 이웃에 사는 노파네 집을 소개해주었다. 그 노인은 며느리하고 둘이 살고 있었다. 아주머니가 미안하다고 밥상을 차려왔다. 밥상을 보니 더욱 서러움이 몰려왔다. 소리 내어 울 수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치밀어 오르는 서러움을 달랠 수도 없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함께 잘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렸던 그 아이는 그럴 이유가 있었다. 전에 어떤 사람을 재워 줬는데 아침에 보니 아이의 옷을 죄다 가지고 갔더라는 것이다. 그 이후로 낯선 사람이 찾아오면 그렇게 경계를 했다는 것이다.

●  
내 적성에  
안 맞아서  
못하겠어



**최 창 환** (1942년생)  
금산군 금성면 돌고개2길

**내 적성에 안 맞아서 못하겠어**

조부모님, 그리고 숙부네 식구들까지 19명이라는 식구가 함께 살았다. 외동아들로 태어나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살았다. 문제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이었는데, 아버지가의 반대로 결국 서당에서 2년 동안 공부를 했다. 그래도 학교에 가고 싶어 대전에 있는 대전상고에 입학하여 누님댁에서 학교에 다녔다. 그러나 2학년 2학기를 마치고 학비가 없어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

집에서 놀다가 입대를 했다. 대구에서 통신병으로 군복무를 하고 제대를 하였는데 농사 짓기가 싫었다. 그래서 작은아버지의 주선으로 대전 체신청에 임시직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체신업무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잡일만 시켰다. 적성에 맞지 않아 우편배달원에 지원했다. 우편배달도 오래 가지 못했다. 지리를 알아야 우편물을 돌리는데 쉬운 일이 아니



었다. 술을 잔뜩 먹고 다음 날 사표를 내고 배달원 일도 그만 두었다. 집에 가서 인삼농사를 지으면 지었지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계속할 수는 없었다.

### 풀할 사람 오시오

대전 산내 구두리에 삼밭을 얻었다. 그 동네는 ○가들 집성촌이었는데 ○가가 아닌 타성 밭이는 견디기 어려운 동네였다. 이장도 ○가가 아니면 볼 수도 없었다. ○가가 아니라면 적어도 그들과 관계가 있어야만 살 수 있었던 동네이다. 삼밭을 구해 텃새가 심한 양반마을에 보기 좋게 입성을 했다. 삼밭을 얻어 놓고 일을 하는데, 풀을 해야 삼장을 덮을 수 있어 머리를 썼다. 제아무리 양반이라도 배가 고프면 올 것이라는 생각에 밭에다가 인근 양조장에 배달을 시켜 막걸리 한 말을 준비했다.

그리고 그 당시 250원 하던 아리랑 담배 한 갑을 사다가 떡 놓고서 광고를 냈다. ‘풀 한 짐에 250원입니다.’ 풀 한 짐을 해오면 막걸리 한 잔에 담배 한 개비를 주었다. 일부러 그 자리에서 맛담배를 피웠다. 따지고 보면 아들 벌인데 일부러 양반 권세를 조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한 짐에 250원 했는데 많이 하는 사람은 하루에 10짐도 하는 사람이 있었다. 물론 양반 ○가도 둘이나 일하러 왔다.

### 호밀대 짚이 있어야 밭을 엮을 거 아녀요

삼장을 만들려면 밭을 만들어야 쳐야 한다. 호밀대로 밭을 만들었다. 그때는 대전 오정동 농산물 공판장이 죄다 밀대 밭이었다. 매형하고 상의해서 호밀대를 사러 갔다. 소 구루마를 마을에서 빌려 5대를 끌고서 구두리에서 오정동으로 호밀대를 사러 갔다. 호밀대는 아무리 잘 묶어 단속해도 길이 평탄하지 않고 울퉁불퉁한 곳을 가면 자연스럽게 풀렸다. 그런데 지금 대전시 중구 인동 쪽 왔을 때 소나기가 막 퍼부었다. 어쨌든 밥을 먹어야 하니깐 길가에 소 구루마를 죽 세워 놓고 국밥을 시켜 먹었다. 식사 후 비는 개었는데, 대전천 상류 쪽인 태봉재 쪽에서 비가 많이 왔던지 강물이 불어 있었다. 당시는 다리가 없어서 그냥 물을 건너야 했다.

하천의 속성을 잘 알고 있는 매형이 앞장을 섰다. 매형을 따라서 한 줄로 내를 건너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비가 많이 왔다. 다른 구루마는 내를 건넜는데 마지막으로 건너던 구루마

가 떠나려 온 돌에 받혀서 그만 전복되었다. 우선 소부터 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멩에를 벗기고 구루마에서 소를 떼어 냈다. 전부 달려들어 넘어진 구루마를 바로 잡으려 해도 꿈쩍도 안 했다. 생각 끝에 한 번 더 굴리는 것이 오히려 쉬워 보였다. 물살이 세어서 쉽게 굴려졌다. 겨우 구루마를 물에서 끌어낼 수 있었다. 그렇게 운반한 호밀대가 동네에 거짐 다 와서 풀어져 내렸다. 만약에 내를 건너다가 풀어졌으면 하나도 건질 수 없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동네에 도착해서 풀어졌다. 그렇게 운반한 호밀대로 겨우내 부부가 800장의 밭을 엮었다.

### 아, 하늘을 보고 개가 짖는 거

도둑 안 맞아보고 삼을 캔 적이 없다. 삼막에 개를 묶어 놓고 삼을 지켰다. 어느 날 개가 짖길래 가보니 이놈들이 하늘을 향해 짖는 것이 아닌가. 갑자기 무서움이 몰려 왔다. 분명 도둑놈이 왔다는 얘긴데 밭이 떨어지지 않았다. 삼밭에 울타리를 죽 쳐 놓았는데 아나나 다를까 울타리 위쪽이 넘어가 있는 것이었다. 도둑이 울타리를 넘으려다 실패하고 도망한 것이 분명했다. 도둑은 울타리를 제쳐 놓고 망태를 삼밭 안으로 던져 놓았다. 옆에 몽둥이도 하나 놓여 있었다. 망태를 가지고 도둑질을 하려고 한 것을 보니 전문적인 도둑은 아니었다. 그날은 도저히 혼자 삼장을 지키기 어려워 매형을 모셔다가 같이 잤다.

누님은 매우 영리한 분이였다. 다음날 누님이 망태를 가지고 동네 공동 우물로 가서 “아! 이게 누구네 망태여, 왜 우리 집에 갖다 놓고 안 가져가?”라고 크게 소리치니 한 아주머니가 ‘아 우리 거네’ 하고 나섰다. ‘그러면 가져가’하고 누님이 건넸다. 그 아주머니는 대전상고를 같이 다닌 친구의 형수였다. 그렇게 해서 범인은 알아냈지만 더 이상은 추궁할 일도 아니었다. 이 친구가 노름을 하다가 돈이 부족했던 것이다. 며칠 전에 그 친구가 딸내미 준다고 삼방울을 구한다며 삼밭에 왔었다. 삼밭을 여기저기 돌아 다녔는데 그것이 삼이 좋은 것을 염탐하러 온 줄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사정을 잘 아는 놈이 도둑질을 하는 법이다.

### 그게 사는 재미, 재미잖아요

삼을 캐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100개, 200개씩 가지고 가서 삼을 깎아왔다. 내 줄 때도 세고, 돌려받을 때도 셋지만 덜 가지고 오는 경우는 없었다. 작업 후에는 삼깎데기와 다리 떨어진 것을 팔아 돈을 만들기도 했다. 삼농사를 지으면서 깎는 작업은 두서너 번 했고, 대부

분 수삼으로 판매를 했다.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총동원되어서 재미있게 작업을 했다.

삼이 꼬들꼬들 마르면 동네 어른들이 와서 돈도 받지 않고 접어주었다. 그때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돼지를 잡아 일하는 사람들에게 대접했다. 고기가 귀할 때였으니까 모두 좋아했다. 보리나기 전에 돼지를 잡아먹었는데 보릿돼지라고 했고, 가을에 나락을 베기 전에 잡아먹는 것을 나락돼지라고 했다. 그 이외에는 고기 먹기가 매우 어려웠다. 게다가 마음껏 먹는 것도 아니어서 흠족하질 않았다. 삼 캐를 기다렸던 이유는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는 고기가 흔하지 않을 때니까 모두들 즐겁게 일하고 고기를 배부르게 먹었다. 그것이 이웃간의 정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도난의 염려도 있고 해서 집에 삼을 보관하는 것은 어려웠다. 삼방에다 맡겨 놓고 돈이 필요하면 그때마다 팔아서 쓰곤 하였다.

## • 떠돌이 장사



**신순분** (1934년생)  
금산군 부리면 평촌2길

### 떠돌이 장사

7남매의 막내, 그것도 고명딸로 태어나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시집왔다. 넘치지지는 않았지만 가족의 사랑과 염려 속에 성장했다. 23살에 도파에서 바로 이웃동네인 평촌으로 출가했다. 14살 어린 나이에 강제로 시집와서 고생이 많았던 친정어머니의 배려로 나이 먹도록 험한 일을 해본 적이 없다.

시집 와서는 12식구가 한 집에 살았다. 6살 위인 동서가 살뜰이도 보살펴 주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가르쳐 주는 대로 열심히 했다. 당시 시댁에서는 작은 규모의 삼농사를 하고 있었다. 분가해서 남편이 본격적으로 삼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그때는 박스에 담아 시장에 내다 팔았다. 삼농사가 잘 되었고 또 오래 지었다. 그래서 그랬는지 남편이 70세 이후에는 건강을 잃어 다리, 목, 허리, 이 등 수술을 다섯 번이나 했다. 건강했던 사람이 이렇게 병치레

를 하더니 1년 전에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분가 하니 살림은 더욱 어려웠다. 삼을 가지고 떠돌이 장사나 해보자 하고 삼장사를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었다. 덕분에 아이들을 가르쳤고 이제 모두 출가하여 서울에 살고 있다. 땅도 많이 구입했다. 남편이 삼농사 지은 것과 보따리장사 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밭을 사들였다.

### 누구세요! 금산안~~

처음 나서는 떠돌이 장사지만 자신이 있었다. 장사를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후반 막내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였다. 자신은 있었지만 실제 장사를 가보니 어리둥절했다. 처음에는 겁이 나서 초가집으로만 다녔다. 좋은 집은 무서워서 들어가질 못했다. 여러 번 다니다가 보니까 배포가 생겼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부잣집을 찾아가 노크를 했다. 부잣집을 단골로 만 들어야 삼을 팔 수 있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겼다. 시간이 지나면서 단골이 늘었고 수단이 생겼다.

똑똑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면 안에서 누구냐고 묻는다. 더 말할 것 없이 곧바로 ‘금산안~’이 한마디면 문이 열렸다. 부잣집이 삼을 잘 사기도 했고, 또 단골이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어서 쉽게 삼을 팔았다. 잘 팔릴 때는 가지고 간 삼이 일찍 동이 났다. 그러면 금산에서 삼을 사다 파는 도매 장사꾼에게 삼을 구해 팔기도 했다. 삼을 팔고 내려오는 발걸음은 가볍기만 했다. 집에 오면 제일 먼저 삼을 판 돈을 남편에게 주었다. 남편은 늘 미안한 마음을 ‘많이 했네~’라는 말로 표현했다. 돈을 써 보질 않았다. 그때는 남자들이 돈을 관리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삼을 살 때는 남편에게 돈을 타서 사 가지고 장사를 했다.

처음에는 아는 분을 따라 나섰지만 함께 다니면 서로 팔 수 없다는 생각에 먼저 각자 다니자고 제안을 했다. 혼자도 다닐 만 했고 무엇보다 삼을 판다는 것이 재미있었다. 점점 더 단골이 늘면서 욕심이 생겼다. 본래 욕심이 많았지만 장사가 익숙해지면서 요령이 생긴 것이다. 청심환이나 포룡환, 단삼 같은 것을 주면 단골들이 좋아했다. 내 돈이 조금 들지만 그렇게 하면 삼을 많이 사주고 아는 사람을 소개해주니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었다.

보따리 장사를 25년이나 했으니 많이 한 셈이다. 나중에는 자주 보니까 일가친척이나 다름없었다. 오랫동안 만나다 보니 가정사도 훤히 알게 되었다. 양 씨라는 할머니는 같은 양

씨라서 더 각별하게 지냈다. 그 집 며느리도 언니, 언니하며 잘 따랐다. 지금까지도 자주 전화해서 안부를 묻기도 한다. 양 씨 할머니는 금산까지 함께 와서 자고 갔는데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왔다.

### 그래서 재미있게 살았어요

25년 동안 서울로만 삼장사를 다녔다. 장사는 재미있었지만 식사와 잠자리가 문제였다. 밥은 사 먹지도 않았기 때문에 굶기도 많이 했다. 잠자리는 공동숙소를 정해서 해결했다. 각자 삼을 팔고 들어와서 저녁 해 먹고 다음 날 아침을 해 먹고 장사를 다녔다. 식사는 당번을 정해서 했다. 친인척 간이 되기 때문에 각별하게 친했다. 객지에서 고생은 다반사지만 그래도 서로 간에 위하고 보듬어 주면서 재미있게 지냈다.

집에 오면 또 일이 많아서 부지런히 삼을 팔고 내려와야 했다. 물론 올 때 언제 가자는 약속을 한다. 날짜를 맞추기 위해 서로 일을 도와서 해결했다. 오늘은 우리 밭 매고 내일은 다른 사람 일 도우며 재미있게 살았다.

한겨울 추위도 마다하고 서울로 올라갔다. 남들 생각에는 너무 극성맞다고 했을지 몰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돈을 만질 수 없었다. 서울 사람들은 참으로 친절했다. 특히 남자들은 예의가 있어서 마주 바라보지도 않았다.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단골이 되어야 겨우 아주머니 오셨냐는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 다였다. 오랫동안 장사를 했지만 불미스러운 일은 한번도 없었다. 인삼이나 돈 같은 것을 잃어버려 본 적이 없었다. 눈쁜 사람 코 베어 간다는 말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모를 일이다. 친절한 서울 단골들 덕분에 재미있게 삼장사를 다녔다.

### 너무 많이 팔아도 겁이나 못 살아

어느 날 단골의 소개로 한 집을 방문했다. 집을 모른다고 했더니 단골이 따라나섰다. 그 집은 조만간에 외국으로 이사를 간다고 했다. 젊은 부부였는데 집도 좋았다. 그런데 그 젊은 부부가 삼을 다 달라고 했다.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웠다. 삼장사를 오래 했어도 이렇게 몽땅 떨어해서 다 판 적이 없었다. 선심 쓰기 위해 가지고 다녔던 약도 다 사겠다고 했다. 이건 팔기는 팔아도 겁부터 났다. 삼을 다 팔아서 좋기는 좋았는데 상황이 좀

얼떨떨했다. 조제된 약은 당시에는 판매 금지품이었기 때문에 겁이 난 것이다.

삼을 팔 때 금산에서 조제한 약을 조금씩 가지고 다니면서 팔았다. 판다는 말보다는 그냥 내주는 용도로 쓰던 것이다. 집안에 상비약이 흔하지 않던 그 당시에는 그냥 돈 안 받고 약을 준다는 것은 완전히 단골로 만든다는 것이나 같은 말이다. 단골은 매우 좋아했다. 그만큼 신뢰가 형성되는 것이었고, 그것이 또 다른 손님을 소개받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늘 마음한 구석은 개운치 않았다. 그것이 판매 금지 품목이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웠다. 그때도 그랬다. 이것 때문에 혹시 탈이라도 나지 않을까 해서 걱정을 많이 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다 사겠다는 것이었다.

삼 값을 더 불러서 받은 것은 아니지만 가져간 삼을 몽땅 팔고나니 큰돈이 생겼다. 일단 모두 팔고 나오긴 했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걷기가 어려웠다. 부리나케 고개를 넘어서야 마음이 놓였다. 누가 따라오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너무 많이 판 것 같아 죄송스럽고 겁이 났다. 어느 정도 가다가 숨을 고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이거 잘 못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다행히 그런 상황은 아닌 듯 했고,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안심이 되었다.

소개를 해준 아줌마가 전화를 했다. 뭐가 잘 못 된 것 같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나 놀랍게도 얼마든지 살 테니까 삼을 더 가지고 오라는 전화였다. 안심도 되었지만 걱정이 앞섰다. 먼저 그렇게 많이 팔았는데 또 가지고 오라는 말에 다시 삼을 가지고 갔다. 많이 팔아도 미안한 생각이 들어 전보다는 조금 덜 가지고 갔다. 그때도 삼을 다 사는 것이었다. 게다가 이사 가면 쓰지 못하니 전축을 가지고 가라는 데 무겁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가지고 오지 못했다.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안주인의 말에 전화번호 모른다고 잡아땀다. 그 여자는 외국에 가더라도 전화로 삼을 구입하겠다는 의사였는데, 이렇게 많이 사준 것도 고마운데 또다시 연락해서 사준다는 것이 반갑기보다는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다른 때보다 더 즐거웠다. 허리에 둘러맨 돈주머니가 두둑했기 때문이다.

●  
여기 나올 때 보리쌀  
두 말 갖고 나왔나,  
서 말 갖고 나왔나



**박 현 순** (1935년생)  
금산군 부리면 평촌리

### 여기 나올 때 보리쌀 두 말 갖고 나왔나, 서 말 갖고 나왔나

스물 셋에 얼굴도 못 보고 결혼했다. 결혼하자마자 군 복무 중이던 남편은 휴가를 끝내고 귀대했다. 그해 시안에 결혼하고 다음 해 남편이 제대를 했다. 막상 결혼은 했지만 친정에 가 있었다. 시댁은 아무 것도 없는데 식구가 너무나 많아 끼니를 잇기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친정은 아버지가 6.25 전쟁통에 돌아가시고 집에는 남동생하고 어머니 그렇게 셋만 있었다. 동기간은 2남 3녀, 5남매였지만 위에 여자 형제들은 다 시집가고 달랑 세 식구가 살았다. 식구가 없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어렵게 살지는 않았다.

시댁은 식구가 많았다. 시어머니도 2남 2녀를 두었는데 큰아들이 죽어서 며느리 둘과 둘째 아들하고 살고 있었다. 남편이 제대하고 1남 2녀를 낳았다. 동서들이 낳은 조카와 시누이, 우리 다섯 식구, 없는 집에 식구까지 많아 더욱 어려웠다.



집을 지어서 분가를 했다. 보리쌀만 가지고 나왔으니 생활 형편은 말이 아니었다. 살림도 구도 없이 분가를 했는데 친정 동생이 쌀 한 가마니와 솔 하나를 사 왔다.

### 삼장사 안 하면 못 먹고 사는 걸로 알았어

네 살배기 아들을 떼어 놓고 삼장사를 다녔다. 엄마 품이 그리운 어린 것이 얼마나 울었으면 눈이 통통 부었더라. 아이는 누이들과 남편이 보았다. 처음에는 안 떨어지려고 바둥거리던 것이 나중에는 익숙해졌는지 심하게 투정을 부리지는 않았다. 갓난쟁이를 업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으니 그래도 나은 편이었다.

워낙 돈벌이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 삼 팔러 갈 때 따라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았다. 어쩔거나 삼장사 해서 먹고 살았으니 그래도 다행이 아니겠는가. 그 당시에는 삼장사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그렇다고 토지가 있어 삼을 재배하는 것도 아니고 삼전에 가서 삼을 사가지고 팔러 다녔다.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나마 삼장사를 해서 아이들 대학도 보내고 먹고 살았다.

여름에는 그나마 장사를 못 했다. 삼을 사 가지고 가면 썩는 것이 많이 나와서 난감할 때가 더러 있었다. 그래서 삼장사는 주로 겨울에 했다. 삼을 사 가지고 경주로 향했다. 처음에는 무주로 가서 버스를 타고 대구까지 가고, 다시 울산 가는 차를 타든지, 경주 가는 차를 타든지 했다. 경주 하숙집에서 하루 자고 남산으로 해서 울산까지 팔러 다니기도 했다. 나중에는 대전에서 직접 울산까지 가는 고속버스가 생겨서 이용했다.

### 나는 울산으로만 다녔다

부산으로 다니는 사람도 있었지만 주로 울산으로 다녔다. 왜냐면 그곳에 단골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단골이 있어서 삼을 팔고 다녔지, 처음에는 문도 잘 열어주지 않았다. 그래도 자주 찾아가 보니까 단골이 늘었다. 그 후로는 자연스럽게 음식도 얻어먹고 다닐 만 했다.

울산에 가면 회사가 많았다. 또 광산도 있어서 의외로 삼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다. 당시 금산 인삼은 인기가 좋았다. 단골이 손님을 소개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처음에 가서 초면에 삼을 팔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처음이 어려웠다. 문도 안 열어 주는 경우도 많았다. 무엇

보다도 먹고 자는 것이 문제였다. 무조건 마을에 가서 재워 달라고 해서 잠자리를 정했다. 말이야 쉽지 처음 찾아간 곳에서 숙식을 부탁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밥을 먹지 못하고 쫄쫄 굶는 경우가 허다했다.

나중엔 경주에는 가지 않고 울산으로만 갔다. 처음에 경주에 하숙집을 정해 놓고 삼을 팔러 다니다가 울산 주변의 촌으로도 삼을 팔러 갔는데 한 집에서 몇 개씩만 사주면 쉽게 팔 수가 있었다.

인삼만 가지고 다니다가 청심환, 단삼, 경옥고 등도 가지고 다니면서 팔았다. 그때는 규제를 심하게 하던 때라 조심스럽게 거래를 했지만 나중에는 그럴 수가 없어서 오로지 인삼만 가지고 다니면서 거래를 하였다. 인삼 값을 그때 그때 주는 것이 아니라 월급 때 오라고 해서 외상을 많이 놓고 다녔다. 시골로 가면 더러 돈보다는 곡식으로 대신하여 무거워서 가지고 다니기가 어려웠다.

물건을 다 팔고 나면 각자 금산으로 돌아왔다. 요행이 동행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각자가 일정이 달라서 함께 가더라도 돌아오는 것은 달랐다. 며칠 후에 가자하면 물건을 장만했다. 그 당시에는 장날만 인삼장이 열렸기 때문에 더 어려웠다.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다니다보니 서로 경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좋은 인삼을 구해야 쉽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치열할 수밖에 없었다.

### 한 푼, 두 푼 벌여오는 재미로 죽으나 사나 맹겼지

아무것도 없는 집에 시집와서, 아무것도 없이 살림을 냈다. 모든 것이 힘이 들어 처음에는 눈물도 많이 흘렸다. 어린 것을 떼어 놓고 가는 것도 어려웠고, 집안일은 제쳐두고 한 뿌리라도 더 팔겠다고 집을 비우는 것도 힘이 들었다. 그러나 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움직여야 우리 식구가 먹고 살 수 있었으니까.

장날 좋은 인삼을 구해 놓고 아침에 마을 아주머니들과 동무해서 울산으로 향한다. 직통으로 가지 못하던 초기에는 무주에서 대구로, 대구에서 울산으로, 경주로 차를 여러 번 타야 했다. 도착하면 밤이다. 미리 정해 놓은 하숙집에서 하루를 잤다. 그날 저녁은 집에서 가지고 간 밥으로 해결했다. 마땅히 사 먹을 곳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다. 다음날 끼니는 삼을 팔러 다니다가 요행이 얻어먹으면 되었다. 단골집으로 가면 인삼 좋게 밥도 많이 주었다. 그

러나 굶는 경우가 더 많았다. 삼을 팔지 못하고 배를 곯아가면서 다니자니 눈물이 났다. 그래도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남편과 자식들이 눈에 어른거려 다시 일어나 걸었다.

삼을 다 팔면 부리나케 다시 금산으로 돌아왔다. 하루 저녁 자지 않는 것만으로도 돈을 많이 아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집에 오면 밀린 살림 후다닥 해치우고 들에 나가 일을 도왔다. 다시 장날이 되면 인삼을 사러 인삼장으로 간다. 인삼장사들이 한꺼번에 몰려 아수라장이다. 보다 좋은 인삼을 구해야 단골들에게 팔 수 있으니 누가 가만히 보고 흥정하겠는가. 마음은 벌써 단골을 만나고 있다. 이렇게라도 움직여야 돈을 만질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도 이제는 언제 삼 팔러 가나 눈치를 살핀다.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버스에 오른다. 고단한 인삼장사를 10년간 했다. 그렇게 벌어서 아이들 대학까지 보냈다. IMF 때까지, 모두 어려웠던 시절 사회가 변하듯 인삼장사도 변화를 따라갔다.

●  
어렸을 때부터  
가장이었다



**박만철** (1942년생)  
금산군 금산읍 건삼전1길

### 어렸을 때부터 가장이었다

원적은 경북으로 할아버지 대에 금산군 남이면으로 이주했다. 남이면에서 삼농사도 짓고 일반 농사도 지었는데 부친이 금산 중앙초등학교 소사를 해서 읍내로 이주를 했다. 읍내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가세는 늘 어려운 형편이었다. 학교 소사를 하던 부친도 나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집안 살림은 더욱 힘들어졌다. 그로 인해 중학교 진학을 못하고 학업을 마감하게 되었다.

형님이 하나 있었는데 군복무 중에 금산으로 탈영한 병사를 찾아오라는 대대장의 지시로 금산에 왔다가 귀대하는 중 목탄차를 얻어 타고 가다가 전복되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당시 형님의 사망을 대대장이 일반 사망으로 처리해서 보훈처의 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난 뒤에 금산경찰서가 6.25 때 불타버리는 바람에 관계 자료를 찾을 수도 없

었고, 그 당시 동료의 증언이 있었으나 그도 인정이 되지 않아 형님의 전사는 일반 사망으로 남게 되었다.

연로하신 부모님, 일찍 사망한 누님들, 그리고 동생 둘. 집안에서 일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일찍 돈을 벌어야 하는 처지였다. 명절날이면 동생들에게 옷을 사 입혔지만 정작 자신은 누더기 옷을 입고 있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음식점에 가서 요리기술을 배웠다. 나이 20살 즈음에 연흥원이란 중화 요리집을 경영했다. 요리집을 하면서도 ‘과’라는 강정을 만들어 팔았다. 또한 금산 근교에서 들어오는 수박이나 원예를 받아 위탁판매를 했다. 상인들이 와서 경매로 사 가는 것도 있었지만 위탁해 놓은 물건을 팔아 주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할 정도로 어려웠던 시절이었다.

### 삼팔 채취는 7월부터

삼팔은 7월부터 채취한다. 먼저 채취한 삼열매를 물로 잘 씻어서 겉의 말랑말랑한 육질을 벗겨 낸다. 삼시장에서 한 달 가량 삼씨 판매를 한다. 한 달이 지나 판매치 못한 것은 묻어야 된다. 묻는다는 것은 개갑을 한다는 말이다.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 삼씨를 사가는 사람도 있지만 개갑을 해서 도로 삼시장으로 내오는 경우도 많았다. 개갑해서 한 달, 두 달 뒤에는 삼시장에 개갑한 삼씨가 나왔다. 씨앗으로도 판매가 되지만 개갑 시킨 것도 있고 아예 세근으로 거래가 되는 것도 많았다. 세근은 가을에 개갑해서 심은 후 1년 키우고 다음 해 나오는 삼이다. 시간으로 보면 1년 반 정도 성장한 삼이다.

언제부터 삼씨를 삼팔이라고 불렀는지는 명확하게 고증이 안 되었다. 삼꽃은 삼화라고 하고 그것이 결실을 맺으면 삼팔이라고 한다. 봄에 삼팔로 채취할 놈만 남기고 나머지 삼화를 모두 꺾는다. 그래야 삼이 튼실하게 자라기 때문이다. 삼팔을 채취하면 모래와 섞어서 문질러 붉은 육질의 겉을 제거했다. 직접 손으로 모래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하려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현재는 기계를 사용하여 손쉽게 제거하고 있다.

삼씨 가격은 예측하기 어렵다. 삼씨는 가격이 좀 나가지만 개갑을 해오는 경우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예측하기 어렵다. 비싸게 삼씨를 사다가 다 심지 못하고 개갑시켜 내오는 경우가 많다. 갑자기 개갑된 삼씨가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혈값으로 가격이 형성된다. 삼씨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특히 비가 많이 와서 탄저병이 돌면 삼 잎새가 부실해서 열매도

잘 여물지 않는다. 그런 해는 삼팔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아무리 삼장사를 오래해도 삼팔 가격을 맞추기가 어렵다.

삼팔은 대개 3년근에서 채취한다. 삼팔을 맺은 삼은 속이 빈 것처럼 되어 마르지도 않고 쭈글쭈글하다. 한 해 더 두면 다시 보충되어 굵어진다. 삼팔을 채취하면 다음 해는 캐지 않고, 그 다음 해에 캔다. 그래서 5년근에 캐려면 주로 3년근 때 삼팔을 채취한다.

## 삼방

삼방은 삼팔이나, 세근 또는 키워서 캐온 삼을 거래하는 곳이다. 허가제였지만 영세하다 보니 세금은 안 나왔다. 예전에는 그냥 삼만 거래하던 건삼전으로 봉지에 건삼을 담아 팔던 곳이었다가 삼을 가져다 놓는다고 해서 삼방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워낙 삼이 많이 나오다 보니 많은 삼방이 운영되었다. 상호를 건 삼방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아예 장소도 정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면서 삼방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삼방은 소규모로 캐오는 경우 거래하던 곳이기도 하다. 돈이 급해서 서너 칸 삼을 캐오면 수삼센터에서는 거래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곳 삼방에서는 소량도 거래가 가능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다. 삼방에서는 막 캐온 삼을 일단 받은 후 가공해 팔아서 이득을 남겼다.

## 소쿠리를 이집 저집에 던져 놓았다

삼을 캐면 가공하기 전에 삼을 깎았다. 누구네 삼을 캔다는 소문이 돌면 소쿠리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어 울 너머로 던져 놓았다. 삼의 수확이 많으면 100개, 200개 이렇게 헤아려 담아 놓을 수 있었지만 삼을 얼마 못 캐면 빈 바구니가 남는다. 빈 바구니의 주인은 그래도 할 수 없었다. 며칠 뒤에 다시 삼을 캐니 그때는 우선 작업할 수 있게 삼을 주마하는 주인의 말만 믿어야 했다. 물론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감정은 잘 드러내지 않았다.

일감을 얻기 위해 삼을 캐온 이집 저집에 바구니를 돌린다. 그래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작업할 삼이 많으면 가족 모두 달려들어 일하면 되기 때문에 삼이 많은 것은 개의할 필요가 없다. 인삼의 껍데기는 모두 깎은 사람 차지이다. 어쩌다 다듬지 않고 보내진 삼에는 뿌리가 남아 있어 그것도 작업자의 몫이었다. 이렇게 나온 부산물인 삼 껍데기는 삼방에 내다

팔았다. 삼방에서는 여러 집에서 가지고 온 삼껍데기를 모으기 때문에 양이 많다. 그러면 삼방에서는 거래하는 회사에다 넘기든 아니면 대상들이 찾아오면 넘기면 된다. 예전에는 엿장사들도 삼 껍데기를 받고 엿을 팔기도 했다.

### 칸매꾼, 놓대장, 거간

농사지은 사람이 삼을 직접 파는 경우도 있었지만, 삼방을 통해 구매자를 소개 받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면 소개받은 사람에게 삼을 캐지 않고 거래를 한다. 이것을 칸매라고 하는데 칸매한 사람이 삼을 채굴하여 삼방에 내다 팔기도 했다. 칸매한 사람은 놓대장이라는 사람과 연락을 취하여 삼을 캔다. 놓대장은 작업을 할 인부를 불러 모으는 사람이다. 놓대장이 사람을 모아 버스로 일꾼들을 실어온다. 삼을 캐면 또 삼시장으로 운반하여 판매까지 돕는다. 놓대장 밑에는 삼을 선별하는 사람도 있었다. 삼을 캐면 그 자리에서 대, 중, 소, 파삼, 남발 등으로 선별한다.

삼방이 없이 거래를 해주는 거간도 있었다. 지금이야 가격이 센터에서 정해지지만 예전에는 흥정을 붙이는 거간꾼이 경매꾼처럼 삼 가격을 붙이고 구전을 먹었다. 고약하게 굴었던 거간도 있었고, 또 저울을 속이는 사람도 더러 있었다. 계량된 전자저울이 아니라 손으로 들어서 올려놓고 재는 저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전자저울이 나오기까지 거간꾼이나 저울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애를 먹었다.

### 보따리 장사들 많이 했지

삼을 거리에서 파는 경우도 있었지만 전국으로 보따리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 당시 금산에는 일할 곳도 없었지만 일을 한다고 해도 품삯이 매우 싼기 때문에 인삼장사를 나서는 아줌마들이 많았다. 금산에서 인삼을 사 가지고 외지로 나가 한 채 두 채로 파는 것이 아니고 뿌리로 몇 개씩 팔면 이문이 많이 남았기 때문이다.

장날만 되면 많은 인파로 인해 걸어서 다닐 수가 없을 정도였다. 하천가에 노점도 많았다. 장을 보러 나온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일반 음식점도 장사가 잘 되었다. 삼방도 많았고 음식점도 많았고, 노점도 많았다. 그야말로 삼방이 몰려 있었던 시장에는 인삼 향기와 장사꾼들로 꽉 차 있었다. 재래시장은 새로 생긴 국제시장 때문에 쇠퇴의 길을 걸었다고들 하지

만 재래시장이 쇠퇴한 이유는 장소가 협소하고 시장 안으로 차량이 들어 올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불편함 때문에 노점상이 재래시장으로 들어가지 않아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 맨 처음 시작한 것이 우리 회사였어요



**송 하 성** (1944년생)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맨 처음 시작한 것이 우리 회사였어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태극삼을 가공한 곳은 한국인삼가공이라는 회사였다. 이 회사는 서울 마포에 있는 회사인데 금산에 지부를 두고 삼을 사서 올리는 일을 했다. 인삼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인삼을 캐오면 그것을 사서 큰 차로 회사에 올려 보냈다. 그때는 서울까지 두 시간 반이 걸렸다. 그날 캐온 것을 바로 구매해서 서울로 보내면 그 즉시 작업에 들어갔다. 수삼이라 시간이 지체되면 마르기도 하지만 썩기가 쉬웠다. 그래서 시간을 다투어 수송도 하고 작업도 했다. 가공 물량은 외국, 특히 대만이 주거래국 이었는데 그들이 요구하는 양에 따라서 조절했다.

금산에서 인삼을 구입할 때 시장에서 캐 온 것을 사기도 했지만 직접 삼장에 가서 사는 경우가 많았다. 우선 좋은 재료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했다. 그래서 칸매보

다는 채매를 주로 했다. 칸매는 땅속에 들어 있는 인삼 상태를 알 수가 없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채매는 눈으로 보고 저울로 달아서 구입하는 것이라 위험부담이 없었다.

서울 회사로 보내진 수삼은 그 즉시 세탁에 들어간다. 깨끗하게 물로 흙을 제거한 다음 골고루 펴서 말렸다. 정직원보다는 일당을 받고 일하는 여자분들이 그 작업을 담당했다. 주로 태극삼을 제조하였고, 생건삼이나 미삼도 만들어 수출했다. 그렇게 30년 동안 한국인삼 가공에서 일을 했는데 마른삼을 취급하는 다른 회사에도 적을 두고 있어서 장 안날은 수삼을 사고, 평일이나 장날은 마른 삼을 사서 올려 보냈다. 철에 따라 나오는 인삼이 정해져 있지만 필요한 양만큼 구매했다.

### 인삼농사가 손이 무자게 가는 거예요

사먹는 소비자는 모른다. 어떻게 해서 소비자에게 인삼이 오는 지. 예정지가 정해지면 우선 산에 가서 풀을 해다가 넣고서 소로 갈았다. 1년에 10번 내지 20번 갈아 엮었다. 아무것도 경작하지 않고 갈아 놓기만 한다. 여러 번 갈아엮는 이유는 햇볕에 말리기 위함이다. 그 래야만 병균도 죽고 지력이 회복되어 흙이 강해지고 인삼이 건강하게 자란다. 소 없는 집은 소를 빌어다 갈아야 하기 때문에 경비가 더 난다.

가을에 개갑을 해서 통초 낫다가 세근을 캐 가지고 심었다. 그것이 묘삼이다. 다음 해 묘삼을 캐서 삼장에 심는다. 1년에 적어도 10번 이상 소독을 해야 한다. 고랑에 풀도 제거 해 줘야 한다. 품삯으로 들어가는 인건비만 해도 만만치 않다.

인삼 재배는 재결이 안 된다. 심었던 곳에 다시 심으면 삼이 썩어 버린다. 15년 내지 20여 년이 지나야 재결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장담은 할 수 없다. 재결을 하면 균이 있어 삼 밑이 잘리고 썩는다. 그러나 논은 밭보다 회복이 빠르다. 벼를 몇 해 심으면 재결이 가능하다. 대략 2년 논농사 짓고 재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예전에는 재결 피해를 피할 수 있다 하여 약을 사용하기도 했으나 별로 신통치 않아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삼을 재배했던 곳엔 삼은 재결이 안 되지만 다른 작물은 잘 된다. 거름이 있어서 고구마, 감자, 땅콩 같은 작물이 잘 된다. 그래서 인삼을 경작한 밭만 얻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생겼다. 인삼이 지력을 다 뽑아내서 농사가 안 된다는 생각은 기우다. 오히려 가을에 삼을 캐고 김장용 배추나 무를 심어 재미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

### 삼딸을 남길까, 집을까?

인삼의 열매를 삼딸이라 부른다. 언제부터 그렇게 불렀는지는 자세히 상고할 수 없지만 명칭이 고상하다. 7, 80년대만해도 인삼 딸 한 말에 50만원 했다. 잘나가는 회사원 1달 월급이었으니 고가임에 분명하다. 삼딸을 전문적으로 수확하지 않는 사람들은 삼딸을 모두 집어준다. 그래야만 영양분이 뿌리로 가기 때문이다. 다음 해에 심을 양만큼만 남기고 제거해 버린다.

삼딸은 3년근, 4년근, 5년근에서 채취한다. 7월 중에 채취를 하는데 딸 가격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서면 남기고 아니면 모두 제거한다. 삼딸을 탄다고 해서 성장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삼딸 채취를 하면 물에 넣어 빨강게 익은 겉은 제거한다. 물기를 말린 다음 개갑을 해서 삼장 만들 준비를 한다.

### 눔대장

눔대장은 인삼을 채굴할 때 놉을 얻어주는 일을 했다. 예전에는 놉대장이라는 것이 없었다. 2000년대 쯤 인삼 경작인이 많아지고, 넓은 평수에 재배가 가능해지면서 놉대장이 등장하였다. 놉대장이 알아서 일꾼들을 동원한다. 전화를 걸어 일꾼을 모으는데 전화비로 한 사람당 1000원씩 했다. 작업을 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일력 수급이 안 되면 다 지어 놓은 인삼을 제값에 팔 수가 없다. 1000원 하던 것이 이제는 5000원으로 올랐다. 특히 칸매꾼들은 이런 놉대장의 도움에 많이 의지한다. 채매가 되었든 칸매가 되었든 채굴은 시간 다툼이기 때문에 놉대장의 역할은 중요하다.

### 많이 담아 주세요

삼을 캐오면 동네 여자분들이 삼을 가져다가 꺾는다. 누구네 삼 캔다는 정보를 얻으면 그 집 울 안에 자기 이름을 쓴 소쿠리를 던져 놓는다. 그러면 삼 농사 지은 주인이 인삼을 선별해서 담아 놓는다. 마을마다 삼을 잘 꺾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삼을 담아 준다. 솜씨가 좀 빠지는 사람은 작은 것을 담아 내 놓는다. 만약에 작업할 삼이 없어 담아 주지 못하면 다음을 기약한다. 소쿠리 주인도 서운해하지 않는다. 다음에는 우선 순으로 받기 때문이다. 삼을 캐는 시기가 오면 금산의 온 동네 사람들이 삼 꺾는 작업

으로 바꿨다. 골목마다 삼 말리는 광경은 흔하고 흔한 모습이였다. 또한 골목마다 삼 향기로 가득했다.

삼 사이에 있는 찌꺼기는 대칼로 하지 못한다. 자칫 뿌리를 건드려 부러지면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럴 때는 칼보다는 삼베를 입에 물고 뿌리 사이에 넣어서 왕복하면서 껍질을 깎아 냈다. 인삼에 흠이 생기면 가격 차이가 심했기 때문에 정신을 집중하여 정성을 들여서 깎았다.

### 모시 적삼 입고 깔끔하게 하고 와서 인삼을 접었다

인삼 말리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수삼을 깨끗하게 물로 씻어내고, 그냥 말리든지, 아니면 껍질을 깎아내고 말리든지 결정을 해서 작업을 하는데, 껍질을 깎은 것이 쉽게 마른다. 인삼 껍질이 매우 단단해서 그냥 건조시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날이 좋으면 햇빛에 말린다. 날이 안 좋거나 비가 오는 날이면 방다림을 한다. 방에 연탄이나 나무장작으로 불을 때고 말리는 것인데 햇빛에 노출시켜 말리는 것보다 색이 잘 나오지 않는다. 방다림은 많은 삼을 취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예전에는 대부분 소작으로 했기 때문에 방다림도 많이 했다. 햇빛에 말리면 뽀얀하니 매우 깨끗하게 마른다.

마른삼은 이제 백작작업을 한다. 워낙 고가로 취급하는 것이라 조심스럽게 취급했다. 바짝 마른 삼은 좀 눅눅하게 해서 접으면 잘 접힌다. 접는 것은 나이든 남자들이 많이 했다. 모시적삼을 깨끗하게 차려 입고 정갈하게 작업을 했다. 왕골속을 써서 모양을 예쁘게 접었다. 당시에는 다른 재료보다 왕골속으로 많이 했다. 왕골속만 따로 취급하는 사람도 있었다. 6~70년대 들어와서 도톰한 실로 접기 시작했다. 접은 삼은 잘 건조시켜야 한다. 4, 5일 정도 햇볕에 말리면 윗부분이 꼬들꼬들해진다. 밤에는 방에서 방다림을 해서 말린다. 백작으로 말려서 왕골이나 실로 묶은 것을 풀어내고 판매를 했다.

이렇게 백삼으로 작업하던 것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현저하게 감소했다. 그동안 백삼을 선호한 것은 보관상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장기간 보관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오래 보관이 가능한 백작으로 작업을 했던 것이다.

### 장날, 장안날 발 디딜 곳이 없었다

인삼을 사러 사방에서 몰려 왔기 때문에 버스터미널, 여관, 식당, 막걸리집, 밥집... 금산은 살아 있었다. 인심도 후했다. 잠은 공짜였다.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금산에 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주로 장사꾼들이 물건을 사러 왔다. 가까이 영동, 옥천 이외에 신안, 전주, 진안, 무주 등 좀 더 먼 지역의 상인들도 찾아 왔다. 식당과 밥집은 그들을 단골로 잡아 장사를 했다. 금산은 참으로 활기가 있던 곳이다.

인삼규제법으로 제재를 하면서 거래가 주춤했지만 그렇게 타격을 입지는 않았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했던 강자를 만났다. 바로 택배가 금산으로 오는 사람들의 발길을 끊었다. 인삼이 거래가 되어도 사람은 오지 않는다. 그동안 북적이던 시장과 밥집, 막걸리집은 사람 구경이 어렵다. 사방팔방에서 찾아와 금산 인삼시장의 거리를 가득 메웠던 장사꾼들의 모습은 이제 기억 속에서만 만날 수 있다.



# 부여군

## 부여 특산물 탄생과 변화 과정

새로운 기술로 최고의 수박을 가꾸다	510
토마토 농사로 일군 삶	515
전국에서 알아주는 딸기를 가꾸다	519
굿뜨래 멜론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뿌듯하다	524
효자 품종 애호박을 재배하다	529
관행에서 벗어난 새 영농법으로 취나물을 재배하다	533
양송이는 내가 살아 온 인생	538
표고버섯을 키우는 만년 이장님	543
50년 간 우직하게 이어오는 밤 농사	549
고향으로 돌아와 구기자 농사에 새로운 농법을 적용하다	553
인생을 풍요롭게 해 준 밤	557
맥문동 농사가 제일 쉽다	561

● 새로운 기술로  
최고의 수박을  
가꾸다



**강 병 구** (1942년생)  
부여군 부여읍 왕중로

#### 어머니의 희생으로 고등학교까지 마치다

강병구는 1941년생으로 부여 왕포리에서 출생하였다. 왕포리에는 강병구의 13대조 할아버지가 낙향하였는데, 이 마을은 진주 강씨들의 집성촌이다. 강병구의 아버지는 그가 3살 때 돌아가셨다. 집안 형편이 어려웠지만, 부여국민학교(초등학교)와 부여중학교를 마치고 부여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까지 입학하는 경우가 당시에는 흔치 않았고 아버지의 병구완으로 살림이 많이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어머니의 큰 희생으로 강병구는 고등학교까지 마칠 수 있었다.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우체국에 근무하다

강병구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국가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우체국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강병구는 부여우체국, 조천우체국, 서대전 우체국에 근무하다 퇴직을 하게 되었다. 우체국에 근무할 당시 월급을 아끼고 잘 모아서, 퇴직할 당시 땅 열마지기를 장만할 수 있었다.

### 대전 기독교 연합 봉사회 목장에서 젓소를 분양받다

강병구는 서대전 우체국에 근무하면서 토요일과 일요일 등에는 대전 흑석동에 있었던 기독교 연합 봉사회 목장에 찾아다니며 축산업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당시 대전 흑석동 기독교 연합 봉사회 목장은 미국에서 40마리의 젓소를 수입해서 기르고 있었다. 그곳에서의 경험을 계기로 강병구는 ‘남들이 하지 않는 목장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부여 축협에서 젓소를 수입할 때 축협 조합장에게 부탁하여 젓소 3마리를 분양받았다. 대전에서의 직장생활 탓에 분양받은 젓소 세 마리는 주로 그의 어머니가 키웠다. 젓소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새끼를 낳을 정도가 되었을 때는 우체국에서 조직퇴직을 하고 본격적으로 농촌에 살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당시에는 젓소의 수정기술이 높지 않아 그가 분양받은 젓소들은 새끼를 낳지 못했다. 젓소의 수정이 계속해서 실패하자, 대전 흑석동의 기독교 연합 봉사회 장로에게 젓소를 팔았다.

### 본격적인 농사의 길에 들어서서 열성적인 교육으로 선진기술을 익히다

강병구는 젓소를 팔아 마련한 자금으로 논을 사서 농사를 짓겠다는 결심을 했다. 농사도 잘만 하면 전망이 괜찮겠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으로 농사의 길에 접어들기로 했다. 강병구가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할 당시에는 부여에 농업기술센터가 있었고, 농촌진흥원과 농촌진흥청이 각각 대전과 수원에 있었다. 강병구는 선진농법을 배우지 않고 재래식 농법을 고수하는 것으로는 농사의 성공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농업기술센터를 많이 다녔다. 진흥원이나 진흥청에서 농사에 대한 교육이 있다면 열심히 참여하였고, 부여군에서도 열심히 교육에 참여하는 강병구가 다양한 농업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해 주었다. 이를 계기로 강병구는 농사의 선진기술을 빨리 수용할 수 있었다.

### 획기적인 수박 농사법인 수박 접목법을 부여 최초로 도입하다

농사로 성공하기 위한 강병구의 교육에 대한 열의는 부여 최초로 수박 접목법을 도입하여 농사로 성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우체국을 퇴사하고 뛰어난 농사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느끼고 열성적으로 교육을 받아오던 그에게 종묘회사인 흥농종묘는 자신들이 개발한 수박접목법 도입을 제안하였다.

당시 호박과 수박의 모종을 이용한 접목법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곳이 거의 없었다. 흥농종묘에서 개발한 신토좌 호박에 재래종 수박을 접목한 새 품종의 수박은 크기가 크고 색깔도 좋았다. 당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지만, 수박의 상품성이 높았다. 그러나 새로 개발한 품종을 도입하는 농가가 거의 없어서 여러 농가에 보급이 어려웠던 것이다. 농사 교육을 많이 받으러 다녔던 강병구에게 어느 날 서울의 흥농종묘 본사 과장이 찾아왔다. 강병구를 찾아온 종묘회사의 과장은 “수박농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좋은 게 있다. 우리가 한 번 지도를 할 테니까 해 보시라”고 설명하였고, 강병구는 기존의 수박 농사에 사용하던 땅의 반을 나누어 새로운 농법을 적용했다. 즉 농토의 반에는 기존의 농법대로 수박을 가꾸고, 나머지 절반은 흥농종묘사에서 온 과장과 함께 접목법을 도입하여 수박을 재배하였다.

### 뛰어난 수박을 가꾸어 이름난 농부

접목한 수박은 성장이 매우 빨랐다. 그때는 수박을 따서 부여에 있는 위탁판매소에 가서 위탁 판매하였는데, 소 달구지에 수박을 싣고 가서 진열을 하면 서울의 상인들이 와서 경매로 가져갈 때였다. 강병구가 접목 방식을 도입해 재배한 수박이 처음으로 출하되니 모두 그가 농사지은 수박 앞으로 모일 수 밖에 없었다, 수박이 워낙 크고, 색깔도 좋아 매우 특별했기 때문이다. 이후 수박 장사들이 다른 수박은 보지 않고 강병구의 수박만 찾으러 왔다.

### 특별한 수박의 재배법이 부여에 확산되다

접목법을 도입해 재배한 수박은 성공적이었고, 수익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강병구의 특별한 수박 재배법인 접목법은 마을의 다른 농가에도 알려졌다. 수박 경매장에 온 다른 농가들은 그의 재배법을 궁금해 했다. 종묘회사에서 선진적으로 재배를 권유해 시작한 접목법은 신토좌 호박에다가 수박을 접목하는 방식이었다. 강병구가 도입해 성공한 이 농법은 이

후 부여 전체로 확산되었다.

### 기반을 갖춘 후에 혼인하다

강병구는 당시로는 비교적 낮은 나이에 혼인을 했다. 친구들은 다 혼인을 했을 무렵에도 강병구는 혼인을 하지 않았는데, 삶의 기반을 완전하게 세우지 않고는 혼인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혼인 상대는 부여 읍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당숙이 추천해 주었다. 강병구의 당숙은 지방자치 면의회 의장을 하셨던 장인어른과 잘 아는 사이였고, 처가댁이 마음에 들어 혼인상대로 추천해 주신 것이다. 강병구의 어머니도 당숙이 추천하신 혼처를 마음에 들어 했다.

### 바쁜 농사일 속에서도 잘 챙겼던 자녀들의 교육

강병구는 자녀들의 교육에도 크게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장남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대전에 집을 구해 자녀들과 어머니가 이사했다. 덕분에 자녀들은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바쁜 농사일에 짊어 없는 형편이었으나 강병구와 그의 아내는 교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농사일을 마친 후 막차를 타고 대전의 자녀들을 만나러 갔다. 멀리 떨어져 공부하는 자녀들을 보고 새벽 첫차를 타고 부여로 돌아와 농사일을 했다.

### 빛내서 농사짓지 않는 신념

새로운 농사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준비 비용이 상당히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다. 농촌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빛을 내서 농사를 짓고 이자를 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자로 인한 지출이 적지 않기 때문에 농민에게는 상황이 매우 어려워 질 수 있다. 강병구는 아무리 어려워도 자금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농사의 수익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이자까지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절대로 빛을 내서 농사짓지 않고, 분수대로 있는 만큼만 한다는 신념으로 농사를 지었다.

### 정석대로 농사짓는 농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농사의 길

강병구는 욕심을 내지 않고 정석대로 농사를 지어왔다. 욕심을 부려 거름을 많이 주고 빨

리 잘 기르려고 하는 방식의 농사는 장기적으로 땅의 힘을 낮추고 오염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강병구는 토질을 지키기 위해 비료를 최대한 적게 주었다. 강병구는 농촌지도 관리사가 지도한 대로 유기비료 이외에는 쓰지 않았다. 기름을 짜고 난 찌꺼기를 모아서 만든 유박이라는 비료는 가격은 비싸지만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는 좋은 거름이었는데, 그는 유박을 주로 사용하였다.

강병구는 수박을 크고 빨리 키우려고 하지 않았다. 딴 사람들의 수박은 생장이 무척 빠르고 크기도 크지만, 강병구의 수박은 성장도 느리고 크기도 크지 않은 편이었다. 그러나 수박을 팔 때는 강병구가 재배한 수박이 제일 좋은 것으로 평가받았고, 외지의 수박 상인들이 매일 그의 수박을 사러 왔다. 그는 지도기관에서 지도하는 교육에 따라 정석대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질이 좋은 수박이 나왔던 것이다.

강병구의 농사 인생에는 실패가 없었다. 그는 그것을 ‘운’ 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그의 운은 미리 모든 것을 예측하고 정석대로 해 나갔던 농부의 삶이 만들어 낸 운명이었다.



●  
토마토 농사로  
일군 삶

**지상철** (1939년생)  
부여군 세도면 망개로

### 6.25와 보릿고개에 대한 기억

지상철은 서천 판교면 금정리에서 1938년 6남 2녀 중 다섯째로 출생하였다. 어린 시절 살았던 금정리에는 산이 많고 논이 적었다. 마을 사람들은 개간을 하거나 종천면 저수지 끄트머리에 있는 소량의 농지에 모시를 심어 생계를 꾸려갔다. 식량 구하기가 어려워서, 어렸을 때는 먹을 것이 없었고 잘 못 먹는 바람에 몸이 붓고 눈이 쪽 들어갔던 기억도 있다. 독사풀을 먹기도 하고, 보리를 여물로 찌서 주린 배를 채우기도 했다.

지상철은 8살에 서당에서 명심보감까지 배우고, 해방 후인 1946년에 국민학교(초등학교)에 들어갔다. 열세 살이 되던 해에는 6.25가 일어났다. 지상철의 가족은 피난을 가지 않았고, 외지의 사람들이 산골인 지상철의 마을로 피난을 오는 경우가 많았다.

지상철이 군대에 가 있을 당시, 그의 가족은 외삼촌의 권유로 들이 넓은 세도면 청포리로

이사를 오게 된다. 시험을 쳐서 입대한 공군에서 지상철은 1963년에 제대했다. 제대 후 공사장에서 일을 했다.

### 부여보다는 강경의 생활권에 속했던 청포리 마을

청포리는 행정구역으로는 부여군에 속하지만 논산시 강경읍의 생활권에 속한다. 전에는 배를 이용해서 강경까지 왕래했다. 늦은 밤이면 배가 운영하지 않아서 택시를 타고 부여읍까지 돌아서 와야 했다. 홍수로 제방이 무너지고 사람 여럿이 죽는 등의 사고 이후 1986년에 황산대교가 개통되었다.

과거에는 밀물과 썰물이 있어서 밀물을 타고 배가 들어왔다가 썰물 때 나갔고, 인근의 강경에는 소금과 생선이 모여 전국적으로 알려졌던 시절도 있었다. 그래서인지 현재까지도 젓갈시장이 아주 크게 있고 새우젓 축제도 전통적으로 이어진다.

### 해방 이후 일본인에게 넘겨받은 땅인 세도에 토마토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다

세도지역의 토마토 재배의 역사는 일제강점기까지 소급된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이 큰 토마토를 심어 재배하다가, 해방 이후 당시 머슴이었던 박○○라는 사람에게 땅을 주고 갔다. 그 이후로 박영수가 토마토 농사를 확산시키게 되고, 지상철도 박영수에게 논을 조금 얻어서 농사를 시작했다. 지상철이 토마토 농사를 짓기 시작한 1967년에는 큰 토마토와 더불어 오이를 재배하였다.

토마토 농사를 배운 박영수로부터는 토마토를 노지 재배하는 방식으로 배웠다. 하우스 농사를 짓는 법은 각자도생으로 습득하였다. 책자를 보고 동료들끼리 정보를 공유하였으나, 첫 해에는 농사의 반절이 실패로 돌아가기도 했다.

세도지역은 하우스 농사하기 좋은 세 가지를 갖추고 있다. 겨울에도 해가 길고, 거름을 자주 줘야 하는데 모래땅이라 물을 품으면서도 금방 빠지기 때문에 유리하다. 또한 모래땅이어서 쇠파이프를 땅에 박으면 겨울에도 영상 15도의 물이 나와 하우스 농사가 발달하기 시작했다.

## 90년대 들어서서 도입된 방울토마토, 노동력으로 가속도가 붙다

90년대 방울토마토 농사가 본격화된 이후 부여 기술센터에서 재배법을 교육해주었다. 한창 일할 때는 일꾼들과 함께 하루에 여섯 끼를 먹기도 하였다. 현재 농사짓는 인력들의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농촌에 청년들이 부족하여 외국인 노동자들과 주로 농사를 짓는다. 베트남 사람들이 제일 많아서 동네에 베트남 사람들을 위한 시장이 일주일에 두 번이나 설정도이다.

## 달라진 재배기법과 늘어난 재배면적

전에는 각 농가에서 육묘 재배를 직접 하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육묘장이 생겼다. 육묘장에서 자란 모종은 잎곰팡이 예방도 잘 되고 있다. 또한 육묘의 과정을 생략하고 옮겨 심는 과정만 하게 되니 토마토 농사가 훨씬 수월해졌다. 그 외에도 하우스에 자동급수 시스템이 적용되어 물도 시간 맞춰서 적당한 양만큼 뿌려주고, LED로 빛도 쬐여주는 등 농사기술이 많이 좋아졌다. 지상철은 농사 초기에는 식구가 많아 40m짜리 하우스 세 동으로 시작했었다.

하우스 재배를 돕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돈 벌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 동네에 사람들이 많아지기도 했다. 동네 인구의 45%는 외지인이라고 한다.

한편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와 연동 비닐하우스를 지은 이후 방울토마토 재배가 더욱 더 활발해졌다. 방울토마토 가격이 가장 활발하였을 때는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이었다. 방울토마토 농사짓던 사람들이 자식 교육까지 다 시키고 대전에 아파트를 살 만큼 방울토마토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그러다가 현재는 귀덕리 일대의 방울토마토 재배면적이 15% 줄었다. 그 이유는 토마토가 재배기간도 길고 시세 보장이 어려우며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최근 연동 비닐하우스에서는 방울토마토를 포함해서 사과대추와 포도도 많이 심는다고 한다.

## 한 알의 방울토마토를 입에 넣기까지,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한 작목반 생활

방울토마토는 10월 말, 늦어도 11월 초에 모종을 심는다. 평균적으로 설날 즈음에 토마토 가격이 제일 저렴하고 양력으로 3월 초에서 4월 중에 방울토마토 가격이 가장 좋다. 그

래서 그 시기에 맞춰 수확하기 위해 일 년의 농사 주기가 정해진다.

모종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토마토에 있는 씨를 그대로 키워 심는 ‘실생묘’ 모종과 포트에 키워 접목을 해서 심는 ‘접목묘’ 모종이다. 접목묘를 만드는데 일손이 더 많이 가기 때문에 실생묘보다는 접목묘의 가격이 더 높다. 과거에는 여름에 토마토가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사시사철 토마토를 먹을 수 있다.

1977년에 지상철의 동갑 친구들끼리 작목반을 만들었는데, 그 작목반이 지금의 신성작목반이다. 방울토마토 재배 초반에는 여러 작목반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는데, 강경작목반, 망개작목반, 청포작목반 등 여러 작목반이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했다. 신성작목반은 서로 마음이 잘 맞는 농가 회원들끼리 100여 명의 회원을 유지해 오다가, 현재는 63명의 회원이 있다. 여러 작목반들이 통폐합된 결과지만, 그래도 현재 세도면에서 가장 큰 작목반이라고 한다.

### 자식교육을 넘어서 지역사회에 베풀기

지상철은 꾸준하게 욕심 부리지 않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 방울토마토 재배로 자식들 모두 교육시키고 잘 살았다고 자부하였다. 또한 마을을 위해 마을회관을 짓고 마을의 길을 넓히는 등 공동체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용품과 우유값, 그리고 밥값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와 주변의 소외된 이웃까지 널리 챙기며 살아왔다

농약을 치다가 농약중독에 걸려 5일 만에 깨어났던 기억 이후로는 종교 활동도 열심히 한다. 지상철은 큰 욕심을 버리고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농사와 인생의 풍년작을 이어나갔다.





•  
전국에서  
알아주는 딸기를  
가꾸다

**현생돈** (1957년생)  
부여군 부여읍 홍산면 대백제로

**가장 역할을 했던 유년기, 티격태격했던 남매지간**

현생돈은 1957년 부여 양화면 원당리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홍산으로 이사를 왔다. 9남매 중 넷째로, 위로는 세 명의 누나만 있어서 어린 시절부터 가장 역할을 했다. 성인이 되기 전 보령 쪽에 있는 미산으로 나무를 하러 간 기억이 있는데, 다른 친구들보다 체구가 작아 나뭇짐을 크게 해 올 수 없었다.

그가 살던 양화의 원당리 앞 금강은 군산 하굿둑을 막기 이전에 밀물과 썰물이 들어왔었는데, 조개와 참게를 많이 잡았던 기억들이 있다. 또한 어린 시절 쌀밥을 하면 아버지와 현생돈만 쌀밥을 먹고 위로 있는 누나들은 보리밥을 먹었다. 이 때문에 셋째 누나가 자신의 먹살을 잡았던 어린 시절을 이제는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 경운기를 끌고 아버지를 따라 농사를 푼다

현생돈의 아버지는 체격이 좋고 일을 잘 하셨는데, 농사일을 아버지만큼 하지 못했던 현생돈은 아버지로부터 꾸짖음을 받기 일쑤였다. 아버지의 꾸짖음을 참지 못했던 현생돈은 집을 나와서 아파트 건축 공사장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된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찾아와 집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짓자고 제안했다. 아버지에게 또 혼나는 것이 싫었던 현생돈은 아버지의 청을 거절했지만, 혼자 농사를 짓는 것이 힘들었던 아버지는 경운기 한 대를 사주면 가겠다고 하는 현생돈의 요구를 수용하고 그를 집으로 데리고 왔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현생돈에게 아버지는 경운기를 사주지 않았다. 현생돈은 사흘 동안 밥도 안 먹고 나름대로 시위를 했는데, 결국 아버지는 그에게 경운기를 사 주셨다. 현생돈은 몸으로 하는 일은 잘 하지 못했지만, 경운기를 잘 다루어서 지게로 쳐 날랐던 거름을 경운기로 쉽게 옮기는 등 아버지 농사일을 크게 도울 수 있었다. 또 경운기로 다른 농가의 농사일을 해 주거나 새마을 사업이 한창인 그 당시에 경운기로 벽돌을 실어 나르는 등의 일로 꽤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 1984년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다

1980년대에는 건설회사에서 외국으로 파견 가는 사람을 모집하였다. 현생돈도 지원을 해 삼환기업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에 갔는데, 국내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득이 많았고 큰 기술이 필요치 않았다. 현생돈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엄청나게 심한 모래바람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자재부 관리팀에서 일을 했고 지게차를 모는 일을 했었다. 대우도 좋았고 급여도 좋은 조건이었으나, 향수가 짙어져서 1년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 1985년 본격적인 딸기 농사를 시작하다

부여에서는 홍산과 구룡에 제일 먼저 딸기가 농작물로 도입되었는데, 홍산에는 1973년에 처음으로 보령 웅천으로부터 딸기가 도입되었다. 딸기의 수입이 관찮다는 입소문이 돌자, 이후 여러 농가에서 딸기 농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초창기의 홍산 지역 딸기재배는 노지에 재배하는 방식이었고, 지금과 달리 10~11월에 정식을 했었다. 3월 중순 경부터 딸기를

따기 시작해 시장으로 출하했는데, 5월 초 어린이날, 어버이날 무렵의 딸기 가격이 제일 높았다. 당시 벼농사보다 수익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딸기는 효자종목이었다. 딸기농사를 끝내면 곧바로 모를 심어서, 딸기와 쌀 두 가지를 재배할 수 있었다.

출하한 딸기는 생선케찹에 넣어 시내버스에 싣고 전라북도 군산으로 팔러 다녔다. 그 당시의 군산은 홍산에서 가깝고 홍산 인근에서는 큰 도시로 인식되었다. 부여나 대전보다는 당시 군산에서 판로를 확보하는 것이 더 유리했다. 매일매일 딸기를 수확해서 군산에 있는 경매시장에서 돈을 받아오는 재미가 있었다.

### 늘어난 재배면적, 그리고 서울로의 판로를 확보하다

현생돈은 딸기농사를 도입한 이래로 재배면적을 점차 넓혀갔다. 90년대에는 하우스 재배를 시작했고 동시에 작목반이 생겼다. 현생돈이 작목반 반장을 하던 때에는 가락동에 시장이 생겼고, 홍산에서 생산한 딸기는 양재 하나로마트에도 납품되기 시작했다. 양재 하나로마트의 바이어가 찾아와서 딸기의 출하가 성사되었는데, 초창기에는 딸기 포장에 애를 먹었다. 포장재에 담은 딸기들의 크기가 맞지 않으면 흔들려서 열매가 짓무르는 동시에, 공기가 통하라고 뚫어놓은 구멍에 장을 보러온 아주머니들이 손가락을 넣어 딸기를 찢어보는 일이 많아 상품성이 떨어지기도 했다. 이런 일을 겪어가며 새로운 포장에 대한 아이디어도 고안해 냈다. 딸기를 세 개씩 네 줄로 열을 맞춰서 플라스틱 상자에 포장하는 방법이 나왔는데, 그 방법으로 딸기를 포장하면 크기도 딱 맞아 딸기가 흔들리지도 않고 신선하게 판매가 가능했다. 이렇게 서울의 하나로마트에 진출한 홍산 딸기는 점차 인정을 받아서, 가락동 시장의 시세보다 두세 배 더 받을 수 있었다. 홍산 딸기를 더 알리기 위해 ‘싱싱딸기’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홍산의 싱싱딸기와 구룡의 아침딸기는 그 당시 전국에서 상당히 이름난 딸기였다.

### 품종에 따른 특성과 딸기 재배에 적합한 조건. 그런데 갑작스레 찾아온 자연재해

딸기의 품종도 여러 가지인데, 구룡은 ‘여봉’, 홍산은 ‘여홍’, 논산은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딸기 품종인 ‘도찌오도메(とちおとめ)’ 품종에 따라 맛 차이가 있는데, 여홍은 과육이 크고 달지만 좀 무르다. 여봉은 작은 대신 당도가 괜찮고 단단하다.

딸기 재배에 적합한 토양은 물빠짐이 좋아야 한다. 현생돈이 거주하는 홍산지역은 물도 좋고 서해안 근처라 해풍도 불어와 당도에도 유리하다. 또한 평균 기온이 논산보다 2~3도 낮아 딸기 재배에 아주 적합하다.

딸기농사를 지으며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었던 시기도 있었다. 1987년에는 부여 전체에 큰 홍수가 있었고, 2002년에는 폭설로 피해를 입었다. 1987년에는 하우스만 잠겼었지만, 2002년에는 당시 봄이었던 4월에 눈이 많이 와 하우스들이 많이 무너졌다. 봄에 내린 눈은 겨울에 내리는 눈과 달리 눈의 무게가 상당한데, 눈이 40cm 정도나 내려서 하우스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거의 모두 파손되었다. 당시에는 국가 지원도 없고 보험도 없어서 많은 농가들이 힘들었다.

### 노지재배에서 비닐하우스 재배로의 변모 그리고 새로 도입된 고설재배

여느 농가처럼 딸기농사도 노지재배에서 비닐하우스 재배로 변화해갔다. 한편 7, 8년 전부터는 고설재배를 많이 했다. 고설재배는 지면에서 1m 높이의 시설을 만들어 상토를 넣고 딸기에 필요한 양액 재배시설을 갖추어 딸기를 재배하는 방식이다. 작업할 때 몸을 쪼그리거나 허리를 굽히지 않고 서서 작업할 수 있어 편리하고, 지면과의 높이 차이로 탄저병 발생이 크게 줄어든다. 다만 초기 투자비용이 높고, 일반 재배와 달리 비료가 더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온도조절을 섬세하게 해야 하기에 기름 값도 더 많이 든다.

### 한창 시절 큐마크(Q마크) 인증도 받고 취재에도 여러 차례 응하다

딸기 농사를 한창 할 때는 하우스 8동, 즉 1,600평 규모로 했다. 충청남도 추천 우수 농산물 마크인 Q마크도 충남에서 딸기로는 처음 받았고 굿뜨래 인증도 가장 먼저 받았다. 언론에서도 취재 요청이 많이 왔으며, 농촌진흥청으로부터는 담양 딸기와 더불어 홍산의 싱싱딸기가 전국에서 소비자 인지도가 가장 높다는 평가도 받았다. 다른 농산물과 같이 딸기의 가격도 점점 떨어졌지만, 그래도 다른 농산물들에 비해서는 안정적인 편이었다.

2020년은 딸기 가격이 가장 좋은 해였다. 딸기 재배면적은 전년도와 똑같았는데, 작년 겨울이 덜 추웠고 가을에 비가 많이 와 병충해가 심해지는 바람에 딸기가 많이 죽어서 면적 대비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좋았던 것이다.

전반적으로 투자 대비 소득이 좋았던 시절은 1990년도였다. 딸기농사와 벼농사를 지어서 집도 살 정도로 소득이 많았다. 딸기 하우스 한 동에서 보통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딸기 재배 면적이 늘어났지만 농민들의 평균연령이 높아져 농사짓기가 쉽지 않다.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력을 주로 활용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의사소통과 관리가 쉽지 않아, 몇몇 외국인 노동자들은 불만사항이 생기면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떠나버리는 사례도 있다.

### 농협을 통한 공선, 그리고 작목반의 기억

딸기의 출하는 농협을 통해 공선을 한다. 공선은 약 5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안성물류를 통해서 창동 하나로마트로 판매된다. 공선만으로는 다 판매하지 못해 가락동 시장에도 판로를 마련했다.

작목반은 1995년에 처음 만들어졌다. 작목반을 통해서 농자재를 공동으로 구입하고 함께 출하를 해서 가격을 잘 받기도 했다. 작목반 회장이던 시절에는 그 역할에 대한 보수가 없는데도 열심히 활동하였다. 외부 손님들을 만나 술에 취해 집에 늦게 들어오던 때가 많아 아내에게 미안함이 많았다.

### 싱싱딸기 브랜드화에 앞장서고 계속해서 딸기를 알리려 노력하다

처음 딸기 이름을 지을 때 고민이 많았다. 딸기의 신선함을 강조하기 위해 싱싱딸기라고 이름을 지었고 박스 디자인, 로고 디자인도 부여 궁남지의 연꽃을 상징으로 만들어 싱싱딸기의 브랜드화를 확고히 했다. 딸기는 다른 부여의 농산물에 비해 면적이 작아서 따로 축제는 없지만 딸기 인지도 면에서는 전국의 어느 곳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부여 굿뜨래 10미(畝)에도 당당히 들어간 딸기를 앞으로도 널리 알리기 위해 브랜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품질까지 소비자들에게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굿프래 멜론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뿌듯하다**



**류재훈** (1961년생)  
 부여군 부여읍 왕중로

#### 문화 류씨들이 많이 살았던 중정리에서 태어나다

류재훈은 1960년에 중정리에서 태어났다. 중정리는 1리, 2리, 3리로 나뉘어져 있는데, 문화 류씨들의 집성촌은 아니지만 문화 류씨들의 비중이 높은 마을이다. 1990년대부터 비닐 하우스 농사를 많이 짓기 전까지 중정리의 농업은 주로 벼농사가 중심이었고, 그 외로 참외, 땅콩 등을 재배했다. 금강 하류인 중정리 일대에서는 류재훈의 어린 시절에 비가 오면 독이 터지거나 물난리가 나서 학교를 못가거나 농사를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 목재 사업을 배우기 위해 서울로 갔다가 다시 내려오다

류재훈은 1979년 2월에 고등학교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갔다. 목재사업을 하시는 외삼촌이 서울에 계셨다. 목재 사업을 배워보기 위해 서울로 올라갔으나 1981년 여름에 다시 돌아

을 수 밖에 없었다. 중정리에서 농사를 지으셨던 아버지의 허벅지에 염증이 심해져서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다녀왔는데, 그 일을 계기로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뜻에 따라 외지생활을 그만두고 중정리에 돌아와 농사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 부모님들의 노력으로 많은 땅을 마련하다

류재훈의 부모님은 남달리 노력을 기울여 삶의 기반을 마련하셨다. 아버지는 본래 둘째로 태어났다. 할아버지께서는 6.25 때 큰아들을 잃고 그 충격으로 그 해에 돌아가신 이후 류재훈의 아버지는 18살에 가장이 되어 어렵게 생활을 꾸려나가셨다. 어린 시절의 류재훈은 다른 친구들이 다 놀러 다니는 것이 부러웠으나, 장남으로서 부모님의 일을 도와 드려야 했기 때문에 친구들과 제대로 어울리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류재훈의 부모님은 남다른 고생과 노력으로 농토를 장만하고 삶의 기반을 마련했다.

#### 수박농사의 후작으로 멜론 농사를 시작하다

1981년에 아버님의 병환으로 중정리에 다시 돌아와 농사를 짓게 된 류재훈은 수박을 주 작물로 재배했다. 멜론 농사는 1990년대 초에 시작하였다. 당시 수박 농사를 마치고 하우스에서 재배할 작물이 얼마 없었으나, 종묘회사의 관계자 한 사람이 멜론농사를 추천했다. 중정리에서는 류재훈을 포함해 네 농가가 멜론 농사를 수박의 후작으로 선택해 재배하였다.

당시 재배한 멜론은 지금 생산하는 네트 멜론처럼 멜론의 표면에 선명한 줄이 있는 품종이 아니었고, 과일로서의 인지도도 낮은 편이어서 판로가 좋지 못했다. 재배한 멜론을 청과 시장에 출하할 때, 한 농가 정도가 가져간 멜론의 양도 청과시장에서 처분하기에는 많다고 할 정도로 당시에 멜론은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과일이었다.

#### 1990년대 후반에는 중정리에 멜론 작목반이 만들어지다

첫 해에 멜론을 재배해 보니 괜찮은 결과가 나왔다. 수익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수박의 후작으로 선택하기에 괜찮은 작물이라는 판단이 들어 다른 농가에도 권장했다. 그러나 초창기에는 다른 농가들에서 호응이 높지 않았다.

이후 1990년대부터는 멜론 재배 농가가 한두 농가씩 늘기 시작해, 1990년대 후반에는 중정리에 멜론 작목반이 생겼다. 이후 2000년에는 멜론의 표면에 생긴 줄이 굵고 선명한 네트의 멜론이 나왔다. 그 멜론은 표면의 줄이 너무 선명하고 예쁘데다 맛도 좋았다. 류재훈이 처음 그 선명한 네트의 멜론을 재배해 보니 수확한 멜론의 품질이 좋았으며, 다른 농가들에게도 그 품종의 멜론 재배가 확산되었다.

그렇게 확산된 멜론 농가들은 작목반을 지역별로 조직하여 운영하였고, 멜론 농가의 확산과 생산량의 증대에 따라 멜론이 부여를 대표하는 농작물로 각광받고 농협에서 공동선별해서 출하하는 방식으로 자리잡아갔다

### 부여 굿뜨래 멜론 브랜드가 나오다

1987년 부여에는 큰 홍수가 나서 부여읍내까지 물에 다 잠기는 일이 있었다. 88년도에는 경지 정리가 되었고, 1989년부터는 시설하우스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부여 일대에 시설하우스가 엄청나게 증가했다. 4대강 사업의 이전에는 금강 제방의 안쪽 농지에서도 하우스가 많이 운영되었다. 이들 대부분의 농지에서는 수박을 재배하였으며, 수박 재배 면적은 전체 농지의 90% 정도에 달했다. 지금은 봄에도 멜론을 재배하는 농가가 있긴 하나, 대체로 수박을 출하하고 멜론은 주로 여름 재배 작물로 선택하고 있다.

멜론이 여러 농가에서 다수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작목반이 생기고, 부여 멜론의 공동브랜드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굿뜨래 멜론이 탄생하게 되었다. 류재훈은 굿뜨래라는 브랜드가 멜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 여름농사라서 힘든 멜론 농사

중정리 일대에서 제일 많이 재배하는 작물은 수박이다. 수박을 재배하고 나서 멜론은 수박의 후작으로 여름작물로 선택된다. 그런데 멜론은 매우 더운 날씨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땅 힘이 좋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고 고사하기도 한다. 특히 멜론의 수확 시기를 열흘이나 일주일 남겨두고 뿌리가 고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멜론이 맛이 없어 좋은 가격을 받기 어렵다. 좋은 멜론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땅 힘이 가장 중요한데, 땅의 힘을 잘 관리하는 것이 어렵고, 여름철에 멜론 재배를 위해 하우스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다.

### 지구온난화로 더 힘들어진 농사

현재 중정리 일대의 기온은 류재훈이 1990년대 농사지를 때보다 많이 높아졌다. 농사가 집단화되면서 평야지대에 비닐하우스가 밀집해 있으니 기온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이어서 작물 재배 조건이 더 어려워진 것이다. 특히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괜찮았지만, 2010년 이후에는 낮의 온도가 너무 높아 멜론 재배가 더 어려워졌다.

병충해와 이상기온도 많고 장마기간도 일정하지 않아 예전과는 기후조건이 많이 달라졌다. 멜론농사를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7월에 장마가 있었고 길지 않았다. 멜론은 장마에 매우 약해 장마가 길면 멜론 수확이 어렵다. 2020년 올해는 장마가 50일 이상 지속되어 멜론의 작황이 좋지 않은 편이다.

### 멜론 농사는 농가마다 재배 성공률이 다르다

멜론 농사는 투입하는 노동력도 적지 않지만, 수확의 보장성이 다른 작물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다. 수박의 경우 수확때까지 고사하는 비율이 보편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멜론은 농가마다 그 편차가 심하다. 그래서 농가에 따라서는 멜론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도 있다. 생육 과정이 어렵기도 하지만,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한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멜론 농사를 잘 못 지으면 큰 손해를 보는 일도 있기 때문이다.

### 추석에 나오는 멜론 중 반은 부여 멜론

부여 곱뜨래 멜론은 주로 추석에 맞추어 출하되고 있으며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꼭 추석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박의 재배 이후 멜론을 재배하면서 추석과 맞물리게 되었다. 또한 추석 무렵에 멜론 가격이 좋은 편이어서 각 농가들이 추석에 맞추어 출하를 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추석에 출하되는 물량이 많아져서 가격 측면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 인터넷으로 멜론을 판매하다

2020년 올해는 멜론의 가격이 특별하게 높게 책정된 편이다. 일기가 좋지 않아 멜론의 작황이 좋지 못했고, 수입 과일이 줄어든 탓도 있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구매하는 사람들이 시장이나 마트를 직접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 인터넷 판매를 많이 하고 있다. 하루에 6백 박스 정도가 쿠팡 같은 온라인쇼핑몰 등의 주문을 통해 인터넷으로 판매된다.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가격도 시장보다 낮아서 구매자들의 호응이 좋다. 멜론 농사가 수박 농사보다 힘들지만, 올해처럼 가격이 잘 나와 주면 멜론 농사를 짓는 농가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인력 수급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다

요즘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 곳에는 거의 모두 외국인들의 노동력을 활용하고 있다. 부여의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들 중에는 태국인들의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이다. 류재훈의 경우에도 약 7년 정도 외국인 부부를 고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전에 협의도 없이 말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 어려움이 적지 않다. 농산물의 가격은 크게 변동이 없지만, 인건비 비중이 높아 농사에 드는 기본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 농사짓는 사람들의 여건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  
효자 품종  
애호박을  
재배하다



**최준수** (1946년생)  
부여군 부여읍 가탑로

#### 중정리에서 태어나서 가탑리에 자리잡다

최준수는 1946년생으로 부여 중정리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본래 공주에 자리 잡고 살았는데, 6대조 할아버지가 부여에 정착하면서 중정리에 살게 된 것이다. 중정리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탑리보다 특산물을 재배하는 하우스가 더 많은 편이다.

#### 공으로 하는 운동은 무엇이든지 잘했던 학창시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축구선수를 했다. 축구선수로 충청남도 대회에 출전하기도 했다. 다른 운동도 잘 하는 편이었는데, 농구와 배구, 탁구 등 공으로 하는 운동은 특히 잘 했다. 최준수의 가정형편은 괜찮은 편이어서 고등학교까지 마칠 수 있었다. 고등학교를 마친 후에는 바로 군에 입대하였다.

### 부산의 객지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고향에 돌아오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군대를 다녀 온 최준수는 중정리에서 1년 정도 지내다 부산의 회사에 취직을 하였다. 고모의 조카가 부산에 있는 성장합판의 경리과에 근무했는데, 최준수를 성장합판의 감사과에 취직할 수 있도록 추천해주었다.

그러나 부산에서의 취직 생활은 오래할 수 없었다. 다른 형제들은 모두 객지로 나가고, 큰 형님의 사정으로 부모님을 모실 사람이 없었다. 최준수는 다시 부여로 돌아오게 되었다. 고향에 돌아온 지 1년 정도 지나서 당시로서는 좀 늦은 나이였지만 서른 살에 혼인을 하였다.

### 수박의 후작으로 주키니호박을 재배하여 높은 소득을 올린다

중정리로 돌아온 최준수는 논을 사서 수박농사를 지었다. 처음에는 금강 제방 안에 있는 아버지 땅에 수박 하우스 네 동의 농사를 지었는데, 그곳은 비가 오면 물에 잠기는 곳이었으므로 수박의 수확 이후에는 다른 후작 작물의 농사가 적당하지 않았다. 수박은 비교적 일찍 수확을 하기 때문에 여름 홍수가 나기 전에 농사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이후 최준수는 제방 바깥에도 논을 사서 당시 수박하우스 여섯 동을 지었다. 이때 동화청과의 임윤수 경매부장이 수박의 후작 작물로 주키니호박 재배를 권유하여 주키니호박 재배를 시작했다.

주키니호박 재배는 수박을 다 딴 후 수박을 심었던 자리의 비닐을 걷지 않고 그 위에도 호박을 두 줄 심어 가꾸는 방식이었다. 처음 주키니호박을 심었던 해는 30개의 주키니호박이 들어가는 한 박스에 1만 5천원이었는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한 박스에 3만 2천원의 시세가 되었다. 수박의 후작 작물로 선택되었던 주키니호박의 시세가 좋자, 주키니호박의 재배는 다른 농가에 크게 확산되었다.

### 주키니호박보다 더 인지도가 높고 많이 소비되는 애호박을 재배하다

주키니호박을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재배한 이후 동화청과의 임윤수 경매부장은 최준수에게 애호박 재배를 권유하였다. 애호박 재배는 비닐을 이중으로 씌워서 지주를 세우고 재배를 해야 해서 일손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도입하지 않으려 했었다. 그러나 당시의 추천받

은 애호박 종자는 지주를 세우지 않고도 재배가 가능한 품종이었다. 바닥에 넝쿨이 자라도록 하는 방식으로 애호박을 키웠는데, 주키니호박보다 시세가 좋아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그동안 재배했었던 주키니호박은 시세는 괜찮아도 수확량이 많아 과잉생산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주키니호박은 중국집에서만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수요와 공급을 제대로 맞추기 어려운 점도 있었다. 초창기의 주키니호박 재배는 중정리와 왕포리 일대에서 가장 성행했다. 중정리와 왕포리 일대에 확산된 후 3, 4년 뒤에는 부여읍의 장암면과 규암면에도 확산되어, 4~5톤 규모의 대형 트럭 두세 차량 정도의 주키니호박이 생산되기도 했다. 생산량이 많이 늘어 좋은 가격을 받는데 어려움이 생겨나자, 주키니호박 대신 애호박 재배로 전환했다. 주키니호박과 달리 애호박은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식재료로서 여러 음식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애호박으로 재배종목이 전환된 것이다. 지금도 수박 농사를 마치면 후작 작물로 애호박을 재배하고 있다.

### 겨울철의 효자 작물인 애호박

현재 애호박의 재배는 수박, 멜론 등과 긴밀하게 맞물리고 있다. 겨울부터 준비하여 수박을 제일 먼저 재배한 후 여름에는 멜론을 심어 수확한다. 멜론을 다 수확한 후에는 애호박을 재배하고 있다. 봄과 여름, 가을에 수박과 멜론을 수확한 후 겨울에는 일이 많지 않으니 애호박을 재배하는 것이다. 애호박은 두 달 정도면 농사를 마칠 수 있는 종목으로, 12월 20일 정도면 수확을 마친다. 애호박은 고비용을 들여 장만한 비닐하우스를 겨울철에도 놀리지 않고 농사지을 수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최준수는 애호박을 효자 종목이라고 표현하였다.

### 새로운 애호박 재배법

애호박은 다른 작물에 비해 병충해가 적은 편이다. 그래서 탄 작물보다 병이 덜하고 농사관리와 거름만 잘 하면 아무나 지을 수 있는 작물이라고 하였다.

애호박을 재배하는 과정에는 여러 새로운 농사법이 도입되기도 하였다. 처음 애호박을 도입해 재배할 때는 넝쿨이 바닥으로 가게 하였으나, 지금은 줄을 이용해 넝쿨을 고정하여 위로 자라도록 한다. 줄로 고정하기 전에는 저렴한 가격의 그물을 구입해 설치하고, 그물 위

에 넝쿨을 올려 자라도록 하기도 했다.

이후엔 ‘인큐베이팅(incubating)’방식을 이용해 애호박을 키웠다. 이것을 줄여 ‘인큐’라고 하는데, 애호박이 어느 정도 자라면 비닐봉지를 애호박에 씌워 비닐의 크기만큼만 자랄 수 있도록 하여 호박 크기와 모양을 일정하게 맞출 수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해서 애호박의 보관성을 더 높였다. ‘인큐’ 재배법은 최준수가 호박조합의 회장직에 있을 때 도입하여 성공했다. ‘인큐’ 방식을 도입해 애호박 농사를 짓는 농가가 처음에는 4농가였는데 나중에는 78농가로 늘었다.

### 애호박 농사의 공동체, 작목반 활동

최준수는 수박의 후작 작물로 애호박을 도입하여 부여 전체에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주인공이다. 애호박 조합을 이끌기도 했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한다. 각 마을마다 작목반을 두고 경매회사에 납품하기 위한 교육을 받으러 다니기도 하고, 경매회사에 마케팅을 다니거나 다른 애호박 산지에 견학을 다니기도 했다.

작목반에서는 애호박의 포장 상자를 만들어 부여에서 생산한 애포박을 더 적극적으로 마케팅 하는데 활용하였다. 다른 지역 농산물 가운데 눈에 띄는 상자를 참고하며 부여 애호박 포장상자를 디자인하고, 상표등록을 해서 다른 곳에서 도용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최준수는 애호박을 거름과 병충해 관리만 잘 하면 누구나 농한기에 지을 수 있는 농사 작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고령임을 고려하여 현재는 집 근처에 두 동 정도의 비닐 하우스에 애호박을 재배하고 있다.

●  
관행에서 벗어난  
새 영농법으로  
취나물을  
재배하다



**이재봉** (1962년생)  
부여군 남면 대선리

### 쌀장사로 크게 부를 일구셨던 아버지

이재봉은 1962년에 남면 대선리에서 태어났다. 5대 독자인 아버지는 가난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새우젓 장사와 필모시 장사로 자금을 모아 쌀장사를 하셨다. 아버지는 고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쌀장사를 하던 당시 그에게 쌀을 공급해 줄 정도의 거상(巨商)으로 활동하셨고, 일대에서 알아줄 만큼 부(富)를 일구셨다. 이재봉의 어린 시절에는 쌀밥을 먹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지만, 이재봉의 집에는 친구들이 와서 밥을 먹고 가기도 하고, 인정이 많았던 이재봉이 동냥하러 온 사람들에게 쌀을 나누어 줄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었다.

### 1970년대 경지정리로 갈대밭이었던 곳을 논으로 바꾸다

이재봉이 거주하는 대선리는 1리와 2리로 나누어진다. 1970년대 초반까지는 150여 호

규모였고, 현재는 약 90여 호 규모이다. 대선리는 본래 바다였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바다였던 탓에 토양에는 빨이 많아 농사에는 적당하지 않았다. 농사가 적어서 여성들이 주로 모시 재배와 가공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빨이 많아 주로 갈대밭이었던 마을 주변은 1970년대에 경지정리를 하면서 제대로 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논이 되었다.

### 기우제를 지냈던 마을

이재봉은 어렸을 때 마을에서 지냈던 기우제를 기억하고 있었다. 못자리를 해 놓고 비가 오지 않으면 모내기를 할 수가 없어 물길을 찾기 위해 논바닥을 한 길이나 파야 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다. 기우제는 마을 뒷산인 산지봉 정상에서 거행되었다. 기우제 터는 특별한 시설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터만 있었는데, 제관의 제사와 굿이 어우러진 형식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 한 달 만에 서울이 싫어지다

여유가 있던 집에서 자란 이재봉은 인근에 있는 금천국민학교(초등학교)를 다니다 서울로 유학을 떠났다. 이재봉의 서울 유학은 아버지가 3형제 모두를 서울로 보내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 고모가 영등포구 신길동에 거주하였는데, 고모가 자녀들을 모두 성장시키고 조카들을 돌봐주게 되면서 고모집에 거주하며 서울의 학교에 다녔다.

그러나 이재봉은 서울에 올라간 지 한 달 만에 서울이 싫어지고 고향에 오고 싶은 마음들이 정도로 서울이 내키지 않았다. 신길동에 있는 영신국민학교(초등학교)와 시흥동에 있는 동일중학교를 졸업하고 문일고등학교를 다니다 2학년 재학 중 부여로 돌아왔다.

### 농사일이 유난히도 재미있어지다

아버지의 농사는 9천여 평의 논과 1천여 평 밭에 머슴 두 명을 둘 정도의 큰 규모였다. 이재봉이 부여로 돌아올 당시 아버지는 벼농사만 짓고 계셨는데, 이재봉이 1984년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는 인삼농사를 시작하였다. 사업을 하셨던 아버지는 정보력이나 사회의 변화 등에 대한 판단이 빨라 인삼농사를 시작한 것이었고, 아버지를 포함해 세 사람이 합작을 한 방식이었다. 아버지가 시작한 인삼농사는 결과가 매우 좋았고, 재배면적을 더 늘려갔다.



한편 서울에서 돌아온 이재봉은 관심이 없었던 공부와는 달리 농사일에 쉽게 적응하였다. 농사일이 재미있고 열심히 매진하니, 아버지는 18살에 불과한 그에게 전체 농사살림을 다 맡길 정도로 신임하셨다.

### 26살에 혼인하다

21살에 군대에 들어가 경기도 송탄에서 근무했던 그는 183cm의 큰 키로 의장대에도 들어가 여러 곳의 군 행사에도 다녔다. 1986년 군대에서 제대한 이재봉은 ‘젊은 사람이 열심히 일한다’는 좋은 평판을 받았고,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 중에는 그의 중신을 하려는 사람이 많았다. 1987년에 부여에 수해가 났었는데, 그 해에 이재봉은 전주에 가서 선을 보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된다.

1989년에 어렵게 첫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첫 아들을 얻은 그는 부여의 포장마차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모두 술을 대접할 정도로 크게 기뻐했다. 이후 딸을 낳아, 자녀는 1남 1녀를 두고 있다. 이재봉은 자녀들이 대학 졸업 이후에는 스스로 생활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철저한 교육철학으로 자녀들을 키웠다.

### 대선리 취나물 재배의 시초, 42년 전 산에서 채취한 취나물 씨앗으로 노지재배 해 성공

대선리에서 취나물 재배를 처음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42년 전이다. 아버지의 친구인 성철기라는 분이 산에서 취나물 씨앗을 채취하여 노지재배를 하면서 대선리에서의 취나물 노지재배가 시작되었다. 이후 박종화가 시설하우스를 이용해 취나물을 재배하였다. 이렇게 시작한 취나물 재배는 다른 농가로 확산되었다.

### 휴면작물인 취나물을 빛을 조절해 재배하는 방식을 도입하다

대선리 일대는 딸기와 수박 재배가 많았고 일부 농가에서는 참나물을 재배하기도 하였다. 이재봉은 취나물 재배 이전에는 주로 인삼농사를 주로 했다. 인삼 농사 대신 취나물 재배를 하게 된 것은 마을의 박종화와 이선직이 합자로 운영하던 취나물 하우스를 하기 어렵다며 그에게 사용하라고 추천하면서부터이다.

인삼농사에서 취나물 재배를 하게 된 그는 그동안의 관행농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

를 하게 된다. 취나물은 국화과의 식물로 온도와 빛의 조건에 따라 휴면에 들어가는 식물이다. 그는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의 깃잎 농가가 겨울철에도 불을 켜 놓고 농사짓는 것에 착안하여 취나물에 전기 조명을 사용하는 농법인 전조재배(電照栽培)를 도입하였다. 빛을 계속 쬐어주면 식물이 휴면하지 않고 계속 자라는 점을 눈여겨보고 취나물에도 적용함으로써 취나물을 계속 재취할 수 있는 새로운 재배법을 도입한 것이다.

### 수박의 후작작물로 취나물 농사를 짓다 작목회의 회장이 되다

IMF 금융위기를 겪으며 이재봉은 농사의 규모를 줄이고 논농사만 짓는 시기를 거쳤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남면의 수협조합장을 하고 있는 각별한 친구가 수박하우스 농사를 하도록 땅을 빌려주었다. 다시 농사에 매진하였던 이재봉은 1년 만에 수박재배에 들어간 하우스 시설비를 모두 뽑게 된다. 매우 성공적인 농사결과였다. 이후에는 일본에까지 수박을 수출하며 성공적으로 수박농사를 지었으나, 수박농사를 오랫동안 지속하다보니 연작 피해가 생기기 시작했다. 수박의 연작피해를 줄이기 위해 그는 다시 취나물을 재배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도 취나물을 재배했었기 때문에 그 선택이 더 쉬웠다. 수박농사를 지을 때 그는 수박 작목회의 회장을 맡아서 했는데, 취나물을 재배하게 되면서는 취나물 작목회 회장으로도 추대 받아 취나물 작목회와 연구회 대표로서 10년 동안 활동하게 되었다.

### 취나물이 부여 굿뜨래 10미에 들어가다

현재 부여의 취나물 재배 농사는 약 160여 농가이며, 이 가운데 남면의 취나물 농가는 100여 농가이다. 남면 일대는 일조량이 좋고 지하수가 풍부하여 취나물 재배에 적당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생산면적으로 보면 전라남도 고흥이 가장 넓고 부여의 남면 일대가 두 번째에 해당한다.

취나물 작목회와 연구회 회장을 맡은 이재봉은 남면의 대표적인 작물인 취나물을 부여 굿뜨래 10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처음에는 PLS검사(잔류농약검사)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이후 2년 이상 농가의 교육과 작물의 품질관리 등에도 노력을 기울여 2019년에 드디어 애호박과 더불어 부여를 대표하는 농산물인 굿뜨래 10미에 취나물이 포함되게 되었다. 이재봉은 유럽에서 유기농 농산물보다 더 인정받는 우수 농산물 관리

제도(GAP) 인증을 받기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새로운 영농법으로의 도전

취나물은 가락동 경매 시장에서 비상장 품목이었다, 그러나 이제 남면의 취나물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가락동 시장에서 상장품이 되어 전자경매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 가락동 시장에 상장되었다는 것은 취나물의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부여의 취나물은 백마강 취나물로 출하되고 있는데, 전국에서 가격평가를 제일 잘 받고 있다. 취나물은 다른 작물에 비해 가격 변동의 폭이 크지 않고 안정적이다.

이재봉은 취나물 농사에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취나물은 1년 중 2월에는 생산이 되지 않고 있다. 현재 이재봉의 농장에는 취나물이 생산되지 않는 2월에도 취나물을 내기 위한 새로운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기존과 달리 높게 매달아 설치한 일종의 상자형 밭에 키우는 고설재배(高設栽培)를 통해 취나물이 생산되지 않았던 2월에도 취나물을 생산하기 위해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무엇이든지 시도하기도 전에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성공할 수 없다'는 긍정적인 생각과 취나물의 무궁무진한 활용에 대해 늘 고민하고 있다. 그는 관행을 넘어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있는 멋진 농부이다.

●  
양송이는  
내가 살아 온  
인생



**유 병 기** (1937년생)  
부여군 석성면 석성북로

**부잣집 오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일제 강점기를 겪다**

유병기는 금광업을 하는 아버지 덕에 풍요로운 집안에서 자랐다. 어린 시절 일제 강점기 속에서 유병기는 국민학교(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말을 쓰면 청소를 시키는 일본 선생님들을 미워했던 경험이 있다. 또한 학교 앞에 세워진 봉안전에 인사를 하고 등교를 해야 했던 경험, 그리고 순사에게 욕을 해서 붙들려갔던 기억들이 남아있다.

**서울 유학, 그러나 6.25로 다시 고향에 내려와 비극을 맞다**

부여에서 국민학교(초등학교)를 마치고 큰누님을 따라서 서울 성동중학교로 유학을 갔으나, 6.25가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다. 동네 사람들 모두 피난을 갔지만 유병기의 가족은 피난을 가지 않고 고향에 머물렀다.

한편 토지개혁으로 인해 유병기의 아버지는 소작인들에게 논을 다 나누어주고, 비당리에 있는 논 서른 마지기를 그 마을에 사는 세 사람에게 농사짓도록 했다. 그러나 토지가 있는 그 마을로 이사를 가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토를 빼앗기게 되는 사정이 생겼다. 어쩔 수 없이 비당리로 이사를 가서 유병기 아버지의 농토에 농사짓던 사람들에게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했다. 그 일로 인해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유병기의 아버지를 한밤중에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심하게 폭행을 당하신 아버지는 약 4년 뒤 돌아가시게 됐다.

### 6.25 이후 피폐해진 삶

비당리의 토지는 그동안 농사짓던 사람들에게 반을 나누어주고 유병기의 가족이 나머지를 경작하게 되었다. 1950년에는 모를 심어 놓고 바로 6.25가 일어났기 때문에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었다. 6.25 이후에는 천재지변으로 땅이 척박해져 논에도 모를 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 기간 동안 유병기는 이를 동안도 굶어본 적이 있다. 그런 고생이 사무쳐서 그 시절의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을 정도이고, 자식들한테는 그런 고생을 시키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 1965년 석성에서 첫 양송이 재배를 시작하다

1960년대에는 사방이 민둥산이었다. 게다가 석성은 말 그대로 돌맹이가 너무 많은 척박한 땅이어서 농사를 짓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석성면은 농가부흥사업을 지원받게 되었다. 농가에서 양송이 재배를 할 수 있도록 50평짜리 규모의 양송이 재배사 한 동과 재배비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대학교수들에게 농가를 지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당시 양송이 재배는 거의 모두 실패했다. 이후 한 후배가 유병기에게 찾아와 양송이 종균을 배양시켜서 양송이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을 한다. 유병기는 퇴비에 배양을 성공한 후 한 평 규모로 양송이 재배를 시도해 보았다. 그러나 양송이 종균이 조금 활착이 되는 정도에 불과했고, 처음 재배한 양송이는 성공하지 못했다.

### 삼원농산에 입사하여 무균방식으로 종균배양에 성공하다

그 무렵 석성에는 양송이 재배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 삼원농산이 들어왔다. 삼원농산

은 양송이 농사에 중요한 온도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 지하에 재배사를 지었다. 옛날에는 냉동시설이 없어서 여름에 지상에서 재배를 할 수 없었기에, 지하 재배는 봄과 가을에만 이루어졌던 양송이 농사의 영역을 더 넓히는 재배법이였다.

한편, 일거리가 많지 않았던 1966년 가을 무렵 유병기는, 학교 운동회날에는 다른 사람들이 삼원농산에 일을 하러 많이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새벽에 일찍 삼원농산에 가서 그곳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삼원농산에서 일하게 된 유병기는 양송이 발효를 배우기 위해 수첩에다가 계분, 비료, 석회 등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메모를 해 가며 양송이 재배법을 익혔다.

또한 열심히 일했던 그는 다른 인부들과는 달리 재배사에 들어가서 양송이 배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열심히 한 결과 나중에는 실험연구실에 들어가 근무도 하였다.

실험연구실에서 유병기가 하는 일은 밀을 이용해 양송이 곡립종균을 개발하는 것이였다. 전등 하나 켜놓고 작업하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양송이 곡립종균을 만들려 했지만 잡균에 오염되는 바람에 계속 실패했다. 결국 농가에 공급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삼원농산의 생산과장은 유병기에게 ‘당신이 주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걸 해보라’고 제안을 했다. 부담을 느낀 유병기는 처음에 거절하지만, 배양 실험이 성공할 수 있도록 몇 십 가마의 밀이라도 준다는 말에 한번 해보겠다고 결심을 했다. 공기 중에 잡균이 많아서 배양에 실패한다고 판단한 유병기는 실내를 무균상태로 만들어 배양을 했고, 50%의 성공률을 보였다. 사장, 산업소장, 생산과장 등 여럿의 칭찬에 힘입어서 무균상태의 배양방식을 계속 연구한 유병기는 93%의 성공률을 달성한다.

그러나 그의 성공은 아쉬운 결과로 남게 되었다. 유병기가 좋은 성과를 냈음에도 양송이 재배 종균을 만들어 각 농가에 보급하는 삼원농산은 농가들의 양송이 재배 실패와 계속되는 적자로 부도를 맞았다, 결국 1970년도에 농어촌개발공사로 인수되고 만다.

### 이어지는 실패, 그리고 새 도전

삼원농산의 부도 이후 유병기는 창원농산의 기술자로 들어갔다. 당시 면장의 월급이 5천 원에 불과했는데, 유병기의 월급은 3만원에 달할 정도로 양송이 재배는 고급 기술이였다. 그는 하루에 두세 시간씩 자면서 재배면적 100평짜리 세 동을 관리한다. 그러던 어느 날 갑

작스레 비가 많이 와서 농사지는 것이 다 무너져버리고 만다. 고민하던 중에 석성에 있던 국민물산주식회사 이원숙 사장이 유병기에게 석성으로 돌아와 농가 기술 지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유병기는 제안을 수락하여 농가에 양송이 양성 재배기술 지도를 하기 시작한다. 초반에는 자전거로 초촌면과 석성면을 돌아다니며 가르쳤는데, 그의 지도가 성공적이어서 여러 농가의 양송이 생산량이 많아지자 회사에서는 그가 지도하는 관할 범위를 넓혔다. 귀암, 구룡까지 가게 된 유병기에게 회사에서 오토바이를 사 주었다. 이어서 공주까지 확장되어 그는 차를 타고 다니며 여러 농가에 양송이 재배를 성공시켰다. 국민물산주식회사는 주식회사원으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회사에서는 유병기에게 집까지 지어주었다. 80년대에는 생산과 장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 퇴직 후 터널재배로 직접 양송이 농사를 짓다

주식회사 원에서 퇴직한 유병기는 직접 양송이 농사를 짓기로 결심한다. 양송이 농사는 세금이 없어서 더욱 유리했다. 재배사 여섯 동을 인수해서 직접 재배를 했다. 냉동시설이나 전기시설이 없어 여름에는 양송이 재배를 하기가 어려웠는데, 유병기는 운창일이라는 사람이 터널에서 양송이 재배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유병기도 여기저기 터널이 있는 곳을 찾다가 음성에서 드디어 사용하지 않는 페터널을 찾게 된다. 유병기는 대전의 철도청과 5년 임대 계약을 하고 음성의 터널에서 양송이 재배를 하기로 하였다. 음성의 터널에서 시작한 양송이 농사는 첫 해에는 수확량이 관찮아 투자액을 벌었으나 그 다음 해에는 선충으로 인해 실패를 보게 되었다.

망연자실한 유병기는 음성 터널에 있는 재배시설을 철수하고 강릉으로 가서 새로운 길을 찾기로 한다. 강원도의 추운 날씨와 온도를 확인한 유병기는 바로 밭 몇 백 평을 임대해서 재배사를 짓고 이듬해인 1987년도 봄에 농사를 짓기 시작한다. 기존에는 양송이 재배시설을 6단 형식으로 갖추었으나 유병기의 아이디어로 3단으로 제작하고, 서서 작업하기로 했다. 게다가 면적도 크지 않게 한 동에 30평 씩 나눠서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자신만의 농법을 구사한 결과 수익이 잘 나기 시작했다. 그 덕에 자녀들 하숙비와 학비는 문제없이 해결했다.

### 양송이 재배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다

유병기는 양송이 재배에 새로운 기술을 고안해 적용하기도 했다. 유병기의 양송이 재배 사에서는 양송이 재배에 필요한 퇴비를 인력으로 만들어 까는 방식 대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퇴비를 직접 만들어서 까는 방식을 처음 도입했다. 유병기가 포크레인으로 퇴비 작업을 시작한 이후로 마을 사람들이 모두 포크레인을 사서 양송이 재배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유병기는 ‘한마디로 양송이는 자기 인생과 마찬가지로’라고 하였다. 자녀들의 교육 등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 한 것뿐만 아니라 농업인으로서도 성공해서 매우 만족하고 있다. 지나친 욕심은 자기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유병기는 욕심 부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곳곳이 최선을 다하며 사는 삶이 제일이라고 한다.



●  
표고버섯을  
키우는  
만년 이장님



**임병준** (1944년생)  
부여군 부여읍 수락로

**쌍북리에서 태어나 6.25때 피난으로 송간리에 자리잡다**

임병준은 1944년 부여읍 쌍북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가 학교에 근무하시다 일제강점기에 징용을 가셔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임병준은 할아버지 손에 자랐다. 6.25때 피난으로 송간리에 이사를 온 이후 자리잡고 살게 되었다. 인민군들을 피해 피난을 온 송간리 주변의 길이 인민군들이 지나다니는 군사도로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인민군들이 더 많이 다니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다. 6.25 당시 임병준은 6살이었다. 비행기 폭격을 피해 낮에는 산으로 들어가 칩닝쿨로 그늘막을 만들어 피해 있었다. 할아버지가 2대 독자인 외동손자를 귀여워서 무릎에 앉혔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 일을 찾아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다

송간초등학교와 부여중학교를 마친 임병준은 부여고등학교 2학년을 다니다가 건강문제로 중퇴하였다. 이후 임병준은 19세에 서울로 가게 된다. 할아버지는 임병준의 서울 취직 알선을 해 준다는 친척에게 쌀 쉬흔가마에 해당하는 돈을 주었다. 임병준을 서울에 취직을 시켜준다는 구실로 할아버지에게 돈을 받아간 친척은 제대로 연락도 되지 않았고, 임병준은 서울에서 제대로 자리를 얻지 못하고 이삼 년 만에 다시 내려왔다.

19세에 혼인해 송간리에서 농사를 짓던 임병준은 32세 무렵에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일을 하게 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아드에서 근무한 그는 1년간 식당에서만 근무했는데, 직원 300명 분의 식사를 준비하는 업무를 담당받았다. 인부 2명이 별도로 배치되어 그곳에서의 일은 비교적 수월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1년간 근무했는데, 대우도 좋았고 연장근무를 요청받았음에도 가족 생각이 간절하여 1년 만에 돌아왔다.

##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모은 돈으로 논을 사서 농사를 짓다

임병준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받은 봉급은 당시 공무원 봉급보다 월등히 높고, 그곳에서는 돈을 쓸 일이 많지 않았다. 매달 집으로 45만원씩 송금을 할 수 있었다. 임병준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갈 당시 친구들 중에는 서독으로 간 이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소를 사서 축산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임병준은 축산에는 관심이 없어 논을 샀다.

## 설비기술로 외지생활을 하다 고향으로 돌아오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돌아온 이후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배운 설비 기술로 설비 일을 오래 했다. 삼성종합건설, 거제도 조선소, 아파트 공사현장 등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외지생활 이후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벼섯농사를 하게 된다. 그는 1987년부터 지금까지 마을이장을 역임하고 있다. 1987년 부여에 수해가 크게 났을 때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 마을 어른들이 그에게 마을 이장을 하라고 권한 것이 그 시초였다. 그 후 몇 년 만 더 하라고 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본인이 그만두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해도, 마을 사람들은 ‘관두멍 덮을 때까지 이장을 해야 한다’고 하며 계속해서 그를 마을 이장으로 선임하고

있다.

### 표고의 매력에 빠지다

설비 기술을 바탕으로 외지 생활을 오래하고 고향에 돌아온 임병준은 표고의 매력에 빠지게 된다. 처음에 표고 농사를 권한 것은 지금은 돌아가신 마을의 형님뻘 되시는 분이였다. “너는 머리도 좋고 하니께 이런 걸 한 번 해보라”고 해서 50세가 넘어 시작한 표고농사였다. 그 당시 표고재배의 수익은 매우 좋았다, 표고 종균을 심는 참나무 토막 몇 백 개만 세워두고 표고재배를 하면 쌀 수십 가마니 분량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 투자비가 적었던 초창기의 표고버섯 재배 환경

임병준이 표고농사에 뛰어들던 당시에는 표고재배에 필요한 기본 농자재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다. 지금은 표고를 키우는 참나무 한 토막의 비용이 개당 5,000원 정도씩이나 하지만, 당시는 거의 그냥 베어가라고 할 정도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구할 수 있었다. 산비탈에 종균을 심은 참나무 나무토막을 세워 놓기만 하면 수확이 매우 좋았다. 지금은 표고버섯 종균의 활착률이 낮아졌지만, 당시에는 활착률이 매우 좋았다. 인건비도 매우 저렴한 편이었다. ‘생표고 한 푸대를 갖고 오면 돈도 한 푸대 받을 정도’로 수익이 높았으며, 쌀농사와 비교해 보면 5배 이상의 수익이 났다. 임병준은 지금은 인건비도 높고 버섯종균의 활착율이 낮아 그런 좋은 시절이 다 끝났다고 회고하였다.

### 부여 표고버섯의 선구자들

부여에서 초창기에 표고버섯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은 지금은 다 돌아가셨다. 김효정은 부여에서 본연당 약국을 운영했던 사람인데, 부여에서 표고버섯 농사를 지었던 선구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당시 이 사람들은 작목회 성격으로 표고버섯 농사를 짓는 농가끼리의 모임을 만들었고, 부여농협에서 이들이 생산한 표고버섯을 선별하기도 했다. 당시 생산한 표고는 지금과 같은 물표고가 아니라 마른 표고였다. 1980년대 무렵 부여 동남리 인근의 산에는 표고를 키우는 참나무 토막이 줄지어 서 있어서, 산이 하얗게 보일 정도로 표고버섯 재배가 성행했다.

표고버섯 재배는 다른 작물에 비해 수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표고농사는 구두 신고 농사짓는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주로 경찰 공무원들과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주로 인력을 고용해 농사를 지었고, 겨울철에만 바쁜 편이었기 때문에 ‘멋쟁이농사’라고도 했다.

### 표고버섯 재배에 적당한 부여의 환경

부여의 백마강의 습기는 표고버섯 재배에서 최고로 좋은 조건이 된다. 표고는 습한 환경을 좋아해 강원도에서 비가 오면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표가 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물이 많이 필요한 작물이다. 예전에는 기후조건도 잘 맞고 습도도 좋았기 때문에 표고농사에 좋은 환경이었지만, 지금은 비닐하우스가 많이 생겨서 기온이 높아졌다. 종균의 활착도 잘 되는 편이어서 활착이 되는 게 눈으로도 보였으나, 지금은 종균이 활동이 매우 약해진 편이다.

부여는 표고버섯의 중요한 생산지이다. 임병준은 한때 부여의 표고버섯 생산량이 전국 생산량의 18%까지 차지했었으며, 지금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표고생산량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 표고 종균의 국산화가 필요

우리나라 표고 재배의 한계는 자체적인 국산 종균이 제대로 없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만들어진 종균은 경쟁력이 적은 편이다. 한때 국내산 종균인 백화향을 도입해 재배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주로 일본산을 사용하고 있다. 임병준이 대표로 있는 중앙표고버섯법인에서도 ‘중앙15’라고 하는 종균을 개발해 시험 재배를 해 봤으나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주로 일본산 종균을 로열티를 주고 직수입을 해 배양 후 각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 표고재배법

표고버섯의 재배는 참나무에 구멍을 뚫고 종균을 넣어서 세워놓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한 번 설치하면 3년 정도 표고버섯을 수확하는데, 일 년에 한 번씩 참나무를 뒤집어

만 주거나 충격을 줘야 한다. 가만히 놔두면 종균이 잠을 자기 때문엔 종균을 활동을 시키기 위해서 충격을 주는 것이다. 표고버섯은 20개월이 지나야 수확이 가능하며, 상수리나무에 종균을 심어야 버섯이 제대로 나온다.

임병준은 고향에 돌아와 약 50세에 표고버섯 재배를 시작했다. 시작할 당시에는 노지재배를 하다가 현재는 하우스 시설을 이용해 표고버섯 재배를 한다.

임병준은 농촌지도소에서 교육도 받았고, 주로 남의 농가에 찾아가서도 표고버섯 재배 기술을 익혀갔다. 무엇보다 직접 체험한 것이 산교육이 되었다. 지금은 처음에 도입했던 노지재배와 달리 하우스 시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다른 사람들의 농가에 가서, 보고 배우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재배기술이 늘었다.

### 표고버섯 농가의 공동체, 표고버섯 영농법인

임병준은 중앙표고버섯법인의 대표직을 맡고 있다. 부여에는 표고버섯 법인이 여러 개 있는데 중앙표고버섯법인이 가장 오래되었고, 그 외 청정유통법인과 부여표고법인 등의 표고버섯법인이 있다. 중앙표고버섯법인은 원목을 이용한 표고버섯 노지재배를 주로 취급하고 있고, 나머지 법인은 주로 배지를 활용한 하우스 재배를 주로 한다.

버섯농가의 공동체인 법인의 존재는 농가들에 큰 이점이 되었다. 종균 발아를 해주고, 생산된 표고버섯을 냉동시설에 보관하는 관리와 판로를 확보해 준다. 선별까지 해 주거나 표고버섯 재배에 필요한 각종 농기구도 구비하여 무료로 임대해 주기도 한다.

중앙버섯은 1997년에 백제표고법인과 부성표고법인을 합병해서 만든 법인이다. 1997년에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중앙표고버섯법인은 임산물유통센터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14억을 지원받아 현재의 시설을 갖추었다. 설립 당시 중앙표고버섯법인의 출자 조합원은 38명이었다. 당시 이 법인에 들어오려고 하는 농가가 한둘이 아니었다. 농협에 출자하면 배당이 5% 정도였으나, 중앙표고버섯법인은 최전성기인 2012년에 출자원들에게 40% 정도까지 배당을 줄 정도로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수익이 줄어들었고, 2018년에는 고온 피해가 심해 수익도 전성기에 비해 4분의 1정도로 감소했다.

## 올해 표고농사의 어려움

현재 부여에는 규암이나 내산면에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다. 이들 농가 외에도 중앙버섯법인에서 배양한 종균을 가져다 사용하는 농가들은 청양이나 서천, 홍성 등에도 있다.

상수리나무 원목을 이용해 표고버섯을 짓는 사람들은 주로 나이가 있는 농민들이었다. 그런데 2018년 여름 기온이 너무 높아 종균의 피해가 너무 컸다. 주로 노지재배를 하던 노인 농가들의 피해가 컸는데, 이들은 다시 회생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젊은 사람들은 주로 자기 부모세대를 이어 표고농사를 짓고 있는데, 주로 배지를 활용한 하우스 시설재배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젊은 사람들은 시설비를 많이 투자해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비교적 성공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표고버섯의 수요량이 거의 없는 편이다. 학교급식으로 나가는 물량이 거의 없다보니 올해는 어려움이 많다.

•  
50년 간  
우직하게 이어오는  
밤 농사



**이 봉 배** (1952년생)  
부여군 구룡면 망해로

**5대째 현암리에 거주한 이씨 집안의 육남매 중 둘째로 태어나다**

이봉배의 집안은 5대째 현암리에 거주해 오고 있다. 현암리는 검은 바위라는 뜻인데, 이곳은 고려시대에는 ‘바라볼 망(望)에 바다 해(海) 자’를 써서 망해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1950년 6.25 직후인 11월에 육남매 중 둘째로 태어난 이봉배는 어렸을 적 고무신에 솜바지를 입고 얼음판 위에서 얼음을 깨가며 놀았던 기억을 생생히 간직하고 있다.

중학교를 졸업 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아버지를 따라 농사를 지었다. 아버지는 비교적 큰 규모의 논밭을 일궜는데 논 5,000평, 밭 1,000평, 그리고 임야 21,000평을 두고 농사를 지었다. 농사를 짓다가 30세에 중매로 아내를 만났다.

### 밤농사를 처음 지은 친척 이조영을 따라 밤농사에 뛰어든다

현암리는 연안 이씨의 집성촌이었다. 이봉배의 친척지간이었던 이조영이 부여군 구룡면 구봉리에서 살다가 구룡면 주정리로 이주해 남의 산을 임대하여 밤나무 재배를 시작했다. 1968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곡수립 조성이라는 정책을 실시했는데, 이 정책에 따라 이조영이 전국 최초로 현암리에 일본산 밤나무 묘목을 수입하여 심은 것이다. 곡수립정책은 식량이 부족하던 시설에 밤농사를 해서 식량대용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이다. 당시에는 산의 벌채를 엄격하게 금지했었는데, 대통령의 지시로 산을 벌채하고 밤나무 식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1960년대 초반에 묘목을 심고 성목이 되려면 8~1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70년대 말 즈음부터 이조영이 심은 밤나무가 수익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를 본 현암리 마을 사람들도 밤나무 식재에 참여했으며, 본격적으로 현암리에 밤농사가 확산된 시기는 1980년대이다. 현암리에서는 밤농사를 처음 도입한 이조영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1990년대 초반 즈음 마을 입구의 현암 바위 앞에 이조영의 공덕비를 세웠다.

### 현암리의 주요 농산물로 떠오른 밤, 저온창고로 더 활발해진 밤의 판로

밤 재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밤은 현암리의 주요 농산물로 떠올랐다. 수확한 밤은 서울 중부시장의 선산상회에 위탁을 해서 판매하였다. 저온시설이 없던 초창기에는 무더운 여름에 땅을 약 50cm정도 파서 땅 속에 밤을 저장했었는데, 1980년대에 지은 저온창고 덕분에 연중 보관이 가능해, 1년 내내 판매도 시작하게 됐다. 덕분에 밤이 부패하지도 않고 신선도도 좋아서, 밤의 가치가 높아졌다. 자연히 거의 독점하다시피 판매를 하였다.

### 3정보로 시작해 7정보로 늘린 이봉배의 밤농사, 달라진 재배 기술과 병충해 관리

이봉배의 아버지가 이장을 하던 1968년부터 이봉배도 본격적으로 밤을 심었다. 당시 3정보(9천 평) 심었는데 현재는 7정보 규모로 재배하고 있다. 밤농사의 초창기에는 산에 지계를 짚어지고 가 밤을 수확해서 가져왔지만, 지금은 길도 만들고 방재장비와 수확망까지 갖추는 등 재배기술이 발달하여 편하게 작업을 한다.

밤 품종에는 단택, 옥광, 단과, 포로단 등 여러 품종이 있는데 현재는 대보와 포로단 쪽으



로 인기가 기울고 있다고 한다. 맛은 옥광이 좋고, 향은 포로단이 좋은 편이다.

### 사단법인을 조직해 밤농사 활성화를 위한 이야기를 나누다

이봉배는 밤농사 재배자 협회(사단법인)와 연구회(농업기술센터)의 회원인데, 재배자 협회 회장을 8년간 맡았다 전국 밤 재배자 협회, 사단법인 부여 밤 재배협회 등 전국적으로 조직된 사단법인을 통해 회원들끼리 밤농사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나누며 팁을 공유한다. 또한 밤농사를 지으면서 느끼는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인 건의를 하기도 한다.

### 밤농사를 위한 인력수급과 외국인노동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밤을 수확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들의 인건비가 올라가고, 동시에 한국인들도 힘든 노동을 꺼려한다. 하는 수 없이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봉배는 밤 재배 뿐 아니라 현암리 일대 농가들에서 생산하는 밤을 구입하는 중간상의 역할도 하고 있다. 특히 우간다에서 온 한 남성 노동자는 약 5년 이상 그의 집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며 돈독한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보험제도, 들쭉날쭉한 가격변동으로 손실을 보다

1987년 홍수, 그리고 2020년 올해 내린 장맛비 등 폭우와 태풍은 밤나무의 가치를 부러뜨려 농사를 어렵게 했다. 평소 같으면 나무가 금방 회복되지만, 많은 비는 나무의 회복을 더디게 한다. 적은 일조량으로 광합성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밤알이 작은 편이다.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 보험을 들 수밖에 없는데 근래에 보험 약관이 농가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어 시정하려 했으나 쉽지 않다고 한다.

공산품과 같지 않은 밤과 같은 농산품은 가격 변동이 커서 힘들기도 하나, 현재는 유통망의 발달로 옥션 같은 인터넷 쇼핑몰사이트를 통해 소득을 내기도 한다.

### 밤농사의 1년 사이클, 그리고 해외 수출

농한기 때 곁가지들을 자르고 4월 무렵 비료를 뿌린다. 그리고 밤나무 묘목을 접목하여 6

월 초에 소독을 하고 7월 20일 무렵과 8월에 소독을 한다. 이후 제조작업을 하고 수확망을 설치하여 밤을 수확한다. 다시 농한기가 찾아오면 나뭇가지 전정 등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부여의 밤은 해외 수출도 되고 있다. 해외 수출은 1980년대 쯤 1억 달러 이상이 되기도 해, 여러 작물들 가운데서 밤이 해외 수출의 효자종목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현재는 3천만 달러 정도 수출액을 낸다.

### 밤을 통한 지역축제, 그리고 지역에 바라는 사항

매년 10월 부여에서 밤 축제를 열었으나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했다. 코로나 19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공남지에서 군밤체험, 밤이 들어간 음식 판매, 연예인 초청 공연 등 여러 가지 행사들을 열었을 것이다. 그러한 행사들은 홍보효과도 톡톡히 있다고 한다.

현재 부여의 밤은 생산량으로 보면 전국에서 제일 많지만, 인지도 면에서는 공주 밤에 미치지 못한다. 공주 밤의 경우, 정안알밤휴게소와 그 근처 지역에 걸쳐서 열리는 축제들의 효과가 제일 크다고 한다. 이봉배의 작은 소망은 백제휴게소에서도 정안알밤휴게소와 같이 축제를 여는 것인데, 예산 문제로 개최하지 못하는 게 아쉽다. 또한 방송을 통해 밤을 홍보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 그 비용이 적지 않게 필요해 지역에서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도 전한다.

### 밤농사 전망에 대한 솔직한 생각, 그리고 많은 것을 안겨준 밤농사를 통해 보람을 느끼는 삶

이봉배는 솔직한 마음으로 밤농사의 전망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래서 정부에서 비료 관리, 병충해관리, 나무관리 등을 포함해 전업농을 육성시켜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은 밤의 신선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크기만 측정해서 소비자에게 내놓는데, 밤의 신선도나 당도를 매겨서 소비자에게 내놓아야 한다고 한다. 그래야 사먹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서로 만족할 수 있다는 작은 바람을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50년 넘게 이어온 밤농사를 통해 두 아들을 어려움 없이 키우고 교육시킨 것에 긍지를 느낀 이봉배는 가끔 봉사도 가면서 지금처럼 어려움 없이 사는 삶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

●  
고향으로 돌아와  
구기자 농사에  
새로운 농법을  
적용하다



**한상교** (1954년생)  
부여군 은산면 은북로

####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목공을 배우러 서울로 가다

1954년생인 한상교 구술자는 은산별 오번리 901번지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충청북도 괴산에서 거주하시다 6.25 당시 오번리에 정착하였다. 오형제 중 맏이인 한상교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갔다. 아는 사람도 없이 목공일을 배우려고 서울로 갔으나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한 달 이십 일 만에 다시 돌아왔다. 서울에서 내려 올 당시 버스 차비가 없어서, 버스 차장에게 떠밀려 용산역 근처의 버스터미널에서 등을 다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서울에서 부여까지 걸어서 내려올 결심을 하였는데, 한강을 막 건너 거지들에게 붙들려 있다 사흘 저녁을 자고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 검정고무신을 신고 허기와 싸우며 고생 끝에 겨우 고향으로 돌아왔다.

### 목공일을 배우러 다시 서울로 가다

이후 한상교는 예산의 과수원과 탄광에서도 일을 했다. 탄광의 막장에서 탄을 캐내는 업무는 임금이 낮았다. 발파작업을 하는 업무는 탄을 캐는 일보다 인건비가 4배 정도 높았기 때문에, 발파하는 사람에게 부탁해 기술을 배웠다.

그러나 한상교는 서울로 다시 올라갈 결심을 하였다. 목공을 배우려고 했던 생각을 다시 떠올리고 서울에 아는 사람을 찾아가 목공을 배우기 시작했다.

### 부침이 있었던 서울에서의 사업

플라스틱 문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목공은 일거리가 자꾸 줄었다.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인기가 없어지자 한상교는 인테리어 분야로 전업하였다. 인테리어는 수익이 괜찮아서 돈을 모을 수 있었다. 자금이 어느 정도 모이자 한상교는 한보그룹에서 추진하는 아산만 매립공사에 필요한 흙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산을 구입하게 된다. 그러나 한상교가 구입한 산은 맹지라서 접근도로가 없었다. 도로를 만들기 위해 주변의 땅 주인을 설득하느라 고생했으나, 끝내 단 한 사람의 땅주인을 설득하지 못하고 손해를 입게 되었다.

### 건강문제로 고향에 돌아오다

다시 인테리어 사업을 하게 된 한상교는 인테리어 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이 수익을 자본으로 삼아 지역 신문사를 운영하였다. 그가 운영하였던 한양북부신문은 도봉구를 비롯해 강북의 세 개구를 관할하는 신문이었는데, 직원이 다섯 명까지 되는 규모로서 일간지는 아니었지만 그와 맞먹는 수준이었다. 한양북부신문을 운영할 당시 운영 현황이 좋은 편이었으나, 신문 인쇄에 문제가 발생하여 운영을 지속할 수 없었다. 이후 한상교는 정치에 관심을 두고 구의원에 출마하려고도 준비했으나, 2003년 건강 문제로 다시 고향에 돌아온다.

### 고향에서 농사지으며 건강을 회복하다

암에 걸렸던 한상교는 거의 포기상태로 고향에 돌아온다. 암의 진행상태가 심각한 상황이라서 다들 살기 어렵다고 말하는 정도였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천만 원을 주고 빈 집

을 얻어 고쳐 살았다. 시골에 살면서 집 앞에 작은 논을 얻어 농사일을 했다. 처음에는 새벽 4시에 맨발에 지팡이 짚고 나가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지팡이 없이도 다닐 정도로 점차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2년째 되어서는 청양과 구룡에 2,300평 규모의 밭을 임대해 고구마 농사를 지었는데, 무거운 고구마 박스를 나를 수 있을 정도로까지 일을 할 수 있었다. 장이 꼬여서 일주일에 세 번씩이나 응급실을 찾기도 했던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를 지으며 3년 만에 담당의사가 깜짝 놀랄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

### 구기자 농사를 시작하다

건강이 회복된 상태에서 한상교는 육체적으로 덜 힘든 농사를 하기 위해 구기자 농사를 시작하였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구기자 농사를 조금씩 지어왔었는데, 구기자는 다른 작물에 비해 월등하게 소득이 높았고 농사 작물 가운데서는 재배가 쉬운 작물이었다. 30m 정도의 규모에 두 줄의 구기자를 심어 수확했는데, 수확량이 괜찮았으며 구기자의 전망이 괜찮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구기자 재배 면적을 더 넓히고자 구기자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인 청양에 다니면서 구기자 농사를 견학했다.

### 구기자 농사에 새로운 농법을 적용해 성공하다

청양 등 기존의 구기자 농가에서는 구기자나무의 키를 약 80cm 정도로 낮게 키웠고, 구기자 수확은 앞서서 해야 했다. 그러나 한상교가 관찰한 결과 구기자 넝쿨을 높이 1m 20cm 정도까지 올려서 재배하는 것도 가능했다. 이런 방식으로 재배한 한상교의 구기자는 수확량이 좋았고, 다른 작물이 비해 수익이 월등하게 높았다. 구기자나무의 키를 높여 키우고 수확을 편리하게 만든 한상교의 재배방식은 부여에서는 최초였으며, 다른 농가로 확산되었다. 구기자나무의 키가 높아 기계로도 수확이 가능하며, 손으로 따는 구기자의 양보다 3배 이상 많아 월등하게 효율적이다.

한상교는 구기자 밭의 잡초를 관리하기 위해 비닐을 씌우고 부직포를 땅에 깔아 잡초관리도 완벽하게 하는 방식을 고안하였다. 풀이 나지 않아 농사가 훨씬 수월해지자 그의 농법이 다른 농가로도 확산되었고, 현재 60여 농가가 구기자연구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오번리 일대는 수박과 최근에는 샤인머스켓이라는 품종의 포도를 생산하는 농가들도 있는

데, 이들 작물에 비해서는 구기자의 수익이 높다.

### 열과 성을 다해 온 오번리 이장의 소임

한상교는 오번리의 마을 이장일도 맡고 있다. 그가 살고 있는 오번 1리는 약 36가구이다. 이장을 맡기 위해선 시간을 뺏기지만 마을을 위해서 희생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도로 포장 공사도 많이 했고, 마을에 사는 장애인 가족의 집을 새로 마련해 주기 위해 모금과 방송 출연 등을 하며 열성으로 활동하였다. 그 결과 그 가족의 집을 장만해 줄 수 있었다. 어려운 일을 하며 도지사상과 군수상을 받기도 했고, 모든 일을 성실하게 하다 보니 안되는 일이 없다고 한다.

### 오번리를 구기자 마을로 바꾸어 가는 한상교 이장의 꿈

한상교는 최근 마을 바꾸기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귀농에 실패해 다시 떠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상교는 오번리에 귀농하는 사람들에게 적은 비용으로도 농촌에 정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구기자를 마을 곳곳에 심어 멋진 경관을 마련하고,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로 하여금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마을 바꾸기 아이템도 적극적으로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구기자 마을을 만들어 오번리가 크게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그의 희망이고, 앞으로 그는 그 길을 향해 또 성실하게 노력할 것이다.

● 인생을  
풍요롭게 해 준  
밤



**박창신** (1948년생)  
부여군 은산면 은남로

### 밀양 박씨의 5남매 중 넷째로 태어나 일찍이 농사일을 시작하다

박창신은 1948년생으로 밀양 박씨의 5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다. 각대리에는 지금 밤나무 재배를 많이 하고 있으나, 본격적으로 밤나무 재배가 시작되기 전에는 약초재배를 많이 했다. 재건국민운동의 일환으로 표병훈 박사가 각대리 일대에 감초 재배 붐을 일으켰는데, 박창신의 집에서도 감초를 재배했다. 그러나 당시 국산 감초는 중국산 감초에 비해 질이 떨어져 약재로서의 평가가 좋지 않았고, 이로 인해 감초 농사를 했던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

성인이 되고 서울의 건설회사에서 측량기술을 1년 정도 배우고 다시 고향에 내려와 군대를 다녀왔다. 박창신의 형님들이 다 외지로 일하러 떠나버리는 바람에 박창신이 고향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 젊은 시절의 기억

어린 시절 서당에 다니면서 천자문부터 대학까지 마친 박창신은 글씨를 잘 썼다. 연천 전곡리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하며 글씨 쓰는 일을 많이 했는데, 제대 이후에도 여러 사람들이 박창신에게 글씨 써달라는 부탁을 많이 해 왔다.

각대리에는 야산이 꽤 있었는데, 각대리로 나무를 하러 오는 나무꾼이 많아서 학교 가는 길이 뻑뻑하기도 했다. 하루에 몇 백 명씩 나무하는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와서 나무를 해 갔다. 나무를 하러 온 사람들 중에는 사유지인 산에서 산주인 몰래 나무를 해 가는 사람들도 있어, 마을 사람들과 나무하러 온 사람들 간에 시비가 이는 일도 종종 있었다.

## 60년대에 들어온 밤 재배, 각대리에 퍼지다

각대리에는 1960년대에 밤나무 재배가 도입되었다. 당시 교장선생이던 이창섭이 일본에서 밤 종묘 신품종을 가져와 묘를 땅에 부어 분양을 했다. 박창신의 20대 시절의 주변에는 재래종 밤나무가 몇 그루만 있는 정도였고, 흔치 않았다. 현재 공주나 이인 등의 밤도 모두 부여 각대리에서 구해 간 묘를 키운 것이다. 신품종의 밤을 도입해 확산시킨 이창섭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훈장도 받았었다.

설날이 지나고 날씨가 따뜻해지기 전 눈이 있는 ‘뇌두’를 따서 순이 나오지 않도록 냉장고에 저장을 한다. 그 당시에는 냉장시설이 없어서 비닐로 밤을 싸서 땅에다 묻어서 보관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그 이듬해 봄에 날씨가 따뜻해지면 ‘뇌두’를 꺼내 눈을 따서 돌밤나무에 접목을 시킨다.

그러다가 ‘단택’이라는 신품종이 생겼다. 한편 접목은 기술센터였던 농촌기술소에서 배웠다. 마을 사람들은 산에 주렁주렁 열린 큰 밤 열매를 보고, 밤 묘목을 심으면서 밤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 밤농사의 재배기술 변화와 기후

예전에는 작대기로 밤을 털었지만 지금은 수확망을 깔고 떨어지는 대로 줍는다고 한다. 현재는 일을 하러 오는 인부들도 수확망의 설치 여부를 물어 볼 정도이다. 수확망이 생기고 의자를 깔고 편하게 일하기 시작했다. 비료도 예전에는 화학비료를 썼었는데 이제는 전보



다 더 좋은 비료가 나와서 일 년에 한두 번 비료를 줘도 무방하다. 밤농사에 농약은 많이 안 치는데, 농약을 칠 때에는 항공방제를 한다. 밤에 벌레가 파먹는 걸 ‘수랭이 먹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약제를 꼭 해서 벌레를 예방해야 한다. 또한 전지를 잘 해주어야 밤이 훨씬 굵고, 인건비가 덜 들어가 상품가치가 더 높아진다고 한다.

대체로 공주 정안 밤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약 10여 년 전부터 실제 생산량에서는 부여 밤이 더 많다. 부여의 각대리는 마을이 자리한 지대가 높지만 산이 높은 편이 아니고, 북향을 바라보는 탓에 완전한 양지를 기피하는 밤의 생육에 적당하다.

한편 올해에는 비가 많이 오고 태풍도 잦은 바람에 평년에 비해 밤의 수확량이 30% 정도 감소했다. 가장 수익이 좋았던 때는 킬로그램 당 5~6000원을 받았다고 한다. 밤나무를 잘 재배하기 위해선 적당한 추위도 필요한데, 갑작스럽게 추워지면 나무가 동해를 입는다. 우리나라의 기후가 아열대기후로 변하면서 현재 강원도 지역이 밤나무 재배하기 좋은 곳으로 떠오르고 있다.

밤의 품종 가운데는 ‘옥광(玉光)’의 모양이 예쁘고 당도가 제일 높아 가격이 높다. 그러나 ‘옥광’ 품종은 해결이가 있어 수확량이 일정치 않은 단점이 있다. ‘은기(銀奇)’, ‘대단파(大丹波)’라고 불리는 품종은 밤알이 크다는 장점이 있다.

밤농사의 수익은 쌀농사보다 다섯 배 정도 높다. 박창신은 현재 4천 평 정도 농사를 짓는데 아내가 아픈 바람에 혼자 농사짓기가 어려워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기도 하며, 주말마다 자녀들이 와서 일손을 도와준다.

### 밤농사의 일년주기와 판로

밤농사는 겨울에도 일을 해야 한다. 겨울에 전지를 해서 봄 즈음에 비료를 준다. 그리고 나면 잎사귀가 한창 필 때 잎을 뜯어먹는 벌레 예방을 위해서 벌레 잡는 약을 친다. 여름에는 제초제를 뿌리거나 풀도 깎은 뒤에 바닥에 수확망을 깐다. 가을에 바닥에 밤이 떨어지면 9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 밤을 탄다. 수확한 밤은 산림청에서 지원받아 지은 창고에 갖다 주고 팔기도 하는데, 농협에서 수매하러 가는 사람들도 있고 개인 상인들에게 파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밤 수확을 마치면 수확망을 걷는다. 부지런한 사람들은 이때부터 다시 전지를 시작하기도 한다.

## 두레와 작목반 생활

각대리에는 두레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지금은 1년에 한 번씩 칠석 때마다 마을 사람들끼리 떡과 술을 만들어 먹고 제사도 지내는 풍습으로 유지되고 있다. 박창신이 젊은 시절에는 마을에 있는 정자 앞에 떡과 돼지고기를 올려서 제사를 지내고 논두렁에서 풍물을 치기도 했다. 품앗이도 행해졌는데, 처음 20살이 되어 품앗이를 하려면 칠석날 술과 팔죽을 먹으면서 어른들에게 인사를 해야 품앗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현재 각대리에는 밤 작목반이 있다. 마을에 있는 우남사라는 절에서 이름을 따온 우남작목반이 있어, 밤의 출하나 여러 밤농사에 도움이 되는 방안들을 사람들과 공유한다. 작목반을 하게 되면 법인 구성이 돼서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료나 우렁농법에 쓰이는 우렁, 그리고 항공방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작목반은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와 협약을 맺어 농사체험 활동도 펼쳐나가고 있다. 급식에 사용하는 쌀도 보내 주는데, 올해에 코로나 19 때문에 학교급식용 쌀이 출하되지 못하고 창고에 많이 보관되어 있다.

## 인생과 이웃을 풍요롭게 하는 밤

각대리 마을사람들은 거의 모두 작목반 회원으로 가깝게 지내고 있다. 가족적인 분위기로 노인회와 부녀회가 활성화되어 있고 일 년에 한 번씩 관광버스로 여행을 가기도 한다. 그 외에도 전국의 밤 농가 협회인 한밤협회 부여지부에서 밤 홍보와 판매도 하는 등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밤을 알리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 밤농사를 통해 자녀들의 교육도 다 마쳤다. 그에게 밤은 본인의 삶은 물론이고 이웃들까지 풍요롭게 하는 고마운 존재이다.

●  
맥문동 농사가  
제일 쉽다



전 득 길 (1928년생)  
부여군 은산면 은북로

### 논두렁에 썩이 없어질 정도로 어려웠던 일제강점기

전득길은 1928년에 장벌리에서 태어났다. 4남 6녀 가운데 아들로서는 셋째이고, 전체 형제 가운데는 아홉째이다. 학교에는 다니지 못했으며 아홉 살부터 지게를 지고 농사일을 배웠다. 해방 전에 태어난 그는 일제강점기 때의 생활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제일 기억나는 것은 배고픔이었다. 쌀이 없어서 논두렁의 썩을 뜯어다 먹었는데, 논두렁에 썩이 다 없어질 정도였다. 농사를 짓고 난 후에는 일제가 일정한 양을 배당하여 공출해 갔고, 누에고치와 보리농사 지은 것도 다 공출로 가져갔다. 배고픈 것도 서러운데, 공출로 내야 하는 곡식을 지게로 저 마을 앞 높은 산고개를 넘어서 가져다 줘야 하는 것도 무척 힘겨웠다.

### 스무 살에 혼인해서 부부로 한평생을 살아오다

전득길은 스무 살이 되던 해에 부여군 은산면 대양리에 목수 일을 하러 가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된다. 그곳에 일을 하러 갔다가 중신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신부 얼굴도 보지 못하고 혼인을 했다. 초례는 전득길의 집에서 했는데, 신부가 아버지와 함께 왔다. 혼인을 해서 부부지간이라고 해도, 처음에는 쑥스러워서 얼굴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스무 살에 혼인한 전득길은 부인, 큰아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다. 아흔이 넘은 전득길은 다리가 불편한 것 외에는 건강에 큰 문제는 없는 편이라고 하였다.

###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

혼인한 전득길은 3남 2녀를 두었다. 딸 하나는 연애결혼을 해서 비교적 여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있으며 전득길 부부의 생활비도 챙겨주고 있다. 전득길은 자신이 공부를 제대로 못한 것이 한이 되어 자녀들을 고등학교까지 진학시키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대전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생에게 부탁하여, 큰 아들은 대전에 거주하며 공부를 하게 했다. 외지에서 공부를 하며 고생을 많이 했지만, 큰아들은 대학까지 마치고 회사의 사장까지 진급해 일하다 고향으로 돌아와 함께 살고 있다.

### 맥문동을 심다

약 스무 살이 될 무렵에는 농사일을 어느 정도 다 익혔다. 혼인을 해서 서른 살이 되었을 때 땅 다섯 마지기를 받아 세간을 났다. 비료가 없어 산에서 어린 풀을 베어다 논에 넣고 농사를 짓던 때라 다섯마지기에서 벼 몇 섬 수확하는 정도였다.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소득을 늘려야 했던 전득길은 황기, 승마, 작약, 반하, 독활 등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해 보았다. 그러나 그렇게 해 봐야 수입이 되는 것이 별로 없었다. 그러던 차에 그는 동서가 하던 맥문동을 심어 보고 수입이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후 동서가 맥문동을 재배하다 그만두게 되자 동서의 맥문동을 캐다 자기 농토에서 재배하였다. 논 한 마지기에서 나오는 맥문동은 약 1,000근인데, 논농사의 몇 배나 되는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 전득길로부터 퍼져나간 부여의 맥문동 재배

전득길의 맥문동 재배는 마을 사람들에게 퍼져 나갔다. 하루 일을 하는 대가로 맥문동을 마을사람들에게 주었다. 나중에는 공주나 천안 등으로도 확산되었다. 1년에 약 1,000근 정도 수확했는데, 1,000근을 수확하면 땅 몇 마지기 값이 넘게 나왔다.

장벌리 일대는 사질토인데, 고운 모래가 섞여 맥문동 재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맥문동 재배는 연작 피해가 있어 거름을 많이 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맥문동은 퇴비를 많이 넣으면 한 평에 7근까지 생산할 수 있지만, 퇴비가 적으면 맥문동의 씨알이 작아 상품성이 낮다. 지금은 퇴비를 구하기 쉽지만, 전득길은 소거름을 모았다가 퇴비로 활용했다.

상품성이 좋은 맥문동 농사를 논 열다섯 마지기 정도까지 재배하였으나, 나이가 들면서 힘이 들어 농사를 짓기 어려워 현재 맥문동 재배는 하지 않고 있다.

### 순전히 쇠스랑으로 짓던 맥문동 농사, 기계화가 되다

현재 맥문동 재배 기술은 예전과 달리 상당히 기계화되었다. 그 전에는 순전히 쇠스랑으로 파서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은 기계로 땅을 일구어서 재배하기 때문에 맥문동으로 연소득을 8천만 원까지 올리는 농가도 볼 수 있다. 중국산 맥문동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19로 중국산이 못 들어와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었다.

맥문동은 한식이 지난 후 10일 내외에 캐는 것이 적기이고, 맥문동을 캐낸 한 달 안에 새 맥문동을 바로 심어준다. 심어서 매주는 것과 거름만 주면 되는 작물이어서 농사짓기가 수월했다. 지금은 제초제를 뿌려서 맥문동 밭을 매꿔야 하는 일도 거의 없다. 다만 제초제를 쓰면 맥문동의 수확량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 맥문동 농사가 제일 쉽다

수확한 맥문동은 거래하는 사람들이 와서 구입해 가기 때문에 출하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맥문동을 캐서 기계로 세척해 놓으면, 주로 청양사람들이 와서 구입해 간다. 전득길의 경우에도 청양에서 매년 구입해 가는 사람이 있어 거래를 해왔다.

여러 한약재들은 대체로 크고, 작약과 같은 작물은 심어 놓고 3년 후에야 수확이 가능하다. 그러나 맥문동은 다른 작물에 비해 수익이 좋은 편이고 병충해도 없는 편이다.

맥문동의 재배 농가가 늘어나면서 맥문동 작목반을 만들어 운영해 보려 했으나, 성사가 되지 못했다.

장벌리에서 맨 처음 맥문동 재배를 시작해 높은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전득길은 농약도 치지 않고 잡초를 매주고 거름만 준 후 한식 때 캐기만 하면 되는 맥문동이 다른 약초보다 농사짓기가 수월해 맥문동 농사가 제일 쉽다고 한다.

### 맥문동을 많이 재배하는 장벌리의 동화제 풍습

전득길이 거주하는 장벌리는 정월대보름에 동화제를 올리는 풍습이 있다. 전득길은 이 풍습이 백제 때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하는데, 집집마다 나무를 한 짐씩 해 와서 동화를 세우고 그 위에 불을 붙이고 소원을 비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마을에 연로한 여성들만 많이 남게 되어 동화제를 지내는 것이 많이 어려워졌다.

# 서천군

## 서천 한산모시

울리에서 3대째 전통모시를 생산한 농민, 신춘섭	566
모시떡 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모시재배 농민, 이정규	569
국가무형문화재 한산모시짜기 기능보유자 제14호, 방연옥	572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한산모시짜기 기능보유자 제1호, 박미옥	575
모시 유통을 담당한 보부상의 후손, 나한백	578
서천 모시떡 산업의 선두 주자, 양만규 박진순 부부	581
한산모시짜기 유네스코 등재의 공로자, 오천환	585
한산모시문화제 정착 과정의 산증인, 박수환	588
충남 무형문화재 제13호 저산팔읍길쌈놀이 기능보유자, 홍경자	592
충남무형문화재 제52호 한산모시 베틀장 기능보유자, 윤주열	596
생산자 중심의 모시 유통을 이끈 한산모시조합장, 임은순	599

●  
**울리에서  
 3대째 전통모시를  
 생산한  
 농민, 신춘섭**



**신춘섭** (1942년생)  
 서천군 비인면 울리

신춘섭은 서천군 비인면 울리 둔데기에서 모시를 재배한다. 1942년에 태어나 20대부터 60여 년간 할아버지, 아버지를 이어 울리 둔데기에서 모시를 재배하고 있다. 그가 재배하는 모시 품종은 ‘청자모시’이다. 그는 울리에서 처음 청자모시를 재배하기 시작한 사람을 자신의 윗대 할아버지로 알고 있다.

그의 할아버지가 모시 뿌리를 중국에서 몰래 캐서 집으로 가지고 와 심은 후에, 그것이 순이 나면 다시 휘어서 땅에 묻고 또 자라면 또 휘어서 묻어 모시 재배량을 늘렸다. 이웃 주민들이 할아버지의 모시를 삼목해서 몇 년 뒤 마을 전체로 퍼지게 되었고, 나아가 한산을 비롯한 시초, 문산, 화양으로도 퍼져나가게 되었다. 신춘섭은 서천군 모시 재배의 기원지를 비인면 울리 둔데기라고 생각한다.

신춘섭의 모시밭 넓이는 얼마 전까지 400여 평이었으나, 현재는 300여 평이다. 울리 전체



를 보면, 과거에는 모시밭이 수천 평 이상 되었다. 현재 둔데기에서는 신촌섭, 한상구, 백병원이 모시재배를 하고, 밤골에서는 더 많은 이웃들이 모시재배를 한다.

신촌섭이 둔데기에서 오랫동안 모시를 재배할 수 있었던 것은 길쌈을 주업으로 해왔기 때문이다. 농사만으로 소득이 적어 길쌈을 하였고, 모시는 일 년에 세 번 수확을 하기 때문에 수입이 괜찮았다. 그는 벼농사를 약 천팔백 평 정도 짓고 있다. 과거에는 모시재배가 벼농사와 비교하면 별거 아니었지만 지금은 모시잎을 팔기 때문에 훨씬 나아졌다. 모시잎은 떡집에서 가져가고, 모시대는 태모시로 낸다. 연하고 가늘고 좋은 태모시는 한산 전통모시 재료로 팔고, 크고 역센 태모시는 미박피로 벗겨서 군 조합에서 구매하는 날 내간다.

신촌섭의 모시재배 소득은 한 해 천만 원 가까이 된다. 모시잎 판매 소득은 1년에 180만원이다. 한 포대에 10킬로그램씩 담는데, 한 번 수확할 때마다 30포대를 탄다. 한 포대에 2만원씩 받으면, 1년에 60만원씩 세 번 소득을 올리므로 총 수입이 180만원이 되는 것이다. 또 태모시를 생산하여 전통모시로 가져가면 품질에 따라서 4킬로그램에 15~20만원을 받는다. 그리고 미박피 모시도 판매하면, 태모시 수입은 1년에 6백만 원이 된다. 그는 모시는 짧고 “풍신 나는 것”(품질이 나쁜 것)도 모두 버릴 것이 없다고 한다. 모시로 어렵게 번 돈은 2남 1녀를 가르치는 교육비로 사용했다.

신촌섭 부부가 태모시를 만들 때, 아내가 모시대에서 껍질을 분리하고 그는 모시칼로 박피를 한다. 모시는 초수, 이수, 삼수 중 8월 중순에 벤 이수 모시가 가장 좋다. 그는 8월 중순경 이수 모시 할 때가 더워 때문에 가장 고통스럽다고 한다. 그래서 이수 모시를 벨 때는 자녀들이 스스로 휴가를 내고 와서 도와준다. 모시는 제 때 베어야 좋은 전통모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모시가 연할 때 베야지 쇠면 째이 나빠서 재료로 쓸 수 없다.

신촌섭이 어렸을 때, 태모시로 만든 모시를 4킬로그램씩 묶어 비닐이나 보자기로 싸서 자신은 멜빵을 걸어 짊어지고, 어머니는 이고서 판교장에 내다 팔았다. 판교장에 가면 홍산에서 온 김규연 장사꾼이 모시를 주로 사갔다. 더러는 장사꾼들이 비인면 울리까지 사러 오기도 했다. 한산모시조합이 생긴 뒤로는 태모시를 한산으로 내간다.

한산모시조합에서는 그의 모시를 ‘생산자 신촌섭’이라고 이름을 써서 판매한다. 그래서 길쌈하는 사람들은 누구네 태모시가 좋다 나쁘다를 알 수 있다. 그의 태모시를 짤 사람들은 대부분 ‘모시 째’이 좋다고 한단다.

모시재배를 60여 년 해 온 신춘섭도 이제 농사짓기가 어렵다고 한다. 모시밭은 몇 년 재배하면 다른 흙을 파다 복토를 해줘야 한다. 그래야 모시가 번식을 잘한다. 최근에는 누가 복토를 하는 사람도 없고 좋은 흙 파오기도 힘들어서 하지 않는다. 그는 모시 재배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며 “모시 재배로 해서는 뭐 내 생각에는 별로여. 나도 인제 얼마나 몇 해나 할려나, 안 할려나, 원. 그것도 모르것고. 나이가 젊다면 앞으로 무슨 희망이라도 가지고서 그런 생각도 있으려나 모르는다. 내가 참 올해 헐지, 도른 해까지 할지. 막연히 모르는 것인디” 라고 말한다.

●  
모시떡 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모시재배  
농민, 이정규



**이정규** (1942년생)  
서천군 마산면 삼월리

이정규는 서천군 마산면 삼월리에서 모시를 재배하고 있다. 그는 삼월리에서 오랫동안 이장을 맡아왔다. 기산면 월기리에서 1942년에 태어나서 1959년 마산면 삼월리로 이사왔다. 삼월리는 달이 세 개라는 뜻이 있으며, 음지뜸·양지뜸·는들 세 마을로 나뉜다. 세 마을은 1926년 만들어진 봉선지(동부저수지)를 향하고 있다. 마을 인구의 고령화로 50세 미만은 없으며, 주민들은 주로 농사를 짓고 산다.

2005년 모시떡의 인기가 상승하자 서천군에서는 모시재배 농가를 지원하였다. 신춘섭도 2005년에 서천군의 지원을 받아서 삼월리에 모시를 심기 시작했다. 이후 마산면 일대에 모시재배 면적이 확대되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모시재배 농가는 꽤 괜찮은 수입을 올렸다. 그 때 모시잎만 판로가 좋은 것이 아니고 가공모시가 유행하여 모시실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모시실은 모시가 쇠기 전에 초수, 이수, 삼수 때 베어서 모시잎을 따고 대만 제거하

면 미박피 모시가 남는다. 미박피 모시란 모시칼을 이용하여 표피를 제거하지 않고 잎을 따고 대만 제거한 상태로 그대로 말리는 모시를 말한다. 미박피 모시를 그늘에 말려 현재는 한산모시체육관(옛 성실중학교)에서 수매한다는 공문이 오면 내다 팔면 된다. 이렇게 모아진 모시는 창고에 보관되었다가 가공공장으로 옮겨져 모시실로 만들어진다. 미박피 모시는 모시실이 되어 모시산업용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모시양말, 모시속옷, 모시잠옷 등을 만드는 원사가 되는 것이다.

이정규가 모시재배를 시작하였을 때, 초창기에는 전주, 부여, 익산으로 모시떡집을 찾아다니며 모시잎 홍보를 다녔다. 차츰 모시잎을 서천, 부여, 전주, 익산에 있는 떡 공장에서 가져갔다. 전국적으로 모시떡의 수요가 증가했던 시절이라 서로 모시잎을 가져 가려고 삼월리까지 찾아왔다고 한다. 수요가 증가하여 농가 소득이 많이 올랐다. 그러나 2020년 현재는 모시잎을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서 모시잎을 따지 않는다. 모시잎의 수요가 줄자 마산 지역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2005년 심었던 모시를 뽑아내어 폐작을 하였다. 그럼에도 이정규는 아직도 300평 정도의 모시밭을 가지고 있다.

최근 이정규는 현대모시, 즉 미박피 모시만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모시밭에 자란 풀만 제거하면 모시풀이 알아서 자란다. 그러나 미박피 모시를 얻기까지는 많은 노동력이 들어간다. 하루 동안 모시를 베고 잎을 제거하고 대공을 빼는 작업을 하면 마른 미박피 3kg 정도 생산한다. 마른 미박피 1kg이 9000원 정도 한다면 하루에 27,000원 정도의 수입이다. 사람을 사서 한다면 인건비도 안된다. 보통 농촌에서 여자 인건비가 7~8,000원 하는데 누가 이 일을 하겠는가라고 반문한다. 인건비도 안 나오는 미박피 모시를 그는 아내와 함께 한다. 사람을 사지 않고 부부의 노동력만큼만 일을 한다. 농촌에서 이것조차 하지 않으면 전혀 수입이 없다. 작은 수입이지만, 부부가 함께 일하면 생활비 정도는 벌 수 있다.

이정규는 모시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모시를 재배하는 농가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필모시 수요도 감소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태모시 수요가 줄고, 모시를 짜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모시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정규 자신의 세대에도 모시밭에서 모시를 뽑아내는데 다음 세대에서 모시를 재배할 터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정규는 정부의 모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대모시(미박피모시)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모시 가공공장을 지원하여 모시양말, 모

시속옷, 모시잠옷 등을 더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모시떡을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했다. 또한 전통모시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홍보하여 한국의 한산모시가 수출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모시의 수요를 늘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다.

모시에 대한 희망은 이정규 세대에서나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모시밭에서 모시를 뽑아내는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전통모시의 감소로 태모시의 수요도 점점 줄고 있으며 2005년부터 시작하여 2010년까지 반짝한 미박피 모시도 갈 데가 없다는 것이다.

여전히 이정규의 모시 밭에는 하우스 모시가 자라고 있다. 그것을 뽑아내지 못하는 것은 모시에 대한 애정이라고 한다. 모시밭에서는 초수가 지나고 이수를 기다리는 모시가 사람 키보다 더 높게 자라고 있다. 부부가 함께 베어 잎과 대공을 제거한 미박피 모시를 만들어 읍지에 말린다. 언제 팔려갈지 모르지만 1kg, 2kg, 3kg이 쌓이고 있다. 쌓이는 모시만큼이나 부부의 손길은 바쁘다

이정규의 미박피 모시 이야기는 길게 이어졌다. 아마도 그 동안 모시재배에 대해 하소연할 곳이 없었던 듯했다. 모시 이야기가 계속되는 한 모시에 대한 희망이 이어질 것이다. 그의 모시 이야기는 전통모시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는 다르다. 전통모시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변함없이 태모시의 수요가 유지되기 때문에 모시재배는 계속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박피 모시는 모시 가공산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상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재배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정규는 2005년 모시를 하나라도 더 심으려고 모시 뿌리를 구하러 다녔으며, 모시잎과 미박피 모시 홍보를 위하여 홀로 뛰어다녔다. 그는 그 시절이 그림다고 했다. 그의 남다른 모시 사랑은 봉선저수지에 저물어가는 석양만큼이나 아쉬움을 남겼다.

●  
**국가무형문화재**  
**한산모시짜기**  
**기능보유자**  
**제14호, 방연옥**



**방연옥** (1945년생)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방연옥은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에서 한산모시를 짜며 산다. 한산모시를 8세부터 짜기 시작했다는 방연옥의 인생살이는 한산모시 짜기만큼이나 이골이 났다. 방연옥은 1945년 해방둥이로 서천군 기산면 가공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방자순이며 어머니는 박빙설이다. 방연옥은 8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할아버지는 서당 훈장이셨고 아버지는 집안일보다 책 읽는 일을 더 좋아하셨다. 그래서 어머니 박빙설은 늘 바쁘게 손을 돌려야 했다. 그 틈새에서 방연옥은 어머니의 눈과 귀 역할을 하면서 어머니로부터 모시 일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방연옥은 여섯 살 때부터 어머니를 돕는다고 귀동냥으로 모시 일을 익히기 시작하였다. 그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친정동네 어른들로부터 자신이 여섯 살 때까지 어머니의 젖을 먹었고 그때부터 모시를 배우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8세부터는 밀짚 방석에 앉아 동네 아주머니들과 함께 모시를 짜기 시작하였다. 마당에서 늦게까지 모시를 하다보면

이슬이 내려 모시가 축축했다. 그렇게 동네 새댁들은 모시 시집살이를 하니 모시를 보기만 해도 질린다고 했는데 방연옥은 모시 짜는 일이 즐겁기만 했다.

손 맵시가 좋은 친정어머니 박빙설은 모시와 가까워진 딸 방연옥에게 하나하나 모시 일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였다. 친정어머니는 화양 와초리에서 태어나 문헌서원이 있는 영모리 방씨네로 19세에 시집을 왔다. 다시 아버지가 가공리로 이사를 가게 되어 방연옥은 가공리에서 태어났다. 방연옥은 친정어머니가 모시를 짤 때 두 손으로 바디를 눌러 모시를 짤 것을 생각하면 가는 모시를 짤던 것으로 안다.

친정어머니는 처음엔 방연옥에게 모시 일이 어렵다며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처음엔 친정어머니가 아닌 동네 아주머니들의 틈새에서 자연스럽게 모시 일을 익혔다. 여름 밤 모시를 하면서 동네 어른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아른거린다. 늦은 밤 아주머니들 입에서는 “시아버지가 모시 조금 했다고 혼내서 서글꿨다”는 이야기, “시어머니가 찌지 위로 주먹을 날려 이마를 탁 때려 너무 아파 울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 또 늦은 밤까지 모시하고 새벽에 일어나 보리방아 찼고 삼아서 밥하던 이야기는 그 시절 여인들의 고달픈 모습이었다. 어떤 분은 모시 짜는 일이 너무 힘들어 시어머니가 잘 때 시어머니께서 짜던 모시를 조금 떼어서 아궁이에 넣었다고 한다. 그렇게 모시 때문에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방연옥은 스스로 결혼이 많이 늦었다고 말하면서 동네 총각들이 못나서 안 데려갔다고 하였다. 하지만 방연옥은 수수하고 손맵시 좋은 규수였다. 어린 시절 모시만 하면 부자 될 것 같았다. 국민학교 입학 전 가공리에서 고개 넘어 문학골 수출리 교회에 다닐 때 영희 아주머니 덕분에 세상에 눈을 뜨게 되었다. 영희 아주머니 덕분에 교회를 다니는데 고개를 넘어 하면 워낙 사나운 남자아이들이 괴롭혀 힘든 적이 많았다. 그래서 일요일에는 비가 오길 바랄 때도 있었다. 비가 오면 괴롭히던 아이들이 나오지를 앓았기 때문이다. 영희 아주머니 덕분에 학교 입학 전에 교회에서 한글을 다 배웠다. 입학하여 구구단과 주산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익혔다. 3학년 때는 육상경기에 나가 서천군에서 3등 한 일이 생생하다. 그 후 모시해서 부자 되겠다고 4학년 마치고 학교를 그만 두었다.

결혼은 29세에 세 살 차이 나는 32세 이소직과 했다. 이소직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해병대를 제대하고 나와서 강원도 춘천 댐 공사장에서 일했다. 그때 형 이연직이 국회의원에 출마하여 운전을 부탁해 한산에 내려와 있었다. 시집생활은 고생의 연속이었다. 이연직의 국

회의원 낙선으로 집안이 가난하다 해도 이렇게 어렵게 살 줄은 몰랐다. 결혼식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초상마당에서 했다. 초상을 치르기 전에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살아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결혼식을 하니 얼마나 기구한 운명인가라고 생각했다.

결혼 후 9년 동안 모시를 못했다. 시집이 가난하여 바깥출입이 많지 않았는데, 우연히 이웃에 사는 문정옥 선생의 모시 작업을 도와주게 되었다. 한산모시짜기 기능보유자 문정옥 선생이 방연옥의 모시작업을 인정하여 후계자로 지정하면서 1980년부터 모시 일을 다시 시작하였다. 그때 방연옥은 문정옥 선생으로부터 6년을 배우고 이수자가 되었다. 그 이후 문정옥 선생이 갑자기 혈압으로 쓰러졌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산모시짜기 기능보유자 계승을 위해 2000년 8월 20일 대전에서 청장님이 오셔서 한산모시짜기 기능보유자 증서를 주셔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문정옥 선생의 고향은 완포리이고 친정어머니 고향은 와초리이다. 두 분 모두 화양면 사람이지만 모시 굵기가 달랐다. 문정옥 선생보다 친정어머니 모시가 가늘었다. 친정어머니는 이가 없어 손톱으로 모시를 찼다. 그래서 손톱으로 쥔 모시를 ‘손톱모시’라고 불렀다.

한산모시짜기 기능보유자인 문정옥 선생과 나상덕 선생은 2016년 같은 해에 세상을 떠났다. 한산모시짜기 첫 기능보유자들이 같은 해에 모두 운명하신 것이다. 방연옥은 어려서 친정어머니로부터 못 배운 모시 짜고 매고 나는 것을 문정옥 선생으로부터 자상하게 배웠다. 모시 맬 때 문정옥 선생으로부터 가장 많이 혼이 났는데, 혼내는 마음을 헤아려 많이 참고 배웠다. 그 결과 한산모시짜기 기능을 익혔다. 문정옥 선생이 돌아가실 무렵에 방연옥에게 한산모시 잘 이어가라고 당부하셨다.

“내가 아파서 잘 못 가르치고 했는디, 집이가 우리 이수자들, 조교들 많이 좀 거달어 주고 잘 가르쳐서, 그냥 우리 모시 잘 이어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잘 이어가라고. 그래서 “예, 저는 선생님만치는 못 험망정 제가 그냥 잘 이어가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주겠어요.” “그러, 그러, 나 꼭 그거 부탁혀.” 그러시더라구요. 그때가 마지막이었어.

문정옥 선생의 말씀을 방연옥은 잊지 않고 있다. 한올한올 베틀에 걸고 “우리가 이어가야 할 한산모시 짜기, 질긴 모시처럼 포기하지 말자”고 후계자들에게 늘 말한다.





•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한산모시짜기  
기능보유자  
제1호, 박미옥

**박미옥** (1959년생)  
서천군 한산면 성외리

575

박미옥은 충남 서천군 한산면 성외리에서 살며 한산모시를 짜고 있다. 박미옥은 1959년 한산면 동산리 458번지에서 태어났다. 박미옥의 친정어머니는 충청남도 한산모시짜기 기능보유자 제1호 나상덕 여사이다. 박미옥은 친정어머니의 모시 사랑을 잘 알고 있기에 나상덕의 모시를 잘 짜려고 노력하고 있다.

박미옥은 열일곱 살 때부터 친정어머니가 베틀에서 내려오면 잠깐씩 올라가서 모시를 짰다. 그때 나상덕은 딸이 모시 짜는 데 관심이 많은 것을 알고 모시 짜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박미옥은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 곁에서 자연스럽게 모시 짜는 것, 모시 나는 것, 모시 매는 것도 많이 도와주다보니 ‘뭘 잘못한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박미옥은 친정어머니께서 “모시 한번 매 줄 테니 짜 볼래?” 하기에 그러겠다고 말하고는 모시 한 필을 짜는 데 6일 걸렸다. 그때 어머니 나상덕의 칭찬이 힘이 되어 지금까지 모시를

잘 짠다는 자부심을 갖고 모시를 짜고 있다. 스무 살이 되어서는 어머니보다 박미옥이 모시를 짜는 시간이 많아졌다. 박미옥이 짠 모시를 어머니가 팔러 가시면 금방 돌아오셨다. 어머니께 “왜 일찍 돌아오시냐?”고 하면 “거간들이 그 집 모시는 볼 필요도 없다”고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다. 박미옥의 모시는 시집가기 전부터 장에 가지고 나가면 일찍 팔렸다.

2016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2년 뒤인 2018년에 한산세모시짜기 기능보유자가 되었다. 한산세모시짜기 기능보유자가 되는 절차는 쉽지 않았다. 3개월 전에 선발 공고를 내고 접수한 사람들끼리 겨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세모시 짜기 전 공정을 전문가들이 보고 선정하게 된다.

나상덕은 1993년에 한산모시관이 지어지자 이곳에서 한 3년을 생활하였다. 그러다가 나무집이라 바람 들어오고 춥다고 하여 동산리 집으로 내려갔다. 후에 박미옥이 어머니와 함께 모시관에 와서 모시를 짜게 되었다.

모시관에 들어오기 전에는 어머니께서 반지하를 판 움집에서 모시를 짰다. 움집에서는 전통베틀로 모시를 짜셨다. 움집은 습기가 너무 많아서 모시가 눅눅하니까 저녁에는 방으로 갖고 들어왔다가 낮에 주로 움집에서 모시를 짰다. 나중에는 현대베틀로 반지하에서 모시를 짰다.

모시의 품질은 태모시의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 태모시가 좋은 것은 곱게 잘 찢어진다. 그런 것으로 모시짜기를 하는 할머니들이 잘 짜서 삼아서 갖다 주면 모시가 미끄럽고 참 좋다. 그런데 짬이 안 좋은 것은 떨어지고 진풀이 많이 나서 맬 때뿐 아니라 짤 때도 고생한다. 그럴 때면 모시에다 화풀이도 못하고 아무리 나빠도 참아야 한다.

박미옥은 모시짜기 공정을 이렇게 설명한다.

처음에 태모시를 베다가 속껍질을 벗겨서, 속껍질을 물을 주고 햇볕에 말리고 한 일곱 여덟 번 반복을 해요. 파란 모시가 요런 색으로 변하면 그것을 이로 짜요. 이로 짜서 또 할머니들이 무릎에다가 다 잇는 일을 해요. 굵을 만드는 거지. 모시굿을 만들어서 그럼 저 우리들이 그 모시를 사다가 날아요. 모시를. 날아서, 나는 거는 뭐냐면 이자 길이하고 폭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날아가지고 콩풀 발라서 불 앞에 매는 거지. 매 가지고 짜지요 그런 다음 표백하지요.

박미옥의 모시굿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구입한 모시굿이 아니고 십여 집에서 오래전부

터 거래 해온 모시굿을 받은 것이다. 한 필을 짜는 데 스무 굿이 들어간다. 모시굿이 좋아야 모시를 잘 짤 수 있어 가는 모시굿을 낱실로, 좀 굵은 모시굿을 씨줄로 골라서 모시를 짜야 감이 좋다.

모시굿을 가지고 오면 이제 구멍이 열 개가 있는 조슬대에 모시 열 굿을 갖다 놓고 길이하고 폭을 맞게 한 다음 한 칠백, 팔백, 구백팔십 올을 들어가게 모시를 난다.

박미옥은 모시매기를 말하며 “모시 매다가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도 못 간다”고 했다. 친정어머니는 콩풀 발라 놓고는 어떤 급한 일이 있어도 못 가고 모시 매기를 했다고 한다. 모시매기는 콩풀이 말라서 바다가 딱 붙어버리면 더 이상 답이 없기 때문이란단다.

박미옥에 따르면, 모시를 짜려면 모시 베틀부터 알아야 한다. 그녀는 베틀 용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베틀은 이게 전통베틀이잖아요. 지금 짜서나 끌러놓은 상태인데. 이게 말코예요. 말코에다 감아서 부테로 감아가지고. 얘를 짜는데. 바디집이에요. 얘는, 잉아실이고, 이거는 눈썹노리이고, 이거는 빙허리라고 그래요. 얘는 사침인데, 사침이 지그자그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용두머리라 하고, 얘는 쇠꼬리라고 발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 얘는 도투마리, 여기는 말코예요. 지금을 끌러 놔는데 말코라고. 여기가 바디집. 여기는 베틀다리, 누운다리, 여기는 선다리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북 패, 이게 잉아지. 실로 잉아를 걸어요, 얘는. 지금 현대 베틀은 세로 종강이잖아요. 잉아가. 그런데 얘는 실로 걸어요.

베틀 이야기는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알 수 없는 용어이다. 하지만 박미옥에게 일상생활 속 이야기이다.

박미옥은 모시 짜면서 느낀 보람을 이렇게 말한다.

어머니가 해라해라 해서 현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서 했기 때문에. 또 힘든 점도 많지만. 또 이렇게 내가 열심히 잘 해가지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할 때 좀 보람을 느끼죠. 잘한다 소리 할 때. 그때 보람 느끼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우 내가 이걸 왜 했나 하다가도 그럴 때는 잘 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내가 어머니 옆에서 있었으니까 또 어머니 후계자까지 됐지. 내가 객지로 결혼해서 나갔으면 이것도 못 했죠.

박미옥은 친정어머니 나상덕의 후계자 인 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먼저 가신 어머니를 늘 그리워한다고 했다.

●  
**모시 유통을  
 담당한 보부상의  
 후손, 나한백**



**나한백** (1936년생)  
 서천군 문산면 수암리

나한백은 보부상의 후손으로 충남 서천군 문산면 수암리에서 산다. 아버지 나광호는 보부상 신차영감<sup>1)</sup>을 지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보부상 활동을 보고 듣고 자랐다. 지금은 보부상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고 있지만 시차영감, 아버지 나광호를 기억하고 있다. 나한백의 할아버지가 기산면 신산리에서 살다 문산면 수암리로 이사 왔다. 그 후 나한백의 생부 나병호는 작은재에서 살았다. 나한백의 어머니 역시 작은재에서 모시를 하였다. 당시 작은재에는 다섯 집이 살았는데 네 집이 천주교인이었고, 나한백의 가족만 천주교를 믿지 않았다. 그 후 백부 나광호가 아들이 없어 작은재에서 독피로 양자를 왔다. 문산초등학교에서 하교하면 엄마가 보고 싶어 작은재에 갔다가 엄마를 보고 독피로 왔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1) 당해년도 보부상 운영실무 책임자로 서천에서는 시차영감이라 부르기도 함

나한백은 1950년대 아버지 나광호가 보부상 임원이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그는 아버지 나광호가 시차영감이 되어 회의를 하던 일을 기억한다. 아버지가 시차영감을 하던 때에 독피에서 밀 2가마에 해당하는 양의 국수를 먹었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그 날은 동네 사람들도 다 모여서 국수를 먹었다. 함께 보부상 임원을 했던 사람들 이름은 임권재, 구병채, 양완순, 임찬문이다. 판교 흥림저수지 가에 사는 박모씨, 그리고 송영감이 기억에 남는다.

나한백은 아버지가 주로 공문서 보따리, 축작대기, 목화 솜이 양쪽에 달린 패랭이를 가지고 계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당시 망상이라고 해서 초하루와 보름에 공문서 보따리를 놓고 제사를 지냈다. 굉장히 큰 상에 밤, 대추, 은행 등 제물을 진설하고 그 위에 육백년 역사를 가진 여러 사람의 이름을 놓고 제사를 지냈다. 그때 판교, 비인, 서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그날은 독피에 있는 그릇을 다 빌려 와야 국수를 먹을 수 있었다.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다.

그렇게 아버지가 시차영감한다고 돈을 많이 쓰는 바람에 나한백은 학교를 다닐 수 없었다. 그는 홍산중학교를 입학 해 놓고 다니지 못해 문산초등학교만 나올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가 많은 사람들을 접대하면서 점점 재산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었다.

문산 수암리에서는 작은재를 넘어 판교 금덕리를 경유해서 만덕리를 지나 판교장에 갔다. 마을사람들은 판교장을 잘 다녔다. 또 문산 수암리에서 꿈감재를 넘어 홍산장을 다녔다. 아버지를 따라 홍산장에 가서는 상무사 요원들이 수전 걷는 것을 본 적도 있다. 수전은 장사꾼에게 상무사라는 도장이 찍힌 문서를 건네고 장세를 받는 것을 말한다.

나한백은 아버지로부터 들은 보부상에 대한 유래를 자세히 기억한다.

내가 그때 당시 어려서 들을 적에 육백년 역산데, 그 유래, 지금 말하자면 이 공문보따리, 상무사의 유래가 뭐냐, 옛날에 어찌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구. 그 소리를 내가 대충 들었는데. 무슨 영감, 저기 무슨 임금 댐가, 임금이 어느 산골지역으로 피신을 했었더라 이거여. 피신을 했는데 거기를 못 들어가게 혀. 임금 있는 데를 못 들어가게 한다 이거여. 그래서 모 한 사람이 소금주머니 짊어지구, 소금. 그러구 축작대기라고 지팡이라고 그러지유. 그게 오동나무여. 오동나무에다가 쌀을 넣었더라 이거여. 구녕(구멍) 떨어졌으니까 쌀을 넣고. 그때 당시 소금장사들은 단지를 지게에다 매달고 다녔어. 왜

매달고 다니느냐면 지나다가, 가다가 배고프면 그 단지에다 밥 해 먹을라고 단지를 지게에다 매달고 다녔다 이거여. 그러구 그 목화송이는 뭐냐. 그 유래가 목화송이에다가 물을 가득 적셔서 그 패랭인가 거기에다가 매달아서 쓰고 다녔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임금 있는 디(테)를 갔다 이거여. 가서 그 단지에다 쌀을 축작대기에 넣은 놈을 쏘고, 목화송이 있는 물을 짜서 밥을 해서 임금을 먹였다 이거여. 그래가지고 야중(나중)에 평화가 돼서 그 은혜를 갚을 라고 임금이 불렀다 이거여. “당신 소원이 뭐냐? 내가 당신한테 밥을 얻어먹고 했으니까 그 소원이 뭐냐”하니까. “소원이 없습니다. 장돌림으로서 패랭이에다가 솜을 매달고 지팡이를 짚고 이러구서 장돌림하는 게 소원이다.” 이렇게 해서 그 유래가 그렇다라는 것을 들었어. 그렇게 했어.

나한백은 아버지 나광호의 시차영감 이야기와 보부상 유래 그리고 공문제에 대해서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  
서천 모시떡  
산업의 선두 주자,  
양만규 박진순  
부부



양만규 (1943년생)  
박진순 (1947년생)  
서천군 화양면 월산리

양만규, 박진순 부부는 서천군 화양면 월산리 달고개 마을에서 모시떡 사업을 하고 있다. 양만규는 1943년생이며, 박진순은 1947년생이다. 부부는 1972년 결혼하여 2남 2녀를 두었다. 양만규, 박진순 부부의 공통점은 양가가 모두 천주교 집안으로 신부, 수녀를 배출한 가문이다. 따라서 두 집안은 생명을 중시하고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천주교 덕목을 중요시한다. 사랑과 나눔 그리고 공동체를 목표로 월산마을에서 살고 있다.

양만규는 월산리 공소 회장을 오래 했으며 동생도 천주교 신부이다. 박진순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천주교를 믿었고 할머니도 믿었고 큰아버지도 신부이다. 월산리도 마찬가지로 친정 김제도 마찬가지로 천주교를 믿고 있다.

양만규는 월산리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대표를 맡았다. 조합원 한 세대에 한 명씩 전원 참석하는 걸로 했고 약간의 출자금을 가지고 했는데 군이나 정부의 지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은 들지 않았다. 양만규는 대표격으로 참여하였고 주로 작업은 여성들이 했기에 여성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양만규, 박진순 부부는 모시떡 사업으로 마을 공동체가 복원되었다고 말한다.

저는 이 사업이 마을의 공동체를 복원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촌이 산업화시대를 겪고 지나오면서 공동체가 붕괴되는 시점을 겪고 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시떡을 하면서 공동체가 복원됐다. 이런 자부를 가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연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사업이 제대로 될까? 한쪽에서는 투자하지 말아 달라, 이걸 투자했다 잘못되면 뭐 망한다, 그래갖고 반발도 있었고 그랬는데.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정신이 이 마을에 오늘의 모시떡 만들기의 모범이 됐고, 또 그것 때문에 서천군이 모시떡 사업을 주력사업으로 개발한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주 긍지를 느낍니다.

당시 영광에 갔을 때, 모시떡을 생산하는 업체가 이백 개가 되었다. 이 사업을 해서 영광과 경쟁을 해야 하는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지만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모시떡을 만들기 시작했다. ‘우리에게는 한산모시라고 하는 프리미엄이 있지 않냐’ 라며 하면 될 것으로 믿었다. 처음에는 일곱 명이 참여하여 한 일 년 동안 열심히 하니까 마을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돈 다 벌어서 먹는다’고 난리가 났지만 결국 마을 주민이 모두 참여하게 되었다.

모시떡 만드는 일은 마을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어르신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임금이 똑같다. 어르신에 대한 배려이고 노인복지이다. 그렇게 월산마을 모시떡 만들기는 어르신들의 가슴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제공하고 있다.

처음에는 비인면 울리에서 모시를 사다가 월산리에서 재배한 모시잎으로 떡을 만들었다. 또 모시떡 사업을 진행하면서 영광으로 선진지 견학을 갔다. 견학 후 사온 영광 모시떡과 우리가 만든 월산리 모시떡을 비교하니 우리 떡이 더 맛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드디어 월산리 모시떡이 팔려 나가면서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일을 했다. 교대하러 해도 그냥 더 한다는 어르신들이 계실 정도로 모시떡 사업이 잘되었다. 박진순은 허리가 굽고 두 번이나 수술을 했지만 모시떡 사업이 매우 재미있었다.

달고개 모시떡 사업을 이끌어 온 박진순은 이렇게 말한다.

같이 산다는 거. 지금도 같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것만 하자고 하면 다 나와서 하는



거 보면, 너무 재밌어 허고, 진짜 그래요, 저는. 잘 만들어났구나 그래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서로 저기하면 못 헨다 했는데. 그래도 다른 마을이 못 허고 맨 날 시끄러워서, 이렇게 허는 마을이 없다 그래요.

달고개 모시떡 사업은 일곱 명이 시작하였지만 지금은 마을 사람 대부분이 조합원이다. 이제 소외되었던 어르신들까지 참여하여 어르신 복지에도 한몫을 담당하고 있다. 지금은 91세이지만 그 당시 80세 넘으신 어르신이 한 달 수입이 5~6만원이니 얼마나 재미가 있겠는가? 평생 월급을 처음 받으신 어르신들의 기쁨은 말할 수가 없다. 모시떡 사업으로 인하여 부녀회가 잘 되고 마을 일에 참여하는 일도 빈번해 졌다.

모시떡 사업은 마을사람들에게 도전하는 자세를 심어 주었다. 무슨 일을 할 때 주저주저 하던 마음을 바꿔 놓았다.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모시떡 성형도, 동부콩을 찜는 것도 주저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었다. 또한 70g의 일반적인 모시떡을 과감하게 50g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도 달고개 사람들의 변화에 대한 도전이었다. 모시잎이 변질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막 따온 그 많은 모시잎을 한꺼번에 삶아 냉동실에 보관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시떡이 누렇게 변했다. 그래서 모시떡이 반쯤되는 것을 막았다. 이렇게 월산리 사람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쌀, 모시잎, 소금, 설탕으로 빛은 모시떡 마술사가 되었다. 모시떡 사업을 하려면 눈썰미도 있어야 하고 힘도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쌀을 뺏아서 10킬로그램을 물로 치대면 15킬로그램이나 된다. 이것을 혼자 들어서 올리고 내리고 하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

모시떡 판매는 박진순이 한과 판매 경험으로 과수원에서 생산한 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모시떡을 맛보기로 주어 홍보를 했다. 그렇게 하여 몇 개 월 안에 전국으로 퍼졌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과와 배즙을 모시떡과 연계하여 판매하게 되었다. 오빠가 신부이니 성당으로 보내고, 동생이 수녀이니 그 성당에서도 주문을 받아 보내게 되었다. 월산리 모시떡에 대한 신뢰가 자꾸 높아지자 주문이 갈수록 늘게 되었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주문이 다소 감소했지만 주문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 계속 생산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못하는 것이 있다. 다달이 했던 마을 어르신 생일잔치를 못하고 있다. 생일잔치는 그 달 안에 생일을 맞은 어르신들을 축하해주고 양말을 주고 케이크를 나누는 시간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생일잔치를 대신하여 마을의 모든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을에 관광을 가기로 했다.

월산리 모시떡 사업 역시 마을에 젊은 사람이 없어 이어갈 사람이 없다. 이제 어르신들이 나가면 조합원이 감소하므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자녀들이 있으면 조합원 자격을 이어가도록 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제 월산리 마을에도 모시떡 사업에 참여할 어르신들이 감소하고 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농촌의 현실이다. 코로나19로 찾아오는 관광객까지 감소하여 그 전망이 어둡다. 2015년 모시떡 사업이 잘 되던 그때가 그립다.

월산리 모시떡 사업은 월산리 사람들에게 작은 기쁨을 제공하여 이제 더 큰 기쁨을 누릴 준비가 되었다. 월산리 어르신들은 말한다. “안 불려서 못 온다. 일을 더하고 싶다.”

•  
한산모시짜기  
유네스코 등재의  
공로자, 오천환



**오 천 환** (1960년생)  
서천군 서천읍 두왕리

오천환은 1960년 생으로 서천군 서천읍 두왕리에서 성장하였다. 1988년에 공무원에 입사하여 2019년까지 총 32년간 서천군청에서 근무하였다. 그는 공직생활 내내 문화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모시와 인연을 맺었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문화관광 업무의 일환으로 모시 보존전승 차원의 업무만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문화관광 업무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모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오천환은 한산모시짜기가 2011년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시기에 문화정책팀장을 하며 무형문화재 업무를 담당하였다. 오천환은 늘 문광부와 문화재청과는 남다른 소통을 하고 있었다. 2011년도는 서천군에서 유네스코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했을 때이다. 오천환은 늘 문화재청에 출입하면서 우리 서천에도 유네스코 관련 문화재를 갖고 싶었다. 먼저 소곡주를 생각하다 뭐니뭐니 해도 보편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한산모

시를 생각하게 되었다. 한산모시는 서천만이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이때부터 공무원으로서 뭔가 뜻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유네스코에 한산모시를 등재해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다. 그는 한산모시의 가치를 영원히 지키고 싶었다. 그는 이 외에도 이곡 이색 장관, 시초 천제단 및 봉선리 유적, 비인 오층 석탑, 들풍장 등을 유네스코에 등재하여 서천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 한다.

2011년 한산모시짜기를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는 시기가 마침 모시문 화제가 진행되는 기간이었다. 문화재청에 근무하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가며 서류를 작성하느라 모시문화제 현장에 나가지 못했을 때, 직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것이 서천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고 서류 작성에 집중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유네스코를 알지 못했을 때, 그는 한산모시짜기의 등재를 위해 나섰던 것이다. 그는 당시 앞서가는 공무원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잘난 체 한다는 오해를 받았다.

오천환은 한산모시짜기가 등재된 이후의 한산모시 정책에 만족해하지 않고 있다. 등재되었으면 한산모시를 활용하여 관광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자체 지원과 실천이 필요한데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손혜원 디자이너와 같이 밀라노에 갔을 때 크게 놀란 적이 있다. 자신은 한산모시로 만든 옷만 생각했는데, 각국에서 모인 디자이너들이 한산모시를 옷이 아닌 가방의 일부, 옷의 일부로 활용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한다.

오천환은 모시로 인하여 여러 번 상처를 받았다. 1995년 모시차 특허를 준비하며 상처를 받았고, 2011년 유네스코 한산모시짜기 등재를 위한 노력 중 모두 앞서 간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다. 유네스코 심사 당일에도 외국에 나가고 싶어서 핑계된다는 소문이 나 발리에 가지 못하고 전화로 소식을 접해야 했다.

오천환은 한산모시짜기가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해준 문화재청 박영근 차장을 잊지 못한다. 박영근 차장은 부친이 서천경찰서 출신이라는 이유로 ‘서천은 내가 태어난 곳’이라며 서천을 각별히 생각했단다. 서천에 있는 사람 중에는 김영희 팀장을 잊지 못한다. 그는 김영희 팀장의 각별한 모시사랑이 없었으면 등재될 수 없었다며, 이 기회에 김영희 팀장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

오천환은 한산모시짜기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재 등재 이후에 꼭 해야 할 일이 모시발 조성이라고 생각한다. 유네스코 심사 과정에서도 모시발 문제가 거론이 되었단다. 한산에 모

시밭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모시밭이 있어야 모시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1년 11월 28일 발리에 간 박영근 차장의 전화는 오천환의 가슴을 떨리게 했다. 전화로 박영근 차장은 한산모시짜기가 등재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그는 곧바로 나소열 군수에게 보고했고, 그 날 전국에 있는 기자들이 서천군청으로 대거 몰려 왔단다.

오천환은 한산모시짜기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으니, 앞으로 한산모시에 대한 전 과정을 무형문화재로 등재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산모시를 보존하려면 모시 재배부터 모시 짜기의 8가지 공정을 각각 무형문화재로 지정해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  
**한산모시문화제  
 정착 과정의  
 산증인, 박수환**



**박수환** (1952년생)  
 서천군 서전읍 사곡리

박수환은 1952년생으로 서천군청에서 모시문화제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의 고향은 한산세모시를 짜는 화양면 월산리이다. 월산리는 한산 모시 새벽장에서 “그 동네 모시는 불 필요도 없다”고 하는 마을이다. 한산세모시 짜는 것을 일상적으로 보고 성장한 박수환은 누구보다 일찍 모시의 특성을 잘 알고 있다. 또한 일찍부터 할아버지께서 월산공소 회장을 맡으면서 천주교를 접한 경험을 갖고 있다. 박수환은 한산모시를 통해 어떻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이 화합하고 조화로운 생활을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였다.

박수환은 서천군청 소속으로 공직생활을 35년간 하였다. 1979년부터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여 2014년에 퇴직했다. 지금은 서천향토사 연구회장과 색소폰 동호회장을 맡고 있다.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박수환은 공직에 있으면서 1986년 모시

업무를 시작하였다. 모시업무는 담당직원으로 3년 6개월, 팀장으로 7년, 모두 10년 6개월 동안 업무를 담당하였다. 모시업무는 서천군청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와 공보를 담당하는 가운데 홍보차원에서 담당하였다.

한산모시문화제가 개최된 된 계기는 한산모시에 대한 생산성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모시에 대한 판로가 약해지고 생산성이 감소했기 때문에 시책을 구상하였던 것이다. 즉 한산모시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제 업무를 확대해야 하는 시기였다. 마침 1988년은 올림픽이 끝나고 1989년 올림픽 일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1회 저산문화제를 개최하였다. 제1회 저산문화제는 서천문화원 노금래 원장이 맡아 추진하였다. 박수환은 모시문화제의 출현은 당시 문화계장이었던 박종열의 제안에 의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1989년 제1회 저산문화제가 열리기 전에 저산팔읍길쌈놀이를 발굴하여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 받아 축제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그래서 올림픽 개최 일주년을 기념하는 제1회 저산문화제의 핵심 행사는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13호 한산모시 길쌈놀이가 되었다. 한산모시 길쌈놀이는 지금도 한산모시 문화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당시 저산문화제는 군민을 하나로 묶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한 행사이다. 초기 저산문화제는 모시 아가씨 선발대회에 관심이 많았다.

‘한산모시문화제’의 이름이 탄생하기까지 여러 일이 있었다. 제1회 저산문화제는 노금래 원장이 저산(苧山)이라 표기하고, 모시를 생산하는 고을이라는 의미에서 시작하였다. 이에 앞서 저산팔읍길쌈놀이가 국무총리상을 받았고 충청남도 도지정문화재로 지정 받았는데, 그 ‘저산(苧山)’을 그대로 쓰게 되었다. 박수환은 1996년에 각종 문헌을 근거로 저산(苧山)에서 저산(苧産)으로 한자 표기부터 바꾸는 역할을 했다. 또 서천모시문화제, 한산모시문화제, 서천한산모시문화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당시 박형순 군수는 한산모시문화제라고 간결하게 부르자고 하여 정리되었다.

모시문화제의 프로그램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모시아가씨 선발대회가 1회에서 3회까지 진행되었다. 그러나 여성의 상품화, 모시아가씨 홍보 미활용, 화합단결 저해를 이유로 자연 소멸되었다. 그 후 모시패션쇼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때 이영희 패션 디자이너를 초대하여 모시 패션쇼를 진행함으로써 언론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이영희 모시 패션쇼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하여 다시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주민참여

패션쇼로 바뀌게 되었다. 또 하나의 변화는 한산모시문화제 기간 동안 관광객이 참여하는 체험프로그램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학생들은 미니베틀 체험, 어른들은 개량 베틀 체험을 통해 관광객 체험 위주로 문화제를 진행하게 되었다.

모시문화제 기간에도 변화가 있었다. 박수환은 모시문화제가 진행되는 시기는 모시가 생산되는 6월 20일경이 적당하다고 했다. 가을은 모시가 끝물이어서 품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모시 수확이 좋은 시기인 초수 때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6월 20일 경은 농번기와 중복된다고 주장하여 6월 10일경으로 앞당겨 진행하기로 하였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취소되었다.

모시문화제 장소 문제도 있었다. 제1회는 서천여자정보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진행되었는데 1991년 한산모시관이 건축되면서 장소를 이전하여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한산모시관은 장소의 협소와 도로가 행사장 중앙을 통과함으로 사고의 위험성이 있었다. 이에 뒷산을 매입하여 공간을 확보하고 2020년 육교를 설치하여 교통 혼잡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박수환은 모시문화제의 주최기관도 바뀌었다고 한다. 즉 초기에는 서천문화원에서 진행하였으나, 각종 민원 발생과 인력 수급에서 행정력이 필요하게 되자 서천군청 문화관광과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모시문화제 추진위원회를 직능단체별로 구성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그는 앞으로는 전담 부서에서 모시문화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한산모시문화제는 문화보다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관광축제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고 한다.

박수환은 10년 후에는 모시에 대한 기능을 보유한 사람들이 소멸할 수도 있으니 그에 대비하여 모시짜기, 날기, 매기, 짜기에 대한 무형문화재 지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모시밭은 의도적으로 만들면 되지만 모시 관련 기능은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는 모시 위기를 극복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 모시 학교를 만들어 모시 전반에 관한 교육과 관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10억 규모의 문화재단을 만들어 매년 축적이 되면 모시학교 운영이 수월해 질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전담 기관을 만들어 모시가 오래 보존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모시문화제를 포함한 모시 전반에 관한 모시 재단이 만들어져 지금까지 언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개선되었으면 한다.



박수환은 1997년 지역축제를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관광축제로 전환시킨 것과 모시사업단을 만들어 모시전담 업무를 추진한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한다. 관광축제와 모시사업단을 만들기 위해 군수님을 모시고 일본에 갔다 왔던 것도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한다. 전통모시에서 현대모시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많은 실험과 연구로 진행되었지만 설비부족과 인건비 등으로 어려워 혼방사에 위탁해 모시양말, 모시속옷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에 한산모시에 대한 연구와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  
**충남 무형문화재**  
**제13호 저산팔읍길쌈놀이**  
**기능보유자, 홍경자**



**홍경자** (1943년생)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홍경자는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에서 사는 저산팔읍길쌈놀이 기능보유자이다. 홍경자는 화양면 추동리 구룡목 꼬치매 안쪽 마을에서 1943년 태어났다. 추동리 구룡목 역시 모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 스물여섯 살 먹던 해 1969년에 안동 권씨가 많이 사는 한산면 축동리로 시집을 왔다. 남편은 역시 안동 권씨였다. 시집을 온 다음 1970년 스물일곱 살이 되던 해에 첫 아이 권정일을 낳았다. 그 후 남편이 한산종합고등학교 서무과에 근무하던 1976년에 한산면 지현리로 이사 왔다.

막내가 네 살 먹었을 때 지현리 유산에 있는 안영철네 모시공장에서 모시 짜러 오라고 해 갔었다. 막내가 “엄마 집에 가, 엄마 집에 가” 그래서 사장이 “아줌마 모시 못 짜겠다”고 집에 가라고 해 집에 왔다. 그 후 5년 동안 모시공장에서 7~8명이 모시를 짰다. 그때 모시 한 필을 짜면 2만원도 3만원도 받았다. 홍경자는 결혼하기 전이나 지현리 공장에서 일할 때 모

시 짜는 것을 재미있어 했다.

한 번은 모시 매는 것을 배우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워낙 못 배우게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가 도투마리를 빼가서 내쫓는 것을 보고도 모시 매기를 배웠다. 모시가 그냥 하고 싶었다. 2020년 홍경자는 일흔아홉 살인데도 모시하는 것이 행복하단다.

홍경자는 저산팔읍길쌈놀이에 1982년부터 참여하였다. 저산팔읍길쌈놀이는 모시가 생산되는 여덟 고을인 한산, 서천, 비인, 남포, 보령, 임천, 홍산, 정산에서 참가하는데, 각 고을 별 10명 한팀이 필요하며 여기에 풍물 20명, 등수를 정하는 감별사까지 약 100여명으로 진행이 된다.

처음에 길쌈놀이를 연습할 때 홍경자를 부른 사람들은 박길배 면장, 박수환 계장, 이한수, 구자홍 등이다.

홍경자는 처음에 한산 고을에서 모시 짜는 역을 맡았다. 1982년에 저산팔읍길쌈놀이를 도맡아 진행했던 총괄 책임자는 구자홍이었다. 이때 그녀는 구자홍의 후계자로 뒤에서 책임자 역할, 즉 감별사 역을 배웠다. 그 후 한산종합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한 5년 정도 가르쳤다. 주민 동원이 어려워 학생들을 가르쳐 학교에서 저산팔읍길쌈놀이를 계승하고자 할 때였다.

홍경자는 구자홍이 사망한 이후에 많은 우여곡절 끝에 저산팔읍길쌈놀이 후계자가 되었다. 그때 기능보유자는 구자홍, 이한수, 이창규, 정금순이었다.

실제 저산팔읍길쌈놀이는 여덟 고을 중 한산 고을에서 짠 모시가 항상 일등이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감별사가 다른 마을 모시의 단점을 지적해야 한다. 이때 홍경자는 “다른 모시를 쳐야 만이 한산모시가 최고라는 것을 허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오해는 허시지 마세요”라고 말한다.

실제 저산팔읍길쌈놀이에서의 홍경자는 대감마님처럼 옷을 입고, 정자관을 쓰고 길쌈놀이를 진행한다. “지금으로부터 저산팔읍길쌈놀이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개회 선언을 할 때부터 목소리와 위엄이 다르다. 또한 모시를 짜면서 부르는 베틀 노래를 청하자 능청스럽게 노래를 한다.

한산에다 베틀 놓고, 구름 잡아 잉아 걸어, 청베나무 바디집에 옥베나무 북에다가 뒹다리는 돌아놓고 앞다리는 낮춰놓고 울공졸공 짜느라니 조고마난 시누이가 울케울케 우리울

케 그 베 짜서 뭐할라나 서울 가신 자네 오빠 강남도포 해줄나네 진주택에 두루마리 이슬  
밭에 내닐어서 은다리미 놋다리미 요모조모 싹 다려서 대문 밖에 썩 나서서 우리 선비 아니  
오나 오기는 오네마는~.

홍경자의 베틀 노래는 구성지다.

저산팔읍길쌈놀이에서 감별사 홍경자는 여덟 개 마을의 모시 검사를 한다. “여러분들이  
정성들여 짠 모시를 보겠습니다.”, “오늘 모시 짠 것을 심사를 하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한다. 그리고 여덟 고을 모시를 다 둘러본 다음에 발표하는 내용은 한산모시가 최고라는  
것을 발표하기 위하여 다른 고을의 모시의 결점을 발표한다. 항상 한산모시가 일등이란단.  
한산모시가 최고이고 이를 축하하기 위해 신명나게 노는 놀이가 저산팔읍길쌈놀이이다. 홍경  
자는 외친다.

여러분들이 정성들여 짠 모시를 보니 임천모시는 탕이 나고~, 보령모시는 성글고~, 홍산  
모시는 가리가 들고~, 서천모시는 대소울이 들고~, 남포모시는 변이 나쁘고~, 임천모시는  
척이 짧고~, 홍산모시는 가리가 들고~, 오늘의 장원은 보름세를 짠 한산모시가 장원입니  
다. 장원한 한산모시를 위하여 즐겁게 놀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산팔읍길쌈놀이는 여덟 고을 사람들이 함께 놀아주는 공동체 문화인 것이다.  
여기에 참석한 인원이 100여 명으로 관리가 쉽지 않겠다고 하자 홍경자는 팀장 책임제로 운  
영하고 군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임금을 넉넉하게 지불한다고 한다. 팀장 책임제란 저  
산팔읍길쌈놀이 임원이 각 고을 팀장을 도맡아 10명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임원이 곧 팀  
장이 되어 각 고을의 10명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하여 저산팔읍길쌈놀이  
가 보존이 되고 있다.

또한 저산팔읍길쌈놀이에는 기능보유자가 4명이 있다. 풍물 기능보유자로 예전에는 이  
창규, 이한수가 하다 지금은 조순자, 강성순이 맡고 있다. 노래는 정금순, 총괄 진행은 홍경  
자가 맡고 있다.

홍경자는 저산팔읍길쌈놀이 기능보유자로 전수관의 도구관리와 참석자가 관리의 어려  
움을 말했다. 도구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령이 있는 창고와 탈의실이 필요하다고  
한다.

예컨대 홍경자는 저산팔읍길쌈놀이 기능을 구자홍에게서 듣고 보고 배웠다. 구자홍의 가

르침은 쉽지 않았다. 그래도 홍경자는 기능보유자의 길을 걷고 있다. 또한 후계자 권정일에게 열심히 전수하고 있다. 세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홍경자는 이렇게 말한다.

“참, 홍경자, 홍 여사 참 대단허네. 그 밑에서 그렇게 했는디도 그걸 따라서 순종허고 했던 그 역할이 오늘날 있다. 참 홍경자 다시 보야겠다.”고. 그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밀고 나가니까 이런 영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요새날 행복하다고 생각을 혀요.

●  
**충남무형문화재  
 제52호 한산모시 베틀장  
 기능보유자, 윤주열**



**윤주열** (1943년생)  
 서천군 화양면 화촌리 나을

윤주열은 서천군 화양면 화촌리 나을에서 한산모시 베틀을 만들며 산다. 그는 마서 옥산에서 1943년 태어났으며 화양면 와초리 임수월과 결혼을 하였다. 군대를 다녀와 목수일을 작은아버지 윤호에게서 배웠고, 그 후 서울에서 문 째는 일을 하면서 대패질을 익혔다.

나을은 예부터 모시로 유명하였다. “한산모시 좋은 놈은 나을에서 나왔다고. 우리 엄니도 한산 나가면 이름 나서 모시를 감춰가지고 댕겼어, 서로 뺏어 갈라고 해싸서.” 라고 윤주열은 나을 모시를 자랑했다. 화촌 모시냐 나을 모시냐고 했더니 나을 모시가 화촌 모시라고 한다.

어머니가 모시를 짤 때 베틀이 고장 나면 가끔 고쳐주는 일을 했다. 그리고 주로 집짓는 목수로 일을 다녔다. 아내 임수월이 모시를 짠다고 해 헌 베틀을 보고 아내가 모시 짤기 수월하도록 윤주열식 베틀을 짜주었다. 지금도 그 베틀을 창고에 잘 보관하고 있다. 아내가

쓰는 베틀을 동네 사람들이 보고 좋다며 주문을 해서 하나씩 만들어 주었다. 점차 서천 농업기술센터에까지 알려져 서천지역으로 확대되어 운주열식 모시 베틀이 맞춤형으로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심지어는 전라도에서조차 운주열식 개량 베틀을 맞추러 왔다. 1993년 50살 되던 해부터 베틀을 만들기 시작하여 55살이 되던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주열식 베틀을 짜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에 운주열은 모시베틀을 1년에 20여 대를 생산하였다. 서천농업기술센터를 통하여 주문한 것을 직접 가정에 배달하기도 하고 농업기술센터나 마을회관까지 운반했다. 과거에는 베틀이 커서 방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는 베틀의 크기를 조정하여 쉽게 방안으로 넣을 수 있도록 했다.

운주열식 개량베틀은 먼저 뒷다리가 길지 않아 베틀이 길지 않다. 또한 잉아로 넘어 오는 데도 짧다. 전통베틀은 허리가 중요하다. 허리로 조정을 잘 해야 좋은 모시를 짤 수 있다. 그는 허리를 고정하여 개량베틀에서 며칠만 배우면 쉽게 모시를 짤 수 있도록 만들었다.

운주열은 베틀을 짜기 위하여 좋은 재료를 구하는 것부터 중요시한다. 예전에는 직접 목재를 구해서 톱질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힘이 들지만 지금은 제재소에서 나무를 켜 가져오니 너무나 편하다. 좋은 목재를 얼마나 잘 건조시켜 만드느냐가 베틀의 관건이다. 나무가 완전히 뒤집어 진 놈을 가지고 짜야지 그렇지 않은 놈은 나중에 틀어져 베틀을 쓸 수 없다. 이런 나무는 왜송이 좋다. 베틀을 만드는 시기는 봄부터 가을까지이다. 봄, 여름에는 작은 부품을 여러 개 깎아 놓았다가 겨울이 오기 전에 깎아 놓은 부품들을 결합한다. 베틀 가격은 100만원 정도인데 재료비가 20만원, 인건비가 80만 원 정도 된다.

운주열은 2016년 충남무형문화재 제52호 한산모시베틀장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그는 첫 번째 시연에서 심사관의 마음에 들지 않아 낙방을 했다. 그 후 3개월이 지나 다시 심사를 할 때는 대패질, 나무로 만든 먹통 깎기 등 전통적인 기능을 인정받아 기능보유자로 인정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기능을 배우고자 하는 후계자는 없다. 그는 모시 생산이 감소되면서 모시를 짜려고 하는 사람이 감소하자 개량베틀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다고 한다. 이에 “내가 일거리가 없는 데 어떻게 후계자에게 일을 가르칠 수 있겠냐”는 것이다. 모시베틀을 만들 기회가 적어 후계자에게 기능을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이다. 후계자를 양성하지 못할 정도로 모시 베틀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 안타까워했다.

모시하는 사람들이 점점마다 있을 때는 베틀이 잘 나갔지만, 모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몇 집만 있으니까, 베틀이 잘 안 나가고, 그러니까 일감이 줄으니까 후계자를 데려다 놓으려고 해도 또 그 만큼 품삯을 못 주니까 또 그 사람이 견디지 못하고 나가고...

윤주열의 말에는 한산모시에 대한 전반적인 현실이 그대로 담겨있다.

윤주열이 한산모시 베틀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내심이다.

베틀이라는 것은 틀어지지 않게 짜야 제일이야. 베틀은 조금만 틀어져도 표나, 그래서 베틀은 안틀어지게 해야지 그것은 잘 말리고, 구녕도 뺀 듯이 잘 파야 혀

앞으로 베틀 제작을 계속 해야지 않겠냐는 질문에 윤주열은 충청도 식으로 간단하게 답한다.

혀는 데까지 혀야 쥬.



●  
생산자 중심의  
모시 유통을 이끈  
한산모시조합장,  
임은순



**임은순** (1954년생)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임은순은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에서 살면서 한산모시조합장을 맡고 있다. 1954년 경기도에서 태어나 1978년 결혼하여 한산모시를 배우게 되었다. 2006년 한산모시조합을 창립하여 조합장에 선출된 다음 14년 동안 연임하고 있다. 임은순의 목표는 한산모시의 명맥을 유지하고, 모시 종사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하는 것이다.

서천군 오일장 중에 하나인 한산장은 1일과 6일에 켜고, 모시굿장은 한산장 하루 전날에 열렸다. 한산장 전날에 모시를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들이 한산 여관에 와서 잠을 잤다. 그래서 한산장 전날에는 한산에 사람들이 북적거렸다. 이때 모시굿이 거래되는 진풍경을 이루었다. 장날 새벽에는 모시 새벽장이 열려 다른 장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새벽장에는 모시를 사러 온 상고와 짠 모시를 팔러 온 생산자와 중개를 맡은 거간이 있었다. 한산장은 상고, 생산자, 거간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 오랜 시간 동안 이들로 구성된 모

시조합이 결성되어 모시가 거래 되었으나 한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산에서 생산되는 모시의 명맥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실감하였다. 이에 2006년 임은순을 중심으로 한산모시조합을 결성하게 되었다.

2006년 구성된 사단법인 한산모시조합은 초기에는 모시를 짜는 사람들 56명으로 구성되었다. 점차 조합원이 증가하여 140명에 이르기도 하였다. 2020년 현재 임은순을 비롯하여 회원 6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산모시조합은 원산지 표시를 원칙으로, 지리적 정보를 명시하는 시스템으로 모시를 관리한다. 태모시 생산지와 생산자를 명시하여 태모시를 거래한다. 어디에서 누가 생산한 태모시인가가 한산모시조합에 알려진다. 지리적 정보가 입력된 태모시를 다시 어느 동네 누가 짜어 굿모시를 생산하게 된다. 태모시에서 굿모시를 만든 사람의 이름과 주소가 명기되어 한산모시조합에 다시 모이게 된다. 태모시부터 굿모시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가 입력된 모시를 필모시 생산자가 받아서 짜게 된다. 이렇게 태모시- 굿모시- 필모시의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가 명시됨으로써 모시 실명제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한산모시 원산지 표시인 지리적 정보 시스템이다. 이를 한산모시조합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한산모시는 어디에서 생산된 누구의 모시이며, 이를 짠 사람은 누구이며, 이 굿모시를 이용하여 한산모시를 짠 사람의 이력이 달린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닌다. 이것이 한산모시 실명제이다.

한산모시 원산지 표시 및 지리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한산모시의 명맥을 유지하는 데 그 중심에 임은순 조합장이 있다. 그녀는 태모시 생산자의 지리적 정보를 통하여 초수, 이수에서 생산한 모시의 건강과 정성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좋은 태모시는 서천군에서 비인 읍리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다. 태모시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인 읍리는 한산모시의 주 공급처이다.

또한 굿모시를 생산하는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70대 후반이라고 한다. 70후반에 가까운 어르신들이 없다면 이제 모시의 명맥을 이어가는 것이 불투명하다. 이에 노인 일자리를 통하여 태모시를 공급하여 7~800명의 서천군 어르신들이 굿모시를 생산하고 있다. 굿모시를 생산하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오래 사실지 모르지만 30년 정도 지나면 모시의 명맥이 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시굿 만드는 일이 모시를 짜는 일이다. 얼마나 곱고 가늘게 짤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한산세모시의 품질이 결정된다. 모시 짚기의 기능은 한산모시의 생명과도 같

은 공정 중의 하나이다. 모시짜기, 즉 굵을 만드는 공정을 배우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모시 짜기가 단절될 가능성이 높다.

한산모시조합의 구성원은 모시 짜는 사람들이다. 조합원이 최고 140명에서 68명으로 감소하였듯이 모시 짜는 사람들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임은순은 조합원의 감소는 한산모시의 명맥이 끊어지는 것과 직결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한산모시를 짜는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임은순의 관리란 좋은 모시를 짠 사람에게 가격을 보장하여 더 좋은 모시를 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가격을 보장하는 것은 모시를 짤 수 있는 동기를 유발시키는 계기가 된다. 임은순의 의도는 질 좋은 모시가 많이 소비되어야 모시를 짠 조합원의 소득이 증대되는 것이다. 소득이 증대되면 모시를 짜는 사람들이 많아져 한산모시의 명맥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임은순은 모시를 홍보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방문한다. 모시를 위하여 집을 비우다 보니 남편으로부터 쫓겨나기 직전까지 갔다. 그러나 14년 동안 올곧게 모시를 사랑해오니 이제야 그 진정성을 알아주고 있다.

임은순의 별명은 ‘모시 불도저’이다. 한번 계획을 세우고 조합원의 승인을 얻으면 밀어붙이는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생산된 태모시, 굵모시, 필모시의 결점이 발견되면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과감하게 부여한다. 조합원의 결점을 보완하고 개선이 되면 불이익에 대한 돈을 연말에는 돌려줌으로 사기를 올린다.

한산모시조합은 68명의 조합원들이 한산모시의 명맥을 이어가고 좋은 모시를 생산하여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믿음을 주고 싶다. 그녀는 신뢰 받는 한산모시조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가 조합원들한테 진짜 부탁하고 싶은 거는. 나 하나쯤은, 나 하나가 뭐 쯤 소홀히 생각하고 한다고 별일 있겠어. 이 생각을 하시지 말고. 나 하나라도 진짜 열심히 구멍 안내고, 이쁘게 열심히 잘 짜서 한산모시라는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쯤 가 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리고 임은순 조합장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탁한다.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딱 한 군데밖에 없는 한산모시,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로 좋은 대표적인 상품이면서도 아이들한테도 아주

좋은 그 원단이니까 좀 많이 이용해주십사. 그리고 이용을 못하시더라도, 설사 못하시더라도 한산모시는 아, 이렇구나라는 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드리고요. 행정이나 서천군청은 그냥 맨 날 하는 얘기죠, 뭐. 도와주세요.

# 청양군

## 청남면 인양리의 ‘갈대(달대) 후리는 소리’

금강 변 농사짓기	604
12개의 마을 고사를 함께 지내며	608
풍장은 울리고 민요는 부르고	613
인양리의 갈대(달대) 후리기 이야기	618
왕진 용신제를 지켜온 사람들	622
얇은 경(긋)으로 동네 고사를 울리고	626
설화와 배종사의 마을 중산리	630
일사정이 아름다운 천내리	635
명덕산의 품에서 사는 사람들	639
인양리의 갈대(달대) 후리기 재현	643

●  
금강 변  
농사짓기



**윤경학** (1942년생)  
청양군 청남면 서편길



**한근수** (1935년생)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에 살고 있는 윤경학과 한근수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군대 생활 외에는 마을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토박이들이다. 또한 이들은 마을에서 갈대를 후리며 노래를 부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윤경학은 1942년 3월에 아버지 윤영준(1915년생)과 어머니 이연애(1918년생) 사이에 4남 4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칠원윤씨인 아버지 윤영준 역시 이 마을에 살면서 서당 공부를 하고 농사를 지어 온 전형적인 농부였다, 논은 6천 평인 30여 마지기였고 밭을 1천평 농사를

지어 마을에서는 중 상층의 농가였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성장하였다.

윤경학이 농사를 지어 온 인양리는 영농환경 중 중요한 토질은 모두 뺄 흙이다. 금강이 범람할 때마다 들에 뺄이 쌓인 결과로 농토가 거름 저 농사에 유리한 흙으로 형성되어 있다. 인양리는 마을의 서북쪽으로 낮은 야산이 둘러 있고 동쪽으로는 금강이 흐르고 마을 앞은 2000여 마지기의 논으로 들을 이루는 금강변의 농촌마을이다.

마을 뒷산은 동편으로 비룡봉(飛龍奉)이 중심이며, 북동방으로 여우봉이 높지 않아 편한 산세다. 서남편 금강으로는 마을에서 『셋강』이라 부른 금강의 지천이 금강으로 흘러든다. 인양리의 자연 마을과 골의 이름은, 동쪽 마을 진입로부터 부처골, 갓모랭이, 큰골, 작은골, 가름재, 용산고개가 있고 서편으로는 바라터(해대), 중뜸 삼고지, 시묘골, 심점뿔, 원천골, 토골이 있다. 마을은 마을의 위치에 따라 서편, 중뜸, 동편이 하나의 큰 마을을 이루고 덕대골이 동쪽으로 조금 떨어진 위치에 자리한다.

인양리는 40만평 이상의 넓은 들에 술독<sup>1)</sup>다리(수통다리), 방아다리, 용산다리, 알피다리, 쪽다리, 덜컹다리처럼 다리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이 마을에서 칭하는 ‘다리’는 교량(橋梁)이 아니라 ‘부근’을 이르는 말이다. 마을 사람들이 가정 민속신앙으로 고사를 지내고 빌었던 곳을 ‘위하는 곳’이라 칭하는데 상여바우, 말바우, 마을 중뜸 은행나무, 용산고개, 금강, 셋강 등이었다.

### 제방 막기에 힘을 다하고

농부들에게 인양리에서 가장 중요했던 일은 금강과 셋강에 제방을 막는 일이었다.

인양리는 금강의 홍수에 직접 노출되었던 마을이기 때문이다. 금강과 셋강이 마을의 동남을 감싸고 흐르는 형상이라서 홍수가 지면 현재의 인양 앞들은 대부분 물에 잠겨 벼 생산은 기대할 수 없었다. 더욱이 한국전쟁 이후 산림이 황폐화되어 홍수에 산림에서 황토와 모래가 내려와 강바닥이 단기간에 높아진 후로는 적은 비에도 들이 침수되었다. 당연히 이 마을 사람들은 강과 셋강 앞에 제방을 축조하는 일이 누대에 걸친 숙원사업이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금강에 뜬 배의 돛이 보이지 않으면 살만하고 돛이 보이면 굶어 죽는다.』라고 말

1) 낮을 가는 솟돌의 인양리 말.

하였다.

그럼에도 금강과 샛강에는 제방이 없었다. 그러기에 홍수가 지면 마을은 수해를 입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마을 넓은 들 대부분은 개펄이며 갈대밭이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논은 아주 적었고 농토로는 논이 아닌 밭이 대부분이었다. 주민들이 염원하였던 금강과 샛강의 제방은 일제 강점기에 쌓기 시작하였다. 현대의 제방처럼 높고 튼튼한 제방이 아니라 인력으로만 쌓은 제방은 금강의 범위를 현대의 금강으로 확정하는 의미였지만 인양리의 들을 온전히 보호하지 못하였다.

인양리의 마을 지도급 인사들은 제방을 막기 위해 힘을 모았다. 군청에 청원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중앙정부와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고 청원을 하였다. 덕분에 다른 마을과 비교하여 상당히 이른 시기였던 1958년에 새로운 제방을 쌓기 시작하였다. 제방 축조는 바닥을 불도저로 밀고 제방의 성토는 예전과 같이 평뜨기로 진행하였다. 품삯 대신 밀가루를 주어 마을 사람들이 ‘밀가루 독싱이<sup>2)</sup>’라고 불렀지만, 제방 축조가 끝난 것은 1965년이다. 이보다 짧은 기간에 제방을 대부분 완성하였는데 샛강의 마지막 제방 연결 지점을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제방을 온전히 막지 못해 공사 기간이 길어졌다. 무려 7년의 긴 기간 동안 쌓은 제방이지만 제방 축조 후 인양리, 왕진1.2리, 대흥1.2리 아산리의 총 340ha가 안전한 논이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 여러 차례 제방을 보수하고 성토하여 현재의 제방이 완성되었다.

### 청주한씨 가문의 사람들

한근수는 이 마을에서 10대를 내려온 청주한씨 가문의 사람으로 1935년생이다. 집에 나이로 현재 86세의 고령임에도 건강이 양호하고 정신이 맑아 마을의 지나온 세월을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인물이다. 아버지 한영석은 1900년생으로 역시 인양리에서 4천여 평의 논과 약간의 밭농사를 짓는 중농으로 살았으며 어머니 김씨는 광산김씨로 1901년생이다. 3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한근수는 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아 어린 나이였던 19세에 청양군 장평면의 김씨(광산인)와 혼인하여 2남 4녀의 자손을 두어 가정을 이루고 평생 부모님을 봉

2) 독싱이 제방의 인양리 말.



양하며 살아 왔다.

한근수에 의하면 인양리에 청주한씨 보다 먼저 입향한 성씨는 여양진씨라 한다. 진씨는 이 마을에 이주하여 15대를 살아왔으며 지금도 8호가 거주하고 있다. 남양전씨 또한 9대를 이어 살아온 가문들이다. 여양진씨, 청주한씨, 남양전씨가 마을의 3대 성씨인 셈이다. 그중에도 청주한씨는 이 마을에 가족공원 묘역과 효자 기적비(孝子紀蹟碑) 해은선생 공적비(海隱先生功績碑) 춘파 송덕비(春坡頌德碑)의 여러 비각을 세우고 묘역을 가꾸고 있다.

### 마을의 큰 선생 전승환 훈장

한근수는 이 마을의 마지막 서당인 해사(海史) 전승환(田昇煥) 훈장에게 한학을 공부하며 성장하였다. 해사 선생은 1890년경 출생하여 1911년부터 1952년까지 현재의 마을회관 뒤, 자신의 집 사랑채에서 학동을 모아 글을 가르쳤다. 무려 41년 동안 서당을 운영한 것이다. 초학으로 계몽편, 천자문, 명심보감을 가르치고 중학으로는 소학과 통감 효경을 강하였으며, 오래 공부한소수의 학동들에게는 사서(四書)와 주역(周易)을 가르친 인물이다. 성품이 조용하고 학문이 깊어 인양리뿐 아니라 부여와 금암, 왕진리, 아산리, 청소리, 대흥리 등에서도 글을 배우기 위해 서당을 다녔다. 제자들 중에 공주대학교수로 재직하다 사망한 한상각 교수, 한의사 전영욱 등 의 관계 요로에 진출하는 제자를 배출하였다. 인양리에는 제자들이 스승을 추모하여 비석을 세워 지금도 보존되고 있다. 이 추모비에는 해사 선생의 일생을 찬양하는 기록과 한노수, 전문호, 전기노 등 83명의 문학생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집안 사정으로 오래 공부하지는 못했지만 한근수에게 전승환 훈장은 자신에게도 인양리에도 큰 선생님이셨다.

●  
12개의 마을 고사를  
함께 지내며



**윤 동 원** (1947년생)  
청양군 청남면 금강변로



**천 원 필** (1947년생)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

**여섯개의 샘, 여섯 거리에서 모두 고사를 올리고**

윤동원은 1947년생으로 아버지 윤병호(1923년생)와 어머니 이적휘(1923년생)의 사이에서 3남 3녀 중 장남으로 인양리에서 태어났다. 장남으로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객지로 나갈 생각은 하지 못하고 인양리에서 만 살아온 인물이다. 성격이 괄괄하고 남들에게도 바른 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아버지 윤병호는 농사는 8천여 평의 논농사와 약간의 밭농사를 지은 중농이었다. 윤동원은 24세에 청남면 천내리의 김낙희와 혼인하여

아들 3형제를 두었다. 젊어서 갈대후리는 일판에서 일하였고 함께 노래했던 윤동원은 갈대(달대) 후리기가 참으로 힘든 노동이라 말한다.

윤동원은 새마을 지도자와 이장을 역임하면서 마을을 가꾸어 왔다. 특히 인양리는 마을의 고사가 많은 마을이다. 여섯 개의 우물에서 올리는 샘고사와 여섯 곳에서 올리는 거리제였다. 매년 정월이 되면 정초부터 대보름까지 마을이 곁풍장과 고사로 흥에 넘쳤다.

인양리의 여섯자리 샘고사는 타 고장에서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마을 고사다. 인양리에는 가새변 삼, 서편삼, 논삼, 백중삼, 산고지삼, 동편삼의 여섯 개가 있다. 마을 사람들은 정월 대보름을 기해 모든 샘을 품고 정갈히 청소를 하는데 이를 ‘삼 소제’라 하였으며 소제 전에 샘마다 황토를 파다 무더기로 나누어 놓아 잡인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소제 이후에는 거리제를 지내기 위해 마을에서 선출해 놓은 유사와 제관 그리고 노인회장 이장 등이 6개의 샘을 돌며 각각 고사를 올렸다. 별도의 음식은 마련하지 않고 술을 올리고 제관들이 함께 절하며 물이 잘 나오게 해달라는 염원을 담아 『뚫으세. 뚫으세. 물구녕만 뚜루세. 물줍쇼. 물줍쇼. 사해 용왕님 물줍쇼』 하고 소리치고 아주 빠른 가락 풍장을 치는 단순한 고사를 지냈다. 이런 고사를 6개의 샘마다 찾아가 반복하였다.

이뿐 아니다. 인양리는 마을 고사로 거리제를 지낸다. 역시 6개의 정해진 자리에서 고사를 올렸다. 마을 드는 입구, 나는 출구, 마을 중심의 정자나무인 느티나무 아래, 은행나무 아래, 참나무 아래, 마을 광장(현재는 존재하지 않음)에서 올렸다. 고사마다 차이를 두어, 음식을 차리고 축문을 읽고 소지를 올리며 지내는 곳이 있고, 이를 생략하고 술만 부어 올리고 제관들이 절을 하는 곳이 정해 있었다. 마을의 평온을 비는 소지를 올리는 거리제 터는 은행나무 앞에서 올리는 고사다. 마을 전체의 안녕을 비는 소지를 대동소지(大同燒紙)라 하는데, 이는 은행나무 아래에서 매년 변함없이 올렸다.

제수(祭羞)는 장소마다 구분을 두어 정확하게 차리고 축문을 읽으며 마을 각 가정의 평화와 복을 빌고 소지를 올린 곳은 마을 입구와 출구로 지정된 2곳이었다. 이곳 제수는 대추, 밤, 감, 사과, 배의 삼색 과일과 시루떡과 돼지머리, 술이며 진설은 특징이 없이 평범하다. 각 가정의 복과 평화를 비는 소지는 호주를 의미하는 대주를 위한 소지로 이 마을에서는 대주소지(大主燒紙)라 이르는데, 이는 마을 입구에 해당하는 드는 자리와 나는 자리 거리제에서 나누어 올렸다. 19702~3년경 정부의 미신타파 정책에 의하여 마을 고사가 사라졌다.

윤동원은 천원필과 함께 마을 고사를 중요시 하였다. 여섯 개의 우물을 모두 퍼내고 새물을 받아야 고사를 지내기 때문에 20세 이후 마지막 고사를 지내는 내내 한 겨울에 우물을 퍼내는 어려운 일을 맡아야 했다.

정부 시책으로 마을 고사를 지내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때 마을의 젊은이들은 상당수가 지내지 않기를 바랬다. 이유는 고사를 지내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라 한다. 한겨울 우비를 입고 우물에 들어가 찬물을 퍼내야 하고 고사를 지내는 날이면 초저녁에 시작하여 밤이 새도록 옮겨 다니며 어른들이 지내는 고사 수발을 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고사는 소멸되었다.

### 서로 돕는 건립 풍장

윤동원은 마을에서 행한 일 중, 인심 좋은 인양리의 미풍양속 중 가장 자랑스러운 것으로 마을의 독특한 걸립 풍장을 꼽았다. 이 마을의 걸립 풍장은 마을 고사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적인 민속이었다. 마을 고사 경비를 모으기 위해서 150여 호에 이르는 모든 가정을 풍장꾼들이 돌아가면서 방문하여 복을 빌어주고 돈이나 쌀을 얻어 여섯 자리 샘고사와 거리제의 경비를 모으는 걸립 풍장을 쳤다.

다른 하나가 또한 매우 의미 있다. 이 마을은 금강변의 마을이다. 금강과 샛강의 제방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는 마을 앞 현재의 들판 대부분이 갈대밭이었고 논들은 홍수에 매우 취약한 들이었다. 이런 영향으로 홍수가 나면 피해가 아주 심했고 마을 사람들의 생활이 곤궁해졌다. 이런 경우 마을의 부자들이 광을 열어 1가구당 벼 3말씩을 나누어 주는 미풍양속이 전했다.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부족할 때에, 즉 가난하여 굶어 죽을 사람이 생길 위험이 생기면 건립 풍장을 쳤다. 마을의 부잣집부터 시작하여 쌀과 돈을 모아 가난한 사람에게 전해 주어 홍수 피해에 발생한 기아를 면하게 하였다. 부잣집은 곡간을 열고 풍장패는 걸립을 하여 가난한 사람을 도와 흉년에도 굶어 죽지 않게 했다.

### 함께 두레 논도 매고

천원필은 1947년 인양리에서 출생하여 강원도 가평에서 군 생활을 한 것 외에는 마을을 떠나지 않고 살아온 토박이 농부다. 영양천씨 문중 천학봉(1917년생)과 부인 소미옥(1921년생)

사이의 1남 4녀 중 장남이며 3째로 태어나 이 마을을 지키며 평생을 살아왔다. 천원필은 아버지로부터 상당한 농토를 물려받았으며 자신의 노력으로 농토를 더 구입하여 1만 4천여평의 논농사와 밭 7백여 평을 농사짓는 대농이었다. 평생을 일속에 살아온 천원필은 당시로는 다소 늦은 나이인 29세에 청양군 목면의 김예화와 결혼하여 1남을 두어 가정을 이루었다.

천원필은 17세에 인양 두레 구성원이 되었다. 본격 농부로 인정받아 품앗이를 시작한 것이다.

인양리에는 매년 여름에는 두레가 열렸다. 논매기 공동작업으로 돈을 모아 서로 나누며 일부의 경비를 남겨 ‘여름 두레 먹는 날’ 모든 마을 사람들이 술과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즐기는 두레였다. 더구나 인양리는 140여호의 농가가 하나의 두레였다. 이웃 마을의 두레들과는 견줄 수 없을 만큼 큰 두레다. 이런 연유에서 매우 활동적이었으며 이웃 마을 두레들이 감히 두레 싸움을 걸지 못했다.

또한 담안집과 윤창의는 두 섬지기 (40마지기)의 부농이었고 한 섬지기 부자는 윤주화 등 8집이나 되었기 때문에 아산리와 상장리 등의 논농사도 이 마을 부자들이 많이 지었다.

마지막 좌상은 천주봉, 공원은 진남철, 한명수 등이 맡아 운영하였다. 농자천하지대본의 농기와 흑백 영기를 사용했으며 논매기 공동작업은 1회 시행하는 한물 두레다. 여름 두레 먹는 날 경비를 버는 먹매 두레는 동네의 모든 장정이 의무적으로 출력하였고, 칠석과 백중 사이 하루를 정하여 담안 집 바깥마당에서 먹었다. 두레 논매는 소리의 선소리꾼은 윤병열이 잘했다.

천원필은 인양 두레를 무서운 두레로 기억한다. 두레의 농기에 회초리를 매달고 다니다가 불효를 하던지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여름 두레 먹는 날에 공개적으로 ‘두레 회초리’를 때렸기 때문이다.

### 쉬는 날이면 물고기를 잡아먹고

인양리 사람들에게 금강을 나루터로 기억한다. 인양리 앞에는 인양 나루가 있었다. 맑은 편이 부여로 통하는 나루다. 인양에서 부여로 중학교 다니는 학생과 부여 장을 보러 가는 길은 나루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공은 마을 사람으로 자주 건너는 사람은 무료로

이용하고 보리 추수기에 보리 한 말, 벼 수확기에 벼 두 말을 냈고, 일부는 건널 때 마다 소액의 운임을 냈다.

하지만 천원필에게 금강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곳이었다. 이는 마을 사람도 그랬다.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다. 금강에서 물고기를 잡아 팔아 살아가는 전업 어부는 없었으나 가을부터 겨울까지 민물 게를 잡아 파는 사람이 있었고, 게 잡이는 ‘수수걸이’라 칭하는 참게 줄납시와 발을 쳐서 잡는 ‘게발’이 성행하였고 방죽마다 고기가 넘쳐 마음만 먹으면 사철 잡을 수 있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면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함께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다.

●  
풍장은 올리고  
민요는 부르고



**김용봉** (1924년생)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



**김한제** (1931년생)  
청양군 청남면 서편길

채록자의 입장에서 김용봉과 김한제 같은 인물을 만나는 것은 행운이다.

집에 나이로 96세(1924년생)인 김용봉은 이 마을에 살면서 농악단의 북잡이로 살았는데 정신이 맑고 아직도 마을 농악의 북을 능숙하게 치는 인물이다. 김한제는 89세(1931년생)의 고령임에도 마을 농악에 두레 농악과 판재 농악의 상쇠를 구분하여 치며 갈대(말대) 후리는 소리, 상여 행상소리, 집터 다지는 소리의 선소리와 후렴을 정확히 기억하며 부를 수 있는 인물이다. 마을에서만 전승된 민속을 조사하는데 이런 인물을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김용봉은 광산김씨로 1924년 부여군 석성면 탑동리에서 태어나 1949년 이 마을로 이주하였다. 아버지 김승수는 2천여 평의 논과 약간의 밭농사를 지으며 살았고 어머니 백씨와의 사이에 1남 5녀를 두었다. 김용봉이 장남이었는데 아버지의 터전을 버리고 이 마을로 이주한 것이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강제징용에 차출되어 일본 고쿠라시에 가서 석탄 캐는 일을 하고 해방이 되어 돌아왔다. 김용봉은 1948년 이분추와 혼인을 하고 혼인한 다음 해에 인양리로 이주하였다. 이 마을로 이주하여서 마을 사람들과 쉽게 동화 될 수 있었던 것은 농악 때문이었다. 마을의 두레 풍장에 북잡이로 활동하였다.

김한제는 갈대(달대) 후리는 소리의 전승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온 인물이다. 아버지 김상은(1890~1900년경 생)이 그의 나이 5세에 사망하여 홀어머니를 모시고 소년가장으로 살아야 했던 김한제는 34세에 부여 은산으로 이주하였지만 적응이 어려워 5년 후 다시 인양리로 귀향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살고 있다.

1965년 제방이 완성 된 이후 급속도로 중단된 갈대(달대) 후리기로 인하여 민속이 사라질 위기였지만 김한제는 이 소리를 중요하게 여겨 기회가 있으면 노래를 불러 왔기 때문에 아직도 이 노래가 온전히 전승되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농악의 수장쇠, 상여 행상소리와 집터 다지는 소리 등의 선소리꾼으로 소리를 온전히 보존하여 인양리의 다양한 민속에 주요 예능을 보존하고 전승하는데 공이 많은 인물이다.

### 청남 최고의 농악마을 인양리의 풍장꾼들

인양리는 청남에서 알아주는 풍장고지다. 두 사람 모두 열일곱 살에 두레에 들었고 첫해에 두레 풍장판의 상모잡이로 풍장을 배웠다. 대부분의 장정들이 한두 해 상모를 돌리면 어린 두레꾼들에게 넘기는데 김한제는 가락을 빨리 배운다하여 계속 상모를 돌렸고 결혼하고 난 후에는 상쇠를 쳤다. 이 마을의 두레 풍장의 기본은 칠채 가락이다. 다른 고장의 칠채 보다 아주 빠르면서도 가락을 부드럽게 치는 특징이 있어 배우기 어려운 가락인데 김한제는 쉽게 배우고 능숙하게 쳤기 때문이다.

이런 영향으로 인양리는 1983년경부터 마을 풍장(農樂)이 청남면을 대표하는 풍장 마을이었다. 해방 후 인근의 공주시, 부여군 등의 고장에서 시군단위의 풍장 대회가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청양에서는 먼 대항, 군 풍장 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인양리 농악대가 청양의 대



표 농악단으로 뽑혀 공주 백제문화제에서 개최되는 충청남도 시군 농악 경연대회에 청양군 대표로 출전하였다. 1991년의 일이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출연 전체 인원의 대부분이 인양리 주민들로만 출연했다는 사실이다. 총 54명의 풍장 단원 중 5명만 인근 마을의 풍장 짬이었고 49명이 인양리 주민들이었기에 부부나 형제의 출연도 많았다.

당시 김한제는 50대 초반의 한참 때였다. 농악에서 상쇠는 한상도가 쳤지만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판을 지휘하는 일은 김한제의 몫이었다. 이미 회갑을 넘긴 김용봉은 농악 마당에 서지 않고 젊은 북짬이들을 가르쳤다.

사람들에게 박수를 많이 받은 것은 무동이 놀이었다. 꽃나비 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장정의 어깨 위에 무동이를 세우고 풍장 가락에 맞추어 춤을 추고 노는 놀이다. 12명의 상모 끈 중앙에서는 진명화와 한상일이 열두 발 상모를 돌려 많은 박수를 받았다. 김한제의 판으로 이어진 농악은 청양군 농악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고 공주에서 열리는 충청남도 농악 경연대회에 청양군대표로 출전하기도 했다.

『도 대회에서 상은 못탔어』 아쉬움으로 말했지만, 인양리 농악단은 청남면을 넘어 청양군의 대표 농악단으로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 소리판에는 언제나 끈들이 넘치고

김한제를 비롯한 인양리 사람들은 노래하는 맛을 매우 즐겼다. 마을의 소리꾼들은 청춘가, 노랫가락, 창부타령 등의 대중들이 좋아하는 향토 소리를 불렀다. 1990년대 달대 후리는 소리를 여러 번 채록에 응하여 현재의 전승에 공헌한 유진형은 아리랑을 즐겨 불러 별명이 ‘아리랑타령’이었으며, 진양조 풍의 소리나 시조에도 능했던 사람이다. 유병열은 달대 후리는 소리와 상여 행상소리에 능하였다. 김한제는 농악에서는 상쇠, 두레에서는 논매는 소리의 선소리꾼, 달대 후리는 소리의 선소리꾼으로 활동하였으며 두레 나발도 능히 불었다.

이 밖에도 한상도, 진양근, 이현규, 윤경학, 윤길원, 윤명학, 구연갑, 천언필 외 여러 사람이 마을 소리꾼이었다. 모두 청춘가, 노랫가락, 창부타령 등이 자기 몫의 노래는 잘하는 사람들이었고 현대 젊은 층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상일등도 소리를 잘한다.

『먹고 살만 해 지니께 소리두 한 거여.』 김한제가 회상하는 인양리의 생활이다.

마을 앞에 제방을 쌓아 황무지가 모두 옥토로 변하여 단번에 청양군에서도 알아주는 부

촌이 되었으며, 어려운 시절을 서로 도와 함께 넘겼던 마을의 인심이 함께 즐기는 마을이 되었다는 것이다. 전통사회에서부터 부잣집이 많고 부잣집들의 인심이 후하여 봄 두레, 여름 두레 먹는 날과 칠석날 등은 언제나 농악과 함께하는 놀이판이 열렸다. 천렵도 성행하였다. 봄이면 샛강과 계곡에서, 여름이면 금강에서 물고기를 잡아 천렵을 즐겼는데 천렵 문화에는 언제나 술과 노래가 있었다. 여름 두레 판이나 칠석 풍장마당 그리고 천렵 마당마다 농악과 민요가 있는 마을이니 가히 민속 마을이라 해도 좋은 마을이 인양리였다.

『으른덜 살어 기실 때 나는 소리꾼 축이도 못꼈어.』 마을에서 전래 되는 갈대(달대) 후리는 소리, 논매는 소리, 상여 행상의 선소리를 아직도 능숙하게 부르는 김한재의 이 말 속에 인양리 사람들의 즐기며 문화가 배여있다. 옛날 소리 좀 들려 달라는 부탁에 두 사람은 마을 회관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후렴을 함께 부르게 하면서 옛날 소리를 구성지게 불렀다.

어려움속에서도 흥을 잃지 않고 살아 온 사람들의 여유였다. 함께 부른 노래는 다음과 같다.

**인양리 갈대(달대) 후리는 소리 (2020. 7. 17/ 마을 경로당 / 앞소리: 김한재. 한상봉)**

헤어 헤어엉 헤어엉 헤어야. 허 허이 허어에야 헤  
 해가 지고 달이 뜬다. 허 허이 허어에야헤  
 헤어 헤어엉 헤어엉 헤어야. 허 허이 허어헤야 헤  
 일락서산은 저 달이 뜨고요. 월출 동녘에 저 달이 솟네  
 헤어 헤어엉 헤어엉 헤어야 허 허이 허어헤야 헤 (후략)

**인양리 집터다지는 소리**

우여라싸하. 우여라 차하  
 번쩍 들었다. 우여라 차하 (후략)

### 인양리 모심는 소리

호 호 호오아아앙 아헤. 헤헤라아라 상허디요  
 천하지대본은 농사밭이 또 있느냐 헤-  
 호 호 호오아아앙 아헤. 헤헤라아라 상허디요. (후략)

### 인양리 상여 행상소리 (2020. 7. 17/ 마을 경로당 / 앞소리: 김한제)

헤어 허어엉 허어엉 허어야. 허 가리 허어에야 헤  
 저승길이 머다 더니 문턱 넘어가 저승이로다.  
 헤어 허어엉 허어엉 허어야. 허 가리 허어에야 헤

●  
인양리의  
갈대(달대<sup>1)</sup>) 후리기 이야기



**김용봉** (1924년생)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



**김한제** (1931년생)  
청양군 청남면 서편길



**한상일** (1953년생)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

김용봉은 갈대(달대) 후리기가 성행이었던 1960년대까지 이 마을에서 가장 힘이 좋은 장사였고, 갈대 판에 뽐혀 다니던 갈대꾼이었다. 반면 한상일은 어린 장사로 갈대(달대) 후리기 말년에 현장에서 갈대를 후리던 막내였다.

**참으로 힘든 일**

김용봉 겪은 갈대(달대) 후리기는 『참으로 힘든 일』이라했다. 자신의 키만큼이나 큰 낫을 들고 금강변의 갈대밭으로 들어가 온 힘을 다해 휘둘러야 갈대가 베어진다. 그러기에 한번

1) 갈대의 인양리 말. 인양리에서는 이삭이 피지 않은 갈대라 하지 않고 달대라 하였음.

왕복을 하면 한참을 쉬면서 낮을 갈아야 했다 한다. 더구나 옛날 인양리 갈대밭은 참으로 넓었다. 현재 2천여 마지기에 달하는 마을 앞들이 대부분은 뽕밭이며 달대 밭이었다.

『왜 후렸느냐구? 돈 되니까 했지.』

넓은 갈대밭은 사람에게 유익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곳에서 채집하는 올챙이와 무릎 짝은 음식 재료였으나 수확량이 적고 작업이 힘겨워 식량이 되지는 못했다. 반면 달대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뽕감이었다. 더구나 외지인에게 팔면 돈이 되었다. 물론 벼농사에는 비할 수 없이 적은 수확이었지만 달대 두 짐 12다발의 가격이 장정의 하루 품삯에 가까웠기 때문에 달대 밭은 전통적으로 개인이 소유한 농사였다. 달대 밭을 소유하지 못한 장정들에게는 음력 7월부터 가을 벼 베기 시작 전까지 품을 팔 수 있는 돈벌이 판이었다.

이 마을에는 담안집은 1만여평, 천주봉 외 20호 정도가 4천여평의 달밭<sup>2)</sup>을 소유했으며 전체 달밭은 24만평에 이르렀다. 장정 1인이 잘 베면 400평 보통 300평을 베는 것을 감안 하면, 매년 장정 800명이 달대 후리는 작업에 품을 팔았으니 가난한 집안의 장정들은 1일 노동으로 돈을 벌고, 달밭 주인들은 달대를 팔아 돈을 벌어 마을 경제에 매우 중요한 소득원이었다. 달대 베는 작업을 주로 했던 시기가 음력 7월인데, 이 시기는 전통 농사에서는 일이 없어 놀던 시기였기에 마을 경제에 큰 영향을 끼쳤다.

### 쓸 데 많은 달대

인양리 사람들은 달대를 뽕감으로 사용하였다. 산이 적은 마을이기에 150여 호가 겨울 뽕감을 걱정해야 하는 마을이다. 뽕 나무를 위하여 멀리는 칠갑산 자락까지, 20리(8km) 이상을 오가야 했기 때문에 달대의 많은 양을 뽕감으로 사용하였다. 이 밖의 용도로는 움막을 짓는 재료로 사용했고, 김장독을 땅에 묻고 추위를 막기 위해 짓는 움막의 재료로 사용되었으며, 지붕 해이는 작업에 군새<sup>3)</sup> 박기에도 사용하였다.

같이 타동 사람이 인양리에서 갈대를 사가는 경우에도 뽕감으로 사용하는 집들이 많았다. 이 외에 많이 쓴 것은 농사용 밭을 치는 재료다.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밭, 예를 들어 인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밭을 제작하기 위해서 사 갔다. 농사에 사용하는 갈대

2) 갈대후리는 대상의 갈대밭을 이르는 인양말.

3) 지붕 해이는 작업 시 많이 썩은 부분을 파내고 채우는 부분을 이르는 말.

밭의 경우 마을 사람들에게 밭을 엮는 일까지 맡겨 사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지붕 해 이는 재료로 쓰기도 했다. 갈대를 벗짚과 사용하여 이엉처럼 엮어 지붕을 이면 2-3년 동안 유지되어 갈대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물고기잡이에 사용하는 밭로 썼다. 물고기잡이 중에 물을 품어 잡는 현장에 물고기가 도망 못 가도록 치는 밭이다. 곡식을 말리는 멍석 대용의 밭로도 썼다. 갈대 즐기만 모아 네모 모양의 밭을 짜서 곡식을 말리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 갈대(탈대) 후리는 시기

음력 7월 하순에서 8월 중순까지. 가을 농사일이 시작되기 전에 끝낸다. 한여름의 농한기라 부르는 시기에 하는 것이다. 일꾼은 각기 농가에서 일꾼을 얻어 벤다. 두 명이 한 조가 되어, 적으면 6명 많으면 12명 정도가 일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자루가 긴 갈대 낫 (자루 길이 170cm. 낫날 길이 75cm)을 사용하며, 2인 1조로 양편에서 서로 안으로 베어 나간다. 먼저 나가는 사람은 갈대를 후려 모아 서 있는 갈대에 기대어 놓고 나중 나가는 사람이 바닥까지 벤다. 벤 갈대는 쓰러진 대로 두고 말린다. 언제나 소리를 하면서 베는 것은 아니다. 당일 일에 여유가 있을 때 부르는데 선소리꾼이 선소리를 먹이면 다른 일꾼들이 후렴을 하는 일노래다.

갈대는 베어 놓은 상태로 자연광으로 3일을 말리며, 묶는 것은 장정이 6단을 질 수 있을 정도, 크기로 묶는다. 묶는 작업은 별도의 끈을 사용하지 않고 갈대잎으로 묶는데 이를 ‘제매끼’라 한다. 묶은 단은 벤 자리에 十 자형의 누리<sup>4)</sup>를 지어 추가로 말렸다.

갈대를 묶어 놓으면 장정들이 지게나 소를 이용해서 운반하여 주인이 원하는 곳에 옮긴다. 장정은 한 번에 6단을 져 나르고 소를 이용할 경우 실태바리<sup>5)</sup>를 엮어 12단을 운반한다. 운반해온 갈대 단은 빗물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 큰 무더기로 누리를 지어 보관하였다가 초겨울에 판매하였다.

이 마을의 선소리꾼으로 가장 유명했던 사람은 윤영학이다. 1895년 경 출생자인 윤영학은 소리에 능하고 노래 부르기를 즐겨 『윤영학이 갈대 후리는 날은 노래를 부른다.』는 말이

4) 낫가리의 인양말.

5) 소지게, 질마 위의 틀을 이르는 인양말.

회자 되었다. 같은 시기를 산 윤정학도 선소리를 잘하고 즐겼다.

청양의 갈대(달대) 후리는 소리가 대외로 소개된 것은 유진영 때문이다. 갈대(달대) 후리기가 사라져 노래도 잊혀질 때 윤정학에게 소리를 배운 유진영이 놀이판에서 자주 불렀다. 이후 MBC 우리소리를 찾아서, 1997년 공주대 한상각 교수의 채록에 녹음하여 현재의 갈대(달대) 후리는 소리가 전승되는데 기여하였다. 현재 갈대(달대) 후리는 소리의 선소리꾼은 김한제다.

### 달대꾼들에게는 특별대우

『그래도 달대 일꾼으로 가는 건 좋았어. 다른 일은 하루에 쌀 스되 버는디 달대 일을 가른 어떤 일이던지 달대 한 짐을 더 줬어. 먹매두 좋았구.』 갈대를 후리는 작업은 대형 낫을 휘두르는 낫질이며, 옮기는 작업은 지게질이다. 모든 작업이 매우 힘든 노동이라서 기피 할 만하였지만, 일꾼으로 품팔이를 하는 것을 꺼리지 않은 것은 특별한 대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갈대와 관련된 작업의 각 과정에서 인부로 품팔이를 하는 사람에게는 장정 1인에게 달대한 짐을 품삯 외로 더 주는 관행이 있었고 달대 한 짐은 장정의 한나절 품이었기 때문이다. 음식도 넉넉하게 제공하였다. 일이 힘든 작업이라 해서 아침, 점심, 저녁 3식과 오전 오후 새참을 제공했으며 새참은 국수, 술은 넉넉했고 끼니에 동태나 돼지고기 찌개가 제공되었다.

『가을이 갈대밭이 들어가면 근사하.』

마을에서 인양나루로 가는 갈대밭의 가을 정취는 남달랐다. 한번 숨으면 찾을 수 없는 갈대 밭이라서 한국전쟁 때는 김용봉의 집으로 피난 왔던 사람이 낮에는 갈대 밭에 숨어 있다가 밤에 나와 자고 가는 피난살이로 전쟁을 피하기도 했던 갈대밭. 인양리 사람들에게는 모두 추억이 많은 곳이고, 갈대(달대) 후리기는 어려운 세월을 이기게 해 준 고마운 일이었다.

●  
**왕진 용신제를  
 지켜온 사람들**



**김창환** (1929년생)  
 청양군 청남면 왕진리



**김근수** (1932년생)  
 청양군 청남면 가늌자길



**곽덕근** (1956년생)  
 청양군 청남면 왕진리

**왕진 용신제를 지켜온 사람들**

김창환과 김근수는 왕진리의 마을 고사인 정월 대보름의 용신제를 지켜온 인물들이다.

왕진리 용신제는 수백 년의 세월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지내온 전통의 마을 고사로 지금은 청양을 대표하는 마을 고사로 매년 청양 군수와 시의회 의장이 헌관으로 참석하는 고사다.

김창환은 1929년 4월 이 마을에서 출생하였다. 청양에서 소문난 대목수로 학교 건물을 짓기도 한 아버지 김동철과 어머니 남오례의 3남 3녀 중 차남으로 1만여 평의 논농사와 약간의 밭농사를 지으며 이 마을을 떠나지 않고 살아온 토박이다. 경주김씨로 이 마을에서 9



대를 이어온 토박이면서 대농이었다. 22살에 이귀숙과 혼인하여 2남 3녀의 자손을 두어 일가를 이루었다. 김창환은 현재의 나이가 91세임에도 아주 정정하며 정신이 맑아 마을에서 살아온 자신의 삶과 용신제에 대해서 증언하였다.

김근수 역시 1932년생으로 88세의 고령이다. 이 마을에서 19대를 이어온 광산김씨 집안의 사람으로 두 섬지기(4천평)의 농사를 지어 대물림 한 아버지 김영복(1895년생)과 어머니 박분순(1904년생) 사이에 2남 3녀 중 장남으로 평생 부모님을 모시고 왕진리에서 만 살았다. 김근수는 이 마을에서는 드물게 갈대(달대) 후리기에 직접 참여한 인물이다. 또한 마을에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지내온 마을 고사 『왕진리 용신제』를 평생 모셔온 사람이다.

### 왕진리는 인양리 금강변의 동쪽 마을이다

마을의 동쪽에서 남쪽으로 금강(錦江)이 흐르며, 동북쪽으로 잉화달천이 흐른다. 마을 뒤의 작은 야산은 소가 누워있는(臥牛) 모습이며, 마을 앞은 들이 금강의 제방까지 펼쳐있다. 자연 마을로는 솔미, 절골, 원왕진, 창현 등의 마을이 있다.

당초 왕진리 1개 마을로 총 238호의 큰 마을이었다가 2개리로 분구하여 현재는 80여호의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다. 마을의 뒷산은 소가 누워있는 형상으로 외양골산이라 부르는데 소의 입에 해당하는 부분의 작은 동산은 소의 밥그릇인 구수<sup>1)</sup>라 칭한다.

왕진리 마을의 중심에는 백제의 왕이 지나가다가 마신 우물이라는 설화가 전하는 샘이 있고 마을 사람들은 이 동네 샘에서 용왕제를 올린다. 이 마을에서는 이를 ‘유왕제’라 칭하였다. 해방 후 용왕제로 부르며 유왕제와 함께 사용한다. 유왕제는 공주 청양 부여에 금강변 마을에서 올리는 동네 고사의 지역 명칭이다.

정월 대보름에 용신제를 지내기 위해서 풍장 걸립을 하였다. 기본적인 고사 경비는 정월 초사흘에 각자의 정성으로 돈을 모은다. 그리고 부족한 돈은 집집마다 방문하여 복을 빌어 주는 걸립 풍장을 쳐주고 내는 쌀이나 돈을 모았다. 돈을 모으면 고사 물품을 구입하는 ‘장보기’를 한다. 대동계장이 젊은이들과 동행하여 첫새벽에 부여장에 나가 장사꾼이 진열한 물품 중 가장 좋은 것들을 깎지 않고 산다. 삼색실과인 과일 등을 사 오고, 나물류로 배추,

1) 구유의 충청도 말.

무, 녹두나물, 콩나물등은 마을에서 준비하였다. 정월 초이레 농기를 세우고 정월 열나흘에 우물을 소제하며 우물 위에 사다리를 놓고 상을 깔고 창호지를 덮은 후 고사 음식을 진설한다.

고사의 절차는 유교식이다. 동계장에 당하는 도유사가 초헌을 한 후 봉축을 하고, 이장이 아헌을 하며 종헌은 청양군수가 행한다.

이 마을에게 용신제는 아직도 마을 사람들에게 신앙이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 때 마을 사람이 한 명도 죽지 않았으며, 우물에 사람이 빠져 죽은 일이 없다 하여 미신타파 정책에도 굴하지 않고 매년 고사를 지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마을 고사는 점점 쇠락하였다. 사회적 분위기가 고사는 미신이라는 의식이 커 졌고 소득이 높아지면서 경제적인 면을 중요시하는 마을 풍토가 생긴 때문이었다.

용신제가 사라질 위기에서 되살려 내는데 기여한 인물이 곽덕근이다. 곽덕근은 이 마을에서 출생한 사람이 아니다. 1956년생으로 서천군 마산면에서 출생하였고 17세에 청남면 인양리로 이주하였다가 1978년에 그의 나이 24세에 왕진리로 이주하여 마을 사람이 되었다. 이주 후에 자신의 가정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했다. 현재는 논 2만여평, 밭 1천평의 대농이다. 곽덕근이 용신제를 살려 내려 노력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 였다. 젊은이들이 도시로 나가 마을에서는 비교적 젊은 장정이었던 곽덕근은 왕진리의 마을 유래와 대동 고사로 치러지는 용신제의 중요성을 자각하여 마을의 젊은이들부터 용신제를 다시 옛날처럼 성대하게 지내자고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 후 그와 젊은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용신제를 가꾸었고, 김창환 김근수 등 마을 어른들과 합심하면서 더 커졌다. 그리고 2004년경부터 청양군수와 군의회 의장이 현관으로 참여하는 큰 고사가 되었다. 현재 그는 타지에서 이사 온 사람이며 젊은 나이임에도 오래도록 마을의 동계장을 맡고 있다. 그리고 용신제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넘친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동네 용신제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영원히 이어졌으면 해유.』  
왕진리 주민들의 바람이 담긴 말이다.

## 서당 공부

이 마을에 오래 산 성씨는 광산김씨다. 입향 후 19대를 내려 마을을 처음 연 성씨로 보인다. 현재 광산 김씨 가문은 10여 세대가 마을을 지키며 살고 있다. 김근수 역시 광산김씨다. 자기 가문에 대해서 김근수는 남다른 추억이 있다. 광산 김씨 어른이 운영한 서당 공부를 했다는 것이다.

왕진리에는 서당이 3개나 있던 마을이고, 생년 미상의 김명수는 그의 사랑채에서 학동을 모아 가르쳤고, 현재 김오환의 사랑채 자리에서는 김창식 훈장이 학동을 모아 서당을 열었다. 이 마을에서 가장 많은 학동을 모으고 오래도록 서당을 열었던 김용철은 박규순, 조분, 김근수, 김주원, 김갑태, 강구식 등 16명의 학동을 모아 글을 가르쳤다.

김용철 훈장은 초학으로 계몽편, 동몽선습, 천자문을, 중학으로 소학과 통감을 대학으로 대학과 맹자를 가르쳤다. 마을에는 김용철 훈장의 덕을 칭송하는 비석이 전한다.

## 갈대를 후렸던 인물들

왕진1리도 갈대를 후렸고 김창환과 김근수는 젊은 시절 왕성하게 갈대를 후렸던 인물들이다. 이 마을의 김용상, 김인성이 5천여 평, 김명수가 7천여 평의 갈대밭을 관리하였다. 갈대 후리는 시기, 작업의 상태 음식의 제공 등이 모두 인양리와 같지만, 인왕리에서 수확한 갈대는 외지에 판매가 목적이었으나 왕진1리는 팔지 않았다. 마을에서 땀감으로 사용했으며 소수의 농가가 지붕을 해이는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이 다르다.

갈대 후리는 날과 묶는 날은 일꾼들에게 품삯 외로 갈대 한 짐을 제공하였고, 열두 모를 모아 누리를 쳐 두었다가 온전히 마른 후 들여와 집 인근에 큰 누리를 쌓아 보관하였다. 마른 갈대를 묶을 때 종아리 앞부분에 가마니 조각 등을 묶어 몸을 보호하였다. 갈대 후리는 소리의 후렴은 인양리와 같으나 선소리가 매우 약하여 선소리꾼도 후렴을 반복적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 한다.

●  
**얹은 경(국)으로  
 동네 고사를 올리고**



**강원형** (1934년생)  
 청양군 청남면 왕진리

**박순정** (1942년생)  
 청양군 청남면 솔뫼길

**전쌍진** (1931년생)  
 청양군 청남면 왕진리

본래 왕진리는 하나의 마을이었다. 강원형, 박순정, 전쌍진은 모두 같은 마을에서 태어나 마을이 나뉘는 과정을 함께 겪으며 살아온 사람들이다.

『원래 한 동네는 아녀. 두레두 각각 섰구, 동네 고사두 따루 지냈어.』

이 말은 조선조에는 각각의 마을이었다가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에 한 마을이 되었고, 마을이 커서 나눌 때 왕진 1리와 2리가 나뉘었다는 말이다.

**송산 두레의 터주대감**

왕진2리의 두레 이름은 송산두레였다. 왕진1리가 왕진 두레였으니 엄연히 다른 두레였

다. 강원형은 이 두레의 총각대방을 도와 젊은 두레 장정들의 일을 이끌었다.

강원형은 1934년 6월 왕진1리에서 태어나 한국 전쟁 후인 1955년에 이웃 마을인 왕진2리로 이주하여 지금까지 살아온 토박이다. 1900년생인 아버지 강기봉이 왕진1리에서 한 섬지기 농사를 짓던 중농이었고 순박하게 아버지를 보필하다가 51세에 사망한 어머니 서육례 사이에 3남 6녀 중 장남으로 부모를 모시고 평생을 살았다.

마을에서 부자 소리를 듣고 살아 온 아버지의 영향으로 강원형은 17살에 두레에 들었다. 본격적인 농사 품앗이 장정으로 나선 것이다. 아버지 강기봉은 언제나 『남에게 혐의를 사지 말어라.』라는 말로 함께 사는 삶의 가치를 입버릇처럼 말씀하여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한다. 이 영향으로 강원형은 두레 좌상을 비롯한 어른들의 뜻을 잘 받들어 평이 좋았다.

송산 두레는 논매기 공동작업을 1년에 1회만 하는 『한물 두레』다. 논매기 작업은 1년에 3회를 하는데 초벌과 두벌은 각자 일꾼을 얻어 매고, 만물 논매기만 두레 공동작업으로 하는 두레였다. 송산 두레 호수는 140여 호에 이르는 큰 두레였다. 제방이 쌓이기 전에는 홍수에 금강이 자주 범람하여 논농사를 망치는 해가 많았으나 김일선 등 대농이 많아서 논매기에 두레가 매우 성행하였다.

농기는 농자천하지대본에 영기는 청홍 2개를 썼고 마지막 두레 좌상은 김상복, 공원은 기억하지 못하며 두레 싸움은 왕진 두레와 자주 싸웠다. 두 마을의 두레 호수가 비슷하고 논이 서로 겹치는 일판이기 때문이다. 송산 두레에는 기운 센 장사가 많았다. 특히, 전씨로 불린 장사는 한 손으로 농기를 들고 다니는 장사여서 두레 싸움에 왕진 두레를 이기는 해가 많았다. 두레 벌은 벌주를 많이 주었으며, 농기에 두레 매를 달고 다녔다. 봄 두레는 못날 잡기, 품삯 결정, 신입 두레의 신고식을 행하였고 여름 두레는 두레 쌀을 나누고 종일 노는데, 17섬지기(6만8천여평) 큰 부자였던 김일선의 집 바깥마당에서 먹었다.

여름두레 먹는 날은 1년 중 마을의 가장 큰 잔치마당이었다. 오전에 논을 매고 김부자네 바깥마당에 모이면 종일토록 풍장을 치고 소리를 하며 함께 즐겼다.

### 얇은 경(경)으로 지낸 마을 고사

왕진2리에는 아주 독특한 마을 고사가 열렸다. 충청남도의 정형적인 전통 굿인 얇은 경으로 마을 고사를 올린 마을이다. 서서 하는 행위가 없이 모두 앉아서 하는 ‘얇은 굿’은 충

청도의 고유 굿 문화다. 그럼에도 앓은 곳으로 마을 고사를 지내는 마을은 흔치 않다. 그런데 왕진2리에서 앓은 경으로 마을 고사를 지냈고 박순정은 이를 좋아했다.

박순정은 밀양박씨 가문의 사람이다. 1942년에 왕진1리에서 출생하여 14세인 1955년 왕진 2리로 이주하였고 이후 지금까지 이 마을에 사는 토박이다. 1904년생인 아버지 박무성은 5천여 평의 논농사를 지어온 농부였고 박순정은 평생 부모를 모시고 살았다.

마을 고사로 올린 왕진2리의 앓은 경 고사는 마을의 중심인 현재 마을 회관 옆 삼거리에서 거리제로 지냈다. 정월 초사흘에서 대보름 사이에 택일하여 무가식 고사를 지내는 것이다. 유교식의 고사는 마을의 남자 어른들이 제관을 정하여 방안에서 제사를 지내듯이 술을 올리고 절을 하는데, 이 마을 고사는 무당을 불러 굿청을 차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굿을 구경하며 자신의 복을 비는 전통의 충청도 무속으로 동네 고사를 올린 것이다.

전년도 선달그믐 경에 마을에서 거리제를 지낼 것을 결의하고 무당을 초빙한다. 날짜는 무당이 택일하는데 대부분 정월 초사흘이었다. 고사 경비를 정하면 무당이 진설 음식, 고사 터의 정리와 꾸밈을 모두 주관하여 경청을 벌이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이를 보았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돈을 놓고 자기 복을 빌 수 있었다. 회동, 송산, 솔뫼 3개 마을이 참여하였다. 무당의 신기로 신을 불러 대에 실으면 먼저 마을의 운을 점치고,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 예견되면 굿으로 풀어낸다. 그리고 굿청에 참여한 사람들 중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이를 풀었다. 평범한 사람들은 1년 동안의 평운을 비는 안택 고사를 올렸다.

### 마을의 큰 스승 송제 선생의 추억

전쌍진은 집에 나이 90인 1931년생이다. 나주 전씨로 이 마을에서 10대를 내려 산 집안에서 태어나 제주도에서 군대 생활을 한 외에는 모두 마을에서만 살아온 토박이다. 아버지 전재원은 1903년생으로 평생 왕진리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물고기를 잡아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즐겨 하였으며 자식에게는 온화한 사람이었다. 어머니 김선분과는 2남 2녀를 두어 『자식으로는 밑지지도 남지도 않았다.』는 농담을 잘하였다.

전쌍진은 이 마을에서 서당을 열어 학동을 가르친 송제 선생에 대해 남다른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다. 전쌍진은 이 마을의 마지막 서당에서 송제 선생에게 한학을 배웠다. 집안이 넉넉하지 않아 오래 배우지 못하였지만 넉넉하고 인품이 높았던 송제 선생에 대해서는 오

래도록 존경의 마음을 품고 살았다 한다. 이 마을에 오래 산 성씨는 전주이씨, 경주 이씨 등이 일찍 입향하여 마을을 이루었다. 두 성씨가 모두 이주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며 15대 정도를 살아왔고 전쌍진의 가문인 나주 전씨는 10대를 살았다. 송제(松齊) 선생의 조씨 가문도 대를 이어 살았는데, 송제 선생은 젊은 나이부터 서당을 열어 마을 사람들에게는 『태어 날 때부터 훈장이었고 나이 먹어서도 훈장』인 사람으로 통했다. 아주 오랫동안 학동을 가르친 마을의 스승인 셈이다.

송제 선생은 초학으로 계몽편, 동몽선습, 천자문을, 중학으로 소학과 통감을, 대학은 사서삼경(四書三經)을 가르쳤다. 마을에 있는 송제 조 선생 추모비가 있는데 이 비석에는 오연태, 김태제 이완식 등 17명의 제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며 많을 때는 학동이 40여명에 이르렀다. 제자 중에서 관료, 선생, 한의사 등이 배출되었다.

『청남은 글줄이 깊어. 옛날이는 정산향교에 절반이 청남 사람이라구 했었어.』

송제선생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과 학문하던 마을이라는 전쌍진의 자존심이 빛나보였다.

### 왕진리의 갈대(말대) 후리기

왕진2리의 갈대(말대) 후리기는 거의 관련이 없는 마을이다.

마을 앞에 갈대가 적어 여름 푸작나무<sup>1)</sup> 외에 갈대를 베는 사람이 없었다. 일제 강점기 갈대밭을 임자 없는 땅이라 하여 일제가 이를 적산 땅으로 묶고 관리인을 두어 관리하게 하였다. 이 시기부터 왕진2리 사람들은 오히려 관리인의 눈을 피해 갈대를 베어다 땀감으로 사용하는 양이 늘었다. 해방 후에도 이 기조는 이어졌으며 갈대밭 관리인이 없어 자유롭게 갈대를 베었다. 갈대를 베어 팔지도 않았고 일꾼을 얻어 베는 사람도 없었으며 노래도 부르지 않았다.

1) 여름에 잡초, 산야초 등을 베어 말려 땀감으로 사용하는 나무 관습을 이르는 말.

●  
설화와 배종사의 마을  
중산리



**우 종 실** (1940년생)  
청양군 청남면 명덕로



**이 창 무** (1942년생)  
청양군 청남면 중외안길



**윤 정 군** (1941년생)  
청양군 청남면 중산리

### 홍수에 떠내려 온 산 이야기

우종실은 단양우씨로 1940년 12월 중산리에서 출생하여 군생활을 제외한 모든 기간을 중산리에서 살아온 토박이다. 논농사 6천여평과 밭농사 5백여평에 의지하여 평생 동안 농사를 지어 온 농부였다. 1909년생으로 역시 농사를 지어 온 아버지 우쌍룡과 1915년생 어머니 윤묘순의 5남 3녀 중 차남으로 고향을 지키며 살아 왔다. 오래도록 마을의 지도자로 살아왔으며 지금도 마을 일이라면 열정을 다하는 80세의 열혈 노익장 우종실은 『홍수에 떠내려 온 산 때문에 중산리라는 이름이 생겼다.』면서 마을의 설화를 재미있게 이야기했다.

마을에 올피(內山)라는 산이 있다. 당초에 올피가 없었는데 큰 홍수에 충북 청주에서 떠



내려왔다 한다. 세상에 없는 홍수에 금강으로 떠내려가던 산이 이 마을 앞에 걸려 멈추었다. 이를 이유로 마을 사람들은 없던 땅이 생겼다 하며 좋아하였는데 청주 사람들이 쫓아와서 『우리 동네서 떠내려간 산 때문에 이 동네 땅이 넓어졌으니 도지<sup>1)</sup>를 내라.』 했다는 것이다. 산이 생긴 것을 반겼던 중산리 사람들은 그 요구를 받아들여 매년 도지를 보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 몇 년간 도지를 내지 못하자 청주 사람들이 충주 관찰사에게 소송을 냈다. 관찰사가 전후 사정을 들은 후 청주 사람들에게 『중산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 올피를 다시 가지고 가거라.』라는 판결을 내렸고 산을 옮겨 갈 수 없는 청주 사람들이 더는 도지를 달라 하지 못했다는 설화다.

산이 하나 였으면 가운데 산이라는 중산(中山)을 동네 이름으로 쓰지 않았을 것인데 올피(內山)와 송산(松山) 사이에 산이 높아 이를 중산이라 한 것이 마을 이름의 기원이라는 얘기가 있다.

### 청남 유일의 배 종사자 이야기

이창무는 이 마을과 금강과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 놓았다.

이창무는 1942년생으로 이 마을에서 12대를 이어 살아온 전주이씨 가문의 사람이다. 이창무 역시 강원도 홍천의 군생활 외에는 마을을 지켜온 토박이로 4천평의 논과 3백평의 밭 농사에 의지하여 살아왔다. 1919년생으로 역시 농사를 지으면 평생을 살았던 아버지 이희관과 1920년생 어머니 이효순의 3남 3녀 중 장남으로 평생 부모를 모시고 고향을 지켜왔다.

중산리는 강변 마을이라기보다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마을 뒤 태평산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중산(中山)이라 하여 지명이 생겼으며 마을 앞으로 잉화달천(仍火達川)이 흘러 금강으로 유입되고, 금강(錦江)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른다. 대부분 낮은 구릉과 평지이다. 자연 마을로는 산에 부엉바위가 있어서 태평하다는 태평이 위 태평과 아래 태평으로 나뉘고, 옛날 방죽이 있었다는 건너 방죽안, 중피라는 이름으로 불린 중산리, 음달뜸과 터골은 마을이 있었다.

1) 땅 사용료.

중산리는 농업이 기반일 뿐 아니라 금강의 나무가 없었다. 인근 마을의 왕진 나무, 창강 나무, 독정 나무를 이용하였다. 부여로 오가는 것은 왕진 나무를, 공주를 오가는 것은 독정 나무를 이용하였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배로 사업을 하는 배종사가 있었다. 배종사란 큰 배를 가지고 물자를 운반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았던 사람들을 이르는 청양 공주지역의 말이다. 이 마을에 살았던 우기명이다. 그는 옹기를 구웠다. 처음에는 옹기를 만들어 상인들이 찾아오면 팔았는데 부여장이나 공주장으로 신고 가면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던 것을 알고 배를 지어 자신이 생산한 옹기를 실어 날랐다. 그리고는 점점 배 사업의 범위를 넓혀 옹기와 농작물, 장작 등을 강경과 군산으로 수송하는 영업을 하였다. 배가 커서 관에 차출되어 세곡을 운반하기도 하였다.

중산에도 농사를 짓지 않고 고기만 잡은 전문 어부는 없었다. 그럼에도 고기잡이는 인근의 마을보다 다양했다. 강살을 매어 보리 송어<sup>2)</sup>를 잡았으며 수수걸이로 게를 잡았고 낚시와 그물로 고기를 잡기도 하였다. 고기를 잡아 부여장에 팔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이 나누어 먹기도 했다.

### 문천(文川)이 흐르는 청남

윤정근은 지역의 양반 가문으로 이름이 높은 칠원윤문의 사람이다. 칠원윤씨로 9대 260여년을 이어 왔고 현재 15세대가 살고 있다. 청남에서는 칠원윤씨를 빼대있는 양반 가문으로 칭송하여 칠원윤씨 집안의 사위를 얻으면 자랑스러워했다 한다.

윤정근은 1941년에 출생하여 집에 나이 80임에도 건강이 좋으며, 서당 공부를 하여 『청남이 글밭이다. 정산 향교에 청남 사람이 절반이었다.』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주업은 농업으로 논 4천여평과 밭 1천평을 농사지었으며, 20대에 3년동안 서울 생활을 한 후 귀향하여 현재까지 마을을 지키며 살아가는 토박이다. 1915년생인 아버지 윤영화와 1920년생인 어머니 우현순의 3남 2녀 중 장남으로 부모를 모시고 살았다.

왕진2리에는 2개의 서당이 있었다. 중허 이회복 선생이 열었던 기곡 서당은 터골 훈장의 집 사랑채에 열었다. 초학으로 계몽편, 동몽선습, 천자문을, 중학으로 소학과 통감을 대학

2) 5월 보리가 익을 때 바다에서 강으로 회유하는 송어를 이르는 말.

은 맹자와 대학을 가르쳤다. 윤덕순, 윤종순, 조성식, 이상구 등 16-7명의 학동이 배웠으며, 이중 조성식은 청양군의 부군수를 지냈다.

윤정근이 배운 서당은 석천(石泉) 김기현(金箕鉉) 훈장이 열었던 중산 서당이다. 현재의 마을 회관 뒤 자신의 집 사랑채에서 가르쳤다. 언제나 여유가 있었던 석천 선생은 침을 잘 놓아 아픈 사람을 돌보고 학문이 깊어 결혼이나 약혼 등에 택일도 도와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인물이었다. 지금도 마을 회관 앞에 석천 선생 추모비가 있다. 초학으로 계몽편, 동몽선습, 천자문을, 중학으로 소학과 통감을 대학으로는 사서와 삼경을 모두 가르쳤다. 추모비를 세우는데 참여한 제자는 김승제, 김재우, 김종진 등 26명이며 제자 중에서 관료, 선생, 한의사 등이 다수 배출되었다.

### 여인들의 기우제를 흠쳐보던 악동 시절

세 사람이 가장 재미있게 이야기한 것은 기우제였다. 이 마을도 기우제는 여인들만 지냈다. 가뭄이 들면 여인들이 협의하여 마을 앞 왕진 나루 옆 물이 깊은 여울 앞에서 지냈다. 여인들은 고사를 지내러 나가면서 조용히 나간다. 다른 마을이 풍장과 양재기 등을 두드리며 요란하게 나가는데 중산리 여인들은 입에 백지를 물고 종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말없이 나간 것이 다르다. 고사장에 도착하면 풍장과 바가지, 대야 등을 두드리며 키로 물을 까부르고, 물싸움을 하며, 수수비로 물을 하늘로 뿌리며 비가 온다고 좋아하며 춤을 추는 등의 이상한 행동을 한다.

이상한 행동에 여인들이 옷을 벗고 물에 들어가 물싸움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를 알고 있는 동네의 남자 꼬마들이 이를 흠쳐보기 위해 몰래 따라다녔다는 것이다.

『보이기는 뭐가 보여. 껌껌해서 암것두 안보여.』 『안보인다는 걸 아는 게 나가는 나갔구먼.』 그런 후 나물 등의 고사 음식을 차려 놓고 고사를 지내고, 병에 금강물을 담아 머리에 이고 돌아오는 기우제였다.

### 중산리의 갈대(달대) 후리기

중산리의 갈대(달대) 후리기는 거의 관련이 없는 마을이다.

마을 앞에 갈대가 적어 여름 푸작나무 외에 갈대를 베는 사람이 없었다. 마을에 부자들

이 많아 농사일로도 일손이 부족하여 푸작나무로 베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 일제 강점기 이전에는 이 마을의 최성룡이 넓은 갈대밭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관리하지 않아 마을에서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꿀을 베는 장소였다. 갈대를 베어 파는 사람은 없어 노래도 부르지 않았다.

일사정이 아름다운  
천내리



**전 동 진** (1943년생)  
청양군 청남면 와현길



**윤 인 원** (1943년생)  
청양군 청남면 천내리



**김 홍 복** (1944년생)  
청양군 청남면 천내리

**금강이 아름다운 마을 천내리**

천내리는 청남의 북동쪽 쪽에 자리한 금강변 마을이다. 금강이 곧게 흐르다가 굽은 지역이라서 강변의 경치가 매우 수려하다. 옛날에는 금강의 제방이 없어 홍수가 지면 마을 앞 들이 물에 잠겨 농사를 짓지 못하는 땅이 많았으나 1960년대 제방이 완성된 후에는 들도 넓어져 살기 좋은 마을이라는 인상이 매우 깊은 마을이다.

마을 앞에는 늪은 느티나무로 이루어진 정자나무 바탕이 있고, 금강변에 일사정(一沙亭)은 마을과 강을 모두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원한 장소에 그림처럼 서있다. 이 아름다운 마을 옆 도로변을 지나면 들판이 시원스럽게 펼쳐져 있다. 마을 뒤로 봉이 낮고 선이 부드러운 구

산(龜山)이 있고 앞은 낮은 구릉지며, 마을의 동쪽에 북에서 남으로 금강이 흐른다. 자연 마을로는 저전동, 계전동으로 나뉘는데 이 안에는 닥밭골, 분텃골, 왜마루 등이 있다. 닥밭골은 한지의 재료인 닥나무밭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김홍복은 어려서부터 금강에 대한 애정을 안고 살아온 사람이다. 예안 김씨는 이 마을에서 16대를 이어 살아온 가문이다. 1만여평의 논과 1천여 평의 밭농사를 짓는 대농이어서 태어난 김홍복은 아버지 김지현부터 마을의 대농이라서 여유있는 살림에서 성장하였다.

이런 연유로 금강에서의 물놀이와 물고기 잡이 등을 즐길 수 있었다 한다. 옛날에 천내리 사람들이 이용한 금강의 나루는 닥반나루다. 닥반은 옛날 한지를 만들던 재료였던 닥나무가 많이 나는 고장이라서 닥반나루로 불렸다. 맞은편은 공주시 탄천면 견동리였다. 김홍복은 닥반나루를 건너면 탄천면 소재지와 가까워 학생들은 초, 중학교를 탄천으로 다녔고 주민들은 탄천장을 보았기 때문에 나루는 언제나 오가는 사람이 많았다. 이 나루에서는 사람이 죽어 치루는 상례에 상여를 나룻배에 싣고 오가는 것도 보았다 한다. 견동리와 천내리의 양 마을에 친척이 나뉘어 사는 집안이 많아서 상여가 나룻배로 금강을 건너는 일이 잦았다는 것이다. 다른 지역에서 흔히 행해지지 않은 귀한 민속이다.

천내리에도 농사를 짓지 않는 전문 어부는 없었다. 그렇지만 금강의 고기잡이 문화는 인근의 마을보다 풍성했다. 김홍복이 어렸던 시절에는 100m 길이로 강바닥에 살을 매고 그 안에 들어오는 고기를 잡았다. 이를 강살이라 이르는데 송어와 잉어가 많이 잡혀 부여장이나 탄천장에 내다 팔았지만 김홍복은 강살을 매는 곳에 가서 어른들이 고기를 잡는 모습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즐거운 일이었다 한다. 지금은 논이 된 마을 앞 들에 방죽이 많았는데 방죽마다 고기가 많아 마음만 먹으면 잉어, 붕어, 메기, 가물치, 장어, 바가사리, 우렁, 게 등의 고기를 잡을수 있었다. 특히 모시조개, 칼조개, 말조개가 흔해서 청소년 시절부터 물고기잡이는 중요한 여가활동이었다.

### 천내리의 상징 일사정

천내리의 일사정은 마을 어디서나 보이고 일사정에서는 시원한 금강과 마을 그리고 들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에 세워졌다. 이 일사정에는 전동진의 조상인 퇴암(退庵) 전석우(田錫禹) 선생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1500년대에 문과에 급제한 후 내외 요직을 두루 거쳐 이조

참의에 올랐다가 퇴직하고 천내리 고향으로 돌아와 1548년에 일사정을 지었다. 정자에서 바람을 맞아 달빛을 즐기며 한가롭게 오가는 세월을 영위하였다. 또한 서당을 열어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큰 낙으로 알았다. 지금의 일사정 앞에는 퇴암 선생이 어린시절 공부를 하면서 종이가 부족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돌 위에 글을 썼고, 노년에는 학동들이 공부하는 글씨 판으로 삼았다는 습자반석(習字盤石)이 남아있다.

전동진은 이 마을에서 18대를 내려온 담양전씨의 집안에서 1943년에 태어나 한 번도 마을을 떠나지 않고 살아온 천내리 토박이다. 논 70마지기(1만4천평), 밭 1천여평의 많은 농사를 지으며 마을을 지켜 온 사람이다. 그의 아버지 전철규 역시 이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았다. 대를 이어 살아 온 전동진은 마을에 가문의 치적을 정리하고 투자하는데 열정이 높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일사정을 중건하였으며 일사정 정자나무 아래에 집안의 제단을 모았고, 담양전씨 참봉이하 육세 합단(潭陽田氏 參奉以下 六世 合壇)을 조성하고, 비석으로 제단기(祭壇記)를 기록하였다.

담양전씨 가문의 월담(月潭) 전배선(田培善)은 서당을 열어 학동을 훈육한 훈장이다. 월담 훈장은 학문이 높아 초학으로 계몽편, 동몽선습, 천자문을, 중학으로 소학과 통감을 대학은 사서삼경(四書三經)을 가르쳤다. 마을에 전훈장을 기리는 은사추모비(恩師追募碑)에는 김제천, 박영돈, 전영섭 27명의 제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3인의 훈장에 영향으로 이 마을에서 30명의 공무원과 한의사, 선생이 다수 배출되었다. 청남에는 문천(文川)이 흐른다는 자부심이 높다.

### 향토 양반 칠원윤씨 가문

이 마을에는 또 하나의 양반 가문이 있으니 노성 서원 윤증선생의 후예인 칠원윤씨 가문이다. 칠원윤씨는 천내리에서 15대를 이어 살아왔으며 현재도 5호가 살고 있다. 윤인원은 칠원윤문의 사람으로 이 마을에서 평생을 산 토박이다. 논농사 70여 마지기. 밭 6평의 농사를 짓는 대농이며 아버지 윤명기(1915년생)와 어머니 김안순(1915년생) 사이에 2남 4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평생 부모를 모시고 살았다.

칠원윤씨 집안에도 서당이 있었다. 윤인원의 조부 항렬이었던 윤제원과 윤자원이 서당을 열어 집안의 아이들은 물론 다른 마을의 아이들도 받아 훈육한 윤씨 집안의 서당이다. 윤제

원은 학문에 대한 이름이 높아 멀리 청양군 목면에서도 학동들이 찾아 와서 배웠고 윤자원 역시 근동의 학동들이 모여 많을 때는 40여명의 학동을 50년 동안 가르친 인물이다. 윤인원, 전동진, 전기진 등이 수학하였으며 이중 유진오는 동강서원에서 활동하였다.

### 마을의 전통을 이어 온 3인

마을 뒤 구산 시목골에 산신각이 있다. 정월 열나흘 밤에 유교식으로 고사를 올린다. 제주, 축관, 유사가 올리며 풍장꾼들이 조용히 풍장을 올리며 산신각으로 가서 초헌, 봉축, 아헌, 종헌 후 소지를 올렸다. 소지는 호별 건명대주(戶主)와 곤명대주(長男)의 소지를 모두 올렸으며 기타는 자기 소지를 자기가 올렸다. 음복 후 풍장을 치며 돌아온다. 정월 초이레에 농기인 대본기(大本旗)를 세우고 정월 보름에 내렸으며, 산신제 전 마을의 우물을 청소하고 작은 샘 고사를 지냈다.

세 사람 모두 천내리의 두레꾼으로 활동하였다. 천내 두레는 논매기 공동 작업을 1년에 1회만 하는 『한물 두레』다. 홍수가 나면 현재의 도로 밑으로는 벼를 수확하지 못하는 해가 많아 두레 활동은 많지 않았다. 제방 축조 후 물이 안정되어 들이 넓어졌다. 농기는 농자천 하지대본에 영기는 백색 2개를 썼고 마지막 두레 좌상은 1908년 경 출생자인 김승영이다. 두레 풍장의 상쇠는 전철규, 부쇠 유재민, 윤병옥, 장구는 윤병기, 윤종구. 북 윤정근, 유준영이 쳤다. 잡색은 여장 남자와 노인(거짓 양반)을 두었다. 봄 두레는 못날 잡기, 품삯 결정, 신입 두레꾼의 신고식을 행하였고 여름 두레는 두레 쌀을 나누고 종일 놀았다.

### 갈대(달대) 후리기

천내리의 갈대(달대) 후리기는 갈대밭도 적고 갈대를 베는 일도 적었던 마을이다. 일꾼을 얻어 갈대를 후리지 않았고 노래도 부르지 않았다. 여름 푸작나무로 사용하였다. 이외에 홍수가 들어 가을 추수를 하지 못하고 벼짚이 귀하면 갈대를 후려 지붕을 해 일었다.



● 명덕산의 품에서 사는 사람들



**윤병두** (1932년생)  
청양군 청남면 청소리



**전성근** (1943년생)  
청양군 청남면 명덕로



**김승제** (1938년생)  
청양군 청남면 명덕로

**명덕산의 당산제 그리고 광복 풍장**

청소리는 인양리 북쪽에 자리한 창남면의 면 소재지 마을이다. 마을 중심으로 잉화달천이 흐르고 마을 뒤로는 명덕산(明德山)이 있으며 마을 앞은 들이다. 지리적으로도 청남면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금강과는 4km 정도의 거리에 자리 잡은 마을이다. 자연 마을로는 내안말과 천내의 냇말, 마을 앞에 있던 큰 방죽의 방죽골과 방주안골, 맑은 소(溜)가 있는 곳이라는 청소(淸鄒) 등이 있다. 청소리 사람들은 면소재지에 산다는 자부심이 있으며 타지에 나간 사람들조차 명덕산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고 말한다. 외지인들에게는 청양 청남 사람이라고 소개하지만 청남 사람들에게는 명덕산 아래 산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서울에 있는 천내리 출신의 향우회 이름두 명덕회라.』 윤병두의 이 말은 천내리 사람들이 명덕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하는 말이다.

이 산에서 당산제가 올려 졌었다. 천내 1.2리 모든 주민이 함께 올렸다. 명덕산의 청소1리 편 산의 하단에 당산제 터를 마련하여 열렸는데 산속이 아닌 야산의 공터였다. 매년 정월 대보름(14일)에 초저녁에 올린다. 당산제를 올리는 해에는 정월 초이레부터 풍장꾼들이 가 가호호를 돌며 복을 빌어 주고 쌀이나 돈을 받아 고사를 지내는 걸립 풍장을 시행하였다. 고사마당에는 하루 전에 장정들이 해다 놓은 나뭇짐 5짐 이상이 쌓였다. 불을 놓았을 때 ‘탁 탁’ 튀는 소리를 내면서 타는 노간주 나무를 포함해 놓고 커다란 동네불(洞火)을 피워 놓고 올리는 고사였다. 고사상에는 돼지머리, 삼색실과, 주과포, 흰무리 떡시루 등을 진설하였다. 고사 방식은 강신례, 초헌, 봉축, 아헌, 종헌을 이어가는 유교식에 주술적인 고사 축원과 술밧노인이 무당처럼 기원하며 소지를 올리는 무가식을 더한 방식이었다.

제관은 동계장이 하였고 축관은 한문의 학식이 있는 사람이 매년 행하였으며, 고사 음식을 준비하고 고사를 주관하는 유사는 매년 대상자의 생기복덕을 보아 매년 새로 정했다. 이 고사에서는 매년 백장 이상의 소지를 올린다. 소지를 올리는 방법에 따라 나누는 분류는 네 가지다. 첫째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동네 소지, 둘째 매 호의 호주의 복을 비는 건명 대주소지, 셋째 결혼하여 한 집에 사는 아들의 곤명대주 소지를 모두 올렸으며, 넷째 나머지 사람들 중 고차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올리는 자기 소지였다. 복을 빌며 소리를 올리는 것은 힘든 일이라서 소지 잘 올리는 사람을 정해 올렸다. 이는 술밧 노인과 막골 노인이 반 무당 소리를 들을 만큼 소지를 잘 올렸다.

윤병두의 증언 중 매우 의미있는 내용이 광복 풍장이다. 광복 풍장은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기쁨으로 여러 마을 풍장패가 면사무소에 찾아가 함께 친 풍장을 이른다. 수없이 많은 풍장꾼들이 한꺼번에 풍장을 치고 청소리를 한 바퀴 돌고 면사무소로 몰려가서 만세를 불렀다. 이 마당에서 미당리의 이무생이 청남 최고의 상쇠라는 칭찬을 들었다. 광복이 이미 75년 전의 일이라서 채록에 증언이 되기 어려운데 윤병두의 증언은 청남면민들이 해방을 어떻게 맞이했는지를 알게 하는 중요한 일이다.

### 기우제와 천내 삼두레의 추억

전성근은 담양정씨 가문에서 1943년 출생하여 경기도 동두천에서 군 생활을 한 외에는 모두 이 마을에서만 살아온 토박이다. 14마지기(2천8백평)의 논과 8백여 평의 밭농사를 지었으며 1900년생인 아버지 전판학과 부여 석성에서 시집온 어머니 김시중을 모시고 고향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다.

전성근이 기억하는 청소리의 기우제는 남녀가 함께하는 특징이 있다. 대부분의 마을 기우제가 여자들만 올리는데 청소리 기우제는 낮에 남자들이 가래와 삼을 동원하여 뜰<sup>1)</sup>을 치고 밤이면 여인들이 청소리에서 왕진 나루터까지 나가 기우제를 올렸다. 여인들의 기우제 지내러 가는 길은 다른 행렬과 다르다. 평소에는 여인들이 풍장을 치지 않는데 이날은 풍장을 쳤으며, 양재기, 대야, 물병 등을 요란하게 두드리며 행진했다. 왕진 나루터에 나가면 여인들이 키로 강물을 하늘로 뿌리며, 모래를 까부르고 물속에 들어가 목욕을 하는 등 요란한 사전 의식을 치렀다. 여인들이 정신없이 행동하는 것을 본 하늘이 정신 차리라고 비를 내리준다는 염원 때문이라 한다. 사전 의식이 끝나면 시루떡, 나물 등의 고사상을 차리고 고사를 지냈다.

이 마을에는 윤씨 부잣집이 있었다. 훗날 윤씨 집안에서는 국회의원을 배출하기도 하였는데 마을 사람들에게 후덕한 부자였다. 청소 두레에도 영향을 주어 두레가 성하였다. 그리고 기우제 지내는 날 남자들이 뜰을 칠 때도 음식과 술을 대접하였다. 봄 두레와 맥이두레<sup>2)</sup>는 논매는 두레쌀을 후히 내놓아 언제나 관계가 좋았다. 마지막 좌상은 수 좌상에 윤계원, 공원 좌상에 우복명, 좌상에 여만섭이며, 마지막 공원은 윤병두였다.

윤병두의 집에는 삼농사를 많이 지었다. 『홍수가 나서 강물이 들어오면, 인왕리에는 갈대만 보이고 청소리에는 삼대만 보인다.』는 말이 회자 될 만큼 청소리에 삼밭이 많았다. 삼은 삼베를 짜는 재료 식물이다. 삼대에서 껍질을 벗겨 실을 내어 삼베를 짜는데, 여인네들이 마당 넓고 방이 큰집에 모여 품앗이를 하였으며 이를 ‘삼두레’라 칭했다. 청소리 삼베 작업 과정은 삼찌기<sup>3)</sup>, 삼 삶기, 줄기 벗기기, 마전질<sup>4)</sup>, 널이(말리기), 짚기, 삼기, 매기, 사리기 등이며

1) 물길

2) 두레꾼들의 여름두레 먹는 날 음식 값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작업을 이르는 말. 맥배두레와 같음.

3) 삼을 베는 작업을 이르는 말.

4) 삼 껍질을 하천에서 빠는 작업.

명 품앗이는 날이부터 사리기까지 공동으로 행하는 작업이다. 베 실을 베틀에 걸어 베를 짜며 베 짜는 일은 각자 짠다.

### 구일 차사와 잉화달천의 계발 이야기

김승제는 예안김씨다. 1938년생으로 82세의 고령이나 몸이 건강하고 정신이 맑아 마을의 대소사를 정확하게 증언하였다. 김승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청소리를 아끼는 애항심이 두텁고 스스로 그 마을을 지키며 살아온 세월을 자랑스러워 하는 인물이다.

김승제가 기억하는 마을의 중요한 일은 『구일차사』였다. 구일차사는 이 마을에만 있는 마을 제사다. 옛날에 백춘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함양 여씨 집에 머슴살이로 이 마을에 들어왔고 머슴살이 후에는 고향으로 가지 않고 이 마을에서 살았는데 장가가지 못하고 혼자 살다 죽었다. 죽을 당시 땅(200여평)과 집등의 재산을 마을에 회사하였다. 또 한 사람, 신 첨지로 불린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자손을 두지 못했고 가까운 친척이 없어 양자도 들이지 못하고 혼자 살다 죽었는데, 자신의 집터와 땅을 팔아 당시에는 큰돈이었던 450만 원을 마을에 회사하였다. 마을에서는 이 두 사람을 마을장으로 공동묘지에 장례를 치렀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무덤을 매년 별초하고 제사를 올려주고 있다. 매년 음력 9월 9일에 올리는데 이를 구일차사라 칭한다.

김승제가 추억하는 잉화달천의 계잡이는 정월 초하룻날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가을에 계발 농을 곳을 설날 새벽에 나가 자리를 잡었어.』

『왜요?』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니께.』

금강하구둑이 막히기 전 잉화달천에는 가을 계잡이가 성행하였다. 가을에 잉화달천에 계발을 치면 하룻밤에 백여 마리의 게가 잡혔고, 게는 비싼 가격에 거래되었다. 그런데 계발을 칠 장소가 정해져 있었고, 먼저 자리 잡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어서 설날 새벽부터 계발 칠 곳을 정해 놓는 풍습이 있었다 한다.

●  
**인양리의  
 갈대(달대) 후리기  
 재현**



**한상봉** (1956년생)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한상봉은 1956년 생으로 청양의 토박이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가던 한상봉은 지역에서 사물놀이와 윷다리 농악을 시작하면서 생활을 일신하였다. 민속예술이 미약한 청양에 농악을 살려내기 위해서 스스로 농악의 강사 자격을 획득하고 강사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청양문화원의 윷다리 농악 교실을 개설하였고 스스로 주민자치센터 등에 강사로 활동하였으며, 청양을 윷다리 농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을 인정받아 청양 국악협회 지부장을 역임하였다.

그러나 윷다리 농악이 청양의 고유 농악이 아니며, 경기도 충청남북도의 광범위한 고장에 분포하여 청양의 중심 민속으로 육성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청양에만 있는 향토 문화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찾아낸 것이 청남면 인양리의 『갈대(달대) 후리는 소리』다. 이 소리가 타 지역에는 없는 전국 유일의 향토민요임을 알았다.

갈대(달대) 후리는 소리는 1) 중앙대학교 임동권교수의 채록. 2) 잃어버린 소리를 찾아서 한상일 피디의 음원 3) 공주대학교 한상각 교수의 채록 조사. 4) 공주 향토 사학자 이걸재의 채록 등으로 음원 자료가 있으며, 인양리의 김한제 등이 소리를 전승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이를 살려내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인양리의 갈대(달대) 후리기는 1970년 이후 50년 가까이 단절된 민속이었다. 인양리 주민들조차 이 소리를 되살려내는데 부정적이었다. 이에 한상봉은 우선 갈대(달대) 후리는 소리를 복원하기 위하여 음원 자료를 바탕으로 혼자 연습하기 시작하였고, 기본을 익힌 후 인양리 김한제에게 지도 받아 소리를 복원하였다. 소리 복원을 마친 한상봉은 청양과 청남 일원의 농악인들을 중심으로 『갈대(달대) 후리기 보존회』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청양문화원 등에서 무료 강습을 통해 보급하기 시작하였으며, 2017년에 청양읍내 소재의 『청신여자중학교』 동아리 활동으로 갈대(달대) 후리는 소리와 민속을 가르쳤다. 2016년부터 청양의 각종 축제에서 보존회원들과 함께 대외적인 공연 활동을 전개하여 본 민속이 청양의 고유한 향토 문화임을 알리기 시작하였고, 2020년에는 청신여자 중학교 학생들의 갈대(달대) 후리기 민속이 한국민속예술제 청소년부 충청남도 대표 민속으로 선정되었다.

현재 인양리 갈대(달대) 후리기는 청양신문사의 이준구 부장과 인양리에 거주하면서 갈대(달대) 후리기를 청양의 대표 민속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의욕이 높은 인양리 거주 한상일 등 3인이 혼신의 다해 노력하고 있다.

본 갈대(달대) 후리기 재현은 50년 이상 단절된 인양리의 갈대(달대) 후리기를 옛날 방식으로 되살려, 이론으로만 남아있는 민속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찾아내고자 청양문화원 주관으로 한상봉, 한상일, 이준구 등의 기획으로 개최되었다.

### 마을 축제로 열린 민속 마당

본 채록의 과정에서 인양리 주민들이 갈대(달대) 후리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마을 스스로 작은 축제를 열었다. 마을에서 술과 음식을 마련하여 함께 하였으며 마을의 노인 중 옛날의 두레 풍장을 연주하던 노인들이 두레 농악을 시연하여 채록하였다. 상쇠 김한제는 마을에 전승된 농악 중, 두레 풍장과 판재 풍장의 가락을 정확히 기억하여 시연하였다. 또한

상쇠 김한제의 지도로 1991년 충남농악 경연대회에 청양군 대표 농악으로 출연했을 당시의 농악 중 일부를 재연하였다. 당시 농악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청양 갈대(달대) 후리기 보존회의 상쇠이면서 예술의 지도 감독 한상봉이 주도하여 청양지역 전통의 두레 풍장과 정자나무 가락을 시연하였다. 가락이 평온하여 청양지역의 농악 정서를 잘 계승하고 있음이 느껴졌다.



‘갈대(달대) 후리기’ 재현 모습

#### 갈대(달대) 후리기의 재현 행사 - 작업 재현 영상, 채록

청양문화원장의 취지와 과정 설명, 주요 내빈으로 청양군의회 부의장, 청양군청 문화관광과장, 인양리 대동계장 등이 인사를 하였다.

이후 청양 청신여자중학교 학생 6명이 본 민속의 주요 예능인 갈대(달대) 후리는 소리와 갈대 짐을 지게에 지고 가며 부르는 ‘청남 지게질 소리’를 공연하였다. 이 소리는 갈대(달대)

후리는 소리 보존회 한상봉이 2020년 한국청소년민속예술제 청소년부에 충청남도 대표 민속으로 선정되어 사전에 청신 여자 중학교 학생들을 지도한 노래다.

학생들의 시연에 마을 사람들과 참여 내빈들 모두 호응하였다.

인양리 주민들이 한상일의 주도로 갈대(달대) 후리기를 시연하였다. 처음에는 오랜 세월 동안 하지 않던 일이라서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으나 오래지 않아서 작업의 방법을 찾아 나갔다. 2인 1조에 낫질에 상호 위험이 없는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낫의 무게를 이용하여 낫날이 45도 정도 위를 향하게 휘둘러 후리는 것이 효율적이다. 보도 자료를 위한 사진 동영상 촬영은 마을의 3인과 함께 이걸재의 연출로 진행되었다.

이어 보존회 한상봉 외 5명이 갈대(달대) 후리기를 시연하였다. 한상봉이 선 소리를 하고 일부 회원들도 낫질을 하지 않고 후렴에 함께 참여하였다.



# 홍성군

## ■ 홍성의 옛 장터

우리고장의 사라진 옛 장시 화양장터를 찾아서	648
우리고장의 사라진 옛 장시 송풍장터를 찾아서	652
우리고장의 사라진 옛 장시 반계장터를 찾아서	656
우리고장의 사라진 옛 장시 금당장터를 찾아서	660
우리고장의 사라진 옛 장시 광천 구장터를 찾아서	663
우리고장의 사라진 옛 장시 구항장터를 찾아서	667
우리고장의 사라진 옛 장시 백야장터를 찾아서	671
우리고장의 사라진 옛 장시 용호장터를 찾아서	675
우리고장의 사라진 옛 장시 결성장터를 찾아서	679
우리고장의 사라진 옛 장시 홍주장터를 찾아서	683

●  
**우리고장의  
 사라진 옛 장시  
 화양장터를  
 찾아서**



**박영길** (1952년생)  
 홍성군 금마면 죽림리

구술자인 박영길 씨의 아버지는 육이오 당시에 이북에서 가족들과 함께 월남했다. 작은 아버지와 함께 리어카에 짐을 싣고 월남하여 온양에 처음 정착했다. 이후 화양장터 앞에서 약방을 운영하는 분의 소개를 받아 이곳 금마면 화양장터 부근으로 거주지를 옮겨왔다.

구술자의 아버지는 이북에서부터 대장장 기술이 있었다. 대장장 기술을 이용하여 화양장터에서 대장간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철물점도 겸했다. 당시에는 농촌에 농업인구가 대부분이어서 대장간에서 만들어내는 다양한 농기구들이 잘 팔려나갔다.

구술자의 아버지는 대장간과 철물점 운영을 통해서 얻은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대장간 운영으로는 재산을 많이 늘리지 못했다. 친구와 술을 좋아해서 상당 부분을 술값 등으로 지출했다. 아마도 대장간과 철물점에서 벌어들인 돈을 착실하게 모았으면 상당한 재산이 되었을 것이다.

구술자인 박영길 씨는 어린 시절에 화양장터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대장간에도 자주 들락거렸다. 구술자는 아버지를 통해서 대장장 기술을 자연스럽게 이어받을 수 있었다.

구술자는 아버지로부터 대장장 기술을 이어받으며 함께 일을 도와드렸다. 이렇게 하여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대장간을 물려받았다. 한동안은 아버지와 함께 대장간과 철물점을 운영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혼자서 운영했다. 화양장이 폐쇄되고 나서도 대장간을 계속 운영했다. 1980년대까지도 대장간은 그런대로 유지되었다.

구술자는 어린 시절부터 화양장에서 활동했으므로 화양장의 번성과 소멸을 모두 목격했다. 이곳에서 대장간을 직접 운영했으므로 누구보다도 화양장의 모습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구술자가 기억하는 화양장의 규모는 대략 500여 평 정도였다. 화양장에 장옥은 4동이 있었으며, 장날은 장꾼들이 2백여 명 이상 몰려왔다. 화양장에서 파는 물건들은 옷·잡화·생선·과일·쌀과 곡식 등이 있었고, 떡집과 식육점이 2곳, 약방 1곳과 대장간 등이 있었다. 명절 때 떡집과 식육점 등에서는 줄을 서서 물건을 살 정도였다.

화양장은 배후지가 넓어서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 화양장은 주로 홍성장과 거리가 먼 금마면 신곡리, 가산리, 죽림리, 화양리, 흥북면 대인리, 노은리, 산수리, 용산리, 내덕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했다.

화양장터는 외지 상인들도 많이 찾아왔다. 외지 상인들이나 장꾼들은 우마차에 짐을 싣고 장터까지 나왔다. 당시에 우마차는 장터마다 짐을 옮겨주는 용달차 역할을 했다. 화양장터 주변에는 과수원이 있으므로 과일 등도 많이 팔았다.

화양장이 전성기 시절에는 난장과 씨름판도 운영했다. 장이 서지 않는 날은 가설극장도 들어왔고 추석 때는 장터에서 콩쿠르 대회 등도 개최했다.

당시 화양장에는 번영회가 있어서 자릿세를 받아 운영비로 사용했다. 운반장이라고 부르는 번영회장은 장터의 기강도 잡고 아이들이 함부로 장터에서 시설물 등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

화양장은 1950년대 중반에서 1960년대 중반까지 운영되었다. 이후로 화양장을 찾는 사람들이 서서히 줄어들고, 외지 상인들도 찾아오지 않으면서 소멸되었다.

화양장 소멸의 가장 큰 이유는 교통의 발달이다. 교통이 발달하고 먼 곳까지 이동이 쉬워지면서, 사람들은 화양장보다 홍성장을 많이 찾게 되었다. 화양장은 물건 종류도 다양하지 않고 물건 값도 홍성장보다 비싸므로 주변사람들로부터 외면받기 시작한 것이다.

구술자는 화양장이 소멸한 이후로 1980년대까지 이곳에서 대장간을 운영했다. 또한 이곳에서 만든 물건을 홍성과 광천의 철물점 등에 납품도 했다. 하지만 현대화의 물결은 더 이상 대장간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들었다.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농기구들과 가격 경쟁이 되지 않았다. 결국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운영하던 대장간과 철물점은 1980년대 이후로 문을 닫고 말았다.

지금도 대장간과 철물점 건물은 텅 빈 채 그대로 남아있다. 대장간의 여러 기구들은 고물상에 넘겼고 주요 물품들만 그 자리에 남겨놓았다.

현재 화양장터는 홍성군 소유로 되어 있다. 홍성군과 지역주민들은 화양장터를 지역주민들이 불하받도록 여러 번 시도했다. 홍성군은 화양장터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 용역을 주어 가격 감정도 실시했다. 아쉽게도 그때마다 주민들끼리 의견의 일치가 되지 않아서 성사되지 않고 있다.

참고로 1993년에 발간된 홍성군지 증보판 「홍성지방의 시장 발달사」(李憲昶, 경기대학교 경상대학 부교수) 편에 기록된 화양장터의 모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화양장은 1955년에 금마면 화양리 신촌마을에 화양장이 개설되었다. 신촌마을과 죽림리 사이에 있는 장고개 부근인데, 금마지서와 소방서 건물이 있는 도로변 주변이다. 이곳을 화양장 또는 신촌장이라고 불렀다.

당시 조사 내용에 의하면 내기와 신촌의 유지 십 명 정도가 기성회(期成會)를 조직하여 장시의 개설을 주도했다고 한다. 그 대표적인 인물은 내기에서 정미소를 경영한 정승해(鄭承海)와 농지개혁 전에 죽림리의 대지주인 윤남희(尹南熙)였다.

화양장의 건립에 동의하는 도장을 마을마다 받은 것으로 보아 정식으로 인가를 받으려 했던 것 같다. 천여 평의 부지에다 장옥 9동을 건립하였다. 화양장은 홍성(1.6일)과 삼교(2.7일) 사이에 있고 예산(5.10일)으로 가는 대로에 위치한 데다가 광천장날(4.9일)도 피해야 하기 때문에 3.8일로 장날을 잡았다. 장터 부근에 사는 우차(牛車) 운수업자 이태근(李泰根)에 의뢰하여 장날에 상인 4~5명이 주문한 물품을 새벽 일찍부터 홍성으로부터 운송해왔다.

다른 장과 마찬가지로 건어물과 생선의 행상, 포목행상, 잡화행상이 주종을 이루었다. 장터 안에서 정승해가 고무신 가게를 초기에 3년간 운영했고 이영순(李英順)이 1957년부터 지금까지 포목가게를 열고 있다. 잡화점이 두 채 있었고 철물점도 하나 있었다. 이영순은 화양장을 근거지로 하면서 기차를 이용하여 4·9일에는 광천장, 1·6일에는 홍성장, 2·7일에는 삽교장을 이용했다고 한다.

1950년대 후반까지도 장날에는 신곡리, 죽림리, 송암리, 덕정리, 월암리, 봉서리, 인산리, 부평리, 가산리, 송강리, 인후원리, 대인리, 노은리, 산수리, 용산리, 화양리, 내덕리의 주민 1~2백 명이 출입했다.

1950년대에 신설된 장시 중에는 화양장의 배후지가 가장 넓었고, 그 때문에 가장 오래 존속했던 것 같다. 1960년대에 들어가 장시가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 초에 화양장에 출입하는 행상과 지역주민은 1950년대 후반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1960년대 중엽에 장시가 소멸되었다고 한다. 화양장이 쇠퇴한 이유는 다른 장과 마찬가지로 상인이 적어서 물건의 구색이 갖춰지지 못하여 주민이 점점 외면하고, 그러다 보니 상인도 외면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1960년대에 버스 운행이 증가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이 늘어났던 것도 장시의 쇠퇴를 초래한 요인 중의 하나였다. (화양장에서 포목점을 한 이영순[李英順, 1922년생]과 금마면 사무소의 이제원[李濟元, 1933년생] 총무계장 등의 증언에 의거함)

●  
우리고장의  
사라진 옛 장시  
송풍장터를  
찾아서



**이상형** (1937년생)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송풍장에 관해 구연해줄 구술자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다. 여기저기 수소문해 본 결과 구술자 이상형 씨를 소개받았다. 송풍마을에서는 구술자가 제일 연로하고 직접 송풍장을 목격했다고 한다. 이상형 씨는 송풍장의 이모저모를 구연해 줄 적합한 인물로 생각되었다.

구술자 이상형 씨는 홍동면 운월리 송풍마을에서 나고 자랐다. 구술자는 20대 초반 한 때 고향을 떠나 홍성장에서 잡화장사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험 없이 시작한 잡화장사는 빚만 잔뜩 떠안고 말았다.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부인의 귀뜸에 의하면 외상을 많이 주고 돈을 받지 못한 것이 원인인 듯했다.

구술자는 옛날 빚진 얘기를 좀처럼 하지 않으려는 눈치였다. 빚을 잔뜩 짊어지고 홍성을 떠나 대구에서 살았다. 대구에서 부인은 보따리 장사를 하고, 구술자는 군속으로 들어가서 인쇄 일을 했다. 임시직이었지만 열심히 일하여 인정도 받고 정식 시험을 보아서 합격했다.

이후 다시 객지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작은 마트를 운영했다. 하지만 농협 등 주변에 대형 마트가 생기면서 또 다시 위기를 맞았다. 이번에는 업종을 바꿔서 철물점을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한 철물점을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운영하고 있다.

구술자는 스무 살 무렵 송풍장이 개설될 당시에 고향 마을에 살고 있었다. 송풍장이 처음 개설될 당시에 쌀장사를 시도하기도 했다. 처음 장이 설 때와 두 번째 장까지 쌀장사를 나섰지만 이익을 못 남기고 밀지고 말았다.

구술자가 쌀장사를 한 것은 일종의 되메기 장사였다. 시골에서 농민들이 갖고 오는 쌀을 사서 상회에 넘기는 장사였다. 하지만 되메기 장사는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았다. 송풍장에서 두 번 모두 밀지고 난 후로는 쌀장사를 접었다. 구술자의 동창 한 명이 송풍장에서 잣물장사를 하기도 했다. 동창은 그 뒤로도 한참 장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송풍장터는 신협 뒤쪽 하천가로 초등학교 부근까지 이어졌었다. 구술자가 기억하기로는 송풍장을 번영회에서 주관했다. 송풍장의 다른 이름으로는 송평이장이라고도 불렀다.

송풍장을 처음 개설할 때는 난장을 벌였고 씨름판에서는 송아지를 우승 상품으로 걸었다. 당시에 충청도 인근에서 이름 있는 씨름꾼들이 와서 씨름을 했다. 아이들과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씨름도 함께 열렸다. 구술자도 씨름대회에 출전했다가 1회전에서 탈락했다.

송풍장은 의류·잡화·닭장사·계란장사·쌀장사·그릇장사 등 다양한 물건들을 팔았다. 처음 개장할 당시에는 소전도 열렸다. 개장하는 날에 소 한 마리가 거래되어서 두고두고 화제가 되기도 했다. 구술자는 송풍장이 대략 5년 정도 운영되다가 소멸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아쉽게도 구술자로부터 송풍장에 대한 기억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다. 송풍장의 옛 모습을 구연해줄 또 다른 주민도 찾을 수가 없었다. 구술자보다도 연세가 많거나 송풍장을 잘 알고 있는 지역 토박이 주민이 없었다. 송풍장에 대한 구술채록은 이렇게 마무리 하고, 옛 기록을 참고하는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

1993년에 발간된 홍성군지 증보판 「홍성지방의 시장 발달사」(李憲稔, 경기대학교 경상대학 부교수) 편에 기록된 송풍장터의 모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송풍장의 개설은 당시 소방대장이면서 식당도 경영한 이우성(李雨城) 씨가 자신의 소유지를 제공하면서 앞장서서 추진했다. 그 결과 홍동면 소유지 땅까지 합쳐서 천 평 정도의 부지

를 확보하고 장옥을 건립하여 장날을 5·10일로 잡고 1955년 봄에 장시를 개설했다. 3년 동안에는 어물·포목·고무신 등을 판매하는 행상 십 명 내외와 운월리를 중심으로 하는 주민 오십 명 정도가 출입했으나, 그 후에 쇠퇴하여 4·19전에 장이 소멸되었다.

송풍장이 흐지부지하게 단기간밖에 존속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홍성장과 광천장이 삼십리 이내의 거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송풍장이 고객으로 삼아야 할 주민 대부분은 홍성장 또는 광천장을 하루 내에 보는 데에 지장이 없었다.

둘째, 몇 달 후에 개설되는 금당장이 같은 날에 장이 열려 경쟁이 되었다.

셋째, 이런 이유로 상인이 적었고 지역주민이 필요한 물건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다.

넷째, 이웃한 구항장 만큼 민간의 광범위한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런 한계점들이 송풍장이 끈질기게 존속하지 못한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송풍에서 가게를 하는 김정현, 이발소를 하는 강태규, 풀무학원 주옥노[朱鑄魯] 교장의 증언)

위 자료의 다른 편에서는 송풍장이 1955년에서 1958년 사이에 존속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 당시에 홍성지역에 존속하던 장시들은, 홍성장(홍성군 홍성읍)·갈산장(홍성군 홍동면 상촌리)·결성장(홍성군 결성면 읍내리)·광천장(홍성군 광천읍 광천리)·반계장(홍성군 장곡면 옥계리)·구항장(홍성군 구항면 오봉리)·화양장(홍성군 구항면 화양리)·송풍장(홍성군 홍동면 운월리)·금당장(홍성군 홍동면 금당리)·옹암장(홍성군 광천읍 옹암리) 등이 있었다.

특이한 것은 홍동면에 송풍장과 금당장이 함께 개설된 점이었다. 같은 면지역에서 송풍장과 금당장은 서로 경쟁관계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금당장은 송풍장보다 몇 년 더 운영되다가 소멸되었다.

송풍장의 소멸은 교통의 발달이었다. 교통이 점점 발달하면서 이웃의 큰 장인 홍성과 광천장을 쉽게 다녀올 수가 있었다. 자연스럽게 송풍장은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다.

또한 송풍장은 같은 면에 있는 금당장과 함께 홍성장과 광천장이라는 사이에 끼여 있었다. 지리적으로 주변의 큰 장으로 주민들이 빠져나간 것이 장의 소멸 원인으로 꼽힌다.

홍성군내 옛 장시마다 구술자들의 증언은 똑같은 얘기가 등장하여 흥미롭다. 당시에 장이 개설되거나 이전되는 경우에는 주위 주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난장판을 수일간 벌었다고 한다.



난장판을 벌일 때 한편에서는 장이 서고 다른 한편에서는 씨름·줄다리기·윷·남사당패놀이 등이 펼쳐졌다. 당시에 볼거리가 부족하던 시골에서 이만한 구경거리도 없었다. 난장판에서는 노름도 묵인되었으므로 부근의 주민들이 와서 즐겁게 지내고 장도 보았다. 그래서 어느날 어디에서 장이 열리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찾아갔다.

송풍장에서도 비슷한 난장판이 열린 것으로 구술자는 증언하고 있다.

●  
**우리고장의  
 사라진 옛 장시  
 반계장터를  
 찾아서**



**박순표** (1948년생)  
 홍성군 장곡면 옥계리

구술자 박순표 씨는 할아버지 때부터 장곡면 옥계리에 정착했다. 구술자는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 주민이다. 구술자는 당시에 양성중학교 부설 광흥중학교를 졸업했다. 광천읍에 있는 광흥중학교와 반계마을에 있는 양성중학교는 같은 재단이다. 이런 이유로 반계중학교에 광흥중학교가 부설로 운영된 듯하다.

구술자는 어려서부터 반계장터에서 장이 서는 모습을 보고 자랐다. 장성한 이후로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게를 물려받아서 직접 운영했다.

구술자가 운영하는 가게는 농촌에서 필요한 농기구가 주요 취급물품이었다. 바구니, 농기구, 지게, 쟁기 등 농촌에서 필요한 물건들이었다. 구술자는 반계장 뿐만 아니라, 청양·광시·광천·화성장까지 장을 보러 다녔다. 그곳에 전용 창고를 구입하여 물건을 보관해놓고 장을 보러 다녔다.

구술자가 들려주는 반계장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었다.

반계장은 홍성군, 예산군, 청양군의 경계지점에 위치한 장시였다. 3개 군의 중심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오지였으므로 행정력이 많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다. 이곳은 3개 군으로 통하는 길목이며 사람들의 통행도 많았다. 이처럼 3개 군의 접경지대에 위치한 반계장은 판문점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음식점과 고급 술집도 번창했다.

반계장이 처음 개설된 곳을 세주막거리라고 불렀다. 주막집이 세 곳 있었는데, 3개 군을 오가는 행인이나 상인들이 오며가며 쉬어가던 곳이었다. 이곳 주막에 들어서 막걸리를 한 잔씩 마시며 각종 정보도 얻고 필요에 따라서 물물교환도 이뤄지곤 했다.

이처럼 반계장이 서기 전에는 세주막거리 주변에서 물건을 팔고 사는 작은 거래가 이뤄지곤 했다. 이렇게 작은 거래가 이어지다가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반계장터는 천 평 정도로 규모가 작았지만 내실 있는 장이었다. 주변 면지역에 있는 비봉장이나 청라장보다도 더욱 활발하게 열렸다. 반계장은 인접한 3개 군 주민들이 찾아왔으며, 청양·화성·장곡 주민들이 주로 많이 찾아왔다.

반계장은 1930년경에 시장번영회 주관으로 개설되었다. 장날은 홍성장과 똑같은 1일과 6일이었다. 반계장이 개설될 당시에는 난장과 씨름판이 열렸으며 우수 상품으로 송아지를 타갖고 갔다. 난장 때에는 줄타기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반계장에서 보부상 단체인 육군 상무사도 운영되었다.

반계 장터 도로변은 모두 가게들이었다. 장옥은 4채가 있었고 대장간도 규모가 컸었다. 대장간에서는 우마차 등도 만들 정도로 규모가 상당했다.

반계장은 장꾼들이 많이 모였으므로, 선거 때는 장날에 후보자들이 선거유세차 다녀가기도 했다. 구술자가 기억하는 것은, 당시 국회의원에 출마했던 김두한 씨의 선거유세였다. 한 여름에 뒷산에서 매미가 크게 울어서 선거유세에 방해가 되었다. 김두한 후보가 마이크에 대고 큰소리로 “천하에 김두한이 왔는데 매미가 시끄럽게 떠든다.”고 산에 대고 외쳤다. 선거유세를 참관하던 장꾼들이 한바탕 웃었던 기억이 남아있다.

반계장이 번성할 때는 5백 명 정도 모였다. 외지 상인들도 많이 찾아왔으며 의류를 많이 팔았다. 상인들이 우마차 3~4대로 짐을 실어 날랐다. 소전도 있었고 닭이나 토끼 등 작은 가축도 매매했다. 반계장에서 씨름판과 난장도 벌어지곤 했다.

반계장터 주민들은 비교적 경제가 여유로웠으므로 주변 지역보다도 생활수준이 높았다. 반계장터 앞으로는 냇물이 흐르며 백사장이 넓게 펼쳐져 있었다. 이곳에 가설극장이 수시로 들어와서 오랫동안 영업을 하기도 했다. 가설극장에 다니면서 만난 처녀 총각들이 결혼에 골인한 경우도 있었다.

반계장이 가장 번창했을 때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사이였다. 반계장과 가까운 구봉광산과 천태광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많이 찾아왔다.

이렇게 번창하던 반계장은 197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주변 교통이 좋아지면서 홍성과 광천장 등으로 장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부터였다. 또한 주변 광산들이 폐광되면서 반계장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 결국 1985년경에 반계장이 소멸되었다. 구술자 박순표 씨는 1970년대 후반 경에 가게를 접었다.

반계장은 시장이 소멸된 이후로도 음식점과 고급 술집이 활발하게 운영되었다. 고급 술집은 아가씨를 여러 명씩 두고 있기도 했다. 광산과 3개 군의 유지들이 반계장터 술집을 많이 이용했다. 재력가와 지역유지들이 이곳 술집을 선호한 이유는 판문점이라는 별명답게, 행정력의 단속으로부터 비교적 자유스러웠기 때문이다.

반계마을 어른들은 청소년시절에 술집 아가씨들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장터 앞으로 흐르는 반계천에서 술집 아가씨들이 낮에 빨래를 하곤 했다. 젊고 예쁜 아가씨들이 허리를 구부리고 빨래를 하면 하체가 허벅지 안쪽까지 보였다. 설레는 마음으로 아가씨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청소년 시절을 떠올리며 한바탕 웃기도 했다.

반계장터가 폐장되면서 빈 가게들이 많이 남아있었다. 현재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주변정리를 해놓아서 옛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1993년에 발간된 홍성군지 증보판 「홍성지방의 시장 발달사」(李憲熙, 경기대학교 경상대학 부교수) 편에 기록된 반계장(礪溪場)의 모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곡면 옥계리에 반계장이 개설되었다. 당시에 반계장은 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관의 통계에는 등장하지 않았다. 1914년에 반포된 시장규칙에 의하면 시장을 개설할 때는 도지사의 허가를 얻게 되어 있었으나, 장이 소규모였기 때문에 묵인해주었던 것 같다. 홍성군과 청양군의 경계에 위치했기 때문에 행정력이 미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30년대 말에 순사들이 허가를 받지 않은 장시인 것을 따졌기 때문에, 5백석을 추

수한 지주 이재현의 주도 하에 보안조합을 설립하고, 10평 정도의 장옥을 건립하여 1939년 경에 인가를 받았다고 한다(홍성읍에서 소장한 『중요서류』 책을 보면, 1942년 당시 인가받은 장시 중에 반계장이 등장하지는 않는다). 지주에게도 자신의 잉여 농산물의 판매를 위해서는 장시의 존립이 유리했던 것이다. 이 무렵에 화성장과 같은 장날을 피하기 위해 5·10일로부터 1·6일로 바꾼다. 전시통제가 극도로 가혹해진 1943년경에는 반계장은 깨어진다. (일제시대의 반계장에 대해서는 이성범의 증언에 의거하였다.)

1943년 깨어진 반계장을 부활시키기 위해 그 지역의 유지들은 1946년 번영회를 조직했다. 번영회에는 중지주이자 양조장을 경영한 이준의(李俊儀)가 회장을, 화성면장을 한 바 있는 중농 김준환이 실무를 맡고 부농인 안현철, 부농인 백형기 등이 지역발전을 위해 참여했다.

번영회는 곧 난장판을 벌이고 장을 개설했다. 장은 처음부터 일제시대보다 나았는데, 그 주된 이유는 양곡을 비롯한 농산물이 자유롭게 출하되었기 때문이다. 각종 생필품을 취급하는 만물상점이 4~5개 있었고, 자전거로 비단·포복·조끼 등을 가져온 상인이 5~6명 되었다. 멜빵에 잡화를 넣어오거나 어물을 지게에 싣고 온 행상이 여러 명 있었다.

8·15 광복 이후에 반계리와 주변에 행상이 십호 가량 거주했다. 이들은 광천장(4·9일), 화성장(5·10일), 반계장(1·6일), 청양장(2·7일), 광시장(3·8일)을 순차적으로 순회했다. 광천장은 소매품을 조달하러 갔고 매일 집에 복귀했다고 한다.

이들 행상이 시장을 왕래할 때마다 이성범의 우차(牛車)를 이용했다. 이씨는 징용을 피하기 위해 1941년부터 1943년까지 우차를 끌고 장시를 다니면서 운송업에 종사했는데, 8·15 광복 후 반계장이 부활하면서부터 1951년까지 다시 우차를 끌었던 것이다. 지역 주민은 백명 전후 모였다. (8·15 이후 반계장에 관해서는 이성범과 삼화당 약국을 경영하는 정진하[鄭鎭夏]의 증언에 의존했다)

●  
**우리고장의  
 사라진 옛 장시  
 금당장터를 찾아서**



**유 효 동** (1939년생)  
 홍성군 홍동면 금당리

구술자 유효동 씨는 조상 대대로 450여 년 동안 이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왔다. 구술자 역시도 금당리 상하금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구술자는 금당초등학교 분교 1회 졸업생이다. 처음 금당초등학교는 홍동초등학교 분교로 시작했다. 구술자는 홍동초등학교 27회와 동기들이다. 졸업장에도 홍동초등학교 27회로 기록되어 있다. 금당초등학교는 금당리 백동마을에 살던 노재혁 씨 등이 주도하여 설립했다.

금당장은 금당초등학교 길 건너편 들판에 자리 잡고 있었다. 금당장의 부지는 천여 평 정도 되었다.

금당장은 공식적으로 장이 서기 전부터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었다. 금당장터 주변 길가에는 철물이나 잡화 등을 취급하는 가게들이 있었다.

이 당시에 장터 주변 들판에는 토금을 채취하던 금광이 있었다. 또한 시멘트 공장도 주변에 있었다. 이런 이유로 금당리에는 상주인구가 많았고 호수도 200여 호가 되었다. 금광과 시멘트 공장으로 돈을 벌기 위해 유입된 상주인구들이 상당수 있었다. 집이 부족하여 문간방 등에서 곁방살이하는 가구도 많았다. 이들에게 필요한 생활용품을 공급해주던 가게들이 예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다.

금당장은 시장터가 조씨네 조상 땅이었고, 조씨들이 주관하여 시작했다. 시장 번영회를 조직하여 비용을 걸립하고 시장을 개설했다. 조용팔 씨가 번영회 실무를 맡았으며, 주변에 건달들도 많았는데 조용팔 씨가 건달들을 잘 다스렸다.

금당장에서는 씨름판과 난장판도 벌어졌다. 씨름판은 증가래(애기씨름), 돼지가래(청소년) 소가래(청년) 등으로 며칠씩 열렸다. 외지 사람도 많이 와서 소를 타갔다. 난장을 벌일 때는 노름꾼들도 많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놀음기구들로 사람들의 돈을 따갔다. 야바위꾼, 팽이 치기 놀음 등을 구경하는 재미가 좋았다.

금당장날은 300여명이 넘게 장꾼들이 찾아왔다. 쌀장사, 고무신 장사, 철물점, 포목점, 비단장사, 보부상 등이 찾아왔다. 멀리 공주 등지에서도 보부상 상인들이 찾아왔다. 장터에는 요리집도 열댓 집이 있었다.

서부와 갈산에서는 해산물을 많이 가져왔다. 서산 고북 등지에서 살조개를 갖고 와서 팔기도 했다. 작업복 장사, 군복, 염색집, 국밥집 등 종류도 다양했다. 한때는 면소재지를 이곳으로 옮겨와야 한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북적였다.

금당장은 시장이 좁아서 장터 주변에 남의 집 처마 밑에서도 물건을 펼쳐놓고 팔 정도였다. 아마도 몰려온 상인들만 100여 명 이상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금당장은 음식점과 술집이 많았다. 기생술집은 15곳 정도 있었고 10여명의 기생이 있는 곳도 있었다. 금당시장에서 돈을 벌며 흥성으로 나가 큰 가게와 식당을 차린 사람도 여럿이 나 된다.

금당장은 6·25 이후까지도 존속했다. 처음 개설되고 15년 정도 시장이 잘 운영되었다. 교통발달과 광산폐기 등으로 시장이 쇠퇴하기 시작하며 1960년대 후반 경에 소멸되었다.

지금은 경지정리로 금당장의 흔적이 모두 사라졌다.

1993년에 발간된 홍성군지 증보판 「홍성지방의 시장 발달사」(李憲稔, 경기대학교 경성대학 부

교수) 편에 기록된 금당장의 모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홍동면에서는 송풍장 외에도 금당장이 개설되었다. 송풍장의 개설에 자극을 받아 홍남표(洪南杓) 홍동지서장의 주도 하에, 금당리·수란리·신기리·효학리·대영리의 유지가 회합하여 금당리의 성당마을에 장시를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성당마을의 유지인 조용규(趙容圭)와 조용집(趙容集)에게 시장개설의 일을 맡겼다. 조용규는 간이 소방대장직에 있고 양조장의 지점을 경영했고 조용집은 6·25까지 이장을 맡았던 중농이었다.

금당장은 홍성에서 청양으로 가는 대로 상에 위치했고 광천장의 압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송풍장보다는 장이 잘 될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성당마을은 이처럼 교통의 요지에 있었기 때문에 장이 개설되기 전부터 길가에 잡화전 두 채와 술집이 있었다.

농악대를 5개리의 각 마을마다 순회시키면서 기금을 걸립했다. 또한 장세를 거둬서 임대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조용덕(趙容德)의 밭 등 부지 약 천평을 확보하여 초가 장옥 4동을 건립했다. 송풍장이 개설된 지 3, 4개월 후인 1955년 가을에 난장을 벌이고 장을 열었다. 유지들과 지역주민이 장날을 어떻게 정할지 상의한 결과, 부근의 홍성장(1·6일), 청양장(2·7일), 광시장(3·8일), 광천장(4·9일)을 피하여 5일과 10일로 정했다.

예산장이 5·10일이었지만 거리가 멀어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고, 송풍장은 압도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금당장은 구항장과는 달리 도의 인가를 받지 않고 개설되었다고 한다. 개설된 지 2년 동안은 장이 잘되었다. 행상이 사오십 명씩 모였다. 포목장사가 8~9명이었고 서부면의 해산물을 가져오는 행상도 다수였다. 그 밖의 행상은 각종 잡화와 청과물을 팔았다.

행상의 절반 정도는 위의 5개리에 거주하는 주민이었는데, 이들은 금당장·홍성장·청양장·광시장·광천장을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행상했다. 이들이 금당장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잡화 점포도 2개가 추가되었고 약국도 들어섰다.

5개리 주민 5백여 호 중에는 신기리의 일부 주민만 홍성장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금당장을 이용했다. 한창 때에는 장날에 주민 2~3백 명이 출입할 정도였다. 1958년경부터 금당장은 차츰차츰 쇠퇴하기 시작하여 1963년경에 소멸되었다. 금당장이 소멸된 이유는 8km 떨어진 홍성장이란 대장의 압박 때문이었다.



●  
우리고장의  
사라진 옛 장시  
광천 구장터를  
찾아서



**최헌구** (1947년생)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구장터는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원촌마을에 있던 옛 장시다. 원촌마을의 원래 이름은 원말이었다. 이 마을에는 옛날 장시가 섰던 곳이라고 하여 ‘구장터’라고 부르는 지명이 남아 있다. 현재 광천장은 이곳 구장터에 있던 장시가 옮겨간 것이다.

구장터에서 옛 장시가 섰던 모습을 직접 본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100년도 더 지난 시절의 일이므로 현실적으로 당시 모습을 목격한 생존자는 없다.

구장터의 옛모습은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얘기를 채록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되었다. 구장터의 옛모습을 전해줄 인사를 물색하던 중에, 원촌마을 이장 최헌구 씨를 만나게 되었다.

구술자 최헌구 씨는 원래 고향이 결성이다. 어려서 아버지를 따라 광천장날 장구경 왔던 기억이 많이 남아있다. 결성에서 24세 때인 1971년에 원촌마을로 이사 와서 정착했다. 구술

자가 정착한 원촌마을은 옛 시장인 구장터가 있는 마을이다.

구술자는 처음 이사 와서 원촌마을 광천교 건너 다리목에서 살았다. 젊은 시절부터 부지런하고 기억력이 좋아서 동네일을 많이 보게 되었다. 원촌마을 청년회 총무와 마을 이장을 각각 20여 년씩 역임했다. 원촌마을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로 마을 전체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

구술자가 원촌마을로 처음 이사 왔을 때만 해도, 마을에는 옛 시장의 모습이 많이 남아 있었다. 구장터가 있는 광천읍 광천리 원촌마을 앞으로는 오서산에서 내려오는 넓은 하천이 흐른다. 하천 이름이 광천천이며, 1970년대만 해도 물이 맑고 목욕을 할 수 있었다.

구장터는 원촌마을 하천 독 마을 안쪽 길로 길게 형성되었다. 광천교를 건너자마자 다리목에서부터 원촌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며 길 양쪽에 장이 형성되었다.

구술자가 처음 이사왔을 때 구장터에는, 마방·쌀집·소금집·제재소·솜틀집·두부집·국수공장·초공장·성냥공장 등이 있었다. 이들 가게나 공장들은 옛 시장이 소멸된 후까지 구장터에 계속 존속되고 있었다.

구장터 앞으로 흐르는 하천 건너편에는 뱀집도 있었다. 땅꾼들이 잡아온 뱀을 삶아서 약으로 파는 가게였다. 당시에는 요즘처럼 좋은 약이 흔치 않았다. 폐질환 등을 앓을 때는 뱀이 몸에 좋다고 하여 땅꾼들이 시골에 다니며 뱀을 잡아와서 약으로 만들어 팔았다.

광천장날은 새벽부터 나무전이 길게 오륙십 미터씩 이어져 있었다. 대개 오서산 쪽에서 해운 나무들인데, 사오십 명의 나무꾼들이 나뭇짐을 반쳐놓고 있었다.

구장터 광천천 건너편으로는 염색을 하는 집도 있었다. 광천장날은 군복이나 흰색 물감을 염색하는 집이 있었다. 염색집에서 옷이나 천을 물들이고 광천천에서 빨아 줄에 널어놓곤 했다.

구장터 옛시장에서는 보부상 단체인 육군 상무사가 태동했다. 1901년경에 육군상무사가 태동한 것으로 추측되며, 아마도 1901년 이전부터 구장터에 장이 생겼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추측의 근거로는 구장터 입구에 서있던 보부상감의비의 기록이다. 부상감의비는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홍주성을 수호하며 광천·목리·합덕 등지에서 전공을 세우고 신레원에 출격하였다가 사망한 보부상 김병돈(金秉勳)의 전공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

다. 보부상 김병돈을 기리는 보부상감의비가 구장터에 서있었다. 현재는 광천읍 웅암리 국도변으로 옮겨갔다.

옛날부터 광천 쪽다리는 아주 유명했다. 옛날 어릴 적에 “너희 친엄마가 광천 쪽다리 밑에서 살고 있다. 너는 광천 쪽다리 밑에서 주워왔는데, 지금도 너희 친엄마가 너를 기다린다.”고 어른들이 놀리곤 했다. 어린마음에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중에는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를 찾아가겠다고 떼쓰던 추억이 아련하게 남아있다.

광천 쪽다리는 옛날 구장터에서 장이 서던 시절에 구장터 앞에 있던 다리를 말한다. 하지만 현재 구장터의 정확한 위치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 구장터 앞쪽으로 흐르는 광천천 어딘가에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고증이 안된 실정이다.

구장터에 관한 기록은 책자마다 간략하게 전해온다. 그만큼 남아있는 자료가 많지 않다는 증거일 것이다.

2010년에 발간된 광천읍지에는 구장터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나타나 있다.

광천장이 생긴 시점은 지금부터 10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원래 광천 쪽다리라고 불리던 나무다리 옆에서 쌀을 내다팔기 시작하게 된 것이 광천시장의 시초가 되었다.

1993년에 발간된 홍성군지 증보판 「홍성지방의 시장 발달사」(李憲稔, 경기대학교 경성대학 부교수) 편에도 구장터의 기록이 간략하다.

광천시장은 처음에는 장옥이 없이 길거리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광천읍 소재지에서 오서산쪽으로 오르는 하천 옆에 신대마을이 있는데, 이곳에서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다. 신대마을을 옛날에 시장이 서던 곳이라고 하여 ‘구장(舊場)터’라고 부른다.

후에 장항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현재의 시가지가 새로 형성되었는데, 강경시장과 함께 생산물의 집산지로 각광을 받았다. 새로 형성된 시가지의 중심지에 광천장이 형성되었다. 신시가지에 형성된 광천시장은 구장터에서 옮겨온 시장이다.

특히 서해안 원산도 등 섬 주민들은 광천시장을 생활권으로 하여 드나들었다. 장날이면 일백여척의 배가 웅암포항으로 들어와 해산물과 어패류를 판매하고 식량과 생활필수품을 구입함으로써 상거래가 대단히 활발하였다. 이웃한 천북면, 은하면, 결성면, 장곡면의 주민들도 광천장을 생활권으로 하여 드나들었다.

앞의 글 「홍성지방의 시장 발달사」에 의하면, 광천장은 1910년 한일합방 후에 이전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광천장의 구장터는 원말(元村)이었으며, 일본 상인이 이미 구장터에서 치부하였다고 한다. 1915년 경 광천장은 원말에서 현 소재지로 이전된 것으로 기록되었다 (배동순의 탐문과 김정현의 기억에 의하면 1915년 경이고, 『시장대장』에 의하면 광천장은 1926년 개설된 것으로 되어 있다.)

•  
우리고장의  
사라진 옛 장시  
구항장터를  
찾아서



**황선봉** (1935년생)  
홍성군 구항면 오봉리

구술자 황선봉 씨는 구항장터가 있던 구항면 오봉리가 고향은 아니다. 구항장터와 바로 이웃한 구항면 공리가 고향이다. 17대 조상 때부터 구항면 공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다.

구항장의 옛 모습을 구술해줄 책임자를 물색하던 중에 황선봉 씨를 소개받았다. 구술채록 당일에 구술자의 자택을 찾아갔을 때는, 구술자의 친구도 함께 동석했다. 혹시 구술자가 기억 못하는 얘기가 있으면 보충설명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옆에 동석한 구술자의 친구는 이운엽(84세) 씨였다. 이운엽 씨는 구항면 오봉리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구항장터를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구술자 황선봉 씨는 26살에 이곳 구항장터가 있는 오봉리로 이사 왔다. 옛날 구항에 장시가 개설되면서 생계유지를 위해 이곳으로 이사 나왔다. 처음 구항장터에서 시작한 가게

는 잡화상이었다. 이후에는 국수공장을 운영했고 떡방앗간도 함께 운영했다.

구술자가 기억하는 구항장은 아직도 기억에 또렷하다.

구항장은 구항농협 길 건너편에 있는 하천주변 들판에 형성되었다. 당시에 장터가 들어설 논을 헐값에 매입하여 장터로 사용했다. 구술자의 기억으로는 당시 하천 주변에 전상규 씨의 논 다섯 마지기를 거의 회사 받다시피 하여 싼값에 매입했다. 이 논은 건답이어서 농사도 그리 잘되는 편은 아니었다.

구항장이 개설된 것은 1953년경으로 기억된다. 당시 구항장은 2일 7일이었다.

구항장을 처음 개장할 때는 씨름판을 열었다. 충청도 각지에서 씨름선수들이 몰려와서 송아지를 우승상품으로 내걸고 씨름대회를 치렀다. 씨름판뿐만 아니라 척사대회도 며칠씩 열리곤 했다. 장이 서지 않는 날에도 주민들이 모여서 술내기 옷판도 많이 벌였다.

장터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5~6호 정도가 토박이였고, 장날은 모두 외지 상인들이 와서 물건을 팔았다. 장옥과 소전과 생선전 등이 있었다. 구항장의 가축시장이 4~5년 정도 운영되었다. 서부쪽에서는 바다에서 잡아 올린 생선을 많이 갖다 팔았다. 구항장으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전문 우마차꾼도 너댓명이 있었다.

구항장날은 장꾼들과 상인들을 합쳐서 이삼백 명은 모였다. 시장 안에는 술집, 고무신 장사, 포목, 잡화, 고무신, 비단 등을 팔았다. 옷은 원단을 많이 팔았고, 인주·광목·외출복 등이 주류를 이뤘다. 장날만 운영하는 고기집도 있었다.

구항장에서 가장 잘된 곳은 술집이었다. 술집이 다섯 집 정도 있었는데 모두 잘되었다. 구항주민들이 봄에는 보리 매상을 하고 가을에는 벼 매상을 한 후에 장터로 많이 찾아왔다. 뭇 돈을 손에 쥐고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가곤 했다. 장터 바로 앞에 구항양조장이 있는데, 구항장날 양조장은 술집과 음식점으로 술을 배달하느라 바쁠 정도였다. 양조장에는 마차로 술 배달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사람 별명이 말애비였다.

구항장의 술과 관련한 일화들이 많이 전해온다.

당시에 구항면사무소에 재무계장을 하던 이모씨가 있었다. 이 사람은 집안 살림도 넉넉하고 인심도 좋았다. 구항장날에 가끔씩 주민들에게 잔술을 사서 대접하기도 했다. 너도나도 공짜술을 마시다 보니까 도대체 몇 잔을 마셨는지 계산을 할 수가 없었다. 술집 주인이 대충 계산해서 백잔 값을 받았다. 이 얘기가 두고두고 회자되었다.

술을 좋아하는 주민이 아침에 양조장으로 해장술을 마시러 갔었다. 양조장 일꾼에게 술이 왜 이렇게 싱거우냐고 푸념을 했다. 양조장 일꾼이 일부러 모래미를 한잔 주었다. 모래미는 술의 원액을 말한다. 주민이 독한 모래미 한잔을 마시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못 일어났다.

구항장터에서는 이동영화도 가끔 들어왔다. 변사가 동네를 돌아다니며 마이크로 선전을 재미있게 했다. 이동영화관의 천막을 들추고 몰래 들어가다가 봉변을 당하기도 했다.

구항장은 20여 년 정도 운영되다가 1970년경에 폐장되었다. 교통이 발달하고 운송수단이 좋아지면서 구항장은 서서히 외면받기 시작했다. 주민들이 물건 값이 싸고 종류가 많은 홍성장으로 많이 가기 시작한 것이 큰 이유였다. 이후 장터는 면으로 넘어가서 홍성군 소유가 되었다가 개인에게 불하되었다.

1993년에 발간된 홍성군지 증보판 「홍성지방의 시장 발달사」(李憲昶, 경기대학교 경상대학 부교수) 편에는 구항장(龜項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952년경 보개산 북쪽 7개 리, 14개 마을의 대한독립촉성국민회 회원들은 각 마을 유지들을 초청하고 회의를 열었다. 이때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시 양조장과 집 두 채만 있던 오봉마을에 장시를 설치할 것을 결의했다.

이 회의에서 구항장 변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마을마다 3~5명의 추진위원을 선출했다. 추진위원들은 주민들로부터 돈, 벼, 보리 등을 받아서 시장설립 경비를 조달했다. 당시 오봉마을에서 양조장을 인수한 전영진(田英鎭)이 친척인 도의 사회과장과 교섭하여 장시의 설립인가를 받는 한편, 논 다섯 마지기를 포함한 주변 공지 모두 천여 평을 구입하여 장옥 6동을 건립했다.

1953년 8월, 농악·씨름·웃놀이 등의 난장을 사흘 동안 벌여서 장시의 신설을 홍보했다. 구항장은 1·6일의 홍성장과 3·8일의 갈산장을 연결하는 큰 길의 한가운데에 위치했으므로, 장날은 2·7일로 정해졌다.

장시 개설 직후에 추진위원들은 상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장옥을 무료로 대여해주고 점심까지 사주기도 했다. 지역주민이 구항장을 이용하도록 계몽·권유했고 우마차 운반업자에게 물자 운반을 직접 의뢰하기도 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처음 3년 동안은 장이 그런대로 되었다. 외지의 행상이

삼십명 정도 모였다. 서부면의 해산물을 머리에 이고 오는 아낙네가 많았고 이 해산물이 구항장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상품이었다. 홍성장을 본 행상들이 포목, 고무신, 사탕, 잡화 등을 가져오기도 했다. 장날에는 오봉리, 갈오리, 화리, 공리, 남산리, 장양리, 벌리, 내현리, 황곡리의 주민 백 명 내외가 출입했다.

그런데 1957년경부터 장이 침체하기 시작했다. 구항장은 홍성장에서부터 6km 떨어져 있고, 보개산 남쪽 마을사람은 하루 내에 충분히 광천장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두 곳 큰 장의 압박으로 구항장의 운명은 험난할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역주민들 사이에 구항장을 발전시켜야겠다는 의식이 약화되었다. 반면에 광천장이나 홍성장에 가면 훨씬 풍부한 물건을 선택할 수 있었다. 또한 다량 구입할 경우에는 값이 싸며 자신의 농산물을 비싸고도 쉽게 처분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갔다.

구항장을 보는 지역주민의 수가 줄고 상인의 매상고가 감소함에 따라 외지상인이 십 명 정도로 감소했다. 상인들은 하루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물건 값을 올려야 했으며, 그 결과 지역주민으로부터 더욱 외면당하는 악순환을 겪게 되었다. 대장의 압박으로 인하여 쇠퇴하는 다른 소규모 장시의 운명도 마찬가지였다.

구항장시는 운영자금이 떨어져 더 이상 상인을 유치할 비용을 조달받을 수도 없었다. 1958년경 다시 기금을 모으고 난장을 벌여 주민과 상인들에게 홍보한 결과, 다시 그런대로 되다가 4·19 직후에 침체했다.

1960년 9월 또다시 난장을 벌여 장시의 부흥을 시도했고 시장부지는 지방의회에 기부했다. 후기가 될 수록 부흥하기가 더욱 힘들어서 1963년경에는 홍성으로부터의 행상이 발길을 끊게 되었다. 서부면 어물의 행상이 장의 명맥을 간신히 유지했는데, 70년대 후반에도 5~6명 출입했다. 행정적으로 구항장이 폐시처분을 받은 것은 1972년이다.(구항장의 내력은 오두영[吳斗泳] 구항면장, 추진위원이었던 이준구[李竣求]와 이창순[李昌淳]의 증언을 토대로 하였음)



●  
우리고장의  
사라진 옛 장시  
백야장터를  
찾아서



**임 태 환** (1940년생)  
홍성군 갈산면 내갈리

구술자 임태환 씨는 갈산면 내갈리 금배마을에서 낳고 자랐다. 구술자의 조상 7대조부터 이곳에 정착하여 살고 있다. 이곳에는 나주 임씨들이 많이 살고 있다.

구술채록 팀이 구술자의 집을 방문했을 때, 며칠 전에 문화재청에서도 하루 종일 촬영을 하고 갔다는 말을 했다. 채록팀이 의아한 표정으로 무슨 촬영을 했는지 물었다.

구술자의 친동생이 국가지정 문화재 불화장 118호이며, 단청장 48호라고 했다. 우리나라 불교미술의 1인자이며 현재는 경기도 고양에서 활동한다고 했다.

구술자의 동생은 임석환이며 수덕사 환희대를 비롯하여 전국 사찰 500여 곳의 단청을 했다고 한다. 서울 진관사에서 20세 때부터 혜갑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단청을 배웠다고 한다.

구술자의 동생은 정말로 자랑할 만한 예술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문화재청에서는 우리

나라 불교미술의 거장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집을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기고자 했던 것 같다. 구술자의 아드님도 서예를 한다는 말을 전해줬다. 예술인의 피가 흐르는 집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구술자는 지역에 전해오는 얘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으로 알려졌다. 백야장에 관해서도 재미있는 얘기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구술채록에 임했다.

구술자는 백야장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옛날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내용이라고 했다. 채록팀은 직접 목격한 백야장의 모습을 듣고 싶었는데 약간 실망스러웠다.

그런데 시대를 따져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백야장은 장시가 열렸던 시대가 100여 년 가까이 흘러간 오래된 장시였다.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백야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었다. 다만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내용이라도 자세히만 채록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구술자는 백야장이라는 단어 대신에 희여미장이라는 말을 주로 썼다. 희여미장의 명칭에 대한 유래를 설명해주었다.

옛날 장이 섰던 장소는 광성초등학교 앞쪽 들판이었다. 이 들판은 천수답이어서 비가 오지 않으면 모를 심을 수가 없는 논이었다.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다 모내기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비가 오지 않아서 모내기 시기를 놓쳤으므로 최종 수단은 메밀을 심는 수밖에 없었다. 메밀은 메마른 곳에서도 잘 자라는 습성이 있는 작물이기 때문이다. 가을이 되면 흰색 메밀꽃이 활짝 피어서 주변 들판은 소금을 뿌려놓은 것처럼 흰색으로 뒤덮이곤 했다. 희여미라는 이름은 흰색이라는 의미이며, 발음이 변하며 희여미가 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 들판을 희여미 들판이라고 불렀다. 희여미 들판에 장이 섰으므로 자연스럽게 ‘희여미장’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희여미장은 후에 ‘백야장’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흰색을 뜻하는 ‘백(白)’자와 들판을 뜻하는 ‘야(野)’로 바뀐 것이다. 이런 이유로 ‘백야장(白野場)’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지명을 모두 한문식으로 바꾸면서 생겨난 현상이다.

‘백야장’이라는 이름을, 갈산 출신 백야 김좌진 장군과 관련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도 가끔 있다. 백야는 김좌진 장군의 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백야장터 지명과 김좌진 장

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옛 시절에 희여미장 바로 앞으로는 넓은 바다와 갯벌이 형성되어 있었다. 1980년경에 현대건설에서 대규모 간척사업을 하며 바다가 사라졌다. 홍성군 서부면 궁리와 서산시 간월도를 잇는 간척사업으로 AB지구 담수호와 논으로 변했다.

과거에 이곳 마을 앞으로는 바닷물이 넘실거리며 거대한 갯벌이 있어서 각종 해산물의 보고였다. 배에서 잡아오는 각종 고기와 갯벌에서 잡는 살조개 등이 흔하게 잡혔다. 이렇게 잡아오는 해산물들은 홍성장이나 광천장으로도 팔려나갔지만, 백야장에서 많이 팔려나갔다.

백야장이 이곳에 섰던 이유도 앞바다에서 잡아 올리는 해산물이 풍부하기 때문이었다. 당연히 백야장터의 주요 거래물품은 생선이었다. 지금도 백야장이 섰던 곳을 파보면 조기껍데기 등이 많이 나온다고 한다.

백야장은 교통이 발달하면서 점점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마을 앞으로 지나가는 큰 길을 통하여 버스가 자주 지나갔다. 교통이 편리해지므로 백야장을 찾던 사람들은 갈산장이나 홍성장을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

백야장은 서서히 쇠퇴하다가 자연스럽게 갈산장으로 흡수되었다. 백야장은 1910년대에 소멸된 것으로 전해온다.

구술자 임태환 씨는 어려서부터 갈산장을 많이 드나들었다. 구술자는 갈산장이 처음 시작된 곳이 김병원 씨의 아흔아홉 칸 집 앞이었다고 했다. 현재 갈산중고등학교가 위치한 교문 앞이다. 이곳에서 처음 갈산장이 시작되다가 이후에는 현재의 우체국 자리로 이전했다고 한다. 이후에 현재 갈산장터로 장시가 이전되었다.

구술자의 생각으로는 갈산장이 처음 생길 때 안동 김씨 집안의 배경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처음 갈산장이 열렸던 갈산중고등학교 앞은 재력가였던 안동 김씨 김병원 씨 집 앞이었기 때문이다. 갈산우체국도 당시 안동 김씨 문중에서 지었던 건물이었다. 이런 이유로 안동 김씨가 직간접적인 작용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술자가 기억하는 옛날 갈산장은 사람들로 뻘뻘했다. 가축시장은 소를 비롯하여 돼지와 닭 등도 많이 거래했다. 지금 보건소 자리는 과거 소를 거래하던 소전이었다.

갈산장은 요즘에도 3일과 8일에 장이 선다. 홍성군에서 면소재지에 장이 유지되는 곳은

갈산장 뿐이다.

1993년에 발간된 홍성군지 증보판 「홍성지방의 시장 발달사」(李憲稔, 경기대학교 경상대학 부교수) 편에는 갈산장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갈산시장은 1932년에 개설되었다. 주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이웃한 천수만에서 잡히는 싱싱한 해산물들이 매매되었다. 지금도 천수만에서 잡히는 해산물이 갈산장날에 많이 들어와서 찾는이들의 많다. 옛날에 개시된 면지역 장시들이 대부분 폐쇄되었는데, 갈산장은 현재까지도 꾸준하게 장시가 형성되고 있다.

갈산장은 서부면의 어민들이 싱싱한 해산물을 공급하고 홍성군의 행상이 공산품을 제공하고 갈산면과 인접한 면들의 농민들이 농축산물을 가져와서 교역하는 시장으로서 60년대까지는 상당히 번성하였다. 60년대 초 갈산장의 면적은 2,825평이었는데 갈산장이 번창해짐에 따라 1972년에 시장부지 천평을 추가하여 모두 4,188평이 되었다.

그런데 70년대에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농민의 생활권이 확대됨에 따라 갈산장은 아마도 부지를 확장한 직후부터 쪼그라들기 시작했던 것 같다.

1978년에 가축시장의 거래가, 80년대 초에는 곡물의 집산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1983년 현대건설의 서해안 간척사업으로 어획고가 줄어들면서 갈산장의 생명줄이라 할 만한 서부면의 싱싱한 어물의 집산이 격감하였다.

●  
**우리고장의  
 사라진 옛 장시  
 용호장터를  
 찾아서**



**장영기** (1940년생)  
 홍성군 결성면 교항리

구술자 장영기 씨는 결성면 교항리 자은동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이곳에 자리 잡게 된 것은 아버지 때부터다.

장영기 씨는 젊은 시절부터 사회활동을 많이 하며 살아왔다. 옛날 새마을운동 시절에 활발했던 4-H 활동을 하며 회장을 했다. 이후 마을 청년회장, 새마을지도자, 마을 이장, 농협 이사과 조합장 직무대리, 홍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 등 지역에서 활발한 사회활동을 했다.

구술자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따라서 용호장을 많이 다녔다. 어린 시절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옛을 사먹었던 추억이다. 농가에서 직접 만들어 온 옥수수엿을 사먹던 기억이 또렷하다. 아버지가 장터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는 동안에, 엿을 사먹으며 친구들과 딱지 치기와 팽이치기를 하고 놀던 추억이 엿그제 일처럼 떠오른다. 특히 노름꾼들이 갖가지 놀

음기구를 가지고 나와서 돈내기 하는 모습을 구경하는 재미가 컸다.

구술자가 기억하는 용호장터는 시골에서 갖고 온 농산물 판매와 서부에서 갖고 온 생선 판매 모습이다. 특히 서부쪽에서는 앞바다에서 잡아 올린 생선들을 아낙네들이 머리에 이고 와서 팔았다. 용호장에서 생선은 인기품목 중의 하나였다. 각종 잡화와 옷 등도 팔았고 한지를 파는 상인도 있었다. 특히 용호장은 가축시장이 컸다. 중국인 비단장사도 용호장터에 찾아왔다. 용호장은 외지 상인들도 많이 찾아왔고 우마차를 이용하여 짐을 실어 날랐다.

서부에서 아낙네들이 생선을 이고 한 줄로 늘어서서 용호장으로 걸어오던 모습도 눈에 선하다. 생선장사 아주머니들 얘기도 재미있게 전해온다. 아낙네들은 생선을 이고 한 줄로 길게 줄지어 오면서 맨 앞에서부터 이야기꽃을 피우며 장터로 향하곤 했다. 앞쪽에 오는 사람들이 얘기를 길게 하다보면 뒤쪽에서 따라오는 사람은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다. 뒤쪽에 따라오는 아낙이 말하기를 “앞에서 얘기를 다하면 뒤에 있는 나는 언제 얘기를 하느냐?”고 푸념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전해온다.

구술자가 기억하는 용호장터는 대략 2천여 평 되었다. 원래 용호장터는 덕우마을 안쪽 농협창고(옛날에는 농협창고가 덕우마을 안쪽에 있었음) 앞에 있었다. 이곳이 용호장터의 중심지였다. 이곳에 큰 은행나무도 한 그루 있었는데 현재는 고사하고 없다. 현재 보건시소가 있는 곳은 식당을 중심으로 장이 형성되었다. 용호장터는 두 개 큰 장터로 구성된 모습이었다.

용호장터는 5개 면의 중심지여서 주변 주민들이 장을 보기가 가까웠다. 용호장터에서 보면 갈산, 결성, 구항, 은하, 서부 등이 십여 리 밖에 되지 않는다. 5개 면의 중심지에 용호장터가 위치했으므로 지리적으로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했다. 용호장날은 주변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장구경을 올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였다. 용호장터가 한창 번창할 때는 사람들이 어깨에 걸려서 다니기 힘들 정도였다.

용호장터에서는 난장과 씨름판도 자주 열렸다. 씨름판은 아이들과 청소년과 어른으로 나누어 펼쳐졌다. 청소년부는 돼지가래라고 하여 우승상품으로 돼지를 주었고, 장년부는 소가래라고 하여 송아지를 우승상품으로 주었다. 씨름판에는 각지에서 내노라 하는 씨름꾼들이 참여하여 구경꾼들이 구름떼처럼 몰려들었다.

현재 용호장터 옆으로 만들어진 축산물처리장은 옛날 연못자리였다. 이 연못은 앞쪽 들

판까지 이어지는 매우 넓은 연못이었다. 이 연못은 용호리라는 지명의 유래가 되는 전설이 전해오는 곳이었다. 이 연못을 용굴이라고 불렀는데 염주 세 꾸러미가 부족할 정도로 깊었고 용이 살았다고 전해온다. 용이 살던 연못이라고 하여 용호장터 주변 지명은 용촌이라고 불렀다. 이곳 저수지를 메우고 폐수처리장이 들어섰을 때, 용호리 사람들은 더 이상 마을이 발전할 수 없게 되었다며 한탄했다고 한다.

용호장터는 교통이 발전하면서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큰 장으로 많이 빠져나갔다. 또한 각 지역 장터끼리 경쟁도 심했는데 갈산지역에서 용호장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용호장날 건장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괜한 시비를 걸고 장이 서는 것을 방해하곤 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용호장은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소멸되었다. 한때는 지역유지들이 용호장을 살리려고 용호초등학교 앞으로 이전하여 장을 개설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몇 달 후에 사라졌다. 용호장이 사라질 즈음에 결성장이 생기게 되었다.

1993년에 발간된 홍성군지 증보판 「홍성지방의 시장 발달사」(李憲稔, 경기대학교 경상대학 부교수) 편에는 용호장(龍湖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용호장은 결성면 용호리 덕우마을에 형성되었었다.

용호장의 2천여 평 장터에는 장날이면 서부면의 해산물을 아낙네는 머리에 이고 남정네는 쪽지게에 지고 왔다. 결성면의 주민이 곡물을 가져왔고, 붓집장사가 포묵·빻·생강 등을 가져왔고, 중국상인 십 명 정도가 말에다가 비단·포묵 등을 실어왔다. 소가 장날마다 거래되어 예산에서도 소를 사러 왔다고 한다. 용호장은 191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군내에서 세 번째로 장이 컸는데, 갈산장과의 격차가 갈수록 줄어들었다.

용호리장은 외장(外場)과 내장(內場)으로 구분되었는데, 외장은 지금의 농협이 서있는 광장이었다. 이곳에서는 주로 주점에서 술과 국밥 등의 음식을 팔았다. 내장은 시장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으며 부부상들도 많이 드나들었다. 동쪽은 생물전, 중앙은 싸전, 북쪽은 쇠전(우시장), 서쪽은 잡화전이 들어서 있었다. 특히 용호리장에는 쇠전이 커서 30여마리의 소가 매매 되었고, 백중장에는 단물장사의 풍경이 이색적이었다.

1930년대 후반부터 와룡천의 범람과 서산방면 도로가 갈산으로 개통되어 갈산면 상촌리에 시장이 개설되면서 용호시장이 점차 활기를 잃어 폐쇄되었다. 1946년경에 용호리의 주

민은 일제 말에 폐지 처분을 받은 용호장을 부활시키기 위하여 일제시대의 장터에서 500m 정도 떨어진 용호초등학교 앞에 장을 세웠다고 한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아 몇 달 만에 장이 깨어졌다.

이것은 일제시대에 갈산장의 성장에 수반하여 용호장이 계속 위축되어 왔던 연장선 상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용호장이 깨어짐에 따라, 결성장이 종래 용호장 고객의 상당한 부분을 흡수하면서 성장하였다



●  
우리고장의  
사라진 옛 장시  
결성장터를  
찾아서



**최진복** (1951년생)  
홍성군 결성면 읍내리

구술자 최진복 씨는 결성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다. 구술자 최진복 씨는 해주 최씨다. 해주 최씨들은 결성지역에 많이 사는데 결성 최씨라고도 부른다. 구술자는 결성초등학교, 결성중학교, 광천상업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어른이 되어서는 결성지역의 지도자로 학교 육성회장과 면소방대장 등 많은 사회활동을 펼쳐왔다.

구술자의 부모님은 결성장터에서 가게를 운영했다. 구술자도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가게운영 모습을 보면서 자랐다.

구술자는 고등학교 3학년 때인 1968년에 부모님이 연이어 돌아가셨다. 그 바람에 일찍부터 부모님의 가게를 이어받아 운영하게 되었다. 구술자는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었으므로, 부모님을 대신하여 동생들과 가게를 모두 책임져야 했다. 막내동생이 여덟 살이었고 총 총으로 네 명이나 되는 동생들을 돌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

구술자는 결혼을 일찍 하여 가게와 집안 살림을 꾸려나갔다. 결혼 후에 군대를 갔으므로 부인이 참으로 많은 고생을 했다. 어린 동생들을 돌보며 가게와 집안 살림을 불평 없이 꾸려온 부인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항상 가슴에 안고 살아간다.

구술자의 부모님은 결성장터에서 가게를 운영했는데, 구술자 역시 결성장터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므로 옛 모습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현존하는 결성주민들 중에서 구술자 최진복 씨 만큼 결성장의 모습을 직접 보면서 자랐고 현재까지 결성장터를 지켜오는 주민들은 많지 않을 것 같다.

결성장이 시작된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구술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장이 시작되었다. 구술자가 어린 시절부터 지켜보던 결성장터의 옛 모습은 어제 일처럼 눈에 선하게 떠오른다.

결성장은 5일과 10일에 장이 섰다. 상인들은 트럭으로 물건을 싣고 왔으며 주로 의류 계통의 상품들이 많았다. 우마차를 이용하여 물건을 실어 나르는 상인과 장꾼들도 있었다. 토박이 주민들이 운영하는 가게는 대략 여덟 곳 정도가 있었다. 결성장날은 천여 명 정도 장꾼들이 많이 몰려왔으므로 어깨가 걸려서 다니기 힘들 정도였다.

결성장을 이용하던 주민들은, 은하면·결성면·서부면 주민들이 주류를 이뤘다. 특히 보령시 천북면 주민들도 결성장을 많이 이용했다. 천북면 주민들은 성호리 앞 바다를 나룻배로 건너와서 결성장을 이용했다.

은하면 목현리 주민들은 평일에도 농산물을 지고 결성으로 나왔다. 일부 주민들은 수룡동 바닷가로 가서 생선과 물물교환을 해오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모습들은 1960년대 초까지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결성장터는 맨 처음에 농촌지도소 부근에 있었다. 이후에 결성면사무소 앞으로 이전해왔다. 현재 결성면사무소 앞쪽으로 2천여 평이 결성장터 범위였다. 이곳에 장옥이 앞뒤로 길게 이어졌고 구술자의 부모님도 장터 안에서 식료품과 잡화와 철물 등을 취급하는 가게를 운영했다.

1950년대와 1960년대는 나무장사들이 많았다. 청룡산 부근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나온 나무꾼들이 새벽부터 줄지어 있었다. 현재 농협건물 앞에 가축시장도 개설되었다. 가축시장은 오래 가지 않고 없어진 것으로 기억된다.

서부쪽에서 생선들이 많이 들어왔고 결성 주변 주민들이 농산물도 가지고 나왔다. 시골에서 갖고 나오는 계란을 사가는 달걀장사도 있었다. 시골에서 짚꾸러미로 열 개씩 묶어서 갖고 나오는 계란을 모아서 상회로 넘기는 장사였다.

시골에서 갖고 나오는 각종 곡물들을 사서 모아 상회에 넘기는 되메기 장사도 있었다. 되메기 장사는 삼십여 명이나 되었다. 결성장 동서남북 입구 쪽에서 결성장으로 팔려 나오는 곡물을 싸게 싼 후에 상회에 넘기는 상인들이었다. 결성장에서 옷을 취급하는 상인은 주로 티셔츠 등을 팔았다. 술을 걸어놓고 군복이나 천을 염색해 주는 염색집도 있었다. 음식점과 술집도 여럿 있었다. 기억나는 이름은, 삼산옥, 덕성옥 등이 있었다.

결성장의 제일 큰 구경거리 중에는 난장이 설 때와 씨름판이 벌어질 때였다. 난장이 설 때는 놀음꾼들이 각종 놀음기구를 이용하여 눈속임으로 장꾼들의 돈을 따가는 일이 흔하게 벌어졌다. 씨름판은 각지에서 실력 있는 씨름선수들이 많이 출전했다. 홍성출신으로 강용호 씨가 청년부에 우승하여 송아지를 타갔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이처럼 한때 주변에서 상당한 호황을 누리던 결성장은 세월의 변화를 이겨내지 못하고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결성장의 내리막길을 걷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을 꼽을 수가 있다. 가장 큰 원인은 결성과 광천의 교통사정이 좋아진 것이 원인이다. 도로가 포장되고 교통사정이 좋아지면서 굳이 결성까지 먼 길을 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다. 상품의 종류가 많고 가격도 저렴한 광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아졌다. 특히 보령시 천북면에서는 바다를 건너오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다. 버스를 타고 광천장을 보는 것이 훨씬 편리하기 때문이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농촌인구의 감소가 결성장의 소멸을 부채질했다고 볼 수 있다. 결성장의 가장 큰 고객이었던 결성면 인구의 감소가 눈에 띈 정도였다.

더구나 1980년대 초에 행정구역 개편 때에 결성면의 면세가 더욱 작아졌다. 결성면 중리가 서부면으로 편입되었고, 결성면 와리가 갈산면으로 편입되었다. 과거 오천여명에 달하던 결성면민은 현재 이천여 명으로 줄어든 상태이다. 결성장시가 마지막으로 문을 닫은 것은 1980년대 초 경이다.

1993년에 발간된 홍성군지 증보판 「홍성지방의 시장 발달사」(李憲稔, 경기대학교 경상대학 부교수) 편에는 결성장(結成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원천장(결성과 경계인 은하면 학산리에 있던 장시업)이 깨어진 이후 결성장이 그런대로 서게 되고, 1930년대에는 장이 제법 되었다. 1920년대 말부터 자전거 행상이 출현하기 시작하여 30년대에는 5~6명(포목상 한명, 나머지는 조끼장사)이 왕래했다. 건어물·고무신·씨앗·포목 등을 취급한 붓짐장사, 조기·갈치 등을 지게에 지고 나온 행상, 젓갈류·게·조개 등의 해산물을 머리에 인 서부면의 아낙네들이 모두 수십 명 출입했다.

보령시 천북면(이곳으로부터 나무장사도 다수 왔다)과 홍성군 서부면, 결성면, 은하면의 지역주민 1,2백 명이 장을 보았다.

1912년생인 결성면민 최봉안(崔奉安)은 19세부터 우차(牛車)로써 광천장, 결성장, 용호장에 출입하면서 운송업에 종사했다. 지역의 행상과 농민의 곡물을 광천장으로 수송하는 것이 주된 일이었고, 은하면의 장작을 홍성 역전에 수송하기도 했다. 하루 수입은 평균적으로 2원(圓)에 달할 정도였다. 이처럼 높은 수입을 얻었던 것이 자극이 되어 최봉안이 20세 되던 해에 지역주민 3명도 우차 운송업을 시작했다. (일제하의 광천장에 대해서는 최봉안의 증언에 의존하였다. 이분의 기억력은 매우 정확했다.)

1983년에 광천과 결성 사이의 포장이 이루어지고 1983년 서부면의 간척으로 어획고가 격감한 것이 결성장에 큰 타격을 주었다. 결성장에서 1987년 말 20~30명을 대상으로 시장 사 용료를 징수한 것이 마지막의 징수였다.

•  
우리고장의  
사라진 옛 장시  
홍주장터를  
찾아서



**장효진** (1937년생)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홍주장은 옛 홍성읍사무소 옆에 자리 잡았던 옛 장시다. 이곳은 2019년까지 옛 장시 건물들이 남아 있었다. 홍성군에서 홍주성 복원작업 일환으로 옛 건물을 사들이고 철거하면서 모든 흔적이 사라졌다.

옛 홍주장의 모습을 구술해줄 인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옛날 홍주장터에서 태어나고 자란 구술자를 소개받았다. 구술자는 육이오 한국전쟁이 일어나던 해에 열 살이었다. 이때부터 목격한 홍주장에 관한 기억이 남아 있다.

구술자 장효진 씨는 홍성읍 오관리 옛 홍주장터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이곳에서 홍주장을 목격하며 자랐고 장성한 이후로는 마을 이장을 보기도 했다. 홍주장이 서던 때는 어린 나이였으므로 홍주장에 관해 자세히 기억하는 것은 많지 않다.

옛날 홍주장은 나무시장이로부터 시작되었다. 과거 홍주장에서는 나무전이 제일 컸다.

나무전은 매일 나무장사들이 나무를 팔러 나왔다. 나무장사들이 갖고 나온 나무들은 푸장 나무를 비롯하여 장작 등 여러 종류였다.

옛 홍성읍사무소 앞으로 세거리 상점이 있었는데, 이곳 도로에서부터 홍성읍사무소 옆까지 나무전이 길게 이어졌다. 육이오 한국전쟁 당시에는 월산이나 용봉산에 나무가 많지 않았다. 홍성사람들이 가야산까지 가서 나무를 하여 홍주장에 내다 팔기도 했다. 우체국 옆 쪽으로 싸전도 있었다.

옛날에는 홍주장 주변에 집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홍성우체국 뒤쪽에만 집이 몇 채 있었다. 옛 읍사무소 옆쪽으로 공동우물이 있었는데, 홍주장 안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사용했다.

홍주장은 장옥이 4동 있었다. 홍성읍사무소 옆으로 장옥 4동이 네 줄로 서있었다. 장옥 앞쪽은 가게로 사용했고 뒤쪽에서는 살림을 했다. 가게도 살림집도 매우 좁을 수밖에 없었다. 장터가 비좁으므로 장터 밖으로 길가에서도 리어카를 받쳐놓고 물건을 팔기도 했다.

홍주장이 활발하게 운영되면서 각종 식당과 술집들이 많이 생겼다. 장시 주변으로 개인 집을 개조하여 식당이나 가게로 사용하는 곳도 늘어났다. 당시에 홍주장 주변에는 세거리 상점이 있었고 백화식당 겸 다방이 있었다. 우체국 옆쪽으로 화신다방이 제일 컸다.

홍주장은 처음부터 매일 장이 섰다. 현재 홍성시장인 대교리로 홍주장이 이전하면서 1일과 5일에 정기적으로 장이 서는 5일 시장이 되었다.

당시에 홍주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홍성읍민들이 대부분이었다. 홍성읍 인구가 늘어나면서 홍주장은 비좁기만 했다. 하지만 홍주장 주변으로는 관공서가 들어서 있어서 시장을 넓힐만한 공간이 부족했다. 홍주장을 넓히기 위해서는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전한 것이 현재 홍성시장인 대교리 5일 시장이다.

홍주장이 대교리로 이전해가면서 홍주장은 점점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홍주장에서 가게를 하던 상인들은 장사가 잘 안되므로 장옥을 개조하여 식당이나 술집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한 장옥 개조는 이후에 모두 술집 골목으로 변했다. 옛날부터 운영되던 바느질집 등 몇몇 가게가 그대로 운영됐고 나머지는 거의 모두 술집 겸 식당이었다.

홍주장의 옛 장옥들은 술집으로 변하면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다. 술집들마다 접대부가 2~3명씩 있었으며 골목 안에서는 매일 밤마다 술꾼들의 젓가락 장단 소리가 끊이질 않

았다. 외부에서는 이곳을 텍사스골목이라는 별칭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술집 골목으로 변모한 장터 골목은 1980년대 이후로 서서히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시대의 흐름은 옛날 장옥에서 막걸리를 마시는 분위기보다는 현대식 건물에서 맥주나 고급술을 마시는 분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인 변화 속에서 장옥터의 술집들도 서서히 내리막길을 걸었다. 2000년대 초반까지도 몇몇 술집이 운영되었지만 이후로는 거의 모든 술집들이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2018년에는 홍성군의 홍주성 복원계획에 의해 옛날 장터가 모두 철거되었다. 지금은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되면서 또 다른 변모가 예상되고 있다.

옛날 홍주장터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전해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화신여관이라는 간판을 내건 호마네 식당이 매우 잘되었다.

화신여관 주인은 호마라는 별명이 붙은 여주인이었다. 호마는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항상 반말이나 욕으로 상대했다. 겉으로는 말이 거칠지만 속마음은 인정이 많아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많이 베풀었다. 이런 이유로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호마는 식당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두 반말을 하면서, 홍성군수에게만은 항상 딱딱한 예의를 다했다. 홍성군수는 홍성군의 최고 책임자이므로 군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호마의 지론이었다. 호마는 젊은 시절에 많은 돈을 벌었지만 말년은 불행했다고 전해온다.

1980년에 발간된 홍성군지에는 홍주시장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본군에는 원래 홍성, 광천, 용호 등 3개 시장이 있었다.

홍성시장은 서문(西門)을 중심으로 하여 성의 안팎으로 상인들이 장을 보았다. 성 안팎으로 거리를 이용하여 상인들이 좌전을 보았으며, 이를 서문장(西門場)이라 하였다. 동문장(東門場)은 홍주교(洪州橋)와 남문천(南門川) 변을 이용하여 시장이 형성되었다. 상품은 주로 쌀, 잡곡, 포목, 어패류, 짚신류, 지물, 엮, 떡 등이었다. 시장에 모이는 인원은 4백명에서 5백명 정도였다.

시장이 서는 날은 매월 음력 초하룻날에는 서문장이 개장되고, 초엿새 날은 동문장이 개장되었다. 그러다가 동문장과 서문장을 폐지하고 군청 앞 성내동에 장옥을 신축하고 시장을 이전하여 장옥세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이 당시 군내 시장 소재지의 상가 점포를 국적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인의 점포에는 짚신류·백지·해의(海衣)·엽초 등이 조금씩 진열되어 있는 정도였고, 중국인의 점포에는 주단포목이 진열되어 있어, 중국인 상점이 아니면 광목 한 자도 살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일본인의 점포에서는 각양각색의 잡화와 학용품을 판매하고 있어 인기가 집중되었으며, 당시의 상권은 중국인과 일본인이 독점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1936년에 흥성읍사무소를 현 위치에 신축하고 홍주시장이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서, 흥성읍에서는 1943년에 대교시장을 건립하고 이전하였다.

1993년에 발간된 홍성군지 증보판 「홍성지방의 시장 발달사」(李憲昶, 경기대학교 경상대학 부교수) 편에는 홍주장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홍주장에서는 일본상인이 한일합방 직후부터 상권을 장악했다. 그것은 일본상인의 경제력뿐만 아니라 식민지 권력의 강압에도 의거하였음이 주목된다. 원래 홍주장은 성내 동문으로부터 북문 부근의 도로에 개설되었는데, 1912년 4월 경찰서장의 종용에 힘입어 이과고시 타츠미(岩越辰巳) 외 4명의 합의로 5천원(圓)을 들여 장시를 오관리(五官里)로 이전했다.

1933년 이와고시 외 4명이 구(舊)시장부지 2,411평(시가 12,055원)을, 네기 우키타(根木宇喜太) 외 4명이 구(舊)시장부지 619평(시가 3,045원)을, 후쿠마 헤이노스케(福間兵之助)가 구 우시장 510평(시가 765원)을 소유하였던 것으로 보아, 일본인이 부지를 소유한 후에 경찰서장의 강권을 빌어 시장을 개설하여 주도권을 장악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상인들은 시장을 개설한 후 홍주시장조합(洪州市場組合)을 창립했다. 여기에는 조선상인도 참여하였지만 일본상인이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1933년 현재 출자자는 이와고시 17,500원, 네기 15,000원 야마시타 토시사부로(山下利三郎) 7,500원, 유치봉(兪致鳳) 2,500원, 한용기(韓勇琦) 2,500원이었다. 홍주시장조합의 초대 대표는 이와고시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홍주장의 경영권이 면으로 넘어가는 1926년 당시의 대표는 네기였다. (이상은 흥성읍사무소에서 철하여 소장된 『중요서류』를 주로 참조)



# 예 산 군

## ▮ 전통민속신앙

예산지역 민속신앙과 무속인(巫俗人) 한창흠(1948년생)	688
예산지역 민속신앙과 무속인(巫俗人) 장수일(1950년생)	693
예산지역 민속신앙과 무속인(巫俗人) 박원옥(1954년생)	697
예산지역 민속신앙과 무속인(巫俗人) 곽순자(1965년생)	701
예산지역 민속신앙과 무속인(巫俗人) 유화용(1957년생)	706
예산지역 민속신앙과 무속인(巫俗人) 한미순(1962년생)	710
예산지역 민속신앙과 무속인(巫俗人) 김경옥(1952년생)	715
예산지역 민속신앙과 무속인(巫俗人) 김명수(1951년생)	720
예산지역 민속신앙과 무속인(巫俗人) 문한숙(1970년생)	725
예산지역 민속신앙과 무속인(巫俗人) 김태정(1967년생)	730

●  
**예산지역  
 민속신앙과  
 무속인(巫俗人)**



**한 창흠** (1948년생)  
 예산군 예산읍 교남길

부모님은 신내림 하는 것을 반대하셨다. 집안에서 무당이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병명 없이 시름시름 앓다가 열한 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신병이 시작되었다. 날이면 날마다 신이 죽었다 살렸다 하였다.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부모님은 예산군 병원을 다 찾아 다녔다. 19살 때 가족들 아무도 모르게 혼자 가서 신을 받았다. 말문이 터지고 그때부터 손님을 보기 시작했다.

11살 때부터 신내림하기까지 10년 동안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그 고통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녔지만 병명이나 치료방법을 찾지를 못했다. 예산 성격교회 옆에 있었던 한의원을 갔는데 도저히 진맥으로는 약을 처방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굿이나 해주라고 하는 것이었다. 일반 병원에 가도 별다른 처방은 없이 주사만 놓아주고 수면제를 주는 것이 다였다. 이제 의학적 치료로는 가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혼자 찾아가

서 신을 받았다.

신을 받고는 날아갈 것만 같았다. 그렇게 괴롭혔던 신병도 서서히 사라지고 평온을 찾았다. 신을 받은 뒤 찾아온 손님 중에 서울 동○○경찰서 윤소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부인이 찾아와 하는 이야기가 남편이 오늘 내일 한다고 살려 달라고 했다. 그때는 자유당시절이라 서울 시내에서는 굶을 할 수가 없었다. 먹고살기 어려운 시절에 푸닥거리 하면 경비도 많이 나가고 동네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에서 굶을 금지시켰다. 윤소장의 병국은 경찰 300명을 동원해서 금○동로터리를 봉쇄하고 하루 저녁 동안 했다. 환자는 서울대병원에 2년간 입원해 있었다는데 복수가 차서 배가 산만했다. 굶을 마치고 3시간 뒤에 배에 차 있던 복수가 빠지고 훌쩍해졌다고 소식이 왔다. 그렇게 윤소장은 살아서 다시 경찰직에 복귀하였다. 윤소장은 30살이나 연장자였는데 찾아와서는 생명의 은인이라고 큰절로 고마움을 표했다. 굶을 못 하게 하던 자유당 시절에 윤소장이 도움을 주어 서울에서 5년 동안 돈을 많이 벌었다.

유명세를 타자 나쁜 사람들이 달려드는 바람에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예산으로 내려왔을 때였다. 보건소 직원이 동료가 상을 당해 문상을 다녀오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타박상을 입었는데, 하룻저녁이 지나고 다 죽게 생겨 단국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다는 것이다. 의식은 없고 피부는 자꾸만 까맣게 변해 죽어가고 있었다. 그 사람은 사고로 난 병이 아니라 삼살방으로 이사를 가서 생긴 병이었다. 새집을 사서 들어가더라도 해를 묵히면 괜찮은데 부득불 어기고 새집이라고 들어가더니만 그로 인해 생긴 병이었다. 직원 부인하고 처남들 12명이 찾아와서 문기에 굶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처남들은 벌써 못자리도 다 보아 났는데 굶이 뭐 필요하냐고 가버렸다. 부인이 다시 와서 굶을 하겠다고 하면서 방법을 알려 달라고 했다. 음식을 준비해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알려 주었다. 그 후에 피부색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회복이 되어 보름 입원했다가 퇴원하여 직장에 복귀하였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도 큰절을 받았다.

55년 전에 78세로 조부가 돌아가셨다. 무슨 이유에서 인지 모르지만 그때는 10일장을 했다. 더군다나 종산으로는 삼살방이라 산소를 쓸 수 없다고 해서 형제고개 청계골로 장지를 정했다. 그런데 할아버지를 모신 뒤 아버지 삼 형제가 모두 앓은뱅이가 되었다.

어린 아이였지만 조부 산소를 쓸 때 지관하고 싸움을 했다. 당시 당숙이 지관을 보았는

데 산소자리를 조금 들어서 잡아달라고 했는데 어린놈이 뭐 아느냐고 마구 혼을 내는 것이었다. 그때가 11살 때로 다른 사람들이 보아도 아마 당치 않은 주장으로 여겼을 것이다. 그곳에 할아버지 산소를 쓰고 아버지 삼 형제가 이유 없이 앓은뱅이가 되었다.

7년 동안 그렇게 세 분이 지진부진 앓은뱅이로 생활하셨다. 산소를 파장하자고 주장했다. 당숙은 여전히 산소 잘 썼는데 왜 파장하느냐고 억지를 썼다. 파장을 해보니 우렁겉데기와 모뿌리가 가득 차 있었다. 또한 산소가 위치한 곳이 산꼭대기인데도 물이 흥건히 차 있었다. 다시 산소를 잡는데도 좌향에 문제가 생겼다. 지관인 당숙은 판검사가 안 나오면 법사가 나온다고 주장을 했다. 그래서 우현관으로 들어서 판검사 나오게 해달라고 했다. 어린 것이 또 나선다고 면박만 주었다. 산소를 이장하고 아버지 형제분들은 다 정상으로 돌아오셨다.

문제는 신병이 더 심해져서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당시 법사가 50만 원을 굶비로 요구해서 굶을 했는데 가서보니 병굿을 준비해 놓았다. 나는 병을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내림을 하러 왔다고 했더니 법사 하나가 나서서 미친놈이라고 응수를 했다. 화가 나서 아예 당신들은 제비만 치라고 하고 내가 다 풀어서 할 테니 도와만 달라고 해서 굶을 마쳤다. 신선생 없이 내림을 한 것이다. 신내림 이후로 그렇게 아프던 몸도 좋아지고 말문이 터져 손님을 받았다. 어렸을 때는 1년 아니면 6개월 정도만 산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부모님, 특히 신내림 이후에 아버지는 이렇게 올바른 신이 올려고 그랬는데 막아서 미안하다고까지 말씀하셨다.

대연각 호텔이 불이 났을 때 호텔은 전소하고 인명피해도 많았다. 이에 대동굿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굶을 주관하였다. 물론 통장들이 주선하여 굶을 하기는 하지만 관에서도 지원한 굶이었다. 소, 돼지를 잡고 삼현육각을 동원하여 대동굿을 했다.

예산에 내려와서 일을 할 때도 서울 사람들이 초청하여 서울에서 일을 많이 했다. 예산은 시골이라 큰 굶이 없었지만 서울, 경기지역은 규모가 큰 굶이 많았다. 굶을 해달라고 하는 굶이 국내만 국한하지 않았다. 미국 하와이, 동유럽, 일본, 중국 등 여러 나라에 불러 가서 일을 하기도 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팀으로 움직이는데 모든 경비는 그쪽에서 담당하였다.

미국 사람들은 굶을 색다른 문화에 관심으로 접근하였고 쉽게 동참했다. 일본에 갔을 때

는 한 달간 체류하면서 일을 했다. 의뢰한 사람은 전라도 광주 출신 교포 2세였다. 전 김대중 대통령이 어려운 시절에 일본에서 도와준 사람이라고 했다. 그 사람은 대단한 재력가로 지하철역마다 쇼핑센터를 가지고 있었고 60년대 초부터 70년대 중반까지 한국에서 골동품을 수집하여 500평짜리 4층 건물에 전시해 놓았다. 일하러 움직일 때마다 4, 50명이나 따라다녀 불편했다. 따라다니지 말라고 해도 자기들 일이니 개의치 말고 일하라고 했다. 그곳에서 다양한 일본 문화를 접할 수 있었다. 남들은 무당이라고 천하게 여길지라도 일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도 참 많았다.

쌀장사를 해서 돈을 크게 번 조씨라는 사람이 있었다. 개성에서 피난을 와서 정착한 사람인데 예산, 홍성, 오가에서 쌀을 사다가 서울에서 팔아 이문을 냈다. 돈을 벌어서 서울에다 땅을 사고, 지방에도 땅을 사놓은 꽤 부자로 알려진 사람이었다. 하루는 서울에서 쌀을 팔고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마대에 돈을 넣어 가지고 오다가 예산에 도착하여 돈이 들어 있는 마대자루는 그냥 놔두고 몸만 내리고 말았다. 집으로 가셔도 돈을 두고 내린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화투로 오관만 떼다가 마대를 놓고 온 것이 생각났을 때는 새벽녘이 다 되어서였다. 조씨는 그때 정신을 놓아 말을 못 하는 병어리가 되었다.

부인이 찾아와 남편 병을 고쳐 달라고 하여 조씨 병긔으로 삼각산에서 100일 기도를 시작했다. 백일기도를 마칠 즈음 제를 지내려고 음식을 다 차려 놓고 잼이꾼, 법사들이 와서 굿을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불더니 차려 놓은 음식이 다 날아가 버렸다. 심지어 떡시루까지 다 날아가 버렸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굿이나 기도는 정성을 다해 부정 없이 해야 하는데 그 부인이 남편 원기를 회복시킨다고 개를 잡아 주었을 뿐 아니라 산에 오르다가 구렁이를 밟았다는 것이다. 부인의 부정 때문에 회오리바람이 불어 굿판을 만쳐 놓았던 것이다.

새로 차려서 굿을 해도 남편 병이 100퍼센트는 회복이 어렵고 80퍼센트 밖에 안 되겠다고 하자 그래도 하자고 해서 굿을 마쳤다. 다행히 조씨는 병마를 털고 일어나 필답까지 하게 되었다. 조씨가 죽기 전에 유언하기를 자기를 고쳐 주었으니 서울에다 집 한 채를 지어주라고 유언을 했다는데 그 부인과 아들이 유언을 따르지 않았다. 조 씨가 죽고 조 씨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물려준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현재는 조 씨 며느리가 순대장사를 해서 근근이 살아간다고 한다. 마음보가 고와야 신도 도와주는 것이 확실하다.

요즘 사람들은 100일 기도를 쉽게 생각한다. 백일기도를 드리러 가려면 가리는 것이 많다. 부정한 것은 보지도, 듣지도 말아야 하고 특히 음식은 더욱 삼가야 하는 것이 많다. 육식, 어류는 말할 것도 없다. 초상집에도 가지 말아야 한다. 부부관계도 삼가야 된다. 예전에 인왕산으로 100일 기도를 갈 때 캄캄한 밤인데도 자동차라이트 같이 환하게 비춰 주는 것이 있었다. 그 때는 기도가 잘 되겠다, 기도의 효험이 있겠다라는 직감이 왔다. 소고기, 돼지고기를 올리고 굶을 하거나 기도를 하는 데 일이 끝난 뒤에는 육식을 해도 된다.

산에서 기도를 할 때는 먼저 냉수로 목욕을 하고 시작했다. 인왕산은 산꼭대기인데도 물이 아주 잘 났다. 계룡산으로 기도를 갈 때는 연천봉으로 갔다. 지금은 계룡산이 공원이 되어서 못 가지만 계룡산 가까이에 있는 마티고개 천○당이라는 굶당에서 일 년에 두 번 기도를 한다. 대동굿, 맞이굿이라고 하는데 일 년 동안 잘 살게 해준 고마움을 신에게 전하고, 또 단골손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굶이다. 그때는 소나 돼지도 올리고 작두도 타고 굶판이 좀 크다.

•  
**예산지역  
 민속신앙과  
 무속인(巫俗人)**



**장수일** (1950년도)  
 예산군 대흥면 예당동로

딸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숨도 제대로 쉬지를 못했다. 당시는 의료시절이 열악했던 때였다. 겁이 벌컥 났지만 우선 대전에서 머리를 잘 본다는 의사가 있다고 해서 대전으로 갔다. 대전에서 어렵다고 해서 평택의 박○병원으로 갔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여기서는 볼 수 없다, 시간을 지체하면 죽는다고 하면서 서울로 후송해 주었다. 서울대 병원으로 갔는데 마찬가지로. 마침 토요일이라 진료도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아이는 들것에 실려 방치되다시피 복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이렇게 하다가는 아이를 죽이겠다 싶어 이질에게 전화했다. 이질이 병원을 알아보고 순천향병원에 MRI가 있다고 순천향대로 가자고 했다. 마침 대한민국에서 순천향대학만 MRI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순천향병원에서 하는 말이 1퍼센트도 가망이 없다고 했다.

아이는 눈까지 보이질 않는다고 했다. 입에서 갑자기 ‘천지신명님이시여 살려주십시오.’

라는 말이 튀어 나왔다. 그때 무속인을 만났는데 신내림을 해야 아이가 산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때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아무리 딸을 살린다고 해도 제자의 길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 했던 것이다.

선달 스무 여드레 날 신을 받아야만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딸 생각으로만 정신이 없었던 때라 그가 누구인지도 몰랐다. 후에 그 사람을 찾으려고 했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무조건 기도와 간병을 병행하면서 딸이 소생하기만 기원했다. 지방으로 기도를 하러 갔는데 아이가 가망이 없으니까 데려가라는 전화를 언니에게서 받았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안 죽어’였다.

그때 ‘굿이나 해보자, 의사들이 못 한다면 내가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기도하랴 간병하랴 피곤했는지 병원 복도에서 잠깐 졸았다. 잠결에 뱀 한 마리가 달려들어 물려고 하는 순간 손으로 탁 쳐내고 깜짝 놀라 깬다. 문득 딸이 잘 못 되었나 싶어 중환자실을 들여다보았다. 아이는 그대로 누워 있고 산소호흡기가 그대로 작동하고 있었다. 그런데 옆에 환자 얼굴을 천으로 덮어 놓은 것이 보였다. 그 순간 내 딸이 아니구나 하고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어떤 보살을 만나 굿을 할 수 있냐고 물었다. 그 여자는 700만 원을 요구했으나 ‘내 딸을 살려준다는데 더 쓰지’ 하는 생각에 1000만 원을 약속 하고 주머니에 있던 180만 원까지 털어 주었다. 그 굿비로 계룡산 삼불봉에서 굿을 했다.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한 상태에서 간신히 삼불봉 굿당에 올라갔다. 막상 굿을 시작하고는 고작 3시간 만에 굿을 다 했으며 법사와 보살이 산을 내려가는 사태가 벌어졌다.

삼불봉에서 굿을 하는데 신이 안 내렸다. 신장대를 잡으라고 해서 잡고 있었는데, 법사 하나가 신장대를 흔들라고 했다. 아니 죽은 나무를 붙잡고 흔들라고만 하니 답답했다. 그 법사는 ‘조상이 눈이 멀었나’라는 말까지 하면서 쌍욕을 했다. 그 소리에 열이 치밀어 올라 대뜸 ‘이 호로 잡놈의 새끼들 ○발 패죽일라’라는 말이 입에서 마구 쏟아져 나왔다. 죽어가는 딸 살리려고 하는 어미 마음에 조상을 욕 먹일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들도 당황했는지 부랴부랴 짐을 싸서 산을 내려가 버렸다. 그제야 사기를 당했구나 하고 생각을 했다. 자식을 살리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서 사기를 친 사람들이 미웠다. 그 사람들은 다음 날도 올라오지 않았다. 아마도 올라오면 더 심한 봉변을 당하겠구나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할 수 없이 혼자 남아서 일주일을 기도했다. 일주일 후에 동행한 박보살 보고 산에 내려



가서 우리 집에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큰딸이 전화를 받아서 전하는 말이 ‘우리 엄마 어디로 도망갔는지 찾아달라’고 하면서 병원에 천만 원 입원비를 내야 한다고, 퇴원하려면 빨리 돈 가지고 와야 한다는 말을 전했다.

친구에게 1000만 원을 얻어 병원에 도착하니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보이지는 않지만 느낌으로 사람을 알아보았던 것이다. 이제 살았구나 했는데 병원에서는 혈압이 안정되지 않아서 수술을 못 한다고 퇴원하라고 했다.

딸이 아프기 전에 대관령 할머니신이 유명하다는 어느 보살 이야기를 듣고 꿈에 대관령 산신을 보았다. 속리산 정이품송처럼 아주 큰 소나무를 꿈에 보았다. 그리고 빨간 치마에 파란 저고리, 머리를 길게 땅고, 빨간 댕기를 한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어 지나치는데 눈이 마주쳤다. 꿈 이야기를 하니 빨리 대관령 굿당을 가라고 했다.

대관령에서 굿당을 운영하는 분은 초면인데도 반갑게 맞아 주었다. 칠백 칠십 칠만 칠천 칠백 칠십원으로 굿을 했다. 칠성님께 올리는 것이니 이렇게 액수를 맞추라는 것이다. 할머니당으로 기도를 하러 가서 ‘딸을 살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을 때까지 당신들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마움을 표했다. 그 이후로는 산신이 용궁제 해라, 산신제 해라, 계룡산 할머니에게 가라며 일주일 단위로 계속 기도처를 주고, 또 기도하러 다녀도 어려운 줄을 몰랐다. 신어머니 없이 신을 받은 이후에는 딸도 차차 건강이 좋아졌다.

계룡산에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 날 가랑눈이 내렸다. 눈을 짙어 먹으면서 얘기 목소리로 말문이 터져 나왔다. ‘엄마야 나는 천상천하 천국에서 온 동자야’라고 말하고는 나무 가지를 하나 꺾어 돌리기 시작했다. 너무 돌려서 어깨가 빠져 버렸다. 이어서 ‘팔만대장경을 보아야 할 팔잔데 어디가야 있어’라는 것이었다. 그때는 팔만대장경이 어디에 있는 줄도 몰랐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어디에 있는 줄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한 스님을 만나 팔만대장경이 합천 해인사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쌀 90킬로 한 포대, 과일 등을 준비해서 합천 해인사로 갔다. 막상 출입구에서 들어가려는데 차량은 출입이 안 된다고 막았다. 그러면 당신들이 쌀하고 과일을 들어다 달라고 했더니 문을 열어주어 들어갔다. 관람 시간이 다 되어서 문을 닫아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대장경을 관리하는 스님이 있어 부탁을 했다. 예산에서 왔는데 팔만대장경을 보려고 왔다고 하였더니 나도 예산 수덕사에 있었는데 왜 그 큰 절을 두고 여기까지 왔냐고 호통을 치셨다.

스님의 배려로 대장경을 둘러보았다.

해인사에서 나오자 동자가 말하기를 ‘엄마야 인왕산에 가서 치마바위에 앉아봐라’라는 것이었다. 옛날 선비와 산신령들이 의논공파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부랴부랴 서울에 올라가 인왕산에 도착하여 인사를 하니 앉지도 말고 또다시 삼관음을 보러 가라고 지시했다. 삼관음이 어디에 있냐고 물었더니 아는 사람이 없었다. 삼관음은 낙산사, 강화도, 보리암을 뜻하는 말이었다. 이렇게 세 군데를 다 다니고 나니 동해, 남해, 서해, 북해를 가라고 지시했다. 동해, 남해, 서해는 알겠는데 북해는 한탄강을 말하는 것을 몰랐었다. 이렇게 전국을 한 바퀴 돌리고서는 이제 제주도로 가라고 지시했다.

계룡산에서 맞이한 동자가 많이 도와주었다. 동자는 돈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꽃을 가지고 오면 그렇게 신명이 나서 밤새도록 점을 보아도 지치지 않았다. 그러나 신통하게 공수를 해주어서 곤란할 때가 많았다. 어느 날 세 명이 함께 점을 보러 왔었는데 그 중 한 명의 부인이 죽었다고 자꾸만 공수를 내리는 것이었다. 점을 보러 올 때 부인이 분명히 밭에 일하러 가는 것을 보고 왔는데 죽었다고 하니 함께 온 사람들도 그럴 리가 없다고 했다. 그러자 한 명이 그럼 가서 확인해 보면 알 거 아니냐고 일단락을 지었다. 동자님이 알려준 대로 가 보니까 부인이 밭에서 이미 숨져 있었다. 그 이후로 얼마까지 살 수 있냐고 점을 보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이 심했다.

점을 보러 온 사람보고 도둑놈이라고 해서 또 곤욕을 치렀다. 무속에서는 화투하는 노름꾼들을 도둑놈이라 칭하기 때문이다. 당사자는 내가 무슨 도둑놈이냐고 발끈했지만 사실은 도박하다가 돈을 몇 억 잃고서 답답해서 찾아왔던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노름을 했다고 실토를 했는데 마침 같이 노름했던 사람이 먼저 와 있어서 다시 한 번 어색한 자리가 되었다.

한번은 점을 보는데 남녀의 애정을 가지고 자꾸만 공수를 내리는 것이었다. 부부관계 때에 남자의 행위와 여자의 행위를 너무나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난처한 적이 있었다. 함께 공수를 들었던 사람들도 참으로 희한한 일이라고 한마디씩 했다.

•  
**예산지역  
 민속신앙과  
 무속인(巫俗人)**



**박원옥** (1954년생)  
 예산읍 예당관광로

16살 때, 어느 날 아침 신병이 그냥 와버렸다. 아침에 일어나 뒷마루를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고 말았다. 아버지는 그런 딸을 데리고 병원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병명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결국 맹인에게 점사를 보아 신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신병을 막아보려고, 제자 길로 가는 것을 돌리려고 교회에 매달렸다. 교회 기도원에 가서 살았다. 안양에 갈멜산 기도원은 단골 기도원이었다. 그러나 신을 막을 수는 없었다. 몸은 교회에 가 있지만 내면에서의 싸움으로 고초를 많이 겪었다. 교회를 그만두고 태고종이라는 절에 3년간 다녔다. 그래도 병은 사라지지 않았다. 스님이 이야기하길 사주가 남다르니 그 길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결국 마흔 세 살 때 신에게 굴복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둘이나 낳았는데, 몸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 허리가 24, 몸무게가 43킬로 밖에 안 될 정도로 아위었다. 그래서 신병이 무서운 줄 안다.

주위의 시선보다 가족들의 시선이 더 없이 서운했다. 남동생들은 무당이 된 누이가 부끄럽다고 왕래를 하지 않았다. 친정어머니가 신장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을 했는데 고칠 수가 없다는 언니의 전화를 받고 내가 고치마 하고 달려들었다. 가족들은 병원에서도 가망이 없다고 한 병을 무당이 고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아무리 어머니지만 돈을 내야 된다고 했다. 돈을 얼마 보내면 내가 보태서 굿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다. 신어머니, 신딸, 동료들을 대동하여 양구로 내려가 밤새워 굿을 했다. 어머니는 새벽에 몸을 털고 일어나 그 후 20년이나 더 살고 돌아가셨다. 그 이후 형제들이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왕래를 했다.

신내림을 받고 3년 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 손님이 오면 봐서 일을 할 뿐이었다. 그래서 그랬는지 또 신병이 몸을 치고 들어 왔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신이 게으름을 피워 화가 난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을 접고 기도에 매달렸다. 오로지 할아버지신과 할머니신을 위해 기도를 했다.

무당은 만신이라고 한다. 그 뜻은 모든 신을 모신다는 뜻이다. 어느 제자고 12신령과 조상신이 다 있다. 그 중에서 할아버지신이 아니면 할머니신이 조종을 해주시던지, 동자, 선녀, 장군 등을 내세우는 경우 그 신이 조종해서 알려주신다고 이해하면 된다. 이처럼 신이 없는 제자는 없다. 다양한 신들이 있지만 실제 점을 볼 때는 할아버지 신명인지, 할머니 신명인지 점을 보는 손님에게는 반드시 알려준다.

신내림을 해준 신어머니는 신을 내려주는 일까지만 책임을 지면 그만이다. 신의 제자가 되면 제자 스스로가 터득해서 일을 해야 한다. 일을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언을 듣기는 하지만 제자가 되면 기도로 무엇이든지 해결해 나가야 된다.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 제자가 해야 할 의무라고 보면 된다.

전국 안 가본 곳이 없다. 태백산, 지리산, 오서산, 칠갑산, 계룡산 등 답답하면 기도를 드리러 간다. 예산문화원 앞에 있는 샘에도 가서 기도를 한다. 용궁 할머니를 뵈고 이야기하듯이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다. 전국의 기도터는 만물상(불교용품 상회)에서 정보를 얻는다. 또는 책자가 있어 그것으로 정보를 얻기도 하며 현몽하는 경우도 많다. 현몽한 곳을 찾아가 보면 꿈에 본 모습과 실체가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내림굿을 하고 현몽을 했는데 신어머니가 인왕산 같다고 해서 가서 보니 정말로 꿈에 본 인왕산 그대로 였다.

신을 모시는 제자는 신에게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 기도를 조금 성의 없이 하면 곧바로 내 치는 것이 신이다. 제자의 길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다른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신을 모시는 길이 가장 무섭다.

지리산으로 왕보살과 제자를 데리고 기도를 하러 갔었다. 왕보살이 지리산에 도착하자마자 자기는 기도가 끝났다고 앉아서 소주를 마셨다. 아직 기도하기도 전인데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지리산 피아골이라는 지명으로 볼 때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 같다, 자칫 잘못하면 그런 혼령이 붙을 수 있으니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일렀다. 왕보살은 막 무가내로 자기 기도는 다 끝났다면 술을 마셨다. 그 때 갑자기 왕보살 얼굴이 셋노랑게 변하면서 길바닥에 누워버렸다. 급하게 오방기로 막고 부정을 쳐 준 뒤에야 겨우 몸을 추스르고 일어났다. 제자의 길이 무서운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신례원에서 사주카페를 할 때였다. 모녀와 딸 친구, 세 명이 들어 왔다. 37살 먹은 애기엄마인데 대인기피증이 있어 6년 동안 바깥출입을 못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그 집 아들이 목을 매 자살을 했고, 이제 아들뿐만 아니라 딸까지도 죽게 생겼으니 굿을 하자고 했다. 본인이 직접 굿을 하고 싶다고 전화를 해서 칠갑산에 가서 굿을 하고는 말끔하게 나왔다. 굿을 하고 나서는 본인이 먼저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밥 먹자고 한다니 더욱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젊은 남자애가 얼굴이 새까매 가지고 들어왔다. 굿을 하느라고 1억을 썼단다. 1억을 썼든 2억을 썼든 고지지도 못한 거 뭐 하냐고, 굿을 해서 벗겨 주마 하고 굿을 권했다. 굿 한번으로 멀쩡하게 고쳐 놓았다. 귀신병은 굿을 안 하면 고칠 수가 없다.

신병이 왔다고 해서 다 내림굿이 잘 되는 것은 아니다. 대개 내림굿은 3일 정도 하게 되는데, 몸이 아파도 이 길은 가지 않으려고 마음을 담은 사람들은 굿하기가 매우 힘이 든다. 마음을 열어 놓아야 하는데 달힌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돈만 쓰고 몸은 계속 아프고 굿을 한 의미가 없다.

내림굿이 가장 경비가 많이 든다. 먼저 삼산을 밟아야 한다. 삼산은 본주 본향이라고 해서 자신의 고향, 도당이라고 해서 본인이 사는 곳, 시택의 고향산에 다녀와야 한다. 삼산을 밟은 후에 기도를 하고 내림굿을 한다. 내림굿을 하고 나면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서낭신을 만나야 한다. 그 다음에는 용궁을 돌아야 된다. 서낭과 용궁에 순서는 없다. 이렇게 기도

처를 다 돌아주는 신어머니가 있는가 하면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내림굿이 끝나면 준비해야 할 물건이 많다. 신복이 서너 벌 필요하고, 부채, 방울, 오방기, 책 등 무구를 준비해야 한다. 또 여벌 한복도 있어야 한다. 알고 보면 굿을 한 번 할 때 경비로 들어가는 돈이 꽤 많다. 삼산을 뱉으러 갈 때나, 서낭, 용궁을 돌아야 할 때도 여러 명이 동행하기 때문에 경비가 든다. 올려야 할 음식도 매번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 내림굿 할 때 제대로 못 불리면 누구든 원망을 하게 되는데 모든 것이 자기 노력에 달린 것인 줄 모른다. 일반인들도 내림굿 한다면 돈을 많이 버는 줄 알지만 천만에 말씀이다. 신 선생을 모셔오면 무조건 1할을 지불한다. 그 밑에 보조로 두, 세 명이 따라온다. 그 사람들 인건비도 주어야 한다. 요즈음은 굿당도 방을 빌리는데 방세도 많이 주어야 한다. 게다가 굿을 준비해 주는데 수고한 사람들, 식사비 등 들어가는 경비가 소소하게 많다.

예전에는 마을 입구에 보면 서낭당이 꼭 있었다. 지금이야 모두 없어져 어디에 있었는지도 알 수 없지만 예전에는 쉽게 볼 수 있었다. 무속인들은 서낭당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필수이다. 왜냐하면 집에 들어가려면 대문이 있듯이 서낭문을 열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산신령마다 좋아하거나 금기하는 음식이 있다. 인왕산신은 멸치만 먹고 가도 못 올라오게 하는 반면 계룡산신은 오징어를 좋아하고, 지리산신은 고기를 좋아한다. 칠갑산신과 오서산신은 모든 것을 다 잘 받는다. 즉 기도를 해도 탈이 안 난다는 이야기다. 애동이었을 때 인왕산을 올라가는데 생선 머리에 붙은 살점을 먹고 올라갔다가 혼이 난 적이 있다. 산을 오르지 못하게 마구 돌리는 것이었다. 인왕산은 육식과 어류를 일절 받지 않는다는 산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일어난 불찰이었다. 신어머니가 풀어 주어서 겨우 올라갈 수 있었다.

원주 장구봉에 어린 제자들과 기도하러 간 적이 있는데 마침 동행한 이들 중에 생일을 맞이한 보살이 있어서 스님에게 미역국용 고기를 사다 달라고 부탁을 했다. 스님은 법사길을 가시는 스님인데 아무 토를 달지 않고 고기를 사다 주어 미역국을 끓였다. 우선 용궁할머니에게 올리도록 제자에게 시켰는데 음식을 올리러 갔던 제자가 혼이 난 후 빌고서 내려왔다는 것이다. 미역국을 놓자마자 빙빙 돌리고, 내려가지 못하게 하더라. 그 자리에서 싹싹 빌고서 겨우 올면서 내려왔다고 했다. 스님에게 가서 왜 고기를 사다 달라고 할 때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고 하니 그것을 알려주면 너희들 공부가 되겠냐 라는 말로 깨우쳐 주었다. 산마다 주관하시는 산신이 좋아하는 음식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  
**예산지역  
 민속신앙과  
 무속인(巫俗人)**

**곽순자** (1965년생)  
 예산군 대흥면 손지대숲길

701

어렸을 적부터 참 유별났다. 아이들과 놀이를 해도 무당놀이만 했다. 보자기 뒤집어쓰고 소쿠리 엮어 놓고 북 치는 시늉을 하고 놀았다. 어른들은 이런 어린 딸의 행동을 달갑게 보시지 않았다.

학교에 가기가 정말로 싫었다. 초등학교 입학은 누구나 기다리고 설레는 일이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냥 싫었다. 처음에는 학교에 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막상 입학할 당시는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생떼를 부렸다. 아버지는 학교에 안 가면 바보 된다고 역정을 내셨다.

입학하던 날 팔이 빠졌다. 놀다가 팔이 빠져 병원에 다니면서 학교에 대한 즐거움이 사라졌다. 소풍 가는 날과 운동회 날이면 영락없이 몸살 난 것처럼 아팠다. 9살 때 신병이 심해졌을 때는 운동회 날에 아버지가 리어카에다 아픈 아이를 싣고 학교에 가서 운동장에서 밥

을 먹고 오기도 했다.

9살 때 온 동네에 염병이 돌았다. 설사만 나오고 음식물을 먹지도 못해 그야말로 피골이 상접했다. 다른 형제들에게 전염될까봐 방을 따로 썼고, 식기도 항상 삶아서 사용하였다. 우리 딸 얼마 못 살겠다는 아버지의 혼잣말을 듣고 아홉 살짜리가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그런데 할아버지들이 나를 살렸다. 힘없이 누워 있는데 천장 한 쪽엔 뱀이, 한쪽엔 다섯 분의 할아버지가 보였다. 갑자기 뱀이 확 달려들었다. 그때 장비처럼 생긴 다섯 분의 할아버지가 '기다려라'하면서 확 달려들어 뱀을 막아주셨다. '으악' 외마디 비명에 부모님은 놀라 들어오셨고 부모님 두 분은 통곡하기 시작했다. 부모님은 이제 딸이 죽으려고 그러나 보다 생각하신 것이다. 그 꿈 이후에 몸을 훌훌 털고 일어났다. 제일 먼저 밥을 달라고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밥을 퍼먹고 화장실을 다녀왔다. 누워서 죽기만 기다리던 아이가 멀쩡히 밥을 먹고 걷다니 신기하기만 했다.

아버지는 인물도 웅했고, 못 하시는 것이 없었다. 농약을 할 때면 상모도 잘하시고 복도 잘 치셨다. 사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기가 강하신 분들이었다. 당신들이 이 제자길을 가야 했지만 자식을 많이 낳아 놓고 먹여 살리려니 제자길을 가지 못한 것이다. 어머니가 어디 점이라도 불러치면 역정을 내고 못 하게 하셨던 분이 아버지다. 어렸을 적 무당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셨을까 짐작이 간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모두 잘 되질 않았다. 고생만 하고 금전운이 없었다. 그래서 이사를 많이 다녔다. 7남매와 부모님, 이렇게 아홉 식구가 거처하기에는 어디에나 어려운 점이 많았다. 3학년 때 이사를 갔는데 전세도 아닌 셋방이었다. 이사 간 날 저녁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 '여기는 무당집이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어린 딸이 또 헛것을 보았나 싶어 부모님은 걱정을 많이 했다. 그 집에서 새벽 2시경에 밖에서 누가 부른다고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집안 식구들이 놀란 적도 있다. 그 당시에 푹푹히 보았다. 캄캄한 밤인데도 훤히 보였고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 말을 하면 집안 식구들이 뺨을 때리며 정신 차리라고 했다. 그래도 분명하게 보이는 것을 그렇지 않다고 할 수는 없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 집은 무당이 살던 집이었고, 제자길을 가다가 나이가 많아 무당 일을 접고 아들네로 갔다는 것이었다. 그 소리를 듣고 부모님은 그 집에서 그냥 살 수는 없었던지 다시 이사를 했다.



9살 경부터 오기 시작한 신병은 생활을 순탄하게 놓아 주질 않았다. 학교는 더욱 가기 싫었다. 소풍, 운동회 날만 되면 왜 몸이 아픈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선생님의 행동도 맘에 들지 않았다. 선생님의 훈계에 내 주장을 굽히지 않아 더욱 혼이 났다. 그럴 때면 책가방을 싸 들고 집에 가서 아버지께 이른다라는 말을 하고는 귀가하기 일쑤였다. 아버지는 고집 센 딸을 이해하고 잘 대해주셨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도 아버지 기와 내 기가 비슷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신기가 강해졌다. 누가 물건을 잃어버리면 그 물건의 행방이 입에서 죽 나오는 것이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마구 이야기를 하니 어머니는 이러면 안 된다고 성화셨다. 구설에 오르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셨다. 그때는 단지 어른스런 말을 하는구나 생각하셨지 딸에게 신이 온 것은 알지 못하셨다. 그 당시에 신내림으로 풀어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일찍 한 결혼도 몇 해 가질 못했다. 20살 때에 여러 가지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남편을 만났다. 사람 좋아 만났는데 시댁 또한 어려운 집이었다. 시댁은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와주어야만 하는 형편이었다. 시어머니는 뇌졸중으로 장애가 있었고, 남편이 장남이어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해야만 했다. 결혼 후 딸 둘을 낳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저 세상 사람이 되었다. 할 수 없이 평택 친정살이를 시작했다. 독립도 못 하고 친정에 붙어사는 것은 아니구나 싶어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안 해 본 일 없이 고생하다가 예산에 와서 현재의 남편을 만났다.

전남편 사이에서 딸 둘, 지금 남편이 둔 딸 하나,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 하나 이렇게 딸만 넷이다. 복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주는 것 같다. 현재의 남편이 하는 일이 풀리지 않았다.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데 막막했다. 그래서 식당을 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 옆친 데 겁친다고 딸이 고등학교 잘 다니다가 학교 안 다닌다고 선언을 하고, 남편이 일 나갔다가 다치고, 막내도 다치고, 큰딸이 사고로 죽고, 더 이상 무엇을 어찌 해야 할지 앞이 캄캄했다. 이제는 제자의 길을 가야지 다른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은 자식까지도 다 잃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37살 때 제자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림굿 택일을 부탁했고, 그렇게 신내림을 받게 되었다. 몸이 붕 뜨면서 단소 소리, 피리 소리, 군사들이 몰려오면서 '이제 가자~'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신을

내려주던 무당 언니라는 분이 갑자기 몸이 아프다며 신을 다 내려주지 못했다. 칼을 타고 싶은데 무당 언니는 자꾸만 물동이를 타라고 하는 것이었다. 더 이상 굶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해서 신장님만 모시고 돌아왔다. 신을 다 내리지 못해서 그런지 집에 오자마자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

대천에 있는 스님에게 같이를 해서 37살 때 두 번째로 신내림을 받았다. 애초 신내림을 할 때도 장군님이었고 현재도 몸주는 장군신이다. 그래서 신당도 장군암이라고 했다가 금의정사라고 기도로 받아서 이름을 지었다. 그 밖에 할아버지신과 할머니신이 많이 도와주고 있다.

첫 번째 신내림에 실패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간 곳은 대천 모 스님이 운영하는 암자였다. 모습은 스님같이 하고 계셨지만 신을 받으신 분이니 법사가 맞다. 자초지종을 말하였더니 기도부터 하자는 것이었다. 그곳에서 물밥만 먹으면서 기도만 했다. 대천에 가서도 기도만 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기도만 했다. 두 번째 같이 스승은 기도를 강조했다. '기도가 밥이다. 기도가 밥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로 보낸 시간이 6년이다. 신을 받고 6년 동안 손님도 받지 않고 오로지 기도로만 시간을 보냈다. 많이 먹어도 기도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물밥만 먹었다. 잡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해서 일체 가정일도 미루어 놓고 오로지 기도에만 매달렸다.

남편이 제일 걱정을 많이 했다. 기도한다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손님도 받지 않으니 신만 내리면 곧바로 일이 수월하게 풀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니 실망하는 눈치였다. 남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손님보다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간절히 기도했다. 홀로서기를 할 시간이 되었다. 언제까지 선생님을 의지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서운함과 두려움이 앞섰다. 제자의 길에 들어섰지만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다. 그래도 이제는 홀로 해 나가야만 했다. 든든한 지원군은 남편이었다. 기도를 다니려면 운전 해주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남편이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갑자기 새벽 2시에 일어나 어디로 기도를 가야겠다고 하면 여전히 제자의 길을 가보지 않은 사람이라 싫다기보다는 귀찮아하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처음에는 깃발도 없었다. 향을 켜 놓으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들어와 '뭐 봐요'라고 물어보면 그래서 손님을 받기 시작했다. 그것이 알음알음 입소문이 나서 제법 많은 단골도 확보

했다. 아이들에게 무당 자식이라는 소리 안 듣게, 남편에게 무당 남편이라는 말 안 듣게 열심히 했다. 굿보다는 비손만 해도 고맙다는 손님이 많았다. 18년째 단골로 오시는 분들은 초창기 때에 처음 만났던 분들이다. 특별히 지도해준 스승 없이 지금까지 혼자 제자의 길을 걸어 올 수 있었던 것은 기도가 밥이라는 가르침이 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  
예산지역  
민속신앙과  
무속인(巫俗人)



**유 화 용** (1957년생)  
예산군 신양면 녹문노루목길

7살 때 신병이 왔다. 그러나 양반 집안에서 무녀가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부모님이 양수리에서 농사도 크게 하시고 야채 장사, 산판일 등 여러 가지 일을 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 거룻배 서너 척이 있을 정도였으니 부유한 축에 들었다. 일곱 살 때 신병이 왔을 무렵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 남자들이 연달아 세상을 떠났다. 어린 딸에게 신이 왔는데 안 풀어 주어서 그랬을지도 모른다.

육이오 때 돌아가셨다는 만신이었던 진외할머니가 몸주로 내렸다. 그분은 태어나기 전에 돌아 가셨으니 얼굴도 알 수가 없었다. 꿈에 진외할머니가 도당굿을 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학교를 제대로 갈 수도 없었다. 일주일에 삼사일은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다른 형제들은 멀쩡했다. 신병으로 고생하는 어린 딸이 안쓰러워서 그랬는지 어머니는 교회로 인도 했다. 무당 안 만들겠다고 교회로 인도해서 16년 동안 교인으로 생활했다. 어느 날부

터인가 교회를 가면 몸이 성하질 못했다. 넘어져 머리가 깨지고, 팔이 부러지고, 팔이 다 나으면 다리가 부러지는 등 견딜 수가 없었다. 그때 아버지가 험하게 돌아가셨다.

할머니는 절에 다니셨다. 그런데 절에만 다녀오시면 집에서 운영하는 배가 뒤집히는 사고가 났다. 아버지는 절에 가는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다가 가지고 가는 쌀을 빼앗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할머니가 절에 가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

20대 중반, 신을 거역할 수가 없어 받아들이기로 했다. 어느 날 이복에서 돌아가셨다는 진외할머니가 내 머리와 어깨에 손을 올려놓으시고 계속 울기만 했다. 그 할머니는 조막손이 발이었다. 조막손이 발 이야기를 친할머니에게 했더니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셨다. 당신 사돈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신내림을 했던 그때가 24살 때였다. 이제 분명히 그 할머니가 몸에 실린 것이었다. 처음에는 거부를 했다. 죽으려고 약도 먹어 보고 동맥을 끊기도 했으나 신이 죽이지는 않았다. 신이 살린 거라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교회 다니다가 무당을 한다는 것을 스스로 용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세상은 그냥 놓아두지 않았다. 이상한 것이 보이고, 말은 그냥 나오고 미쳤다는 소리가 제일 견디기 어려웠다.

신장이 망가져 대수술을 두 번 했는데도 살아났다. 1986년 5월 5일 수술을 하고 평상인으로 돌아갔으나 신이 잠시도 놓아 주질 않았다. 하는 일마다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몸과 마음이 바닥을 쳤다. 그때 관악산을 찾은 것이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몸도 추스르지 못하면서 관악산을 데려다 달라고 했다. 그 이후 제자의 길이라는 무업을 운명으로 알고 받아들였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해서 점집을 찾았는데 불사단지를 모시라고 했다. 단순하게 단지 하나 사다가 쌀을 담아 놓으면 되는 거지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어떻게 알았는지 진외할머니의 막내손녀인 외숙모가 찾아와 야단이 났다. 어떻게 할머니를 모시냐는 것이다. 다른 점집에 모시고 간간히 가서 섬기라는 것이었다. 한 점집을 찾았는데 문제가 생겼다. 보살이 말하기를 몸주인데 감히 어디에다가 모시냐고 혼 줄이 났다. 그 순간 몸이 굳어 그냥 넘어졌다. 넘어져 쓰러진 상태로 달력을 보고 ‘나 이 날 굿해 쥐’하고 겨우 일어났다.

장안에 유명하다는 보살, 법사가 굿판을 열었다. 신내림굿이 아니라 그냥 굿을 하는 것이었다. 또 다시 사지가 마비되고 움직이지 못했다. 굿판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쥐고 있던 방울 부채를 놓게 했지만 그것도 어려웠다. 힘으로 빼앗으려고 해도 어려웠던 모양이다. 겨우

몸이 풀리고 정신이 돌아왔을 때는 더 이상 굿을 진행할 수 없었다. ‘니들끼리 놀아라’라는 한마디가 입에서 튀어나오고 그렇게 굿판은 끝이 나고 말았다. 다시 신내림굿도 안 하고 제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신선생도 없었기 때문에 방울 부채 쥐는 법도 몰랐다. 어떠한 절차로 굿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다. 어렵다는 제자의 길을 홀로 독학하다시피 하면서 지금까지 몸주 할머니를 모시고 있다.

26살 때 집안의 가까운 사람이 사고를 당했다. 살아도 사람 구실을 못한다고 했다. 그런데 자꾸만 입에서 나오는 말이 100일 기도를 하면 살릴 수 있다고 했다. 어머니도 만신은 아니지만 기가 강하신 분이였다. 집에 오니 어머니가 먼저 100일 기도하면 살릴 수 있다고 하셨다. 방울 하나 얻어서 기도를 시작했다. 11월 중순 경, 몸주 할머니가 측간(화장실)을 쓴 싸리비를 구하라고 했다. 언니 남자친구가 싸리비를 구해 왔다. 싸리비를 풀어 세 개를 입에 물고 기도를 했다. 소복에 싸릿가지를 물고 기도를 했다. 밥 한 공기에 소금 짊어서 먹으면서 100일 기도를 했다. 당시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100일 기도 정성인지 그 사람은 멀쩡하게 완쾌되었고 걸어 다니게 되었다.

백일기도를 끝내고 나니 몸주인 할머니는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자고 이끌었다. 태백산 천제단으로 일주일 기도를 떠났다. 기도 한지 4, 5일 지나서 천제단에서 용을 보았다. 산꼭대기에 용이 있었다. 산 위에 절이 있는데 용 그림이 있다는 것이다. 새벽에 정상에 오르니 용궁이 거기에 있었다. 주황색 광채가 올라오면서 부처님의 상반신이 보였다. 단군성전에 계신 할머니에게 말하니 당장 내려가라고 했다. 여기서 백일기도를 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5일 만에 본 사람은 없다고 했다. 일주일 기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법당을 마련하였다.

법당에 탕화를 모시고 싶었다. 탕화를 그리는 분에게 부탁을 하고 이제 불림굿을 해야 했다. 굿을 진행하는 과정은 이야기로 들었지만 막상 굿을 하려니 막막했다. 법사에게 준비물을 물어가면서 음식을 준비했다. 떡은 얼마를 해야 하며 어떤 순서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뽕쌀떡, 찹쌀떡, 산시루 등등 열심히 준비한다고는 했지만 자신이 없었다. 백설기를 산시루라고 하는지도 몰랐다. 열심히 준비한 결과 굿하는 날 법사가 하는 말이 ‘이거는 처음 신 받아서 불림굿하는 보살이 아니고, 몇 년 불러 먹은 보살이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제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할머니는 한번 말문을 닫으면 오래간다. 두 번까지는 어떻게 봐주는데 세 번은 끝이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차단해 버린다. 손님들에게 무언가 말을 해 주어야 하는데 묵묵부답이다. 살아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심한 것 같다. 그래서 할머니를 언제나 잘 모셔야 한다. 예산에 오기 전에는 손님이 많았다. 사업 번창하게 해서 부자 만들어 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화목하게 해주고 더 바랄 것이 없는데, 인간들은 하나를 주면은 두 개를 달라고 하고 두 개 주면 세 개 달라고 하고 욕심이 끝이 없었다. 그러면 몸주 할머니는 차단해 버렸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욕심을 부리지 마라’고 늘 경계시킨다. 변치 않고 잘하는 손님들도 많다.

몸주 할머니는 세 번을 쳐내셨다. 많았던 신도들을 세 번 나누어서 쳐냈다. 너희 욕심을 이제는 더 이상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이다. 더 이상 오지 말라고 손님을 밀어냈다. 그러자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다. 신장 수술한 이유도 있었지만 정신적으로 지쳐 있었다. 예산에 오기 3년 전부터 현재의 용화사 자리를 보여 주었다. 굿당도 아니고 기도터도 아닌데 용화사 마당에 세워 놓는 것이었다. 그것이 현실이 되었다. 마침 지인이 예산에 다녀왔다기에 꿈에 보였던 장소를 이야기했다. 앞에 큰 당나무가 있고, 산신이 위에 있고, 밑에는 용궁이 있고, 법당이 조그맣게 모셔진 곳이라 했더니 언제 가 보았느냐고 하는 것이었다. 다음날 새벽에 이곳 용화사에 왔다. 100여 년 전에 녹문사라는 절이 있었던 곳이라고 했다. 본래 1969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 집을 지었던 분은 후손이 없어 제삿밥을 못 얻어먹는다고 해서 한복을 해주고 현재는 당에 모시고 있다.

●  
**예산지역  
 민속신앙과  
 무속인(巫俗人)**



**한 미 순** (1962년생)  
 예산군 봉산면 화전 2길

출생의 비밀을 알고 보니 가족 구조가 복잡했다. 낳아주신 어머니와 길러주신 어머니가 달랐다. 낳아주신 어머니는 김 씨였고, 길러주신 어머니는 한 씨였다. 한 씨 어머니(본래는 황 씨 임)는 사주에 자식이 없었다. 만신인 낳아주신 어머니가 살림이 궁색해서 박물장사를 다니다가 길러주신 어머니를 만났고, 한 씨 어머니가 자식 좀 낳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1년 동안 함께 생활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 김 씨 어머니 소생이 1남 3녀라는 것은 신내림을 하고서 알았다. 낳아준 어머니의 남편 김 씨는 당시 또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다른 동기간은 자기 어머니의 범당을 찾아다니는 한 씨 엄마를 이모인 줄 알았다고 했다. 집안이 어렵고 하니 이모네로 입양을 보내자고 해서 본래 아버지한테 입양처럼 오게 되었다.

아버지와 어머니(키워준 어머니 황씨) 세 식구는 홍성에서 서울 약수동으로 이사를 했다. 집



안이 넉넉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립초등학교로 유명한 리라초등학교를 졸업했다. 황 씨 어머니가 신병이 났는데 풀지 못하고 돌아가시자 아버지는 흥성으로 다시 내려오셨다. 그때가 13살, 초등학교 다니던 때였다. 아버지는 안면도 여자를 새어머니로 맞았다. 새어머니는 서해안에서 생산되는 김, 해물을 판매한다고 장사를 하다가 가산을 탕진했다. 그로 인해 목수일을 하시던 아버지는 충격을 받고 쓰러지셨고, 늑막염에 폐결핵이 겹쳐 전혀 생산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가산이 기울어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되어 중학교 1학년을 마치지 못하고 중퇴를 해야만 했다. 먹고 살려고 16살에 남의 이름으로 광천에 그릇 만드는 공장에 취업을 했다. 본 나이로는 미성년자라 취업이 어려워 친구 언니 이름인 김창분이라는 이름으로 취업을 했다.

풍족하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집까지 날리고 남의 이름으로 그릇 만드는 공장에 다니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 키워주신 황 씨 엄마는 딸을 엄청나게 귀하게 키웠다. 치맛바람도 상당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렇게 귀하게 크다가 그릇 만드는 공장의 공원으로 전락한 신세는 처량하기 짝이 없었다. 17살 때 처음으로 낳아주신 만신 엄마를 만났다. 한 씨네 집이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던 것이다. 어떻게 해서 낳은 자식인데 이렇게 되었냐고 하며 당신의 옆구리에 난 큰 흉터를 보여 주었다. 남편 김 씨는 자신은 작은 부인 얻어 살면서도 밖에서 아이를 배어 가지고 온 본부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죽으라고 칼로 찔렀다고 했다. 그때가 임신 8개월째였다고 한다. 갑자기 찾아와 낳아 준 엄마라고 밝히며 출생의 비밀을 알려준 만신 엄마로 인해 매우 혼란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당신 나이 환갑을 넘기고 17살 먹은 딸 하나를 남기고 돌아가셨다.

딸이 없었던 공장장이 수양딸로 삼아 잘 보살펴 주었다. 공장을 착실히 다니다가 나이가 차면 연분 만나서 시집을 가면 된다는 말로 위로를 많이 해주셨다. 17살 되던 해 12월에 아버지 초상 때 첫 남편을 만났다. 마땅히 갈 곳도 없어서 남편 집에서 함께 생활을 하다가 얼마 못 가서 도망하듯이 용인에 있는 도자기 공장에 취업을 했다. 몸이 나른하고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어서 병원에 가보니 임신이라고 했다. 친구의 권유로 낙태를 결심하고 산부인과 병원에 갔는데 무서워서 할 수가 없었다. 당시 무당이었던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낙태하면 더 이상 자식이 없다고 하여 다시 시집으로 돌아와서 19살 때 아이를 낳았다. 시집은 12명 식구의 대가족이었는데 어린 나이에 그 큰 살림을 감당하는 것이 매우 힘이 들었다. 시어머

나는 곳을 하러 다녀서 시어머니 시집살이는 없었는데 함께 지내는 동서 시집살이를 하느라 눈물을 많이 흘렸다.

첫째 딸을 낳았을 때 남편이 교통사고를 내서 형을 살고 나왔다. 어찌 된 영문인지 둘째 아들을 임신했을 때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가 또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감옥에 갔다. 남편은 둘째 아이 임신도 모르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아이 낳은 후에 나왔다. 이렇게는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 때 분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부평에 도자기 공장이 생기면서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같이 올라가서 일을 하게 되었다. 우리 가족 네 식구가 함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았고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얼마 있다가 이상하게도 하혈을 하면서 몸이 말라 갔다. 모처럼 가족과 함께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조물주의 시기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그때부터 이상한 행동을 했다. 한밤중에 밖에서 누가 불러 나가 따라가면 동네 야산이었다. 분명히 함께 산에 올라왔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면 혼자 있고, 산에 올라온 발자국은 하나밖에 없었다. 딸 아이는 자다 보면 엄마가 옆에 없으니까 울면서 밖에 나와 있다가 산에서 내려오는 엄마를 보았다고 지금도 이야기를 한다.

하루는 잠을 자는데 장롱과 장롱 사이 틈에서 밝은 빛이 나오는 것이었다. 들여다보니 생긴 것은 여의주 같은 구슬인데 영롱한 빛을 내뿜고 있어 그것을 긁어내려고 바둥거렸다. 이 모습을 본 아이들이 물을 떠다 놓고 ‘할아버지 우리 엄마 귀신 쓰였나 봐요,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하고 빌었다. 남편은 미친년이라고, 잡신이 실려서 그렇다고 마구 때렸다. 자다가 장롱이 넘어져 이마에 흑이 났는데 구슬을 못 꺼내게 하니까 할아버지가 이마에 넣어 주었다는 말을 하고 돌아다녔다.

동네 사람들이 머리에 충격을 받아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남편에게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했다. 또 화장실에 피가 많은 것을 보면 자해를 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등 별의별 소문이 다 났었다. 그때 시어머니가 신장님으로 씻어 줄테니 내려보내라고 했다. 그러나 남편은 내려가면 자기 엄마가 무당을 만들 것이 분명하니 못 보낸다고 했다. 내려가고 싶는데 남편이 보내주지 않아서 공장에서 소리 내어 울었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미친 것이 분명하니 내려보내는 것이 좋겠다, 단체 생활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면 되겠느냐고 해서 광천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부천에서 광천으로 오는 중에 벌써 마음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신장대를 넘겨받고 그 자리에서 공수를 내기 시작했다. 시아버지가 몸에 들어왔다. 하느님이 내린 제자고, 하늘에서 내린 제자인데 하면서 시아버지가 실려 버렸다. 시아버지가 술을 먹고 죽었다는 말에 신내림은 흥성양조장에서 대두 두 통을 받아다 스텐인레스 다라에 부어 놓고 시작했다. 하루 종일 막걸리 먹어가면서 동네 사람에게 공수를 내렸다. 시아버지는 늘 날개 달린 백마를 타고 왔다. 당신이 타고 다니는 말도 먹여야 된다고 당근을 요구하여 신당에 당근을 올렸다.

시아버지가 내려서 굿을 하는데 세 가지를 이름나게 해주겠다고 했다. 첫 번째는 신당에 올린 돼지족으로 시작되었다. 굿판을 벌였는데 시어머니가 신당에 돼지 족발을 올렸다. 대뜸 시어머니에게 욕하기를 ‘○○년아 너나 처먹어라’라고 튀어 나왔다. 통돼지를 올려도 시원찮을 터인데 이게 뭐냐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을에서 돼지가 죽을 거라는 공수를 냈다. 얼마 후에 우리 집에서 구정물을 가져다 먹이는 집 돼지가 죽었다는 것이다. 돼지가 죽을 거라는 공수가 있었고, 돼지가 죽었으니 구정물에 약을 탄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다. 어차피 죽은 돼지 사다가 동네 사람들 먹으라고 하고 예전에 동네에서 돼지를 잡던 사람 이름을 대자 이장이 나서서 하는 말이 아 그 사람은 이미 죽었는데 왜 찾느냐는 것이었다. 알고 봤더니 시아버지 살아생전에 알고 지내던 백정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시아버지가 분명하다고 이야기를 했다.

두 번째는 큰동서와 장을 보고 오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아이를 안고 내려왔다. 아이 머리에 작은 사자가 타고 아이의 귀를 붙잡고 있었다. 입에서 갑자기 ‘애 죽어, 삼일 안으로 나에게 데리고 와, 내 살려 줄게’하고 터져 나왔다. 그러자 애 엄마가 뺨을 때렸다. 동서는 옆에서 미안하다고, 지금 신이 내려서 그렇다고 싹싹 빌었다. 얼마 뒤 그 아이가 없어져서 아이를 찾는다고 연락이 와서 대답해 주길 물 있는 곳에 가보라고 했다. 나중에 아이를 찾았는데 수로에 빠져 죽어 있었다고 했다. 시아버지가 아이가 죽을 거라는 것과 그리고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려 줬던 것이다.

세 번째는 아들이 차 사고로 죽었다고 어떤 노파가 찾아와서 범인을 찾아 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990만 원을 줄 수 있느냐고 했더니 범인만 잡아주면 준다고 했다. 돈을 받으면 못 찾아주면 돈은 도로 돌려주기로 각서에 지장까지 찍고 일을 시작했다. 그 당시 대전,

광천, 홍성을 연결하는 도로를 낼 때였다. 광천 IC가 생겨서 대천 가는 길, 홍성 가는 길을 공사 하고 있었다. 보살 세 명이 동원되어 곳을 하다가 입에서 ‘포니, 포니’ ‘1011, 1011’ 하는 공수가 나왔다. 당시에 광천에는 신○택시라고 하는 회사가 차량 10대로 영업을 했다. 택시 번호가 1001번에서 1011번까지 10대(1004는 4자가 들어가서 결번임)로 영업을 했는데 택시 하나가 비었다. 인근에 자동차 정비하는 곳을 다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잠을 자는데 어디서 푹푹 소리가 나서 둘러보니까 탄광이었다. 성주에 탄광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을 대동해서 가보니 세 명이 차를 고치고 있었다. 불법으로 사고 차량을 고치고 있었던 것이다. 현장에서 범인을 잡아서 또 이름을 내게 되었다. 시아버지 신이 실려 세 가지 약속한 공수를 다 이루게 되었다.



•  
**예산지역  
 민속신앙과  
 무속인(巫俗人)**

**김경옥** (1952년생)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715

선장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곧바로 올라가 고모네 집에서 생활했다. 어린 나이에 서울은 동경의 대상이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 등잔을 밝히던 시골에서 살아온 촌사람에게 네온싸인으로 호화찬란한 서울은 별천지였다. 첫 서울 구경을 한 어린아이의 눈에 비친 서울 이미지는 인생을 일찍 결정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서울로 올라가 돈을 벌어야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아예 중학교 진학은 생각도 않고 곧바로 상경하였다. 봉제공장에서 바느질을 배우고 다리미질을 배우면서 즐거웠다. 그런데 갑자기 발작이 시작되었다. 사지가 뒤틀리고 입에서는 거품이 나오고, 서너 시간을 그런 상태로 있다가 깨어나기를 반복했다. 도저히 직장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있는 성환으로 내려와서 걷지도 못하고 밤낮 누워서만 지냈다. 그러기를 2, 3년, 집안 식구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다. 특히 어머니는 막내딸 대소변

받아내면서 참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다. 어머니가 잠시 큰덕에 불 일을 보러 간 사이 큰 오빠가 찾아와서 차라리 죽으라고 했다. 너 하나 죽으면 모두 평안하게 지낼 수 있으니 가족들 고생시키지 말고 죽으라고 했다. 일어나 걷지도 못하는 여동생에게 오빠가 할 수 있는 말이 고작 죽으라는 말인가 하고 서러웠다. 나 하나 죽으면 가족 모두 평안해진다는 말을 듣고 오히려 오기가 나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다. 내가 몸을 털고 일어나면 반드시 오빠를 그냥 안 놔둔다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다.

이웃에 사는 언니가 점을 아주 잘 보는 법사가 있다고 소개했다. 어느 날 그 법사가 찾아와서 대뜸 만 오천원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나는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느냐고 했더니 그 법사가 말하기를 약속한 날 내가 걸어오게 할 터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낱짜를 잡았다. 그곳에 가면 곧 나올 것만 같았다. 생전 처음으로 그렇게 시간이 더디게 가는 것을 느꼈다. 약속한 날 이불, 옷 보따리, 그리고 쓰러져 누워만 있을 때 친구가 되어준 라디오를 챙겼다. 이상하게도 일어나 걸을 수 있겠다는 느낌이 왔다. 벽을 딛고 일어나 한 발 한 발 발을 옮겨 보았다. 놀랍게도 걸을 수 있었다. 어머니는 밥을 짓다가 쌀 바가지를 집어 던지고 달려왔다. 누워만 있었던 딸이 일어나 걷는 모습을 보고 좋아하셨다.

성환에서 아산 영인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다. 어머니는 쉬자고 했지만 걸을 만했다. 막상 가서보니 법당 하나에 수양하는 사람들이 기거하는 집 한 채가 있었다. 그냥 먹고 자고 먹고 자고만 반복했다. 후에 시아버지가 된 그 법사는 삼시세끼 불공만 올려 주었다. 하는 일 없이 지내다가 약수터에서 물을 길어다가 법당에 올리는 일을 했다. 걸어서 움직이니 그 일은 할 만 했다.

법당에 온 지 3일째, 낮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다. 형체 만 보이는 두 명이 목을 졸라서 '부처님 살려주십시오'하고 고함을 지르자 그놈들이 정신없이 달아나는 모습을 보고 깼다. 다시 잠이 들었다가 깬데 법사가 꿈을 꿴느냐고 물어보는 것이다. 처음에는 어찌할 바를 몰라 안 꿴다고 잡아떼었지만 말을 해야 할 것 같아 꿈 이야기를 했다. 그랬더니 이제는 되었다는 것이다. 그놈들이 붙어서 괴롭혔다는 말씀이다. 그 집에 있으면서 두 살 연하의 막내아들과 가까워졌다. 법사는 며느리 삼아서 당신의 제자로 삼고자 했으나 시어머니는 완강히 거부하였다. 친정어머니와 오빠도 그 집으로 시집가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말로 막았다.

이제 아프지도 않고 움직일 수 있어 영인에 남아 있을 필요가 없었다. 즐겁게 집으로 가는데 후에 시어머니가 된 법사 부인이 ‘너 집에 가서 며칠이나 있나 보자’라는 말로 인사를 했다. 집에 가는 사람에게 하는 인사치고는 기분 나쁜 말이 아닐 수 없었다. 집에 와서 3일쯤 지나자 다시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살 수가 없었다. 여러 번 성환 집과 영인법당을 왕복하다가 어차피 죽을 목숨 살았으니 딸, 동생 없는 셈 치라고 선언을 해버리고 영인에 눌러앉았다. 여전히 시어머니는 무당 될 팔자라 며느리로는 안 된다고 반대를 했다.

목을 누르는 꿈을 꾸고 괴로워하자 시아버지는 대나무를 꺾어와 잡으라고 했다. 대를 잡아 떨리기 시작하는데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가라고 했다. 새로 집을 짓고 올라왔기 때문에 전에 살던 집은 빈집으로 남아 있었다. 그 집으로 인도되어 사과를 선물할 때 썼던 대바구니를 발견하였고, 거기에서 시어머니가 감춰둔 돈을 찾았다. 또 한 번은 나뭇간에서 시어머니가 숨겨둔 돈 항아리를 찾아내기도 했다. 시어머니는 신명이 있어 시아버지 몰래 일을 하러 다녔고 받은 돈을 항아리나 대바구니 같은 것에 넣어 숨겨두고 하였다. 항아리에 숨겨둔 돈을 이렇게 찾아내니 시어머니의 눈이 고울 수는 없었다.

29살, 아들 둘을 낳고 친정으로 왔다. 시댁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다. 갓난쟁이 작은 아들을 안고서 젖을 먹이는데 부처님이 어른거렸다. 아이를 뱃다 집어 던지고 벽에다 대고 절을 하기 시작했다. 점보는 이에게 물어보니 신내림을 해야 된다고 했다. 다시 집안이 발각 뒤집혔다. 오빠는 먹고 죽으라고 쥐약을 사 왔다. 오빠가 사 온 쥐약을 먹으려고 할 때 어머니가 왜 죽느냐고 만류했다. 무당만큼은 되고 싶지 않았다. 죽으면 해결될 수 있겠지 하고 죽으려 했으나 젓먹이를 두고 죽는다는 것은 어미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돌도 지나지 않은 놈이라 젓이라도 떼고 죽든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 하고 입이 부르터 터지고 고통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물어 물어 병긋을 하는 곳을 찾았다. 신내림하는 신긋보다는 그냥 병만 낫게 하자라는 생각이었다. 보살이 신은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지연을 시킬 수 있다고 해서 병긋을 하고 그나마 편안을 찾았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다시 고통이 찾아와 아이들을 떼어 놓고 다방마담 생활을 몇 년 했다. 몇 년은 버텼는데 다시 아프기 시작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태에서 친구가 신내림을 권유했다. 그래도 안 받는다고 버티면서 죽으려고 약을 먹기도 했지만 친구 때문에 죽지도 못했다. 친구는 따라다니면서 감시를 했다. 자살할 팔자가 아니

면 신을 받자 하고 36살에 신을 받았다.

처음 신을 받고는 참으로 영겁했다. 손님이 와서 생년일시를 대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조상이 다 보였다. 그 사람 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확연히 보였다. 점을 치면서도 참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다. 아침에 손님 온다고 빨리 일어나라는 소리를 듣고 일어났지만 누가 옆에서 하는 말은 아니었다.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분명했다. 신내림을 하고 처음에는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었다. 그러나 아무리 일이 많아도 돈이 모이지 않았다. 신선생, 따라온 보살, 법사 그 사람들 뭉으로 떼어주면 남는 것이 없었다. 고작 법당에 올렸던 쌀하고 과일하고 돈 2만원만 남았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일을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다.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술 먹고 법당을 다 때려 부숴버렸다. 돈도 안 벌리는 법당 뭐하려고 모시고 있느냐는 심보가 터진 것이다. 때려 부수고 나서 꿈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두 손을 잡고 땅속으로 들어가는 형국을 보게 되었다. 땅에 묻으라는 뜻으로 알고 부처님을 보자기로 싸다가 묻었다. 그 후 3개월 정도 아무 일도 안 하고 편안하게 지냈다. 그런데 머리가 터질 것 같이 아프기 시작했다. 점을 보러 갔는데 혼만 났다. 법당 때려 부수고 괜찮을 줄 알았냐고 다시 기도하고 모셔야 한다는 말을 듣고 법당을 다시 차렸다.

두 번째는 친정이나 시댁식구들이 그렇게 못살게 괴롭혀서 일을 저질렀다. 이 집, 저 집, 술을 먹고 사고를 치면 다 해결해라 하는 식이었다. 돈은 잘 들어오는데 남아 있는 돈이 없었다. 헛김에 옷 한 벌만 남기고 다 주어 버리고 법당을 또 접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예산에다 방 한 칸 얻어 그냥 와버렸다. 집주인 할머니가 성당을 다니는데 신을 받으면 대보살이 될 분이였지만 나이가 있어 신을 모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몸이 너무 아파서 집주인 할머니 몰래 신장님을 셋방 안에 모셔놓았는데 집주인 할머니가 그것을 알고서 참지 말고 신을 부러먹으라고 허락해주었다. 주인 할머니가 손님을 모셔왔는데 첫 손님이 못된 놈한테 잡혀 몸을 파는 가출한 여자였다. 그 여자가 하도 딱해서 주인 할머니와 짜고 기차역에서 차표를 사줘 탈출시켰다. 그 일이 있던 후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다시 시작했다.

세 번째는 아들이 속을 썩여서 법당을 때려 부셨다. 아들이 사고 친 거 막느라고 돈도 많이 들었다. 큰아들이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는지 모른다. 서산 가는 해미고개 옛길에서 차가 굴렀는데 군인들이 훈련받고 지나가다가 구해 줘서 살았다. 또 직장에서 일하다가 얼



굴과 등에 화상을 입기도 했다. 장비 점검 중에 상반신을 기계에 넣고 있었는데 다른 동료가 확인도 안 하고 스위치를 넣는 바람에 화상을 입은 것이다. 아들 사고로 인해 다시 할아버지를 모셨다. 그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힘이 있는 한 모시겠다고 다짐을 했다.

이렇게 연이어서 오는 악재를 생각해 보니 할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게 해 주었음에도 아껴서 써야 하는데 그렇게도 못했고, 또 잘난 것도 없는 사람이 사람들을 무시해서 온 별전(별)이 아닌가 생각했다. 현재는 신령님께 너무 했기 때문에 받는 업보려니 하고 자숙하면서 살고 있다.

●  
**예산지역  
 민속신앙과  
 무속인(巫俗人)**



**김 명 수** (1951년생)  
 예산군 광시동로

가정형편이 무척 어려운 집안에 태어나 고생을 많이 했다. 위로 누이 하나에 아래로 남자 형제가 다섯이다. 7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그래서 일찍 학업을 포기하고 운전을 배우기로 했다. 이종 형이 탄광에서 예산 연탄공장으로 채굴한 탄을 운반하는 운전 일을 하셔서 조수로 취업을 했고 그때부터 무면허로 운전을 했다. 당시는 차도 몇 대 안 되었지만 무면허에 대한 단속이 심하지 않았다. 군 입대를 하고 정식으로 면허를 취득해서 운전을 했다. 군에서 처음에는 트럭을 몰다가 지프차를 몰았다. 당시는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 인기가 많았다.

20대 중반 막 군대를 제대하고 페인트 공장에서 운전을 하다가 시내버스 기사로 전업을 했다. 그런데 서울에서 시내버스 기사로 일을 할 때부터 원인도 모르는 질환이 괴롭히기 시작했다. 차는 도로를 따라 이상 없이 잘 운행하고 있는데 정거장을 그냥 지나치기가 일쑤였

다.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지만 아무 생각이 나질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사고 없이 차는 잘 굴러갔다. 분명 안내양이 정차하라고 고함을 쳤을 텐데 그냥 지나친 것이다. 그러면 다음 정거장에 손님을 내려 줘야 했고 손님들의 불만이 많았다. 그때부터 신병이 도지기 시작한 것이다.

신병이라면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어머니는 임신한 것도 모르고 있다가 얼떨결에 아이를 낳았다고 한다. 어느 누구도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한다. 그냥 애가 생겨서 그냥 나왔다는 이야기로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 어렸을 때부터 병치레가 심했다. 신병이 도진 후 부터는 마른 떨치처럼 피골이 상접했고 객혈이 심했다. 피를 마구 토해내는 것이 오래 못 살 것 같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간이 굳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치료가 어렵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다.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니 살림은 엉망이었다.

어느 날 새벽 2시경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어린아이가 찾아와 ‘영어’라고 부르면서 할아버지 맛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다. 곧 할아버지가 올 것이니 정중히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몸을 깨끗하게 해야 하니 목욕을 하고 오라고 했다. 일어서지도 못하는 데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어린아이 하나가 더 와서 두 명이 겨드랑이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다. 목욕탕을 찾았으나 돈이 없었다. 두 아이는 걱정을 말라고 주머니에 돈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만 원짜리가 하나 있어 목욕비를 내고 들어갔다. 목욕탕에 들어갔지만 힘이 없어 세신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아이가 계속해서 빨래하는 시늉을 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남은 돈으로 세신사에게 때를 밀라고 하는 듯했다.

목욕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아이가 동쪽으로 앉아 앞을 보라고 했다. 허공에 하얀 옷을 입고 하얀 수염을 기른 단장을 짙은 노인이 떠있었다. 그 노인이 하는 말이 ‘너는 죽지 않는다. 다섯 가지 채소를 생식하면 소생한다’는 것이었다. ‘내가 너의 120대 할아버지다. 이제부터 내 말을 듣고 구제 중생하기 바란다’라는 말을 마치고 사라졌다. 영문도 모르고 당한 일이라 어안이 병병했다. 연이어 벌어지는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았다. 그런데 몸이 가벼워진 듯하고 그렇게 몸을 짓누르던 통증이 사라졌다. 갑자기 두 아이가 뒤로 넘어뜨리더니 팔을 십자가 같이 활짝 펴게 하고 천장을 보라 했다. 방에는 노인들이 가득했다. 전부 다 조상이라는 것이다. ‘내 말을 잘 듣거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나는 무당, 무녀도 아

니고 부처도 아니고 너의 할아버지다. 내 말을 잘 듣거라. 모든 것을 줄테니 구제중생을 하라'고 했다. 그런 뒤에 입에서 방언이 터졌다.

할아버지의 공수가 시작되었다. 전화번호 세 개를 불러주며 메모하라고 했다. 처음에는 그냥 메모해 놓고 미심쩍어 전화를 하질 않았다. 그 후로 자꾸만 나타나서 전화를 왜 안 하냐고 다그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전화를 했다. 전화번호 두 개는 복덕방, 전당포였다. 마지막 전화번호는 어떤 아주머니가 받았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더니 만나자고 했다. 자기가 노란 옷을 입고 모 버스정류장에 있겠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이상하게도 힘이 생겼다. 정류장에 나가보니 아주머니 한 분이 기다리고 있었다. 뚝섬에 집을 잘 보는 집이 있으니 가보자는 것이다. 그 점집에 도착해서 사람을 찾았더니 웬 여학생이 잠옷 차림으로 맞이했다. 앉자마자 그 여학생이 네 번 절을 했다. 산 사람을 앓혀 놓고 절을 네 번 받아본 경험도 처음이었지만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기분이 몹시 나빴다. 왜 그러냐고 따져 물었더니 자기가 풀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이다. 선생님은 대한민국 안에서 풀어줄 사람이 없는 분으로 선생님은 하늘에 계실분인데 무엇 때문에 이곳에 오셨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자기는 절대로 못 풀어준다고 자기 신선생한테 가보자고 했다. 신선생한테 갔더니만 그 신선생도 어렵다는 말을 하면서 또 자기 신선생한테 소개하겠다고 했다. 그 신선생은 법사였는데 대뜸 계룡산에 가서 확답을 주겠다는 것이다. 여학생보살, 여학생의 신선생, 법사 이렇게 네 명이 계룡산 솟용추를 찾았다.

당시는 신도안에 다양한 신흥 종교가 들어와 자리하였고, 곳곳에 기도처를 만들고 기도하는 곳으로 유명했다. 대전까지 시외버스를 타고 가서, 대전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신도안까지 들어갔다. 솟용추는 처음 가는 곳이었지만 기도터로 유명한 곳이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그때가 동지선달이었는데 눈도 많이 오고 매우 추웠다. 용추에 도착하자마자 산이 울릴 정도의 호령소리가 들렸다. 감히 여기가 어디인데 도둑년들이 오느냐고, 그리고 동행한 법사와 보살을 가리키며 빨리 내려가라고 했다. 법사와 보살이 험한 곳에 혼자 놓아두었다가 아래로 굴러 떨어지더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며 남겠다는 것을 간신히 달래서 하산시키고 기도를 했다.

좁은 바위길을 따라 안쪽으로 들어오라는 음성이 들려 바라보니 도저히 갈 수가 없어 보였다. '할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죽어도 가겠습니다.' 다짐을 하고 발걸음을 옮겼다. 바위 모

서리에 앉아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파란색의 애벌레가 기어 다니는 것이 보였다. 다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애벌레를 주머니에 세 번 넣어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다. 지시한 대로 세 번 호주머니에 넣었다. 산을 내려와서 보니 동행한 사람들이 자고 있어 깨워서 애벌레를 보여주었다. 그들은 자다 말고 일어나 황당한 일을 당한 것이다.

승용차에서 애벌레를 주머니에 넣고 나서는 용추 안에 웅크리고 있는 용을 보았다. 비늘이 큼직한 것이 상당히 큰 모습이었다. 몸체는 물 안에 있었고 머리만 조금 수면 위로 내민 모습이었다. 전체 몸은 드러나지는 않았다. 애벌레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이해가 가질 않으나 세 번 주머니에 넣으라는 것은 제자의 길을 가면서 터득하였다. 하나는 하늘, 둘은 땅, 셋은 물이라는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간직해 온 의식 구조임을 알게 되었다.

계룡산을 다녀오고 또 아프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아줌마에게 연락하라고 했다. 아줌마를 만나서 안내된 곳이 굿당이었는데 굿을 하자고 했다. 굿비로 70만 원을 해오라고 하였다. 단돈 700원도 없는데 70만 원을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처음에 만났던 노란 옷의 아주머니가 자꾸 옆구리를 치면서 굿을 한다고 하라고 눈짓을 했다. 돈을 구할 방법이 없어 주저하자 자기가 도와준다고 나섰다. 당장은 현금이 없으니 반지로 계약하자고 자기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빼서 계약을 했다. 남의 돈을 빌려 신내림을 했다.

굿비 70만 원을 들여 삼각산 굿당에서 내림굿을 했는데 신이 내리지 않아 고생했다. 처음에 오방기를 잡았는데 오방기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굿관 도중에 들고 있던 오방기로 굿을 주관하던 보살들을 패기 시작했다. 근본도 없는 것들이 누구를 풀어준다고 그러느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사정없이 오방기로 때리자 세 명의 보살이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나서야 진정이 되었다.

그렇게 내림굿은 신을 내리지도 못하고 끝났다. 그러나 어른(할아버지)이 계속 공수를 주었다. 우선 생식을 하라고 요구했다. 생식은 어렵지 않으나 그래도 쌀밥은 먹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먹고 있다. 어른은 너를 세 번 데려 가려고 했으나 아직도 이곳에서 할 일이 있으니 아직은 데려가지 않겠다고 했다.

40대 때 태백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큰 사고가 있었다. 승용차를 타고 고개를 올라가고 있었는데 위에서 내려오던 시멘트 차가 커브를 돌면서 우리 차를 추돌하고 말았다. 승용차가 완파되는 큰 사고였다. 그 트럭 운전자는 차 안의 사

람들이 아직 살아 있는 것을 보고 다시 우리 차를 밀어 버렸다. 상대방이 사망을 해야 사고 처리가 수월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밀어버린 것이다. 용케도 다친 곳이 없이 모두 살았다. 그때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아직 안 데려 가는 것은 봉황새가 너를 살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때부터 봉황새를 찾았고 현재 봉황당을 짓고 있다.

50살 즈음에 또 조화가 있었다. 예산 마상골에 땅을 사서 해태를 모셔야 산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돈도 없었는데 땅을 사라는 것이다. 마침 선녀라는 보살을 알고 지냈는데 그 선녀가 돈을 빌려 주어 땅을 샀다. 샘이 있는 곳에 땅을 사서 신당을 지으려고 터를 닦았다. 신당을 지으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그만하면 됐다, 누구 줄 사람이 있으면 쥐라’라는 어른의 음성이 들렸다. 그래서 미련 없이 땅을 구매할 때보다 헐하게 내놓아 팔았다. 아픈 몸이 땅을 팔고서 정상으로 돌아왔다.

세 번째 데려가려고 한 것은 현재 몸이 아픈 것이다. 최근 들어 몸이 많이 아파서 운신하기조차 어렵다. 무단히 다치기도 하고, 기력이 약해져 병원만 다닌다. 다시 어른이 말씀하시기를 천계교(天鷄教)를 만들라고 공수를 주셨다. 천계교를 만들면 그때 데려 가마라고 했다. 이처럼 세 번이나 데려가시려고 했지만 아직 데려가지 않는 것은 봉황당을 짓고 천계교를 만들라는 임무 때문이다. 현재 봉황당을 지으면서 기력이 많이 회복되었다.



•  
**예산지역  
 민속신앙과  
 무속인(巫俗人)**

**문한숙** (1970년생)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725

삼교에서 7남매의 막내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농사를 짓는 평범한 농사꾼이었다.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천공이라고 하는 정수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정수리가 아프기 시작하면 토하고 한번 아프면 일주일간을 일어나지도 못했다. 머리 아프고 토하고, 먹지도 못 하다가 얼마 지나면 아픔이 사라졌다. 부모님은 농사일에 정신이 없으셨고, 또 인근에 병원도 없었던 때라 치료는 생각지도 못했다. 좀 심하면 약방에서 소화제나 진통제를 사다 주셨다. 돌아다니며 진맥을 해주는 사람에게 환제만 지어서 먹었다. 어렸을 때는 체구도 남다르게 작았기 때문에 허약체질이려니 생각하신 듯하다. 며칠 그러다 또 멀쩡하게 잘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 결혼을 하고 성인이 되어서야 뇌파 검사를 해보았는데 별 뚜렷한 이상은 없고 작은 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말만 들었다.

아플 때는 귀신도 보았다. 당시에는 사람 형체와 똑같이 보여서 사람인 줄 알았지 귀신이

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면 어머니도 보았다고 하셨을 뿐 다른 조치는 없었다. 새벽에 일어나 미친 아이처럼 돌아다닐 때가 많았다. 그러면 어머니는 밖에 나가서 못하게 붙들고 있던지 끈으로 묶어 놓기도 했다. 체구가 작았기 때문에 당신 품에 꼭 안고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귀신들이 보이지 않았다. 그때는 그냥 귀신이 안 보이나 보다 했지 깊이 생각을 못했다.

20살 때 홍성 도립병원에서 오른쪽 겨드랑이에 종양이 있어 수술을 했다. 6월쯤 모내기가 시작될 무렵이었다. 9시에 수술을 하고 나서 회복실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가 되어도 깨어나지를 못했다. 관처럼 생긴 곳에 들어가 있는데 서늘함이 느껴졌다. 체구가 작은 할머니가 오더니만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일어나라고 하고 관에 누워 못 일어난다고 하고 이렇게 서너 번을 반복했다. 그 할머니는 어디 한번 잘 들어 보라고 했다. 귀를 기울이자 어디서 자꾸만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하얀 천을 걷고 눈을 떴는데 난리가 나 있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양쪽 볼이 벌겋게 부어 있었다. 간호사들이 정신 차리라고 양 뺨을 때려서 그런 것이다. 의사가 사망 선고하기 3분전에 살아났다고 했다. 꿈에 본 체구가 작은 할머니 이야기를 어머니께 했더니 증조할머니가 오신 것이라고 하셨다. 당시에도 어머니가 좀 신기가 있었던 모양이다.

부모님과 동기간들도 신병의 징조가 온 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만신인 둘째 고모와 갈등이 심해서 고모가 찾아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아예 왕래를 끊었다. 막내딸이 하도 아프다고 해서 고모를 모셔다가 병 곳을 한 적이 있는데 차도가 없고 여전히 아프다며 누워 있는 딸을 보시고는 고모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진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와 고모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내종 간에 우의는 돈독했다. 위로 언니와 오빠 6명은 모두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다. 부모님은 다니지 않으셨지만 모두 교회에 가는 분위기라 교회를 열심히 따라 다녔다. 현재도 언니 중 하나는 권사, 하나는 집사로 있다. 온양에서 직장생활을 할 때 자영업을 하던 남편을 만나 23살에 결혼을 했다. 시댁은 종교가 없는 집안이었다.

시집을 가셔도 온양에서 교회를 다녔다. 그런데 신병이 심해져서 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도 대수롭지 않게 청심환이나 먹고 신을 눌렀다. 그러나 결혼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져서 이혼하게 되었다. 이혼을 하고는 곧바로 기도원에 들어갔다. 신병을 눌러 보려고 했던 것이다. 기도원에서 단체 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다. 목사가 안수를 해주는데 그곳을



소개해준 전도사가 맨 앞에 나가 안수를 받으라고 해서 제일 앞줄에 섰다. 순서대로 안수를 해오던 목사가 다른 사람과는 달리 머리에 손을 살짝 대보고서는 지나갔다. 전도사에게 나도 좀 안수를 받고 싶다고 전해달라고 하고 저녁 예배를 기다렸다. 차례가 왔는데 지난번과 똑같이 그냥 대중 손을 대는가 싶더니 지나갔다. 머리에 손을 대면 전기 오듯이 전율이 느껴져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며칠이 지나고 여기서 안수를 안 해준다면 나에게 맞는 분이 따로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꿈에 남자 신들을 본 것이 새벽 기도 시간이 되었을 5시쯤이었다. 꿈속에서 교회의 문이 확 열리면서 탕화속에 있는 도사, 신장, 대감 같은 신들 7, 8명이 누워 있는 곳에 와서 일어나라고 했다.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니 가자고 했다. 못 일어난다고 말하는 사이에 교회 종소리에 눈을 떴다. 새벽기도를 하고 아침을 먹고 짐을 싸서 기도원에서 내려왔다.

기도원을 나와 목동에 있는 한국○○대학을 다녔다. 선교사가 되려고 선교대학이라는 곳에 들어갔다. 당시 담당 목사님이 50대였는데 선교 찬양을 지도했다. 일주일에 두 번 온양에서 목동으로 통학을 했다. 그런데 3주가 지났을 때 신학대에서 통보하기를 여기서 공부할 사람이 아니니 오지 말라고 했다. 담당 목사가 선교사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 이유도 없이 오지 말라고 했다. 당시에는 오지 마라는 이유도 묻지 못했다. 가야 할 길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할 말이 없었다.

기도원과 선교학교 이후 이제 교회는 완전히 접었다. 생활 방편이 없어서 당진에서 술장사를 시작했다. 장사를 할 때는 몸이 아파도 참고 약으로 신을 누르면서 지냈다. 1년 3개월 술장사가 잘 되었다. 친구들은 점을 보러 다녔지만 관심이 없었다. 어찌다 같이 점을 보러 동행해 주었지만 점은 보지 않았다. 그때마다 저 정도면 나도 점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 하려고 무당을 하나, 돈 잘 버는 술장사만 잘 하면 되지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갑자기 1년 8개월째 되면서 손님이 푹 끊겼다. 답답해서 점집을 찾아갔다. 보살이 ‘누가 왔잖아?’라고 묻기에 ‘오긴 누가 와?’하고 대답했다. 그 보살은 신내림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때도 신을 받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제자가 되기도 싫고, 가게나 잘 되게 해달라고 했더니 집에 가서 집안을 둘러보라고 했다. 보살이 덧붙이기를 신이 벌써 와 있는데 왜 안 쳐다보고 사냐고 했다. 그 말을 듣고 가게에 와서 입구에서부터 훑, 앉아 있는 자리 등을 바라보았더니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너무나 많은 귀신들이 와 있었다. 그동안 보이지 않

있던 귀신들이었다. 제자가 되라고 권한 그 보살이 전화를 해서 뭐가 보이더냐고 물었다. 귀신이 보인다고 했더니 장사를 접어야 한다고 했다.

제자의 길을 가라고 했지만 강하게 거부했다. 다음날부터 몸에 이상이 오더니만 풍이 와서 오른쪽 몸이 마비가 되었다. 초록색 옷을 입고 머리에 일곱 개의 깃발을 꼰 여자 귀신이 보였는데 서낭할머니라고 했다. 왜 할아버지 신이 와야지 할머니신이냐고 따졌더니 할아버지 신은 이미 와 있다는 것이다. 벌써 와서 앉아 있었는데 완강히 거부하면서 말을 안 들으니까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뒤를 보라고 해서 뒤를 돌아보니 할아버지들이 짝 서 있었다. 그러고도 2년 정도 안 한다고 차라리 죽이라고 반항을 했다. 불편한 몸으로 술장사를 계속했다. 몸이 더 악화되자 어머니와 언니들이 신긋이 아니면 놀림굿을 해서라도 고쳐보자고 했다.

다시 신들이 찾아왔다. 먼저 도포 입은 할아버지가 찾아 왔는데 얼굴은 보여주지도 않았다.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내 몸이 침대 위에서 떴다가 침대에 걸터앉으면 몸이 내려앉았다. 할아버지는 새벽 3시 20분이면 어김없이 찾아왔다. 할아버지가 그만 반항해라 하면 나는 오히려 맞받아쳐서 죽이라고 했다. 그러면 할 수 있을 만큼만 해라라고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죽어도 싫다고 응수했다. 나는 완강하게 반항해서 할아버지를 지치게 하고, 할아버지는 돈은 짝 막아 놓아서 나를 지치게 했다. 몸도 불편하고 돈줄도 막아 놓고 해서 술장사를 접어야 했다.

당시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할아버지가 딸을 보여 주었다. 그래서 그런 수법은 쓰지 말라고 하자 한 달 있다가 다시 오겠다고 했다. 한 달간 내 몸은 평안했지만 그런 일이 있고부터 딸이 밥을 못 먹고 토하며 축구하다 인대가 끊어지고, 철봉하다 다치고, 계단에서 굴러서 떨어지는 등 할아버지의 괴롭힘을 무수히 받았다. 한 달 뒤에 할아버지가 다시 왔을 때 딸과 아들 안 아프게 해주고, 내가 하는 일은 우리 대에서 끝내는 것으로 다짐을 받고 신을 받아들여기로 하였다. 그러자 입이 돌아오고 팔을 쓰다듬으니 팔이 내려왔다.

처음 신을 받으라고 권한 당진의 보살을 신어머니 삼아 내림굿을 하고 당진 기지시에 법당을 차리고 일을 시작했다. 신어머니는 불교상회와 짜고 부처님을 모셔주었다. 게다가 과하게 법당을 차려 빛을 크게 지게 되었다. 제자를 내릴 때부터 탕화나 무구 등을 과하게 장만을 했다. 부처님을 모셔 놓았는데 기도를 모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다. 부처님 앞에

서 기독교식으로 성경책 펴놓고 찬송가를 부르며 예산으로 보내 달라고 작정기도를 했다. 30일 기도 끝에 신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지금의 천상암으로 오게 되었다.

아버지가 어머니 명으로 사둔 집이 있었다. 나중에 며느리가 구박하면 나가 살라고 하시며 예산에 어머니를 위해 집을 마련한 것이다. 당시 아버지는 자식들을 앉혀놓고 집을 구한 이유를 설명해주었다. 그날 밤 꿈에 아버지가 사놓은 집이 보였고 ‘네 집이다’라는 음성이 들렸다. 기지시에서 예산으로 오기로 하고 처음 집에 왔을 때 예전에 꿈속에서 보았던 그 집의 모습이어서 놀랄 수밖에 없었다.

당진의 신어머니와는 예산으로 올 때 연이 끊어졌고, 다시 송탄에 사는 보살과 일을 같이 했다. 2년차 보살을 하고 있을 때 남자친구의 부인이 신기가 있다고 찾아왔다. 그런데 신 같기도 하고 신이 아닌 것도 같아 판단을 못 내렸다. 몇 가지를 물어보니까 당사자는 신이 왔다고 하면서 내림굿을 해달라고 했다. 기도를 조금 더 해보고 하자고 했으나 부득불 하겠다고 했다. 송탄보살과 그 부인이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내림굿을 하고 그 과정에서 송탄보살이 신어머니가 되고 나는 그 부인과 형제 관계가 되었지만 그 두 사람과 나는 뜻이 맞지 않았다.

신내림이 있는 후에 이상하게 무릎과 발목 사이가 아프기 시작했다. 맞이굿은 3년 뒤에나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송탄 보살이 맞이굿을 하자고 고집을 부렸다. 마지못해 맞이굿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몸이 무겁고 일 하기가 싫었다. 맞이굿 당일 날은 법당을 때려 부수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다. 송탄 보살과 신내림을 한 보살이 함께 들어오는 것을 보고 험한 말을 쏟아부었다. 그 후 신이 내리지 않아 맞이굿을 진행 할 수가 없었다. 맞이굿이 실패하고 법당을 부숴버리려고 했다. 일을 더 이상 안 하려고 망치를 들고 들어가서 막 내리치려고 하는데 올라간 팔이 내려오지를 않고 멈췄다. 어른이 실려 이야기하기를 ‘변하지 말라고 했지’하면서 짐을 싸라고 했다. 또 다시 할아버지 신에게 굴복을 하고 그길로 태백산으로 가서 기도를 했다.

●  
**예산지역  
 민속신앙과  
 무속인(巫俗人)**



**김 태 정** (1967년생)  
 예산군 대술면 화천곰솔길

경북 예천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성장했다. 오디오 가게를 운영하시는 성실한 부모님의 슬하에서 남부럽지 않게 자랐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전혀 없는 불교 집안이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100일 기도를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초등학생이 새벽 3시에 일어나 절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오면 오히려 어른들께서는 대견하게 여기셨다. 그때는 왜 절에 가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아무 이유도 몰랐다.

초등학교 때부터 삶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다. 나이에 맞지 않게 희로애락의 문제가 당시 주요 관심사였고, 혼자 풀어보려고 책도 많이 읽었다. 또한 오디오에 관심을 가지고 몰입하면서 관심의 방향을 돌려 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그때부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뭔가 성취하는 것으로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반드시 성취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매달렸기 때문에 신병이 오는 것도 막을 수 있었다.

학창시절에는 의지에 따라 목표를 정하고 성취하는데 몰입하여 여러 가지 생각으로 오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지만 군 생활은 극복하기 어려웠다. 단체 생활에서 오는 속박되어 있다는 생각이 몸과 마음을 힘들게 했다. 그러나 부모님에게 나약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싫어서 참아냈다. 신병이 온 후로 아픈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30대 초반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신병이 왔다. 머리가 아프고, 환상이 보이고, 심지어는 감정 조절을 할 수 없었다. 절에 가면 이유 없이 눈물이 나오고 감정이 북받쳤다.

육군 기갑부대 근무 후에 만기제대를 하고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에 취업해 영업을 담당했다. 영업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 영업일을 하면서도 어려운 일을 피하기보다는 무언가 목표를 정하고 성취함으로써 내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더 열심히 영업을 했다. 그러나 영업을 하면서도 산으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을 떨치지 못했고 그럴수록 무엇인가 몰입해야 할 것을 찾아야만 한다는 강박에 빠져들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내색을 하지 않고 신병과 외로운 싸움을 혼자서 계속해 나갔다. 당시를 뒤돌아보면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인해 오히려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고 생각한다.

자동차를 알기 위해 자동차 공부를 하고 현대자동차로 이직을 했다. 20대 초반에 자동차에 몰두해서 자동차 관련 자격증도 많이 취득했다. 자동차 오디오 부서로 옮겨 실무경험을 한 뒤에 오디오 회사로 다시 이직을 했다. 외제 자동차의 오디오는 당시 생소한 분야였기 때문에 오디오에 대한 실무를 준비하기 위한 이직을 한 것이다. 회사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6개월 만에 팀장이 되었고, 독립해서 오디오점을 열게 되었다. 당시에는 자동차 오디오 분야가 외국에 비해 기술이 미치지 못하던 시절이었지만 이 분야의 선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했다.

돈은 많이 벌 수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일이 터지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일을 하기가 싫어졌다. 젊은 나이에 최고의 자리인 대표가 되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의욕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오디오가 터지면서 발화하여 상반신에 화상을 입었다. 화상을 입고 2개월 동안 입원했을 때 제자의 길을 가야겠다고 결심을 했다. 사고를 당하게 한 것은 이제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만약에 신이 있다면 뜻을 따르겠으니 화상 입은 상처를 원상으로 회복시켜달라고 했다. 그 이후의 일은 일사천리로 풀려나갔다. 부

동산에 가게를 내놓지도 않았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들어와 가게를 인수하겠다고 하여 힘들이지 않고 처분이 되었고 나머지 기타 여러 가지 일도 24시간 안에 다 해결되었다.

제자의 길을 가겠다는 아들을 반가워할 부모는 없다. 그러나 이제까지 해 왔던 모든 행동을 돌아보았을 때 부모님을 서운하게 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허락을 얻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점집 열 집 중에 일곱 집이 신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신을 받겠다고 결심하고 점집을 찾아 나섰다. 처음 찾은 점집에서부터 여섯 번째 점집까지 모두 신내림을 해야 살지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이야기를 했다. 7번째 점집을 찾았을 때 앞에 여섯 점집에서 했던 말과 같이 신내림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7번째 점집에서 망설일 필요 없이 신내림을 하고 제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신내림 이후에 천일기도를 결심할 때 누가 권한 것도 시킨 것도 아니었다. 다른 무속인들은 몸주의 공수로 기도처를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했지만 그것이 마음에 안 들었다. 천일기도의 결심은 내 스스로 결정했고 실행했기 때문에 그 사연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인정하는 바가 되었다. 3년이 걸리는 천일기도는 먼저 경제적인 문제로 시도를 못 하는 경우가 많다. 3년 동안 경제활동이 전혀 없이 오로지 기도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또한 주변의 만류가 심한 것도 천일기도에 걸림돌이 된다. 신내림을 하면 곧바로 신당을 차려 간판을 걸고 손님을 맞아 돈부터 버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 있던 터라 그러한 유혹을 떨쳐버리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무속인들은 애동일 때 가장 신을 잘 받는다고 말한다. 일반 손님들도 덩달아 애동이 무속인의 신당을 선호한다. 애동이 초년 시절에 몇 년만 하면 집 서너 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말이 정설이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기도하러 간다면 미쳤다고 했다. 먼저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기왕에 사업을 해서 마련한 돈이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은 스스로의 의지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었다.

천일기도처는 자연환경이 좋은 밀양의 표충사로 정했다. 절에서 기거하는 것이 아니라 표충사 인근에 있는 민가에서 기숙하면서 기도를 다녔다. 매일 표충사로 가서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 폭포수 있는 쪽에서 3년 동안 기도를 했다.

어렸을 때부터 시달렸던 자아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려고 1000일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는 동안 허무감을 느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면 무의미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 것이다. 대학진학을 결심하고 전남과학대 전자음향학과에 입학했다. 30대에 시작한 공부지만 재미가 있었다.

신에 대한 계보가 궁금했다. 만신들이 신내림하고 모시는 신들은 모두 제각각이다. 무속을 종교로 내세우려면 뭔가 구심점이 있어야 하는데 무속인들만 그 구심점과 체계가 없다. 무속에서 일반적으로 신들의 구심점을 삼불제석으로 보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 만신들도 많다. 30대 초반에 신내림을 할 때 몸주는 석가모니부처님을 원줄로 했다. 친가나 외가의 조상 중에 출가한 사람이 일곱이나 있었고 출가는 하지 않았더라도 절에서 살다 돌아가신 분도 계셔서 그러한 영향이 있었던 것이다.

만신들의 경우 생활이 어려워져 제자의 길을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만신들의 신 중에서 가장 많은 신이 조상신이다. 조상 중에서 잘 살다 간 조상은 후손들에게 안 들어 온다. 굴곡이 많고 살아생전에 못다 한 것이 많은 조상이 들어온다. 그래서 후손을 매 개체로 해서 왔을 때 제자들이 조상의 행동을 똑같이 하거나 조상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을 그대로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이다. 한이 많든지, 뭐가 풀지 못했던 에너지들이 응축되어 있다가 유전적인 인자가 가장 유사한 후손에게 주파수가 공진 되듯이 들어오게 된다. 만약에 그것이 맞지 않으면 다른 후손에게 간다. 일을 하다가 중단하든지 그만두면 다음 세대로 내려가기도 한다.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중음(불교용어)에 있다가 떠나가게 되는데 제자가 잘살았으면 좋은 데로 가고 그렇지 못하면 지옥으로 가게 된다. 제자가 말년에 불행해지는 것은 조상에 대한 업보와 매개체역을 하면서 지은 업보가 쌓여서 그런 것이다. 조상신을 잘 닦아주지 못한 제자 만신은 다시 다음 세대에게 신으로 대물림이 된다. 제자가 얼마나 지혜롭고 현명하게 조상의 길을 닦아주느냐에 따라 대물림이 되느냐, 해탈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다.

곳이라는 것은 죽은 조상신과 살아 있는 사람이 만나 모두 풀어내는 장이다. 조상신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다 풀렸다 싶으면 올라간다. 그러면 해당 만신은 조상신으로는 다 닦았기 때문에 더 이상 조상신이 필요가 없어 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원신은 자연신으로 미륵이나 용신과 같은 신이다. 원신은 개인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

제, 국가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돈과는 관련이 없게 된다.

부처님으로 오는 경우는 부처줄이라 한다. 남순동자나 문수동자도 이름만 동자일 뿐이며 아이가 아니라 부처와 같은 격이다. 또한 중국에서 들어온 제갈공명이나 관우는 도줄이라 하며 이 도줄은 불교와 신과는 상관없이 산에 가서 기도로 닦았던 제자들에게 들어오는 신이다. 최영 장군과 같은 국내의 장군들로 몸주를 삼는 경우 도줄과는 다르게 강신무의 성향이 강하며 한반도 북쪽에서는 군웅신으로 지칭된다. 억울하게 죽은 무신이나 문신 중에 기도로 닦아서 내리는 도줄과는 다르게 강신 쪽으로 내리는 것이 군웅신이다. 문신 쪽으로는 대감이라고 통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신들은 글문신이다. 대감신으로 지칭되는 신은 그 수도 많다. 심지어는 여대감도 있고 여장군도 있다. 여자 신의 등장은 성별의 구분이 엄격하지 않았던 조선조 이전의 상황이 적용된 것이며, 여성 신보다 남성 신이 강세를 보인 것은 남성 위주의 사회였던 조선조 이후의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 이와 같이 무속에서 칭하는 신은 갈래도 다르고, 그 급과 하는 일, 생각도 다르다.



# 태안군

## 지역의 전통 소금문화와 음식문화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염전	736
태안군 안면읍 정당리 화성사 염전	740
태안군 남면 신온리 염전	745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염전	749
태안군 남면 진산리 염전	752
태안군 남면 신온리 의성염전	756
태안군 남면 당암리 염전	760
태안군 근흥면 마금리 염전	763
태안군 이원면 솔향기 염전	767
태안군 이원면 포지리 염전	771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염전	775

●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염전**



**국석환** (1943년생)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국석환은 1942년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 파도로 행금길 147-58에서 아버지 국태식과 어머니 문정희 사이에서 2남 3녀 중 장남으로 출생했다. 본향이 담양인 그는 태어난 집터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아버지는 농사를 지었으며 당시 가게는 겨우 굶지 않는 형편이었다. 국석환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려서부터 농사일을 거들다가 1961년 봄 스물한 살의 나이로 염부 생활을 시작했다.

그가 다닌 염전은 모항리와 파도리 중간에 있는 ‘중화염전’으로 그 당시 소원면에서 제일 큰 염전이였다. 총면적은 16정보(50,000평)이였다. 그 염전은 1930년 일제강점기 ‘조 씨’라는 사람이 간척사업을 하여 완공했는데 그때 총무가 중화염전을 만든 ‘안상각’의 부친이였다. 그 후 ‘조 씨’의 미간지 갯벌 땅을 안상각의 부친이 매입했고 아들 안상각이 1948년 서산군 시절 민간인 최초로 염전 개설허가 취득했다. 안상각은 2년 동안에 걸쳐 염전을 만들어 6.25

직후부터 소금생산을 하였다. 국석환은 9살 무렵 동네 아이들과 염전 개설할 때 ‘발발이’를 하고 과자 값 받은 걸 생생히 기억했다. 발발이는 측량한 염판을 논처럼 만들면 그 안에 들어가 개흙을 단단히 밟는 일이었다.

염판의 구조는 태안의 다른 지역 염전과 비슷했다. 중화염전도 5,000평 단위로 저수지, 증발지, 결정지를 만들고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로 염판을 나눠 염부를 고용했다. 각호의 염부 숫자는 평수에 따라 다르지만 5~6명 정도였다. 각호 5,000평에서 10% 면적 500평이 결정지이고 나머지는 4,500평은 증발지로 이용했다. 결정지는 50평씩 10칸으로 만들어 함수를 담아 소금을 결정시켰다. 증발지는 2단계로 ‘난치’와 ‘느테’로 구분하여 만들었는데 증발지 면적 4,500평 중 3,000평이 1차 증발지 ‘난치이고’ 나머지 1,500평이 2차 증발지 ‘느테’다. 난치는 염판을 8칸~10칸으로 나누는데 바닷물을 가둔 저수지 바로 아래 칸은 크게 만들고 계단식으로 내려가면서는 적게 만들었다. 느테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바닷물을 증발시켰다. 국석환은 염전면적을 평(坪) 대신 정보(町步)라고 했으며 증발지와 결정지의 칸을 염판이라 불렀다.

중화염전 3호 염판에서 7년 동안 염부생활을 한 국석환은 결정지의 구조를 상세히 설명했다. ‘난치’와 ‘느테’의 면적에 따라 결정지의 칸도 다르다고 했다. 결정지가 총 500평이면 칸은 60평씩 8칸을 만드는데 그 칸은 1방, 2방, 3방, 4방, 5방, 6방, 7방, 8방으로 불렀다. 결정지를 8칸으로 나눈 것은 2차 증발지 ‘느테’에서 함수를 적게 만들면 1~4방까지 소금을 얹히고 많이 만들면 8방 모두 얹힌다고 했다. 그는 함수를 결정지에 넣은 것을 ‘소금을 얹힌다, 또는 편다’고 했다. 소금물의 염도는 25~27도가 적정 염도이고 30도가 넘으면 소금이 썩 품질이 나쁘다고 했다. 증발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갯물이 1차 증발지 ‘난치’를 거쳐 2차 증발지 ‘느테’까지 왔어도 염도가 25도 이하이면 소금물을 모으는 웅덩이 ‘해주’에 느테의 소금물을 모았다가 2차 증발지에 수차로 다시 퍼 올려 수분을 증발시켰다.

국석환이 염전에 취업했을 때는 소금 생산과 판매가 호황기였다. 중화염전에서 생산한 소금은 모두 정부 수매를 했다고 한다. 그가 일을 한 3호 염판에서는 날씨가 좋은 봄엔 하루에 60kg짜리 90가마니씩 생산했다고 한다. 중화염전의 1년 소금 생산량이 얼마인지 자세히 모르는 건 각 호마다 기술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었다. 사업주 안상각은 중선 2척을 부려 해상을 통해 인천과 군산으로 소금을 실어냈다.

그는 소금을 자세히 보면 모두 사각형 모양이라며 봄에 굵은 소금은 ‘소금밭’이 굵어 좋다고 했다. 소금의 생김새를 소금밭이라고 표현했다. 국석환은 비가 온 뒷날 소금이 좋은데, 특히 두 번째 굵은 소금은 ‘단맛’이 나는 특상품 소금이라고 했다.

토판에서 소금을 굵던 시절에는 소금을 해주의 간수(함수)로 씻었다. 채렴하는 오후에 동네 처녀들을 불러 소금에 묻은 개흙을 씻어냈다. 씻는 과정은 채렴한 소금을 대바구니에 담고 처녀들이 간수를 끼얹은 뒤 물이 빠지면 염부들은 소금을 목도를 메어 창고로 날랐다. 간수로 씻은 소금은 검지 않고 하얗기 때문에 비싼 값을 받았다. 처녀들의 품삯은 500원 정도 받은 거로 기억했다. 중화염전도 1968부터 토판에 감파리<sup>1)</sup>를 깔기 시작했고 그 후 타일을 깔았다.

그 당시 중화염전에는 16명의 염부가 소금을 생산했다. 염부장 1명과 호장 6명, ‘상염부’와 ‘벌염부’가 있었다. 상염부는 경력자로 결정지에 소금물을 앉히는 일을 하고 벌염부는 증발지의 물꼬를 열고 막는 ‘난치빠또’<sup>2)</sup>였다. 염부들은 월급제였는데 정확한 액수는 1961년 경에 화폐개혁을 해서 기억하지 못했는데 쌀 1가마 값보다 조금 적었던 거로 짐작했다. 급식비 형식으로 쌀 2말과 보리쌀 4말을 받았다. 국석환은 그 쌀과 보리쌀로 가족들의 식량에 보탬이라고 했다. 월급은 차등이 있었는데 염부장은 벌염부의 50%, 상염부는 20% 더 받은 것으로 기억했다. 염전에서 사용하는 도구는 수차, 목도<sup>3)</sup>(목도바구니, 목도채), 대패, 고무래 등이 있으며 간단한 도구이기 때문에 염부장이 제작하고 수선했다.

염전 일은 2월에 시작하여 11월에 끝났다. 2월에는 겨우내 무너진 염판 독을 맥질하여 고치며 소금생산 준비를 했다. 국석환은 그 독을 ‘개안독’이라고 불렀다. 모든 준비를 마치면 3월부터 갯물을 증발시켜 소금물을 앉혔다. 소금생산을 마감한 11월에는 난치와 느테에 염도를 높인 갯물을 가득 채워 내년을 준비했다.

장마철에는 소금을 굵지 못하는 대신 가마니에 소금 포장을 했다. 아침 7시에 출근하면 오후 6시에 퇴근하고 일이 많으면 자정까지 했지만, 품삯은 따로 받지 않았다. 염부들은 잠시 쉬는 시간에 먹을 내기를 했다. 사업주가 새참을 주지만 늘 허기졌다. 내기는 힘자랑이었

1) 깨진 옹기나 질그릇 조각(까팡이)

2) 증발지의 우두머리

3) 두 사람 이상이 짝이 되어, 무거운 물건이나 돌덩이를 얹어맨 밧줄에 몽둥이를 꿰어 어깨에 메고 나르는 일.

다. 지게에 소금 가마니를 지고 혼자 일어나는 내기인데 국석환은 중화염전에서 가장 힘이 셨다. 당시 소금 한 가마니에 60kg이었는데 3가마니를 졌다고 한다. 각호별로 편을 갈라서 내기를 해 지는 팀이 국수값을 냈다. 염부 일 중에서 목도로 소금을 메어 나르는 일이 가장 어렵다고 했다.

중화염전은 1960년대 중반부터 일요일은 작업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사업주 안상각의 숙부 ‘안만복’이 야당인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는데 모시는 정치인인 ‘조병옥’이 돌아가시자 정치에서 손을 떼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국석환은 조병옥이 죽었을 때 안상각의 친척들이 초상난 것처럼 울었다고 회상했다. 그 뒤 염부들은 모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교회를 다녔다.

1691년부터 5년간 염전 일을 한 그는 군대 3년 마치고 1968~1969까지 2년 동안 염전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석축 공사 일을 시작했다. 힘이 좋고 성실한 그는 허가를 내어 27년 동안 돌을 쌓는 토목공사를 했다. 방파제 공사를 주로 했는데 만리포, 안흥항구, 모항항구, 아산만 방조제, 삽교천방조제, 홍성 서부면 해안공사, 김제 만경강 제방을 공사했다. 그는 1996년 토목공사를 그만두고 해상사업으로 전환했다. 제주도 태생인 해녀와 1971년 결혼한 국석환은 해녀 7~8명을 승선시켜 해삼과 전복을 채취하는 ‘해녀배’ 사업을 하는데 수입이 괜찮다고 했다. 다만 어족자원 고갈과 해녀들 나이가 70살이 넘어서 몇 년 후는 이 일도 접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국석환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가난이었다. 식량이 없어 곡식의 종자를 먹은 이야기를 하며 지금의 생활에 만족을 표했다.

●  
**태안군  
 안면읍 정당리  
 화성사 염전**



**김경태** (1939년생)  
 태안군 안면읍 여수해길

김경태는 태안군뿐만 아니라 한국 천일염전 역사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는 1939년 안면도 고남면 누동리에서 아버지 김종덕, 어머니 정순자 사이에서 4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가계는 찢어지게 가난하여 그는 소년가장으로 16살에 간척사업 제방축조 일을 다니며 사회에 발을 들여놓았다. 아버지 김종덕은 한옥을 짓는 목수였는데 식구들을 데리고 누동리에서 안면읍 정당리 ‘가루지’로 이주하여 집을 짓는 도중 사망한다. 김경태가 중장초등학교 4학년 다니던 때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2개월 후 유복자 동생이 태어나고 집은 짓다 말아 가마니때기 문을 달은 집에서 겨울을 보낸 김경태는 가난으로 초등학교를 중퇴했다.

1955년 무렵 군산사람 ‘정동근’의 ‘화성사’가 정당리에 총면적 200정보(600,000평)의 간척사업을 했는데 어린 김경태는 개펄 흙을 저 나르는 일을 다녔다. 그 당시 중장리 ‘독개’에는

일본인이 농경지로 축조한 간척지 400정보가 있었지만 미간지였다.

제방축조를 끝낸 다음 해 화성사 염전의 직원모집에 지원하면서 김경태의 소금 인생이 시작되었다. 소년가장 김경태를 눈여겨본 정동근 회장은 급사로 채용했는데 업무는 사무실 청소, 심부름, 아침 점심 저녁 종을 치고 염전을 돌며 종업원(염부)의 출퇴근 기록이었다. 당시 화성사 염전의 생산면적은 108정보(324,000)였고 종업원은 108명이었다. 김경태는 제일 먼저 출근하여 4정보씩 25호로 나뉜 30만 평의 염전을 돌며 인원을 점검했는데 한나절이 걸리는 거리였다. 하루에 두 번 오전 출근과 오후 퇴근 시간에 염전을 돌아다니며 종업원 명단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게 일과였다. 첫 월급 7,000환을 받은 그는 식구들이 먹을 쌀을 살 수 있다는 게 무척 기뻐했다. 당시 쌀 한 말 값은 1,670환이었다. 김경태의 성실을 지켜본 소장은 서류정리를 시켰고 그는 사무를 보기 위해 독학으로 공부하며 한자 글씨 연습을 열심히 했다.

1950년대 말 안면도에는 금융기관이 없었다. 돈을 인출하려면 예산의 조흥은행으로 가야 했다. 현장소장이 김경태를 데리고 돈을 찾아오는 시범을 보이더니 다음부터 혼자 시켰다. 한 달에 한 번 예산을 가려면 안면도 ‘독개’에서 장배를 타고 광천역에서 기차를 타고 갔다. 마대 한 자루에 가득 담은 돈은 4,500,000환 정도였다. 당시 화폐개혁 전의 소장월급이 45,000환, 염부가 19,000환이었으니 큰돈을 17살 먹은 어린 소년이 운반하는 건 목숨을 건 일이었다. 풍랑으로 장배가 출항하지 못해 광천 여인숙에서 안면도 사람들과 밤을 새울 때는 잠을 못 잤고, 배에서는 돈인 줄 모르고 사람들이 자루를 밟아 돈다발이 터져 사무실에서 밤새 세어 묶는 일도 많았다. 그 일은 2~3년 하다가 안면도에 농협조합이 생겨 끝났다. 김경태는 화성사에서 서무와 종업원 노무관리, 천일염 생산과 판매 등 전반적인 일을 맡으며 염전 일을 터득하였다.

그의 성실과 노력은 회장 정동근이나, 사무실 직원, 염부들에게 신뢰를 얻었다. 특히 일기 예보의 기록은 김경태만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염전은 날씨가 중요했다. 당시 화성사에 라디오가 한 대 있었는데 소장이 일기예보 시간은 김경태에게 라디오를 듣게 했다. 김경태는 밤낮 하루에 4번씩 라디오를 들으며 날씨예보를 기록했다. 마지막 일기예보를 듣기 위해 자정까지 잠을 자지 않았다. 5년 가까이 매일 아침 전날 들은 일기예보를 소장한테 보고하고 그 기록을 계절별 시간별로 분석해 염부들에게 비를 대비하도록 알렸다. 그걸 지켜본 회장은

그에게 라디오 강의록을 통해 공부하게 배려했다.

안면도에서 가장 큰 화성사 염전도 배를 통해 소금을 운반했다. 60년대 초까지는 정부 수매를 했는데 다른 염전들도 등급판정을 받으러 화성사로 소금을 싣고 왔다. 수매가 끝나면 야적한 소금을 군산과 인천으로 실어냈다. 화성사에서 1년 동안 생산하는 소금은 결정지 1정보당 평균 1,000(50kg)가마로 총생산량은 25,000가마가 넘었다. 소금 포장은 70년대 초반에 가마니에서 PP포대로 바뀌었다.

김경태가 20년 근무한 화성사 염전은 1975년 12월 ‘두산그룹’에 매각됐다. 염전 포함 간척지 면적 200정보와 주변 임야 400정보의 매각 대금은 27억 원이었다. 김경태는 회장의 지시로 서울로 정규직 발령을 받았는데 1년 동안 두산그룹에 소금생산 방법을 전수했다. 그는 두산그룹에 종업원들 고용 승계와 승진, 노무관리 서류와 일기예보 분석표 등 모든 자료와 소금생산 방법을 전수하고 서울로 올라갔다. 안면도 염전에서 김경태는 유일하게 본사로 간 사람이었다.

당시 국영염전은 전국에 17,000정보였는데 1977년 모두 민간인에게 불하됐다. ‘대한염업주식회사’는 1934년 설립한 국영염전 회사로 인천의 남동염전(400정보) 군자염전(603정보) 소래염전(537정보)을 보유하고 있었다. ‘화성사’가 안면도 염전을 매각하고 국영염전인 ‘대한염업주식회사’를 불하받은 것이다. 남동, 군자, 소래염전은 일제강점기 경기도에서 가장 큰 염전이었다. 그곳에서 생산한 소금을 운반하기 위해 협궤열차를 개설하여 인천항을 통해 일본으로 반출됐다.

김경태의 부임지는 남동염전으로 직급은 계장 3급이었다. 그곳의 규모는 면적이 300정보(900,000평)에 관리직원 40명, 염부 300명이었다. 남동염전에서 1년 근무한 김경태는 면적이 603정보(1,800,000평)인 군자염전 부속 소금공장 관리과장으로 승진해 자리를 옮겼다. 그는 소금을 세척 가공하여 ‘한일합섬’과 ‘농심’에 납품하는 그 공장에서 청결 유지와 생산할당제로 두각을 나타냈다. 회사는 생산성을 높이고 직원들은 추가수당을 받아 모두 좋은 결과였다.

20년 동안 안면도 염전에서 노사관계 중요성을 체득한 그는 국영염전의 만년 적자가 부정과 노무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봤고 개선에 부단히 노력했다. 사무실 직원들의 자금 유용 유혹이 있었지만, 정중히 물리쳤다. 그는 자신을 잘 알았다. 명문대 출신이 준비한



회사에서 그가 가진 건 초등학교 4학년 중퇴와 성실, 노력뿐이었다. 군자 소금공장에서 2년 근무한 뒤 1984년 본사로 발령을 받았다. 그는 본사 판매과장으로 전국 소금 생산지, 소비지를 조사하며 농협, 국방부 조달본부에 1년에 2만 포대 이상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그때 ‘정동근’ 회장이 혈압으로 쓰러져 언어장애가 있었는데, 급히 김경태를 호출했다. 남동염전은 1980년 정부가 토지를 수용했고 군자염전도 1986년 폐염전 대상이었다. ‘대한염업주식 회사에 남는 건 소래염전뿐이니 투자는 얼마를 해도 좋다. 그러니 김경태 네가 비밀리에 생산성 향상 사업기획안을 올리라고’ 지시했다. 당시 소래 염전은 연 27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다.

그는 회장의 지시대로 1개월 만에 1차 보고서를 회장에게 올렸다. 정동근 회장은 보고서를 보더니 전무와 상무가 올린 기획안을 건네며 참조하여 최종 발표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김경태는 판매과장으로 전국을 순회할 때 목포의 ‘지도염전’이 증발지의 함수를 순환시켜 생산량을 높인 방법을 알고 있었다. 당시 소래 염전은 저수지와 염판이 노후하여 1정보에서 년 7,000 포대를 생산했는데 지도염전은 1,300포대까지 생산량을 높이고 있었다. 그는 소래염전이 그 방법을 적용했을 때의 시설투자비와 생산량, 수익지출을 상세히 분석하여 회장에게 보고했다. 정동근 회장은 무릎을 치며 만족했다. 임원총회에서 전무, 상무 다음으로 김경태가 소래염전 자구책을 발표했다. 전무와 상무의 발표는 생산량을 최대한 높인 게 1,000포대인데 김경태가 1,300포대를 제시하니 모두 놀라며 불가능으로 봤다. 회장은 사업계획안을 통과시키고 김경태를 이사로 승진시키며 책임자로 발령했다. 현장 경험을 인정받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 사업은 실행 못하고 폐기되었다. 정동근 회장이 사망하자 후계자의 생각은 달랐다. 당시 정동근의 아들이 회장직을 물려받았는데 병석에 있어 부인이 부회장으로 업무대행을 하고 20대 후반의 손자가 사장으로 있었다.

회장단은 시설투자 대신 직원 감축 결정안을 통과시켰다. 김경태는 염전 일의 과정을 설명하며 사표를 쓰겠다고 맞섰다. 젊은 사장은 불쾌하게 생각했으나 부회장이 김경태를 불러 안면도에서부터 40년 동안 시아버지 사업에 헌신한 분의 의견에 따라 결정을 번복하겠노라 했다. 김경태는 회사 운영상 결정권자의 번복은 안 된다며 인원 감축을 중단하면 연말까지 생산방식을 개선하여 결과가 나쁘면 자진 사표 쓰는 거로 정리했다.

김경태는 본사에서 소래염전으로 내려와 직원 포함 600명의 종업원에게 회사 방침을 설

명하고 목포 ‘지도염전’의 증발지 함수의 새 물 순환방법 적용을 지시했다. 이 방식은 염부들의 일이 두 배로 늘어나는 작업이었다. 대신 깨끗한 새 함수로 결정된 소금은 발이 굵고 희며 생산량이 늘어났다. 불만이 많았던 염부들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했다. 그는 좋은 소금은 발이 굵고 희며, 나쁜 소금은 발이 잘고 회색이라는 걸 오랜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 본사 사장도 염전을 둘러보고 김경태의 주장이 옳았음을 인정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래염전이 폐지되는 운명이 다가오고 있었다. 1996년 정부 방침에 따라 염전 토지가 수용되었다. 김경태는 안면도 화성사 염전 매각 때처럼 모든 정리를 맡았다. 본사에 퇴직하는 600명 종업원 중에 5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가족과 같으니 퇴직금, 위로금에 땅을 조금씩 무상분배 하는 것을 건의해 일괄 70평씩 나눠줬다. 회사가 그에게도 땅 분배를 권했으나 받지 않았다. 1996년 김경태는 40년 염전 생활을 마감했다. 6개월쯤 지나 본사 소유의 마포주유소 소장으로 다시 발령받아 몇 년 근무했다.

그는 2002년 고향으로 돌아와 현재 고추 농사와 작은 펜션업을 하며 노후를 보내고 있다. 김경태는 인터뷰 도중 옛날 가난했던 시절을 회상하며 눈물을 보였는데 둘째 동생은 서울에서, 유복자 막내는 중동에서 회사 4개를 운영하는 중견 사업가가 됐다고 했다. 그는 17살에 염전 급사로 취업해서 ‘대한염업주식회사’ 이사를 거쳐 퇴사한 현존하는 대한민국 최고 소금 전문가이자 천일염의 역사를 생생히 기억하는 사람이었다.

•  
태안군  
남면 신온리  
염전



**김 광 모** (1946년생)  
태안군 남면 진산1길

김광모는 1942년 충남 태안군 남면 진산리에서 아버지 김순선, 어머니 박일본 사이 8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본향은 김해로 11대 조부가 안면도에 정착했다가 1대를 살고 남면 진산리로 이주하여 10대째 살고 있다. 어머니는 소원면 출생이었다. 당시 그의 가계는 논 20마지기를 소유한 넉넉한 편으로 머슴을 두고 살았는데 김광모는 아버지가 병약하여 어려서부터 철이 들어 경제관념이 뚜렷했다. 남면초등학교와 태안중학교를 나온 김광모는 농사일을 거들었지만, 사업에 관심이 많았다.

진산리는 대단위 간척사업이 활발했던 지역이다. 남면 진산리 갯벌과 태안읍 남산리 갯벌의 간척사업은 규모나 면적에서 엄청났고 천일염전도 일찍부터 시작한 곳이다. 남산리는 1945년 해방 이후 간척사업이 활발했는데 면적이 40정보(120,000평)가 넘는 땅이었다. 그 땅에 북한 출신 ‘서상원’이 염전개설을 했다. 그는 염전에 대해 해박한 사람이었다. 염전 이름

은 ‘평화염전’이었는데 세월이 흘러 지금은 소유주가 ‘허용익’으로 바뀌었다. 남산리 평화염전 위쪽에도 ‘정인화’ 소유의 큰 염전이 있었지만 지금은 태양광이 설치되었다.

진산리 ‘해나지’ 갯벌 역시 1945년 해방 전에 대구 사람이 막았는데 안면도 사람 ‘윤주방’이 매입하여 염전을 만들었다. 그 간척지의 면적은 무려 150정보(450,000평)였다. 이 간척사업은 농지 목적으로 바다를 막았는데 나중에 일부를 염전으로 만들었다. 염전 이름은 ‘천우사’였다. 그 당시 간척사업의 제방축조는 거의 인력으로 했는데 이 간척사업은 제방을 막아 나가는 대로 레일을 깔아 돌과 흙을 운반한 점이 조금 달랐다.

김광모는 염전 일을 해보지 않은 사업주였다. 1982년 37살에 태안군 남면 신온리에 염전 9정보(27,000평)를 매입하여 일꾼을 두고 현재까지 경영하고 있다. 매입가는 그 당시 180,000,000원을 줬으며 염전 이름은 거온염전(巨溫鹽田)이다. 그는 염전 일은 직접 하지 않았지만, 소금 생산방식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 증발지와 결정지, 난치와 느테, 소금의 생산량을 좌우하는 계절과 연중 소금 값의 시세 변동에도 해박했다.

김광모가 염전을 매입하여 소금을 생산할 때 거온염전은 8~9명의 염부를 고용했다. 그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으나 월급은 남들만큼 줬다고만 했다. 생산한 소금 포장 단위는 50kg으로 가마니 포장은 사라지고 포대를 사용했으며 정부 수매가 폐지되어 사매로 판매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남산리와 진산리에 6.25 전후 염전이 생겼을 때가 천일염의 전성기로 정부 수매와 함께 사적인 매매도 활발했다고 한다. 그 당시 소금유통은 거의 해상을 통했는데 염전 사업주들은 큰 배를 한두 척 부렸으며 인천과 군산으로 실어 날랐다. 김광모가 소금을 판매할 때는 육로 교통이 원활하여 자동차로 운반했다.

신온리에도 남산리 못지않게 간척사업이 활발했고 염전이 많았는데 신온리의 ‘김민형’이 40정보(120,000평) 태안의 김언석이 20정보(60,000평) 박관호가 8정보(24,000평) 이원면의 김창완이 4정보(12,000평) 아시아 물산 서산의 심홍식이 14정보(42,000평) 정치인 김종필 비서였던 임해창이 10정보(30,000평)가 있었다. 그중 박관호와 김창완의 염전은 일제강점기에 간척사업을 한 곳에 만들어졌고 나머지는 대부분 해방 후에 간척사업을 했다. 1948년 정부 수립 후 천일염의 전매제도가 폐지되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개편되면서 간척사업과 염전개설이 수월했다.

김광모의 말에 의하면 염전개설의 최적지 갯벌은 개흙과 모래의 비율이 8:2가 되어야 하

는데 개흙이 많으면 염판이 질척거리고 모래가 많으면 함수가 흙 속으로 스며들기 때문이었다. 그런 갯벌이 태안에 많아 전국에서 재력가들이 몰려들었고 염전을 만드는 사람들은 북한 황해도 지방에서 온 경험자들이 그 일을 담당했다고 했다.

김광모가 1982년 염전을 매입한 자금은 김 양식장으로 번 돈이었다. 1979년도에 진산 앞 바다에서 김 양식하는 걸 유심히 살펴본 그는 본격적으로 그 사업에 매진했다. 그 당시 김 양식은 지주식으로 바다에 말뚝을 박고 대밭에 김 포자를 붙이는 방식이었다. 지주식은 부유식의 김 양식보다 김의 품질이 월등했다. 부유식은 항상 김이 바닷물에 잠기지만 지주식은 햇볕에 드러나는 시간이 많아서다. 김 양식은 일제강점기에 경남 김해에서 활발했는데 차츰 그 기술이 전라도를 거쳐 충청도 태안까지 보급되었다. 김광모는 부지런히 현장을 찾아다니며 김 양식에 대한 정보를 얻어 진산리 앞바다가 최적지라는 점을 확인하고 동네 주민들을 설득했다. 진산리 앞바다는 모래펄로 형성되어 바닷물이 빠지면 경운기 통행이 가능했다.

김 양식은 한겨울 몹시 추워야 풍년이 들었다. 대밭에 붙은 김을 손으로 훑거나 가위로 잘라 민물로 잘 씻은 뒤 칼로 다져 김발에 넣어 말렸다. 김 양식이 조금씩 발전하자 김을 다지는 기계가 보급됐는데 그걸 ‘족빠’라고 불렀다. 그 뒤 기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김 포자를 붙이는 대밭은 면실 올갱이로 만든 그물로 대체되고 절단, 세척, 뜨기, 건조까지 자동화가 되었다. 1979년쯤 김 한 톨 가격은 12,000원으로 비싼 가격에 팔려나갔다. 그는 현재 김값이 그때만 못하니 엄청 비쌌다고 했다. 김광모는 들은 이야기라며 일제강점기에 김 양식하는 사람은 징용을 면제시킬 정도로 일본인이 김을 좋아하고 김 양식을 발전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김 양식을 4~5년하고 그만뒀다. 진산리 앞바다가 김 양식이 잘 된다고 소문나자 전국에 양식업자들이 몰려와 밀식하면서 조류가 원활하지 않고 병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김광모는 기본 재산도 있었지만 김 양식하여 모은 돈으로 ‘김민형’의 염전을 매입했다. 그는 당시 소금값보다 현재의 생산량과 소금값은 낮은 데 비해 인건비가 상승하여 천일염이 사양 사업이라 말했다. 전국의 염전 분포도를 보면 전남 영광, 신안이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충청도와 경기도의 염전 면적과 생산량은 20% 정도라고 했다. 충청도에서 서천, 보령, 당진은 사라지고 서산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그나마 태안에 염전이 많다고

했다.

그는 태안군 남면 조합장과 초대 태안군 의회 의원을 역임한 사람으로 성실하며 경제 흐름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염전

**김준희** (1932년생)  
태안군 안면읍 여수해길

김준희는 1932년 태안군 안면읍 승연리에서 아버지 김병석과 어머니 방 씨 사이에서 4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현재는 그가 제방을 막은 간척지, 안면읍 여수해길 126-105호 주변으로 이주해 살고 있다. 집안 사정이 넉넉지 않았던 김준희는 안면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의 농사를 거들었다. 아버지는 그가 군대 생활을 하던 스무 살에 돌아가셨다. 김준희는 자신은 배우지 못했지만, 가장으로서 동생들을 가르치느라 악착같이 돈을 벌었다고 했다.

1955년에 전역한 김준희는 25살에 결혼하고 3년 가까이 안면도 산림조합을 다녔는데 그가 하는 일은 산림감시원이었다. 그 당시 안면도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소나무를 도벌해 ‘통단’을 만들어 팔았다. ‘통단’은 장작 다발을 뜻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일제 강점기 안면도의 임야가 일본 ‘마생상점’(야소 가문) 소유로 ‘임승삼(하야시 쇼조우)’이 철저히 관리해 소나무가 잘 보전됐는데 해방 후 도벌과 남벌이 많았다고 한다. 도벌한 소나무들은 ‘통단’을 만

들어 배를 통해 군산이나 인천 등으로 팔려나갔다. 현재 안면도 송림공원 내 소나무만 당시 베지 않은 나무이고 나머지는 그 후 자란 나무다.

산림조합을 다니던 김준희는 지인의 천거로 안면해수욕장 규사(모래)를 채취해 인천 유리 공장으로 반출하는 ‘대한유리’에 취직했다. 규사는 모두 배로 운반했다. 현장소장이라는 직책이었지만 직원은 없었다. 안면해수욕장 모래를 자동차로 백사장 포구로 운반하는 운전사와 모래 운반선의 임시직 선장과 선원이 전부였다. 김준희는 20년 가까이 ‘대한유리’ 회사에 근무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안면해수욕장 모래언덕은 20여 년 동안 ‘대한유리’가 파먹고, 방포와 꽃지해수욕장의 모래는 ‘일본 놈들이 파먹었다’고 했다.

대한유리 회사를 근무하는 동안 돈을 모은 김준희는 40대 중반에 안면을 정당리 4구에 있는 염전 5정보를 매입하여 경영했다. 대한유리를 다니며 염전경영을 한 그는 염전의 구조와 소금생산에 대해 훤히 꿰고 있었다. 소금생산은 5명의 염부에게 맡겼지만, 판매는 직접했다. 그는 소금을 팔러 갈 때는 배를 빌려 군산의 ‘짜보’선창이나 강경의 ‘작은여’로 싣고 갔는데 당시 소금은 전매품이라 배짱 없는 사람은 함부로 팔지 못했다. 기골이 장대한 김준희는 1960년대 서산과 태안의 건달들도 자기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고 자랑했다. 그 당시 정당리 주변의 염전은 안면도 사람 ‘김병률’, 경상도 사람 박 씨, 대구 사람 ‘김운화’가 제방 축조를 해서 염전을 만들었다.

김준희는 ‘대한유리’를 퇴사한 1975년쯤 간척사업을 하느라 염전을 매각했다. 그가 간척 사업에 집착한 연유는 그 당시 안면도에 간척사업 바람이 불었기 때문이었다. 정당리 주변에는 ‘성철호’, ‘박관웅’, ‘박은태’, ‘송완섭’ 등이 원을 막아 농경지로 혹은 염전을 개설했는데 김준희는 그게 부러웠단다. 원을 막아 농토를 만들면 죽어서도 ‘아무개가 막은 땅’이라는 이름은 남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염전을 팔았어도 돈이 부족해 죽을 고생을 했다. 당시 공사비가 1억 몇 천만 원 들었는데 생각하기도 싫다며 웃었다. 김준희가 간척 사업을 한 곳은 예전에 자염을 만들던 갯벌이었다. 그는 자염에 대해서도 소상히 알고 있었다. 정당리에서는 1950년 중반까지 자염을 만들었다며 자세히 설명했다.

현재 김준희가 사는 집 앞 간척지 면적은 80정보(240,000평)다. 그가 1977년 간척 허가를 내어 바다를 막은 땅이다. 1981년 6톤짜리 덤프차 여섯 대와 인부들의 힘으로 4년에 걸쳐 제방축조를 완공했지만 제대로 농사지를 수 있는 땅이 되기까지는 10년이 지나야 했다. 1



년에 모내기를 두 번씩 했어도 농사를 실패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는 안면도와 고남면의 대단위 간척사업 역사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었다. 천수만을 바라보는 정당리 109번지 90만 평 간척지는 안면도 사람 ‘정 씨’가 이북에서 내려온 대한청년단 단장 ‘유수복’과 같이 관청에 억지를 부려서 밀가루 공사로 막았고, 고남면의 현재 두산개발이 매입한 간척지는 ‘고무공장 사장 군산사람 정동근’이 600,000평을 막았고 승언리 ‘진태구’ 부친도 450,000평을 막았지만, 안면도에서 가장 넓은 간척지는 대야도 부근 ‘모성곤’이 막은 땅이라고 했다. ‘모성곤’이 막은 간척지 면적은 무려 700정보(2,100,000평)였다. 김준희는 그 원을 막을 때 모성곤이 자비로 막은 게 아니라 어떤 교회에서 밀가루를 쥐서 막았다며 지원한 데가 미국의 ‘유섬’이라고 말했는데 그 뜻은 잘 몰랐다. 당시 안면도 사람들은 광천에서 밀가루를 실은 배가 매일 드나들어 밀가루로 원을 막아도 몇 개를 막겠다는 말이 돌았다고 했다. 밀가루를 빼돌렸다는 뜻이었다. 김준희는 간척사업으로 생긴 땅은 주민들에게 분배해야 했는데 그마저도 흐지부지한 거로 안다며 그 시절은 참으로 어수룩했다고 말했다.

그에게 일제 강점기 이야기기를 물으니 일본인 선생 ‘구마모도’가 친척 집에서 하숙한 것과 ‘가와베끼’라고 소나무 껍질을 톱질해서 깡통에 송진을 받은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6.25의 기억은 안면도에 인민군이 몇 들어왔는데 키 작은 군인이 긴 장총을 메고 다닌 것이 생각난다고 했다. 전쟁 당시 안면도에도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우익이 좌익을 죽이고 도망가자 좌익이 우익에게 복수하느라 죽이고 다시 우익 세상이 되자 부역자들을 빨갱이라며 죽였다고 했다. 그때 안면도가 조선의 ‘모스코바’였다고 회상했다. 그는 그 당시 안면도에 부자가 많아 서산 읍내보다 대학생이 많았는데 전쟁 때 빨갱이로 몰려 아까운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안타까워했다.

김준희가 원을 막은 간척지 대부분은 주민들에게 팔고 현재 자신과 아들들이 소유한 땅은 60,000평 쯤 된다고 했다. 그는 동네 사람들이 저 땅은 ‘김준희가 바다를 막아서 만든 간척지다’라는 말을 아무도 하지 않아 서운하다며 자신이 무모한 짓을 해서 고생만 했다고 웃었다. 그는 40여 전에 사비로 조성한 간척지가 옥토로 변해 벼가 익어가는 들판을 바라보며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가장으로서 책임감에 이를 악물고 세상을 살았다고 6남 1녀 자식들을 다 공부시킨 게 큰 보람이라고 했다. 김준희는 박사학위를 받은 아들을 자랑스러워했다.

●  
태안군  
남면 진산리  
염전



**문관모** (1934년생)  
태안군 남면 몽산리

문관모는 태안에서 47년 동안 염부생활을 한 현존하는 최고령자다.

그는 1934년 태안군 남면 몽산리 1구에서 아버지 문석영과 어머니 박 씨 사이에서 6남 2녀 중 4남으로 태어났다. 본향이 남평인 아버지는 몽산리(몽대)가 세거지(世居地)고 어머니는 남면 신온리 태생이었다. 농사를 짓던 당시 그의 가계는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가난했다. 문관모는 영특했으나 가정형편으로 남면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했다.

1953년, 19살이 되던 해 문관모는 남면 진산리 염전 ‘천우사’에 염부로 취업했다. 천우사는 안면도 고남면 사람 ‘윤주병이’ 사업주였다. 그는 고남면에도 염전을 소유한 소금 부자였다. 150정보(450,000평)의 간척지는 해방 직후 ‘구문도’라는 경상도 사람이 제방축조를 했는데 윤주병이 간척지를 매입하여 염전을 만들었다. 문관모는 염전을 만드는 걸 ‘염판 뜬다’고 표현했는데 18살 때 그 일도 다녔다고 했다. 천우사 염전의 면적은 대략 50,000평으

로 6호까지 염판을 만들었다. 다른 염전보다 각호의 면적이 넓은 편이었다. 천우사 염전 외의 간척지 안에는 묵히는 땅이 많았다. 갯벌의 조건이 모래가 많거나 육수가 흘러 염판 만들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염전의 구조는 태안의 다른 염전과 비슷했다. 바닷물을 가두는 저수지와 1차 증발지 ‘난치’, 2차 증발지 ‘느테’로 구분되었다. 염전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주인은 사업주, 관리자는 염부장, 각호의 책임자는 호장, 난치와 느테에서 바닷물을 증발시키고 물꼬를 담당하는 염부는 ‘난치빠또’, 소금을 굵을 때 잠시 거드는 사람은 ‘채렴부’, 막일하는 사람은 ‘벌염부’라 불렀다. 그 당시 천우사의 염부 숫자는 20여 명 정도였다. 채렴할 때는 따로 일꾼을 동원했다. 문관모는 호장을 12년 했다.

문관모는 소금을 만드는 과정과 토판 소금 세척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저 위 난치서부터 갯물을 대기 시작하면 그눔이 줄어들어. 그게 갠(간)수라구. 그눔이 오너서는 이짜저짜에 결정지라구 있거덩. 거기에 오면 갯물이 22도, 21도 되어. 그러면 소금 되거든. 그눔을 이만한 포강만씩 허게 구덩이를 파구 넣지. 뽕매루 딱 잡아가지구. 그러구서는 요건 21도다, 22도다 허면 이거 빨 때 됐다 허면은 다 빼서 결정지에 넣지. 그눔이 소금 나는 거여. 염도를 봐가며 그눔을 몰자새(수차) 있잖유, 그걸루 이렇게 사람이 올라가서 퍼서 그 칸칸이다 쪽-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 다 갠수를 담어두지. 그러면 그 뒷날 점심 먹기 시작하면 막 소금꽃이 무진장 막 일거든. 그눔이 다 짓달으면(줄이면) 소금이 하얗게 오는 거여. 그땐 그랬쥬. 그리구 토판이서 소금을 굵으면 시커머닝께 한 발 가웃되는 고무래루 쪽 잡아댕겨 메놓으면 여자들이 삼테미를 갖구 오너서는 갯물을 엮어서 찰싹찰싹 씻어. 그런 댐이 바구리에 담아서 중국 사람들처럼 목도를 메는디 바구리 한 짝이 60근이여. 양짜를 합허면 120근이지. 그걸 메구 창고에다가 쏟었지.”

1953년 당시 ‘천우사’ 염전도 소금 굵는 결정지가 토판이었다. 하얀 소금을 만들기 위해 채렴할 때 갯물(간수)로 소금을 세척했다. 소금 씻는 일은 여자들이 많이 했다. 염부에게 목도 메는 일은 가장 힘든 작업이었다. 그 당시 소금 한 가마의 무게는 60kg였다. 포대가 생기기 전이라 가마니에 담고 새끼로 사방 네 줄을 단단히 묶었다.

염부의 월급은 20,000원 정도 받았다고 하는데 문관모는 화폐개혁 이전과 이후를 혼동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쌀 한 말이면 소금 열 가마니를 살 수 있다고 했는데 그는 소

금 한 가마니가 1,500~2,000원이라고 하고 부인은 150원~200원이라고 했다. 월급 외에 ‘6 두미’라고 쌀 2말에 보리쌀 4말이 급식비로 지급되었다.

생산한 소금은 해상으로 인천과 군산으로 운반했다. 사업주 윤주병은 큰 발동선을 소유했는데 소금을 750~1,000가마니씩 싣는 큰 배였다. 염전 제방 아래 갯고랑에 밀물이 차오르면 소금 배가 들어와 소금을 실었다. 태안의 염전엔 제방과 갯고랑이 연결되었다. 이 갯고랑은 소금 배가 왕래하는 길목이고 바닷물 저수지에 유입시키는 통로 노릇도 했다. 문관모는 그 과정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소금 배가 들어오는 날이면 염부장이 땡땡 종을 쳤지. 그러면 염부들은 새벽에 모이구, 다른 날일꾼들은 조금 늦게 왔지. 소금가마니는 등태루 메 날렸지. 등태는 가마니루 밀빵을 달어 맨들었는데 그게 등에 착 달려붙어서 등짐질 허기 편했어. 소금 한 가마니씩 등태루 지구 소금창고에서 소금배루 저 날르는데, 그 족판(발판) 근느기가 쥔 심들어. 배에 근너 가려면 육지허구 배를 연결허는 큰 족판을 걸쳐 놓는데 물이 들어오면 족판이 혼덩혼덩 거러거든. 거길 근너댕겨야 허니께 발을 잘못 디디면 소금 가마니를 진 채 바다루 빠진다닝께. 나 두 여러번 물에 빠진 적이 있어.”

천우사 염전에는 염부들이 기거하는 사택이 여러 채 있었는데 비 오는 날엔 그곳에 모여 먹을 내기 화투를 늘 쳤다. 당시 ‘성병철’과 ‘조중호’라는 사람이 감독과 총무였는데 그들도 같이 어울렸다. 염부 채용과 해고를 관리하는 감독은 사업주보다 위세가 대단했다.

문관모가 염전을 다니다가 그만둔 적이 있었는데 이유는 천우사 염전의 제방이 터져서 다시 막는 기간이었다. 염전을 다니지 못하는 2년 동안 문관모는 형과 함께 작은 목선을 타고 꾸꾸미잡이를 하다가 풍랑에 겨우 목숨을 건진 적이 있었다. 밤새 비바람에 떠밀린 배가 침몰 직전 거아도 앞에서 연평도로 조기잡이 가는 중선배에 발견되어 살아난 것이다. 그 뒤 그는 배를 타지 않았고 천우사 염전이 다시 개설하자 염부로 다녔다.

문관모는 지독할 정도로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결혼해 염전을 다니면서 진산리 천우사 염전 근처 초가삼간으로 분가했는데 그 집은 다른 염부가 살다가 버린 쓰러져가는 옴팡집이었다. 그는 47년 동안 염부 생활하며 모은 돈으로 천우사 염전 귀퉁이에 묵는 미간지 땅을 조금씩 매입하여 재산을 늘렸다. 그를 두고 사람들이 ‘인민군’이라고 놀렸는데 밤에 잠 안 자고 일한다는 뜻이었다. 낮에는 염전을 다니고 새벽과 밤에 농사일해서 논 50마

지기를 장만했다.

등이 꼬추같이 굽은 문관모는 평생 염부 일과 농사밖에 몰랐다. 일제 강점기 기억은 일본어를 가르치던 한국인 선생, 말을 탄 순사, 징용 가는 사람들을 도로에서 배웅하던 광경이다. 17살에 6.25를 겪었는데 지서에서 보초를 설 때 ‘자유대원’들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마구 패면 맞는 이들이 악악- 비명 지르던 게 생각난다며 그 사람들이 빨갱인지, 누구였는지는 어려서 잘 몰랐다고 했다.

슬하에 6남매를 둔 문관모는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맛있는 것이 없다며 일만 하며 보낸 세월이 후회가 든다며, 가장 좋았던 시절은 근력 있어 논을 사고 재산을 늘리던 50대였다고 했다.

●  
**태안군  
 남면 신온리  
 의성염전**



**손 봉 진** (1931년생)  
 태안군 안면읍 곰섬로

손봉진은 태안군 남면 신온리에서 출생했고 현재도 고향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는 대단 위 간척사업 조성과 천일염전을 경영했으며 한때는 백합양식과 꽃게 수출 등 태안 어업의 중요한 역사를 직접 경험한 산증인이었다. 그는 1931년 아버지 손창옥, 어머니 김아지 사이에서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손봉진의 아버지는 신온리에서 2년간 자염 생산을 하면서 제방축조를 해 농토를 늘렸다. 손봉진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배를 한 척 부렸는데, 조기나 민어를 잡으면 서울과 군산으로 팔러 다닌 걸 기억했다. 그의 아버지는 무학이지만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당시 그의 가게는 농업과 어업을 병행하여 머슴을 두고 살 정도로 풍족했다. 그 덕택으로 명민한 그는 남면 초등학교를 나와 6년제 서산 공립중학교를 졸업했다. 그 시절 태안에서 서산 공립중학교 다니는 학생은 드물었다.

손봉진이 학교 다닐 때의 기억이다. 남면 양잠리 사는 ‘가정노’와 태안읍 사는 ‘박관호’가

아버지를 찾아와 신온리 ‘올매기’에 염전 만드는 일을 며칠 의논하더니 공사가 시작되었다. 염전을 만든 깃벌은 1938년쯤 간척사업을 하고 10여 년 묵힌 땅이었다. 면적이 10정보(30,000평)쯤 됐는데 염전 공사를 시작한 지 2년 만인 1949년쯤 첫 소금을 굶었다. 4~5년 뒤에는 태안의 ‘김언석’와 ‘김민형’이 주변에 10정보(30,000평)씩 염전을 개설하기 시작했다.

손봉진은 당시 염전 일을 하지 않았지만 염판의 구조와 천일염의 생산을 잘 알았다. 그는 염전을 측량하고 증발지와 결정지 칸을 만드는 걸 ‘염전 뜬다’라고 말했다. 장비가 없던 시절이라 염판 뜨는 일은 모두 인력으로 ‘평떼기’를 했다. 평떼기는 가로세로 여섯 자(6척), 깊이 여섯 자(6척) 흙을 떠서 지게로 옮기는 거라고 했다. 이 방식으로 염판 바닥을 돌거나 파내어 판판하게 만든 뒤에 발로 밟아서 증발지와 결정지를 만들었는데 각호의 면적은 5,000평 정도였다. 신온리에는 깃벌의 조건이 좋아 그 후 크고 작은 염전들이 생겨났다. 손봉진도 1968년경에 5정보의 염전을 소유했는데 1년 정도 경영하다가 꽃게 수출사업을 하기 위해 매각했다.

손봉진은 20살이 되던 해 안면도 창기리 태생인 장석분과 결혼했다. 그가 결혼하고 6개월 뒤에 6.25 전쟁이 나고 1년 후에 군에 입대했다. 5년 동안 군대 생활을 마친 그는 고향에 돌아와 마검포에 60정보(180,000평)의 백합양식을 3년 동안 했다. 종패는 군산의 ‘오식도’에서 가져왔는데 장마철에는 손톱만한 백합 종패가 산더미처럼 쌓여 가마니에 퍼 담아 배로 실어왔다고 한다. 그러던 중에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재건운동본부 서산군 지부 청년회장을 맡게 되었다. 그런 연고로 단합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5.16 군사혁명위원회 최고위원 ‘옥창호’를 만나게 되었다. 손봉진은 육사 8기생인 옥창호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10분 동안 면담 수락을 받은 그는 농토를 늘리는 방안과 남면 신온리 간척사업 당위성을 준비한 지도를 걸어놓고 200m의 제방을 막으면 260정보(780,000평)의 농토가 생긴다는 브리핑을 했다. 설명을 들은 옥창호는 당시 서산 군수 ‘박재복’에게 손봉진이 사업계획을 가져오면 충남도지사에게 묻지 말고 도장 찍으라고 군대식으로 지시하고 ‘이시영’ 농림부 장관에게 갈 때는 자기한테 전화하고 찾아가라고 했다. 손봉진은 그 시절 모든 행정은 군인들이 득세하는 시절이었다고 회상했다. 농림부 장관을 만나니 ‘옥창호’의 전화를 받았으며 개간 간척과장을 불러 잘 처리해주라고 지시했다. 간척사업의 허가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는데 자부담의 재원 마련과 사업자대표가 문제였다. 손봉진은 당시 신온리에서 염전을 운영하

는 재력이 '김민형'을 설득하여 대표자로 모시고 간척사업 총책임자로 일을 처리했다. 사업비는 자부담과 자조 근로사업장으로 선정되어 밀가루 공사로 완공했다. 1968년도 공사 완료 후 260정보(780,000평) 중에서 지역주민들에게 2,400평씩 토지를 분배했고 100정보는 농지가 아닌 염전 목적으로 설계변경을 했다. 그 후 김민형이 염전을 만들었는데 손봉진에게 5정보(15,000평)를 불하했다.

손봉진이 나이 서른여덟 살 때 염전을 1년 경영하다 그만둔 계기는 '오사카'에서 꽃게 유통을 하는 일본인 '가오지 마사오'라는 사람이 찾아오면서부터다. 당시 '구자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소개로 왔다는데 손봉진의 백합양식장 관련으로 추천받은 것 같았다. '가오지 마사오'는 일본으로 한국 꽃게를 수출하자는 사업제안을 했다. 그 당시만 해도 활꽃게는 상상하지 못하던 시절이었다. 일본어가 유창한 손봉진은 일본인에게 활꽃게에 대한 서적이거나 수산도감을 부탁하여 연구한 뒤 톱밥을 이용하여 꽃게를 살려서 일본으로 보내는 방법을 고안했다. 그는 백합양식장과 천일염전을 처분해 자금을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꽃게 수출 사업을 시작했다. 서울 종로에 '중도무역'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사무실을 마련했다. 당시 무역협회장은 경제부총리를 했던 '남덕우'였다.

손봉진의 중도무역은 태안에서 잡은 꽃게를 톱밥에 재워 마취시킨 뒤 일본으로 보내는 것이었다. 그는 '고도리'라는 운반선을 3~4척 보유하고 30척의 작업선을 거느려 꽃게를 잡아 오면 포장하여 일본으로 보냈다. 한동안 사업이 호황이었으나 일본이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싼값의 중국산 꽃게에 밀리고 국내 꽃게 생산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손봉진은 1979년도 전망이 불투명한 꽃게 무역업을 접었다. 꽃게 사업은 소속된 선단에게 막대한 전도금을 주는데 꽃게가 잡히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파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는 한 푼의 부채 없이 사업을 정리한 걸 다행이라고 여겼다.

그 후 1990년 중반에 '가오지 마사오'의 소개로 '고바야시 가스도시'라는 일본인이 손봉진을 찾아왔다. 소련이 해체된 후였는데 '고바야시 가스도시'가 기초과학이 튼튼한 러시아에서 기술무역업을 하자라는 것이었다. 러시아인들이 일본사람을 싫어하니 한국사람 손봉진이 수입하는 척하자라는 제안이었다. 그런 연유로 손봉진은 러시아를 10여 년 동안 왕래했다. 러시아 말도 의사소통은 했는데 지금은 겨우 인사 정도만 한다고 했다. 그는 2006년까지 그런 일을 했지만 이젠 은퇴하고 일본인들과 안부나 물어면서 지낸다고 했다. 그는 현재 보



훈처 태안지회장을 거쳐 충남지부장 직책을 맡고 있다.

1931년 태어난 손봉진은 일제 강점기 기억으로 학생들을 상대로 ‘쇼린단(소년단)’을 만들어 미군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면 ‘다깨알’이라고 부른 대창으로 찌르는 훈련을 시킨 것, 일본군 지원병 모집이 면사무소로 몇 명 배당이 떨어지면 다시 동네로 배당되고 그러면 이장이 아무개를 지목하면 지원병으로 둔갑한 이야기를 했다. 해방이 된 건 아버지를 따라 동네 반장네 갔다가 들었다. 촌 동네라 그런지 마을에서 특별히 환호했던 기억은 없었다. 6.25 전쟁 때 마을에서 벌어진 일들도 그가 1951년부터 군대생활을 했기 때문에 희미했다.

손봉진은 일제 강점기에 태어난 본인은 부유했지만 어린 시절 마을 사람들의 가난을 목격했고,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재건운동본부 서산청년회장을 맡으면서 인적교류를 넓혀 신온리에 대단위 간척사업을 진행하고 무역회사를 경영한 사람이었다. 그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읽은 문필가 ‘나쓰메’가 쓴 글 중에서 ‘인생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을 살아가면서 처세하는데 신조로 삼았다고 했다. 손봉진은 오늘날 한국의 발전은 일제 강점기, 6.25 전쟁 등을 거치며 가난 속에서도 자식 교육에 헌신한 한국의 어머니들 덕이라고 했다. 그는 태안에서 한국의 근현대사 속에서 백합양식, 간척사업, 염전, 꽃게수출 기업을 경영했던 특이한 사람이었다.

●  
**태안군**  
**남면 당암리**  
**염전**



**송용석** (1936년생)  
 태안군 남면 당암리 천수만로

송용석은 1936년 태안군 남면 당암리에서 아버지 송석환과 어머니 유순임 사이에서 3남 3녀 중 2남으로 태어났다. 여산 송씨인 아버지는 대대로 당암리에서 살았고 어머니 전주 이씨는 태안을 남산리에서 시집을 왔다. 송용석의 가정형편은 눈 7마지기과 밭이 조금 있어 겨우 식량을 해결했다. 그 당시 당암리에는 100여 가구가 살았는데 그들은 농사 외로 천수만 갯벌에서 갯것을 잡아서 생계를 유지했다. 그의 최종 학력은 중학교로 21살에 졸업했는데 학교를 늦게 다닌 이유는 가난으로 초등학교를 12살에 입학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서산시 부석면에 중학교가 개교하여 학생들을 모집했는데 송용석처럼 나이 많은 학생들이 많았다.

중학교를 졸업한 송용석은 군대를 전역하고 26살 나이에 유순임과 결혼했다. 그는 결혼 다음 해 27살에 당암리 함바위 염전을 1년 동안 다녔다. 그 당시 함바위 염전 주인은 ‘송기

순'으로 송용석의 친척이었다. 그 염전은 해방 전에 간척사업을 한 곳으로 10여 년 동안 갯벌 땅으로 묵히다가 개설한 염전이었다.

송용석이 다닌 함바위 염전 면적은 3정보(9,000평)로 작았다. 염부도 3명이었고 소금 생산량도 얼마 되지 않았다. 남면 신온리 '곰섬'이나 '올매기' 쪽에는 염전이 많았으나 당암리에는 함바위 염전이 유일했다. 그가 염전을 1년 다니다 그만둔 이유는 갑자기 다리가 아파 걷지 못해서였다. 그런 연유로 송용석은 염전에 대해 아는 건 많지 않았다. 함바위 염전도 소금 판매는 주남비 화물선에 싣고 군산 쪽으로 팔려나갔던 것과 월급은 60,000원에 쌀 2말, 보리쌀 4말 받은 것만 기억했다. 태안의 모든 염전과 같이 급식비 형식의 6두미(六豆米)를 당암리 염전도 지급했다. 당암리에 하나뿐인 함바위 염전은 송용석이 염부를 그만둔 뒤 10년 후에 폐전하고 논과 대하양식장으로 바뀌었다.

1년 투병 끝에 다리를 고친 송용석은 선원 생활을 시작했다. 그가 승선한 발동선은 선원이 4명으로 대하잡이와 갈치잡이를 주로 했다. 대하잡이는 '삼마이'그물을 사용했는데 어장은 몽산포 앞바다, 나치도, 거아도 부근이었다. 대하잡이는 봄가을에 했다. 대하가 잘 잡히는 물때는 사리 2물, 3물, 4물, 5물 때로 유속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물때가 적기였다. 대하잡이 그물 한 폭의 길이는 20m 정도였으며 배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한 배에 50폭 이상 실었다. 그물은 새벽에 놓고 한두 시간 뒤에 걸었다. 그물에 매달린 대하와 잡어는 포구에서 떼어내고 그물을 추린 뒤 새벽에 다시 출항했다.

갈치 주낙은 보리가 익을 무렵인 6월~10월이 적기로 어장은 원산도 부근이었다. 주낙 바퀴 틀에는 낚시를 200개 정도 꽂는데 '베리줄'에 2m 간격으로 낚시줄을 매달았다. 송용석은 낚시줄을 매는 줄을 '베리줄'이라고 불렀다. 길이가 400m 되는 '베리줄'을 주낙 바퀴 안에 둥글게 서려놓고 낚시는 바퀴 가장자리에 꽂았다가 배가 나가는 속도에 따라 미꾸라지 미끼를 꿰어 바다에 던졌다. 어선에 따라 다르지만, 주낙 바퀴를 30~50틀 실었다. 갈치 주낙 방법은 새벽에 주낙 바퀴를 전부 놓고 바로 걸었다. 갈치 주낙 베리줄에는 시작과 끝 지점에 흐이통(부표)을 매달은 흐이대(부표를 매달은 깃대)에 깃발을 달아 표시했다. 깃발은 어선마다 색깔을 표시하여 구분했다. 갈치잡이도 사리 2물, 3물, 4물, 5물 때로 유속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물때가 적기였다.

송용석은 대하잡이, 갈치잡이의 선원 생활을 하면서도 천수만 갯벌에서 어살, 해루질, 사

돌질을 해서 생계를 보냈다. 그는 천수만 갯벌을 ‘안개’라고 했는데 이는 마을 안쪽에 있는 바다라는 뜻이었다. 그곳에서 잡는 해산물은 ‘갯것’이라고 불렀다. 천수만 갯벌에서는 계절에 따라 해산물을 손쉽게 잡았는데 대표적인 어종이 꽃게, 갑오징어, 송어, 전어, 낙지, 소라, 곤쟁이 등이었다. 어살은 옛날엔 대나무를 쪼개 만들었지만, 송영석이 살을 맬 때는 그물로 바뀌었다. 살을 맬 방법은 갯고랑 양쪽에 50m 정도 간격으로 긴 말뚝을 박고 그물을 쳤다. 밀물에 따라 들어와 그물에 걸린 고기를 잡는 방식인데 물때에 따라 밤낮 가리지 않고 어살에 가는 걸 ‘살 물 보러 간다’고 표현했다.

해루질은 바닷물이 가장 빠지는 사리 7물, 8물, 9물때에 햇불을 들고 고기를 잡는 어로 형태다. 송용석이 사는 당암리 사람들은 해루질이 큰 부업이었다. 해루질로는 꽃게, 민꽃게, 낙지, 소라 등을 잡았다. 꽃게는 물에서 날아다닐 정도로 동작이 빨라 작살로 찍어서 잡았다. 송용석은 꽃게로 계장을 담가 먹었지만, 너무 많이 잡혀서 꽃게 딱지와 게 발을 떼어 내고 짓이겨서 젓을 담가 먹었다고 회상했다. 곤쟁이 잡는 방법은 특이했다. 어살은 비슷하지만 고기가 모이는 그물의 끝부분을 ‘불뚱개’라 하는데 그 부분은 삼베로 주머니처럼 만들었다. 곤쟁이를 잡는 것도 물때나 어살 물을 보는 방법은 같았으나 바닷물이 빠질 때 갯고랑의 물을 고무래로 마구 휘젓는다는 것이었다.

천수만 갯벌은 1984년 간척사업으로 육지가 되었는데 송용석은 대포막이(마지막 물길을 막는)를 한 후 이틀 뒤 천수만 넓은 갯벌에 낙지가 구멍에서 발을 내밀어 주어 담았다며 당암리 사람들의 텃밭이 사라졌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당시 김 양식장을 했으나 어업 보상은 받지 못했다고 했다.

송용석은 일제강점기에는 어린 나이였고 6.25 전쟁 시기에는 군에 입대하여 당암리에서 일어났던 특별한 기억은 없었다. 그는 바닷가 근처에서 살아서 어업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옛날 황도에 조기잡이 배들이 많았는데 당암리에도 한 척이 있었고 부석의 창리에도 여러 척이 있었다고 한다. 당암리와 황도, 창리는 천수만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는 지역이었다. 그는 조기잡이 어선들이 천수만 주변에 몰린 건 겨울 북풍을 막아주고 배가 드나들기 편했기 때문이라며 천수만도 육지가 되고 조기 배도 사라졌으니 다 옛날이야기가 됐다고 말했다.

●  
태안군  
근흥면 마금리  
염전



송현섭 (1950년생)  
서산시 석남1로

송현섭은 1949년 충남 태안군 근흥면 마금리에서 아버지 송판경, 어머니 이정희 사이 2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여산 송 씨로 마금에서 대대로 살아왔고 어머니는 서산시 고북면 장요리에서 시집을 왔다. 송현섭의 가게는 가난했다. 어린 시절 집과 논밭을 임대해 겨우 사는 가정형편으로 초등학교를 마치고 농사일을 돕다가 20살 되던 1968년 천일염전 염부로 일하기 시작했다.

현재 마금리 지역의 염전 총면적은 40정보(120,000평)인데 분할되어 소유자 8명이 임대형식으로 소금을 생산하고 있다. 송현섭의 말에 의하면 이 염전은 해방 후인 1945경에 서산시 팔봉면 사람 ‘안상석’이 간척사업을 했고 염전은 6.25 직후 개설했다. 안상석은 일제강점기에 상업고등학교를 나와 은행을 다녔는데 친척인 토목기사 ‘안상기’를 데려와 갯벌을 막아 염전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 당시 제방을 막을 때 품 팔러 다닌 사람들은 안상석을 두고 연

필로 원을 막았다고 했는데 그 말은 배운 사람들이라 힘든 노동을 안 하고 글씨로 은행에서 돈 빌리고 측량했다는 뜻이었다.

송현섭이 처음 들어간 염전 주인은 안상석이었고 나중에는 그의 아들 안흥섭이 염전을 물려받았다. 그 당시 안상석은 5정보(15,000평) 염전 2곳을 일꾼 두고 경영했다. 하나는 안흥염전, 또 하나는 8호 염전이라고 불렀다. 송현섭은 안흥염전 1호 염판에서 염부 5명과 소금을 만들었다.

염전의 구조는 저수지, 증발지, 결정지로 나누는데 5,000평 단위로 1호, 2호, 3호로 나눈다. 각호 5,000평에서 10% 면적 500평이 결정지이고 나머지는 4,500평은 증발지로 사용했다. 결정지는 50평씩 10칸으로 만들어 함수를 담아 소금으로 결정시켰다. 증발지는 2단계로 ‘난치’와 ‘느테’로 구분했다. 증발지 면적 4,500 중 3,000평이 1차 증발지 ‘난치이고’ 나머지 1,500평이 2차 증발지 ‘느테’다. 난치는 염판을 8칸~10칸으로 나누는데 바닷물을 가둔 저수지 바로 아래 칸은 크게 만들고 계단식으로 내려가면서는 적게 만든다. 느테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바닷물을 증발시켰다. 송현섭은 염전면적을 평(坪)대신 정보(町步)로 칭했는데 이는 염업에 종사한 사람들 모두 그렇게 말했다.

송현섭은 ‘난치와 느테’는 일본말 같은데 정확한 뜻은 모른다고 태안의 모든 염전에서 사용하는 말이라고 했다. 염전에서 사용하는 호칭은 사장을 사업주, 염전 일하는 사람은 통칭 염부, 관리자는 염부장, 각호의 책임자는 호장, 난치와 느테에서 바닷물을 증발시키고 물꼬를 담당하는 염부는 ‘난치빠또’, 소금을 굽을 때 잠시 거드는 사람은 ‘채렴부’, 막일하는 사람은 ‘벌염부’라 불렀다.

안흥염전도 1960년 초 토판염전에 옹기 조각을 잇대 붙이는 ‘깜파리’를 깔았는데 송현섭은 깜파리를 ‘옹편’이라고 불렀다. 옹편을 깔면 소금에 검은 개흙이 묻지 않아 소금값을 더 받았다. 작업방식은 소금을 생산하기 전인 2월에 염판을 2~3일 동안 단단히 굳히고 그 위에 깨진 옹기 조각을 잇대어 까는데 주로 여자들이 했다. 하루 품삯을 그 당시 2,000원 줬으나 50평씩 도급을 주면 손놀림이 빠른 여자들끼리 작업하여 품삯을 더 받았다. ‘옹편’을 깔 뒤 옹기 조각이 흙에 단단히 박히게 돌로 만든 로라를 굴려 다졌다. 깜파리 결정지는 2~3년 후에는 작은 타일로 바뀌었다가 다시 검은 비닐 장판 깔았는데 현재는 모두 걷어내고 커다란 타일로 교체했다.

송현섭은 20살에 안흥염전에서 13년을 염부로 일하고 경기도 화성에서 임대염전을 1년 경영했다. 1983년 귀향하여 안흥염전에서 염부장을 3년 한 뒤 모항리의 ‘안상각’ 소유 중화염전 30,000평을 임대하여 경영했다. 그는 17년 염전 일을 마치고 30년 동안 소금유통을 하다가 2019년 다시 마금리의 폐염전을 임대하여 현재 소금 생산을 하고 있다.

1968년 송현섭이 처음 염전 일을 시작할 당시 급여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으나 쌀 1가마 반값 정도였으며 1년에 쌀 2말과 보리쌀 4말을 급식비로 받았다. 그 당시 상머슴 새경이 쌀 12가마니 정도이니 관찮은 편이었다. 염부 일은 8개월 하기 때문이었다. 식사는 염부들 스스로 해결했으며 채렴하는 오후 4시경에는 사업주가 국수를 새참으로 줬다.

그 당시 15,000평 안흥염전에서 1년 평균 소금 생산량은 50kg 포대 10,000개 정도 생산했다. 생산한 소금은 해상으로 유통됐는데 사업주 안상석은 500포대를 심는 나무배 발동선 ‘목산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가 직접 인천으로 팔러 다녔다고 한다. 목산호를 바닷물이 많이 들어오는 물때에 제방 갯고랑에 정박하고 소금을 실었는데 그 일엔 모든 염부들이 동원되었다. 가마니에 멧빵을 맨 ‘등태’를 만들어 등짐으로 창고에서 배까지 소금 한 포대씩 젖어 날랐다. 소금을 많이 실을 때는 염부 외에 일꾼을 동원했는데 1포대 얼마씩 전포로 주고 나중에 환전했다. 송현섭은 이를 두고 ‘맘보떼기’라고 불렀다. 그 당시 간척사업으로 제방을 막을 때 사업주들이 이 방법으로 임금계산을 했다고 한다. 그 후 도로 사정이 나아져 차량으로 소금을 실어낼 때는 ‘맹꽁이 차’로 불린 5톤 트럭이 다녔는데 힘이 없는 트럭이 마금리 고개를 넘지 못해 중간에 소금 절반을 내렸다가 고개 위에서 다시 실는 일을 반복했다고 한다.

소금이 잘 팔리는 계절은 가을로 김장을 담그는 ‘김장염’ 과 내년 봄에 장을 담글 ‘장염’으로 팔렸다. 소금값이 쌀 때는 6월로 사업주는 돈이 궁하여 소금 도매상에게 보관증을 써주고 예매를 했는데 대개 헐값으로 팔려나갔다. 마금리에서 최초로 간척사업하고 염전을 개설한 ‘안흥섭’이 70년째 소금 생산을 하고 나머지는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다. 현재 마금리 염전은 ‘조한양’, ‘김낙춘’, ‘김대경’, ‘이용준’, ‘여산 송씨’ 등이 소유하고 있으며 대부분 임대를 하고 있다.

송현섭은 좋은 소금은 5월 봄 소금이며 송화가루가 날리고 찔레꽃이나 아카시아 꽃이 필 때 소금이 최상품이라고 했다. 그 이유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적기 때문이었다. 결정지에 넣

는 소금물의 염도는 25~27도가 적당하며 염도가 더 올라가면 소금이 쓰다고 말했다. 가을 소금은 ‘니가리’가 생기는데 ‘니가리’는 소금의 모양이 사각형이 아니라 ‘탑새기’(부스러진 면지)같이 생겼다고 했다. 니가리 소금은 식용으로는 불가하고 테니스장, 제설용으로 판매했다.

그 당시 염부로 일하려는 사람이 많았으나 그마저도 힘이 좋아야 채용했다고 한다. 송현섭이 기억나는 일은 배가 고파서 먹을 내기 ‘나이롱뽕’을 쳐서 허기를 달렸는데 그때 막 나온 ‘삼양라면’의 맛을 잊을 수 없다고 회상했다. 그는 공부하고 싶었는데 가난하여 배우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자식들 교육에 힘을 써 아들이 카이스트를 나와 박사학위를 받고 인하대 정교수 된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이라고 말했다.





●  
태안군  
이원면  
솔향기 염전

**정갑훈** (1948년생)  
태안군 이원면 원리로

정갑훈은 1948년 1월 27일 태안군 이원면 사창1구에서 아버지 정동식과 어머니 인동 장씨 사이에서 2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가계는 조부 때 사창리에 정착했으나 집안이 가난하여 정갑훈의 아버지가 소원면 영전리로 처가살이를 갔다. 그의 부친이 처가에서 재산을 물려받아 사창리로 왔는데 머슴을 두고 살 정도로 형편이 나아졌다.

정갑훈이 14살 먹던 해인 이북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죽어 상복을 입고 학교에 갔는데 아이들이 ‘송장아들’이라고 놀렸다고 한다. 어려서 가장이 된 정갑훈은 중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원북면에 있는 교육부 비인가 ‘계도 농축 기술학교’를 2년 다니다 그만뒀다. 집안 살림과 동생들 뒷바라지를 했기 때문이다.

그는 1969년 당시 37가구가 살던 사창리에서 새마을지도자를 2년 한 뒤 이장을 3년 했다. 그 시절은 농로가 없어 농사짓기가 불편했다. 그걸 해소하고자 정갑훈은 서산 시장에서

리어카를 한 대를 사서 사창리까지 80리 길을 끌고 온 적이 있었다. 그 리어카로 새마을 사업을 했다고 한다.

정갑훈은 1972년 근흥면 수룡리에 사는 동갑내기 박명희와 결혼했다. 그의 나이 열아홉 살 때였다. 그가 이원면 내리에 있는 염전을 매입하고 소금을 생산하게 된 계기는 김 양식을 하면서부터다. 군에서 제대하고 이원면 내리 앞바다 가로림만에 전라남도 완도 사람과 동업으로 김 양식을 했는데 한 번도 수확을 못 하고 실패했다. 조류의 흐름이 맞지 않아서였다. 김 양식에 실패하고 다시 굴 양식을 시도했으나 그것도 실패해서 가산이 많이 기울었다. 그 당시 이원면 내리에 4정보짜리 염전이 2개 있었는데 그중 한 곳의 염전이 매물로 나와 사창리의 논 7마지기과 빚을 얻어 염전을 샀다. 매입가는 19,000,000원이었다. 1980년 기준으로 큰돈이었다.

사창리에서 내리로 이사 온 그는 염전 일을 배우면서 사업주 노릇을 했다. 총 4정보(12,000평) 염전의 일꾼은 사업주 정갑훈 외 4명이었다. 채렴할 때는 따로 시간제 인부를 썼다. 염전의 구조나 소금을 생산하는 방식은 태안의 다른 염전과 비슷했다. 바닷물을 가두는 저수지, 수분을 증발시키는 ‘난치’와 ‘느테’ 소금을 수확하는 결정지, 갑자기 비가 오면 염도를 높인 소금물을 모아두는 ‘해주’라는 웅덩이 등 모든 게 같았다. 정갑훈이 염전을 매입한 1980년도 즈음에는 태안의 모든 염전이 ‘깜파리’(웅편)를 걷어내고 타일을 깔기도 하고 어떤 염전은 ‘럭키 비닐장판’을 깔 때였다.

정갑훈의 염전 구조는 각호를 4,000평씩 나눴는데 그는 그걸 ‘열’이라고 표현했다. 결정지는 1차, 2차, 3차, 4차, 5차 다섯 칸으로 나누고 증발지 난치와 느테는 24칸으로 나눴다. 증발지 칸의 면적은 조금씩 다른데 저수지 아래 난치에서부터 면적의 넓이가 500평, 400평, 300평으로 100평씩 줄어든다. 이 방식은 느테도 마찬가지였다. 저수지에 가둔 갯물은 날씨가 좋으면 15일~20일 정도 지나 소금으로 결정되었다. 그는 날씨에 따라 다르지만, 저수지의 바닷물은 염도가 3%인데 매일 3% 정도씩 높아진다고 했다. 난치를 거쳐 느테까지 온 소금물의 염도가 15%쯤 되면 그 물을 해주에 가뒀다가 다시 증발지에 퍼 올리는데 그 과정을 ‘구미야기’ 혹은 ‘쌀난치’라고 했다. ‘쌀난치’는 염도가 높은 소금물을 다시 증발지에 넣는다는 뜻이었다. 옛날에는 이 작업에 수차를 이용했다고 한다. 느테에서 수분을 증발시킨 소금물의 염도가 25%쯤 되면 결정지의 염판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새벽에 소금물을 타

일을 깬 결정지로 내린다. 소금물은 오전 11시경부터 소금으로 엉기게 되는데 그걸 염부들은 ‘소금꽃이 핀다’, ‘소금이 온다’고 했다.

정갑훈의 솔향기 염전에서 현재 1년에 생산하는 소금은 50kg짜리 6,000 포대 정도인데 봄에 굽는 소금이 많다고 했다. 옛날 가마니에 소금을 담을 때는 105근, 60kg씩 포장했고 그 후에 50kg, 40kg, 20kg으로 바뀌었다. 그가 염전을 매입했을 당시 소금값은 60kg 한 포대에 6,000원으로 기억했다. 그 당시 쌀 한 가마니에 18,000원 정도 했으니 소금값이 무척 좋은 편이었다. 염부의 월급은 염부장이 420,000원, 막염부는 300,000원씩 줬다. 소금 한 포대에 6,000원이니 염부장 월급은 소금 70포대를 준 셈이었다.

염부의 명칭은 다른 염전들과 같았다. 염부장, 호장, 증발지의 갯물을 관리하는 사람을 ‘난치빠도’ 막염부, 혹은 벌염부라 하고 바닷물의 저수지 수문을 관리하는 사람을 뒀는데 그를 ‘수문지기’라고 불렀다. 품삯은 소금이나 보리쌀을 줬다. 염전에서 사용하는 도구는 증발지를 다지는 ‘로라’, 증발지와 결정지의 물꼬를 막았다가 여는 ‘가구리’, 염판 독에 송판으로 잇대는 ‘가마테’, 소금 굽을 때 사용하는 ‘대패’, 염판의 물청소를 하는 ‘곰배’라고 부르는 ‘밀대’, ‘수차’, 소금을 운반하는 ‘목도’, ‘소금바구리’, 염도를 측정하는 ‘뽕매’, ‘저울’ 등이 있었다.

이원면 내리 인근의 염전 역사에 대해서 정갑훈은 기억나는 대로 말했다. 1955년도쯤 이원면 사람 ‘안홍순’, ‘양승열’, ‘김능규’, ‘김홍동’, ‘차이낙’ 등이 원을 막아서 염전을 만들었다. 정갑훈이 매입한 염전은 ‘안홍순’이 원을 막아서 만든 염전이었다. 내리 옆에 오정판이라는 염전이 있었는데 누가 원을 막았는지 기억은 없고 면적이 5정보라 하여 오정판이라고 불렀다. ‘가느실’과 당산 4구 ‘두에기’에도 안홍순이 만든 염전이 있었다. 그는 원을 막고 염전을 뜨는 사업가였다. 장구섬에는 ‘김능규’가, 벗가리 마을에는 ‘박운영’이 300,000평 원을 막아 염전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일부만 소금을 생산한다고 했다. 이원 내리, 만대, 당산리 등에 있던 염전은 거의 사라지고 지금은 두어 곳밖에 남지 않았다.

요즈음 생산하는 소금은 육로를 통해 유통하지만, 옛날엔 내리 근방에서 생산한 소금은 ‘주냄비’라는 화물선으로 해상유통을 했다. 배가 냄비처럼 움푹 파져서 ‘주냄비’라 부른 화물선에 소금을 1,000가마니씩 싣고 인천으로 갔다고 한다.

염부들의 애환이 담긴 이야기도 많았다. 염부 얼굴이 햇볕에 그을려 피부가 검은 걸 두고

‘염한이 고기도 먹느냐?’, 비가 오면 염부들은 집에서 염전으로 달려가는 걸 두고 ‘소는 들여 매도 염부는 내 맨다’, 자린고비처럼 짠 사람을 두고 ‘해주’, 염부들이 온종일 염전 일하고 집에 오면 피곤해서 쉬는 걸 두고 ‘염부는 게으르다’는 말을 지어냈다고 한다.

현재 솔향기 염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주인 정갑훈 혼자였다. 옛날엔 4~5명이 소금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면적도 줄이고 일부 기계화하여 혼자 생산하고 있다. 그는 봄 소금이 좋으며 비 온 뒷날 굵는 소금이 최상품이라고 했다. 봄에는 해가 길어 기온이 올라가고 밤이 짧아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없기 때문이란다. 송화가루 소금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정리했다. 소금은 햇빛과 바람이 만들지 송화가루가 만들지 않는다. 다만 송화가루, 짚레꽃 필 때가 딱 소금 만들기 좋은 계절이라 생긴 말이라고 했다.



•  
태안군  
이원면 포지리  
염전

**조완호** (1935년생)  
태안군 이원면 굴항2길

771

조완호는 1935년 태안군 이원면 포지리에서 아버지 조재탁, 어머니 지씨 사이에서 7남매 중 2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말대로 이원면 포지리는 평양 조씨 못자리였다. 어머니는 지곡에서 시집왔는데 지곡과 포지리는 기로림만 바다 건너 마주 바라보는 지역이었다. 조완호의 가게가 기운 건 아버지 때부터였다. 조부는 벼 50석 하는 마을에서 부자 소리를 들었지만, 평생 일을 멀리한 아버지가 탕진했다고 한다. 그의 아버지는 시골 훈장이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자식들은 글을 가르치지 않았다.

조완호는 체구가 작아도 배짱이 세고 성깔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염전 일을 하지 않았으나 자염과 천일염에 대해서는 만드는 방법에서부터 간척사업을 한 내용까지 자세히 알고

있었다. 일제 강점기에 이원면 포지리 굴항 골짜기 앞 깎벌에서도 자염을 구웠다. 염벚주<sup>1)</sup>는 조완호의 숙부였고 일가친척들이 모여 갈 들어서 소금물을 만들었다. 동네 사람들도 개흙을 말려 소금물을 만들어 끓이는 일을 품앗이로 했는데 조완호는 개흙을 말리는 일을 ‘갈 들인다’, ‘갈 젖는다’고 표현했다. 당시 그의 집은 큰 황소를 키워 개흙 말릴 때 썰레질을 시켰는데 성질 사나운 황소를 다루는 건 어린 조완호뿐이었다고 한다. 가마솔이 걸린 염벚은 하나였는데 갈통(통자락)은 다섯이었다. 큰 갈통에서는 소금물을 많이 만들어 가마솔에 세 번씩 소금을 끓였다.

그는 자염 한 섬의 무게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자염은 섬에 4말(斗)로 담아서 팔았기 때문이다. 자염을 담은 섬은 벼를 담은 섬과 달리 작았다. 섬의 크기는 높이 1m, 넓이 40cm로 네 줄의 날줄을 놓고 짚으로 엮어서 만들었다. 그는 당시 자염값이 쌀값보다 조금 비쌌던 거로 기억했다. 포지리에서 자염이 사라진 건 6.25 직후였다. 자염을 만들던 깎벌에 간척사업을 하여 천일염전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포지리 천일염전은 1954년경 서산 사람 ‘이석구’와 ‘심성기’가 제방을 축조해서 만들었다. 조완호는 염부로 일하지 않아 정확한 면적은 몰랐다. 원을 막을 때는 품을 팔러 다녔지만, 당시 하루 품삯은 기억하지 못했다. 그때 나이 17살이었다. 간척사업은 건설 장비 없이 인부들의 지게질로 막았다. 인부들은 이원면 사람들 외에 다른 지역 사람들도 많이 동원되었다. 원을 막은 뒤 1년 동안에 염전을 만들고 소금 생산을 시작했는데 염전의 구조는 저수지, 증발지, 결정지, 해주 등으로 태안의 다른 염전과 비슷했다. ‘이석구’와 ‘심성기’가 운영한 포지리 염전 주변에는 서산군 대산면에 살던 ‘김동운’이 막은 염전도 있었다. 포지리에서 이원면 토박이는 염전을 못 만들고 다른 지역 사람들이 만든 이유는 재력이 없어서였다.

포지리 염전에서 생산한 소금은 ‘주냄비’라는 화물선을 통해 인천으로 실어냈다. 그 당시 소금 한 가마니 무게는 60kg씩 포장했는데 주냄비는 1,000~2,000가마니를 실을 정도로 큰 배였다. 염전 앞 ‘백구지’라는 깎고랑에 사리 때 바닷물이 만조가 되면 주냄비가 소금을 실으러 왔다. 그는 염부로 일하지 않아 포지리 염전의 1년 소금 생산량이나 소금값, 그 당시 염부의 월급에 대해선 알지 못했다. 1954년부터 소금을 생산하던 포지리 염전이 폐염전이

1) 소금가마의 주인

된 건 이원간척지가 막혔기 때문이다. 2009년 완공된 이원간척지는 총면적이 1,199정보(3,597,000평)로 엄청난 넓이었다. 바닷물 유입이 차단됨으로써 이원면 포지리 주변의 천일염전은 모두 폐염전하고 토지 보상을 받았다. 1930년대부터 20여 년 동안 자염을 만들었고 그 후 50여 년 동안 천일염을 생산했던 염전이 사라진 것이다. 그는 자염과 천일염의 맛을 비교했을 때 천일염을 하등소금이라고 평가했다.

조완호는 생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염부 일을 하지 않은 건 다른 사업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23살 때 중고 수동식 솜틀 기계를 구하여 솜틀집을 차렸다. 당시에는 솜이 불을 덮고 솜바지 저고리를 입던 시절이라 모든 집이 겨울이면 솜을 틀었기 때문에 수입이 좋았다. 그는 솜틀 작업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솜틀은 발루 밟아서 돌리는데, 목화 새 솜이나 혼 솜을 솜틀 위에 뚫린 구멍으로 맥인단 말이며. 그러면 기계 속에 둥그는 톱니가 세 개 있거덩. 발루 솜틀을 밟으면 곰배팔이가 있어서 그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허다가 자전거 바퀴처럼 된 걸 밟으면 좌르르르르 허구 돌지. 그렇게 허면 솜이 복닥복닥하게 폐진단 말이며. 그놈을 끄내서 자리를 깔구 토닥토닥 얇게 펴갓구 방맹이루 김밥을 말듯이 밀어서 말어. 그런 다음이 발루 자근자근 밟았다 피면 솜이 종잇장같이 얇어지디. 그걸 가지구 이불솜두 허구 바지저고리에 솜을 두는 거여. 그런디 제일 곤욕스러운 게 오줌을 싸서 지린내 나는 솜과 이허구 서캐가 드글드글허는 솜을 타는 거여.”

조완호는 솜틀 3대를 운용하여 한해에 집 근처 임야 7정보를 샀다고 했다. 일제 강점기의 기억은 쌀을 공출로 빼앗기고 콩깎묵(대두박)을 배급받아 먹은 것, 지서에 잡혀갔다 온 어른들이 소 자지로 만든 쇠쫓매를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6.25 전쟁 때 이원면에는 남로당이 많았는데 다 배운 사람들이었다. 그는 이원면 남로당 책임자 ‘이주필’ 집에서 심부름했는데 전쟁이 터지자 경찰이 피난 가면서 그들을 끌어다 태안의 ‘환동부자’ 집 근처에서 죽여 불태웠다. 포지리 3구에 사는 ‘삼탱이’는 ‘조종호’라는 남로당원이 도망 다니다 배고프니까 밥 좀 달라고 해서 보리밥 한 덩이 주고서 빨갱이로 몰려 죽었다고 했다. 그에 게 6.25는 꿈쩍한 기억이었다.

그는 젊어서 부천에서 한 번, 군대 생활 하던 중 파주에서 한 번, 총 두 번 돈 보따리를 주었는데 금액이 논 몇 마지기 값이었다. 그 돈을 아버지와 형님께 보냈는데 다 탕진해서 많이

다뤘다고 했다. 솜들집을 하여 번 돈으로 매입한 임야도 아버지와 형님이 자신 몰래 팔아서 썼다며 자기를 뜯어 먹은 사람들이라고 원망했다. 그는 아버지와 형을 욕하면서도 일찍 죽은 형 대신 조카들을 건사했고 결혼까지 시킨 사람이었다.

이원간척지가 막히기 전에는 대섬 앞에 어살을 매고 굴양식을 하여 소득을 올렸다. 고기가 흔한 시절이라 어살에는 고기가 많이 들었다. 어느 해 봄에 송어가 어살에 얼마나 들었는지 밤새 지게로 져 날랐다고 했다. 잡은 고기는 인천과 태안 읍내 장사꾼들에게 팔았다.

조완호가 가장 슬펐던 일은 1년 전 아내의 죽음이었다. 50년을 의지하며 산 아내가 투병 끝에 그의 무릎을 베고 임종하는 순간 ‘힘든데 그만 눈을 감으라’고 하니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숨을 멎었다고 했다. 그는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며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사람이 죽을 때 귓구멍이 제일 낭중이 죽어.’





•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염전

진태구 (1945년생)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775

진태구의 본향은 ‘여양’이다. 시조가 중국에서 건너와 무공을 세워 임금의 ‘여양군’으로 봉하고 홍성군 장곡면 여양에 땅을 하사하여 살았다고 한다. 그의 가게가 안면도에 정착한 건 증조부 때부터였다. 증조부는 개성에서 큰 인삼장사를 했다. 조선 말기 나라가 혼란스러워지자 목포 쪽으로 이사하기 위해 배 두 척에 가솔을 데리고 서해로 향해 중에 증조모의 해산이 임박하여 안면도에 잠시 정박한 게 계기가 되었다. 방포항에 정박했던 증조부는 안면읍 승언리 소재지에 집을 사서 아예 정착했다. 1898년의 일이다. 그 집에서 조부, 아버지, 진태구, 자녀가 태어나 성장했다. 그의 가게는 증조부, 조부가 인삼장사로 부를 축적했고 아버지는 간척사업과 염전으로 안면도 부자가 되었다.

그는 1945년 아버지 진승균, 어머니 이열우 사이에서 3남 7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어머니의 친가는 가까운 고남면 독립지사 ‘이종헌’ 선생의 따님이었다. 진태구의 가게는 대가족

으로 아버지는 5남 2녀 중 장남이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집안답게 일찍 자녀교육을 해 진태구의 숙부와 형제들은 사립학교와 기업체를 몇 개씩 소유하고 있다.

진태구는 안면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에서 삼성고등학교를 거쳐 건국대를 졸업했다. 1966년 육군 의무병으로 입대하여 베트남전에 지원했다가 1968년 전역했다. 1972년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던 진태구는 아버지의 권유로 안면도로 귀향했다. 당시 아버지는 많은 농토와 염전을 소유하고 있었다. 아버지 진성곤은 자염(화염)을 만들었는데 동생의 권유로 염전사업을 하게 됐다. 진태구의 숙부는 일제강점기 만주대학을 나와 신문기자를 했는데 앞으로 자염은 사라질 것이고 천일염을 소비하는 세상이 올 거라는 말을 염두에 뒀다가 후에 천일염전을 개설한 것이다.

진태구는 귀향해서 첫 번째로 고남면 사기점에 있는 10정보(30,000평) 염전에 해수 유통로를 만드는 일을 완성했다. 그 염전은 해방 전에 축조한 간척지에 6.25 전쟁 이후 염전을 개설했는데 고남면에 사는 ‘모성곤’이 제방 아래쪽에 대단위 간척사업을 하면서 해수유통이 안 되어 소금생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일로 훗날까지 진승균과 모성곤은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다.

진태구 가게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했다. 그도 대학 시절엔 조정선수로 활동했으며 방학에는 고향염전에서 염부들과 어울리며 소금가마를 메어 날랐다. 그는 소금생산을 직접 안 했지만, 증발지와 결정지의 원리에 관해 소상히 알고 있었다. 사기점 염전에서 생산한 소금은 해상으로 유통했다. 당시 ‘영보호’라는 배를 소유했는데 60kg 소금가마니 1,200개를 실을 정도로 큰 배였다. 그는 방학 때 염부들과 배에 소금을 메어 나르던 걸 회상했다.

“내가 염부들과 소금가마니를 묶는 거나 배로 소금 메어 나르는 내기를 해도 안 졌어요. 힘이 좋았으니까. 소금을 메고 배로 건너다니는 쟁반(널판)을 타면 그게 출렁출렁해요. 반동을 타지 않으면 바다에 떨어져요. 소금가마도 잘 던져야 해요. 모로 던지면 소금가마가 터져요. 목도는 어깨 아파서 못 뗏어요. 물지게로 메는 목도는 많이 해봤죠.”

그 후 진태구의 염전 면적은 차츰 늘어나서 가장 많았을 때는 23정보(39,000평)로 염부를 25명쯤 두고 소금을 굶었다. 염전 관리는 아버지가 했으므로 진태구는 당시 소금값이나 염부들 월급은 알지 못했다.

진태구는 1987년 마흔두 살 나이로 서산 수협조합장에 당선되어 4선을, 2001년 태안군

수로 당선되어 3선을 했다. 그가 공적인 일에 관심 둔 계기는 안면도에서 생산한 김이 장사꾼 농간으로 헐값에 판매되는 걸 보고 위판장 유치를 하면서부터였다. 그는 서산 수협조합장을 하면서 기억나는 일은, 어업 면세유 지급전표를 각 마을 어촌계장이 발행해서 어민들 편리를 도모한 것, 해수부에 건의하여 선장 면허를 문맹자에게는 면접시험으로 취득하게 한 것, 또 합격자들이 부산에서 일주일씩 교육받았는데 이를 순회교육으로 바꾸게 한 걸 꼽았다. 어민들의 불편을 해소한 시책들은 매년 각 어촌계를 돌아다니며 어민들과 대화를 나누게 자산이 되었다고 했다.

태안군수 재직 시절 기억나는 일은 2017년 태안 기름 피해였다. 특별법 제정 입법으로 한 달 동안 국회로 출근하다시피 했는데 낮엔 국회에서, 밤엔 태안군청을 오갔다며 잠은 차 안에서 잤다고 했다. 많은 국회의원을 만나 특별법 제정 도움을 요청했는데 당시 강원도 원주 국회의원 ‘이계진’은 세금을 왜 태안군에만 쓰냐고 단칼에 거절했고, 제주도 국회의원 김은환, 홍성 국회의원 홍문표가 도움을 줬다고 고마워했다. 그러면서 아나운서 출신인 우리 지역 국회의원은 별 도움이 안 됐다고 쓴소리를 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을 찾아가 태안군민 생계비 지원을 요청해 300억 원을 확보했는데 그 돈이 도청에서 잠자고 있어서 군민들의 원성을 자기가 다 받았다고 했다. 그는 처음에는 그 300억 원이 몽땅 태안군에 생계비로 지원하는 줄 알았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여러 시군에 배분할 할 돈이라 애로가 많았다고 회상했다.

“중앙정부에서 300억 원이 내려왔으나 충남도가 나누지 못하는 거야. 각 시장, 군수가 서로 더 차지하려고 막말로 비렁이 자루 찢듯이 싸움하는 바람에. 도지사는 입장 곤란하니까 기름 피해현장을 다니며 방송 인터뷰나 하고. 태안에서 음독자살과 분신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중앙정부에서 도지사한테 난리를 친 거예요.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래서 시장 군수 회의를 하는데 서산시장이 자기들도 피해를 봤다며 돈을 더 달라고 알밋게 간죽 거러서 내가 문을 박차고 나가며 소리 질렀죠. 태안은 안 가져갈 테니 너희들 다 처먹으라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태안이 70%, 다른 시군이 30%로 배분됐어요.”

진태구는 아쉬운 점으로 생계비 배분에 불만을 품은 원북면 주민 한 사람이 회의 석상에 손가락을 잘라 던지는 일이 발생한 걸 두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킨다는 것이 지도자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걸 절감했다고 말했다. 그밖에 바다목장 사업을 유치하여 이원면

만대에서 고남면 영목 앞바다까지 태안군 연안에 인공어초를 설치하여 어민 소득을 증대시킨 일, 중앙정부 예산 700억 원으로 태안읍 소도시 가꾸기 사업에서 태안시장과 읍내 도로 개설, 하수도 정비, 소방도로 확장 등을 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진태구는 태안의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삶은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거라며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으니 주체적인 삶을 살기를 권했다.

## 구술자 목록

### 천안동남구

강규임	29
김영심	20
김정집	61
이무영	41
이영복	35
이정길	56
이충용	46
차용제	51
채희철	24
황규민	16

### 천안서북구

민의동	90
심재호	73
오병상	96
이흥규	84
임명순	115, 121
조재욱	68
황서규	101, 109
황영선	78

### 공주시

김무길	164
김성욱	152
김영재	160
김용순	136
김임재	164
김정식	148
김희환	156
박태규	132
박흥래	156
서동복	140
신종철	144
양영석	168
오세봉	160
유응균	140
이상구	152

이은재	136
이제철	128
임재진	148
정기영	144
조영일	168

### 보령시

김기창	192
김동균	203
김동진	209
김명울	224
김성용	214
김인선	220
김정의	228
서광문	188
이기복	183
이종분	228
최쌍신	224
최종설	174
최종찬	178
한상욱	198

### 아산시

김동천	234
김준배	237
김학근	241
박한철	245
석성수	248
유문식	251
유재봉	255
이재용	259
이종식	262
조국형	265
최영채	268

### 서산시

김영기	294
김종현	289

김평강	315
리승만	285
민형익	272
박정자	280
박중래	303
안기란	299
하광예	311
한기송	276
한준자	307

### 논산시

권선옥	337
김남수	322
김종욱	364
김현숙	347
김희직	342
박응진	359
박점자	355
박춘화	332
윤두식	327
윤여익	351
정은수	368

### 계룡시

김광수	414
김기중	419
김영덕	399
김용식	384
김필화	409
김홍순	379
박찬원	394
안중천	419
육종신	404
이기열	374
하태일	389

**당진시**

강순식	430
김기용	438
김상래	426
방우진	455
손종길	448
안명수	445
이정호	452
임의규	434
정종선	442
차재석	458

**금산군**

강복상	471
길옥순	482
박만철	498
박현순	494
손동연	462
송하성	503
신순분	490
윤영석	477
이종열	466
최창환	486

**부여군**

강병구	510
류재훈	524
박창신	557
유병기	538
이봉배	549
이재봉	533
임병준	543
전득길	561
지상철	515
최준수	529
한상교	553
현생돈	519

**서천군**

나한백	578
박미옥	575
박수환	588
박진순	581
방연옥	572
신춘섭	566
양만규	581
오천환	585
윤주열	596
이정규	569
임은순	599
홍경자	592

**청양군**

강원형	626
곽덕근	622
김근수	622
김승제	639
김용봉	613, 618
김창환	622
김한제	613, 618
김홍복	635
박순정	626
우종실	630
윤경학	604
윤동원	608
윤병두	639
윤인원	635
윤정근	630
이창무	630
전동진	635
전성근	639
전쌍진	626
천원필	608
한근수	604
한상봉	643
한상일	618

**홍성군**

박순표	656
박영길	648
유효동	660
이상형	652
임태환	671
장영기	675
장효진	683
최진복	679
최현구	663
황선봉	667

**예산군**

곽순자	701
김경옥	715
김명수	720
김태정	730
문한숙	725
박원옥	697
유화용	706
장수일	693
한미순	710
한창흠	688

**태안군**

국석환	736
김경태	740
김광모	745
김준희	749
문관모	752
손봉진	756
송용석	760
송현섭	763
정갑훈	767
조완호	771
진태구	775

2020 근현대 구술채록사업

## 충남, 잊혀진 시간을 말하다 2

---

발행일 | 2020년 12월 30일

발행인 | 유환동

기획 | 조남민

편찬위원 | 조성오, 이종석, 최창석, 황의호, 정종호,  
편세환, 권선욱, 유장식, 장 호, 정찬국,  
이관우, 임호빈, 김종욱, 정낙추

감수 | 한동현, 홍제연

행정지원 | 김상희, 조민영

발행처 |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별관동 209호

전화 | 041-635-9102~3

편집인쇄 | 대한인쇄사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홍성천길 84

전화 | 041-632-3390

I S B N 979-11-89097-08-0

|비매품|

2020©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이 책은 충청남도의 지원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

이 책의 원고와 사진은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와 사전협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충남, 잊혀진 시간을 말하다

### 2

우리나라의 근대(近代)는 일반적으로 대한제국부터 일제강점기까지를, 현대(現代)는 광복이후 지금까지의 시기를 뜻합니다. 따라서 근·현대사라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대략 130여년 전후에 일어났던 우리나라의 역사를 칭하는 말이 됩니다.

30년을 1세대로 본다면 4대(부모-조-증조-고조)에 해당하는 세월입니다. 즉, 부모(父母)에서 고조(古祖)때까지 제사를 모시고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며 지난 그시절 이야기를 듣는다고 가정하였을 때, 서로 이해가 되는 가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근현대사는 지금 아니면 곧 잊혀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 발간사 중

